	등록일	제목	내용	작성자	삭제여부
1	44939.24236	싹물갈이 해야됨, 나경원 유승민 전부다	얼마나 힘들게 이룬 정권교체인데깜도 안되는것들이 자기정치욕심인가난지금 윤대통령 스타일이 너무맘에든다 거침없고 두려울거없는 행보박대통령 탄핵후 5,6년간 보수가 얼마나 지리멸렬하고 맘고생했는지....지금 국힘내 인물로는 당 존립자체도 위험하지 다들 인정하잖아요내각에 있는 권영세 원희룡 한동훈 총선때 차출되고 세련되고 힘있게 가야함기존 기회주의적 구태들은 싹다 쳐내야함 나경원 유승민 이준석류...등윤대통령 기치아래 당정청 한몸같이가야 총선 이기고 정권연장함싹다 쳐냅시다 당 튼튼하게 만듭시다	진형구	
2	2023-01-13 15:35	이참에 나경원 정치생명 끊어버립시다	지긋지긋합니다 내부총질하는 기회주의자들 윤심이 누구인지 다 확인됐으니 전당대회때 1차투표에서 과반 만들어당대표 선출해버리고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싹다 내치고 이준석도 공천주지말고 정리합시다잡종들 확 정리해버립시다	진형구	
3	2023-01-13 22:34	나갱원 지지자들 보거라	나경원 지지자? 그런게 어딨냐민주당 지지자겠지 ㅋㅋㅋㅋㅋㅋ아 ..준석이 승민이 찌꺼기 좀 있겠구나	진형구	
4	2023-01-14 8:20	김기현 32.5% 나경원 26.9%	https://m.nocutnews.co.kr/news/5879742드디어 역전나옵니다책임당원은 더 벌어질겁니다 반드시 압도적으로 당선시킵시다 나경원 유승민 이준석 out !!!!!!	진형구	
5	2023-01-15 12:00	동작 을 당협위원장 발표해서 나준석 떡권야됨	이제 나준석은 끝났다고 당원들한테 알려야 됨	진형구	
6	2023-01-15 13:04	쓰레기들이 나경원한테 다 붙었네 ㅋ	인간같지않은 쓰레기들이 정치더해보겠다고 ㅋㅋㅋㅋ쓰레기의 수장이 되셨구만	진형구	
7	2023-01-15 13:09	유승민 나경원 단일화 ㅋㅋㅋㅋㅋㅋ	진짜 토나오겠다 ㅋ	진형구	
8	2023-01-15 21:36	배현진 사이다 ㅋㅋ	나홀로집에 ㅋㅋㅋ	진형구	
9	2023-01-16 20:06	원내대표 안시켜준다고 울던애가 당대표가 무슨말이야	탈당하려고 폼잡다가 원내대표 안시켜준다니까 질질 울던애가 ....이런애가 무슨 철학과 신념이있겠어자리나 탐하는 구태지거기다 민주당 밥이야 완전히약점이 얼마나 많아 비웃을거리가주제파악이 안되는 얘는 버려야되	진형구	

10	2023-02-02 23:12	찰스 무성이 준석이	아 증말 혐오 드림팀이네 탄돌이 무성이 요즘 간첩이 어딨냐는 찰스 대전룸빵 준석이 이것들이 보수당을 대표한다고?책임당원분들 투표잘합시다	진형구	
11	2023-02-04 21:34	철수빠들 주접 그만까고 탈당해라	니들 필요없어 그리고 니들보수도 아니잖아 그만 꺼져라 이제 알긋지? ㅋ	진형구	
12	2023-02-04 21:50	16만명 참여했는데 안철수 3위 ㅋㅋ	1위 압도적 김기현2위 황교안3위 안철수 나 지금봤음 ㅋㅋㅋㅋㅋㅋ	진형구	
13	2023-02-04 22:58	철수 자꾸 깝치면 케비넷 연다 ㅋㅋ	폭격맞고 한강다리가지말고 적당히 깝치고 나가거라 ~ㅋ	진형구	
14	2023-02-04 23:18	신영복이 위대한 지식인, 미친 안철수	이새끼 지지하는 새끼들도 빨갱이임답은 나왔어	진형구	
15	2023-02-04 23:45	철수보고 탈당 창당 전문이래 ㅋㅋ	주위에 사람도없고 쓰고버리니 누가있누 ㅋㅋ안랩 전문정치인 쯔쯔	진형구	
16	2023-02-05 9:55	최고위원 유튜버 찍지마세요	다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이 있는겁니다유튜버들은 당내 세작들 검열을하며 당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면 되는거에요생각없이 유튜버들 찍지마세요	진형구	
17	2023-02-05 10:05	민주당 갤러리에서 안철수가 되야된다 ㅋ	친민주 커뮤니티들 요며칠 둘러봤는데이재명 민주당이 살려면 안철수가 되야된다고 하네요 분탕치고 당이 쪼개질거라고 ㅋ답 나오셨죠 누가되야 하는지...	진형구	
18	2023-02-05 10:22	윤통, 안철수 겨냥 '국정운영에 방해꾼이자 적'	윤대통령이윤핵관 나불되는것들은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 이랍니다	진형구	
19	2023-02-05 10:39	대선때 단일화도 간보다 이쪽온거지 머	차기 정치를 도모하는데민주당보단 국힘이 난거 같아서 온거야철학 비젼 소신 이런게 전혀없어그냥 자기한테 머가 플러스일까 쟤다가 넘어온거지	진형구	

20	2023-02-05 11:32	철수가 난리났네 ㅋㅋㅋ 기사 막아 달라	윤심이 너라며 철수야 ㅋㅋㅋㅋ왜기사를 막아 막길 자.... 이제 답은 정해졌습니다 압도적 승리로 축배를 듭시다	진형구	
21	2023-02-05 12:21	철수 저러는거 책임당원 여론조사 들었나봄	느낌이 빡..... 오고있음	진형구	
22	2023-02-05 18:41	음주2회 허은아 통과됐네	이거 기준이 머야	진형구	
23	2023-02-05 18:46	주호영 또 사고치면 공천배제 해야됨	낼 박홍근 만난다는데 또 사고치면퇴출시켜야됨 눈을 부릅뜨고..	진형구	
24	2023-02-05 19:34	윤대통령, 안철수 생각알았다면 단일화 안했을것	티비조선 단독기사 떴습니다윤통 확실히 선을 그어버리시네요 화이팅 !	진형구	
25	2023-02-06 11:59	철수 왠지 울먹이며 단일화한다고 함뜨	얘가 겁이좀 많아서리 ㅋ	진형구	
26	2023-02-23 0:45	토론보다 열받아서 김기현 찍는다	다 쓰레기들이네 안 황 천두고보자	진형구	

27	2023-04-08 19:59	이러다가 내년 총선 필패합니다.	재보궐선거 사실상 참패입니다. 너무 걱정스럽네요 더불당은 민노총 등 간첩이 침투한 조직과 항상 연대 내지는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그런데 우리는 어땠나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 애국세력을 비난하고 거래를 두고 있습니다. 이래서 대통령 지지율도 답보상태인 걸 모르나요이재오는 방송에 나와 유일한 우파 희망인 법무부 장관을 국무위원으로서 태도를 지적하는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대나깨나 공격하나요 인간 같지 않은 더불당 나부래기들이 말도 안되는 거지같은 언행을 하니까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국힘당에 한동훈 장관 처럼 더불당에 맞서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나요 한동훈 장관이 국힘당 106명 역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롭게 싸우는 장관을 보고 이재오 나부래기가 방송에 나와 공개적으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가 이명박 정부때 한 짓은 생각이 안나나 봐요 전광훈 목사와 광화문 애국시민들에 대하여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무슨 중도가 있다고 입만 열면 중도 운운합니다. 더불당 하는 걸 보세요 좀 배우세요 국힘당 국회의원 나리들 ,,, 광화문 애국시민들 비난하고 등돌리면 끝입니다. 내년 총선 지면 대통령은 식물대통령 되고 국힘당은 영원히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할 것입니다. 내부 분란 일으키는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 김근식 이재오 이런 사람들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기도 싫지만 빨리 정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한 적패청산 우리는 왜 못하나요 이재명 사건만 가지고 5년 갈겁니까 펀드 사기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문재인 USB 사건, 북한가서 방송장비 주고 온 사건, 김정숙이 옷값 사건, 혼자 대통령 전용기 타고 해외여행 간 사건 등등 동시다발적으로 신속히 수사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서두르지 않으면 금방 총선 다가오고 총선 패하면 우파 정권 또 좌파에게 넘겨주고 다시 찾아오기 힘들겁니다. 같이 갈 수 없는 세력들 빨리 정리하고 좌파 정권 부정부패 신속히 수사하여 정리해야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확실한 승리를 할 것입니다. 제발 정신 차립시다. 저는 부산 해운대 당원인데요 김미애 의원님 그 현수막 어지간히 거시고 행동하는 모습 싸우는 모습 보여주세요 친정이랑싸고 현수막 잘잘 거시고 보면 짜증난니	진형구	
28	2023-10-16 17:31	마삼즙)　제명합시다 빨리	역겹고 더럽네요근데 준석이는 직업이 먼가요 평론가? 여튼 제명하고갑시다	진형구	
29	2023-10-16 19:00	제명투표에 준석이가 겁먹어서 울었구나	생각보다 참여자가 많아서리 겁먹었구나한심한넘 ㅉ	진형구	
30	2023-10-19 11:10	100일 타령하지말고 지금나가 마삼줌 뱁승민아	지금꺼져줘 나가서 하고픈거 다해라 그지들인	진형구	

31	2023-10-31 7:58	총선 슬로건이 전문가 청년 호남이라고?	그럼 평생을 너거들 지지해온 자영업자 5-60대 영남은 뭐냐 무슨일만 있으면 5.18광주묘역 달려가고 … 민주화한다고 무기고 탈취하여 총을 든 사람들이 유공자이면 부마항쟁 피해자들 왜 유공자 법 못만들냐 평생을 우파로 살아왔고 너거들 지지했고 앞으로도 그럴려고 했는데 이상한 외국인 내세워 꼼수 부리는 꼴 보니 너거들이나 더불당 애들이나 다를 바 없구나 그렇게 사람이 없냐 내가 보기에는 훌륭한 너무 많은데 ,,,,내가 좌파가 될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지지 철회하고 지켜 볼 것임 오늘부로 당원탈퇴!!!	진형구	
32	2023-11-02 17:18	준석이 돈없고 사람없어서 창당못해 ㅋㅋ	할수있는게 방송유튜브 나가서 입터는게 다야저번주 디톡스에서 신당생각안한다고했어 근데 인요한 오고나서 얘가 급발진하더만밑천이 읍어 입터는거밖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주인지 승민이는 눈치보고있고	진형구	
33	2023-11-03 20:30	신당? 제발좀 나가서 만들어라 준석아 ㅋㅋ	궁금하다 얼마나 나오나 ㅋ야부리 그만털고 행동으로 보여줘봐 쫌 준스가 ~	진형구	
34	2023-11-04 18:21	이번주까지만 달래는척 하세요	부산까지 간사람 앞에 놓고 영어로 주둥이 터는거보니 쟤는 더이상 당에 자산이 아닙니다어차피 돈없고 사람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니자멸하게 그냥 두세요 이번주까지만 하세요	진형구	
35	2023-12-13 17:23	김기현이 김무성에게ㅣ 공관위원장 제안 ㅋㅋ	이거완전 개1새끼네	진형구	
36	2023-12-13 23:39	윤통은 절대 이준석 품지마십쇼	머리검은짐승 그만하면 겪을만큼 겪었습니다혹시라도 주변에 이준석을 품어야한다는놈 있으면내치십쇼조선일보등 g랄하던말던 절대로 품지마십쇼 만약 이준석품으면 책임당원 전원 떠납니다4개월이면 판세 충분히뒤집고 이깁니다	진형구	
37	2023-12-13 23:52	새보계들 숨통 끊어야합니다	이번에 완전 다 갈아버려야합니다 그래야 당이 삽니다	진형구	
38	2023-12-14 7:54	김기현 3%짜리 대표만들어줬더니 주제파악 못하고	아주 6갑을 떨었네 새보계것들 다 살려주려하고 나가 죽어라 듣보야	진형구	
39	2023-12-18 19:42	국민의힘 의원들 보고 지지하는거 아니다	솔직히 당신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이다 거의 탐욕스러운 인간들이지 인주당을 찍을수없어 국힘에 표주는거야한동훈 장관 보고 지지하는거야이런사람이 구심점이 되야되이제 고인물들은 꺼지시길바란다	진형구	
40	2023-12-27 7:21	주호영 서병수는 불출마 선언하십쇼	멀 더해먹겟다고 눈치보고있나요당 에 도움되거나 위기때 한거있나요 한동훈 위원장이 불출마선언하며 자기를 갈아넣을 각오입니다누릴거 다 누린 있으나마나인 5선 고인물들 알아서 처신하십쇼	진형구	

41	2024-03-15 23:43	김경율 이 놈 미쳤냐?	윤대통령 입당 때 부터 가입해서 당비 꼬박꼬박 내고 특별당비 요청 올 때마다 십만원 이십만원 되는대로 지원 했는데 이게 뭐냐? 김경율 같이 좌파 놈들이 좌파일 때 우파에 대해 욕한 것들은 전부 포용하고. 우파는 10년도 전에 쓴 소설까지 들먹이며 공천을 좌우지 하는 게 누구 뜻이냐? 한동훈 미친거냐? 당원들은 화나도 나라 망할까봐 국짐 찍을거라 생각하는거냐? 한동훈 너 혼자만 싸우면 다른 의원들은 전부 x선비 만들려는 거냐? 비대위원들 너 혼자 임명하고 그들 소리만 듣냐? 김건희 여사에게 마리앙트와넷이란 막말을 한 김경율 이 놈은 왜 안자르냐? 뭘 입어도 잘 어울린다는 아부에 환장했냐? 518헌법 수록도 명단공개, 언급하면 감방에 처넣는 그런 반헌법적 내용 등을 수정할 거라 믿은 내가 바보였다. 한동훈 너도 좌파 찌꺼기들 데리고 꺼져라.	한동훈	
42	2024-05-07 14:09	윤석열은 자진탈탕 하기를	더이상 똥 싸지르지말고	진형구	
43	2024-05-07 14:48	조져야할1번 타겟 조정훈	얘부터 조져놓고 예봉꺾어야됨	진형구	
44	2024-05-07 15:34	찢한테 차기대통령 약속 ..윤석열 정체가 먹까요	그냥 개종자 같습니다	진형구	
45	2024-05-07 17:39	용산이 당원들을 홍어x 으로 보네요	맛좀보줘야겠네요 어이가없네	진형구	
46	2024-05-07 17:44	절대탈당들 하지마세요 용산이 원하는겁니다	전당대회때 용산인간들 정리하게 절대 탈당하지마세요	진형구	
47	2024-05-07 20:39	조정훈 드러운 인간성	이랬던놈이 당선되고 나서 등에 칼을.....	진형구	
48	2024-05-08 1:22	찢한텐 굽신거리고 당원들은 배신해도 괜찮다는 윤	이런종자는 처음본다 어디서이런 해괴한 종자가 나왔을까	진형구	
49	2024-05-08 1:26	윤 140~160석 보고듣고 숟가락얹으려고하다 말아먹음	하다 안되니까 한동훈죽이려 선거망침 이런 희대의 개종자가 어딨습니까 용서가 안됩니다	진형구	
50	2024-05-08 1:32	한동훈이 했던 말들이 다 이해된다	나는 국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다우리진영에 선거 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있다 이 모든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미친 윤석열	진형구	
51	2024-05-08 1:38	범죄마누라 살릴려고 당과 당원을 팔아먹었음 찢한테	버려야됩니다	진형구	
52	2024-05-08 1:50	부부 안전만 보장해주면 머든 바치는 윤석열	민비 민자영과 같은 놈입니다	진형구	
53	2024-05-08 1:54	마지막까지 당직자들 챙긴것도 한동훈임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고생한 당직자들 상여금 결제함나 이거보고 진짜 반했음 하나를 보면 열이보임	진형구	
54	2024-05-08 1:59	고생한 당직자 챙긴 한동훈 vs 당 , 당원 찢한테 바친 윤석열	이거보면 답 나오죠 멀더 생각할께 있을까요	진형구	
55	2024-05-08 2:07	연말에 긴급투입되서 2달만에 민주당 열전시킴	근데 3월에 윤건희가 다말아먹음 이게 팩트야 송장새끼들아	진형구	
56	2024-05-08 2:15	당사 청소아주머니들과 식사한 당대표있었냐	패딩도 지급했지 한동훈이당비는 그렇게 쓰는거야 윤송장들아	진형구	

57	2024-05-08 2:24	한국일보 기사 반박을 못하는거보니 사실인가봅니다	사실이면 윤석열 김건희 버려야됩니다딩은 물론이고 나라를 넘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진형구	
58	2024-05-08 2:34	윤석열은 왜 보수인척 했을까 ..... 미스터리	문재앙의 충신이고 노짱 죽었을때 울었다는 우리 석열이왜 보수인척 했을까	진형구	
59	2024-05-08 2:44	홍준표는 찍소리도 없네요 그리 주둥이 놀리더니	정치현안에 항상 관심둬야한다고 지입으로 말하고서왜 한마디도 없을까요	진형구	
60	2024-05-08 2:56	밑에놈들은 김건희카페 회원들 입니다 신경쓰지마세요	틀튜브도 관리합니다 김건희쪽에서	진형구	
61	2024-05-08 3:01	찢한테 차기대통령 약속.. 이것이 보수우파 입니까	미친 역적이죠	진형구	
62	2024-05-08 3:09	한위원장 지지자는 말과단어도 품격이있을	저 무식한 윤식구는 쓰는말도 어찌나 천박한지 ㅉㅉ	진형구	
63	2024-05-08 3:21	윤 통치불능 상황이 곧 올지도 모릅니다	저희 당원들도 거의 돌아섰으니까요비대위가 버텨주고 전당대회후 당이 안정되길 바랍니다 한위원장으로 똘똘 뭉칩시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진형구	
64	2024-05-08 3:24	창당을 왜함 책임당원 3분의2가 지지하는데 한위원장을	니네가 나가 찢한테 굴종한 것들이	진형구	
65	2024-05-08 3:28	찢한테 항복한 윤머슴이 나가야지 어디서 천한것들이	누구보고 나가래 인기도 없는것들이	진형구	
66	2024-05-08 3:37	용산이하는 모든 헛짓거리가 한사람 죽이려는거야	그 막대한 에너지를 한사람죽이려고 쓰고있는거야 등신들이근데 죽이려드니까 더 살아나 .. 이젠 건들지도못해 팩트임	진형구	
67	2024-05-08 3:42	전당대회를 너무 무서워하는 윤과 떡거지들	니네 왜그리 전당대회를 두려워하냐탄핵될까봐 그래? 진작에좀 잘하지 그랬어 숙종 그만멎고 ㅉㅉ	진형구	
68	2024-05-08 4:03	윤 ,이대표님 경쟁자를 인선에서 배제하겠습니다	이게 말이냐 똥이냐	진형구	
69	2024-05-08 4:22	당에서 윤통 출당 움직임이 진짜있네요	전여옥씨가 그랬다던데 돌이킬수없나 봅니다 ……	진형구	
70	2024-05-08 4:35	오늘 조간신문 기사들보니 윤통 어려웁두	국정운영이 불가한 수준으로 기사가 쎄게 올라오는중	진형구	
71	2024-05-08 4:45	그리 의로운 보수우파 윤통은 왜 찢한테 굴걱하셨나요	왜요?그것도 차기 대통령 자리 운운하면서	진형구	
72	2024-05-08 4:52	혹시 총선도 좌빨들이랑 거래한건가 .. 윤붓붓가	충분히 합리적 의심할만하지 않나요 둘다 좌파라 김건희가 적접 말했으니까	진형구	
73	2024-05-08 5:03	영부인 관리 제2부속실이 없는 최초의 정권임	망할수밖에없음 김건희 통제가 안됨	진형구	
74	2024-05-08 5:14	한위원장 이번주 이상민 김영주 의원 만난다	직접영입했던 두 의원들을 이번주 만난답니다 한번맺은 인연을 소중히하는 한위원장 ..	진형구	

75	2024-05-08 5:21	윤석열이 그나마 살길이 보이는 대안	앞으로 절대 당무개입 안한다고 기자회견때 밝혀야됨그리고 굴욕감느낀 당원분들께 죄송하다고 사죄하고김건희 백담사로 보내고 .. 머리나쁜티 나게 또 정치한다는 등신같은말 하지말고인정도는 해야 살까말까임	진형구	
76	2024-05-08 5:39	애석하지만 윤의 현재 상황은 자업자득 입니다	이양반은 생각이란걸 안합니다 술만 쳐먹습니다그리고 김건희가 시키는대로 합니다정무감각 이라는것이 전혀없어요 쉽게 갈길을 늪으로 만들어버립니다채상병 이종섭 대파 일론대란 셀수가없어요 한동훈의원장과 갈등이 정점을 찍었죠	진형구	
77	2024-05-08 5:44	현재 용산은 보안유지가 전혀안됨 내부에서 줏줏세고있음	어쩌면 국힘보다 민주당이 기밀을 더 알수도있음이건 통치불가능임 방법이 안보임	진형구	
78	2024-05-08 5:52	지금 입털고 언플하는 얘들 대부분 김건희 비선임	근데 일들을 드럽게 못함 끼리끼리논다고 능력없고 욕심만 있는인간들 뿐	진형구	
79	2024-05-08 6:00	검찰 , 김건희 다른선물도 수사 압수수색 논의	이렇게 흘러가는군요	진형구	
80	2024-05-08 6:07	백서도 동력잃어습니다 내부에서 인정안해요	걍 윤이 시키니까 하는겁니다 힘도 뭣도 없어요	진형구	
81	2024-05-08 6:13	좌파공작이니 지키자고 하시는분들이 보이는데	이상황 만든것도 등신같은 지몫이고이리되기까지 욕심못버리고 변하지못한것도 지몫입니다일단 9일 기자회견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살려면 내려놓고 변해야합니다	진형구	
82	2024-05-08 6:23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니 걱정마세요	찢이 너무시러 차선으로 택한겁니다부부가같이 좌파라고 인정했구요보수 가치가 윤땜에 망칙잌은 없슨니다	진형구	
83	2024-05-08 6:30	관저에서 술판 어지간히 벌렸던 모양이네 쯔쯔	그러니 개나소나 비선이라 자처하며 입놀리고 다니지다 이유가 있는거지	진형구	
84	2024-05-08 10:53	TV조선 류병수 "취재해보니 한국일보 기사 상당수 사실이다 ..."	석열이 탈당해야겠네	진형구	
85	2024-05-08 11:01	TV조선 강상구 "대통령이 지지층 열린 건드릴...탈당 명분"	이제 끝났어 석열이	진형구	
86	2024-05-08 11:07	윤부부가 총선 일부러 망친듯	이거 아니면 설명이안됨 이 미친 것들은	진형구	
87	2024-05-08 11:26	조정훈도 살려면 똥물에서 나와라		진형구	
88	2024-05-08 11:40	홍준표 침묵이 기네	한마디해야지 준표야	진형구	
89	2024-05-08 11:52	선거승리보다 찢한테 구걸하는게 낫다는 윤또라이	한동훈이 진두지휘해서 이기는것보다찢한테 구걸하는게 좋다는 미친개통령	진형구	
90	2024-05-08 11:55	이지경에 윤석열 지지하는것들은 프랄치에요	보수위장한 건희까페 프락치임	진형구	
91	2024-05-08 12:00	당이 망하고 붕괴되도 찢과 야합해 살길찾는 윤석열	더이상 우리 대통령이 아닙니다	진형구	
92	2024-05-08 12:08	2월말까지 민주당내부 130석도 간당간당 하다	아오 ㅅㅂ 이걸 175석 만들어준 윤석열	진형구	
93	2024-05-08 12:13	앞으로 윤석열이랑 밥먹는년놈 지켜봅시다	어떤 것들이 윤석열이랑 밥쳐먹는지	진형구	

94	2024-05-08 12:25	지금 윤석열은 재활용도 안되는 오물입니다 버려야되요	빨리빨리	진형구	
95	2024-05-08 12:32	윤석열 살릴려고 한동훈을 소비하면 안됨	윤석열과 떨거지들 싹다정리하고 클린한당을 한동훈에거 맡겨야됨 그래서 하루빨리 윤건희 정리해야됨	진형구	
96	2024-05-08 19:11	윤부부가 당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크다	지들이 안나가면 출당시켜야됨 개잡것들	진형구	
97	2024-05-08 19:15	윤석열을 당과 분리시켜야 됩니다 늦어지면 가망없어요	근데 할민한놈이없네	진형구	
98	2024-05-08 20:33	멘붕온 용산 할수있는게 없다	아무것도하지말고 츨당이나 해	진형구	
99	2024-05-09 12:16	윤은 지금 한동훈 되게 의식하고 견제함	대통령이 저러면 안됨 밀어줘야지 ㅉㅉ	진형구	
100	2024-05-09 12:21	석열아 건희야 그만질척거리고 탈당해라	쌍욕하기전에	진형구	
101	2024-05-09 12:33	윤건희 출당안시키면 선거 못이깁니다	워낙 이미지가 안좋아서 안고가면 계속집니다오죽하면 찢보다 싫다고 하니까요	진형구	
102	2024-05-09 12:37	윤석열 김건희 안고가면 선거계속짐 그러면 공산화됨	너무비호감이라 이길수가없음	진형구	
103	2024-05-09 12:43	선거망치고 이제와서 하나마나한 소리 윤등신	밥맛떨어져	진형구	
104	2024-05-09 12:46	윤석열이 있으면 선거를 이길수가 없을 똥늬이에요	치워버려야됨 그리고 한동훈이 들어와야 딱임	진형구	
105	2024-05-09 12:49	한동훈 지지율오르는데 당지지율은 떡어짐	윤석열땜에 당 계속 꼬라박음	진형구	
106	2024-05-09 12:55	배현진도 용산 이젠 똥으로 봄	이철규도 맛갔고 좀알아서 나가라 석열아	진형구	
107	2024-05-09 13:08	윤석열 계속 당에있으면 선거못이깁니다	일단 내보내야되요	진형구	
108	2024-05-09 13:15	사고 크게치고 당 그늘에 보호 받고싶은 윤부부 구역질납니다		진형구	
109	2024-05-09 13:18	김건희카페에 지령내려옴 결사옹위하자고 당게시판	똥줄탐	진형구	
110	2024-05-09 13:23	한동훈은 윤석열 만나면 안됩니다 당분간 절대로	머라든 말든 독자행보 가야합니다 더이상 윤똥묻으면 안됩니다	진형구	
111	2024-05-09 13:30	당에 보호는 받고싶나봐 석열이 .. 곡때리네	무식한 사고는 다치고 당 보호는 받고싶고 머 이런놈이 다있나	진형구	
112	2024-05-09 13:34	윤씨부부만 나가면 다 깨끗하고 조용해짐	그러니 빨리나가라고	진형구	
113	2024-05-09 13:51	윤석열은 계속나댈거임 한동훈 의식해서 .근데 인기가 없어	없는정도가 아니라 아예없음	진형구	

114	2024-05-09 13:54	조선일보 주필, 임기에 연연하지마라 윤석열	얼마나못하면 이러냐 이 주정뱅이야 ㅉㅉ	진형구	
115	2024-05-09 14:00	당직자 상여금 결제 vs 찢한테 충성맹세	어디가 보수고 우파냐 답나오지	진형구	
116	2024-05-09 14:05	고생한 비대위원 경호원 식사결제 vs 찢한테 안부전화	누가 보수고 우파냐 답나오지	진형구	
117	2024-05-09 14:09	오롯이 제 책임입니다 vs 찢한테 대통령 호칭	답나오지 누가 우리편인지	진형구	
118	2024-05-09 14:15	윤도 국힘 싫어한대요 잘된네요 나가면 되겠네요		진형구	
119	2024-05-09 14:21	검사때도 수사는 한동훈이 다함 윤은 숟마먹음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진형구	
120	2024-05-09 14:24	진짜 민주당패널이 윤석열 편들어줌 ㅋㅋㅋㅋㅋ	우리편이라 이거지 ㅋ	진형구	
121	2024-05-09 14:39	이길선거를 시기질투로 졌다는게 너무 화나는거지	한달만 가만있었음 과반하고 진짜 편하게 가는건데 한동훈 인기를 시기질투로 못견디고 선거를 망쳤지 등신이	진형구	
122	2024-05-09 14:43	한동훈에겐 시기질투 , 찢한텐 충성맹세 이게 머냐 석열아	도대체 정체가 머냐구	진형구	
123	2024-05-09 14:47	한 사진한장에 종편 30분 방송을함 이게 현실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함	진형구	
124	2024-05-09 16:35	한국일보기사 해명했나요 오늘?	어땠나요	진형구	
125	2024-05-09 16:52	당권주자들 한동훈 출마여부에 출마결정 (출처 TV조선)	한동훈이 안나오면 출마하겠답니다 ㅋㅋ	진형구	
126	2024-05-09 17:56	김영우의원 강상구기자 "이종섭 터지기전 160석 가능"	아오 이왠수같은 인간 윤석열..... 용서가 안됨	진형구	
127	2024-05-09 18:02	종편방송 윤패싱 한동훈 얘기30분 넘게 하는중 ㅋㅋ	이것이 현실입니다	진형구	
128	2024-05-09 18:09	보수언론은 윤석열 버렸어요 너무 못해서	주제파악 해야되는데 ㅉㅉ	진형구	
129	2024-05-09 19:09	민주당 서용주 "3월초까지 민주당 1당 힘들다 전망 "	아 진짜 윤석열 용서가 안된다	진형구	
130	2024-05-09 21:47	윤석열 한국일보건 그냥넘어가면 안됨 절대로	당원들 홍어x 으로 보는거임 쟙들이 해야됨	진형구	
131	2024-05-10 12:14	윤석열 친한 법조인에 한동훈 저xxx ... 、주변에서 놀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63859?sid=100직접전화해서 욕도 했다는데	진형구	
132	2024-05-10 17:29	쌍욕듣고 협박받으면서도 선거를 위해 참았던 한동훈	속이 속이아니였을겁니다 저런무지랭이를 위에두고 참 고생했네요	진형구	

133	2024-05-10 17:53	한동훈45% 오세훈5% 홍준표5% ....홍준표 결노	이게 현실입니다 홍씨 격노할만 하네요출처 한국갤럽	진형구	
134	2024-05-10 17:58	책임당원 3분2가 지지하는 한동훈이 왜나갔니까 ㅋ	인기없는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나가시죠 ㅋ	진형구	
135	2024-05-10 18:06	그수모를 당하고도 지지층 위로하고 있묵거운 한동훈	이것이 진짜 어른이죠 나이만 많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진형구	
136	2024-05-10 18:15	서울 책임당원인대요 실제 TK 민심은 어떤가요	한동훈 윤석열 관해서요	진형구	
137	2024-05-20 19:00	한동훈은 사고 유연하고 권위의식 없고 맹목적 진영논리탈피한 우파의 보물입니다 화이팅	윤통께서 원칙과 철학이 분명하신 줄 알지만, 그게 독선으로 가면 안 됩니다. 참모뒤에 숨지 마시고 고집도 줄이세요 더이상 실정은 줄이고 공평부당하게 정부를 운영해서	한동훈	삭제
138	2024-05-20 19:06	한동훈 그만 괴롭히세요 대통령님	당원이 바보도 아니고 당으로 못돌아오게 하려고 책임론 띄우고 홍준표 부르고 신평 시켜 언플에 이철규 원내 시켜 견제하려다 실패 조정훈 통해 백서 책임론 하려다 조씨는 멸망중 당원이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다 보여요 대통령님 순간의 미시적인 질투로 일 그르치지 마세요	한동훈	삭제

139	2024-05-20 21:03	[한동훈의 정책 바로알기] 제22대 총선 공약 - 정치개혁	2024. 1. 25(목)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동료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 특권 내려 놓기 정당 VS 특권 지키기 정당> 긴급 좌담회 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정치개혁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5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앞으로 더 얘기할 거다. '포퓰리즘 정책이다' '초짜가 포퓰리즘까지 펼친다' 이러잖나. 저는 이렇게 묻고 싶다.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 년간 바라는 걸 하겠다고 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면 저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됐으니까 저도 국민의 시각에 가까울 것이다." "제가 한 달 밖에 안됐지만, 정치란 기본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다.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욕한다고?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단 말인가? "정치개혁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다. 저희는 대다수 국민들이 오	한동훈	삭제
140	2024-05-20 21:14	[한동훈의 정책 바로알기] 제22대 총선 공약 - 공직선거법 개정(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입각)+이와 관련된 법무부장관이셨을 때 인터뷰	*외국인 투표권 제도는 애초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투표권을 얻게 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도입한 제도이다. 하지만 영주권자에게 한국 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영주권을 취득하면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받을 수 있고, 10년 주기로 비자를 갱신만 하면 계속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영주권자 10명 중 8명 가량은 중국 국적자로 불균형한 분포를 이룬다는 점도 정치권에서 우려하는 부분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폐해를 방지하고자 영주권자의 자격 유지 기준으로 국내 의무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한동훈	삭제

141	2024-05-20 21:26	[한동훈의 정책 바로알기] 제22대 총선 공약 - 간첩법 개정안(간첩죄의 범위를 적국(북한)->적국(북한)+외국	제22대 총선 정책 공약 - 간첩법 개정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행 형법은 북한 등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간첩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형법 개정안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형법상 간첩 관련한 범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으로 변경함으로써 우리의 중요 자산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	한동훈	삭제
142	2024-05-20 21:30	[한동훈의 정책 바로알기] 피해자 원스톱센터설립	피해자 원스톱센터 2024년 7월 예정 많은 시간동안 피해자의 말은 들어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매번 가해자의 인권보다 멀리에 있는 가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은 스스로 찾아헤매는 피해자들을 위해 법무부장관시절 원스톱센터를 추진하시는 것에 부산돌려차기 피해자가 - 고마움을 담아 남긴글입니다.	한동훈	삭제
143	2024-05-20 21:34	[한동훈의 정책 바로알기] 제22대 총선 정책 공약 정리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https://imgur.com/a/9lMLAn0	-동훈	삭제

144	2024-05-20 21:41	해명부탁] 김건희: 그 유튜버 중에서 누가 좀 그렇고, 지금 현재 어떤지 나한테 문자로 간단히 좀 줄 수 있어? 내가 좀 보내게?	2021년 12월 7일 김건희: 그 유튜버 중에서 누가 좀 그렇고, 지금 현재 어떤지 나한테 문자로 간단히 좀 줄 수 있어? 내가 좀 보내게? 이명수: 그래요. 그래요. 알겠어요. (중략) 김건희: 특히 우리가 관리해야 될 애들 좀 나한테 명단 좀 주면, 대충 주면은 내가 빨리 보내서 관리 그거 하라고 그럴게.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버 일자리…강기훈 누가 추천했나"	한동훈	삭제
145	2024-05-20 21:46	간신4인방 해명 부탁드려요 대통령님	2021년 12월 7일 김건희: 그 유튜버 중에서 누가 좀 그렇고, 지금 현재 어떤지 나한테 문자로 간단히 좀 줄 수 있어? 내가 좀 보내게? 이명수: 그래요. 그래요. 알겠어요. (중략) 김건희: 특히 우리가 관리해야 될 애들 좀 나한테 명단 좀 주면, 대충 주면은 내가 빨리 보내서 관리 그거 하라고 그럴게.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버 일자리…강기훈 누가 추천했나"	한동훈	삭제
146	2024-05-20 21:51	성치훈 "홍준표, 한동훈에 대한 질투심에 저렇게 나오는 것"	한때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희사랑'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가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검토설'과 관련해 '용산 3간신' 론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17일 페이스북에서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개를 데려다가 윤석열 정부의 정승을 시키는가?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이라니?"라며 "도대체 누가 이들을 추천했는가? 추천한 자를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발표하며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관련 보도가 TV조선 YTN 등 친여 매체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를 누군가 흘려서 여론을 떠보고 항의가 빗발치자 슬그머니 거두어 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도대체 어떤 자가 이런 발상을 하는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호가호위하며 눈을 막고 귀를 가리는 특히 용산 3간신 얘기가 파다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능력도 없으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능 예스맨을 정리하시기 바란다"며 "특히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알려진 의전비서관 이OO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삭제

147	2024-05-20 21:58	KC조건 직구금지 반대 글올리는거 보고 딱 느꼈다	한동훈이 왜 패장임에도 높은 지지를 받는지 이제야 알거같더라요	한동훈	삭제
148	2024-05-20 22:01	고동진 “한동훈에 기회 더 줘야”	고 당선자는 국민의힘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공천 과정에서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았고, 후보자를 지원하는 매뉴얼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꼽았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동훈 책임론’에는 회의적이었다. 그는 “2016년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사고 때, 나와 임직원들이 책임 지고 다음 제품을 준비하며 위기를 수습했다”며 “한 전 위원장에게 주어진 100일은 누가 봐도 짧은 기간이었다. 옛말에 삼세번이라는 말도 있는데, 한 전 위원장에게 기회를 더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100일만으로 한 전 위원장을 판단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했다. 그는 1호 법안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법’을 구상하고 있다. 고 당선자는 “흔히 반도체는 ‘인수전(인력·수력·전력) 싸움’이라고 하는데, 세계 무대에서 미국, 일본, 중국, 대만보다 경쟁 우위를 가져야 한다”며 “전력 문제를 해결해 공장을 빨리 가동하고, 각 부처가 개	한동훈	삭제
149	2024-05-20 22:05	"이제는 친윤/비윤이 아니라 친한 / 비한으로 불러야"	이제 정국의 중심은 한동훈으로 흘러가고 있다 출처 오늘 TV조선 신통방통	한동훈	삭제
150	2024-05-20 22:09	한동훈팬 지금 축제중이니 오세요 ㅋㅋ	위드후니 음방 재밌어요 다들 오세요 어르신들 애기들 다 들어왔어요ㅋㅋㅋㅋ	한동훈	삭제
151	2024-05-20 22:13	한동훈 등판 임박? 원로들 "백서 全大 이후로"	역시 어르신 원로들 최고 친윤(親윤석열)계 주도로 꾸려진 총선백서특별위원회의 '한동훈 저격' 행보로 인한 소모전은 잦아드는 모양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20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당 상임고문단과의 오찬 회의를 가진 가운데 '제22대 총선 백서를 차기 지도부 선출 이후 발간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다. 당대표 경선 룰을 현행 책임당원투표 100%에서 국민여론조사를 부분 부활시키자는 개정 의견도 분출했다.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총선 참패는 '정말 국민의힘이 대변혁해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영속하기 힘들 수 있다'는 국민들의 경고 메시지"라며 "하루 빨리	한동훈	삭제
152	2024-05-20 22:19	7만명 달성 축제중	음방 오세요 rrr	한동훈	삭제

153	2024-05-20 22:25	한동훈이 좋아하는 작가 김보영의 인텁:	저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람이 선의를 지키고 양심을 지키며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영웅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래서 한 끗 차이로 악당이 되는 거라고. 슈퍼히어로 영화에서도 그래요. 충분히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악당이 되잖아요. 시스템이 무너질수록 더 개인에게 과부하가 걸리고, 큰일도 소수의 사람의 선의로 돌아가는 모습을 많이 봐요. /이걸 짊어진 사	한동훈	삭제
154	2024-05-20 22:30	왜 여기저기 탈당한다고 말씀하시고 다니셨어요?	다들 놀란대요 1년6개월 동안 하지 않던 기자회견도 하고 자주 브리핑실을 찾는 등 스타일의 변화를 주었지만,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다. 국민은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변했는지 반신반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쁜 이미지는 금방 형성되지만, 긍정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윤 대통령을 만난 여권 관계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대통령 입에서 자주 '탈당' 얘기가 언급된다는 사실이다. 적당한 타협은 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성격상 당이 자신과 각을 세운다면 언제든 당을 떠날 수 있다는 경고처럼 들렸다는 것이	한동훈	삭제
155	2024-05-20 22:52	일처리 진짜못한다 개판도 이런개판이 없네 대통령실	아니 당신들 일을하는거야 마는거야 이런 개막장이 어딨어 진짜더는 못봐주겠네	진형구	
156	2024-05-21 18:50	한동훈 65세 이상 운전 자격 제한에 대해 목소리 내줘 감사해요 나이를 일괄적용하는건 안됨	정부대책 또 혼선…'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논란 일자 "오해"	한동훈	삭제
157	2024-05-21 18:54	한동훈: 정책은 선한의도가 아니라 선한결과가 중요 정교하고 박력 있게 준비된 정책을 국민께 설명하고 실천해야 한다 말씀하셨네	.	한동훈	삭제
158	2024-05-21 18:58	한동훈 페북 효능- 혼란있던 정책 오늘 바로 경찰청에서 수정 보도 냄! 고맙습니다	.	한동훈	삭제
159	2024-05-21 19:02	김건희여사는 디올백보다 우리좌파니까 보수는 비위는 맞춰주겠지만 이게 더 충격이에요. 문재인충신도. 입장 표명 안하십니?	.	한동훈	삭제
160	2024-05-21 19:22	홍준표 당 부수지 말고 탈당해라 오늘 페북 보니 심각하다. 치매 진료도 받아야 한다	.	한동훈	삭제

161	2024-05-21 21:03	한동훈 잔심과 따뜻함을 어린학생도 알아 보네요. 자신의 사욕에 매몰돼 무조건 물어 뜯으려는 어른들은 보고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보고	ㅇ	한동훈	삭제
162	2024-05-21 21:08	한동훈 위원장님 언제 어디서나 국민걱정 하시고 계시군요~한동훈위원장님이 이어 차으로 등등합니다	.	한동훈	삭제
163	2024-05-21 21:11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보니 한동훈님 외엔 지도자급이 없네요.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합니다	.	한동훈	삭제
164	2024-05-21 21:15	비대갤러 배씨 김씨 도배좀 그만해라!! 하루에 200개씩 쓰냐!!	.	한동훈	삭제
165	2024-05-21 21:20	3분 아니고 한시간에 글 하나로 제한해주세요!!	비대갤 몇명이 목숨걸고 하는데 이런 소모전을 왜하는지? 탈당때 우르르 온갖분 다 온게 민심이지 몇사람이 3분에 하나씩 몇백개 쓰는 용도로 이 게시판이 있는게 아니죠	한동훈	삭제
166	2024-05-21 21:32	한동훈이 65세 조건부 운전면허증 정책도 지적했네요 노인이라도 지방에선 차 필요하고 생계형도 있는데 좀 더 정교한 정책 검토가 필요	.	한동훈	삭제
167	2024-05-21 21:37	민생현안에 대한 합리적 의견개진도 정치득실로 따져보려는 모양새로 인하여 국민이 기존 정치인들에 대해 더욱 혐오함.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인물의 등판을 더 기다리는 것. 고령운전에 대한 이슈도 한동훈 말대로 정부는 더 세밀하게 검토하	.	한동훈	삭제
168	2024-05-21 22:07	배씨 김씨 비대갤러 두분 도배 너무 심하네요	.	한동훈	삭제
169	2024-05-21 22:47	한동훈 국힘지지자 당대표 지지율 62% 압도적 1위 안나오실수 없을듯	.	한동훈	삭제
170	2024-05-21 22:54	보수에서 유일하게 토론 되는 사람이 한동훈이라더라 당대표 지지율 압도적 1위라 국민이 불러 나올수밖에	.	한동훈	삭제

171	2024-05-21 22:59	비대갤러 배씨 하루종일 3분에 하나씩 복붙글 너무 웃겨요 ㅋㅋ현생 언으시간 새벽에도 계속 하더데	.	한동훈	삭제
172	2024-05-21 23:07	비대갤러 배김송씨 24시간 타인 까질하면 정신 피폐해져요 나가서 바람도 쐬고 좋은 책 읽고 좋은 영화	.	한동훈	삭제
173	2024-05-22 9:20	윤대통령 탈당 언급 여기저기 하신거 팩트체크!!! 오늘 중앙보도로 갑자기 한동훈에게 뒤집어 씌우는데 그렇게 언플하시면 안되죠!!	1. 윤이 여기저기 탈당얘기 한건 맞다 (채널에이 조영민, 문화일보 이현종, 최병묵 보도) 2. 진짜 탈당한다는 의도는 아니고 한동훈 나오지 말라는 협박용 3. 이런 수법은 안철수때도 했고 통했음 4. 이번엔 채널에이보도를 윤이 일부러 한건 아닐수도 있음 그러나 어쨌든 친윤 입에서 나온건 팩트 (친윤이 미쳤다고 없는 말 지어냄?) 5. 반응 망하자 황급히 수습중. 절대 사실 아니다. 이간질이다... 등등. 홍준표도 손절함 (박수영등 통해서) 이철규 강펀치 나와서 갑자기 한동훈 친윤몰이도 함. -- 여기서 끝내야했는데 갑자기 오늘 중앙기사 통해 한동훈에게 뒤집어 씌운다. 즉 중앙일보 영남의원 인용 탈당언급설 자체를 한동훈측이 퍼트렸다고 주장한것이다 (--> 너무 더럽지 않음?) 6. 오늘 복수의 보도 및 정치쇼 김종혁 취재로, 윤이 탈당 언급하고 다닌거 재확인사살됨. (으이그)	한동훈	삭제

174	2024-05-22 11:02	한동훈은 전혀 다른 새로움이다. 예를 들어 문국현·안철수·문재인·이재명·윤석열까지는 모두 '익숙한 새로움'이라고 할 수 있다. 비여의도 출신의 신인이지만, 오래전부터 언론에 노출된 구형 신인이다. 그런데 한동훈은 신인인데 익숙한 구석은 안 느껴지고 전혀 낯설다. 강남 8학군 출신에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시 소년 급제, 동급의 실력에 미모를 겸비한 좋은 집안의 변호사 아내, 한마디로 금수저다. 도덕성과	.	한동훈	삭제
175	2024-05-22 11:07	한동훈 어록: "게임과 달리, 정치는 '누가 이기는지' 못지 않게, '왜 이겨야하는지'가 본질이다. 우리가 왜 이겨야 하는지', '이겼을 때 동료시민과 이 나라가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한 명분과 희망이 없다면, 정치는 게임과 똑같거나, 정치인의 출세수단일 뿐이고, 정작 주권자 국민은 주인공이 아니라 입장료 내는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된다. 우리는 미래를 정교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	.	한동훈	삭제
176	2024-05-23 14:16	'문파' 또 윤석열 지지 선언…"민주당을 사랑하기 때문" | 뉴스A 라이브	.	한동훈	삭제
177	2024-05-23 14:19	윤석열은 전남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저도 정권교체는 해야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	.	한동훈	삭제

178	2024-05-23 14:26	자의식 과잉..탄압 받는 나. 아무도 내 깊은 뜻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걸어가는 나. 이 포지션을 해야 미움받은 자신을 혐오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음. 유아적이고 자아형	.	한동훈	삭제
179	2024-05-23 17:20	동의합니다. 윤대통령님! 여사가 최목사 청탁 전달지시한 총무비서관실 조과장과 보훈처 직원 누군지 밝히시길 바랍니다. 여사가 직접 대통령실 직원에게 지시하는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님도 몰랐을리 없죠. 이건 국정농단입니다. 아니라면 아니라고 반박 보도를 내세요. 진보의	.	한동훈	삭제
180	2024-05-24 3:06	한동훈 아무것도 없이 국힘들어왔고 아무것도 욕심내지않았고 아무것도 남기지않고 물러났어요 친윤 공격에 지지자에게까지 ㄱㅍ 프레임질하면서 공격하는걸 또다시 목격하니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나네요 한동훈을 견제하기위해 누굴 사면할수있다 누굴 데려올수있다 ㅜㅜ 분노가 차오르네요 이 모든게 국힘당원들도 무시하는 일도 아니라	.	한동훈	삭제
181	2024-05-24 13:43	정무감각 심각한게 만찬을 여러번 쪼개서 하니까 기사 타이틀만 보는 중도층들은 뭐가 신났다고 맨날 불러다가 밥먹고 잔치하냐 이렇게 생	.	한동훈	삭제

182	2024-05-24 13:49	아니겠지 아니겠지 했는데 이번에 비선 시켜서 이재명에게 다음 대권 길 닦아주겠다는 취지의 말 듣고는 두손 두발 다 들었습니다. 정치판 너무 더러워서 한위원장님 정치 안 하셨으면 했지만 돌아가는 거보니 이러다가 이재명이 진짜 대통령될 것 같아 너무 두렵습니다. 국힘 하는 짓도 답 없고 인물은 더 없고.. 힘드실 건 뻔해서 감히 안표지만 나	.	한동훈	삭제
183	2024-05-24 13:53	한동훈이 국힘지지 방파제 했는데 국힘에서 배척움직임 나오고 용산 방패질 하니 바로 역대 최저 나오네. 진보의 오야붕이 진짜로 보수 궤멸시키려고 작정한거 아닌가 의	.	한동훈	삭제
184	2024-05-24 16:56	용산에 넘 실망해 국힘 떠나고싶지만 참고 기다립니다 한동훈의 정의로운 바른판단과 리더쉽 정말 필요한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저런 정당의 대표란 이재명한테 정권넘어가면 여기서 못살거	.	한동훈	삭제
185	2024-05-24 17:17	국힘지지율 역대 최저. 윤대통령 채상병 특검에서 격노설 거짓말 한거 나오던데 불법여부를 떠나 국민에게 어떻게 보이겠냐 그런데 감싸주니 그것도 큰 이유고 무엇보다 폭망의 이유는 한동훈 공격이다. 보수의 마지막 희망 기둥인 한동훈을 용산과 국힘친윤들이 공격하니 제정신	.	한동훈	삭제

186	2024-05-24 22:16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그들의 막말과 인신공격성 발언은 반성할 줄 모르고, 용산의 총선기간 동안 했던 행태에 대해선 반성은 없으면서 그 지지자들의 정당한 비판에 대해 개딸몰이 하는 거 너무 유치하지 않냐? 왜? 한동훈 중심으로 세력 커지니까 두려워서 그 지지자들을 폄훼하면 좀 기분 나아지냐? 그런다고 용산과 홍준표, 이준석, 천하람, 조정훈, 신평, 이철규 친윤패거리들의 저급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국민을	.	한동훈	삭제
187	2024-05-25 8:57	국민은 김건희보다 국정이 우선인 대통령을 원하는데 윤석열대통령님은 그걸 못하신다..	국민들은 그냥 싫다 정도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범죄자보다 더 혐오한다는데 그 혐오의 강도를 이해못하고 계십니다 하루 이틀 아니고 2년 넘게 누적되어 있음 국민들과 기싸움 하는거 국민은 다 파악합니다. 폭압적으로 당무개입하고 김건희 쓴소리하면 다 내치고ㅠㅠ	한동훈	삭제
188	2024-05-26 12:58	잘못이 잘못이 아닌' 대통령의 남은 3년..잘못은 알지만 고집을 꺾기 싫어하는 성정의 발현이거나, 적당히 버티면 해결될 거라는 오판에서 내린 결정일 거라고만 여겼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뭐가 잘못인지에 대한 인식이 국민과 사뭇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특히 정권 초부터 반복되는 인사 참사를 볼 때마	.	한동훈	삭제

189	2024-05-26 20:10	한동훈 팬모임 오늘 7만3천 넘었습니다 북적북적 재미있어요 중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많습니다 한동훈이 국힘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국	중앙에 억까기사 한게 홍보효과가 있는듯 ㅋㅋ 다들 오세요 재밌어요	한동훈	삭제
190	2024-05-26 20:17	법무부 장관 시절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법,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청구권 보장,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모두 한위원장님이 업적인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젠 그에게 이 모든 걱과 국민의 삶을 더 풍요	.	한동훈	삭제
191	2024-05-28 21:36	국힘,국힘내 정치인 중에 한동훈 외에는 모두 그밥에 그나물이다. 누가 나와도 별 관심도 없다.현상황에서 보수의 유일한 자산 인데도, 사방에서 물어 뜯기에 바쁘다. 홍준표,나경원,유승민,원희룡,오세훈,안철수, 모두 합쳐도 한동훈에 못 미치는것이 현실이다. 국힘 당원들이나,일반 국민들이 왜 한동훈에만 관심을 가질까? 현재. 여,야 통틀어, 50대 젊고 신선하고,똑똑 하고, 논리정연하고. 할말 다하고, 위,아래 깍듯이 예	.	한동훈	삭제
192	2024-05-28 21:43	지도자는 민심이 크게 인륜에 위반하지 않는 한 민심에 따라야한다	.	한동훈	삭제

193	2024-05-28 22:40	한동훈이 좋아하는 작가 역병의 바다 김보영의 인터뷰 중: 저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람이 선의를 지키고 양심을 지키며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영웅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시스템이 무너질수록 더 개인에게 과부하가 걸리고, 큰일도 소수의 사람의 선의로 돌아가는 모습을 많이 봐	.	한동훈	삭제
194	2024-05-28 22:45	한동훈 정책 외국인건강보험 제한 강화 찬성!! 2022년 국내 건강보험 가입 중국인이 쓴 의료비는 총 1조 884억원이다. 이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건보 재정으로 지급된 돈은 8091억 2615만원이다. 외국인, 그 중에서도 중국인 근로자의 부모와 장인·장모까지 아프면 한국으로 와서 저렴하게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건강보험 먹튀' 논란이 이어졌다.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 '한국국민보험'(韩国国民保险), '하오양마	.	한동훈	삭제
195	2024-05-28 22:48	용산 비선 김동조 강훈 이기정 강기훈이 유튜버출신이고 인사도 건드리고 강원도 황하영사장 양정철 비서 황종호도 문제고요 이철규도 황사장 라인이죠 비선 정치 그만해야 합니다 용기있게 충언드립니다 용	.	한동훈	삭제

196	2024-05-28 22:58	한동훈은 비윤 친윤 반윤 이런거 할 사람이 아니라, 국민눈높이 맞춰서 국민만 보고 정치할 사람입니다 윤이 R&D삭감이나 미숙한 의료대란 대처나 디올백이나 채상병 사건에서 보듯 반국민 스탠스라면, 자연스레 비윤이 될수밖에 없는거죠 윤대통령이 국민주파수에 맞춘 정치를 하고 상식적인 정치 한다면 한동훈도 그 방향이 같을것이다 그렇지 못	.	한동훈	삭제
197	2024-05-28 23:11	한동훈 크게 보네. 정치 초짜라 대표 안된다며 온갖 짓을 다하는, 20년 찐윤 자칭 정치고수 중진들아~ 국힘당 이꼬라지 될때까지 뭘했냐? 원내 대표 회의에 실방 68명.. 꾸질꾸질한 힘없는 할배들 쭈르르 모여 a4 읽기... 이게 현실. 확~ 쫌 바꿈	.	한동훈	삭제
198	2024-05-28 23:14	한동훈의 지구당 제도는 반드시 이행되길 바라고, 이행되어야 한다. 정치인재도 발굴하고, 의원되고 나면 국민무시하는 원내의원들 견제 효과도 있고, 수도권 기반도 미리 다질 수 있는 방법이다. 꼭 이행되길 바란다. 그리고 역시 한동훈이	.	한동훈	삭제
199	2024-05-28 23:17	한동훈 오늘 낸 지구당 복원 총선용으로 반짝 청년 정치인 영입인재로 뎀고 온 후 낙선하면 뭣도 안 되는 상황이더만 저런 방향성 참 좋다 청년 중심의 당으로 재편 해내길 한동	.	한동훈	삭제

200	2024-05-29 10:31	■ 한동훈 대세론의 이유 1 ■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국민 지지자들의 세력이 도처에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대세론입니다. 한동훈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 가만 있는데 왜 한동훈 대세론이 물결치듯 일어나는 것일까요? 국민들이 정치인을 보는 안목이 정확하고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국민들은 한동훈의 무엇을 보고 지지하는 것일까요? 첫째, 탁월한 언변	첫째, 탁월한 언변 때문으로 봅니다. 정치인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언변인데 한동훈은 언변이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한동훈처럼 준비한 페이퍼 없이 마이크만 잡고 그 어떤 상대라도 논박할 수 있고, 그 어떤 장소에서도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는 없었습니다.	한동훈	삭제
201	2024-05-30 0:02	백서는 이미 신뢰를 잃었어요 휴지조각에 불과함 누가 그걸 신뢰함?	기회주의자 조정훈이 백서 위원장을 맡은 것 부터 이미 백서는 신뢰를 상실함. 투표한 국민들 한테 왜 국힘 후보를 찍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될 걸.. 이당 저당 옮겨 다니며 간 보고 다닌 조정훈이 친윤 이철규의 지시로 백서 위원장을 맡아 한동훈을 죽이려는 술책임을 모르는 국민이 있냐!!!	한동훈	삭제

202	2024-05-30 3:05	국힘이 진 이유는 세살 어린이도 다 아는데 무슨 백서를 만든다고 저리 난리입니까?	국힘이 진 이유는 세살 어린이도 다 아는데 무슨 백서를 만든다고 저리 난리입니까? 윤 통의 고집과 불통 아니요? 세월호 추모식에도 불참, 김건희 백 사건때 바로 신속하게 국민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지 않은 점, 황상무 이종섭 사건때도 빠른 대처를 안하고 고집부린점, 최고점은 의대증원때 고집 부리며 타협하지 않은점, 서서히 해마다 증원하겠다 한마디만 했어도 저렇게 폭망 안 했을거요. 그때 윤의 불통과 고집, 오만이 최고점을 찍었어요. 국민은 그때 질렸습니다. 결국 이제와서 1500명으로 줄일걸…왜 총선때 저렇게 안하고 지고나서 이제와서 1500으로 줄입니까? 윤통의 정무감각이 너무 떨어집니다. 마누라 리스크가 계속 따라다니고.. 제대로 인지하고 솔직해지세요. 국민의 힘 정치인	한동훈	삭제
203	2024-05-30 19:01	집단지도체제 절대반대입니다 친윤 똥들 나댁려고	절대반대	진형구	
204	2024-05-31 13:06	황우여! 1위 한동훈이랑 2위 주자간의 차이가 열배도 넘는데 집단? ㅎㅎ한동훈 견제가 아니면 이렇게 바꿀일도 없겠지. 국힘은 진짜 구제불	.	한동훈	삭제
205	2024-05-31 13:20	집단지도체제 반대한다.	집단 지도 체제는 지지율 높은 유력 인물을 견제하려는 목적에 지지율 낮은 사람도 진출 위해 택하는듯 한데 멀리 갈 것 없이 주요 정당이 집단지도체제로 돌아갈 때 계파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보면 알 수 있다. 내분으로 지도부가 분열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김무성 당 대표 시절이 집단지도체제의 단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 2016년 총선 공천 과정에	진은정	삭제
206	2024-06-01 22:22	집단지도체제 반대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장단이 있지만 이번에 한동훈 견제를 위한 룰변경 반대	한동훈	삭제
207	2024-06-01 23:02	집단지도체제 하면 매일 내분기사 남. 과거 김무성 당 대표 시절이 집단지도체제의 단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 2016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옥새 파동'을 일으켜	.	한동훈	삭제
208	2024-06-02 0:35	한동훈, 총선 후 차기 조사에 국힘 지지층 60% 이상	.	한동훈	삭제
209	2024-06-02 0:38	윤석열대통령님 술드시고 새벽에 전화돌리는거 자제 부탁	저도 술을 좋아하는데 왜 자꾸 술이 과하다고 온갖 군데서 이야기 나오겠어요. 불안하니까, 잠을 못 자니까 이걸 마시지 않으면 자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마신다고 자다가 또 깨요. 푹 주무시면 되는데. 그래서 새벽에 오만 군데 전화를 걸고 하는 건데 그 불안이 국민적인 불안으로 같이 오고 있다.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동훈	삭제

210	2024-06-02 0:49	한동훈을 하면 시청률이 잘 나온대요. 그 시청자들이, 종편을 보시는 분들의 정치적 성향이 거의 보수층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동훈이 나오면 그나마 채널을 돌리지 않고 본다는 거죠. 그만큼 소구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당내에서는 22대 국회도 국민의힘이 용산의 출장소처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변화의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동훈이라는 변수입니다. 한동훈이라는 변수가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아마 전당대회 출마를 한 90% 정도는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목격담 정치를 통해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흘리고 있고 굵직굵직한 사람들하고는 만남을 가져가고 있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특히 윤 대통령과의 나름대로의 차별화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수언론들이 윤하고는 차별화를,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을 했는데 그 대타로 상당히 급속하게 한동훈 쪽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수언론들이 하는 종편에 출연하면서 아이템을 잡는 걸 보면 요새 한동훈 이야기가 거의 빠지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한동훈은 지금 입장도 안 밝혔는데 왜 계속 이야기를 하냐, 이러면 한동훈을 하면 시청률이 잘 나온대요. 그 시청자들이, 종편을 보시는 분들의 정치적 성향이 거의 보수층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동훈이 나오면 그나마 채널을 돌리지 않고 본다는 거죠. 그만큼 소구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동훈을 통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변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대한 결심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본인이 지난 총선 때 한동훈만의 색깔, 정치 철학, 비전 이런 걸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결기,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나도 대통령하고 맞짱을 뜨겠다는 정도의 결기를 보여줄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	한동훈	삭제
211	2024-06-02 9:52	집단지도체체 결사반대/ 옛날처럼 서로 잘났다고 사사건건 싸우는 모습 보기 싫습니다. 차기 당대표 알아서 할일 입니다	집단지도체체 결사반대/ 옛날처럼 서로 잘났다고 사사건건 싸우는 모습 보기 싫습니다. 차기 당대표 알아서 할일 입니다.	한동훈	삭제
212	2024-06-02 10:30	집단지도체제 하면 아마 줄탈당할 겁니다	한동훈 보고 가입한 당원	한동훈	삭제
213	2024-06-02 17:38	집단지도체제 절대 반대 황우여 정신차리세요	.	한동훈	삭제
214	2024-06-03 0:00	대통령 21% 지지율 가진 당 주제에 무슨 흥행 웅앵웅? 집단지도체제 해서 흥행시킨다고? 제정신이니? 당원들 다 보이콧한다	.	한동훈	삭제

215	2024-06-03 0:13	황우여씨 집단지도 어디서 시켰는지 모르지만 당원 무더기 탈당 보고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	한동훈	삭제
216	2024-06-03 0:16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하라. 법무부가 다 준비해서 냈는데 니들 방탄이다 하다가 폐기됐다 22대에서 입법 반드시 해라	경기 수원지역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살다 나온 박병화가 최근 수원 번화가 오피스텔에 전입하자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이곳에 20, 30대 여성이 많이 살다 보니 경찰관이 엘리베이터에 동승해 집까지 데려다주고, 일부 주민은 이사 갈 집을 알아본다고 한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 10여 개, 학교 10여 곳이 몰려 있어 불안감은 더 확산되고 있다. 조두순이 2020년 출소 후 경기 안산에 거처를 마련했을 때 불과 1km 거리에 살던 피해자 가족들이 결국 이사를 가야 했던 사태가 반복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수원시는 해당 오피스텔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요원도 채용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보호조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고 실효성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보호관찰 당국이 집중 감시를 했다는 조두순도 지난해 3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리를 활보하다 붙잡혔다. 성범죄 재범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신상공개 성범죄자의 재범은 4년 새 28%가량 늘어난 1417건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나 보육시설로부터 반경 500m 내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성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이중 처벌이 이뤄져선 안 되지만 무고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법률에 근거해 적정 수준의 제약을 두는 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 기존 입법 예고안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3회 이상 상습범, 10년 이상 복역한 전자발찌 부착자 등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했다. 박병화 조두순 같은 흉악한 성범죄자들이 매년 60명가량 출소하는데 이들의 거주지를 제한할 최소한의 기준마저 없다면 재범 위험이 커지는 건 물론이고, 주민들이 불안을 견디다 못해 이사 가야 하는 부조리가 계속될 것	한동훈	삭제
217	2024-06-03 0:28	집단지도체제? 한동훈 견제에 눈멀어 당을 완전 멸망시키려고? 당원들 다 나간다 안그래도 민주당원숫자에 턱없이 모자라면서	.	한동훈	삭제

218	2024-06-03 10:10	관리형 임시직 황우여는 월권하지 말고 룰 70.30 정하고 나가세요 어딜 지도부 체제를 건드리시나요 무슨 권리로? 당신이 당원에게 뽑힌	.	한동훈	삭제
219	2024-06-03 11:04	하이브리드 집단지도체제 당원 모두 반대함 황우여 월권하지 마라	.	한동훈	삭제
220	2024-06-03 11:36	까를 위한 까만 하는 유승민 지도부 입성하는 집단지도체제 절대 반대	.	한동훈	삭제
221	2024-06-03 11:46	배씨랑 오씨 바톤터치 했네 아이디 나눠쓰나봐	.	한동훈	삭제
222	2024-06-03 15:23	비율5대5 , 집단지도체제 하기만해 보쇼 절대반대니까	책임당원 호구로아나 맘대로하려고해 잡것들이	진형구	
223	2024-06-03 15:27	당원100% 단일지도체제 하십쇼 명령입니다	허튼짓하면 가만안있습니다	진형구	
224	2024-06-03 16:40	용산 눈 높이 이미 서울 17%.전국 21%. 용산에 맞춰 집단지도체제 하면 중도뿐 아니라 국힘당원 집단 탈	.	한동훈	삭제
225	2024-06-03 16:59	당원지지자가 떳떳하려면 한동훈으로 가야되요	윤석열 김건희는 도저히 쉴드가안되고 창피합니다	진형구	
226	2024-06-03 21:10	단일지도체제 확정입니다 당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훈대표 체제로 똘똘 뭉쳐봅시다	진형구	
227	2024-06-03 21:21	집단지도체제는 김건희 카페 얘들의 주장입니다	그리알고 계십쇼	진형구	
228	2024-06-03 21:37	솔직히 현재 용산이 멀해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먼짓을해도 좋게보질 않아요 어디가서 윤석열 김건희 지지한다 말할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지요	진형구	
229	2024-06-03 21:52	오세훈이 김건희픽 이란 말이돕니다	서울시장이나 잘하지 욕심이 끝이없어보여요김건희픽 오세훈.... 어떠세요들?	진형구	
230	2024-06-04 16:15	집단지도체제 절대반대! 당원100% 절대찬성!	허튼짓하지마쇼	진형구	
231	2024-06-04 16:19	누굴위한 전당대회 룰입니까? 김건희? 개욕갑떡지마세요	화나게하지마십쇼	진형구	
232	2024-06-04 16:30	당비내는 당원이 호구냐 무조건 당원100% 가야됨	당대표는 당원이 뽑아야지	진형구	
233	2024-06-04 21:13	집단지도체제 하지마세요 당권대권 분리 삭제. 안하면 이재명 민주당에 당합니	.	한동훈	삭제

234	2024-06-05 15:03	윤석열 이재명이랑 야합했니? 2인지도체제니 뭐니 그모양으로 민주당 대선에서 어떻게 이기게?	.	한동훈	삭제
235	2024-06-05 17:35	당원들한테 쫓겨나고 싶으십니까	능력도 인기도없는것들이 욕심만 많아서 아주꼴갑들을 하십니다전당대회 똑바로 준비하십쇼	진형구	
236	2024-06-05 18:22	황우여 총선때 비공개 비례대표신청 했었데요	이현종이 그러네요 에효 한심한 이노인네야	진형구	
237	2024-06-05 19:54	황우여 개수작하지마라 늙은 탐욕자야	몰래 비례대표나 신청하는 등신아	진형구	
238	2024-06-06 0:00	황우여 사퇴해라 총리한다고 용산과 야합한다면서?매일 말 바뀌고 형수리	특정인 견제위해 당헌 변경 당원들이 받아들일거 같냐	한동훈	삭제
239	2024-06-06 20:10	룰 빨리정해 개1새끼들아 언플만 하지말고 늙은 황구새끼야	단일지도로	진형구	
240	2024-06-06 20:13	윤석열 친윤 쌍판으론 선거 못이김, 무조건 한동훈으로 가야됨	저새끼들 너무 무식해	진형구	
241	2024-06-06 20:20	더이상 당에 개입하면 윤석열 임기 못채움	끌어내는데 힘보탤거임	진형구	
242	2024-06-07 0:16	2인체제 반대 황우여 노욕 그만 모든 사람이 반대인데 고집 ㄴㄴ	.	한동훈	삭제
243	2024-06-07 2:05	김건희 카톡 뭐에요 ㅋㅋㅋ 와 ㅋㅋ : 대신.욕먹어달라고.하신 문통의. 부탁도받고 저희는, 정치인도아니고, 정치할생각도 없으니.지 지자들에게.계속존경받 으시고.대신.욕먹고.배신 자로 낙인찍히더라도 성공한대통령을.만들.려 는.충심.이었죠	윤석열은 문재인 충신 진보의 오야붕? 어휴	한동훈	삭제
244	2024-06-07 2:32	김건희 카톡: 김어준은 훌륭한 비지니스 사업가 ㅋㅋㅋ	.	한동훈	삭제
245	2024-06-07 12:58	황우여 개1새끼야 용산에 한자리 약속받았냐	늙은새끼가 욕심부리지마 씨1발새끼야	진형구	
246	2024-06-07 18:41	하이브리드 ? 개소리하지마 늙은 탐욕 개늠아	어디서 개소리야	진형구	
247	2024-06-07 18:45	윤딸 건딸 무당들아 욕심내려놓고 대세 받아들여라	양심을 부정하는것들 ㅉㅉ	진형구	
248	2024-06-09 14:14	황우여 이새끼 한자리약속받고 저지1랄 하는구만	한심한 늙은 탐욕자 새끼	진형구	

249	2024-06-09 14:21	함성득이 김건희라인 인데 건희가 당 좌지우지 하려고? 이런 18	안되겠구만 이런 18	진형구	
250	2024-06-09 14:26	윤석열 이재명 딜할수도있음 그래서 한동훈이 당대표되야함	4년중임제 딜칠수도있음 돌고있는 시나리오 무조건 당대표 한동훈이 되야됨	진형구	
251	2024-06-09 14:34	결론은 황우여가 김건희 말듣고있을 18 !!! 이게 말이됨!!!	별 개같은 꼴을 다보는중	진형구	
252	2024-06-09 14:38	황우여 그나이먹고 김건희 애완노릇하고싶냐 인간아!	왜사니 왜살어	진형구	
253	2024-06-09 14:41	전당대회룰 확정도 안한건 계속 지령받고있는거야 븅신이	존.나 한심해요 77살 등신	진형구	
254	2024-06-09 14:44	황우여 출당시키고 당무개입청부 수사해야됨	ㅆ노무 새끼	진형구	
255	2024-06-09 16:16	염병하네 머 승계형지도체제? 탐욕스런 그1새끼들아	지.랄말고 원래대로해	진형구	
256	2024-06-10 10:18	용산 비선이나 만나고 다닌 황우여 사퇴해라. 추경호 원내가 대행하면 된다	.	한동훈	삭제
257	2024-06-10 11:13	용산 황우여 여상국 할배트리오들이 당 망치네	.	한동훈	삭제
258	2024-06-10 11:24	특정인 궐위를 예상하고 전당대회 ㅋ 용산이랑 같이 그냥 망해라 창당이 답	.	한동훈	삭제
259	2024-06-10 11:45	승계형단일? 말장난하고있네 늙은개1새끼들이	못봐주겠네	진형구	
260	2024-06-10 13:03	2인지도체제를 승계형 단일 지도체제로 이름만 바꿔서 한다는거 반대	.	한동훈	삭제
261	2024-06-10 15:18	2인체제 하이브리드 승계형 꿈도 꾸지마세요 당원 무시하냐	당대표 2인체제는 의사결정의 집중화로 당 내부 다양성을 제약할 수 있으며, 당원들 간의 견해 충돌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특정 성향에 따라 당 정책에 지나치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대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도모하는 더 다양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한동훈	삭제
262	2024-06-11 17:00	결과 와 미래는 한동훈이니 황 여 늙은이들 용쓰지마쇼	가서 손주나보쇼	진형구	
263	2024-06-11 18:32	7대3으로 최고위에 지네 꼬붕들 집어넣으려고 수쓰네	절대안될거다	진형구	
264	2024-06-12 18:17	최고위원도 한대표 도울사람 찍어야합니다	최고위원은 2명 찍을수있을겁니다 잘선택해서 찍으셔야합니다아마도 소개할겁니다	진형구	

265	2024-06-12 20:11	배씨야 이제 좀 가라 ㅋㅋㅋ 아오 전대룰 이제 단일체제라고 ㅋㅋㅋ 그만 작종 작 ㅋㅋㅋ	.	한동훈	삭제
266	2024-06-12 20:15	배씨가 아무리 난리쳐도 어대한. 국힘은 어대한!! 진짜 저 무기력한것들 어쩜 정신좀 차리게 해주세요	.	한동훈	삭제
267	2024-06-12 20:19	배씨김씨 이제 정들었어요 친하게 지내자요 ㅋㅋㅋㅋㅋ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인데	.	한동훈	삭제
268	2024-06-12 20:23	배씨 약먹고 왔어요? 우쭈쭈쭈 시간 맞춰 먹어요 꼭!! 정신건강이 중요한거예요 사랑해요	.	한동훈	삭제
269	2024-06-12 20:58	이철규 단식하라! 이철규 단식해서 법사위 가져와 김건희 방탄해!!	.	한동훈	삭제
270	2024-06-12 21:14	이철규 단식해!!이철규 단식해!!이철규 단식해!!이철규 단식해!!이철규 단식해!!	.	한동훈	삭제
271	2024-06-15 15:07	진보오야붕붕이 넘 웃김 이게 별명이라네요	.	한동훈	삭제
272	2024-06-20 17:02	사심없고 정치개혁 이룰 한동훈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가시밭길 이지만 잘 이겨내시라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	한동훈	삭제
273	2024-06-20 17:06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어차피 대통령은 한동훈)!!!!!	.	한동훈	삭제
274	2024-06-21 15:05	나경원 1시 원희룡3시 에효.. 등신들 진짜 쫄팍리게	저것들 중진맞냐 등신들...	진형구	
275	2024-06-22 13:18	한동훈 되도않는 좌파몰이 안했으면 끌올 안됐을 윤석열 김건희 원희룡 진짜 좌파증거만 계속 나오네 ㅋㅋ	.	한동훈	삭제

276	2024-06-23 22:40	제3자특검 신의 한수 어제 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하는거 보고 국민들 우려가 더 커졌다 언제까지 피해다니며 민주당에게 질질 끌려갈 수 없다 국민의힘이 선수쳐서 주도권을 끌고 가야한다 그리고 한점 의혹이라도 떨쳐내는게 순직 군장병들에게도 예의다 안보는 보수 아닌	.	한동훈	삭제
277	2024-06-24 12:45	황우여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하네 뭐 도태우 장예찬 복당?? 비대위 사퇴해라	.	한동훈	삭제
278	2024-06-24 12:53	진보의 오야붕을 빠는 튜버들 3년 뒤의 모습은? 이재명이 받지도 못하는 제3자가 특검 임명하는 채상병특검이 대통령도 지키고 매일 모욕당하는 여당이 프레임을 바꾸는 솔로몬의 지혜인 걸 왜 모르나. 야당쪽 머리 가진 사람들은 입꾹하고 있는데. 당권 가져보려고 말도 안되는 헛소리들. 그럼 이 상황을 어찌 돌파 가능하겠나. 국민 70프로가	.	한동훈	삭제
279	2024-06-24 13:07	장예찬 도태우는 해당행위자다!!! 복당 절대 반대!! 국힘은 자통당인가?	.	한동훈	삭제
280	2024-06-24 19:02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동훈 당대표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에는 양날의 검이 되는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 제안으로) 국회에서 타협의 여지가 생기는 것으로, 중도층 민심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삭제
281	2024-06-24 19:08	국힘아.제발 특검법 주도권 가져와서 윤통좀 살리자 재의결때 9명 찬성표 나와서 민주당 것 통과 되면 대통도 국힘도 다 죽는다	.	한동훈	삭제

282	2024-06-24 19:12	장예찬 복당 반대 국힘 골로 가려고 하냐? 미친거야?	.	한동훈	삭제
283	2024-06-25 9:13	윤통을 망치는 사람들이 결국 친윤이다. 아첨꾼, 딸랑이들이 윤통 눈을 멀게한다. 당과 수평적관계에서	.	한동훈	삭제
284	2024-06-25 9:25	거대야당의 상임위 독식, 입법 독주, 일극체제 완성을 민심이 강하게 제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너희 국민의힘은 더 혼나봐야 한다'는 국민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명령에 우리는 응해야 합니	거대야당의 상임위 독식, 입법 독주, 일극체제 완성을 민심이 강하게 제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너희 국민의힘은 더 혼나봐야 한다'는 국민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명령에 우리는 응해야 합니다.	한동훈	삭제
285	2024-06-25 15:44	한상국 상사 부인 김한나님 이 시대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남은 3년동안 윤정부의 성공을 위해 누가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위	한상국 상사 부인 김한나님 이 시대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남은 3년동안 윤정부의 성공을 위해 누가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보아요~	한동훈	삭제
286	2024-06-25 16:00	한동훈 이러니 한동훈 한동훈하는 겁니다 고 한상국 부인 김한나후원회장님 잘부탁드립니다 한동훈으로 똘똘 뭉쳐서 보수정권 재창출합시	한동훈 이러니 한동훈 한동훈하는겁니다 고 한상국 부인 김한나후원회장님 잘부탁드립니다 한동훈으로 똘똘 뭉쳐서 보수정권 재창출합시다 한동훈 화이팅!	한동훈	삭제
287	2024-06-26 17:44	당헌당규에 대통령 당무개입 금지 없나요? 아! 그건 실정법위반이지?	.	한동훈	삭제
288	2024-06-26 17:51	원희룡님 어제 임이자 사무실 가서 노동부장관 시킬테니 본인 뽑으라고 한오 이건 뭐 일반?	알려줘	한동훈	삭제

289	2024-06-28 21:36	당은 공정해야 합니다. 어떤 후보는 지역장만나서 형님이라 부르고 다른후보들 모두들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당협장들도 그럼 한후보에게도 당원들 만날수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줘야하지않나요? 이건 당정룰에 어긋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다른 경로를통하여 당원들과 만남을 주선해서 충분히 만날 수있는 기회는 만들고 계시지만 공평하지 못하고 지역장이 사심으로 선택으로 인하여 당원들또한 무시당하는 거지요 정책을듣고 후보를 선택함에있어서 중요한 일정임이	당은 공정해야 합니다. 어떤 후보는 지역장만나서 형님이라 부르고 다른후보들 모두들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당협장들도 그럼 한후보에게도 당원들 만날수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줘야하지않나요? 이건 당정룰에 어긋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다른 경로를통하여 당원들과 만남을 주선해서 충분히 만날 수있는 기회는 만들고 계시지만 공평하지 못하고 지역장이	한동훈	삭제

290	2024-06-28 21:40	출장 가방에 당당히 태극기를 달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경쟁을 장려하고, 공정한 룰을 지키며...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참여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자유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는 신념..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좌파일 수 있나요? 당대표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의미 없고 철 지난 색깔론으로 경쟁후보를 깎아내려서야 되겠습니까? 대구, 부산 일정을 함께 하며 우리 당의	출장 가방에 당당히 태극기를 달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경쟁을 장려하고, 공정한 룰을 지키며...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참여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자유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는 신념..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좌파일 수 있나요? 당대표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의미 없고 철 지난 색깔론으로 경쟁후보를 깎아내려서야 되겠습니까? 대구, 부산 일정을 함께 하며 우리 당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절감했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한동훈	삭제
291	2024-06-28 23:23	[김어준 뉴스공장]원희룡 출연"박근혜 거취 결단해야"	.	한동훈	삭제
292	2024-06-29 12:18	원 후보는 또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국회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을 언급하며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 가장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하나"라고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무소속 후보가 연일 '보수 후보 색깔지우기'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인터뷰에서 이른바 '민주당 입당' 가능성까지 언급하더니, 이번에는 '	원 후보는 또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국회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을 언급하며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 가장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하나"라고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무소속 후보가 연일 '보수 후보 색깔지우기'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인터뷰에서 이른바 '민주당 입당' 가능성까지 언급하더니, 이번에는 '노무현 정신'을 강조했다. ??	한동훈	삭제

293	2024-06-30 20:18	원희룡님 참 안타까워 보이십니다 그래도 계양에서 두분의 훈훈한 모습을 보며 열렬히 응원했던 국민으로서 지금 원 후보님의 이성을 잃으신 듯한 모습을 보면서 정치에는 의리는 없고 원후보님께서 말씀 하시는 배신 만 난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도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왜 국민들은 한동훈 님을 간절히 바라는지 깊이 생각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깍아 내리면 상대보다 본인이 더 낮아진자는 걸 아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마음 찢어 놓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안타까워 보이십니다 그래도 계양에서 두분의 훈훈한 모습을 보며 열렬히 응원했던 국민으로서 지금 원 후보님의 이성을 잃으신 듯한 모습을 보면서 정치에는 의리는 없고 원후보님께서 말씀 하시는 배신 만 난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도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왜 국민들은 한동훈 님을 간절히 바라는지 깊이 생각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깍아 내리면 상대보다 본인이 더 낮아진자는 걸 아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마음	한동훈	삭제
294	2024-07-03 20:01	김민전 최고위후보 사퇴하세요 진짜 얼굴 들수가 없네 ㅠ 필리버스터는 정권력면 왜한건에요	ㅜㅜㅜ	한동훈	삭제
295	2024-07-03 20:48	본회의 사실상 첫날, 돌아가신 채상병 관련 필리버스터 하면서 잠자는 건 좀 아닙니다 지도부는 사퇴하세요	.	한동훈	삭제
296	2024-07-03 20:57	김민전의원님 양심있으면 최고위원은 사퇴하세요 지도부가 본회의 첫날 국회에서 쿨쿨 잠자는게 말됩니까 비례사퇴는 차마 말 안하겠습니다	.	한동훈	삭제
297	2024-07-06 2:18	진보의오야봉 무당 김건희는 그만 사라져라	그게 애국이다	진형구	
298	2024-07-06 9:34	사과문제는 자기남편인 대통령과의논하고 윤통이 당과논의해야지 왜 마누라가 당비대위원장에허락받아야하나???	.	한동훈	삭제

299	2024-07-06 9:38	김건희는 본인 문자 답 없다고 격노하고, 윤통은 마누라 문자 답 안했다고 격노하여 비대 위원장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하여간 이런 대통령 부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초일	김건희는 본인 문자 답없다고 격노하고, 윤통은 마누라 문자 답 안했다고 격노하여 비대 위원장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하여간 이런 대통령 부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초일 것이다. 환장의 궁합!!!	한동훈	삭제
300	2024-07-06 9:46	김건희 전대개입하여 한동훈을 무너트리려고 하네. 그렇게 아쉬우면 지금이라도 사과하지 그래? 무슨 말같은 소리를 해라. 윤통아~~~ 이쯤에서 한동훈을 밀아라~~~ 당 대표는 한동훈밖에 없고 다음 대선 후보는 한동훈밖에 없다. 그리고, 이재명을 이길 후보는 한동훈밖에 없	김건희 전대개입하여 한동훈을 무너트리려고 하네. 그렇게 아쉬우면 지금이라도 사과하지 그래? 무슨 말같은 소리를 해라. 윤통아~~~ 이쯤에서 한동훈을 밀아라~~~ 당 대표는 한동훈밖에 없고 다음 대선 후보는 한동훈밖에 없다. 그리고, 이재명을 이길 후보는 한동훈밖에 없다. O.K.?	한동훈	삭제
301	2024-07-06 9:55	한동훈은 저 여자 문자에 답하지 않은거 진짜 잘했다 왜 남편하고 상의안하고 여당 비대위원장에게 정무적 논의를 요청하냐? 진짜 이상한 분이네 빨리 제2부속실 설치해라 그냥 두면 윤통 큰일나겠다 게다가 전대 개입하려고 공개를 명령한것도 거의 불법의 영역이고, 아마 전문을 공개 못한건 문장중간에 점이	한동훈은 저 여자 문자에 답하지 않은거 진짜 잘했다 왜 남편하고 상의안하고 여당 비대위원장에게 정무적 논의를 요청하냐? 진짜 이상한 분이네 빨리 제2부속실 설치해라 그냥 두면 윤통 큰일나겠다 게다가 전대 개입하려고 공개를 명령한것도 거의 불법의 영역이고, 아마 전문을 공개 못한건 문장중간에 점이 가득해서 그런것이냐	한동훈	삭제

302	2024-07-06 10:02	저렇게 공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영부인자리에 앉아 있으니 큰일이다. 영부인 안하겠다 국민앞에 약속했으면거 용산 들어가자 마자 2부속실과 특별감찰관도 없이 영부인 노릇 하는걸 넘어서서 사적으로 종북간첩목사와 새벽 3시에 문자하고 디올백받더니 급기야 정당의 수장에게 본인의 처신에 관해 압박을 가하다니. 지금 터뜨린거 자체가 명백한 당무개입이다. 공적 마인드로 무장하고 외압에 흔들리지 않으며 민	저렇게 공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영부인자리에 앉아 있으니 큰일이다. 영부인 안하겠다 국민앞에 약속했으면 용산 들어가자 마자 2부속실과 특별감찰관도 없이 영부인 노릇 하는걸 넘어서서 사적으로 종북간첩목사와 새벽 3시에 문자하고 디올백받더니 급기야 정당의 수장에게 본인의 처신에 관해 압박을 가하다니. 지금 터뜨린거 자체가 명백한 당무개입이다. 공적 마인드로 무장하고 외압에 흔들리지 않으며 민주당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보수의 자랑 한동훈을 지지한다	한동훈	삭제
303	2024-07-06 10:07	공식루트로 이미 사과요구 했는데 개인적으로 당대표에게 구구절절 사과하면 안되는 이유 적고 니 판단에 맡긴다고 하는게 무슨 뜻이겠음? 취사선택 재구성 문자 공개한 시점에서의 결과론이지만 뭐라고 답변해도 뒤집어 씌우겠다는 의미임. 한동훈이 대처 ㄹㅇ 잘한거지. 아마 점이라도 하나 찍었으면 그걸로 다른 프레임 씌워서 공격했을거다 공적으로 이야기한거 너무나 현명함. 보니까 다른 후보들은 꽤나 사적으로 주고 받는지 김건희 쉴드	공식루트로 이미 사과요구 했는데 개인적으로 당대표에게 구구절절 사과하면 안되는 이유 적고 니 판단에 맡긴다고 하는게 무슨 뜻이겠음? 취사선택 재구성 문자 공개한 시점에서의 결과론이지만 뭐라고 답변해도 뒤집어 씌우겠다는 의미임. 한동훈이 대처 ㄹㅇ 잘한거지. 아마 점이라도 하나 찍었으면 그걸로 다른 프레임 씌워서 공격했을거다 공적으로 이야기한거 너무나 현명함. 보니까 다른 후보들은 꽤나 사적으로 주고 받는지 김건희 쉴드치던데 그게 문제인걸 못느끼는게 심각한 문제ㅉㅉ	한동훈	삭제
304	2024-07-06 10:14	용산은 전대 개입을 중단해라. 민심과 당심을 엎어보려다가는 이번엔 정말 역풍분다. 김건희는 조속히 제2부속실 설치해서 감시하고 관리감독해야할 사람이다. 매번 사고치고 정권교체, 국민의힘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게	용산은 전대 개입을 중단해라. 민심과 당심을 엎어보려다가는 이번엔 정말 역풍분다. 김건희는 조속히 제2부속실 설치해서 감시하고 관리감독해야할 사람이다. 매번 사고치고 정권교체, 국민의힘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게 한두번이 아니잖아.	한동훈	삭제

305	2024-07-06 10:19	야 내가 사과하면 되냐?? 지난번에 사과하니까 지지율 더 떨어지던데?? 뭘 어떻게하라고 니가 하란대로 다 해줄게 말해봐	야 내가 사과하면 되냐?? 지난번에 사과하니까 지지율 더 떨어지던데?? 뭘 어떻게하라고 니가 하란대로 다 해줄게 말해봐~	한동훈	삭제
306	2024-07-06 10:30	사과를 본인이 알아서 할일을, 비대위원장 한테 허락받고 사과하나, 윤통은 옆에 두었다 뭐할건가? 말이 쫌 안된다. 그냥 당대표 선거하는데, 뭐 이런일을 거기다 끼워 넣는	사과를 본인이 알아서 할일을, 비대 위원장 한테 허락받고 사과하나, 윤통은 옆에 두었다 뭐할건가? 말이 쫌 안된다. 그냥 당대표 선거하는데, 뭐 이런일을 거기다 끼워 넣는가?	한동훈	삭제
307	2024-07-06 10:34	윤 대통령 부인은 사과할 의사가 없었고 그러기에 지금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핵심 아닌가? 한동훈이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윤 대통령이 더 잘	윤 대통령 부인은 사과할 의사가 없었고 그러기에 지금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핵심 아닌가? 한동훈이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윤 대통령이 더 잘 안다.	한동훈	삭제
308	2024-07-06 10:39	김여사가 직접 사과 발표 했으면 총선 승리 여당 몫이였다. 소꿉 장난하냐? 카톡으로 정치하냐? 저러니 대통령탄핵 한다고 떠들지	김여사가 직접 사과 발표 했으면 총선 승리 여당 몫이였다. 소꿉 장난하냐? 카톡으로 정치하냐? 저러니 대통령탄핵 한다고 떠들지	한동훈	삭제
309	2024-07-06 10:55	[올바르게 사과하는 방법] 그냥 사과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것이 아니다. 사과를 할때 갖추어야할 요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통령이나 김여사가 이를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것쯤은 알고있다고 생각해도, 전문가 몇명에게 조언을 받는것이 필요하다. 제대로된 사과가 아니라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여사의 사과는 당과의 관계가 아니고, 국민과의 관계라는	[올바르게 사과하는 방법] 그냥 사과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것이 아니다. 사과를 할때 갖추어야할 요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통령이나 김여사가 이를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것쯤은 알고있다고 생각해도, 전문가 몇명에게 조언을 받는것이 필요하다. 제대로된 사과가 아니라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여사의 사과는 당과의 관계가 아니고, 국민과의 관계라는 사실도 지적하고 싶다.	한동훈	삭제

310	2024-07-06 11:02	지금처럼 문자 공개되면 한동훈이 어떠한 답변을 남겼더라도 문제가 됐을거다. 전당대회가 자폭전당대회가 되가니 참 안타깝다. ㅁ주당 정치공세 빌미만 제공하는 바보들!!	지금처럼 문자 공개되면 한동훈이 어떠한 답변을 남겼더라도 문제가 됐을거다. 전당대회가 자폭전당대회가 되가니 참 안타깝다. ㅁ주당 정치공세 빌미만 제공하는 바보들!! <문자 내용 정확한 건 아님> -인사말 생략- 몇 번이나 국민께 사과하려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사과를 하고 더한 것도 당에서 원하면 하겠습니다 문자의 핵심 내용 팩트체크 사과를 해서 지지율 올라가면 김건희 여사의 용기 덕분 (일반인은 문자 내용을 모를 것이므로) 사과를 해서 지지율 보합, 떨어지면 한동훈 책임 한마디로 책임을 한	한동훈	삭제
311	2024-07-06 11:06	김건희는 현 대한민국의 중대한 "리스크"다.한동훈이 곧 당대표 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제도적인 관	김건희는 현 대한민국의 중대한 "리스크"다.한동훈이 곧 당대표 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제도적인 관리장치를 수립해야 한다	한동훈	삭제
312	2024-07-06 11:10	사과도 상의해서 하나?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야지..백 받을 때도 받아도 되냐고 상의했나? 받을땐 본인 맘대로 받고 뒤처리는 남에게 미	사과도 상의해서 하나?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야지..백 받을 때도 받아도 되냐고 상의했나? 받을땐 본인 맘대로 받고 뒤처리는 남에게 미루나....	한동훈	삭제
313	2024-07-06 11:15	한동훈,그대가 가는길은 쉽지 않을거요.동시대에 이런 대통령을 보고 간다면 나 또한 영광이 될 것이오, 우리같은 장삼이사들은 동시대에 인물을 알아보고 그를 세워주는일이 역사에 남는일이오.평생을 뭔가 마뜩잖은 투표를 해왔는데 해질녘에 발견한 보물같은 그대여~앞으로 큰일을 하다보면 점점 높은곳에 서는 일이 많을거요,더 잘 보일거고 많이 보일걸세,지금 처럼 충분히 감당할 그릇을 지녔지만 사람인지라	한동훈,그대가 가는길은 쉽지 않을거요.동시대에 이런 대통령을 보고 간다면 나 또한 영광이 될 것이오,우리같은 장삼이사들은 동시대에 인물을 알아보고 그를 세워주는일이 역사에 남는일이오.평생을 뭔가 마뜩잖은 투표를 해왔는데 해질녘에 발견한 보물같은 그대여~앞으로 큰일을 하다보면 점점 높은곳에 서는 일이 많을거요,더 잘 보일거고 많이 보일걸세,지금 처럼 충분히 감당할 그릇을 지녔지만 사람인지라 힘들고 숨차도 지치지 말고 꺾이거나 돌아갈 생각도 슬퍼도 말고 많이 웃게나 그렇게 버텨서 투표지에 생생하게 이름 새겨서 나에게 뽑을 영광을 주시오	한동훈	삭제
314	2024-07-06 11:27	한동훈만이 보수를 살릴수 있다!!! 제발 한동훈 대표돼서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한동훈만이 보수를 살릴수 있다!!! 제발 한동훈 대표돼서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한동훈	삭제

315	2024-07-06 11:33	대통령 부인은 정치나 행정, 인사, 계약 등 이권개입에 관여할 수 없다는 법조항을 제정하여야 한다. 아무 직위나 직책을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적이 없는데 왜 비서실이나 주변사람 등 고관들이 받들어야 하나 대통령 자녀나 애완견도 받들어야 하는 것과 무어가 다르다할 수 있을까? 공직자로서 국민을 대통령부인 받들듯이 받드는 것이 공무원 등 공직자의 봉시정신이다. 특정인에는 잘못된 지시도 따르고 일반 국	대통령 부인은 정치나 행정, 인사, 계약 등 이권개입에 관여할 수 없다는 법조항을 제정하여야 한다. 아무 직위나 직책을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적이 없는데 왜 비서실이나 주변사람 등 고관들이 받들어야 하나 대통령 자녀나 애완견도 받들어야 하는 것과 무어가 다르다할 수 있을까? 공직자로서 국민을 대통령부인 받들듯이 받드는 것이 공무원 등 공직자의 봉시정신이다. 특정인에는 잘못된 지시도 따르고 일반 국민에게는 겁박하는 듯한 표현 등이 없었는지 잘살피어 정사을 살핀다면 그것이 공인들이 할일이다	한동훈	삭제
316	2024-07-06 11:45	윤석열, 친윤 얘네들 정말 구제불능이다. 친윤이 당대표되면 국힘 당원들이 심각한 당분열로 가고 폭망한다는 게 안 보이는가? 근본적으로 윤석열 지지가 낮아서 비롯되는 문제인데 줄세워서 극복될거라 보나? 좋든 싫든 건설적 변화외엔 답이 없단다. 그리고 모든 변화는 리스크를	윤석열, 친윤 얘네들 정말 구제불능이다. 친윤이 당대표되면 국힘 당원들이 심각한 당분열로 가고 폭망한다는 게 안 보이는가? 근본적으로 윤석열 지지가 낮아서 비롯되는 문제인데 줄세워서 극복될거라 보나? 좋든 싫든 건설적 변화외엔 답이 없단다. 그리고 모든 변화는 리스크를 동반하는 건 당연한거고...	한동훈	삭제
317	2024-07-06 12:27	사과할일을 했으면 누구와 상의할 일인가! 본인 스스로 나서서 진정성있게 자신의 모자람을 사죄하면 될 일이다. 다른 여자의 남편인 한동훈에게 거리낌없이 문자를 보내고 정말 천박하기 그지없는 여편네다. 한	사과할일을 했으면 누구와 상의할 일인가! 본인 스스로 나서서 진정성있게 자신의 모자람을 사죄하면 될일이다. 다른 여자의 남편인 한동훈에게 거리낌없이 문자를 보내고 정말 천박하기 그지없는 여편네다. 한동훈은 정말 단호하게 잘처리했네	한동훈	삭제
318	2024-07-06 15:59	김건희 하나만 없어지면 다 괜찮아진다	정답이다	진형구	
319	2024-07-06 16:10	민주당을 항상 도와주는 김건희	이거 가만보면 민주당을 ㅈㄴ 도와줌 입열고 얼굴내밀때마다 민주당 개짓거리 다 묻힘	진형구	
320	2024-07-06 16:16	보수정권 역사상 이런 미친 영부인이 있었나	영부인이라 부르고싶지도않다 걍 무당같다 미친	진형구	

321	2024-07-06 17:49	김건희 이거 해명해라 고모 시켜서 -- 현장유튜버에게 김건희 고모가 전화해서 협박+ 딥페이크 영상 뿌	현장유튜버에게 김건희 고모가 전화해서 협박+ 딥페이크 영상 뿌림 https://gall.dcinside.com/drama_new3/15507008	한동훈	삭제
322	2024-07-06 18:05	문자답안했다고 비대위원장 사퇴하라는게 말이나되냐 총선를 앞두고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한테~~~ 명품백은 왜 받아서 이렇게 시끄럽게	문자답안했다고 비대위원장 사퇴하라는게 말이나되냐 총선를 앞두고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한테~~~ 명품백은 왜 받아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한동훈	삭제
323	2024-07-06 18:14	국민의 힘, 총선에서 그토록 발살나 놓고도 정신 못 차렸냐? 합심해도 더불어공산당에게 깨지면서 기껏 한다는 짓이 치졸한 당권 다툼이냐? 김건희 여사가 언급되는거 자체가 마이너스 요인이다. 쓸데없는 논란거리로 국민 기대 저버리지 마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때	국민의 힘, 총선에서 그토록 발살나 놓고도 정신 못 차렸냐? 합심해도 더불어당에게 깨지면서 기껏 한다는 짓이 치졸한 당권 다툼이냐? 김건희 여사가 언급되는거 자체가 마이너스 요인이다. 쓸데없는 논란거리로 국민 기대 저버리지 마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한동훈	삭제
324	2024-07-06 18:19	그렇게 뒤에서 국정농단하지말고 그냥 김건희가 출마해라	둘이 텔레한걸 왜 유출해? 김건희씨?	한동훈	삭제
325	2024-07-06 18:27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알려진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출신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서 “이걸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김건희 여사 아니면 한동훈 전 위원장일 텐데 김 여사 쪽에서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김건희 여사의 전당대회 개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과거 한 후보와의 친분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여당 비대위원장에게 사과 요청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알려진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출신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서 “이걸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김건희 여사 아니면 한동훈 전 위원장일 텐데 김 여사 쪽에서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김건희 여사의 전당대회 개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과거 한 후보와의 친분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여당 비대위원장에게 사과 요청을 한 것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사과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의아한 대목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한국방송(KBS) 대담 때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사과하지 않았다.	한동훈	삭제
326	2024-07-06 18:36	사퇴요구 --- 당무개입	남편이 대통령이면 그 마누라도 대통령이라도 된것처럼 공적인 절차없이 함부로 선거에 개입해도 되는것이냐? 이제 그일을 누설해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려단 오히려 역풍맞는	한동훈	삭제

327	2024-07-07 8:11	자유총연맹이라는 우파진영의 대표적 행사에서 그것도 누가 봐도 이른바 한동훈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행사 참석 모든 관중이 함께 하는 이런 반응에 솔직히 나 자신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제 내가 한국자유총연맹 제70주년 행사장에서 놀랐던 것은 한동훈 후보 향한 참석자들의 지극히 자연스레 터져나오는 대중적 팬심을 확인한 것이었다. 행사가 시작하려는데 경기장 한 입구 구석진 곳에서 갑자기 "와~!"하는 환호와 탄성이 쏟아지길래 뭔 일인가 다들 놀라서 돌아봤는데, 한동훈 후보가 입장해서였다. 그 환호가 무슨 파도타기하듯이 무대 중앙쪽으로 차츰 옮겨오자, 비로소 내 옆에 앉아있던 이들 속에 "한동훈이 왔구나"하는 웅성거림이 일었다. 내가 그 물결 속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마디로 난리법석이었다. 한동훈 후보가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와~!"하는 환호성으로 주변이 출렁거렸다. 최근에 일부 우파 세력에 의해 "한동훈 좌"이란 터무니없는 마타도어 공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자유총연맹이라는 우파진영의 대표적 행사에서 그것도 누가 봐도 이른바 한동훈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행사 참석 모든 관중이 함께 하는 이런 반응에 솔직히 나 자신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동훈	삭제
328	2024-07-07 8:27	누가, 왜 6개월이나 지난 지금 전당대회 본경선 기간에 이걸 공개해서 온 언론의 헤드에 김건희 이름이 도배되게 만들었는지 그 사람들이야말로 해당 행위자들임. 그리고 용산은 제2부속실 설치 안함? 김건희 리	누가, 왜 6개월이나 지난 지금 전당대회 본경선 기간에 이걸 공개해서 온 언론의 헤드에 김건희 이름이 도배되게 만들었는지 그 사람들이야말로 해당 행위자들임. 그리고 용산은 제2부속실 설치 안함? 김건희 리스크 지겹다	한동훈	삭제
329	2024-07-07 9:51	한동훈이 지지층과 중도에 소구력이 있는것은 너무나 잘 교육받고 생각많이 하고 자란티가 나고 인문학적 소양이 있기 때문 대중속으로 나오자 검사라는 이미지보다 젠틀한 공감능력있는 젊은 정치인 느낌이	한동훈이 지지층과 중도에 소구력이 있는것은 너무나 잘 교육받고 생각많이 하고 자란티가 나고 인문학적 소양이 있기 때문 대중속으로 나오자 검사라는 이미지보다 젠틀한 공감능력있는 젊은 정치인 느낌이 훨씬 강하고 그게 통했음	한동훈	삭제
330	2024-07-07 10:55	김건희는 정신이 있나? 왜 남편 패싱하고 남편 동료한테.. 직접 문자질?	한동훈이 허락을 안해서 사과를 안했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데 이게 상식에 맞는 이야기인가? 또 한동훈은 그 문자가 사과를 못하겠다는 내용이라하는데 이제와 영부인이 뒤에서 이런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영부인이 한동훈을 내치려 하는거 아닌가? 참.. 뒤에서 지금껏 이런식으로 당무에 개입을 해서 나라가 이 사단이 났는데도 아직 이 버릇을 못버리고 충신을 내치려하다니.. 영부인은 자신과 대통령은 물론 당과 나라를 얼마나 더 망가뜨	한동훈	삭제
331	2024-07-07 11:54	김건희는 사적 연락망으로 당무개입 그만 해라 국정농단 짓거리도 아니고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	한동훈	삭제

332	2024-07-07 14:13	원희룡 박종진 이상규 이새1끼들 축당제명해라	이런 개종자들	진형구	
333	2024-07-07 14:59	김건희 왜 공적통로로 사과해주세요 부탁한건 쌩까고 문자에 집착?	공적통로로 사과하란건 쌩까고 친윤용산 격노 책상쾅 해놓고 왜 사적문자에 집착 공적통로로 사과의사 전달한게 한동훈 의사인데 문자로 컨펌 받고싶었던거?	한동훈	삭제
334	2024-07-07 15:00	원희룡에 붙은 지자체장들 다 죽여야됨	다음지선때 다 공천 나가리 시켜야됨	진형구	
335	2024-07-07 15:48	원희룡 사퇴해라 살고싶으면	인내의 한계가온다	진형구	
336	2024-07-07 16:22	원희룡 박종진은 수사받아야할듯	선을넘었음	진형구	
337	2024-07-07 22:15	원희룡 박종진 출당시켜라 좋은말로할때	양아치걔새끼들	진형구	
338	2024-07-08 10:54	윤석열 이등신은 마누라 단속도 못해서 쯔쯔	먼짓을해도 눈감고있었구만	진형구	
339	2024-07-08 16:19	자막관리하는 새끼 누구야! 최고의원후보 한동훈?	젖같이하네 씨1발넝들이	진형구	
340	2024-07-13 14:16	윤리위!!왜요!!누가 소집하래요??누가??용산??아님 한남동?? 영부인 파워 쎄네!누가 통화했나!! 원희룡 혼자 난리인데...왜 한동훈.한동훈캠프한테 난리냐고!. 한동훈한테	윤리위!!왜요!!누가 소집하래요??누가??용산??아님 한남동?? 영부인 파워 쎄네!누가 통화했나!! 원희룡 혼자 난리인데...왜 한동훈.한동훈캠프한테 난리냐고!. 한동훈한테 해코지하면 가만 안둔다!	한동훈	삭제
341	2024-07-13 14:24	연판장 주도한.박종진, 이상규. 조광한 그리고 네거티브에 올인한 원후보측에 대해 윤리위회부하시길 바랍니다. 네거티브.방어만 하고있는 한동훈 후보측은.절대 언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당원들이 똑똑히 보고 있으니 잘 처신하시길	연판장 주도한.박종진, 이상규. 조광한 그리고 네거티브에 올인한 원후보측에 대해 윤리위회부하시길 바랍니다. 네거티브.방어만 하고있는 한동훈 후보측은.절대 언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당원들이 똑똑히 보고 있으니 잘 처신하시길 바랍니다.	한동훈	삭제

342	2024-07-13 14:35	원희룡 혼자 일방적으로 온갖 루머와 허위사실로 똥물 뿌리는데 아닌걸 아니라고 반박한 한동훈과 같이 묶는게 국힘 선관위가 말하는 공평이냐? 원희룡의 선넘는 네거티브에 의원들도 당원들도 제지하라 할땐 조용하더니 뭐하는거냐 그리고 선관위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선관위 소속이 후보떨어뜨리려고 연판장 돌리기에 직접 나섰는데 사퇴시키지도 않고	원희룡 혼자 일방적으로 온갖 루머와 허위사실로 똥물 뿌리는데 아닌걸 아니라고 반박한 한동훈과 같이 묶는게 국힘 선관위가 말하는 공평이냐? 원희룡의 선넘는 네거티브에 의원들도 당원들도 제지하라 할땐 조용하더니 뭐하는거냐 그리고 선관위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선관위 소속이 후보떨어뜨리려고 연판장 돌리기에 직접 나섰는데 사퇴시키지도 않고 받아준게 말이냐	한동훈	삭제
343	2024-07-13 14:38	윤리위? 김여사가 또 전화 돌린거야??? 이준석하고도당대표때 연락주고 받았더던데 도대체 전화 안한곳이 있냐? 니가 대통이야?? 선관위나 윤리위 니네 똑바로 해라 원희	윤리위? 김여사가 또 전화 돌린거야??? 이준석하고도당대표때 연락 주고 받았더던데 도대체 전화 안한곳이 있냐? 니가 대통이야?? 선관위나 윤리위 니네 똑바로 해라 원희룡 입틀막이나 시키던가	한동훈	삭제
344	2024-07-13 16:24	선관위는 임이자 징계하라! 원희룡의 고노부장관 추천 약속 당헌당규 위반이고 임이자는 역시 당헌당규 위반이다. 당원들이 전화하니 오지	선관위는 임이자 징계하라! 원희룡의 고노부장관 추천 약속 당헌당규 위반이고 임이자 역시 당헌당규 위반이다. 오늘 한동훈 후보 상주당협방문이 당원간담회인데 당원들이 전화하니 오지 말라고 했다. 증거 있음.	한동훈	삭제
345	2024-07-13 16:47	원희룡의 '임이자 장관 0순위 추천' 발언은 '정당법'상 '당 대표 경선 매수 행위이다. 선관위는 당장 임이자와 원희룡 장관 딜 한거 조사해라	원희룡의 '임이자 장관 0순위 추천' 발언은 '정당법'상 '당 대표 경선 매수 행위이다. 선관위는 당장 임이자와 원희룡 장관 딜 한거 조사해라	한동훈	삭제
346	2024-07-13 17:02	임이자와 임이자에게 노동부장관 약속한 원희룡 당원당규 위반이다. 선관위 당장 조사해라!	임이자 정말 욕을 해 주고 싶은데, 이철우도 그러더니 정말 이해가 안되는 인간들네. 분명히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한줌도 안되는 알량한 친윤 기득권 놓치 안으려 발버둥 치지만 변화를 모르는 너희들에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한동훈과	한동훈	삭제
347	2024-07-13 17:24	임이자 선관위 고발	임이자는 원희룡에게 고용노동부 장관 자리를 내락 받고 국힘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의 낙선을 목적으로 당원들에게는 방문을 알리지 않고 자신의 호위병들에게 깽판을 치도록 유도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하였으므로 당선관위는 임이자를 징계하라	한동훈	
348	2024-07-13 20:58	윤리위 는 당원매수한 원희룡과 오늘 해당행위한 임이자 당장 회부하고	일방적인 네거티브 피해자 한동훈 양비론 써서 건드리면 책임당원인데 만약 징계한다면 당연히 투표안할거고	한동훈	삭제

349	2024-07-13 21:04	선관위와 윤리위는 원희룡만 징계 하라. 확실한 근거 하나도 못 대면서 한동훈을 비난 비방 하는 원희룡을 징계해야지, 왜 한동훈까지 경고 하냐? 한동훈은 원희룡 비난 비방에 방어를 했을 뿐이다...선관위와 윤리위는 똑바로 제대로 하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원들이 좌시하지	선관위와 윤리위는 원희룡만 징계 하라. 확실한 근거 하나도 못 대면서 한동훈을 비난 비방 하는 원희룡을 징계해야지, 왜 한동훈까지 경고 하냐? 한동훈은 원희룡 비난 비방에 방어를 했을 뿐이다...선관위와 윤리위는 똑바로 제대로 하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원들이 좌시하지 않겠다.....	한동훈	삭제
350	2024-07-13 21:11	한동훈 당 대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윤리위 회부해서 당 대표 퇴출시키는 빌드업 진행시키는 것 같은데 그런 김건희 부부의 보수 궤멸 작전을 국민과 당원이 절대 용서하지 않	한동훈 당 대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윤리위 회부해서 당 대표 퇴출시키는 빌드업 진행시키는 것 같은데 그런 김건희 부부의 보수 궤멸 작전을 국민과 당원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한동훈	삭제
351	2024-07-13 21:15	해당행위 반복하는 원희룡 나경원 후보 징계하십시오. 왜 자꾸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	.	한동훈	삭제
352	2024-07-13 21:22	임이자 해당행위 당규위반 윤리위 당장 회부해라 그거와 별도로 상주 임이자 인가ㅈ그사람 만행은놔두고라도 그 어르신들의 걱정과성토에 한동훈이 진짜 품격있고ㅈ고상하게 전혀 흩트림없이 짧은 연설로 모두 안심시켜드려서 해피엔딩으로 마무	임이자 해당행위 당규위반 윤리위 당장 회부해라 그거와 별도로 상주 임이자 인가ㅈ그사람 만행은놔두고라도 그 어르신들의 걱정과성토에 한동훈이 진짜 품격있고ㅈ고상하게 전혀 흩트림없이 짧은 연설로 모두 안심시켜드려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듯	한동훈	삭제
353	2024-07-13 21:26	원희룡 혼자 일방적으로 온갖 루머와 허위사실로 똥물 뿌리는데 아닌걸 아니라고 반박한 한동훈과 같이 묶는게 국힘 선관위가 말하는 공평이냐? 원희룡의 선넘는 네거티브에 의원들도 당원들도 제지하라 할땐 조용하더니 뭐하는거냐 그리고 선관위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선관위 소속이 후보떨어뜨리려고 연판장 돌리기에 직접 나섰는데 사퇴시키	원희룡 혼자 일방적으로 온갖 루머와 허위사실로 똥물 뿌리는데 아닌걸 아니라고 반박한 한동훈과 같이 묶는게 국힘 선관위가 말하는 공평이냐? 원희룡의 선넘는 네거티브에 의원들도 당원들도 제지하라 할땐 조용하더니 뭐하는거냐 그리고 선관위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선관위 소속이 후보떨어뜨리려고 연판장 돌리기에 직접 나섰는데 사퇴시키지도 않고 받아준게 말이냐	한동훈	삭제

354	2024-07-13 21:57	민심 당심 무시하고 윤심에만 꼬랑지 흔들다 된통역풍당할 수 있으니 가해자만 처벌해라 피해자까지 슬쩍 끼워넣는건 윤리위 선관위가 그만큼 권력 눈치나 보며 구태스럽고 썸었다는 증거다 국힘의 한심하고 썩어빠진 구태들 싹 다 갈아엎어야	민심 당심 무시하고 윤심에만 꼬랑지 흔들다 된통역풍당할 수 있으니 가해자만 처벌해라 피해자까지 슬쩍 끼워넣는건 윤리위 선관위가 그만큼 권력 눈치나 보며 구태스럽고 썸었다는 증거다 국힘의 한심하고 썩어빠진 구태들 싹 다 갈아엎어야 국힘과 보수가 사는 길	한동훈	삭제
355	2024-07-13 22:01	여러분 진종오 한동훈 인스타 오세요 꿀잼 ㅋㅋㅋ	https://www.instagram.com/p/C9XNlwDPu8S/	한동훈	삭제
356	2024-07-13 22:19	피해자인 한동훈은 왜 주의조치 준건지? 원희룡 나경원이 네거티브 가해자 아닌가 혹시 항간에 떠도는	피해자인 한동훈은 왜 주의조치 준건지? 원희룡 나경원이 네거티브 가해자 아닌가 혹시 항간에 떠도는 그 김옥균 프로젝트 일환임?	한동훈	삭제
357	2024-07-13 22:54	김거니가 또?? 또 전화 돌린거야??? 이준석하고도당대표때 연락 주고 받았더던데 도대체 전화 안한곳이 있냐? 니가 대통이야?? 선관위나 윤리위 니네 똑바로 해라 원희	김거니가 또?? 또 전화 돌린거야??? 이준석하고도당대표때 연락 주고 받았더던데 도대체 전화 안한곳이 있냐? 니가 대통이야?? 선관위나 윤리위 니네 똑바로 해라 원희룡 입틀막이나 시키던가	한동훈	삭제
358	2024-07-13 22:57	윤리위는 말그대로 엄정 중립을 지켜라.한동훈측은 잘못한게없다. 원희룡측이 근거없는네거티브를 하고	윤리위는 말그대로 엄정 중립을 지켜라.한동훈측은 잘못한게없다. 원희룡측이 근거없는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요?	한동훈	삭제
359	2024-07-13 23:01	진짜 당 꼬라지 잘 돌아간다. 윤리위? 꼴값들 떨고있네. 한동훈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으면 한	진짜 당 꼬라지 잘 돌아간다. 윤리위? 꼴값들 떨고있네. 한동훈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으면 한번해봐	한동훈	삭제
360	2024-07-14 0:15	건희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되	그리고도 가만있지않음 단두1대지 머	진형구	
361	2024-07-15 17:08	무능한 구태 서병수 개1새끼가 당원을 모욕하네	나가 뒈져 개1새끼야	진형구	
362	2024-07-15 17:24	1차에서 70% 넘겨 끝냅시다	그리고 밥값 못하는 늙은구태 새끼들 싹 정리합시다	진형구	

363	2024-07-18 17:49	? 당 단합 차원에서 하신 사과 잘 하셨네요 이런 한동훈의 모습과 행동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당대표 되셔서 국힘의 변화와 개혁으로 윤통도 지키고 정권 재창출도 이루시길 바	? 당 단합 차원에서 하신 사과 잘 하셨네요 이런 한동훈의 모습과 행동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당대표 되셔서 국힘의 변화와 개혁으로 윤통도 지키고 정권 재창출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한동훈	삭제
364	2024-07-18 17:53	한동훈이 대인배네... 정치인이 이렇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 처음본다 솔직히 안 해도 그만이다 지금 어떻게 해도 1위다 하지만 한동훈이기에 화합을 위해 사과하는 것이	한동훈이 대인배네... 정치인이 이렇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 처음본다 솔직히 안 해도 그만이다 지금 어떻게 해도 1위다 하지만 한동훈이기에 화합을 위해 사과하는 것이다	한동훈	삭제

365	2024-07-18 18:39	나경원은 당원과 국민들에 대한 도리와 책임을 자각하고, 남은 며칠이라도 근신하고 자중자애하며, 최소한의 금도를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한동훈 후보 책임이라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상식에도 맞지 않고, 법리도, 기본적 사실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주장이다. 알다시피 이재명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람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다. 그는 피의자 이재명의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그가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억지논리와 궤변을 내세워 영장을 기각했다. 이재명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재판이 가능했던 것은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기 때문이고, 체포안 가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법무부장관 한동훈이었다. 당시 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피의자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여야 의원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피의자 이재명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소개하고, 정교한 법논리를 전개했다. 한 장관의 설명과 논리에 여야 의원, 언론, 국민들이 설득당하고 있다고 느끼자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면서 한 장관 발언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한 장관은 몇 차례나 발언을 중지했다가 이어가기를 반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심지어 이재명 범죄사실에 대한 한 장관의 보고를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압박하며 한 장관을 공격했다. 나중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장관의 발언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고, 김진표 의장도 한 장관에게 발언을 짧게 마무리해달라고 몇 차례 요청했다. 그렇게 극악스러운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피의자 이재명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의원과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최선을 다해 싸웠던 한 장관이었다.	한동훈	삭제
366	2024-07-18 18:42	영장기각이 한동훈 책임? 뭔 개같은 소리? 판사출신이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사건에 개입할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네거티브를 위해 영장 기각 책임이 법무부장관이던 한동훈에게 있다고 집요하게 묻는 사람이 더 나빴다. 단초는 나경원이	영장기각이 한동훈 책임? 뭔 개같은 소리? 판사출신이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사건에 개입할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네거티브를 위해 영장 기각 책임이 법무부장관이던 한동훈에게 있다고 집요하게 묻는 사람이 더 나빴다. 단초는 나경원이가 제공했다.	한동훈	삭제
367	2024-07-18 19:20	김건희 전광훈 똥개들이 발악을 하는군요 ㅋㅋㅋㅋㅋ	그래도 결과는 못바꿉니다 ㅍㅎㅎㅎ	진형구	

368	2024-07-18 19:39	네 오늘 토론때 나경원 즙 짠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알아두세요 ㅋ	진형구	
369	2024-07-18 19:44	팀 한동훈 (한동훈 장동혁 박정훈 진종오) 가즈아 !!!	갑시다 !	진형구	
370	2024-07-19 2:28	원희룡 .....mb한테 탈당하라 박근혜대통령은 탄핵하고 탈당	희대의 쓰레기	진형구	
371	2024-07-19 10:46	나경원 원희룡 덕분에 분노투표 중이네요 ㅋㅋ 다들 이날만 기다렸다. 투표율 2배 역대 최대	.	한동훈	삭제
372	2024-07-19 10:50	????한동훈 ????장동혁 ????박정훈???? 진종오 ???? 화이팅????	이래서 세대교체가 필요합니다 한동훈은 칼같이 사적 청탁 거절해서 나경원을 살렸네?? ????????아무리 협공해도 건질게 없는 선배들 정정 당당하게 합리적인 논리로 하세요 비열합니다 선배들이 후배에게 당해로 패니 보는 국민이 힘들다 WWW	한동훈	삭제
373	2024-07-19 10:57	????한동훈 ????장동혁 ????박정훈???? 진종오 ???? 화이팅????	아이들의 사건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 툭하고 막히는 때가 있다. 분명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인데, 아무 것도 모르거나, 알고도 모른 척 하는 사람이 나타나 “둘다 잘못했어” 라고 말한 뒤 “일단 덮어놓고 서로 사과해” 라고 말할 때이다.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이들은 갑자기 현명한 척을 하고, 눈앞에서 윽박질러 화해(?) 시켰다 믿지만, 가해자	한동훈	삭제
374	2024-07-19 11:09	????한동훈 장동혁 박정훈 진종오 화이팅????	한동훈은 기존 정치인하고는 확실히 다르더라....자기 이익 따라 움직이고 누구 눈치보고 이런 사람 아니라서 훨씬 자유롭고 파격적이고 또 올바름. 완전히 다른 정치인의 모습이라 엄청 신선함. 거기다 디테일도 신경 많이 쓰는 세련된이 있음	한동훈	삭제
375	2024-07-19 11:14	이번 전당대회는 진정한 세대교체와 개혁세력 VS 구태 기득권 저항의 전당대회임 나경원희룡 연대가 왜 더러운 구태들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전당대회. 정치 20년 넘게했다고 거만떠는 나.원 행태가 지금	나경원희룡 연대가 왜 더러운 구태들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전당대회. 정치 20년 넘게했다고 거만떠는 나.원 행태가 지금 민주당 횡포 보는것 같더라	한동훈	삭제
376	2024-07-19 11:54	나경원 원희룡.. 중진의원 답게 경쟁해라.. 국회 모여서 박근혜 탄핵 앞장서고.. 총선으로 의석수 쪼그라들고.. 투쟁이라고는 돌파구를 못찾아 거의 포기하고 지내왔으면서..ㅋㅋ 뭔 지나간 일들이 자랑스럽다고 시비를걸고 좌파졌냐?.. 에구 사과할 넘들은 성질내고.. 불끄러온 한	나경원 원희룡.. 중진의원 답게 경쟁해라.. 국회 모여서 박근혜 탄핵 앞장서고.. 총선으로 의석수 쪼그라들고.. 투쟁이라고는 돌파구를 못찾아 거의 포기하고 지내왔으면서..ㅋㅋ 뭔 지나간 일들이 자랑스럽다고 시비를걸고 좌파졌냐?.. 에구 사과할 넘들은 성질내고.. 불끄러온 한동훈만 욕하니..ㅋㅋ	한동훈	삭제
377	2024-07-24 1:54	한 며칠 울분토하라고 둬유 숨좀쉬게 ㅋㅋㅋㅋㅋ	아 꼬숩네요	진형구	

378	2024-07-24 23:04	구태의상징 정점식 사퇴하세요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만 나라가 살고,국민이 좋아지고 젊은세대가 나라의 중심이 됩니다.	한동훈	삭제
379	2024-07-24 23:12	정점식 왜 버티고있음? 사퇴하세요	어이가없네	한동훈	삭제
380	2024-07-24 23:18	김민전 필리버스터 쿨쿨때 사퇴요구 그리 많았는데 버티더니 사고치시네 조선에서 가루가 되게 까임 건들건들	김민전 필리버스터 쿨쿨때 사퇴요구 그리 많았는데 버티더니 사고치시네 조선에서 가루가 되게 까임 건들건들	한동훈	삭제
381	2024-07-25 10:20	정점식 의원은 정책위의장 사퇴하세요 악아서	새지도부 들어섰으면 알아서 나가야죠 멀 꾸물거립니까	진형구	
382	2024-07-25 10:24	정점식 사퇴하라 왜 새 지도부가 선출되었는데 버티고 있나?	사퇴하라	한동훈	삭제
383	2024-07-25 10:51	정점식 왜 버티고있나 알아서 사퇴해야지	왜 버티는거야 대체	진형구	
384	2024-07-25 12:19	정점식 사퇴하라고 이새끼야 새지도부 나왔잖아	왜 뭉게고있어	진형구	
385	2024-07-25 13:17	정점식은 버티기 추하다 사퇴가 맞음	이준석때도 바뀌었고 김기현때도 바뀌었음 정점식이 어디 계파인지는 모두가 알고있는데 버티겠다는건 한동훈을 선택한 당원들에	한동훈	삭제
386	2024-07-25 14:12	정점식 사퇴해라 그리고 추경호는 사표 한번 냈잖아 왜 다시 와서 당혁신 방해하지?	정점식 사퇴해라 그리고 추경호는 사표 한번 냈잖아 왜 다시 와서 당혁신 방해하지?	한동훈	삭제
387	2024-07-25 14:16	추경호 정점식 사퇴해라 새지도부 구성을 훼방놓지 마라. 왜 무능력한 정점식을 고집하나? 용산 지령인가?	추경호 정점식 사퇴해라 새지도부 구성을 훼방놓지 마라. 왜 무능력한 정점식을 고집하나? 용산 지령인가?	한동훈	삭제
388	2024-07-25 14:20	추경호 새지도부 방해 말고 정점식 버티지 말고 사퇴하세요 민심 당심 70% 무시하시는겁니까? 당신들같은 구태들 뒤로 물러나라고 투표한겁니다 당원들 국민들 의사 무시하	추경호 새지도부 방해 말고 정점식 버티지 말고 사퇴하세요 민심 당심 70% 무시하시는겁니까? 당신들같은 구태들 뒤로 물러나라고 투표한겁니다 당원들 국민들 의사 무시하지 마세요	한동훈	삭제
389	2024-07-25 15:02	정정식 이새끼야 사퇴하라고 등신아 고집부리지말고	너 머야	진형구	
390	2024-07-25 15:29	새로운 지도부인데 뭐함? 정책위 정점식과 윤리위원장은 사퇴하라 추경호 민심 무시하지 마라	새로운 지도부인데 뭐함? 정책위 정점식과 윤리위원장은 사퇴하라 추경호 민심 무시하지 마라	한동훈	삭제

391	2024-07-25 15:43	정책위 정점식과 윤리위원장은 사퇴하라 추경호 민심 무시하지 마라 정책위 정점식과 윤리위원장은 사퇴하라 추경호 민심 무시하지 마라	정책위 정점식과 윤리위원장은 사퇴하라 추경호 민심 무시하지 마라	한동훈	삭제
392	2024-07-25 16:25	정정심 당심 민심 받들어 사퇴해라	정정심 당심 민심 받들어 사퇴해라	한동훈	삭제
393	2024-07-25 17:51	한동훈 당대표에게 전권이 있다! 당심 민심 외면하면 국힘은 영원히 아웃 김민전 김재원 추경호 정점식 사퇴!!	한동훈 당대표에게 전권이 있다! 당심 민심 외면하면 국힘은 영원히 아웃 김민전 김재원 추경호 정점식 사퇴!!	한동훈	삭제
394	2024-07-25 18:17	정점식 당대표가 소신을 갖고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점식 정책의장은 물러 나는 것이 도리다.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	.	한동훈	삭제
395	2024-07-25 19:11	당대표가 소신을 갖고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점식 정책의장은 물러 나는 것이 도리다.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 김민전 김재원 사퇴 사퇴 사퇴해야 구태정치 청산의 시	당대표가 소신을 갖고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점식 정책의장은 물러 나는 것이 도리다.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 김민전 김재원 사퇴 사퇴 사퇴해야 구태정치 청산의 시작이 된다	한동훈	삭제
396	2024-07-25 19:33	당대표가 소신을 갖고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점식 정책의장은 물러 나는 것이 도리다.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 김민전 김재원 사퇴 사퇴 사퇴해야 구태정치 청산의 시	당대표가 소신을 갖고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점식 정책의장은 물러 나는 것이 도리다.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 김민전 김재원 사퇴 사퇴 사퇴해야 구태정치 청산의 시작이 된다	한동훈	삭제
397	2024-07-25 20:20	63프로민심과 당심에 반기를 든 김재원 김민전을 징계하고 정점식은 사퇴하라. 추경호도 정신차려라	63프로민심과 당심에 반기를 든 김재원 김민전을 징계하고 정점식은 사퇴하라. 추경호도 정신차려라	한동훈	삭제

398	2024-07-26 12:20	당대표가 당을 대표하는거다 추경호씨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점식씨 사퇴하세요	국힘은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월례조회를 보고 한동훈=추경호 공식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신임당대표가 지명직 인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그들은 아무도 먼저 사퇴를 하지 않는	한동훈	삭제
399	2024-07-26 14:26	구태.웰.빙 알.박.기 추접.스.럽다. 정.점식 사.퇴하..고 추.경.호 입.다. 무 라	.	한동훈	삭제
400	2024-07-26 14:32	정점식 사퇴해라! 새술은 새부대에 당원 60% 훌쩍 넘은 당심 민심 외면하냐?	정점식 사퇴해라! 새술은 새부대에 당원 60% 훌쩍 넘은 당심 민심 외면하냐?	한동훈	삭제
401	2024-07-26 15:28	정점식 이새끼 지금 알박기하냐 무능한 새끼야	나가 이새끼야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지	진형구	
402	2024-07-26 15:33	정점식 사퇴하고 추경호 고집 부리지 마라!! 63% 당심 민심 무시하지 말라고!	.	한동훈	삭제

403	2024-07-26 15:42	정점식씨! 새당대표가 들어서면 정책위장등은 당연히 사표 내야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 정책위의장을 교체하거나 바꾸거나 이런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새로운 대표가 들어서면 새로운 대표와 호흡을 맞추는 가장 주요한 자리가 사무 총장하고 정책의 의장이죠 여기는 자진 사표를 내 주는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 새 지도부가 자기의 갈길을 가는 거죠 정책위 장을 그대로 친윤이 가져갈게 하는건 사실상 절름발이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정체기 의장이 스스로 사퇴한다는 말이 안나오거든요	한동훈	삭제
404	2024-07-26 16:13	정점식 사무실 02 784 — 6328	갑시다	진형구	
405	2024-07-26 16:20	정점식 나가 무능한 새끼야 알박지 말고 이새끼야	역겹네	진형구	
406	2024-07-26 16:25	정점식 사무실 02 784-6328 전화 때립시다	조집시다	진형구	
407	2024-07-26 16:28	친윤 이새끼들 당원지지자들을 이겨먹을라고 하네	죽을라고	진형구	
408	2024-07-26 16:35	추경호. 정점식은 사퇴 하십사요. 63%가 지켜보고 있습니다.장난하십니까	.	한동훈	삭제
409	2024-07-27 9:43	정점식 추경호 사퇴하세요 그간 지도부 새로 들어오면 다들 자진사퇴 밝힌거 모르세요? 양심도 없으시네요 책임당원들과 민심은 변화를 바랍니다 더 망신 당하고 당심에 외면	사퇴하세요 그간 지도부 새로 들어오면 다들 자진사퇴 밝힌거 모르세요? 양심도 없으시네요 책임당원들과 민심은 변화를 바랍니다 더 망신 당하고 당심에 외면받기 전에 사퇴하세요	한동훈	삭제

410	2024-07-27 10:01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정책위의장이 왜 아직도 지도부에 있는겁니까. 황우여 사퇴할때 당신도 사퇴했어야죠. 한동훈에게 63퍼센트 몰표 준 당원과 국민을 무시하는겁니까? 윤석열이 국민과 당원 무시하다 어떻게 됐죠? 윤석열이 총선에서 심판받고 전당대회에서 두번째 심판받는거 보고도 느끼는게 없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정책위의장이 왜 아직도 지도부에 있는겁니까. 황우여 사퇴할때 당신도 사퇴했어야죠. 한동훈에게 63퍼센트 몰표 준 당원과 국민을 무시하는겁니까? 윤석열이 국민과 당원 무시하다 어떻게 됐죠? 윤석열이 총선에서 심판받고 전당대회에서 두번째 심판받는거 보고도 느끼는게 없어요?	한동훈	삭제
411	2024-07-27 10:04	김기현 체제에서는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다 바꿨으면서 지금 정점식의원 명분없이 버티는거 윤석열 대통령뜻인겁니까? 대통령은 입으로만 하나다외치면서 당정화합에 뜻	김기현 체제에서는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다 바꿨으면서 지금 정점식의원 명분없이 버티는거 윤석열 대통령뜻인겁니까? 대통령은 입으로만 하나다외치면서 당정화합에 뜻이 없으신거 맞으시네요?	한동훈	삭제
412	2024-07-27 10:13	추경호 의원님 당대표님께서 민심 당심63%의 득표율로 당선되신것은 국만의 힘을 변화시키라는 당원들의 염원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사람입니다 묵은 인재는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바람을 일으키고 변화의 시작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이 어떻게 변화해야만 살아 남을 수 있는지를 신임대표님께서 천명하셨으니 힘을 실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원내대표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대표님과 힘을 합쳐 당내 쇄신과 변화에 집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여사님관련 국회일정보	당대표님께서 민심 당심63%의 득표율로 당선되신것은 국만의 힘을 변화시키라는 당원들의 염원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사람입니다 묵은 인재는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바람을 일으키고 변화의 시작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이 어떻게 변화해야만 살아 남을 수 있는지를 신임대표님께서 천명하셨으니 힘을 실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원내대표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대표님과 힘을 합쳐 당내 쇄신과 변화에 집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여사님관련 국회일정보고 기암합니다 아까운 국힘의 인재들이 여사님 쉴드치느라고 민생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보입니다 특검법 막느라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래서야 정권재창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제발 당이라도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어떤것이 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인지 국민의 눈높이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 마시고 당대표님께 힘을 싣고 정책위원장님 사퇴를 결정해주십시요	한동훈	삭제

413	2024-07-27 10:24	정점식 사퇴부탁합니다. 당원과 민심이 똑같이 국민의힘의 변화를 바래서 63%라는 압독적인 지지율로 한동훈 당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러니 의원님도 결단해주세요!! 윤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자진사퇴 부탁드립니다! 국힘은 이제 새롭게 변해야합니다!! 책임당원으로	당원과 민심이 똑같이 국민의힘의 변화를 바래서 63%라는 압독적인 지지율로 한동훈 당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러니 정의원님도 결단해주세요!! 윤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자진사퇴 부탁드립니다! 국힘은 이제 새롭게 변해야합니다!! 책임당원으로써 부탁드립니다	한동훈	삭제
414	2024-07-27 10:27	정점식 사퇴부탁합니다. 당원과 민심이 똑같이 국민의힘의 변화를 바래서 63%라는 압독적인 지지율로 한동훈 당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러니 의원님도 결단해주세요!! 윤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자진사퇴 부탁드립니다! 국힘은 이제 새롭게 변해야합니다!! 책임당원으로	당원과 민심이 똑같이 국민의힘의 변화를 바래서 63%라는 압독적인 지지율로 한동훈 당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러니 정의원님도 결단해주세요!! 윤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자진사퇴 부탁드립니다! 국힘은 이제 새롭게 변해야합니다!! 책임당원으로써 부탁드립니다	한동훈	삭제
415	2024-07-27 10:55	정점식의원님.공정과 상식이 있으시고 국힘.윤통님.국민들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대표에게 힘실어주세요.63%국민이 지켜봅니다.아니 더 많은 국민들이 제발 안정된 국힘을	정점식의원님.공정과 상식이 있으시고 국힘.윤통님.국민들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대표에게 힘실어주세요.63%국민이 지켜봅니다.아니 더 많은 국민들이 제발 안정된 국힘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삭제
416	2024-07-27 11:08	우리당은 새 지도부 나오면 임기무관 전원사퇴 해왔다	그게 다음 지도부를 지지하고 돕겠다는 의미의 우리 당에서의 전통 이다 본인이 나 안 나가 못 나가 이럴게 아니라 재신임 여부는 새 지도부 결정에 맡겨야지 새 지도부 비토가 목적이 아니라면	한동훈	삭제
417	2024-07-27 11:26	18% 당심에 기대어 63% 당원들의 들끓는 마음을 무시하실겁니까? 정정식 사퇴	18% 당심에 기대어 63% 당원들의 들끓는 마음을 무시하실겁니까? 정점식 사퇴	한동훈	삭제

418	2024-07-27 11:50	추경호 정점식님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자진사퇴가 맞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63프로의 민심과 당심의 선택입니다 민심과 당심을 무서워하지않고 또 미적대면 국힘은 마지막 변화의 기회마저 잃어버립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라면 자리 욕심 용산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자진사퇴가 맞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63프로의 민심과 당심의 선택입니다 민심과 당심을 무서워하지않고 또 미적대면 국힘은 마지막 변화의 기회마저 잃어버립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라면 자리 욕심 용산눈치 보지말고 빠른 사퇴 바랍니다	한동훈	삭제
419	2024-07-27 12:04	정점식 국힘의 그간 관행에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치인이라면 물러날 때와 대의를 위해 결단을 내리는 상식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점식 의원이 사퇴하고 당원과 국민의 63%가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한동훈 대표의 새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야할 때입니다. 주말 사이 결단을 내리시고 최대한 빨리 입장 표명해주시기를	국힘의 그간 관행에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치인이라면 물러날 때와 대의를 위해 결단을 내리는 상식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점식 의원이 사퇴하고 당원과 국민의 63%가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한동훈 대표의 새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야할 때입니다. 주말 사이 결단을 내리시고 최대한 빨리 입장 표명해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한동훈	삭제
420	2024-07-27 12:07	정점식의원님 새지도부가 들어오면 이전 지도부 일괄사퇴는 지금까지 단한번의 예외가 없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때도 마찬가지였던것도 아실테구요 왜 정점식의원님만이 예외로 남으려 하시는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군요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맞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의원으로써 당원	정점식의원님 새지도부가 들어오면 이전 지도부 일괄사퇴는 지금까지 단한번의 예외가 없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때도 마찬가지였던것도 아실테구요 왜 정점식의원님만이 예외로 남으려 하시는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군요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맞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의원으로써 당원들의 질문에 답해주세요	한동훈	삭제
421	2024-07-27 12:15	정점식 의원님 사퇴하세요 문정부 알박기로 윤대통령님 국정현안이 힘들었던걸 모르쇠하면 안됩니다. 63%의 책임당원들의 압승으로 새로 구성된 지도부에게 무례한짓으로 발목잡기하지마십시요. 윗분의 지시가 있었을까 합리적인 의심까	문정부 알박기로 윤대통령님 국정현안이 힘들었던걸 모르쇠하면 안됩니다. 63%의 책임당원들의 압승으로 새로 구성된 지도부에게 무례한짓으로 발목잡기하지마십시요. 윗분의 지시가 있었을까 합리적인 의심까지 들게 하지 마시라고요	한동훈	삭제

422	2024-07-27 14:32	정점식씨 아쉬움이 있으시겠지만, 보수정치를 리뉴얼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에서 통 큰 결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수 정치 역사와 지지자들이 그 결단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길	아쉬움이 있으시겠지만, 보수정치를 리뉴얼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에서 통 큰 결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수 정치 역사와 지지자들이 그 결단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한동훈	삭제
423	2024-07-27 16:22	정점식의 자진 사퇴 촉구합니다!!!! 계속 버티기를 하는것은 압도적인 국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한동훈 당대표님의 발목을 잡는 일입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졌으면 기존지도부는 알아서 사퇴하는게 당을 위하고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정점식의원의 자진 사퇴 촉구합니다!!!! 계속 버티기를 하는것은 압도적인 국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한동훈 당대표님의 발목을 잡는 일입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졌으면 기존지도부는 알아서 사퇴하는게 당을 위하고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예의 아닐까요? 사퇴 촉구합니다!!	한동훈	삭제
424	2024-07-27 18:57	정점식의원 자진사퇴요청 청원 https://naver.me/x4FCWU4n (오죽하면...)	정점식의원이 블로그등에 정중하게 글을 써도 삭제하거나 차 단해버리고 페이스북 인스타 역시 당원의 글을 막아 입틀막을 하고 있는바 간곡한 심정으로 이곳에 올립니다. 새 지도부가 국민의힘을 정부여당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존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당의	한동훈	삭제
425	2024-07-27 19:02	점식아 왜버텨? 정책통도 아닌놈이 이새끼야	법률쟁이가 정책위의장에 왜있냐고	진형구	
426	2024-07-27 19:43	스피치도 안되는 빙신새끼 점식아 꺼져라		진형구	
427	2024-07-27 21:15	비대위 임시직이면 비대위해체 됐으니 나가야지 점식이 이새끼야	웃긴 새끼네 이거	진형구	
428	2024-07-27 21:24	임시직인 새끼가 왜 버티는거야 점돌이 새끼야	밥맛떨어지게	진형구	
429	2024-07-27 21:30	무능한 점돌점식 새끼야 빨리꺼져 냄새나 이새끼야	퉤	진형구	
430	2024-07-27 21:35	김건희 꼬붕들이 좀 있네 송장유튜브 보는새끼들 ㅋ		진형구	
431	2024-07-27 21:46	통영고성 새인물 뽑아야겠네 점식이 자르고		진형구	
432	2024-07-28 17:16	임시 임명직 정점식 무능한 새끼야 빨리 쳐나가 이새끼야		진형구	
433	2024-07-28 17:29	임시직 새끼가 왜버텨 나가야지 정점식 이새끼야		진형구	
434	2024-07-28 17:39	정점식 이새끼는 티몬 위메프 사태가 먼지도 모를거야 나가 이새끼야		진형구	

435	2024-07-28 17:49	정점식 이새낀 현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네 무능한 새끼	나가!	진형구	
436	2024-07-28 17:54	정점식 성일종 빨리사표내고 꺼져		진형구	
437	2024-07-28 17:58	정점식 정책위원장 사퇴하세요 그게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63%로 뽑아준 이유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얼굴 새로운 지도체제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	정점식 정책위원장 사퇴하세요 그게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63%로 뽑아준 이유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얼굴 새로운 지도체제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투표한 이유입니다	한동훈	삭제
438	2024-07-28 20:54	정점식 법사위때도 일못하고 드럽게 무능했어요		진형구	
439	2024-07-28 21:01	말도 제대로 못해 발음도 세고 정점식 이새끼는		진형구	
440	2024-07-28 21:05	정점식 지역구 통영고성 새인물로 바꿉시다 웰빙새끼 내보냅시다		진형구	
441	2024-07-28 22:56	윤석열 친윤새끼들은 유튜브당 만들어 나가라 18!새끼들아		진형구	
442	2024-07-29 8:21	정점식 사퇴 아직안함? 대표 바뀌면 일괄 사퇴하는게 룰이였는데 뭐하는짓인지 당심민심 따위 안중에도 없나보다 이렇게 당원민심 무시	대표 바뀌면 일괄 사퇴하는게 룰이였는데 뭐하는짓인지 당심민심 따위 안중에도 없나보다 이렇게 당원민심 무시할수있구나 싶네	한동훈	삭제
443	2024-07-29 10:52	정점식님 제발 좀!! 2021년부터 지금까지 김도읍-유의동-성일종-박대출-또 유의동-정점식 등 3년간 무려 6명이 정책위의장을 맡았다가 내려왔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정책위의장만 그런것도 아니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포함해 모든 당직자가 그랬다.당직은 공무원과 달리 임기에 얽매이지 않는 정무직인 까닭	2021년부터 지금까지 김도읍-유의동-성일종-박대출-또 유의동-정점식 등 3년간 무려 6명이 정책위의장을 맡았다가 내려왔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정책위의장만 그런것도 아니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포함해 모든 당직자가 그랬다.당직은 공무원과 달리 임기에 얽매이지 않는 정무직인 까닭이다.	한동훈	삭제
444	2024-07-29 10:58	용산 친윤은 새지도부 훼방말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힘 개혁과 변화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과반 훨 넘는 당원과 국	.	한동훈	삭제

445	2024-07-29 11:04	김도읍 유의동 박대출 유의동 4번의 정책위의장이 바뀔 때마다 임기를 채운 적이 한번도 없는데 뭔 임	김도읍 유의동 박대출 유의동 4번의 정책위의장이 바뀔 때마다 임기를 채운 적이 한번도 없는데 뭔 임기타령이냐	한동훈	삭제
446	2024-07-29 14:41	김재원 당원에게 사과해라	오랜 당원들이 팬카페에 들어온 사람들이 훨씬 많다..뭐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그리고 새지도부가 들어서면 나가는것이 관례이다 임기찾아가면서 버티는것이 맞는것이냐 당원으로서 요구할수 있는것이다 그럼 당원63%가 다 개딸이라는 말인가 김재원은 사과하고	한동훈	삭제
447	2024-07-29 15:14	정점식 사퇴, 당원에게 모욕주고 비하발언한 김재원 최고위원 사퇴	.	한동훈	삭제
448	2024-07-29 15:37	당직 임면권은 한동훈 대표에게 있다. 강하게 일하시라고 변화하라고	임면권은 한동훈 대표에게 있다. 강하게 일하시라고 변화하라고 한동훈 대표 뽑았습니다 정점식	한동훈	삭제
449	2024-07-29 16:06	용산은 정점식 사퇴시켜라...화합어쩌고 하면서 정점식 꽂아서 끌어내릴 생각만. 새지도부 괴롭히면 보수지지자들이 참지 않을거다 추잡하게 지도부 구성도 방해하는 용산 인	용산은 정점식 사퇴시켜라...화합어쩌고 하면서 정점식 꽂아서 끌어내릴 생각만. 새지도부 괴롭히면 보수지지자들이 참지 않을거다 추잡하게 지도부 구성도 방해하는 용산 인간들	한동훈	삭제
450	2024-07-29 19:04	정점식은 당장 사퇴하라 민주당 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웰빙구태들이 63% 압도적 지지 받은 당대표에게는 몽니를 부리네 김재원은 63% 당심과 민심의 선택을 받은 신임 당대표를 비하하고 한동훈을 지지하는 압도적 과반수 당원을 한딸이라고 비방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최고의원에서 물러나라	정점식은 당장 사퇴하라 민주당 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웰빙구태들이 63% 압도적 지지 받은 당대표에게는 몽니를 부리네 김재원은 63% 당심과 민심의 선택을 받은 신임 당대표를 비하하고 한동훈을 지지하는 압도적 과반수 당원을 한딸이라고 비방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한동훈	삭제
451	2024-07-30 20:59	용산 ㅋㅋㅋㅋ 시도지사협의회인지 뭔지 끌어들인 거 너무 추하네요 진짜 왜이러십니까	갑자기요?ㅋㅋㅋ 여지까지 가만있다 한동훈 체제 들어서니까?? 원내에서도 밀리니 홍준표 이태호씨 데려와요? 무슨 일진이에요?	한동훈	삭제
452	2024-07-31 15:08	한 대표가 새 정책위의장을 지명하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추인을 해 줄지 불투명한 상태? 돌은거 아니?	국힘 의원들 진짜 저런다면 제정신 아닌거다	한동훈	삭제

453	2024-07-31 20:09	개같은 정점식을봤나 임시직 주제에 ㅂㅅ 새끼가	나가 이 ㄱㅅㄲ야	진형구	
454	2024-07-31 22:59	당심과 민심 63%의 의미는 다 갈아치우란 말입니다! 정점식님, 그렇게 생각스이세요?	대통령이 사퇴하지 말란다고 당연히 해야할 거 하는 소신도 없나요 실망입니다	한동훈	삭제
455	2024-08-01 16:20	무능한 정점식 뭐하세요 정책가지고 무슨일 하시나요	다른거 다 떠나 너무 무능합니다	한동훈	삭제
456	2024-08-01 17:33	추경호 일 이렇게 만든 정치적 책임을 지세요. 설마 아무일도 없다는듯 뻔뻔하게 가는건 아니죠?	ㅇ	한동훈	삭제
457	2024-08-01 23:22	이시대 최고의 정치인 한동훈 대표님 잘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응원합니다 파이팅	이시대 최고의 정치인 한동훈 대표님 잘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응원합니다 파이팅	한동훈	삭제
458	2024-08-01 23:31	이제 홍준표나 원희룡처럼 내부총질자 제거하고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뭉쳐 범죄자 이재명 제거를 위한 전략을 짜야한다 !!	이제 홍준표나 원희룡처럼 내부총질자 제거하고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뭉쳐 범죄자 이재명 제거를 위한 전략을 짜야한다 !!	한동훈	삭제
459	2024-08-01 23:55	윤 대통령에게 이번 휴가는 특별한 의미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휴가가 사치로 여겨질 만큼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곧 휴가를 떠날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에게 이번 휴가는 특별한 의미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휴가가 사치로 여겨질 만큼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윤 대통령과 측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비록 지지율은 낮지만 지금까지 기조대로 열심히 일해 가면 임기 후반기를 무난히 마치고 퇴임 후엔 나라 바로잡기 등 공적을 높이 평가받을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착각이다. 임기 전반기처럼 후반기를 보낸다면 윤 대통령은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우려가 크다. 물론 훨씬 더 무능하고 퇴행적인 세계관으로 나라 기틀을 부수고 민생과 국가재정을 망가뜨린 부족장 수준의 좌파 대통령도 있었지만, 좌파는 무조건 자기편 역사를 미화한다. 반면 우파의 거울은 상대적으로 훨씬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역사의 평가는 혹독할 것이다.	한동훈	삭제

460	2024-08-02 0:33	역시 한동훈 당대표의 탁월한 정치력 대단하다. 큰 잡음없이 자진사퇴로 잘 이끌어냈다. 새로운 정책위의장과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모든면에서 이렇게 천재적으로 명석하고 유능하고 선민후사하는 정치인 처음본다. 한동훈 당대표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거대야당의 입법폭거를 막고, 3년후 반드시 차기 대통령이 되	역시 한동훈 당대표의 탁월한 정치력 대단하다. 큰 잡음없이 자진사퇴로 잘 이끌어냈다. 새로운 정책위의장과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모든면에서 이렇게 천재적으로 명석하고 유능하고 선민후사하는 정치인 처음본다. 한동훈 당대표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거대야당의 입법폭거를 막고, 3년후 반드시 차기 대통령이 되셔서, 부강하고 번영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길 소망한다.	한동훈	삭제
461	2024-08-05 19:20	]시판 관리 전혀 안되는데 종일 한두명이 붙어있지 않을거면 관리 안돼요	그럴 가치가 있을까요? 그냥 신문사 제보처럼 제안게시판으로 글 올리면 못보게 바꾸는게 나을듯하네요	한동훈	삭제

462	2024-08-05 19:25	김민전씨는 당심 민심의 63%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국힘 당원을 연이어 방송에 나와 비하하는데 당심 민심의 63%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비하하는 본인도 같은 당의 당원이고 당원의 뜻을 부정하는 이유와 내부 총질하는 이유를 알수가 없다. 정치 초년생이고 그것도 선거 투표도 없이 비례대표로 당선된 자가 마치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충고 하듯이 하는 말은 더욱 아닌 것 같다. 팬덤이 당원이고 당원이 팬덤인데 당원이 없이 어떻게 정당이 존재 할 수가 있는가? 이런자와 같은 당의 당원이라는게 부끄럽다.	한동훈	삭제
463	2024-08-07 19:01	한동훈 "'폭염에 노동자 휴식권 보장' 법제화 시급"	.	한동훈	삭제
464	2024-08-09 17:03	이게 말이 됩니까? 김경수 복권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 이재명 때문에 범죄자들이 정치권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김경수까지 합류시키는 겁니까? 김경수가 이재명의 대항마라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착각하지 마십시요. 저들은 정권을 다시 잡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범죄자들이 나라를 쥐고 흔드는 것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요. 후세들에게 어	한동훈	
465	2024-08-09 17:07	드루킹 사면 반대한다. 민주주의 파괴자에게 선거 다시 나오라고?	.	한동훈	삭제

466	2024-08-09 17:36	진보의 오야붕 진짜 맞나? 하는 의심을 지지자에게 주지 마세요 제발	민주주의 꽃인 선거제도를 망치게 한 장본인을 복권해주는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죠. 반성도 일도 없는자를 복권하는것은 유권자를 향한 도전밖에 안보입니다.	한동훈	삭제
467	2024-08-09 20:27	문재인이 사면 시켜주려다가 그 당시도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심해서 지지율 정치하는 문재인이 안해준	.	한동훈	삭제
468	2024-08-09 20:31	김경수 사면은 법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힘 지지층 의견 봐라 국민의힘 지지층(344명)은 67.5%가 반대하고 16.0%만 찬성했다. 50명 미만이지만 개혁신당 지지층(38명)도 반대 51.2% 과반에 찬성 21.5%로 민주당계와 엇갈렸다. 지지정당 없음/잘모름(73명)에선 반대 43.1%, 찬성 32.1%, 유보	국민의힘 지지층(344명)은 67.5%가 반대하고 16.0%만 찬성했다. 50명 미만이지만 개혁신당 지지층(38명)도 반대 51.2% 과반에 찬성 21.5%로 민주당계와 엇갈렸다. 지지정당 없음/잘모름(73명)에선 반대 43.1%, 찬성 32.1%, 유보 24.8% 순이다. 16% 어디서 많이 본 퍼센트네?	한동훈	삭제
469	2024-08-09 22:28	국힘 당원 진짜 홧병나 죽겠다 김경수 선거사범 여론조작범에게 피선거권 부여?? 정신이 어디갔거???	.	한동훈	삭제
470	2024-08-09 22:47	선거법 사범 김경수?? 사면까지 해줬으면 됐지 복권까지 해야 되느냐 사면 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 존중되어야 하는 건 맞다 그러나 그런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여론이나 언론에서 주목하는 부분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사면까지 해줬으면 됐지 복권까지 해야 되느냐 사면 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 존중되어야 하는 건 맞다 그러나 그런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여론이나 언론에서 주목하는 부분도	한동훈	삭제

471	2024-08-09 22:52	김경수 복권은 윤통이 정권재창출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는 시그널이라고 느낍니다 거의 모든 진심으로 당	김경수 복권은 윤통이 정권재창출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는 시그널이라고 느꼈습니다.	한동훈	삭제
472	2024-08-09 23:02	윤석열 김건희 위장보수였나? 김경수 여론조작 선거사범에게 피선거권 부여 게다가 법 초월하여. 이게	.	한동훈	삭제
473	2024-08-09 23:55	윤석열 김건희 위장보수였나? 김경수 여론조작 선거사범에게 피선거권 부여? 게다가 보수정권재창출 막으려는 음흉한 의도? 이게 법치	.	한동훈	삭제
474	2024-08-09 23:58	김경수에게 피선거권 부여? 윤석열은 보수로부터 완전히 버려질려고 작정했나? 디올백에 종북좌파와 새	당원이 언제까지 참아야하나?	한동훈	삭제
475	2024-08-10 0:02	“총리 추천해달라 이재명 대표가 불편해 할 사람 기용하지 않겠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에 도움이 될 것” “윤석열, 나라 두 동강 내지 않으려 문재인 수사 자제” ‘김경수,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	“이재명 대표의 대선에 도움이 될 것” “윤석열, 나라 두 동강 내지 않으려 문재인 수사 자제” ‘김경수,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	한동훈	삭제
476	2024-08-10 0:06	팩트] 지금 드루킹 김경수 복권으로 야권 어디도 분란 안생김. 여권만 분열임 윤석열 목적 달성하니 좋	좌파의 선봉장 진보의 오야붕?	한동훈	삭제

477	2024-08-10 0:14	고성국 “김경수를 풀어주자” ‘드루킹 김경수,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 친윤 “김경수 복권으로 한동훈 견제 효과 주목돼” 천하람 “윤석열, 김건희는 성향•뿌리가 친문, 김경수 대통령으로 밀수도 있어”	고성국 “김경수를 풀어주자” ‘드루킹 김경수,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 친윤 “김경수 복권으로 한동훈 견제 효과 주목돼”	한동훈	삭제
478	2024-08-10 0:21	민주주의 파괴진영의 비리 독선 싹 다 청소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으로 뽑아줬더니 그들에게 날	김경수 복권 반대	한동훈	삭제
479	2024-08-10 0:37	김경수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름. 인정도 안했음. 그런데도 사면 복권 한다고. 정말 얼척없지. 사면은 반성하는 사람에게나 하는거지. 김경수 사면복권은 법치훼	김경수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름. 인정도 안했음. 그런데도 사면 복권 한다고. 정말 얼척없지. 사면은 반성하는 사람에게나 하는거지. 김경수 사면복권은 법치훼손이다.	한동훈	삭제
480	2024-08-10 0:40	윤통부부! 김경수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범죄자인데 사면도 어이없었지만 무슨 복권을 해준다고 하는지!! 거기다 사면해줬을때도 국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범죄자인데 사면도 황당했지만 무슨 복권을 해준다고 하는지!! 거기다 사면해줬을때도 국민들께 죄송하다 사과 한마디 했는가!	한동훈	삭제
481	2024-08-10 0:44	선거조작 김경수 사면해 준 것도 모자라서 보궐선거나 지선, 대선 출마할 수 있도록 복권까지 시켜주려고 하는 윤석열 정체가 뭐냐? 진짜 문	선거조작 김경수 사면해 준 것도 모자라서 보궐선거나 지선, 대선 출마할 수 있도록 복권까지 시켜주려고 하는 윤석열 정체가 뭐냐? 진짜 문재인이 보낸 트로이 목마냐?	한동훈	삭제

482	2024-08-10 0:51	윤석열씨!! 국힘 지지자들 68%가 김경수 사면 반대입장이라는 여조 나왔음 부정선거 사범이 피선거권 부여받는게 가당키나 한일인가? 스포츠 승부조작에 관여한 운동선수	윤석열씨!! 국힘 지지자들 68%가 김경수 사면 반대입장이라는 여조 나왔음 부정선거 사범이 피선거권 부여받는게 가당키나 한일인가? 스포츠 승부조작에 관여한 운동선수들도 영구 제명하는데?	한동훈	삭제
483	2024-08-10 0:55	가짜보수 부부가, 보수 궤멸시키는 중인건가? 뉴스에서보니 자기 영향력 과시? 뭐 이런식으로 나오던데 이미 전대때 당원들마저 포기한것 잊었나?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대통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부정 선	.	한동훈	삭제
484	2024-08-10 10:38	김경수의 드루킹 범죄는 대권을 탈취해간 범죄로 과거 희대의 사기꾼 김대업을 동원한 병풍으로 대권을 탈취해간 범죄와 동일한 것이었다. 국민이 김경수를 용서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 바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국민들의 의사를 오도	김경수의 드루킹 범죄는 대권을 탈취해간 범죄로 과거 희대의 사기꾼 김대업을 동원한 병풍으로 대권을 탈취해간 범죄와 동일한 것이었다. 국민이 김경수를 용서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 바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국민들의 의사를 오도하면서까지 오염시킨 까닭이	한동훈	삭제
485	2024-08-10 11:01	윤석열은 문재인의 아바타인가?	김경수는 여전히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져도 돌아온다”는 궤변으로 법원의 판단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문 前대통령은 이를 ‘양념’이라고 두둔하기까지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 정치공작 사범, 민주주의 파괴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민의 왜곡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한동훈	삭제

486	2024-08-10 11:21	여론조사 67% 반대 확인했습니다. 당심 민심을 따르세요. 김경수 복권 절대 반대합니다. 윤통 불통 지겨워 좀 맘 편하게 살아 보고싶다.	여론조사 67% 반대 확인했습니다.당심 민심을 따르세요. 김경수 복권 절대 반대합니다. 윤통 불통 지겨워 좀 맘 편하게 살아 보고싶다.	한동훈	삭제
487	2024-08-10 11:26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유린한 선거범죄자를 복권시켜준다는게 코메디 아닌가? 그리고 아직도 진실의 법정은 밖에 있다는 헛소리를 하며 독립투사처럼 코스프레 하고 다니는데.. 친문 윤석열은 그냥 출당해서 당을 새로 만드는게 좋을것 같다 친문+친윤+전광훈+태극기+극우유튜버+김건희 이 라인이면 못할것도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유린한 선거범죄자를 복권시켜준다는게 코메디 아닌가? 그리고 아직도 진실의 법정은 밖에 있다는 헛소리를 하며 독립투사처럼 코스프레 하고 다니는데.. 친문 윤석열은 그냥 출당해서 당을 새로 만드는게 좋을것 같다 친문+친윤+전광훈+태극기+극우유튜버+김건희 이 라인이면 못할것도 없을듯	한동훈	삭제
488	2024-08-10 12:31	김 전 지사는 특검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은 물론 지금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적이 없다. >> 아직까지도 죄 인정을 안하는 사람을 사면	김 전 지사는 특검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은 물론 지금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적이 없다. >> 아직까지도 죄 인정을 안하는 사람 을 사면에 복권??	한동훈	삭제

489	2024-08-10 12:38	김경수 사면복권은 법치훼손이다. 용산 부부는 좌파의 선봉장 진보의 오야붕 결국 맞구나	군사이버사령부나 국정원 댓글과의 형평성같은 소릴 누가 하나본데, 정보기관들은 최소한 방첩활동이란 명분이라도 있음. 야당 대선후보가 드러내놓고 남북연방제니 뭐니, 국보법 위반 사범들만 데리고다니면서 간첩단 수장같은 공약만 늘어놓으니까 정치와 방첩이 뒤섞인 결과고. 무책임한 정치질에 보복당한거지. 그걸 무슨 선거범죄라고 키워서 물고늘어져 지금까지 정보기관 초토화법만 만들어지게끔 더러운 여론몰이를했던 검사가 윤석열 아닌가? 군데 국정원 수작업따위는 비할바도 없이, 더민당 권리당원 드루킹 패거리가 19대 대선시 준 댓글달고 매크로 돌려 추천조작 베댓조작 총 1억회 벌여놓고(네이버 개편 전이라 베댓조작 추천 다수順 영향력은 엄청났음). 그 대선후보 최측 수행한 바둑이가 기사좌표 보내면서 여론조작 지시하고, 정권 홀라당 집어먹고, 오사카총영사 등 공직거래 마음대로 안돼서 매크로 댓글로 친문 공격하고 추미애 지도부의 수사지시, 한겨레의 '(보수일줄 알았는데) 집고보니 민주당원'으로 자중지란났다가 덜미잡힌 쌩 선거범죄임. 덜미를 잡힌 뒤로도 특검협상하랴 뻐티랴 시간끌고 음으로양으로 특검 압박하고 문재인만 빼고 수사하란 식으로 진상규명 왜곡하고, 느릅나무 출판사인지 드루킹 경인선(경제도 사람이먼저다)팀과 놀아나며 벌여놓은,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진상규명이 있는데 바둑이는 무조건 부정하며 피코질했을뿐 반성한 적이 없음. 이재명 갖고 재판지연 얘기하기 전의 한명숙 다음가는 원조 격이기도함. 나라를 들어먹는 선거범죄라고 난리치더니 좌파에 뇌가 절여진 재판부는 1심인지 2심인지 실형이라면서도 구속도 안하는 특혜 주고 경남지사직 거의다 해먹게 둠. 시작부터 끝까지 최악의 반면교사 확신범이건만 그걸 어거지로 사면하더니 무슨 반성한적도 없는 최악의 선거사범에게 선거를 또나오라고 헛짓거리를 하고있음. 어용 틀튜버들은 이재명 대항마가 필요하다(이딴게 법무부 시켜	한동훈	삭제
490	2024-08-10 12:48	파렴치한 선거 사범인데 반성도 안함 본인 죄도 인정 안하는. 선거 왜 나옴? 미쳤냐 윤석열 민주당 트로이목마가 아니라면 재가하지 마세	파렴치한 선거 사범인데 반성도 안함 본인 죄도 인정 안하는 선거 왜 나옴? 미쳤냐 윤석열 민주당 트로이목마가 아니라면 재가하지 마세요	한동훈	삭제
491	2024-08-10 13:07	다른선거도 아니고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람의 피선거권 부여 복권을 얘기하는 나라의 정치발전은 없다 그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	다른선거도 아니고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람의 피선거권 부여 복권을 얘기하는 나라의 정치발전은 없다 그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면 정치 3류국이다.	한동훈	삭제

492	2024-08-10 15:24	문재인 임기 3년만에 대전 고검장에서 ⇒ 서울 지검장! ⇒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문재인의 ▶황태자 가 누구 였으며! ... 문재인이 본인이 저지른 "국가보안법 위반!" 으로 감옥에 가기 싫어서 들어놓은 보험이 "윤석렬 대통령 만들기!"란 말이 다시 회자 되는데! ⇒ 윤대통령에게 묻겠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치 인가? 오로지 ▶문	문재인 임기 3년만에 대전 고검장에서 ⇒ 서울 지검장! ⇒ 검찰총장 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문재인의 ▶황태자 가 누구 였으며! ... 문재인이 본인이 저지른 "국가보안법 위반!" 으로 감옥에 가기 싫어서 들어놓은 보험이 "윤석렬 대통령 만들기!"란 말이 다시 회자 되는데! ⇒ 윤대통령에게 묻겠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치 인가? 오로지 ▶문재인 지키기 위한 정치 인가?	한동훈	삭제
493	2024-08-10 15:55	한의 입장은 분명히 나왔고 이제 대통령 결단입니다 후에 당 책임으로 돌릴 수 없을것임 김태우 강서보궐때 윤석열이 선거개입한것인데 분위기 험악해지니 당이 뒤집어 썼음 이때 서울 6곳예상 여당 뒤집히고 김기현 페북사퇴함 김기현은 윤석열이 무조건 옳습니다 이래서 댱 책임이 되버렸음 작년 10월부터 오늘까지 피해봄 김경수건은 대통령 맘	한의 입장은 분명히 나왔고 이제 대통령 결단입니다 후에 당 책임으로 돌릴일은 없을것임 김태우 강서보궐때 윤석열이 선거개입한것인데 분위기 험악해지니 당이 뒤집어 썼음 이때 서울 6곳예상 여당 뒤집히고 김기현 페북사퇴함 김기현은 윤석열이 무조건 옳습니다 이래서	한동훈	삭제
494	2024-08-11 13:09	윤석열 김건희부부가 찐노친문이군요. 가장 존경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연설 다 외움 노무현의 정치감각은 메시다 인터뷰등등...	김건희의 녹취록에 따르면 노무현의 영화를 보고 2시간 동안 울 정도로 뼛 속 깊이 노사모 사실상 가장 존경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연설 다 외움 노무현의 정치감각은 메시다 인터뷰 강정마을에서 노무현 생각하며 울컥 눈물보임 윤석열 "민주당, 어디 감히 노무현을 선거 장사에 이용하나" 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인수위 가동 전에 쉬면서 정국 구상을 하는게 어떻겠냐 제안에 ' 노무현 대통령도 당선되고 인수위 출범 전에 제주도 가서 쉬셨다. 필요한 일만 맡겨놓고 쉬려 한다'라며 팬덤도 몰랐을 이야기로 대답 예능에서 노무현생각하며 "그런사람 없습니다" 노래	한동훈	삭제

495	2024-08-11 13:39	김건희 "우리남편은 문재인 충신이에요 좌파의 오야붕이지요" 3개월 전부터 양정철이 김경수 복권을 요청했다고함	.	한동훈	삭제
496	2024-08-11 14:13	윤이 친노친문동지라 일부러 중도에게 이미지 안좋은 극우인사들 임명, 인사 망쳐서 보수 이미지를 망치려는 의도 아니냐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윤석열대통령 정신 차리시길	윤이 친노친문동지라 일부러 중도에게 이미지 안좋은 극우인사들 임명하고 인사 망쳐서 보수 이미지를 망치려는 의도 아니냐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윤석열대통령 정신 차리시길	한동훈	삭제
497	2024-08-11 14:29	한동훈 대표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명분도 공정도 없는 김경수 복권 반대한다는 뜻을 대통령님 잘 되시라 대통령님께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도 한동훈 대표와 당원들의 김경수 복권 반대를 대통령님이 무시하신다면 대통령님 정말 옳은 행보 하	한동훈 대표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명분도 공정도 없는 김경수 복권 반대한다는 뜻을 대통령님 잘 되시라 대통령님께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도 한동훈 대표와 당원들의 김경수 복권 반대를 대통령님이 무시하신다면 대통령님 정말 옳은 행보 하시는 것입니까?	한동훈	삭제

498	2024-08-11 14:33	김경수 선거범에게 피선거권을 주면서 사실상 선거 나가라고 등떠미는 이번 복권은 전략적 차원을 떠나 보수층의 정서를 건드린 것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도 '정서'라는 것을 갖는다. 그래서 보수층이 갖고 있는 정서가 있다. 정서는 전략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전략적으로는 이해가 돼도,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다. 예를 들자면, 이익을 위해 부모를 죽인 원수와 손을 잡을 수 있는가? 전략적으로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정서적으	김경수 선거범에게 피선거권을 주면서 사실상 선거 나가라고 등떠미는 이번 복권은 전략적 차원을 떠나 보수층의 정서를 건드린 것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도 '정서'라는 것을 갖는다. 그래서 보수층이 갖고 있는 정서가 있다. 정서는 전략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전략적으로는 이해가 돼도,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다. 예를 들자면, 이익을 위해 부모를 죽인 원수와 손을 잡을 수 있는가?	한동훈	삭제

499	2024-08-11 14:46	윤=찐문찐노. 이러면 대통령 되서 부터의 모든 이유없는 행동이 다 납득된다.	김경수 사면 복권을 위해 이명박이 들러리였던 거고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차기는 친문에서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었던 거다 되지마자 22년 광복절 특사로 김경수를 고려한거 보면 알 수 있다 한동훈을 법장 시킨 이유도 검사에서 문재인과 친문 수사 못하게 빼내서 적당하게 이용하다 팽 시킬려는 거였다 검수완박 권성동이 민주당과 야합해서 통과 시켰을 때 그 뒤엔 윤석열이 있었고 그 때도 그걸 비판하고 막은 건 한동훈이었고 그건 시작이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차기는 친문이었기에	한동훈	삭제
500	2024-08-11 14:56	웰빙 국힘의원들 치가 떨린다. 모두 아닥하고 있는거 실화냐? 입장 밝혀라 빨리	.	한동훈	삭제

501	2024-08-11 15:06	윤정부는 민심을 저버리고 국민통합,협치라는 핑계로 복권을 단행할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왜곡시킨 드루킹 댓글조작 주범을 복권시키는것은 여론을 왜곡해서 선거를 조작하는것을 허용하는것과 다름 없는거죠. 좌파들은 언제든지 댓글조작등으로 여론을 왜곡시키는 일을 서슴치 않게 자행할 겁니다. 문정부도 이런 민의로 인해 김경수 사면복권을 하지 않았는데. . 윤정부는 민심을 저버리고 국민통합,협치라는 핑계로 복권을 단행할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 대선때 김만배,신학림 거짓뉴스에 대해 구속수사를 하고 있으나, 이또한 향후 주동자들을.언제든지 복권시킬수 있다는 신호탄을 주는 것입니다. 반성도 전혀 하지 않는 선거사범을 민의를 무시하고 복권시킨다면, 향후 사법리스크가 있는 야당 대표들도 언제든지 사면복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줘 향후 국민통합,협치같은 허울좋은 변명으로 사면복권 시킨다면,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민들의.삶은 고통속에 빠질것이 자명합니다. 협치, 국민통합은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야의 정책으로 민의를 받들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임을 윤정부는 아시길 바라며, 이번 김경수 복권은 절대 반대합니다.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하지만, 그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아시길 바라며, 민심을 저버린 복권은 국민의 저항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한동훈	삭제
502	2024-08-11 15:15	왜 매번 용산부부는 말도안되는 악재를 만드는지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문재인충신이 맞는건가요?	왜 매번 용산부부는 말도안되는 악재를 만드는지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진짜 보수에 1도 도움이 안되는 용산부부 진절머리나네요 용산부부때문에 부끄러움은 당원들 몫이네요	한동훈	삭제

503	2024-08-11 16:53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면 당원들은 입을 봉한채 숨죽이고 대통령의 결정만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	사면, 복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사면, 복권 방침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당연히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면 다른 사람은 입을 봉한채 숨죽이고 대통령의 결정만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 대통령실은 좀 더 세련되어야 한다. 여당에서 반대의견이 나오면 대통령실 답게 점잖게, 여러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하면 될 것을,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맞받아치듯이 답하면 국민들이 어떤 인상을 받을 것이며, 언론은 뭐라고 보도할지를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	한동훈	삭제
504	2024-08-11 18:15	친문친노 윤석열 김건희는 보수 상대로 인내심 테스트하나?	총선과정에서 끝나고 별 난리를 쳐도 25퍼센트 라인에서 지지율이 버티니까 보수층들이 박근혜 트라우마때문에 25퍼센트는 자기를 지켜줄거같으니	한동훈	삭제
505	2024-08-11 18:24	윤석열이 김경수 복권으로 문재인에 충성맹세하고 차기 정권을 친문에게 넘기려고 한다	원래 좌파는 본인이 듣는 소리를 뒤집어 씌운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들어야 할 소리 다 한동훈한테 뒤집어 씌우던걸 이제 보수층이 속지 않는거지 윤석열은 문재인의 충신이라던 김건희가 맞았다	한동훈	삭제
506	2024-08-11 18:27	윤석열 김건희가 보수을 배신한거다 친문 대권을 밀고 자기 부부 안위를 거래한 문재인 충신 윤석열은 보수인가?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윤석열 김건희가 보수을 배신한거다 친문 대권을 밀고 자기 부부 안위를 거래한 문재인 충신 윤석열은 보수인가?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해야할 민심을 전달한거다	한동훈	삭제
507	2024-08-11 18:32	윤석열이 김경수 살리는순간 국힘에서 출당 조치 해야된다.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다. 문재인의 충신일뿐이다	윤석열이 김경수 살리는순간 국힘에서 출당 조치 해야된다.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다. 문재인의 충신일뿐이다	한동훈	삭제
508	2024-08-11 18:52	한동훈 말이 백번 옳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흔들어 놓은 자를 사면 복권 한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제 보수정권이라고 할 수 없고 철학도 신념도 없는 또 하나의 적폐 정권이 되었다. 문제앙에 이어 두번째로 적폐 정권으로 기록되겠구나. 그러니 한동훈이 더욱 돋보일 수 밖에	한동훈 말이 백번 옳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흔들어 놓은 자를 사면 복권 한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제 보수정권이라고 할 수 없고 철학도 신념도 없는 또 하나의 적폐 정권이 되었다. 문제앙에 이어 두번째로 적폐 정권으로 기록되겠구나. 그러니 한동훈이 더욱 돋보일 수 밖에 !!	한동훈	삭제

509	2024-08-11 18:58	한동훈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네요 댓글조작으로 정권을 찬탈한건 엄밀이 말해 헌법질서를 파괴한 내란죄인데 반성조차 안하는 인간을 사면도 모자라 복권이라니... 정	한동훈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네요 댓글조작으로 정권을 찬탈한건 엄밀이 말해 헌법질서를 파괴한 내란죄인데 반성조차 안하는 인간을 사면도 모자라 복권이라니... 정도를 걸어야죠	한동훈	삭제
510	2024-08-11 19:01	항상 상식의 편에서 민심과 당심을 전하니 한동훈은 늘 지지를 받는거다	김경수는 분명히 불법선거를 도모한 범죄인이면서 마치 정치보복의 희생양처럼 코스프레하고 있다..민주당은 자기네들이 하면 적폐청산 지네들이 당하면 정치보복으로 몰아 간다.	한동훈	삭제
511	2024-08-11 22:46	尹·김건희 여사의 정치적 뿌리는 친문 - 與 상상못할 尹의 대권주자 만들려 할수도 - 내가 양정철이면'김경수 살려달라' 할것 -한동훈이야말로 대통령이 대선주자로 성장할까봐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인물일것이다 저는 그렇게봅니다 news.sbs.co.kr/news/endPage.d… 얘는 얼추 알고있었네	尹·김건희 여사의 정치적 뿌리는 친문 - 與 상상못할 尹의 대권주자 만들려 할수도 - 내가 양정철이면'김경수 살려달라' 할것 -한동훈이야말로 대통령이 대선주자로 성장할까봐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인물일것이다 저는 그렇게봅니다 news.sbs.co.kr/news/endPage.d…	한동훈	삭제
512	2024-08-11 22:50	물밑에서 백날 조율해도 결국 지멋대로 밀어붙여놓곤 여론 망하면 딴소리하거나 덮어씌우는거 한두번 겪어봄? 저런인간 대상으론 이거 아니다 싶음 당연히 공개적으로 입장 밝혀서 국민들이 다 알게 해야지. 국민들 모르게 뭘 해봤자 상황 모르는 국민들한테 같이 도매급으	물밑에서 백날 조율해도 결국 지멋대로 밀어붙여놓곤 여론 망하면 딴소리하거나 덮어씌우는거 한두번 겪어봄? 저런인간 대상으론 이거 아니다 싶음 당연히 공개적으로 입장 밝혀서 국민들이 다 알게 해야지. 국민들 모르게 뭘 해봤자 상황 모르는 국민들한테 같이 도매급으로 싸잡히기밖에 더하겠냐?	한동훈	삭제
513	2024-08-11 23:05	대통령 고유권한이 신기하게도 이재명 앞에서는 자연스레 포기되는 이 현상을 뭐라 부르면 되나요? 한동훈에겐 방방뛰고 부글부글 이재	대통령 고유권한이 신기하게도 이재명 앞에서는 자연스레 포기되는 이 현상을 뭐라 부르면 되나요? 한동훈에겐 방방뛰고 부글부글 이재명에겐 허락 윤허 부탁 ㅋㅋㅋ	한동훈	삭제

514	2024-08-11 23:09	김경수는 드루킹을 움직여 당시 대선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김경수가 지휘한 드루킹 댓글부대의 매크로 공격이 선거 쿠데타나 다름없다는 것은 헌법학-선거법 전공 학자 다수의 견해입니다. 사법부와 학자들	김경수는 드루킹을 움직여 당시 대선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김경수가 지휘한 드루킹 댓글부대의 매크로 공격이 선거 쿠데타나 다름없다는 것은 헌법학-선거법 전공 학자 다수의 견해입니다. 사법부와 학자들이 헛짓 헛소리한 것일까요?	한동훈	삭제
515	2024-08-11 23:24	사면권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그거 국민들이 준거지 어디서 뚝떨어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 남용하지 말라고 여당 대표가 얘기를 하는건데, 여당 대표 패싱하면 국정 포기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할	사면권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그거 국민들이 준거지 어디서 뚝떨어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 남용하지 말라고 여당 대표가 얘기를 하는건데, 여당 대표 패싱하면 국정 포기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동훈	삭제
516	2024-08-11 23:48	용산이 김경수 복권 안터트렸으면 도배되고 있을 뉴스 - 민주당의 금투세 추진 금투세와 함께 재부각됐을지도 모를뉴스 1) 민주당과 사모펀드 - 신라젠관련 라임 옵티머스 등등 2) 문재인 민주당 정권- 증권	용산이 김경수 복권 안터트렸으면 도배되고 있을 뉴스 - 민주당의 금투세 추진 금투세와 함께 재부각됐을지도 모를뉴스 1) 민주당과 사모펀드 - 신라젠관련 라임 옵티머스 등등	한동훈	삭제
517	2024-08-12 9:09	지역구의원에게도 전화를) 국힘 웰빙들 왜 꿈쩍도 안합니까!! 당원들이 이렇게 피토하는데!	.	한동훈	삭제
518	2024-08-12 13:52	윤석열은 보수대통령이 아님. 민주당 특급 도우미임을 드디어 화룡정점으로 증명함. 우리가 속았네	.	한동훈	삭제
519	2024-08-12 14:34	트로이목마 찐노찐문 문재인충신 윤석열 복권 감행하면 보수가 가만 안있는다. 다들 지역구에 전화좀 해주세요	.	한동훈	삭제
520	2024-08-12 14:39	국힘의원들 뭐하냐 똘똘뭉쳐서 복권 막으라고 이것들아!!!! 각자 의원들에게 전화좀 해주세요 ㅠㅠ	.	한동훈	삭제

521	2024-08-12 16:36	윤석열은 국힘을 궤멸시키러 온게 빈말이 아니었다 친문으로 정치교체 하기 위해 보수를 친일 뉴라이트 극우 태극기부대 영남당으로 일부	윤석열은 국힘을 궤멸시키러 온게 빈말이 아니었다 친문으로 정치교체 하기 위해 보수를 친일 뉴라이트 극우 태극기부대 영남당으로 쪼그라들게 만드는 중	한동훈	삭제
522	2024-08-12 16:44	윤석열은 본인 말대로 국힘을 궤멸시키러 온게 빈말이 아니었다 친노친문세력에게 정권 바치기 위해 보	윤석열은 국힘을 궤멸시키러 온게 빈말이 아니었다 친노친문세력에게 정권 바치기 위해 보수를 일부러 망치는거 같은데ㅅ	한동훈	삭제
523	2024-08-12 17:00	보수가 윤석열 지켜줄 필요 없으니 특검다 받아도 되나봄? 용산 말좀 해봐라 좌파가 지켜줄거잖아	절대권력은 없다 바른소리 했는데 비난받을 일인가 범죄자를 사면시켜준것도 불공평한데 복권 반대도 못하냐 범죄자는 영원히 범죄자자다	한동훈	삭제
524	2024-08-12 17:04	민주주의 파괴범 김경수 복권시킬거면 윤석열은 더이상 보수기반의 정당에 머물 필요가 없다	민주주의 파괴범 김경수 복권시킬거면 윤석열은 더이상 보수기반의 정당에 머물 필요가 없다 보수를 망치는 짓 하는걸 언제까지 참아야하나?	한동훈	삭제
525	2024-08-12 17:09	의원들 뭐하냐? 지역구사무실 전화 안받음? 최악의 선거사범을 사면도 모잘라서 복권해서 정치발판 만들어주는걸 왜 하는거야? 윤석열은 좌파정권 대통령임? 반성도 인정도 안하는 사람 또 정치 혼탁하게 하는	최악의 선거사범을 사면도 모잘라서 복권해서 정치발판 만들어주는걸 왜 하는거야? 윤석열은 좌파정권 대통령임? 반성도 인정도 안하는 사람 또 정치 혼탁하게 하는 짓을 왜 하는데?	한동훈	삭제
526	2024-08-12 17:25	의원들 뭐하냐? 지역구사무실 전화 안받음? 최악의 선거사범을 사면도 모잘라서 복권해서 정치발판 만들어주는걸 왜 하는거야? 윤석열은 좌파정권 대통령임? 반성도 인정도 안하는 사람 또 정치 혼탁하게 하는	최악의 선거사범을 사면도 모잘라서 복권해서 정치발판 만들어주는걸 왜 하는거야? 윤석열은 좌파정권 대통령임? 반성도 인정도 안하는 사람 또 정치 혼탁하게 하는 짓을 왜 하는데?	한동훈	삭제

527	2024-08-12 17:29	문재인의 충신 좌파 윤석열은 보수우파 표로 당선된 집권 1년차에 드루킹을 사면복권할 계산을 이미 끝냈단 얘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떠벌리는 만큼 내각에 있던 과거 장관 탓 찌질하게 그만하고 권한만큼 행사하고 책임도 니가 지면 돼. 아 참 그리고 거짓말 좀 그만하자 대통령아 국민이 쪽팔린다. 그리고 국민 불쾌감은 당원게시판에 만개 넘는	문재인의 충신 좌파 윤석열은 보수우파 표로 당선된 집권 1년차에 드루킹을 사면복권할 계산을 이미 끝냈단 얘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떠벌리는 만큼 내각에 있던 과거 장관 탓 찌질하게 그만하고 권한만큼 행사하고 책임도 니가 지면 돼. 아 참 그리고 거짓말 좀 그만하자 대통령아 국민이 쪽팔린다. 그리고 국민 불쾌감은 당원게시판에 만개 넘는 글로 대신할게. 현실인식 좀 하고 살자.	한동훈	삭제
528	2024-08-12 17:34	민주주의를 파괴한 여론조성 드루킹 범 반성도 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도 부정한 파렴치범을 사면도 부저격인데 복권까지 시켜준다는게	민주주의를 파괴한 여론조성 드루킹 범 반성도 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도 부정한 파렴치범을 사면도 부저격인데 복권까지 시켜준다는게 말이 안된다	한동훈	삭제
529	2024-08-12 17:37	김경수 복권 이유가 "가혹해서"란다. 어이없네 국힘 의원들 제정신인? 대통령에 당신 정당 안해요?	선거 조작범한테 5년 피선거권 박탈이 가혹해? 그동안 특검 막는다고 발악 했었는데 무슨죄를 지었는지 다 따져보고 왜이리 막아댔는지 확인해보자.	한동훈	삭제
530	2024-08-12 17:47	정치적 도리때문에 김 사면복권? 에라이 국민에 대한 도리 특히 지지층에 대한 도리를 먼저해야지. 무슨 궤변 인가? 지기를 찍어준 사람들을 이렇게 상처 주면서 무슨 도리를	국민에 대한 도리 특히 지지층에 대한 도리를 먼저해야지. 무슨 궤변 인가? 지기를 찍어준 사람들을 이렇게 상처 주면서 무슨 도리를 얘기하나?	한동훈	삭제
531	2024-08-12 17:55	추경호 너는 우파국민들과 당원들은 안 보이고 대통령 눈치만 보냐? 왜 또 뭐 한자리 준대?나쁜 인간. 너	추경호 너는 우파국민들과 당원들은 안 보이고 대통령 눈치만 보냐? 왜 또 뭐 한자리 준대?나쁜 인간. 너같은 인간이 원내대표라	한동훈	삭제

532	2024-08-12 18:01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아시는분이 댓글조작범을 복권시킨다는.것은 댓글조작으로 민주주의파괴한 것을 부정한 것과 다를 바 없는거죠. 본인손으로 구속시킨 자들을 사면복권하기 위해 선거파괴범을 복권시켜준다는 것은 국민과 당원들을 아예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요? 국민과 당원의 지지도 못받고 어떻게 3년임기 버틸수.있을까요? 상식적인 일도 독불장군처럼 불통으로 이렇게 밀어부치는데. . 무엇으로 남은 3년 성공하는 대통령 될수 있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아시는분이 댓글조작범을 복권시킨다는.것은 댓글조작으로 민주주의파괴한 것을 부정한 것과 다를 바 없는거죠. 본인손으로 구속시킨 자들을 사면복권하기 위해 선거파괴범을 복권시켜준다는 것은 국민과 당원들을 아예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요?국민과 당원의 지지도 못받고 어떻게 3년임기 버틸수.있을까요? 상식적인 일도 독불장군처럼 불통으로 이렇게 밀어부치는데. . 무엇으로 남은 3년 성공하는 대통령 될수 있을까요? 국민과.당원의 목소리를 듣지도.않고 간신배들의 목소리만 듣고 한동훈대표를 경계하는가요? 국민에게 심판받을겁니다	한동훈	삭제
533	2024-08-12 18:06	윤석열 또 거짓말한 거 들켰더라? 22년에 김경수 복권 결정되어 있었다는 거 거짓말인 거 뉴스에 나왔어. 한동훈한테는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난리쳤으면서 민주당 이재명이랑은 김경수 사면 의논까지 했다는 거 다 들켰음. 뭔 대통령이 맨날 거짓말했다가 들켜서 망신당	윤석열 또 거짓말한 거 들켰더라? 22년에 김경수 복권 결정되어 있었다는 거 거짓말인 거 뉴스에 나왔어. 한동훈한테는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난리쳤으면서 민주당 이재명이랑은 김경수 사면 의논까지 했다는 거 다 들켰음. 뭔 대통령이 맨날 거짓말했다가 들켜서 망신당하냐?	한동훈	삭제
534	2024-08-12 18:11	김경수가 전직대통령이라도 되냐 무려 2년전부터 복권 해주려고 자기혼자 결심하고 있었나보네 ㅋㅋ 그걸 핑계라고 되면 국민들이 아 대통령의 깊은뜻이구나 할것같아?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런 선거범죄자 더구나 반성도 사과도없는 인간을 굳이굳이 왜 꼭 지금 복권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 그냥 윤석열이 문죄인충신이라고 생각하면 모	김경수가 전직대통령이라도 되냐 무려 2년전부터 복권 해주려고 자기혼자 결심하고 있었나보네 ㅋㅋ 그걸 핑계라고 되면 국민들이 아 대통령의 깊은뜻이구나 할것같아?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런 선거범죄자 더구나 반성도 사과도없는 인간을 굳이굳이 왜 꼭 지금 복권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 그냥 윤석열이 문죄인충신이라고 생각하면 모든게 이해갈 수준일뿐	한동훈	삭제

535	2024-08-12 18:19	김건희왈 노무현의 영화를 보고 2시간 동안 울 정도로 뼛 속 깊이 노사모/가장 존경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노무현 /연설 다 외움/노무현의 정치감각은 메시다 인터뷰/ 강정마을에서 노무현 생각하며 울컥 눈물/ 윤석열 "민주당, 어디 감히 노무현을 선거 장사에 이용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인수위 가동 전에 쉬면서 정국 구상을 하는게 어떻겠냐 제안에 '노무현 대통령도 당선되고 인수위 출범 전에 제주도 가서 쉬셨	김건희왈 노무현의 영화를 보고 2시간 동안 울 정도로 뼛 속 깊이 노사모/가장 존경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노무현 /연설 다 외움/노무현의 정치감각은 메시다 인터뷰/ 강정마을에서 노무현 생각하며 울컥 눈물/ 윤석열 "민주당, 어디 감히 노무현을 선거 장사에 이용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인수위 가동 전에 쉬면서 정국 구상을 하는게 어떻겠냐 제안에 '노무현 대통령도 당선되고 인수위 출범 전에 제주도 가서 쉬셨다. 필요한 일만 맡겨놓고 쉬려 한다'라며 노팬덤도 몰랐을 이야기로 대답/ 윤석열은 찐노사모 친문동지/ 이거면 의문이 풀림	한동훈	삭제
536	2024-08-12 18:27	윤석열은 혼자 뒷감당하기싫어서 한동훈 탓하며 끌어들이고 들어가고싶은데 안먹혀서 정면돌파 ㅋㅋㅋ 혼자 정면돌파하고 책임도 혼자 다지고	윤석열은 혼자 뒷감당하기싫어서 한동훈 탓하며 끌어들이고 들어가고싶은데 안먹혀서 정면돌파 ㅋㅋㅋ	한동훈	삭제
537	2024-08-12 18:33	국수에게 도리? 도리 아닌거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특정 후보 떨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전당대회 기간동안 부인 사적문자가 그렇게 나돌아다니게 놔두셨어요 ? 정진석이 드루킹 관련자 처벌 일인시위 할 때 응원히려고 가셨더구만.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다른 모습은 도리를 중요시한 지도자의 모습은 아닙	도리가 아니다 ? 도리 아닌거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특정 후보 떨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전당대회 기간동안 부인 사적문자가 그렇게 나돌아다니게 놔두셨어요 ? 정진석이 드루킹 관련자 처벌 일인시위 할 때 응원히려고 가셨더구만.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다른 모습은 도리를 중요시한 지도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한동훈	삭제

538	2024-08-13 0:00	윤대통령은 당원이나 지지층 민심은 신경도 안쓴다 신경 썼으면 그따위로 하지도 않음 지지자들이 말 안듣는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왕인줄 암 윤통이야 그런거 다 아는데 과연 앞으로 친윤이란 작자들이 어떨지 모르겠네 지지자들이 분노 임계점	윤대통령은 당원이나 지지층 민심은 신경도 안쓴다 신경 썼으면 그따위로 하지도 않음 지지자들이 말 안듣는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왕인줄 암 윤통이야 그런거 다 아는데 과연 앞으로 친윤이란 작자들이 어떨지 모르겠네 지지자들이 분노 임계점 넘었는데	한동훈	삭제
539	2024-08-13 0:47	'채상병 수사' 공수처, 尹대통령 휴대전화 통신내역 확보	공수처는 이번에 확보한 통화기록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을 전후로 다른 군 관계자와 연락을 취한 적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에 따라 지난 5월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한 해병대 관계자들의 진술과 녹취를 확보한 이후 다소 답보 상태에 있던 공수처 수사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 간 사람을 사면해준다고? 미친거 아니냐	한동훈	삭제
540	2024-08-13 0:50	총선에 영향을 줄까봐 복권을 미뤘다는건 바둑이 복권이 뭘 의미하는지 알면서 한다는거네 ㅋㅋㅋ 국힘	총선에 영향을 줄까봐 복권을 미뤘다는건 바둑이 복권이 뭘 의미하는지 알면서 한다는거네 ㅋㅋㅋ 국힘 부산경남 후보자들 빡치겠다	한동훈	삭제
541	2024-08-13 0:55	보수에서 보수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된 사람이 민심 당심을 거스르고 복권시킬텐가 복권시킨다면 국힘도 더이상 윤석열을 보호해	보수에서 보수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된 사람이 민심 당심을 거스르고 복권시킬텐가 복권시킨다면 국힘도 더이상 윤석열을 보호해줄 필요 없다	한동훈	삭제
542	2024-08-13 0:59	정면돌파라는 워딩이 웃기네 ㅋㅋㅋ 보수지지자 당원 다 꺼져 정면돌파 할꺼야	.	한동훈	삭제
543	2024-08-13 1:05	드루킹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문씨 정권에서 구속 됐고 사면 복권 안했는데 왜 보수우파에서 사면과 복권	드루킹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문씨 정권에서 구속 됐고 사면 복권 안했는데 왜 보수우파에서 사면과 복권을 해주는건가요?????	한동훈	삭제

544	2024-08-13 1:24	대통령실은 박찬대 말에 반박 못하고 한동훈만 잡는중?	박찬대가 세게 지르던데 용산이 연락해서 누구누구 사면복권하면 좋겠냐 자기한테 물었다면서 ㅋㅋㅋ	한동훈	삭제
545	2024-08-13 8:59	김건희, 채상병 특검은 정면돌파 안해?웃기네 진짜 ㅋㅋㅋㅋㅋ 막상 해야할건 뒤로 숨어버리고 접어아	웃기네 진짜 ㅋㅋㅋㅋㅋ 막상 해야할건 뒤로 숨어버리고	한동훈	삭제
546	2024-08-13 9:36	고유권한 어떻게 하는지,수준높은 국민들이 지켜본다..권력이 하늘에서 떨어진건 아니지...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걸 모르지 않겠지..복권해볼테면 해보라.. 수준높은 국민들	고유권한 어떻게 하는지,수준높은 국민들이 지켜본다..권력이 하늘에서 떨어진건 아니지...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걸 모르지 않겠지..복권해볼테면 해보라.. 수준높은 국민들 파이팅	한동훈	삭제
547	2024-08-13 10:59	윤통은 노사모 트로이목마 우리 다 배신당했다 그냥 두면 국힘에 차기 정권 절대 안줄 사람이다 당이 정신	윤통은 노사모 트로이목마 배신당했다 그냥 두면 국힘에 차기 정권 절대 안줄 사람이다 당이 정신차리자	한동훈	삭제
548	2024-08-13 11:07	윤석열 김건희가 국힘 당원인건 맞냐? 노사모 트로이목마 배신자 국힘당원 개무시하는것들이? 의원들	.	한동훈	삭제
549	2024-08-13 11:10	트로이목마 스파이 좌파윤석열 김건희 부부 탈당하고 꺼져라 국힘 코스프레 이제 그만해	트로이목마 스파이 좌파윤석열 김건희 부부 탈당하고 꺼져라 국힘 코스프레 이제 그만해라 역겹다	한동훈	삭제
550	2024-08-13 11:55	윤석열 추경호 김건희 배신자 트로이목마 당장 탈당하고 나가라 국힘 코스프레 다 들통났다 어딜 감히 당	윤석열 추경호 김건희 배신자 트로이목마 당장 탈당하고 나가라 국힘코스프레 다 들통났다 어딜 감히 당원들 이용만 하고 버려?	한동훈	삭제
551	2024-08-13 12:09	윤석열 추경호 김건희 배신자 트로이목마 당장 탈당하고 나가라 국힘 코스프레 이제 다 들켰다 배신자는	윤석열 추경호 김건희 배신자 트로이목마 당장 탈당하고 나가라 국힘코스프레 이제 다 들켰다 배신자는 나가라고	한동훈	삭제
552	2024-08-13 12:32	윤석열 스파이는 있지도 않은 한동훈댓글팀고소하고 정작드루킹김경수는 복권	있지도 않은 한동훈댓글팀고소하고 정작드루킹김경수는 복권ㅋㅋㅋㅋ	한동훈	삭제

553	2024-08-13 12:47	배신자 윤석열 윤승민 보다 더 큰 배신한 인간 당원들이 용서 할까요? 다들 지역구 의원한테 말좀해	왜 다들 아닥임	한동훈	삭제
554	2024-08-13 12:53	윤승민보다 더 나쁜 배신자 윤석열은 출당해라 추경호 권성동 이철규 조정훈 데리고 나가라 108이나 104	.	한동훈	삭제
555	2024-08-13 12:58	트로이목마 문재인 첩자 윤석열이 일부러 극극우 이미지 나쁜 인사만 고용해서 국힘 이미지 망치려는거	.	한동훈	삭제
556	2024-08-13 13:04	국힘 싫다고 뽀개버린다 할때 눈치 챘어야 문재인 스파이 윤석열	.	한동훈	삭제
557	2024-08-13 13:14	윤석열 정체성이 드러난 이상 이제 친윤 = 친문이네. 친문에게 당 먹히지 않으려면 한동훈으로 결집할수밖에	윤석열 정체성이 드러난 이상 이제 친윤 = 친문이네. 친문에게 당 먹히지 않으려면 한동훈으로 결집할수밖에	한동훈	삭제
558	2024-08-13 13:45	윤석열 친노 친문이었네. 우리 다 속았다. 역시.. 국민의힘 쥐약먹은 놈들이라고 말한건 진심이었네	윤석열 친노 친문이었네. 역시.. 국민의힘 쥐약먹은 놈들이라고 말한건 진심이었네	한동훈	삭제
559	2024-08-13 14:35	트로이목마 스파이 부부 옹호하는 추경호랑 같이 나가라 추경호 탈당해라 그냥 원내 자격도 없음 권성동 이철규 조정훈은 스파이부부 추종자이니 따라나가고 108이나 104나	트로이목마 스파이 부부 옹호하는 추경호랑 같이 나가라 추경호 탈당해라 그냥 원내 자격도 없음 권성동 이철규 조정훈은 스파이부부 추종자이니 따라나가고 108이나 104나 그게 그거다	한동훈	삭제
560	2024-08-13 14:44	민주주의 파괴범, 9000건의 댓글조작으로 정권을 훔친 선거사범 김경수.. 자신의 죄를 인정도 사과도 반성도 하지않는 범죄자를 사면도 모자라 복권까지 해주며 정치판에 불러들인 윤석열대통령의 그 고유권한..누가 쥐어준겁니까? 반대하는	민주주의 파괴범, 9000건의 댓글조작으로 정권을 훔친 선거사범 김경수.. 자신의 죄를 인정도 사과도 반성도 하지않는 범죄자를 사면도 모자라 복권까지 해주며 정치판에 불러들인 윤석열대통령의 그 고유권한..누가 쥐어준겁니까? 반대하는 민심은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한동훈	삭제

561	2024-08-13 15:02	윤석열 탈당해라 민주주의 선거사범 김경수 복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국민은 아무도없다 이건 이니지 여야를 떠나 저란 선거사범을 다시 선거에 나가게 해주는건 그 범죄를 다시 저지를수 있게 면죄부주는꼴임 그냥 다신 정치계에 발을 못붙일 인간에게 기회를 주는 역사의 죄인	민주주의 선거사범 김경수 복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국민은 아무도없다 이건 이니지 여야를 떠나 저란 선거사범을 다시 선거에 나가게 해주는건 그 범죄를 다시 저지를수 있게 면죄부주는꼴임 그냥 다신 정치계에 발을 못붙일 인간에게 기회를 주는 역사의 죄인 윤석열	한동훈	삭제
562	2024-08-13 15:17	생각해보면 국힘이미지 중도에게 나락간거 다 용산때문임. 일부러 그런거같은데? 일부러 이상한짓 하고	생각해보면 국힘이미지 중도에게 나락간거 다 용산때문임. 일부러 그런거같은데? 일부러 이상한짓 하고 방탄하게 하고 배신자 트로이목마 스파이 첩자 문재인 아바타였음	한동훈	삭제
563	2024-08-13 16:03	민주주의 파괴범 김경수 복권시킬거면 윤석열은 더이상 보수기반의 정당에 머물 필요가 없다 국힘에서 당장 나가서 니 맘대로하고 그 책임도 혼자 져라 국힘에게 방탄시키지마라! 인사도 거지같이 해서 국힘	민주주의 파괴범 김경수 복권시킬거면 윤석열은 더이상 보수기반의 정당에 머물 필요가 없다 국힘에서 당장 나가서 니 맘대로하고 그 책임도 혼자 져라 국힘에게 방탄시키지마라! 인사도 거지같이 해서 국힘 대신 욕보이고 WW	한동훈	삭제
564	2024-08-13 16:18	윤석열의 거대한 착각은 지가 왕인줄앎 대통령 권한? 그게 누가준건데 너를 뽑은 47% 국민이 준거다 어딜 국민위에 올라 앉으려고함 감	윤석열의 거대한 착각은 지가 왕인줄앎 대통령 권한? 그게 누가준건데 너를 뽑은 47% 국민이 준거다 어딜 국민위에 올라 앉으려고함 감히…	한동훈	삭제
565	2024-08-13 18:23	윤석열 더이상 국민의힘 망치지 말고 살날리지 말고 채상병 특검 받고 탈당해 그리고 추경호 너도 같이 나	.	한동훈	삭제
566	2024-08-13 18:26	문석열이 왜 공감얻는지 아세요? 윤김부부 이제 당원들이 모두 문재인이 보낸 스파이라고 봅니다 정체를 이번에 드러낸거구요. 채상병 특	.	한동훈	삭제
567	2024-08-13 18:55	윤석열김건희 니네가 싼똥때문에 국힘이 망하잖아 채상병 특검 받아 받으라고 추경호랑 같이 받고 나	.	한동훈	삭제

568	2024-08-13 19:05	민주당 사람이 그러네. 바보들인가 지금껏 윤석열이를 보수라고 생각했단말인가? 그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어리석은 김건희 바라기일뿐이었어... 그냥 개인의 권력을 자랑	민주당 사람이 그러네. 바보들인가 지금껏 윤석열이를 보수라고 생각했단말인가? 그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어리석은 김건희 바라기일뿐이었어... 그냥 개인의 권력을 자랑하는 독재자. 문재인과 밀약한 아바타 ㅠㅠ	한동훈	삭제
569	2024-08-13 20:51	대통령 지지 철회는 당연	이러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준줄 아는 대통령 더는 필요 없다. 이재명 하나도 모자라서 김경수라는 범죄자까지 더해줘서 당원 들을 힘들게 하는 대통령 더 이상 지지 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570	2024-08-13 21:23	[추경호 사퇴하세요] 문재인아바타 윤석열에 윤아바타 추경호에. 국힘을 아주 망치려는 두사람 못봐주겠	당은 당원이 민심 받들어 한대표랑 알아서 할테니 제발 나가라 윤석열이 하는 모든 행위가 국민의 힘에 짐이 되고 있잖아!! 윤석열 똥은 본인이 좀 치워	한동훈	삭제
571	2024-08-13 22:12	김경수랑 창당 하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 추경호 권성동 데리고 좀 나가주세요 국힘이 더이상 님 오물 못닦	김경수랑 창당 하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 추경호 권성동 데리고 좀 나가주세요 국힘이 더이상 님 오물 못닦아요 방패도 못한다고요	한동훈	삭제
572	2024-08-13 22:25	이제 대통령이 저지른 일은 국힘은 입장내지마라	이제 대통령이 저지른 일은 국힘은 입장내지마라 가타부타 하지마라 대변인이든 뭐든 대통령실 대변인이 해라 논란 되는 일 생기면 그건 당 일이 아니라 대통령실 일이라고 선 그어라 x는 윤석열이 싸는데 국힘이 뒷처리반이냐 도대체 언제까지 언제까지냐 같이 죽을 수 없다 좌파들 도움으로 국정운영하시길	한동훈	삭제
573	2024-08-13 22:55	민주주의 파괴범 김경수 복권시킨 윤석열은 더이상 보수기반의 정당에 머물 필요가 없다 국힘에서 당장 나가서 맘대로하세요 김경수랑 신당 만든다면서요? 용산 양산 대화합 ㅋㅋㅋ 대환장 ㅋㅋㅋ	민주주의 파괴범 김경수 복권시킨 윤석열은 더이상 보수기반의 정당에 머물 필요가 없다 국힘에서 당장 나가서 맘대로하세요 김경수랑 신당 만든다면서요?	한동훈	삭제
574	2024-08-13 23:33	용산과 국힘은 이제 분리해서 봐야할것 같네요 윤통에 대한 지지는 철회했지만 한대표가 있는 국힘에는	용산과 국힘은 이제 분리해서 봐야할것 같네요 윤통에 대한 지지는 철회했지만 한대표가 있는 국힘에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한동훈	삭제

575	2024-08-14 0:03	추경호 사퇴해라. 무능한 딸랑이만큼 역겨운게 없죠	무능한 딸랑이만큼 역겨운게 없죠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필요한 때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많은 올바른 보수 국민들이 깜도 안되고 부족하지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뽑았을텐데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민주주의 의 꽃인 선거를 조작하려하여 대법원까지 다퉈 실형이 확	한동훈	삭제
576	2024-08-14 0:06	용산은 뽑아준 보수층들에 대한 인간적 예의는 어디다 팔아먹었느 용산뽑아준 보수층들을 배신한건 용산 당신들 아닌가. 용산이 보수유권자 상대로 유승민ed 해놓고 어디서	용산은 뽑아준 보수층들에 대한 인간적 예의는 어디다 팔아먹었느 용산뽑아준 보수층들을 배신한건 용산 당신들 아닌가. 용산이 보수유권자 상대로 유승민ed 해놓고 어디서 난리..	한동훈	삭제

577	2024-08-14 0:10	윤석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의 진실	윤석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의 진실 자기 소신을 담아서 독립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 사람에게 충성하냐고 먼저 질문 받아서 거기에 답변한 거였음 애초에 소신도 없고 강직하지도 않았고 친문 양정철 라인 타고 벼락출세한 정치검사였음	한동훈	삭제
578	2024-08-14 3:47	김경수 사면 원치 않는다 하더니 복권은 넙죽 받아 챙기는 위선. 오늘로 김건희가 말 했다는 좌파오야붕	김경수 사면 원치 않는다 하더니 복권은 넙죽 받아 챙기는 위선. 오늘로 김건희가 말 했다는 좌파오야붕지지 철회 합니다.	한동훈	삭제
579	2024-08-14 4:18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고.난생처음으로 후원금도 내봤다. 이제는 모든 지지를 철회한다.	윤통이 너무 싫어 국힘 탈당하려 했지만, 우리가 불러내온 한동훈 대표에게 다시 걸어봅니다. 민생경제 1호로 금투세폐지 발언 계속 강조하시고 (금투세 문제의 심각성 정확히 인지하고 합리적으로 말하는 것에 인간적 면과 기존 정치인과 다른 공정과 상식 지키시는	한동훈	삭제
580	2024-08-14 4:23	윤통 용산부부는 완패다. 당심과 민심은 윤통을 완전 버렸다. 윤통은 잃은 것이 넘많다. 회복불능이다. 잠시 김경수 파동으로 여론물타기를 노렸을 것이다. 채해병 특검 거니특검 어물적 못넘어간다. 특검가	국민 80%가 김경수복권을 반대했는데 80%의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복권시킨 윤통부부와 친윤간신들을 도저히 용서할수가 없다	한동훈	삭제
581	2024-08-14 4:27	윤석열 총선 고의패배 한게 이런 이유 아니다 패배가 아니네 지 입장에선 승리네. 여기저기 보험 들어놓고지 뽑아준 당원은 완전 배신에 뒤통수 문재인 아바타 윤석열 김건희 특	윤석열은 고쳐쓸수 없을 지경이 됐다 윤석열을 버려야 보수가 산다 좌파의 선봉장 진보의 오야붕 윤석열 김건희. 국힘당원들 이제 정신 차리세요 윤은 문재인 아바타이다	한동훈	삭제
582	2024-08-14 4:33	윤석열 대파는 일부러 흔든거였다. 김건희 종북좌파목사와 새벽 3시까지 카톡? 당연한거였다 우리가 다	민주당과 기싸움도 모자라 국민과 당원들과 기싸움하는 대통령	한동훈	삭제

583	2024-08-14 4:47	이정도로 피토하는데 들은척도 안하는게 절망이다 설명하려는 노력도 없나?	민심과 당심이 그렇게 김경수 복권 반대를 말했는데 정면돌파 운운하면서 보란듯이 복권시킨 윤석열!! 니가 보수 대통령 맞냐!! 니가 좌파 범죄자를 풀어줘!? 책당들한테 문재인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풀어줬냐!!범죄자가 죄를 반성하긴 커녕. 다시 정치를 하겠다는	한동훈	삭제
584	2024-08-14 11:11	김경수 대표 친윤 됐는데 행복하냐 문재인의 충신 윤석열 김건희 데리고 민주당으로 꺼져라//라는 댓 있네요	김경수 대표 친윤 됐는데 행복하냐 문재인의 충신 윤석열 김건희 데리고 민주당으로 꺼져라//라는 댓 있네요	한동훈	삭제
585	2024-08-14 11:20	22년 절박한 보수표를 훔쳐간 친노친문 좌파부부. 지금 옆에 있는 김한길 양정철 박영선 외 관저 십상시들 보수파괴 설계만 하는 중 인 듯. 특검 국힘에 부담떠넘기지 말고 이	22년 절박한 보수표를 훔쳐간 친노친문 좌파부부. 지금 옆에 있는 김한길 양정철 박영선 외 관저 십상시들 보수파괴 설계만 하는 중 인 듯. 특검 국힘에 부담떠넘기지 말고 이제 받아!!	한동훈	삭제
586	2024-08-14 12:22	보수입장에서 윤석열대통령 참 배은망덕하다. 보수비위살짝맞춰주고 좌파본심은 변하지않았다는 그걸 떠벌리고다니고 보수표로 당선돼놓고 하는짓마다 보수표 떨어지는짓에 총선에서 깽판쳐서 망한거 절대	보수입장에서 윤석열대통령 참 배은망덕하다. 보수비위살짝맞춰주고 좌파본심은 변하지않았다는 그걸 떠벌리고다니고 보수표로 당선돼놓고 하는짓마다 보수표 떨어지는짓에 총선에서 깽판쳐서 망한거 절대 못잊는다	한동훈	삭제
587	2024-08-14 12:40	윤석열은 전통적인 보수지지층 직군, 지지자 정밀타격 중. 승부조작한 선수에게 영구제명은 커녕 다시 프로무대 복귀 길 열어주는 격이다. 윤석열은 한동훈에게는 세상 매정하고 가혹하고 권위적이고 무슨 왕조시다 왕처럼 행동하는데, 이재명에게는 비굴하게 느껴질 정도로 살핀다. 저쪽에 투하할 폭탄을 굳이	윤석열은 전통적인 보수지지층 직군, 지지자 정밀타격 중. 승부조작한 선수에게 영구제명은 커녕 다시 프로무대 복귀 길 열어주는 격이다. 윤석열은 한동훈에게는 세상 매정하고 가혹하고 권위적이고 무슨 왕조시다 왕처럼 행동하는데, 이재명에게는 비굴하게 느껴질 정도로 살핀다. 저쪽에 투하할 폭탄을 굳이 가져와 국민의힘에 투하한다.	한동훈	삭제

588	2024-08-14 12:48	한동훈만이 숨통 트이게 해주네. 여연 인선 완전 좋다. 유의동이 함께한 총선기간 동안 정책택배는 시민들에게 평가가 좋았다. 유의동이 정책을 대하는 입장은 친밀하고 디테일하며 또 적극적 이였던 게 참 인상 깊었음. 무엇보다 능력 있는 인	한동훈과 유의동이 함께한 총선기간 동안 정책택배는 시민들에게 평가가 좋았다. 유의동이 정책을 대하는 입장은 친밀하고 디테일하며 또 적극적 이였던 게 참 인상 깊었음. 무엇보다 능력 있는 인사가 되니 좋은 결정인 듯 함.	한동훈	삭제
589	2024-08-14 13:00	실형까지 받은 선거사범이 잘못 하나 인정하지 않는데 복권을 시켜버리면 이재명 나가리 되고나서 또 다시 지지자들 향해 결백 및 거짓 선동해 집결하겠네 도대체 윤석열의	실형까지 받은 선거사범이 잘못 하나 인정하지 않는데 복권을 시켜버리면 이재명 나가리 되고나서 또 다시 지지자들 향해 결백 및 거짓 선동해 집결하겠네 도대체 윤석열의 정체는?	한동훈	삭제
590	2024-08-14 14:00	. 건강하고 수평적인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저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과 당대표를 어떻게든지 싸움을 붙이고 싶어하고 자꾸만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것 같은데. 만약에 대통령 뜻대로 그대로 하면 또 야당분	건강하고 수평적인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저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과 당대표를 어떻게든지 싸움을 붙이고 싶어하고 자꾸만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것 같은데. 만약에 대통령 뜻대로 그대로 하면 또 야당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용산 여의도 출장소라고. 완전히 수직적 당정 관계, 이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고 수평적인 당정 관계는 건강한 의미의 긴장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의미의 긴장 없이 어떻게 수평적인 당정 관계가 되겠습니까.	최영옥	
591	2024-08-14 14:01	팩트로 말하자면 이번에.. 수평정 당정 관계를 보여줬고, 한대표는 우리 당원과 보수들의 맘을 읽어 줬고.... 대통령은 우리 보수를 무시했	팩트로 말하자면 이번에.. 수평정 당정 관계를 보여줬고, 한대표는 우리 당원과 보수들의 맘을 읽어 줬고.... 대통령은 우리 보수를 무시했고.	한동훈	삭제
592	2024-08-14 14:06	윤대통령 이거 이기는 게임이라고 좋아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보수지지자들이 준 대통령 특권을 사용하면서 이기는게임이라고 당원을 이기고 보수를 이겨서 대통령님 참 좋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보수들의 맘을 읽어주신거고 그게 본인 손해라 하더라도 했을거고 그래서 그를 승자라	대통령 이거 이기는 게임이라고 좋아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보수지지자들이 준 대통령 특권을 사용하면서 이기는게임이라고 당원을 이기고 보수를 이겨서 대통령님 참 좋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보수들의 맘을 읽어주신거고 그게 본인 손해라 하더라도 했을거고 그래서 그를 승자라고 인정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삭제

593	2024-08-14 14:10	윤석열 친노친문이면 모든의문 풀림. 박영선을 국무총리로 기용하겠다는거와 김경수 복권 모두 한 맥락으로 보면 .. 친문으로 행동하는걸로 이해됨. 게다 좌파인 김윤과 문재인케어를 주도한 박민수 앞세워 선거 앞두고 갑자기 우파지지층인 의사들 줘패는 꼴통짓으로 국민의힘을 대패하게 만들고 골로 보낸것까지.. 딱 맞아떨어지는군.	박영선을 국무총리로 기용하겠다는거와 김경수 복권 모두 한 맥락으로 보면 .. 친문으로 행동하는걸로 이해됨. 게다 좌파인 김윤과 문재인케어를 주도한 박민수 앞세워 선거 앞두고 갑자기 우파지지층인 의사들 줘패는 꼴통짓으로 국민의힘을 대패하게 만들고 골로 보낸것까지.. 딱 맞아떨어지는군.	한동훈	삭제
594	2024-08-14 14:40	이번 사면복권은 전략적 차원을 떠나 보수층의 정서를 건드린 것이다. 7월 전당대회는, 보수층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집단이 한동훈과 윤석열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를 두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결국 보수층은 한동훈을 선택했다. 이것은 보수라는 집단이 앞으로 계속 그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아닌 한동훈을 선택해야 한다는 전력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전략적 판단에 의해 보수는 윤석열과 거리를 둔 것이다.	이번 사면복권은 전략적 차원을 떠나 보수층의 정서를 건드린 것이다. 7월 전당대회는, 보수층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집단이 한동훈과 윤석열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를 두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결국 보수층은 한동훈을 선택했다. 이것은 보수라는 집단이 앞으로 계속 그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아닌 한동훈을 선택해야 한다는 전력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전략적 판단에 의해 보수는 윤석열과 거리를 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면복권은, 보수층이 정서적으로까지 윤석열을 완전히 버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동훈	삭제

595	2024-08-14 15:14	용산 오늘 채널에이뉴에라 언플하던데 당원 개무시하고 무사하겠어요? 어이없다 당원들이 무슨 대표가 시키면 하는 로봇인줄 알아?	친윤들이 한대표체제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거다 한동훈이 체제 못간다고 떠들던데 당게 우리가 이리 피토하는 게 그냥 한동훈이 시켜서 하는거라고 뉴에라 친윤 보수패널이 떠들던데	한동훈	삭제
596	2024-08-14 18:03	추경호 돌았냐? 자격미달 사퇴해라 지금 당원들 문빠 김건희한테 폭팔한거 안보여? 채상병 특검이나 108명 결의안 내라 뭐하는짓이지? 진	추경호 돌았냐? 지금 당원들 김건희 좌건희한테 폭팔한거 안보여? 채상병 특검이나 108명 결의안 내라 뭐하는짓이지? 진짜 미친것들 아님?	한동훈	삭제
597	2024-08-14 18:14	친문+친윤=친뮨 추경호 자격없다 사퇴해라. 그리고 지금 김건희에 대한 당원들 분노 안보여? 국힘 망치려고 온 사람에게 108명 똘똘뭉쳐 번개같이 서명서? 특검이나 서명해	친문+친윤=친뮨 추경호 자격없다 사퇴해라. 그리고 지금 김건희에 대한 당원들 분노 안보여? 국힘 망치려고 온 사람에게 108명 똘똘뭉쳐 번개같이 서명서? 특검이나 서명해라 어!@!@	한동훈	삭제
598	2024-08-14 18:19	무능한 추경호 김건희 딸랑이에만 혈안이 돼있고 당원들 목소리는 개무시. 특검 받으라는 당원 소리 안	무능한 추경호 김건희 딸랑이에 혈안이 돼있고 당원들 목소리는 개무시. 특검 받으라는 당원 소리 안들려? 진짜 인내심 한계 시험하네	한동훈	삭제
599	2024-08-14 18:23	만몇천개 당원 절규는 쌩까고 나몰라라 하더니 찐좌파 김건희씨 오더엔 득달같이 서명서? 특검이나 받고 처리하라고 추경호 아부꾼아 진짜 당원들 다 죽는꼴 보려고 저러	만몇천개 당원 절규는 쌩까고 나몰라라 하더니 찐좌파 김건희씨 오더엔 득달같이 서명서? 특검이나 받고 처리하라고 추경호 아부꾼아 진짜 당원들 다 죽는꼴 보려고 저러나?	한동훈	삭제
600	2024-08-14 18:31	김건희여사 똥은 본인이 해결하게 해라 어딜 국민팔이? 국민모독? 왜 국힘의원 이용함?? 지나가는 국민한테 물어봐라 모독느낀 사람이 있	김건희여사 똥은 본인이 해결하게 해라 어딜 국민팔이? 국민모독? 왜 국힘의원 이용함?? 지나가는 국민한테 물어봐라 모독느낀 사람이 있는지	한동훈	삭제

601	2024-08-14 18:34	좌파가 한 말은 좌파끼리 해결해 전현희랑 김건희랑 좌파 둘이 해결하지 왜 국힘에게 떠넘겨? 당원들 죽	좌파가 한 말은 좌파끼리 해결해 전현희랑 김건희랑 좌파 둘이 해결하지 왜 국힘에게 떠넘겨? 당원들 죽는 꼴 보고싶냐 진짜	한동훈	삭제
602	2024-08-14 18:41	좌파부부가 싼똥은 당에 넘기지 마 대통령실에서 알아서해라~~우리는 뒤통수당한게 너무 상처가 커서 쉴	좌파부부가 싼똥은 당에 넘기지 마 대통령실에서 알아서해라~~우리는 뒤통수당한게 너무 상처가 커서 쉴드못친다..정면돌파 해라	한동훈	삭제
603	2024-08-14 18:44	애초에 김건희씨가 디올백 안받고 받았어도 바로 사과했으면 그분이 자살하는 비극까지 갔겠어? 지금 실언 한마디에 국힘의원 움직여 방	애초에 김건희씨가 디올백 안받고 받았어도 바로 사과했으면 그분이 자살하는 비극까지 갔겠어? 지금 실언 한마디에 국힘의원 움직여 방방 뛸때니?	한동훈	삭제
604	2024-08-14 18:59	김건희 전현희 좌파끼리 난 싸움 좌파끼리 해결해 왜 추경호 시켜 국힘의원들 바보 만듦? 당원들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들겠네 진짜 애초에	어이가 없다 돌아가신분에 대한 애도가 먼저 아니냐? 악마야?	한동훈	삭제
605	2024-08-14 19:20	친문좌파 김건희씨가 디올백 안받았으면, 받아도 사과했으면 권익위 그분 안돌아가셨어요. 전현희같은 인간 말에 부르르 부글부글 하면서 국힘의원들 딸랑이짓 시킬때입니까? 돌아가신분에 대한 애도가 먼	김건희씨가 디올백 안받았으면, 받아도 사과했으면 권익위 그분 안돌아가셨어요. 전현희 같은 인간 말에 부르르 부글부글 하면서 국힘의원들 딸랑이짓 시킬때입니까? 돌아가신분에 대한 애도가 먼저 아니에요?	한동훈	삭제
606	2024-08-14 19:35	추경호는 직함이 대통령실 대변인인가? 이런 원내대표는 바꿔야 하지 않나? 국민모독은 왜???? 김건희가 국민을 대표해? 여기가 북한이야??? 김정은 비판하면 우리 인민을 욕보였다 하는 조선중앙tv도	추경호는 직함이 대통령실 대변인인가? 이런 원내대표는 바꿔야 하지 않나? 국민모독은 왜???? 김건희가 국민을 대표해? 여기가 북한이야??? 김정은 비판하면 우리 인민을 욕보였다 하는 조선중앙tv도 아니고	한동훈	삭제

607	2024-08-14 19:57	정치인과 그 아내의 인권까지 챙기면... 앞으로 보수는 이재명과 김혜경 욕하면 안되겠다... 그것도 국민 모독 인권 유린 되는거 아니냐... 아니 디올백 받고 사과까지 하려고 했다면 잘못한 건데.. 그걸 권익위가 억지로 문제없다고 하고.. 그래서 양심적인 분이 스트레스 못버티고 돌아가신거 아니냐.. 사과가 먼저	정치인과 그 아내의 인권까지 챙기면... 앞으로 보수는 이재명과 김혜경 욕하면 안되겠다... 그것도 국민 모독 인권 유린 되는거 아니냐... 아니 디올백 받고 사과까지 하려고 했다면 잘못한 건데.. 그걸 권익위가 억지로 문제없다고 하고.. 그래서 양심적인 분이 스트레스 못버티고 돌아가신거 아니냐.. 사과가 먼저 아닐까	한동훈	삭제
608	2024-08-14 20:17	전현희가 막말했죠.. 어쩌겠나 "고유권한" 인데	.	한동훈	삭제
609	2024-08-14 20:21	본인일로 강직한 공무원이 세상을 등지게 한건 이재명이나 김건희나 뭐가 달라? 국민눈엔 하등 다를거 없다 게다가 김건희는 그냥 와이프	.본인일로 강직한 공무원이 세상을 등지게 한건 이재명이나 김건희나 뭐가 달라? 국민눈엔 하등 다를거없다 게다가 김건희는 그냥 와이프잖아 왜 국회의원들이 방탄해야함?	한동훈	삭제
610	2024-08-14 21:07	김건희씨디올백만 안받았으면 사과했으면 권익위 그분이 죽을일이 없지	김건희씨디올백만 안받았으면 사과했으면 권익위 그분이 죽을일이 없지... 무속추종자라며 그 업보 어떻게 할건지	한동훈	삭제
611	2024-08-14 21:16	친문 김건희 vs 친명 전현희 대결이네 눈치없는 국힘은 좀 빠져라 추경호 김건희 심기경호 자괴감 안느	친문 김건희 vs 친명 전현희 대결이네 눈치없는 국힘은 좀 빠져라 추경호 김건희 심기경호 자괴감 안느껴? 자존심 없어?	한동훈	삭제
612	2024-08-14 21:46	추경호씨 원내그만두세요. 문파김씨 명파전씨 좌파내전에 왜 끼어드세요? 김건희 욕한게 왜 국민목독인지 아시는 분??? 살인자라고 한 전현희도 문제지만 김건희는 문제 없습니까? 디올백 받았잖아요 사과하세요 사과하고 싶어 안달난 문자 한동훈에게 잘도 보내더니 왜 안하세요??? 그리고 제발 윤석열 김건희 친윤은 보수인척 연기 그만하십	김건희 욕한게 왜 국민목독인지 아시는 분??? 살인자라고 한 전현희도 문제지만 김건희는 문제 없습니까? 디올백 받았잖아요 사과하세요 사과하고 싶어 안달난 문자 한동훈에게 잘도 보내더니 왜 안하세요??? 그리고 제발 윤석열 김건희 친윤은 보수인척 연기 그만하십시오 문재인팬티입고 천안함모자쓴다고 숨겨집니까	한동훈	삭제

613	2024-08-14 22:13	문파 김건희씨!! 대통령실 “민주당이 죽여”??이게 할말입니까? 인권을 위해 평생 일해온 분이 그동안 쌓은 일이 부정 당한 느낌이 들어 자괴감에 빠져 생을 마감 한 사건입니다. 김건희씨가 디올백 안받았으면 이런일 안일어났어요 최소한의	문파 김건희씨!! 대통령실 “민주당이 죽여”??이게 할말입니까? 인권을 위해 평생 일해온 분이 그동안 쌓은 일이 부정 당한 느낌이 들어 자괴감에 빠져 생을 마감 한 사건입니다. 김건희씨가 디올백 안받았으면 이런일 안일어났어요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는 하세요!	한동훈	삭제
614	2024-08-14 22:33	부부인거 이제야 확인사살.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은 정직한 분"..."그 분 둘러싼 집단 '내로남불'의 전형"/박영선·양정철 발탁설에 김건희 “남편은 문재인 대통령 충신”	문파 부부인거 이제야 확인사살.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은 정직한 분"..."그 분 둘러싼 집단 '내로남불'의 전형"/박영선·양정철 발탁설에 김건희 “남편은 문재인 대통령 충신” 발언 재조명	한동훈	삭제
615	2024-08-14 22:37	건희 방패는 문파들에게 시켜라 왜 국힘의원들 부려먹음? 당원들 목소리 귓등으로도 안듣지 추경호!	김건희 방패는 문파들에게 시켜라 왜 국힘의원들 부려먹음? 당원들 목소리 귓등으로도 안듣지 추경호! 당시 MBC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씨는 “(윤석열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줄 누가 상상했어? 이걸 누가 키워준거야?”라고 반문하면서 “이거 문재인 정권이 키워준 거야”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보수 후보가 된 데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 공을 돌렸다. 대화 도중 김건희 씨는 보수 진영을 오히려 폄하했다. 김 씨는 “(윤석열을) 보수가 키워줬겠어? 보수는 자기네가 해 먹고 싶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자기 편에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라고도 말했다. 당시 열린공감TV가 공개한 추가 녹취에 따르면 김 씨는 “좀 객관적으로 봐봐. 윤석열이가 하루 아침에 (진보에서 보수로) 진영을 바꾸겠어?”라고 반문하며 “우리 남편도 의리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가장 충신이에요. 나중에 알고보면 나중에 아마 다 알게 될 거예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가장 충신이에요”라고도 말했다.	한동훈	삭제

616	2024-08-14 22:58	남편은 짐은 국가다 그러고있고 마누라는 나는 국민이다 이러네. 당원 개무시하더니 둘다 모독하면 큰일 난다고? 어휴 그리고 추경호 비롯 국힘의원들 당원들 의견은 개무시하면서 私人일뿐인 김건희 뒷처리나 하고있으니 스스로 안부끄럽냐 개한심하다	김건희 방패는 문파들에게 시켜라 왜 국힘의원들 부려먹음? 당원들 목소리 귓등으로도 안듣지 추경호! 당시 MBC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씨는 “(윤석열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줄 누가 상상했어? 이걸 누가 키워준거야?”라고 반문하면서 “이거 문재인 정권이 키워준 거야”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보수 후보가 된 데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 공을 돌렸다. 대화 도중 김건희 씨는 보수 진영을 오히려 폄하했다. 김 씨는 “(윤석열을) 보수가 키워줬겠어? 보수는 자기네가 해 먹고 싶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자기 편에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라고도 말했다. 당시 열린공감TV가 공개한 추가 녹취에 따르면 김 씨는 “좀 객관적으로 봐봐. 윤석열이가 하루 아침에 (진보에서 보수로) 진영을 바꾸겠어?”라고 반문하며 “우리 남편도 의리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가장 충신이에요. 나중에 알고보면 나중에 아마 다 알게 될 거예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가장 충신이에요”라고도 말했다.	한동훈	삭제
617	2024-08-14 23:08	이원석 총장 디올백은 이미 법적 미비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점. 최재영의 진술 역시 오라가락해 신빙성이 없다는 점등은 알겠다. 문제는 도이치 주가조작이다. 퇴임전 마무리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아직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지껏 검찰 수사의 편향성 굴레를 절대 벗어나지 못	추경호 비롯 국힘의원들 당원들 의견은 개무시하면서 私人일뿐인 김건희 뒷처리나 하고 있으니 스스로 안부끄럽냐 개한심하다. 그리고 다른건 뭡 대통령실 자기들 의견이니 그렇다치자 국민모독은 왜???? 김건희가 국민을 대표해? 여기가 북한이야??? 김정은 비판하면 우리 인민을 욕보였다 하는 조선중앙tv도 아니고	한동훈	삭제
618	2024-08-14 23:16	용산부부때문에 지옥맛 봤는데 그나마 한동훈 인선 마무리 보고 숨쉬어지더라고요	훌륭한 인선입니다 개혁쇄신 의지가 보이고 확실히 세대교체 되는분위기 너무 좋아요 구태 고인물들 이젠 물러날때들 되었어요 한대표 화이팅 입니다. 용산부부때문에 지옥맛 봤는데 우는 힘리갑 입니다	한동훈	삭제

619	2024-08-15 0:36	김여사는 김정숙에 대해서도 카톡 "전,다.예쁘고 좋아요 얼굴이.예쁘세요" 이건 뭐에요? 진짜 완전 친노친 문인데 당원들 다 속였네	그래 나가 나가서 양정철하고 박영선하고 문재인하고 김경수하고 신당 차려	한동훈	삭제
620	2024-08-15 0:41	간신배 조정훈. 민주당으로 돌아가라.당원들이 한은 문제 없다고 65% 지지율로 보여줬고 윤이 한외롭게 하지말라고 이에 응답했다. ㅋㅋ친윤들만 지 밥그릇 떨어질새라 이간	간신배 조정훈. 민주당으로 돌아가라.당원들이 한은 문제 없다고 65% 지지율로 보여줬고 윤이 한외롭게 하지말라고 이에 응답했다. ㅋㅋ친윤들만 지 밥그릇 떨어질새라 이간질중 총선이 급격하게 망한건 누가봐도 윤석열때문아니냐 그중에서도 의대증원때문이지 이걸 가린다고 가려져?ㅋㅋㅋ	한동훈	삭제
621	2024-08-15 0:51	"숨진 국장,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리 잘못됐다 토로"	"사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는데 막지 못해 죄송하고 아쉽다, 토로해" "해법 찾아야 하는 국장으로서 무혐의 결정에 따른 비난에 괴로웠을 것"8일 숨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행인 A씨가 숨지기 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한동훈	삭제
622	2024-08-15 11:57	속보) 윤석열, 문재인 숙원사업 남북협의체 발표. 문재인 숙원사업 의대정원증원 문재인 숙원 김경수 복권, 대체 뭐지?	속보) 윤석열, 문재인 숙원사업 남북협의체 발표. 문재인 숙원사업 의대정원증원 문재인 숙원 김경수 복권, 대체 뭐지?	한동훈	삭제
623	2024-08-15 12:48	보수우파 다 속은건가? 친문 반명 정권? 윤석열, 문재인 숙원사업 남북협의체 발표, 김건희" 남북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문재인 숙원사업 의대정원증원 문재인 숙원 김경수 복권 김건희 “제가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저기 좀 끊어지면 좀 적극적으로 저는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정말로”	한동훈	삭제
624	2024-08-15 12:53	윤석열 진짜 문재인 오더 받는건가요? 광복절인데 갑자기 뭔 통일? 북한과 협의체라고요?	의대증원도 문재인소원 김경수복권도 문재인소원 남북통일은 김건희가 나선다더니 김건희 오더?	한동훈	삭제

625	2024-08-15 18:44	광복절의미를 모르는 듯...현충일에 할 발언을 광복절에..ㅠㅠ이해가 안간다 보수를 일부러 망치려고 하는	이해가 안간다 보수를 일부러 망치려고 하는거라고 생각하면 다 말이 된다.	한동훈	삭제
626	2024-08-15 21:38	광복절 에 일본이나 역사 언급 전혀없고 북한말만 계속해대니 6.25 나 국군의날인줄 . 자유 24번. 디올백	광복절 에 일본이나 역사 언급 전혀없고 북한말만 계속해대니 6.25 나 국군의날인줄 . 자유 24번. 디올백 받을 자유 인가?	한동훈	삭제
627	2024-08-15 22:04	애초에 명품백을 안 받았다면 이런 일도 없고 공무원이 돌아가실 일도 없었지 않는가 원인은 명품백 때문인데 당에서 이러는 거 진짜 이해가 안된다 누가 명품백 받으라 했나 받	애초에 명품백을 안 받았다면 이런일도 없고 공무원이 돌아가실 일도 없었지 않는가 원인은 명품백 때문인데 당에서 이러는 거 진짜 이해가 안된다 누가 명품백 받으라 했나 받아 놓고 이거 뭐 하자는 건지	한동훈	삭제
628	2024-08-15 22:09	국힘 중진들 한동훈 못지키면 당원 폭팔할겁니다 지금 뭐하는 것들인	진짜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거냐....?	한동훈	삭제
629	2024-08-15 22:13	국힘 중진들 정신차리고 한동훈 보좌 잘해라 윤석열은 문파좌파가 보수 죽이러 온거다 일부러 문제있는 인사쓰고 친일프레임에 여사 카톡	국힘 중진들 정신차리고 한동훈 보좌 잘해라 윤석열은 문파좌파가 보수 죽이러 온거다 일부러 문제있는 인사쓰고 친일프레임에 여사 카톡에 사고내서 이미지 망치는거라고	한동훈	삭제
630	2024-08-15 22:24	국힘의원들은 한동훈 중심으로 다음대선 무조건 이겨야한다 이게 정권재창출이 아니라 정권을 문가로부터 가져오는거 같다 결국 문정권 10년한거임 담번에 국힘으로 꼭 정	국힘의원들은 한동훈 중심으로 다음대선 무조건 이겨야한다 이게 정권재창출이 아니라 정권을 문가로부터 가져오는거 같다 결국 문정권 10년한거임 담번에 국힘으로 꼭 정권교체 해라	한동훈	삭제
631	2024-08-15 23:46	대통령이 한 말씀을 쭉 돌이켜보면 '민주당에 갈 수 없어서 국민의힘으로 왔다'고 했고, '민주당에도 훌륭한 사람들 많다'고 했다. 비명(비이재명) 친문들하고 뭔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계개편설이 가	대통령이 한 말씀을 쭉 돌이켜보면 '민주당에 갈 수 없어서 국민의힘으로 왔다'고 했고, '민주당에도 훌륭한 사람들 많다'고 했다. 비명(비이재명) 친문들하고 뭔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계개편설이 가능하다	한동훈	삭제
632	2024-08-15 23:54	민주주의 4.0과 새로운미래가 윤석열 이 국힘 20-30명 데려오길 기다리는중이랍니다	한 70-80해서 신당만든다고	한동훈	삭제

633	2024-08-16 1:46	문석열대통령이 친문파 40명+ 조국신당+ 친윤 으로 당 만들어 문재인계로 차기 계승 시나리오 양정철이랑 같이 짰다고 하네요 김경수 복권은 그 준비작업 민주주의4.0 이랑	문석열대통령이 친문파 40명+ 조국신당+ 친윤 으로 당 만들어 문재인계로 차기 계승 시나리오 양정철이랑 같이 짰다고 하네요 김경수 복권은 그 준비작업 민주주의4.0 이랑 새미래 들썩거리고	한동훈	삭제
634	2024-08-16 7:18	한동훈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문파들의 트로이목마짓은 막아야죠	한동훈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문파들의 트로이목마짓은 막아야죠	한동훈	삭제
635	2024-08-16 10:18	국힘의원들 제3자 특검 빨리좀 하라고 민주당에 다 뺐기는데 뭐함?	주도권 다 뺐기지 말고 선제적으로 하라고 몇번을 말함?	한동훈	삭제
636	2024-08-16 11:44	민주당이 3자특검 수용가능이라고 했을때 국힘 안받으면 한대표도 보수에 희망 가지지말고 그냥 대충해라	민주당이 3자특검 수용가능이라고 했을때 국힘 안받으면 한대표도 보수에 희망 가지지말고 그냥 대충해라 이런 XX들 데리고 무슨 정권 연장이 되겠음? 지금 한대표 설득에도 제3자도 안하면 국힘은 범인으로 자백 인정하고 이재명 대통령 대관식해주는 꼴인거지 지금까지 XX들 하는거보니 끝까지 반대할거같은데 기대감이 없음 그러니 보수엔 희망이 없다는거임	한동훈	삭제
637	2024-08-16 13:04	민주당이 3자특검 수용가능이란다 한동훈안으로 빨리 국힘 발의안 내! 내라고 이번에 안하고 버티면 한대표도 보수에 희망 가지지말고 그냥 대충해라 이런 XX들 데리고 무슨 정권 연장이 되겠음? 지금 한대표 설득에도 제3자도 안하면 국힘은 범인으로 자백 인정하고 이재명 대통령 대관식해주는 꼴인거지 지금까지 XX들 하는거보니 끝까지 반대할거같은데 기대감이 없음 그러니 보수엔 희망이 없다는거임 그냥 용	민주당이 3자특검 수용가능이란다 한동훈안으로 빨리 국힘 발의안 내! 내라고 이번에 안하고 버티면 한대표도 보수에 희망 가지지말고 그냥 대충해라 이런 XX들 데리고 무슨 정권 연장이 되겠음? 지금 한대표 설득에도 제3자도 안하면 국힘은 범인으로 자백 인정하고 이재명 대통령 대관식해주는 꼴인거지 지금까지 XX들 하는거보니 끝까지 반대할거같은데 기대감이 없음 그러니 보수엔 희망이 없다는거임 그냥 용산 문석열문건희 수호나 하면서 망하겠다는데 어쩌겠음	한동훈	삭제
638	2024-08-16 13:13	제보공작 포함한 제3자 특검법 선제적으로 발의해라 국힘 의원들 당원들이 지켜본다 지금	제보공작 포함한 제3자 특검법 선제적으로 발의해라 국힘 의원들 당원들이 지켜본다 지금	한동훈	삭제

639	2024-08-16 14:37	당원들은 국힘 의원들 문재인 추종하는 윤석열 부부 눈치보는거 싫어한다 장경태 포함 제3자특검 빨리 발의해 빨리 당원들 한계에 달했다	당원들은 국힘 의원들 문재인 추종하는 윤석열 부부 눈치보는거 싫어한다 장경태 포함 제3자특검 빨리 발의해 빨리 당원들 한계에 달했다 지금	한동훈	삭제
640	2024-08-16 16:35	윤통 방탄 그만하고 밝힐거 밝히고 넘어가라 좀!! 국힘 김건희 수호에는 108명 우르르 쫄병이야? 이번에 안하고 넘어가면 3년 내내 끌려다닌다 지겨워 죽겠다 진짜	대통령-국방부 장관-해병대 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지시에 의해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면 비판받아야 한다. 다만 규범적으로 옳지 않다고 해서 다 법으로 처벌할 수준은 아니다. 수사권 없는 수사는 사실행위에 가깝고 수사권 있는 수사가 법적인 의미를 지닌 수사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지시는 장관이 받아들이면 장관 지시 장관은 자기 이름으로 책임지는 자리 장관 지시 잘못 없으면 대통령으로 소급 못해	한동훈	삭제
641	2024-08-16 17:02	추경호씨 계속 김건희 파출부소리 들으면서 시녀질 하면 당원이 끌어내린다 빨리 한동훈이 제 3자 특검 협조하고 민생정국으로 나가야한다 국힘 108명 국민들 열받는거 안보여? 대안마련했으니 바로 진행시켜	추경호 계속 김건희 시녀질 하면 당원이 끌어내린다 빨리 한동훈이 제 3자 특검 협조하고 민생정국으로 나가야한다 국힘 108명 국민들 열받는거 안보여? 대안마련했으니 바로 진행시켜라	한동훈	삭제
642	2024-08-16 17:26	제3자 특검 빨리 해 하라고!!비겁한 추경호 신동욱 또 헛소리하네 질질 끌려다니면서 거부권 1000 번 쓸거냐? 진짜 국힘 당원들이 과반 지지한건 제3자 특검 하란소리다 당원	비겁한 추경호 신동욱 또 헛소리하네 질질 끌려다니면서 거부권 1000 번 쓸거냐? 진짜 국힘 당원들이 과반 지지한건 제3자 특검 하란소리다 당원 개무시해??	한동훈	삭제
643	2024-08-16 18:58	與 인재영입위원장에 고동진 유력/매달 현 지역구인 강남구에서 '청년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으면 청년 인재 영입·육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착착 일하고 있는데 용산 쫌!! 그리고 웰빙 국개들 쫌!! 채상병 이런건 이제 협의해서 하고 털고 가라고 쫌	한동훈	삭제

644	2024-08-16 21:48	문석열과 친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여당이 금투세니 뭐니 바쁜데 지네 방탄하라고 국힘의원들 똥개훈련시키고 진짜 싫다 국힘당원들이 용산에 진짜 화났음 주제 파악좀 제발. 그리고 뭘 그렇게 숨기는게 많아???? 800-7070인지 뭔지 다 밝혀 왜 자꾸 거짓말하고 숨김??? 장경태는 빨리 수사 받고!!! 김건희 꼬붕 장예찬은 니 댓글황금폰 공수처에 내고! 저부부때문에 국힘이 망하고 있다고!!??????????????	문석열과 친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여당이 금투세니 뭐니 바쁜데 지네 방탄하라고 국힘의원들 똥개훈련시키고 진짜 싫다 국힘당원들이 용산에 진짜 화났음 주제 파악좀 제발. 그리고 뭘 그렇게 숨기는게 많아???? 800-7070인지 뭔지 다 밝혀 왜 자꾸 거짓말하고 숨김??? 장경태는 빨리 수사 받고!!! 김건희 꼬붕 장예찬은 니 댓글황금폰 공수처에 내고! 저부부때문에 국힘이 망하고 있다고!!??????????????	한동훈	삭제
645	2024-08-16 22:01	그러네요 국힘의원이 고작 108명으로 똘똘??? 그래서 남은 3년 똘똘만 할겁니까?? 한동훈 제안 특검법은 , 대법원장 추천특검+ 위헌적 독소조항 제거+제보공작 의혹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현실적 제안입니다. 국힘의원놈들님! 이 안으로 수용해서 진실규명하고, 정쟁용으로 더 이상 귀한 죽음을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네요 국힘의원이 고작 108명으로 똘똘??? 그래서 남은 3년 똘똘만 할겁니까?? 한동훈 제안 특검법은 , 대법원장 추천특검+ 위헌적 독소조항 제거+제보공작 의혹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현실적 제안입니다. 국힘의원놈들님! 이 안으로 수용해서 진실규명하고, 정쟁용으로 더 이상 귀한 죽음을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삭제
646	2024-08-16 22:33	추경호 신동욱 징글징글하다 눈치보는 삽사리개도 아니고 진짜. 공수처 수사 끝나면 특검 안할거같아? 어차피 하게 될거라고. 민주당안으	한동훈 안으로 장경태 제보공작 까지 넣어서!! 빨리 그놈의 똘똘뭉치기 해서 대안 내라고요!!!!???????????? 떳떳한데 뭐가 문제죠? 물론 특검 남발은 안되지만 본인이 이종섭 호주 보내면서 불을 지폈으니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커진건 본인책임입니다 왜 여당까지 다 끌고 들어가서 수렁에 빠트리는거죠??	한동훈	삭제
647	2024-08-16 23:14	제발 국힘 의원들!! 추경호!!! 3자특검 받아서 처리하고 앞으로 좀 나가라 공수처 수사 언제 끝나는데 그리고 끝나도 특검 안갈거같아? 3년내내 똘똘뭉쳐 방탄하다 대선 내줄거	제발 국힘 의원들!! 추경호!!! 3자특검 받아서 처리하고 앞으로 좀 나가라 공수처 수사 언제 끝나는데 그리고 끝나도 특검 안갈거같아? 3년내내 똘똘뭉쳐 방탄하다 대선 내줄거냐고	한동훈	삭제

648	2024-08-17 10:39	추경호 원내 '제3자 추천+제보공작' 해병특검법 당론 못모으면 그냥 사퇴해 이 무능력자야 당원보다 문석열이 먼저냐???	아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먼저 유리한쪽으로 특검안을 내야지 공수처수나 나온다한들 민주당이 가만히 있습니까? 무협의 나와도 국민들 선동해서 못 믿겠다하고 특검 낼텐데 그때가면 제3자도 내세우지 못 하고 독소조항 더 넣어서 자신들이 유리한 특검 분명히 낼텐데 그때가서 안 받을 명분있나요? 이미 공수처 수사도 진전된 상태인데 우리가 먼저 유리한 방안 내서	한동훈	삭제
649	2024-08-17 16:00	추경호!! 제3자+제보공작 특검 받아라. 노무현문재인 추종자는 보수궤멸 그만둬라	빨리 특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들 의문을 해소시켜 특검정국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한동훈 응원합니다 국민을 위해 힘내세요	한동훈	삭제
650	2024-08-17 22:00	제보공작 포함한 채상병특검법 적극 찬성합니다 빨리 특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들 의문을 해소시켜 특검정국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한동훈 응원합니다 국민을 위해 힘	제보공작 포함한 채상병특검법 적극 찬성합니다 빨리 특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들 의문을 해소시켜 특검정국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한동훈 응원합니다 국민을 위해 힘내세요	한동훈	삭제

651	2024-08-17 22:30	추경호!! 제3자특검 빨리 해라 장경태가 엮인 공작 제보건도 넣으면 딱 일듯 우리 같이 모든 의구심을 풀어보자	제3자특검 완전 찬성한다 장경태가 엮인 공작 제보건도 넣으면 딱일듯 우리 같이 모든 의구심을 풀어보자	한동훈	삭제
652	2024-08-18 18:25	국힘지지층 70%가 새로운 리더십 한동훈을 지지함 당심도 민심도 팬덤도 다 한동훈임 이젠 젊고 활력있는 대한민국 리더십 한동훈으로 웰빙 국힘들 특권포기와 정치개혁 이	국힘지지층 70%가 새로운 리더십 한동훈을 지지함ㅋ 당심도 민심도 팬덤도 다 한동훈임 이젠 젊고 활력있는 대한민국 리더십 한동훈으로 웰빙 국힘들 특권포기와 정치개혁 이뤄내야할 때임	한동훈	삭제
653	2024-08-19 15:03	국힘은 의료문제 떠맡지 말라 용산이 싼 똥은 용산이 처리해 뭐하냐 진짜	고문도 용산에 말하라고요	한동훈	삭제
654	2024-08-19 16:00	한동훈 이재명은 여야 대표로 민생만 힘써라 특검 탄핵 지겨워죽겠네 그렇다고 윤비어천가 부르는 추경호잘못이 주는건 아니다!! 너는 그냥 문석열이 졸개들 아닌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국민을 대표하라고 뽑은 너희들이 국회의 입법활동은 하지않고 문석열이 행동대원들 역할만 한다는게 할 짓이냐? 문석열이가 국회를 무시하는건 바로 너희들도 무시한다는건데 참을만 하	한동훈 이재명은 여야 대표로 민생만 힘써라 특검 탄핵 지겨워죽겠네 그렇다고 윤비어천가 부르는 추경호잘못이 주는건 아니다!! 너는 그냥 문석열이 졸개들 아닌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국민을 대표하라고 뽑은 너희들이 국회의 입법활동은 하지않고 문석열이 행동대원들 역할만 한다는게 할 짓이냐? 문석열이가 국회를 무시하는건 바로 너희들도 무시한다는건데 참을만 하냐? 제3자특검 빨리 당론만들어 대표에게 갖다 바쳐라	한동훈	삭제
655	2024-08-19 23:56	한동훈 대표님금투세폐지、종합부동산세、상속세개편 그외 민생정책 최우선으로 회담 잘하세요!!!화이팅!!!	한동훈 대표님금투세폐지、종합부동산세、상속세개편 그외 민생정책 최우선으로 회담 잘하세요!!!화이팅!!!	한동훈	삭제

656	2024-08-20 0:41	윤석열대통령님 제3자 특검 받으세요 국힘의원 방패시키면서 발목잡지 마세요 용산 몽니때문에 보수지지층까지 홧병으로 죽겠어요 한동훈대표만 이리뛰고 저리뛰고 국민눈에 다 보입니다만 정말 화납니다 와이프 방탄하려고 대선 나온거에	윤석열대통령님 제3자 특검 받으세요 국힘의원 방패시키면서 발목잡지 마세요 용산 몽니때문에 보수지지층까지 홧병으로 죽겠어요 한동훈대표만 이리뛰고 저리뛰고 국민눈에 다 보입니다만 정말 화납니다 와이프 방탄하려고 대선 나온거에요? 진짜 짜증나요	한동훈	삭제
657	2024-08-20 1:39	한동훈 이재명 여야대표 현안논의 환영 용산부부와 친윤잔당들은 극우 자통당 같은 인간들과 손절하고 한동훈대표의 뜻에 따라 중. 수. 청.에 맞는 합리적 정책을 제시해야한다 보수는 그런 극우가 아닙니다 한동훈대표의 제안에 따라 변화합시다 용산부부는 극우 틀투브 그만 보고, 친문 양정철 같은 인간들하고 헛짓하면서 보수 그만 망쳐라 너네	한동훈 이재명 여야대표 현안논의 환영 용산부부와 친윤잔당들은 극우 자통당 같은 인간들과 손절하고 한동훈대표의 뜻에 따라 중. 수. 청.에 맞는 합리적 정책을 제시해야한다 보수는 그런 극우가 아닙니다 한동훈대표의 제안에 따라 변화합시다 용산부부는 극우 틀투브 그만 보고, 친문 양정철 같은 인간들하고 헛짓하면서 보수 그만 망쳐라 너네 부부만 가만히 있어도 보수가 살 수 있다	한동훈	삭제
658	2024-08-20 11:33	용산 친윤들은 제3자 특검 받고 끝내라 공수처에 핸드폰 더 털리기 전에	국힘당 은 민주당 처럼 당대표 혼자 결정하는 공산당이 아니다. 한동훈 은 억지로 하지 않고 치밀하게 준비한다. 민생부터 논의해라. 채상병 아니면 모든 민생경제 안할거냐. 참 이	한동훈	삭제
659	2024-08-22 21:32	추경호 세비 토해내 당심 민심 이렇게 무시할거냐? 윤석열 김건희땜에 보수가 고통받고있다 제3자 특검	추경호 세비 토해내 당심 민심 이렇게 무시할거냐? 윤석열 김건희땜에 보수가 고통받고 있다 제3자 특검 통과시켜라	한동훈	삭제
660	2024-08-22 22:05	윤석열김건희 보수 망치러 왔냐? 진심 요즘엔 그런거같다 이사람들 하는 모든 행동이 보수를 망친다. 제3자 특검 받아라 털고 가자고 불	윤석열김건희 보수 망치러 왔냐? 진심 요즘엔 그런거같다 이사람들 하는 모든 행동이 보수를 망친다. 제3자 특검 받아라 털고 가자고 불법 없다며!!	한동훈	삭제
661	2024-08-23 9:04	제3자특검 받으세요) 화가 난 대통령이 친윤계 의원들에게 전화를 하면 충성파들이 나서 소리 높여 대신 싸우는 일이 되풀이됐다.?? 이게 정	저게 줄었다고 약간 변했더니 어이없음	한동훈	삭제

662	2024-08-23 9:14	용산 친윤이 당깬다고 위협해서 제3자 특검 못한답니다 당심 민심 70% 무시합니까? 이미 늦었어 보수국민도 모였다하면 욕이야. 보수국민도 참을만큼 참아서 한계가 왔다. 뭉가시절 좌파들하고 싸움하고 끝까지 정의를 지키는거 같아서 보수가 대텅 만들어 줬는데 보수는 우습게 알고 좌파 김경수 복권 시키는	이미 늦었어 보수국민도 모였다하면 욕이야. 보수국민도 참을만큼 참아서 한계가 왔다. 문재인시절 좌파들하고 싸움하고 끝까지 정의를 지키는거 같아서 보수가 대통령 만들어 줬는데 보수는 우습게 알고 좌파 김경수 복권 시키는거 보고 모두 손털었지	한동훈	삭제
663	2024-08-23 9:18	추경호 제3자특검 의총추인해라 대통령 취임시 가졌던 이미지는 가을낙엽처럼~늘 감정에 휘둘려 버럭질하고 자기측근들 비호하세요 공정과상식 이미지는 허망한 구호가 되	추경호 제3자특검 의총추인해라 대통령 취임시 가졌던 이미지는 가을낙엽처럼~늘 감정에 휘둘려 버럭질하고 자기측근들 비호하세요 공정과상식 이미지는 허망한 구호가 되었습니다.	한동훈	삭제
664	2024-08-23 9:22	김건희와 채상병건을 법타령, 수사결과 운운하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 정치적으로 해결 못하겠으면 당에 맡겨라... 괜히 또 친윤이란 수하들 동원해서 당에서 태클 걸며 시끄러워지는 순간 부터 너와 국민의힘은 패망할 뿐이다 제발 변화하기 바란	김건희와 채상병건을 법타령, 수사결과 운운하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 정치적으로 해결 못하겠으면 당에 맡겨라... 괜히 또 친윤이란 수하들 동원해서 당에서 태클 걸며 시끄러워지는 순간 부터 너와 국민의힘은 패망할 뿐이다 제발 변화하기 바란다	한동훈	삭제
665	2024-08-23 9:39	용산은 친윤시켜 어깃장 놓지 말고 대법원장특검 받아라. 민생 챙기는 한동훈 일 잘한다 한동훈이 금투세 폐지, 티몬 위메프 사태 빠른 대응, 에너지 바우처 남은 예산 활용한 취약계층 폭염 7~9월 전기료 감면 등	민생 챙기는 한동훈 일 잘한다 한동훈이 금투세 폐지, 티몬 위메프 사태 빠른 대응, 에너지 바우처 남은 예산 활용한 취약계층 폭염 7~9월 전기료 감면 등 민생 열심히 챙기고 있다	한동훈	삭제
666	2024-08-23 9:47	'취임 한달' 한동훈, '1일 1민생정책'으로 존재감 '뚜렷' [정국 기상대]	취임 한달' 한동훈, '1일 1민생정책'으로 존재감 '뚜렷' [정국 기상대]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대표의 시점에 맞는 대응책을 내놓는 순발력은 놀라울 정도다. 그의 얘기를 들으면 그가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특히 티메프 사태가 터지자마자 당정을 마련한 점이나, 금투세 이슈를 주도하는 모습에서 정무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볼	한동훈	삭제

667	2024-08-24 11:55	한동훈만 민생 바꿀 수 있다. 여야에서 민생 관심 가진 사람 있나? 민주당은 다수당이면서 표에만 관심있고 헐뜯는거에만 관심있는데 이제껏 민생을 위해서 한게없음. 초등학생 앉혀놔도 민주당보단 민생 좋	한동훈만 민생 바꿀 수 있다. 여야에서 민생 관심 가진 사람 있나? 민주당은 다수당이면서 표에만 관심있고 헐뜯는거에만 관심있는데 이제껏 민생을 위해서 한게없음. 초등학생 앉혀놔도 민주당보단 민생 좋아진다	한동훈	삭제
668	2024-08-24 12:40	국힘은 정신차리자..진짜 하는짓 보면 개짜증난다...한대표님의제3자 특검법 받고 앞으로 나가야지 언제까지 특검정국에서 뭐물건지?당대표한테 힘실어줘서 뭉칩시다..이나라가 윤통과김여사거는 아니지 않	국힘은 정신차리자..진짜 하는짓 보면 개짜증난다...한대표님의제3자 특검법 받고 앞으로 나가야지 언제까지 특검정국에서 뭐물건지?당대표한테 힘실어줘서 뭉칩시다..이나라가 윤통과김여사거는 아니지 않나요?	한동훈	삭제
669	2024-08-25 1:26	한동훈의 간첩죄 개정 꼭 협조하세요 국힘의원들 그리고 제3자 특검 이제 하세요 공수처 결과 나오면 안할거 같아요? 정권 말기까지 끌고	한동훈의 간첩죄 개정 꼭 협조하세요 국힘의원들 그리고 제3자 특검 이제 하세요 공수처 결과 나오면 안할거 같아요? 정권 말기까지 끌고갈거에요?	한동훈	삭제
670	2024-08-25 9:22	용산 추경호 고집 그만부리고 제3 특검 받고 의대증원 내년은 500 명으로 증원후 현안로 일자 바꾸세요	국민 다 죽게 할겁니까	한동훈	삭제
671	2024-08-25 22:44	제3자특검 찬성 국힘은 일극체제 아닌 민주정당이라 이견 좁히는거 필요하고 친윤 징징이들 매국노들도 다 설득해서 가야하니 시간이 필요한거다. 그리고 민생챙기느라 바빠 정쟁 징징 그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반도체특별법 제정 추진, 간첩법 개정, 취약 계층 전기료 감면, 청년 고독사 문제 해결,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대책, 전기차 안전 대책 육아 휴직	국힘은 일극체제 아닌 민주정당이라 이견 좁히는거 필요하고 친윤 징징이들 매국노들도 다 설득해서 가야하니 시간이 필요한거다. 그리고 민생챙기느라 바빠 정쟁 징징 그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반도체특별법 제정 추진, 간첩법 개정, 취약 계층 전기료 감면, 청년 고독사 문제 해결,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대책, 전기차 안전 대책 육아 휴직 등등 그동한 한거 셀수도 없음	한동훈	삭제

672	2024-08-25 23:12	한동훈이 티몬 위메프 사태 빠르게 대응하고 금투세 폐지, 에너지 바우처 남은 예산 활용한 취약계층 폭염 7~9월 전기료 감면 등의 민생 이슈를 주도하는 거 보면서 한동훈을 더 지지하게 됐음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 63%의 당원과국민지지만 보고 나아가세요...친윤과 용산설득아 되면 좋겠지만 절대로 변하지않을 팀들이나 그냥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 한동훈 어깨위에 용산부부의 똥지개. 국힘의원들 발목잡기와. 자통당 들의 억지 갈라치기. 윤석열과 뒤로 밀약하고 보수 이미지 국민앞에 망치는 윤... 넘 짠하네. 하나 믿는다 더절실한 우리나라의 우상향 발전위해 전진해 나가고 있는 진실을.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가기 위해 보수는 힘차게 개혁할것 입니다. 절대 범죄당들이 개인들의 안위 위한 권력 을 가지면 안	한동훈	삭제
673	2024-08-25 23:26	제3자특검 용산 똥고집 그만 부리고 받으세요 여당 발목 다 잡고있잖아요	이래서 한명의 리더가 중요하다 그동안 국힘이 아무리 여소야대라지만 너무 민주당 특검 공세에 끌려다니고 대통령실 방어해준다고 당 전체가 무능해보였는데 젊고 능력있고 현명한 한동훈 당대표가 와서 주도하니 분위기 확 바뀌는거 보소 뭐 더블당 니네들도 자극	한동훈	삭제
674	2024-08-27 9:57	추경호 미쳤나? 얼어죽을 연찬회야! 보건의료노조 파업이야 미친 지	추경호 미쳤나? 얼어죽을 연찬회야! 보건의료노조 파업이야 미친 지금 정신있냐? 취소해라	한동훈	삭제
675	2024-08-27 17:49	200명 증원한다 했어도 온 나라가 들썩 했을텐데...어디서 느닷없이 2000이라는 숫자를 들먹였을까? 누구 머리에서 나온 숫자일까? 진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통해 대통령실에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 좀전에 한겨레 단독 기사였죠 도대체 총리가 공식라인이 아니면 김건희비선이 공식라인입니까 용산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한동훈	삭제
676	2024-08-27 17:52	나는 요즘 내가 과연 민주 공화국에 살고 있는 지가 진심 의문이 든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개인적, 종교적 독단 때문에 정책이 결정되고, 그가 고집을 피우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모습에서 내가 과연 왕정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독재 국가에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 지경	나는 요즘 내가 과연 민주 공화국에 살고 있는 지가 진심 의문이 든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개인적, 종교적 독단 때문에 정책이 결정되고, 그가 고집을 피우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모습에서 내가 과연 왕정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독재 국가에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	한동훈	삭제
677	2024-08-27 17:53	민생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민생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22대 국회가 열린 지 두 달이 훌쩍 넘었지만, 지금껏 다람쥐 쳇바퀴 도는 '무한정쟁' 속에서 산적한 민생현안은 하염없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시는 모습을 실천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금투세 폐지와 같은 민생을 위한 토론을 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정쟁법안은 멈추고 여야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부터 처리에 속도를	최영옥	
678	2024-08-27 18:26	한사람 때문에 아픈사람들이 치료도 못하고 죽어나가는 현실이.	윤석열 한사람 때문에 아픈사람들이 치료도 못하고 죽어나가는 현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사람이 자기 고집으로만 세상을 지배하는 꼴을 언제까지 봐야하는지 안타깝네요	한동훈	삭제

679	2024-08-28 15:04	작작들 해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름 걸고 인터뷰해라 뒤에서 숨어 가지고 헛소리들 하지말고. .	도대체 왜 그러시나요.윤통님....당신의 지지자였는데...대실망입니다...한대표 민심을 전하지 않습니까...병원예약 11시해놓았는데요.3시간을 기다립니다.의사한분이 환자를 다 봐야하니까요..그리고 바쁜데 의사샘들도 정성을 다 할수있겠습니까...정말 답답하시네요..거기 앉으면 국민과 소통이 안되나요!!!!!!	한동훈	삭제
680	2024-08-28 16:36	용산은 국민 건강은 개똥으로 아나 보네요	개답답. 국민이 원한건 증원을 합리적으로 하자는거지 무뜬금 2천명 던지고 전공의 10000 명 사직에 전문의 다 그만두고 지방대학병원 도산위기 이런거 까지 해가면서 증원하란게 아니다 여론 호도하지 마라 그리고 필수의료가 만명 늘리면 늘어나냐? 피부시장이 얼마나 큰데 피부과만 만개 더생기지. 그리고 어차피 올해 의사 배출 없네? 국민건강	한동훈	삭제
681	2024-08-28 16:55	국민생명 버리는 대통령 될겁니까 지금 암수술도 이식수술도 작년보다 세배 기다려야합니다 그동안 죽으면 책임 질거에요?? 본인들은 주	못이기는척 유예해라....자신은 해당사항없다고 응급실 뺑뺑이에 죽어나가는 국민들 외면하면 그게 할짓인가...김종인도 19번 뺑뺑이 돌았단다....자신은 의료진이 항시 대기중이니 괜찮다는건가..애타는 환우가족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오기불여서 관철시키면 이긴건가....그러 승리가 뭔 소용있나...	한동훈	삭제
682	2024-08-29 13:53	추경호 사퇴해라 국민 건강 생명이 우스워? “한 대표의 절충안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당 지도부 전체의 의견”이라며 “의1사 출신인 인요한 최고위원이 여러 의료현장의 얘기	추경호 사퇴해라 국민 건강 생명이 우스워? “한 대표의 절충안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당 지도부 전체의 의견”이라며 “의1사 출신인 인요한 최고위원이 여러 의료현장의 얘기를 듣고 의견을 종합해 내린 결론”	한동훈	삭제
683	2024-08-29 13:57	추경호 사퇴해라 국민 건강 생명이 우스워?	“한 대표의 절충안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당 지도부 전체의 의견”이라며 “의1사 출신인 인요한 최고위원이 여러 의료현장의 얘기를 듣고 의견을 종합해 내린 결론”	한동훈	삭제

684	2024-08-29 14:01	지긋지긋하다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 어떤 감정인지가 더 중요한거 아닌가???? 왜 국민들이 대통령 감정따위를 알아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가???	지긋지긋하다...국민들이 접하는 대통령실에 관한 기사들이 대통령 감정에 대한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니...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 어떤 감정인지가 더 중요한거 아닌가????	한동훈	삭제
685	2024-08-29 14:06	의대 증원은 국민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당사자(의료계)와 소통을 해서 점진적으로 하는 게 중	의대 증원은 국민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당사자(의료계)와 소통을 해서 점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이 딱 명령해서 '내년부터 증원해'라고 하니까 이 난리가 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	한동훈	삭제
686	2024-08-30 16:25	권성동 추경호 같은 간신배가 윤통 잘하십니다 하니 저렇게 루이 16세 같은 소리나 하고있는건지요	권성동 추경호 같은 간신배가 윤통 잘하십니다 하니 저렇게 루이 16세 같은 소리나 하고 있구만. 기분이 태도가 되어선 안된다는 한동훈 대표는 지금까지 용산에 감정적인 말과 행동을 한번도 한적이 없음.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대안을 내놓으면 되는데 매번 용	한동훈	삭제

687	2024-08-30 17:03	권성동 너같은게 가장 윤석열한테 도움도 안되고 너같은게 가장먼저 윤석열 등에 칼 꽂을 인간이야	대통령이 민심을 모르면 죽을 각오를 하고 옆에서 바른말을 하는게 충신이고 그게 바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길이야 한동훈은 오직 국민들과 국가가 바로잡히길 바라는거야 너 같은 간신배는 이해가 안가겠지 편한길두고 왜 대통령과 대립하는지? 한번이라도 국민	한동훈	삭제
688	2024-08-30 17:07	새로 늘린 시설이 서재도 아니고, 운동실이나 온실도 아니고 하필 사우나실과 드레스룸이라는 데는 그만 억장이 무너진다.	한남동 관저에 사우나실과 드레스룸이 증축됐다고 한다. 국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8월 관저 리모델링 때 2층에 14평 증축한 기록은 있는데 증축 내역이 없다”고 질문하면서 불거진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새로 늘린 시설이 서재도 아니고, 운동실이나 온실도 아니고 하필 사우나실과 드레스룸이라는 데는 그만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구중궁궐에 살기에 윤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참 많았다”며 체코 원전 수주부터 수출실적까지 성과부터 줄줄이 늘어놓았다. “IMF는 우리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이는 미국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도 자랑했다. 한국은행이 22일 2.4%로 낮	한동훈	삭제
689	2024-08-31 23:29	국민들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신경써주는 분은 한동훈 대표뿐이다	친윤들권성동이철규조정훈이런자들이간신배다국힘망치고있다63프로지지받은당대표에게하는짓거리는해당행위다권성동너는잘해서체리따봉받았냐	한동훈	삭제
690	2024-09-01 1:55	한대표 의료 총선때부터 문제 제기했다. 최대한 용산 존중하고 스스로 결정내리도록 권위 올려주고 끙끙 앓았다	윤대통은 불통 격노만 하지말고 좀 유연하게 가라 의사부족한건 알겠는데 2000명 딱 잘라 말하고 아무 대책도 없이 뭐하냐 암환자 들은 한시간이 급한데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 응급실도 심각하고 거기다 격노했다고 아래 부하 시켜 갈등공작질 얼마나 국민눈에 한심하고 한가하게 보이는줄 아니? 추경호 너 말이야 너	한동훈	삭제
691	2024-09-01 12:54	국힘의원들은 한대표 중심으로 뭉쳐라 눈뜨고 못봐주겠다 뭐하는 짓이냐 민심에 이반하면 너넨 궤멸이야	윤은 한동훈말 들어서 물꼬좀 터야지 지금 큰일남. 국이 죽어 나가든 말든 윤의 고집은 아무도 꺾지 못한다는 오만함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발생할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대책은 잘 되어 있는지, 교육 환경이나 시설은 문제가 없는지 등 살펴야 할 것이 수두룩 했을 것이다. 2000이라고 딱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외국도 부러워하던 우리 의료시스템이 이미 붕괴시작인데도 고집만 피우는구나. 얼마나	한동훈	삭제
692	2024-09-01 23:54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들 편에서 목소리를 내주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한동	지구당 부활하고 중국인 투표권 박탈 거의 합의 한거라면서요 잘됐다	한동훈	삭제
693	2024-09-05 14:38	간이식환자 수술 미뤄져 10명 사망했는데 지인 수술 문자 공개되게 하다니 인요한 최고위 사퇴하세요	뭐하는짓이냐	한동훈	삭제

694	2024-09-06 19:26	한동훈 깃발론" 조명•••반대 무릅쓰고 1주일만에 의정 갈등 실마리 제공	韓 중재안 공식화한 대통령실 "증원 제로베이스 논의" 韓 호소 하루 만에 대통령실 변화…韓측 "상당한 의미" 韓 깃발 아래 정치권 의기투합…與野 모두 '긍정' 기류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의료계의 테이블 견인이 관건	한동훈	삭제
695	2024-09-06 19:33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6년 의대증원 원점재검토 논의 가능 의사를 밝히며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이라 답하였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6년 의대증원 원점재검토 논의 가능 의사를 밝히며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이라 답하였습니다. 이제 야당과 의사 선생님들이 답해줄 차례입니다. 이대로 끝없이 갈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불안해 합니다. 한 테이블에 앉아. 오직 국민을 생각하며 논의합시다. 논쟁과 토론을 피하지 않는 것. 갈등을 피하지 않는 것이 정치이고. 통치라 생각합니다. 박민수 차관도 아무리 비난받는게 두렵고 사진 찍히는 것이 두려웠어도 어제 왔어야 합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열리면 주무 책임자로서 어제처럼 마냥 피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있는 보수 정부이고. 보수 정당입니다. 피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동훈	삭제
696	2024-09-08 3:18	대통령실은 의료계와 갈등해소를 위한 지혜를 내놓기는 커녕, 압박만 하고자빠졌으니, 답답하고 분노가	정부도 겁은 나는가부다. 이쯤해서 멈추고픈데 스스로 인정하고 멈출라니 가오떨어지니 자꾸 의료계한테 멈추게 해달라네.	한동훈	삭제
697	2024-09-08 3:21	'응급실 뺑뺑이' 겪었던 김종인…복지차관 향해 "몰상식" 직격	김 전 비대위원장은 최근 새벽에 낙상으로 이마에 크게 부상을 입어 응급실 22곳에 전화를 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경험담에 대해 "22번의 전화를 했다는 것은 내가 전화한 게 아니고 소방대원이 전화한 것"이라며 "내가 (구급)차 속에서 1시간 반을 있었다. 그런데 복지부 차관은 응급실에 이상이 없다는 억지 이야기를 하느라고 '전화하고서 응급실에 전화하고 가는 사람은 응급환자가 아니다'라는 것 아니냐"라고 일갈했다. 이어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자기 스스로가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응급실에 가는 것"이라며 "그 사람이 (응급실에) 전화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이 응급실 전화번호를 알 수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삭제
698	2024-09-08 3:24	응급의학과 출신도 "못하겠다" …파견 군의관 15명 중줄이 복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89692?sid=103	한동훈	삭제

699	2024-09-08 3:50	응급실 대란, 추석이 두렵다	의료 공백 사태가 6개월을 넘기면서 응급 진료 체계에 긴박한 응급 신호가 켜졌다. 2024년 8월4일 두 살배기 아기가 11차례 '응급실 뺑뺑이' 끝에 의식불명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막연하던 불안감은 구체적인 공포로 악화했다. 추석(9월17일) 연휴를 기점으로 응급 진료 체계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9월2일 방송에 출연해 "응급실을 셧다운(휴진)하는 병원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해 차츰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석 연휴에는 평소보다 1.5~2배 많은 환자가 응급실에 온다"며 "올해는 아프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언론들은 대형 병원 응급실이 전문의 1명만으로 버티는 벼랑 끝 실태를	한동훈	삭제
700	2024-09-08 20:08	[사설] 대통령이 직접 '의료대란' 사과하고, 협상의지 밝히라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타협안을 먼저 내놓기보다 발언의 뉘앙스만 질금 조절해 가면서 '간보기'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환자들이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는 응급실 대란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너무 한가하고 안이한 태도 아닌가. 정부가 진정으로 사태 해결을 바란다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간의 혼선을 사과하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힘을 실어야 한다. 안이한 인식과	한동훈	삭제
701	2024-09-09 17:30	한동훈 대표 국민생명권 위해 주말에도 의료관련 회의 ㅠ	한대표는 일요일 의료관련 회의하고 국민 생명권 보호하려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고 오늘은 추석선물 장차관 국개들 높으신 분들 나리께 보낼 선물값 5천만원 기부했는데. 헌법상 국민 생명권 보호 책임이 분은 왕따놀이하면서 만찬 술잔치라니 참.. 헌법수호의지가 없어보입니다 큰일입니다	한동훈	삭제
702	2024-09-09 17:35	동훈 대표만이 국민 건강 위해 이리뛰고 저리뛰고	국민 생명권이 걸려있는데 의료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여당대표 패스하고 편한 사람만 불러서 술파티.. ㅠㅠㅠ 헌법수호의지가 있는걸까 지금 응급실 못가서 의식불명인 2세 아기가 눈에 아른거리지도 않을까?	한동훈	삭제
703	2024-09-09 18:34	훈 대표는 국민과 편하게 식사하세요 국민만 보고 가세요	친윤이 나라 망칩니다. 봐주지 마시길	한동훈	삭제

704	2024-09-09 18:53	대표와 친한계 최고위패싱한 대통령 만찬? ㅋㅋㅋㅋㅋㅋ	대통령 공관에서 한대표와 소위 친한계 의원들만 빼고 만찬을 했다는데 .. 왜 이러실까?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포기 하는것일까? 지금 국민의 마음을 진짜 모르는걸까요?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네요. 저쪽당은 똘똘 뭉치고 있는데 뭉쳐도 모자랄	한동훈	삭제
705	2024-09-09 21:31	만찬이 금지어에요? 비속어나 멸칭은 몰라도	좀 이상하네요	한동훈	삭제
706	2024-09-09 22:09	정말 실망입니다 바른말 옳은말 하면 귀에 거슬리고 눈에도 거슬리겠죠 한대표는 의료정상화때문에 회의하고 있는데 편가르기하는건 도	정말 실망입니다 바른말 옳은말 하면 귀에 거슬리고 눈에도 거슬리겠죠 한대표는 의료정상화때문에 회의하고 있는데 편가르기하는건 도저히 납득불가에요.	한동훈	삭제

707	2024-09-10 0:35	허위사실유포,인신공격,비하,성희롱 등등 모두 채증해주세요. ^^	한대표에 대해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대형로펌 고용해서 전관포함 증거전문팀(포렌식팀) 붙여 제3자 고발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허위사실유포,인신공격,비하,성희롱 등등 모두 채증(링크포함 피뎁저장)해주세요 여기로 오세요 제3자고발진행카페 https://cafe.naver.com/kongbab4 주소 콩밥4 채증은 여기로 보내세요 gobalmeil4@gmail.com 현재 가장 실명정보 쉽게 가능한곳이 국힘 당게입니다. 증거팀	한동훈	삭제
708	2024-09-10 16:31	세계가 부러워 했던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 다 망가졌네요 제발 대국민 사과하고 바로잡으세요 이미 늦었지만	대학병원 + 대학병원 전문의/교수/전공의 가 살리는 의료의 중추인데 답답합니다	한동훈	삭제
709	2024-09-10 17:59	다급한 윤 대통령 "의료계 잘 설득해야 한다"	이런기사 보는거 참 괴롭네요 왜이리 고집 부리셨나요	한동훈	삭제
710	2024-09-10 18:05	1일3회 제한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의견이 필요하지 한사람 도배를 볼 필요 없죠	글 3분마다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150개 쓰는것도 봤어요 죄다 한동훈대표 비하 조롱글이었죠 ㅎㅎ 배** 지**	한동훈	삭제
711	2024-09-10 18:17	(1일3회제한잘했어요) '김재원 갔나 안갔나' 설왕설래…대통령 만찬이 뭐길래 이 기사 뭡니까 진짜 부끄럽네요	대통령이 몰래 누군 빼고 누군 안빼고 부르는것도 이상하고 무려 대통령이 번개로 쓱 만나는것도 이상합니다 당원들 전전촉 한 힘들게 하십네요	한동훈	삭제
712	2024-09-10 18:26	[단독] 전공의 떠난 6개월 사망률 높아졌다 . 격자해지 부탁드립니다	국민 불안합니다 이 사태에 책임있는 조규홍 박민수 사퇴하시고 결자해지 부탁드립니다	최영옥	
713	2024-09-10 18:35	김재원님 박의원 말에 반박을 못하네요 정치인은 거짓말 안됩니다.	그냥 투명하게 밝혀주세요 국민 안그래도 힘듭니다.	최영옥	
714	2024-09-10 18:49		한동훈이 한달간 한일: 8/19 개혁드라이브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신설 (교육,문화,지역,자산등 다양한분야 격차문제해소를 위한) •여의도 연구원,국힘사무처 ,(해외유명컨설팅을 통한 조직진단의뢰를 통한 당 재정비및 조직체계 개편) •한동훈 "난임 시술중간에도 지자체 지원 확대추진"(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지자체 지원(50%)별개로 건보처럼 횟수제한 없는 지원까지 확대) 티메프 사태 당정협의를 통한 발빠른 지원 ,총포및도검 , 간첩법 개정및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국장원법 개정안 당론채택, 금투세 폐지 이슈 주도 해서 여론 역전	허수옥	

715	2024-09-10 18:52	한동훈 대표님 화이팅하세요 민심이기는 권력 없습니다 민심을 보고 가시는길 좋습니다	정치가 안개속인건 괜찮은데 국민의 건강이 위험하네요	최영옥	
716	2024-09-10 19:02		어느정도 물꼬를 텄으니 이제 대통령과 복지부 제대로 돌려놔야하겠죠 국민이 죽어가도 나는 소명 달성의 길을 희생을 감수하고 뚜벅뚜벅 걸어간다는 무서운 대통령을 이고지고 가는 여당대표의 길은 역사상 그 어느 여당대표보다 힘들고 거의 불가능한 길입니다. 젊고 합리적인 세대로 세대교체를 위한 마지막 저항인 것도 있으니 그역시 한대표의 운명같	허수옥	
717	2024-09-10 19:06		대통령은 국민전체 대표이자 국민에게 권한을 부여받은거지 권력 누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당원의 걱정하고 듣이되는 쓴소리도 못듣으시면 어떻합니까	허수옥	
718	2024-09-10 19:08	한동훈 대표 60중반 강한 당원 지지 받고 있습니다. 힘 실어주세요.	당원 갈라치기 하지 마시길요	한지윤	
719	2024-09-10 19:27	한동훈 제안 긍정적이라는데 국힘도 정신차리고 일단 테이블에 나오게 좀 하세요	수술환자가 수술 못받고 있어요 진짜 사람이 더 죽어야 정신차릴겁니까	한지윤	
720	2024-09-10 19:30		지금 의료관계자들 약간 긍정적인데 고집그만 부리시고 이제 논의좀 하세요 돈만 뿌리지 말고	허수옥	
721	2024-09-10 19:37	암수술 환자 친구 항암 또 미뤄졌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어떻게든 테이블에 나와야 뭐든 물꼬를 틀거 아닙니까 복지부 고집좀 그만	한지윤	
722	2024-09-10 19:54	국민 절반이상 의료 붕괴사태 관련 한동훈 안에 찬성	국민 절반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필요" 한동훈 안에 찬성 전권 주시고 귀 좀 열어주세요 대통령실과 복지부 국민 다 죽일 생각아니면	진은정	삭제
723	2024-09-10 20:09	한동훈대표님 진짜 지금 엄청 고생하면서 중간에서 고군분투 하고있다고	사람 엄청 만나고 조언 듣고 의료 말고도 현안이 한두개가 아니니까요 힘내십시요	진은정	삭제
724	2024-09-10 21:53	김건희특검법 필리버스터 한다는게 사실인가요 추경호???????? 지금 진짜 국힘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싶습니까	지금 진짜 국힘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싶습니까	진은정	삭제
725	2024-09-11 6:00	국민걱정은 한대표뿐이구나.	한대표가 의대정원 2000명 처음부터 반대해서 비대위시절 사퇴요구 받았고 3번이나 배수의진 쳤는데 2천명 고집 담화 강행.. 그 후에도 물밑으로 계속 요구했다고 함 요지부동하다가 이제야 용산 합리적 과학적 안 가져오란 용산.. 아니 2천명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은데 무슨소리냐. 의료계 황당한건 이해가 가나 일단 싸워도 테이블 위에서 싸우자 그럼 국민이 다 볼것임 단 용산 정부는 의사는 단일협의체같은거 없고 지금 그냥 각자	진은정	삭제

726	2024-09-11 6:01	여당당대표는 24년 최대의 극한직업인듯. 대다수의 과반 넘는 당원이 뒤에있으니 정도를 걸으시길	여당당대표는 24년 최대의 극한직업이죠 지자체장 이나 뱃지 달고 국회의원 1이면 배두드려 이미지 챙기며 웰빙만 해도 되는 상황... 민생이슈를 주도적으로 선점해가며, 오직 국민의 삶을 위해 고뇌하고 여태껏 흔하디흔한 정치인들의 행보와 다른 길을 묵묵히 걸어	한지윤	
727	2024-09-11 6:04		대통령이 변하지않는 한 정권재창출은 물 건너 간다.가던 길을 막고 있는 바위는 치우고 가야 하는데 저절로 굴러서 없어질 때까지 기다림? 윤석열 대통령 의료문제 망치는거 보고 걱정된다. 게다가 마음은 정말 작고 잘 삐지고..그러니 국민들이등을 돌리지.. ㅠㅠㅠㅠㅠㅠㅠㅠㅠ 자고로 리더는 포용력과 도덕성이 으뜸이다 많은 우파가 한동훈에게는 기	허수옥	
728	2024-09-11 6:17	윤대통령 보수대부분이 등돌리고 15%도 안남는 상황임 추경호씨 당신같은 사람이 바로 간신임 정신차리시오	추경호는 갑자기 튀어나와 비합리적인 논리로 용산 쉴드만 쳐대는데 당원들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보수 궤멸시키는데 동참하실일있어요? 윤김수호대 보다 국민수호 생각하고 정신 좀 차리세요 대통령이 잘못된 아집을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하면 그걸 지적해야 하는겁니다 그게 국민	한동훈	삭제
729	2024-09-11 9:45	윤대통령님 총선후 34 유지하던 잘나오던 한길리서치 27로 폭락이에요 보수 다 끌어안고 뛰어내리실겁	제발 귀 열고 직언좀 들으세요!	한동훈	삭제
730	2024-09-11 12:23	尹대통령의 잦은 오판, 이유는 뭘까	盧 좋아한 尹, 스타일도 닮아가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 추진 늘 타이밍 못 맞춰 효과도 없어 의대 정원 고수하다가 급변침 플랜 B·C 없어 혼란만 가중	한동훈	삭제
731	2024-09-11 12:25		한동훈이 민생에서 이슈선점하고 주도하고 있고 금투세, 의료개혁, 한동훈이 응급실가니까 부랴부랴 이재명 대통령도 가고 참 국힘의원들 한심 한대표 중심으로 뭉치세요	허수옥	

732	2024-09-11 12:26	국민건강 생각하는 진심은 한대표뿐	아무도 독버섯이라 안만지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한동훈의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을텐데 총선때부터 그렇게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했고 이번에도 유예해달라고 했건만 고집부리고 추경호도 마찬가지고 국민 생명권을 완전 경시하는 태도다. 이제 사실 돌이킬수없다. 윤통이 결자해지 해야함	한지윤	
733	2024-09-11 12:27	한동훈 혼자만 애타고.. 의료사태로 치료 못해서 살릴 국민 못살리면 진짜 용산 어떤 파국 올지 모른다	걱정이다 진짜 국민의 생명 보호는 대통령의 헌법 의무임. 지금이라도 내각 총사퇴라도 해야지. 범죄을 검토를 우명 법에 쓰여 주어야 끝나는 상황 아니더냐 빨리 말아라 지금이라도	진은정	삭제
734	2024-09-11 12:30	그나마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한 것도 한동훈이고 의료계와 만나서 설득하는 것도 한동훈이 하고 있다 그런데 용산은 뒷짐만 지고 자존심만 내세우고 야당은 은근설쩍 숟가락 얹으려 하다가 의사가 몽니를 부리니 설쩍 발을 빼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사 야당은 적극적으로 협의회에 참여하고 병원을 떠난 의사들 제발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기	그나마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한 것도 한동훈이고 의료계와 만나서 설득하는 것도 한동훈이 하고 있다 그런데 용산은 뒷짐만 지고 자존심만 내세우고 야당은 은근설쩍 숟가락 얹으려 하다가 의사가 몽니를 부리니 설쩍 발을 빼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사 야당은 적극적으로 협의회에 참여하고 병원을 떠난 의사들 제발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한지윤	
735	2024-09-11 13:24	전략과 전술을 적절히 구사할 줄 알고, 타이밍 예술을 아는 정치 지도자가 바로 한동훈이다.	지금 거대 야당을 압박해서 1400만 명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금투세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재명 대표 재판 후의 정치 판세를 관망하면서 외연을 넓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치 경력은 짧아도 전략과 전술을 적절히 구사할 줄 알고, 타이밍 예술을 아는 정치 지도자가 바로 한동훈이다. 윤 대통령의 거센 저항을 뚫고 63% 압도적 지	진은정	삭제
736	2024-09-11 14:57	국민건강 생각하는 진심 한동훈대표 응원합니다	처음부터 한동훈의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을텐데 총선때부터 그렇게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했고 이번에도 유예해달라고 했건만 고집부리고 추경호도 마찬가지고 국민 생명권을 완전 경시하는 태도다. 이제 사실 돌이킬수없다 윤통이 결자해지 해야함. 의료개혁의 본질: 1. 서울 지방간 의료혜택 격차 문제 2. 특정 과목에 의료자원 쏠림과 기피 현상 3. 건강보험 수가의 합리적 수준 4. 인구소멸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 5. 정부와 대형 재벌병원의 의료민영화 추진 공모 6. 미래 의료교육과 의료발전의 문제 7. 적정한 수련의 및 의사수 등이 핵심임. 과학적 수요예측, 사회적합의, 의료교육 여건, 전문가협의, 정상적 행정절차 등에 의거한 의료개혁이라야 성공함. 모든 정부의 정책결정은 이해	최영옥	
737	2024-09-11 15:19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용산 눈치보구 머뭇거리지말고, 국민보고 일하는 한동훈 대표님 중심으로 민생 돌보기	국민을생각한다면사과보다더한것도해야지할줄아는것없이 갈라치기만하는건 국민을 배신하는겁니다	최영옥	
738	2024-09-11 16:13	제2부속실 언제 만드나요? 약속하셨는데 왜 계속 미루시는지	당원들이 기다립니다	최영옥	

739	2024-09-11 16:14		국민들 반응 모르시나요	허수옥	
740	2024-09-12 10:55	언행일치로 협의체 띄우고 바로 실행한게 한동훈임.	입만 살아 말로만 모든걸 하면서 아무것도 안하는 윤승민이나 안철수씨 좀 안타깝다 총선 전부터 뒤로 그렇게 직걸고 유연화하라고 해도 말 안들어먹은 윤고집. 총선전에 설마하던 역대급 참패를 당했는데도 민심을 외면하고 정신 못차리며 무대뽀로 의대증원 이천명을 밀어부치네. 총선 전에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설렁설렁 하면서 보냈지. 윤고집 김고집	한동훈	삭제
741	2024-09-12 10:56		한동훈 대표 지금 국민들 걱정에 이 난국 해결해보겠다고 밤낮으로 설득하고 중재하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른 시간에 협의체가 구성돼서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일인만큼 용산도 아집 그만 버리고 의료계도 테이블로 나와서 직접 요구하고	허수옥	
742	2024-09-12 10:57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한 것도 한동훈이고 의료계와 만나서 설득하는 것도 한동훈	그나마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한 것도 한동훈이고 의료계와 만나서 설득하는 것도 한동훈이 하고 있다 그런데 용산은 뒷짐만 지고 자존심만 내세우고 야당은 은근 숟가락 얹음 정부와 의사 야당은 적극적으로 협의회에 참여하고 병원을 떠난 의사들 제발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입만 살았지 아.무.것.도. 안하는 윤승민씨는 한동훈한테 훈	한지윤	
743	2024-09-12 10:59	한동훈은 이미 모든걸 내려놓고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한줌 권력을 움켜쥐고 몸사리는건 구태정치인들 아닌가 싶습니다. 이주호장관의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전략이 일단은 성공한 듯하네요. 즉, '수시'모집절차 완료되면 더이상 2000명 의대증원 철회를 요구할 수 없을거고, 대통령은 의대정원증원의 치적을 달성했다고 대국민 선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거죠. 이제부터는 여야의정협의체에 공을 넘겨버리고 자기는 추석 응급실위기 등 의료대란논란에서 빠져나갈려고 할겁니다.전공의/의대생들이 돌아오든 관심없고, 2026년도 의대정원에 관심 없을것이고, 여야의정협의체에 넘겨버릴 것입니다 . 하지만 '정시'모집중단이라는 요구에 부닿힐겁니다. 어떻	진은정	삭제
744	2024-09-12 11:00	의료붕괴란 응급환자가 응급 처치를 적절한 타이밍에 못 받는 걸 말한다. 몇년전부터 이게 잘 되지 않다가 이번 의료계 사태로 더욱 악화되었다. 현재 상태는 의료붕괴가 맞고 초입을 지나서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총리가 응급실에 반나절만 머물러서 사태를 지켜보	의료붕괴란 응급환자가 응급 처치를 적절한 타이밍에 못 받는 걸 말한다. 몇년전부터 이게 잘 되지 않다가 이번 의료계 사태로 더욱 악화되었다. 현재 상태는 의료붕괴가 맞고 초입을 지나서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총리가 응급실에 반나절만 머물러서 사태를 지켜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문제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 지금 국민은 반년이상 고통과 피해, 불안에 떨고 있다.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한동훈	삭제
745	2024-09-12 11:02	윤대통령님은 국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꼭 기억하시길	의협14개 단체중 참여하겠다고 한 2개부터 시작하자. 민주당은 숟가락 얹지 말고	한지윤	
746	2024-09-12 11:08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양상훈 칼럼] 尹 대통령 위해 金 여사만이 할 수 있는 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58133	최영옥	

747	2024-09-12 11:26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 지금 국민은 반년이상 고통과 피해, 불안에 떨고 있다	윤대통령 헌법상 책무를 우선시 해주세요	한동훈	삭제
748	2024-09-12 11:28	의료계도 동참해서 국민 볼모 의정 갈등 끝내야	문제는 결국 정부와 의료계가 풀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공의들이 이탈한 이후, 7개월 가까이 상황을 악화시킨 정부의 무책임은 비판받아야 한다. '2025학년도 문제까지 논의해 보자'는 정치권의 제안은 사실상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양보안을 다 꺼낸 것이다. 그런데도 '확답'을 받아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료계의 태도는 협상이 아닌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 양쪽 모두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식으로 맞서면 그 피해는 온전	최영옥	
749	2024-09-12 11:31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도록 대통령실은 할 수 있는 정책적 묘수를 모두 짜내길 바랍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의대 증원 정책의 여파가 입시, 의대 교육, 응급의료 등에서 또 다른 문제를 파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그때마다 주먹구구식 임기응변입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겠다면서 갑자기 의대 수시 원서접수 현황을 공개해 혼란을 부추기는가 하면, 의료 대란이 우려되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진찰료를 3.5배 인상한다고 합니다. 비정상이 또 다른 비정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문제는 더욱 꼬여가기만 할 것입니다 이미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축났고, 이대로 가다가는 응급·중증 필수의료 붕괴에 2026학년도 입시마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악순환을 끝낼 수 있는 건 한대표의 제안인 사회적 대화밖에 없습니다 분열된 의료계는 통일된 대표단을 꾸리고, 대통령이 대화 출구	한지윤	

750	2024-09-12 11:53	尹 대통령 위해 金 여사만이 할 수 있는 일	한 대표가 실패하면 윤 대통령에게 좋은 일인가. 대통령 주변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유아적 단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두 사람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국정 동력을 축적하고 흩어진 여당의 정치적 기반을 재구축할 수 있다. 누구보다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받을 대통령이 이런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직무유기라고 본다. 이제 두 달 뒤면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지난다. 가을 정기국회에 윤 대통령 퇴임 후 경호 시설 예산이 올라갔다. 하산 길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처럼 오랫동안 고락을 함께해온 정치 동지 세력이 없는 경우 하산 길 주위에 갑자기 인적이 드물어질 수 있다. 지금 그나마 남아 있는 정치적 동력도 어느 날 주먹 안의 모래처럼 빠져나갈지 모른다. 그때는 지금 나라와 사회 안에 잠재돼 있는 여러 악재들이 터져나올 수 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된 소수파 대통령으로서 남은 절반 임기의 국정을 안정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숙고했으면 한다. 이제는 갈등과 싸움보다는 타협이 더 필요하고, 특히 범여권 내부의 정치적 관계 정상화가 절실하다. 인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라도 관계를 회복한다면 여권 내부, 나아가 국민에게 주는 상징적 의미가 클 것이다. [조선일보] 한 대표가 실패하면 윤 대통령에게 좋은 일인가. 대통령 주변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유아적 단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두 사람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국정 동력을 축적하고 흩어진 여당의 정치	진은정	삭제
751	2024-09-12 12:03	[단독] 전공의 떠난 6개월 사망률 높아졌다...결자해지 부탁드립니다	국민 불안합니다	최영옥	
752	2024-09-12 14:20		참여하시는 의료진 분들 감사합니다 주변 전공의분들도 대통령에 대해 정말 화가 나있고 절망하지만 그래도 복귀는 하려는 분들이 좀 있어요 다만 대통령이나 복지부와는 절대 뭐든 할수없다 하더라구요 중재 잘 하셨네요 26년 정원포함 수가 포함 백지에서 시작하시고 전문가 의견 들어서 하세요 복지부 경제학과 출신이 의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압니	허수옥	

753	2024-09-12 14:30	김건희 여사의 어색한 잇단 현장 행보, 국민 정서 모르나[문화]	역대 대통령 부인 중 김건희 여사만큼 정국 갈등의 핵심 뇌관이 된 경우는 없었다. 대선 때는 '허위 학·경력''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란으로 이슈의 중심에 섰다가, 취임 이후에도 명품 가방 수수 사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문자 논란, 인사 및 공천 개입설 등으로 곤욕을 당했다. 지금도 야당은 특검법 등 정치 공세를 강화한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와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데 이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내놓자마자 적극적 활동에 나섰다. 대국민 사과,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의 행보라 더 부자연스럽다. 지난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김 여사는 취재기자 없이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방문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실 사진사가 찍은 사진 18장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실렸다. 김 여사는 "앞으로도 문제를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면서 "한강대교 사례처럼 구조물 설치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 등 구체적 지시도 했다고 한다. 무혐의·불기소가 곧 결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면죄부는 더더욱 아니다. 오죽하면 '김건희 방지법' 요구까지 설득력을 얻겠는가. 이원석 검찰총장도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 형사처벌 대상이나 범죄 혐의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	진은정	삭제
754	2024-09-12 21:05		한대표는 총선전부터 증원을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유연화 해서 진행하자고 하다가 사퇴 요구 받았고, 의대교수들 의협이 2023년 10월에 이미 350명 먼저 제안함. 그걸 다 거부하고 무식하게 이천공 밀어붙인게 대통령실임. 한총리님 합리적인 분인데 왜 저기서 저렇게 되신건지 이해 안가네 의료계도 0명하자는게 아닌데 그리고 어차피 2조 쓴담서요 그	허수옥	
755	2024-09-13 13:57	오늘 국민의힘과 대표님, 이미 부자인 국회의원 장차관에게 선물대신 기부, 봉사 너무 잘하셨습니다	엄혹한 상황에 그나마 마음이 따듯해집니다	한동훈	삭제

756	2024-09-13 13:58	한동훈 "국민 생명·건강만 생각해 여야의정협의체에 모여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자신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출범과 관련해 "전제 조건과 의제 제한 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만 생각하고 빨리 모이자는 호소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관악구 상록지역아동복지종합타운에서 도시락 봉사활동을 마친 다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한 질문에 "의제는 국민 건강과 생명뿐이고 전제 조건과 의제 제한은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정부도 의제를 자신들이 제한하겠다는 건 아니다.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제 말을 들으시면 된다"며 "제가 의료계 주요 단체 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여러 고민이 있겠지만 결정을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계속 설득할 것이고 좋은 결정을 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는 출발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출범 시한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 자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에 별	진은정	삭제

757	2024-09-13 14:00		한국갤럽, “잘 못한다” 3%P 오른 70% ‘최고치’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 긍정 평가 8%P 급락 여당 지지율도 28%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최악 아무리 여론에 둔감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지금쯤 눈치챘을 것이다. 자신이 망토를 두르지 않았음을. 그러나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다. 주변을 둘러봐도 망토는커녕 나뭇잎 한 장 찾을 수 없다. 바닥으로 추락한 지지율, 느슨해진 국정 장악력을 회복할 길은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창피함과 당황스러움을 감내하기보다 손바닥으로 자신의 눈을 가렸다. 정신승리를 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를 개혁 완성을 위해 험한 길도 마다 않는 지도자로 포장한 듯하다. 윤 대통령이 틈날 때마다 “사회 내부에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나라를 지키자”고 주장하는 것이 정신승리의 징후다. 최근엔 ‘반대한민국세력’이라는 알쏭달쏭한 말까지 등장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이나 반대한민국세력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이나 세력들을 지칭한 것일 터다. 짐작건대 온갖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맞서 묵묵히 국정수행을 하는 자신을 불순한 세력들이 흔들고 있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일 것이다. ‘숭고한 지도자’ 서사를 완성하려면, 반대편은 반국가세력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나. 그러나 이런 발상은 어처구니없고 허황되다. 자신에 맞서면 반국가세력이라 함은 ‘짐은 곧 국가다’라는 사고와 무엇이 다른가. 손바닥에 그려진 ‘왕’자를 봤을 때 알아봤어야 했다. 윤 대통령은 각종 카르텔들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지금의 반국가세력은 대통령이 지목했던 카르텔들이 똘똘 뭉쳐 덩어리를 키운 것인가.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이 누구냐는	허수옥	
758	2024-09-13 18:10	제2부속실 설치 왜 안하십니까 민정수석실은 하룻에 만드시던데	이러니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ㅠ	진은정	삭제
759	2024-09-13 18:11		추경호 간신배 사퇴하세요	허수옥	
760	2024-09-13 22:47	대표님 정책에 힘실어드립니다 지지합니다	추석연휴 깁니다 응급실 경증 이용할 때 90% 자비로 내야한다고 하네요 우리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 부모님 아이들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이렇게 안달난건 한동훈과 국민들뿐 고집꺾지 않는 용산과 이기적인 의사단체 꽃놀이패에 불구	한지윤	

761	2024-09-13 22:48		지금 의료상황 시한폭탄같은데 오늘도 정부는 천하태평이더라 본인들이 저지른 일이라 인정하고 싶지 않은지 정부가 관리 가능하다고만 앵무새 답변만 한다ㅋ 의사들이 다 떠났는데도 굴러가는 체계면 의대증원이 왜 필요하며 급하지도 않는 응급 상황에 수조원 꽂아넣는 짓은 왜 할까? 세금이 남아돌아서?? 국민들과 한동훈만 속이 타는 것 같다 한동훈이 이리뛰고 저리 뛰어서 판 깔아놓으면 그게 한동훈 공이 될까봐 엎질러버리는 정부 행태에 욕이 아까울 지경이다 정신차리란 말도 허공에 메아리다 답도 없다 남은 3년이 무섭다	허수옥	
762	2024-09-13 22:49	윤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역대 최저치…10%대 추락 위기	안데르센 동화의 벌거벗은 임금님. 짐은 곧 국가 루이14세의 하이브리드	한동훈	삭제
763	2024-09-13 22:49	'70대 이상' 윤 지지율 23%p 곤두박질…지지층 흔든 응급의료 위기	60대와 70대 이상 지지층을 이반시킨 계기는 많았다. 지난달 22일에는 84살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상을 입은 뒤 응급실 22곳에서 거절 당한 '응급실 뺑뺑이'가 큰 화제가 됐다. 닷새 뒤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버지가 '응급실 뺑뺑이'로 제때 진료 받지 못했고, 이후 숨진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26일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을 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하며 당정 충돌로 비화했다. 60대와 70대 이상 지지율이 하향·급감하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린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은 최근 국회 등에서 "의료붕괴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	진은정	삭제
764	2024-09-13 22:52	국민 경고 외면하면 민심 이반 더 커진다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 다섯달이 지나도록 국정 기조와 행태에서 아무런 변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자영업자 폐업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윤 대통령은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고 말한다. 극심해진 '응급실 뺑뺑이'에 불안해하는 국민 앞에 "비상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 가봐라"는 말을 한다. 제대로 된 근거도 내놓지 않은 채 일단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밀어붙여 놓고선, 실질적 대책 마련엔 손을 놓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이, 떠들썩하니 마치 '통치하듯' 공개 행보를 재개했다. 지금대로라면 추석 뒤 민심 추이는 더욱 낙관하기 어렵다. 많은 국민이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를 내는 근 한이한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제발 지금이 심각한 위기라는 것	한지윤	
765	2024-09-13 22:53	윤 대통령 "반개혁 저항 계속돼…4대 개혁 멈추지 않을 것"ㅋㅋㅋㅋㅋㅋ	무식한 사람의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한동훈	삭제

766	2024-09-13 22:56	'70대 이상' 윤 지지율 23%p 곤두박질…	60대와 70대 이상 지지층을 이반시킨 계기는 많았다. 지난달 22일에는 84살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상을 입은 뒤 응급실 22곳에서 거절 당한 '응급실 뺑뺑이'가 큰 화제가 됐다. 닷새 뒤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버지가 '응급실 뺑뺑이'로 제때 진료 받지 못했고, 이후 숨진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26일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을 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하며 당정 충돌로 비화했	한지윤	
767	2024-09-13 22:58	한동훈대표님 힘내세요 당원들과 보수지지층이 응원합니다	.	최영옥	
768	2024-09-14 0:40	한 대표 호소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꽤 많다. 국민생각은 한동훈 혼자 하네	그럼 나서서 편을 좀 들어라 국힘 의원들 한심 rr	한동훈	삭제

769	2024-09-14 0:42	[사설]전 과정이 특혜, 비리, 조작, 불법으로 진행된 '용산 이전'	국가 최고 보안 시설인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주도한 사업자는 영세 인테리어 업체였다. 이 업체는 무자격 업자들에 하도급을 주었고, 정부는 준공 검사 서류를 조작했다. 경호처 간부와 유착된 브로커는 방탄 창호 공사비를 빼돌렸다.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받은 지 1년 9개월 만에야 내놓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 감사 결과는 계약, 시공, 준공 전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온갖 불법 비위 행위들이 저질러졌음을 보여준다. 대통령 관저 공사 복마전의 시작은 증축과 구조보강 공사를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만 할 수 있는 업체 '21그램'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것이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후원사다. 보안상 수의계약이 불법은 아니라지만 2021년 영업이익이 1억 5000만 원에 불과한 영세 업체가 관련 면허도 없이 수십억 원짜리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낸 것은 김 여사와의 친분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이 업체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무면허 문제가 제기된 후 공사를 대신해줄 제주의 종합건설사를 직접 섭외하고 18개 하도급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중 15개 업체가 무자격 업체였다. 시공과 준공 과정도 불법과 의혹투성이다. 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공사가 시작됐고, 설계도를 보고 공사하는 게 아니라 공사가 끝나면 이에 맞춰 도면을 그리는 식이었다고 한다. 정부는 주먹구구식 시공 과정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고, 준공 검사는 하지도 않고 관련 서류에 서명만 했다. 대통령 안전을 책임진 경호처 간부는 알고 지내던 브로커가 대통령실과 관저의 방탄 창호 공사비 20억 원 중 15억 원을 빼돌리는데도 눈감아 줬다. 공직 기강이 시퍼렇게 살아 있어야 할 정권 초기에 벌어진 일이다. 감사원은 "절차적 문제는 있었지만 계약 자체는 적법했고 특혜는 없었다"며 경호처 간부만 수사 의뢰하고 관련 부서엔 '주의'를, 이전 공사를 담당한 대통령실 비서관에겐 인사 자료에 기록을 남기는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시설 공사'	진은정	삭제
770	2024-09-14 0:56	한동훈대표 말대로 세비 줄이세요 국회의원에게 나가는돈 아깝다	민생은 안챙기고 정쟁만 일삼는 국의원넘들에게 명절 휴가비로 425만원 준다는게 말이 되는가? 따라서 국회의원 연봉을 국민 평균으로 맞추고 명절 휴가비 지급 중단과 아울러 국회의원 수도 감축해야 합니다	한지윤	

771	2024-09-14 9:00	국민 생명 걱정은 한동훈대표 뿐이구나	국민 우려가 가장 큰 의료갈등의 경우 7개월을 넘기면서 정부의 관리능력에 의심을 품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무려 국민 80%가 아파도 진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뺑뺑이 응급실 문제에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해 여당마저 '책임질 수 있냐'는 불신을 드러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지지율이 바닥인데도, 이를 신경 쓰지 않는 윤 대통령의 행보다. 광복절 때 "반국가세력 항전"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최근 "반대한민국 세력"을 언급했다. 공천개입 의혹마저 불거진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수수에 대해 국민에게 해명, 사과 한마디 없이 단독·공개활동을 재개했다. 심지어 마포대교 현장에서 자살예방 조치 등을 공무원들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공직자 배우자로서 부적절한 모습까지 거침없이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5개월이 넘도록 민심에 구애받지 않고 '마이웨이'를 고수한다면 국민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진은정	삭제
772	2024-09-14 9:12		추경호씨 당신이 안죽어도 되는사람 죽은거 책임 질겁니까? 한대표는 어떻게든 문제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데 혼자 용산 방패 하고 있음?? 제발 원내 사퇴하세요 매번 초만치고 당원들 당심때문에 더 부글부글 하는겁니다	허수옥	
773	2024-09-14 9:16	몇십명 모이는 모임 갔는데 다 보수지지자인데 몽땅 다 윤석열 싫다고 다 돌아섬. 그나마 한동훈 있어서 지켜본다함. 진짜 국힘 뽀개러 왔습니까??	손목 분지르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10대부터 60까지 10% 7080대이상 50프로로 겨우버티는거지 이정도면 사회생활 하는 일반인들 다 윤대통령 김	한동훈	삭제
774	2024-09-14 16:30		추경호 사퇴하고요 지금 당을 망치는건 당신입니다	허수옥	
775	2024-09-14 16:31	추경호 원내 사퇴해라. 정도를 걷는 당대표 발목붙들고 용산 나팔수나 하는 인간은 당원에게 버림받는다	어차피 국회의원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절대 더 해먹을 생각 말아라	한동훈	삭제
776	2024-09-14 16:33	[사설] 김건희 여사 마포대교 방문이 '통치자'처럼 보이는 이유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여사가 마포대교를 찾아서 자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하는 것은 좋다"면서도 "그런데 왜 제복 입은 경찰을 세워 놓고 제안 같은 것을 하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복 입은 경찰을 대동한 것은 행정력의 근본적인 상징과도 같은 경찰력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권력을 움직이는 영부인이라는 이미지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진이 너무 권위적으로	한지윤	

777	2024-09-14 16:41	매서운 추석 민심, 尹대통령 국정 전환 없인 출구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2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어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한 주 전보다 3%포인트 하락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3%포인트 오른 70%를 보였다. 종전 최저치는 총선 참패 이후인 5월 5주째(21%)였는데 '추석 민심'은 이보다 더 나빠진 것이다. 이런 추세에 반전이 없다면 10%대 위험 수위도 시간 문제로 보인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전국 지역, 전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해, 여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마저 부정(57%)이 긍정(35%)보다 높은 점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지지율은 8%에 불과했고, 60대와 70대 이상도 부정이 높아 대통령에게서 돌아선 모습이다. 민심의 경고인 낮은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대통령의 국정동력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지지율이 추락한 이유는 익히 알려져 있는데, 오만·불통 이미지에 의료공백까지 겹치면서 민심이반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한때 긍정평가 이유였던 의대정원 확대(18%)를 부정평가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경제·민생·물가(12%), 소통미흡(10%), 독단적·일방적 리더십(8%) 등을 지목했다. 국민 우려가 가장 큰 의료갈등의 경우 7개월을 넘기면서 정부의 관리능력에 의심을 품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무려 국민 80%가 아파도 진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뺑뺑이 응급실 문제에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해 여당마저 '책임질 수 있냐'는 불신을 드러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지지율이 바닥인데도, 이를 신경 쓰지 않는 윤 대통령의 행보다. 광복절 때 "반국가세력 항전"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최근 "반대한민국 세력"을 언급했다. 공천개입 의혹마저 불거진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수수에 대해 국민에게 해명, 사과 한마디 없이	진은정	삭제

778	2024-09-14 17:08	"응급실 뺑뺑이에 국민 죽어나가"는 가짜 뉴스? 팩트체크	[한덕수/국무총리] "잇따른다는 표현은 좀 과장입니다." 현장에서 비판이 터져 나오자, 한 총리는 "죽어 나간다는 건 가짜 뉴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국민들이 죽어 나가잖아요.>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죽어나가요? 어디에 죽어나갑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계속되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한 총리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네, 저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 두 달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지난 7월 18일, 전북 익산에서 교통사고로 발목이 절단된 70대 운전자가 병원 4곳을 돌다 1시간 반 만에 숨졌고, 지난달에는 충남 천안에서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여성이 병원 19곳에서 거절당하는 사이 심정지가 와서 사망했습니다. 이틀 전에도 경기도 파주의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병원 11곳을 돌다가 숨지는 등 7월 이	최영옥	

779	2024-09-14 21:33	동아사설, 용산과 재벌 총수들 진짜 팀이 맞나) 모집해도 고사 “불참 의사를 이미 밝혔는데도 용산에서 ‘4대 그룹 총수는 참석해 달라’고 메시지가 왔다	재계 총수들은 추석에도 마음이 가볍지 않을 것 같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은 19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방문길에 경제사절단으로 함께 떠난다. 4월 총선 참패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용산과 재계의 ‘원팀’ 해외 여정이 재개된 셈이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던 걸로 전해진다. 대한상의는 8월 중순 1차로 참가 기업을 모집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시원찮았다. 경제사절단 주관단체인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당연히 참가해야 하는 최 회장을 제외하곤 나머지 총수들 모두 처음엔 참가를 주저했다. 그도 그럴 것이 삼성전자나 LG전자는 체코에 공장도 없고 판매 지점만 두고 있다. 이번 대통령 방문 때 맞춰 발표할 투자나 협력 방안 등 ‘선물 보따리’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체코에 공장이 있지만 그 시기 정 회장의 주요 일정이 잡혀 있었다. 8월 올림픽 선수단 격려에 이어 9월 체코 방문 행사에 잇달아 참석하는 게 일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총수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대한상의는 모집 기간을 늘렸다. 기업들은 결국 출국 3주 전까지 “삼성은 가는지, 현대차는 가는지”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재계 관계자는 “불참 의사를 이미 밝혔는데도 용산에서 ‘일정에 무리 안 가는 선에서 가급적 4대 그룹 총수는 참석해 달라’고 메시지가 왔다”고 귀띔했다. 이 회장은 매년 추석 연휴에 해외 사업장을 찾아 임직원을 직접 격려하고 현장을 점검해	최영옥	

780	2024-09-14 21:45		어휴 당원 부끄러워 죽겠네요 4대 총수 다 일정 있고 바쁜데 불참한다 했더니 4대는 꼭 가자고 압박 들어와서 할수없이 간답니다 파리 가서 술판 벌이더니 이번엔 체코 가서 하시려고요? 기업 활동 제대로 하게 좀 놔두세요 ----	허수옥	
781	2024-09-14 22:22	추석 응급실 '우려된다' 89%··	2025학년도 의과대학 1,509명 증원을 재검토할지, 그대로 할지 물었습니다. '의사협회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확대 여부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55%로, '계획대로 정원을 늘려야 한다' 40%보다 많았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의견이 달라도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가 4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협조를 우선하되 사안에 따라 다른 의견을 내야 한다' 34%, '대통령과 단합해야 한다'가 13%였습니다.	최영옥	

782	2024-09-14 22:39	한동훈 대표 말좀 들으세요.... "구급대 환자이송 1시간 초과, 작년보다 22% 늘어" ....큰일이네요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 응급환자 병원 이송 시간이 60분을 넘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만3천여 건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만 천여 건과 비교하면 22%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도 이송 시간이 1시간을 넘긴 사례의 비율이 서울 2.2배, 부산 1.7배, 대전 3.2배로 각각 지난해보다 늘었고, 구급대의 평균 환자이송 거리도 늘었습니다. 채 의원은 의정갈등 여파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수치로 확인된 거라며, 정부가	한지윤	
783	2024-09-15 11:22	"김건희, 죄질 안 좋아도 감옥 안 가..욕 그만 먹고, 기소해 털어야 "[국민맞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주(錢主) 손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경우 손 모 씨보다 죄질이 더 안 좋다"며 "검찰이 기소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오늘(15일) 방송된 민방 공동 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손 모 씨 이분이 1심에서는 범죄행위 협의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방조범'으로 소위 공소장 변경을 해서 주가조작 '방조범'으로 유죄를 받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분이 한 행위가 본인의 자금을 이용해서 같이 주식 투자를 했고 그 주가조작으로 이분이 이득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행동을 했다"며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보다는 죄질이 덜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는 1심 판결문에도 보면 본인의 계좌 자체를 권오수 씨 일당에다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 판결이 나온 손 모 씨보다는 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동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투자 자금을 제공한 것을 넘어서 계좌 자체를 제공했고 해당 계좌들이 실제로 주가조작에 이용됐기 때문에 죄질이 더 나쁘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김한규 의원은 이와 관련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라면 검찰이 항소심 판결을 보고 추후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입장이라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안 하기는 어렵다. 안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김건희 여사	최영옥	

784	2024-09-15 11:41	한동훈 지지자들 "선한영향력".. 아동복지 400만원 천안함재단 400만원 기부!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229 지지자들도 당의 '격차 해소' 기류에 맞춰 기부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한 대표 지지자로 구성된 한 익명 커뮤니티는 지난 8월 23일과 26일 복지와 안보를 중요시하는 국민의힘의 메시지를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총 8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들은 대구아동복지센터에 아동 자립·장학 등 교육, 치료비 지원 목적으로 400만 원을 기부했으며 천안함재단에도 유가족지원을 목적으로 400만 원을 기부했다. 모금 총무 역할을 맡은 A 씨는 대구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대표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당이 지향하는 방향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부처를 정했다"며 "최근 '정치인 팬덤'의 지나친 모습으로 비판도 존재하지만 정치인 지지자들 수십, 수백 명이 모여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A 씨는 "한 대표가 '정치적 고향'이라고 말한 대구 지역에 돌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얼마든지 기부할 생각이 있는데 대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혹시나 누군가에게 피해가 될까 봐 센터와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분께 연락을 참 많이 드렸는데 기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다"며 "연고는 없지만 이번 기부를 통해 대구에 애정이 많이 생겼다"고 거듭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진은정	삭제
785	2024-09-15 12:13		중앙 동아는 일찌기 그랬지만 조선도 윤석열 놓은것 같네요 이런 논평으로 보나 사설로 보나 에디팅 들어가는 글들, 다 윤에 대해선 포기상태더군요 당원으로 참 걱정입니다. 한동훈 말 들었으면 의료사태도 여기까지 안왔죠. 한동훈은 윤 대통령에게는 다소 부족해 뵈는 요소들, 예를 들어 정무적 감각, 말하는 법, 밀어붙이는 뚝심과 적절히 피해가는 유연함의 양면성, 공정성과 서민지향성의 융합 능력과 같은 것들을 지니고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김건희 측근들의 한동훈 물어뜯기가 더욱 강화될 텐데, 이에 대해선도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영식 멈기을 향한 정지	허수옥	

786	2024-09-15 14:34		국민은 이미 대통령 '심리적 탄핵' 상태… 2024 〈시사IN〉 신뢰도 조사 결과 또한 〈시사IN〉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대통령실(청와대) 신뢰도가 국회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역대 조사 이래 처음이다. 검찰,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자의 신뢰도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활동 중인 여야 정치인 중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물은 결과, '없다/모름/응답거절'이 38.9%인 가운데 '이재명'(18.0%)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	허수옥	
787	2024-09-15 17:26	개표님 화요일 6시 cbs 한판승부 플레이리스트 공개 기대되네요 ㅎㅎ 올드팝 매니아 이신가요.. 애초에 이런게 가능한 정치인은 없죠 ㅎㅎ 본방사수!!!	https://www.youtube.com/channel/UCV9gIwasozKlwz5U2Sa2q6g/community?lb=Ugkx0JHZPOBLTQwwRYBrDBqDWywSlArVK0bC 비틀즈 애비로드 LP 가지고 나오셨군요 기대기대	한동훈	삭제
788	2024-09-15 17:31		참담하네요 사실 주변 보수들 다 등돌렸습니다. 윤통보다 민주당이 낫다고까지 하고 한동훈 아니면 담번에 걍 민주당 찍는대요 이래도 위기의식 없다면 보수 대통령이라고 할수 없지 않나요 https://streamable.com/abharx	허수옥	
789	2024-09-15 19:02	똥만찬 건희야 석열아 나대지마 등! 신같은 건들아 !	대가리 똥만찬 것들아 퉤!	진형구	

790	2024-09-15 19:18	병원 4곳으로부터 당장 치료받을 수 없었던 환자가 90㎞ 넘게 떨어진 전북 전주까지 이송	119 구급대는 대학병원 2곳, 종합병원 1곳, 정형외과 전문병원 1곳 등 의료기관 4곳에 문의했으나 이 환자를 곧바로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없었다. 결국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94㎞ 떨어진 전주에 있는 정형외과에 도착한 환자는 접합수술 등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광주지역 대학병원들과 종합병원 등은 접합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다른 수술을 하거나 휴무인 탓에 이 환자를 전주의 병원보다 빠르게 치료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	진은정	삭제
791	2024-09-15 19:22	윤석열은 알콜성 치매같고 김건희는 걱레짝 같습니다	둘다 진짜 보기싫습니다	진형구	
792	2024-09-16 11:09	윤 대통령 해외순방에 또 재계 총수들러리 세우나.. 재벌총수 동행 문재인 정권 4배	재계에선 체코와 무역규모와 사업 진출 전망 등을 고려할 때 굳이 재계 총수들을 데려갈 필요가 있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자신의 성과로 포장하기 위해 기업 총수들을 들러리 세우는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윤 대통령의 재계 총수 동행은 구체적인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해외를 18번 나갔는데, 절반 가까이 기업인들과 함께 갔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은 각각 7차례 동행했고, 구광모 LG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은 각각 6차례 따라다녔습니다. 김동관 한화 부회장은 5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재계 총수들을 해외 순방에 동행시키는 경우가 있었지만 윤 대통령처럼 빈번하지는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재계 총수 동행은 재임기간을 고려할 때 문재인정부보다 4배 정도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재계 총수 해외순방 동행의 성과에도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은 재계 총수들을 데리고 나간 해외순방때마다 MOU(양해각서) 체결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체결된 MOU 가운데 실제 이행된 건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에선 경제사절단 모집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영옥	

793	2024-09-16 11:14	한대표가 있어서 지금 당이 무너지지 않는 거	정치에서 구심점이 되는 정치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친문이 잘 보여줬음 변변한 인물이 없었다보니 집권세력이었는데도 아주 허무하게 흩어져버림 보수도 마찬가지 올초에 이재명을 양자대결에서 눌러버린 한동훈이 지금 강력한 구심점으로 존재하고 있기때문에 대통령님 부부 의 온갖 실정과 설화등으로 보수진영을 무너뜨리고 있는 와중에도 당과 보수지지층이 무너지지 않고 일정 선에서 버티고 있는 거임 만약 지금 당대표가 원희룡이나 나경원 아니면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었으면 이미 당과 지지층이 붕괴되고 끝났음	한지윤	
794	2024-09-16 11:15		보수에 윤석열 찍은 손목 부러트리고 싶다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2030405060대 지지율 10%도 안나오고 20대는 심지어 7프로임 그명 7080대로만 간신히 20대 유지한다는건 보수도 사회생활 하는 보수는 다 떠났다는겁니다 그 의미가 뭔지 모르세요? 7080들처럼 온라인으로 유튭만 보는게 아니라 진짜 사회에서 정치를 보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범죄자여도 이재명을 찍는다는겁니다 ㅠㅠㅠㅠ국민걱정은 한동훈뿐. 정부는 의사와 전쟁을 벌여 승리하는 것이 목표인가요. 의사가 죽으면 의료붕괴에요 제발 정신차리고 목표를 바꿔	허수옥	
795	2024-09-16 11:37	당원은 이재명과 싸우라고 한동훈을 대표로 뽑은 거 아니다. 윤석열이 잘못된 국정운영을 하니 국민 편에서 용기 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한동훈을 선택했고 지금 그걸 하는중. 물론 그걸로 이지메 당하는 중임	“협치는 원내에 맡기고, 본인은 강점인 전투력을 발휘해 이 대표와 확실히 각을 세워야 한다” 민주당이랑은 싸우기 싫으니 대신 싸워달라는 친윤의원 ㅋㅋㅋㅋ 역대 최저 지지율 윤석열 걱정이나 해라. 윤석열이야말로 지난 금요일 갤럽 역대 최저 리얼미터 역대 최저 지지율 찍은 건 왜 감추냐? 윤석열이 전과4범 ㅇ재명이랑 영수회담할 때 이재명이 싫어할 사람은 대통령실에 쓰지 않겠다, 이재명 대권 도와주겠다, 부부동반으로 골프 치자 등등 이재명한테 비굴하게 설설 기었지. 당원은 윤석열이 잘못된 국정운영을 할 때 할 말 하고 바로잡고 국민 편에서 용기 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수년간 한동훈한테만 해줘 ㅋㅋㅋㅋ 친윤 웰빙들 지네들이 이재명 민주당과 싸우라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한동훈	삭제

796	2024-09-16 11:46	[사설] '의혹투성이 김 여사'의 사과 없는 공개 행보, 국정지지율 폭락한 민심 아는가	당장 지난 12일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 손모씨를 방조 혐의로 단죄하면서 김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한 규명 필요성이 커졌다. 4년 가까이 질질 끌어온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 압박도 더욱 커졌다. 대통령 관저 이전도 김 여사 연관 업체가 무자격 증축 공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감사원이 위법 사안들을 뭉개고 솜방방이로 다뤄 의혹만 증폭시켰다. 검찰·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가 공직자가 아니어서 명품백 수수에 '문제 없다'고 했는데, 김 여사는 10일 뚝섬수난구조대 등을 찾아 흡사 고위공직자의 '현장순시'를 연상시키는 행보로 여권조차 당황케 했다. 대통령실은 12일 "(김 여사가) 약자, 소외계층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행보를 꾸준히 할 예정"이라며 "진정성을 봐달라"고 했다.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헛웃음만 나온다. 추석 앞에 20%까지 급락한 국정지지율을 '민심의 심리적 탄핵' 경고로 보는 시각도 넓다. 김 여사와 대통령실은 먼저 그동안의 숱한 의혹과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한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진솔하게 인정하고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진정성으로 다가가는 시작이다.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 되면 잠행했다가 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들을 앞세워 '무혐의' 결론을 내곤 슬그머니 다시 공개 행보에 나서는 행태로 신뢰는 요원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명품백 수수도, 대통령실·관저 이전 개입 의혹도 독립적 특검이 아니고선 이제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온적이던 개혁신당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을 계기로 찬성으로 돌아섰다. 윤 대통령은 방탄용 거부권만 행사할 게 아니라, 국정·인사·소통의 전향적인 변화 없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야 한	진은정	삭제
797	2024-09-16 12:40	진보의오야붕 댓글팀 카톡문자 방송타고 한동훈한테 좌파몰이 댓글팀 뒤집어씌우기 영수회담에서 용산이 이재명 대권 운운 기사 뜨고 이젠 한동훈이 이재명이랑 손잡았다고 덮어씌우는기사 누구네가 한 일들 다 한동훈한테 덮어씌우기 수	진보의오야붕 댓글팀 카톡문자 방송타고 한동훈한테 좌파몰이 댓글팀 뒤집어씌우기 영수회담에서 용산이 이재명 대권 운운 기사 뜨고 이젠 한동훈이 이재명이랑 손잡았다고 덮어씌우는기사 누구네가 한 일들 다 한동훈한테 덮어씌우기 수법 소름	한동훈	삭제

798	2024-09-16 12:54	한동훈처럼 자기가 맡은 직에 자신을 갈고 닦아서 업을 이루는 사람을 보면그런 사람들은 정말 사고가 다르더라	한동훈처럼 자기가 맡은 직에 자신을 갈고 닦아서 업을 이루는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사고가 다르더라 그게 보는 사람들의 인생까지 흔들어 놓음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게하고 상식적인 청년들에겐 좋은 롤모델. 정치판 세대교체 하자 그여사 진보의오야붕 댓글팀 카톡문자 방송타고 한동훈한테 좌파몰이 댓글팀 뒤집어씌우기 영수회담에서 용산이 이재명 대권 운운 기사 뜨고 이젠 한동훈이 이재명이랑 손잡았다고 덮어씌우는기사 이런 언플 보면 다 용산 부부가 한 일들 다 한동훈한테 덮어씌우기임	한동훈	삭제
799	2024-09-16 13:00	윤 대통령 지지율, 어디까지 내려갈까…리얼미터 조사도 역대 최저치 27%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정수행 부정평가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7.0%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2.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종전 주간 최저치였던 2022년 8월 1주 차(29.3%)보다 낮다. 리얼미터는 “이념 보수층, 지지층 결집 약화로 지지선이 무너졌다”며 “김건희 여사 의혹과 ‘채상병특검법’ 등을 놓고 야권의 강공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진작 낙관론과 궤를 달리한 추석 장바구니 체감 물가가 여론에 악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8%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0%, 부정평가는 70%였다. 부정평가 또한 취임 이래 최고치였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유일하게 기댈 것은 국민 지지율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지난 4월 총선 참패 뒤 줄곧 20%대에 머물다가 결국 임기 반환점도 돌기 전에 최저치를 갈아 치웠다. 지금 하는 대로라면 10%대로 떨어진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국민 10명 중 8~9명이 등을 돌린다면 대통령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	진은정	삭제

800	2024-09-16 13:00		보수는 그나마 한동훈을 의지하고 있어요. 주변에 윤석열 찍은 손목 부러트리고 싶다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2030405060대 지지율 10%도 안나오고 20대는 심지어 7프로임 그명 7080대로만 간신히 20대 유지한다는건 보수도 사회생활 하는 보수는 다 떠났다는겁니다 그 의미가 뭔지 모르세요? 7080들처럼 온라인으로 유튭만 보는게 아니라 진짜 사회	허수옥	
801	2024-09-16 13:34	공과사 철저하게 구분하는 국민들 편 한동훈 대표가 문재인의 충신 용산과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부터 망가져가는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기 위해 매일 안간힘을 쓰고 있는걸 보수는 정치로 짜증나는 환경에도 한 대표의 진심을 믿고 지지합니다 한대표 아니면 국힘은 그냥 와르르에요 그나마 이정도 버티는거죠. 주변에 한동훈이라도 없으면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다를바 없다고 하면서	공과사 철저하게 구분하는 국민들 편 한동훈 대표가 문재인의 충신 용산과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부터 망가져가는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기 위해 매일 안간힘을 쓰고 있는걸 보수는 정치로 짜증나는 환경에도 한 대표의 진심을 믿고 지지합니다 한대표 아니면 국힘은 그냥 와르르에요 그나마 이정도 버티는거죠. 주변에 한동훈이라도 없으면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다를바 없다고 하면서 투표기권한다는 사람이 대다수임 지난 대선에 윤 뽑은 사람들…	한지윤	
802	2024-09-16 21:09	왕따놀이 선봉장 서고 부끄러우니 부정한 김민전님...보수층도 부정 53%, TK서도 57%, 40대 89%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보수·진보, 지역, 연령 가리지 않고 높다. 연령별로는 40대의 부정 평가율이 89%로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20대~50대가 70%대, 60대도 59%(긍정 평가 32%), 70대마저도 절반에 육박하는 48%(긍정 평가 37%)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도 부산/	8% 는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보수층도 부정 53%, TK서도 57%, 40대 89%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보수·진보, 지역, 연령 가리지 않고 높다. 연령별로는 40대의 부정 평가율이 89%로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20대~50대가 70%대, 60대도 59%(긍정 평가 32%), 70대마저도 절반에 육박하는 48%(긍정 평가 37%)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도 부산/울산/경남에서 부정 평가율이 서울과 같은 68%, 대구/경북에서 과반을 훌쩍 넘은 57%(긍정 평가 35%)를 기록하고 있다.	진은정	삭제
803	2024-09-16 21:13		정신 차리란 말도 안합니다 기대는 없죠	허수옥	

804	2024-09-16 21:39	尹대통령 지지율 정부 출범 후 최저치	.	최영옥	
805	2024-09-16 21:57	송영훈 "지금 이-한 지지율은 개인 호불호가 아니고 진영대결로 인식하는것" 개인 지지율과 별개	(영상)	한지윤	
806	2024-09-16 22:50	尹 반환점 앞두고 굳건한 '이재명·한동훈 양강 체제'	이재명·한동훈 양강 구도 2년 넘게 이어져 이 대표와 한 대표의 양강 구도는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대선 6개월 뒤인 2022년 9월 2일 공개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27%,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9%로 1, 2위에 올랐다. 뒤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4%를 얻었다. 한국갤럽이 2년 만인 지난 6일 발표한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26%, 한 대표는 14%를 얻어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를 각각 얻었다. 2년간 양강구도는 변함 없지만 이 대표와 한 대표의 지지율 격차는 출렁거렸다. 한 대표	최영옥	

807	2024-09-17 11:50	[사설]의ㆍ정갈등 비용 떠맡게 된 건보... 재정 대책 이상 없나	7개월째에 접어든 의·정갈등 후유증이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하면서 시작된 의료공백을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달까지 1조원을 넘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더해 이달 말에는 누적 투입액이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 이후에도 의·정갈등이 언제 해소될지 기약이 없어 건보 재정 축내기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 재정 축내기는 다양한 명목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월부터 가동된 비상진료 체제는 응급실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늘렸고,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병·의원으로 보내는 경우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 경영이 어려운 수련병원에는 3개월분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가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적용된다. 같은 기간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수가는 평소의 3배가 지급된다. 부족한 의료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군의관·공보의·진료지원 간호사 등의 배치에도 비용이 들어간다. 의·정갈등 수습 비용으로 건보 재정이 악화할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문제없다는 태도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준비금이 27조원이나 쌓여 있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역대 처음으로 2년 연속 7.09%에서 동결한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의료비 급여가 급증하고 있어 건보 재정은 앞으로 급속히 말라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스스로 수립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봐도 건보 재정은 2년 뒤인 2026년에 연간 적자로 돌아선다.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져 2030년대 중반에는 연간 적자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건보 재정 적자는 국민이 메워야 한다. 건보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	최영옥	
808	2024-09-17 12:21	무식한 2000명 증원과 의료개혁은 완전 차원 다른 문제임을 인식 못하는 용산 ㅠㅠㅠ 국민 건강위한 개혁은 반대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ㅋㅋ 2000 명 아무 근거없이 무데뽀 주장하며 개혁이 아니라 파탄낸게	국민 건강위한 개혁은 반대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ㅋㅋ 2000 명 아무 근거없이 무데뽀 주장하며 개혁이 아니라 파탄낸게 문제죠	한동훈	삭제
809	2024-09-17 12:26	홍준표 "김건희 여사 나댈때 아냐, 국민 더 힘들게 해"	.	최영옥	

810	2024-09-17 12:27	보수는 그나마 한동훈을 의지하고 있어요. 주변에 윤석열 찍은 손목 부러트리고 싶다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2030405060대 지지율 10%도 안나오고 20대는 심지어 7프로임 그명 7080대로만 간신히 20대 유지한다는건 보수도 사회생활 하는 보수는 다 떠났다는겁니다 그 의미가 뭔지 모르세요? 7080들처럼 온라인으로 유튭만 보는게 아니라 진짜 사회에서 정치를 보는 사람들	보수는 그나마 한동훈을 의지하고 있어요. 주변에 윤석열 찍은 손목 부러트리고 싶다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2030405060대 지지율 10%도 안나오고 20대는 심지어 7프로임 그명 7080대로만 간신히 20대 유지한다는건 보수도 사회생활 하는 보수는 다 떠났다는겁니다 그 의미가 뭔지 모르세요? 7080들처럼 온라인으로 유튭만 보는게 아니라 진짜 사회에서 정치를 보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범죄자여도 이재명을 찍는다는겁니다	한지윤	
811	2024-09-17 12:44	김민전씨 당원들에게 사과하시죠 당게 낭인?? 당원을 모욕해도 유분수지 대체 무슨 뜻으로 말한거죠? 이건 집단 모욕인데?	김민전씨 당원들에게 사과하시죠 당게 낭인?? 당원을 모욕해도 유분수지 대체 무슨 뜻으로 말한거죠? 이건 집단 모욕인데? 당원 모욕으로 윤리위 가시죠	한동훈	삭제
812	2024-09-17 12:55		푹푹 찌는 더위에 바쁜 소방대원들 정복입혀 사열시키는게 대통령. 무슨 황제 여왕 놀이 취해서 정말 꼴불견이다. 보여주기식 그만하고 의료대란이라 해결하라! 당이 본인 껀가? 보여주기식 그만! 김여사님은 왜 정복입은 경찰 데려가 지시하고 난리인가. 연예인도 아	허수옥	

813	2024-09-17 13:10	'윤석열 세대' 의대 2025학번의 암울한 미래 [동아사이언스]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67413 《올 1년 동안 학교를 떠났던 2024학번 3000명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 내년 신입생 4567명과 똑같은 강의·실험·실습을 수강해야만 한다. 확실하게 굳어진 기정사실이고 교육부의 공식적인 '유급' 인정 여부에 상관없이 그렇다. 3000명을 위해 마련해 놓은 시설에서 7500명이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가 당당하게 내놓았던 '의대 학사운영 유연화 방침'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심지어 앞으로 3년 동안 의대 교수 1000명을 증원해주겠다는 교육부의 장담도 마찬가지다. 의대 교수 충원은 공고만 내면 충원이 되는 '알바생 모집'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세대의 고난(苦難)은 의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도 넘지 못할 벽이 된다. 현재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11개 수련병원에서 요행히 '2.5대 1'의 관문을 뚫어야만 '전공의' 수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공의 수련 기회를 찾지 못한 4500명의 의대 졸업생은 우리 사회에서 제 역할을 찾기 어려운 '일반의'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밀어붙이겠다는 '진료면허제'를 시행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의대를 졸업했는데도 개원조차 할 수 없는 '무자격 의 사'로 전락하게 된다. 결국 정부가 떠들썩하게 자랑하던 '10년 후 의 사 1만 명 추가 배출'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진은정	삭제
814	2024-09-17 16:05	尹 대통령, 세계 각국 전투식량 직구해 사먹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세계 각국의 전투식량을 직접 구매해 맛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최영옥	

815	2024-09-17 16:47	[단독] 한동훈, 추석 당일에도 의료계 만나 "함께 정부 설득하자"…'면담 내용' 메신저로 당내 공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추석 당일인 17일 오전 서울 도곡동 자택 인근에서 의료계 주요 인사들을 단독으로 만나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듭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TV조선에 "이날 오전 한 대표가 의료진들과 면담한 내용을 당 인사들에게 메신저로 공유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의료계 인사들에게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들어오면 결국 의제에 제한이 있을 리가 없다"며 "일단 들어와서 정부 측을 충분히 설득해 보자"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료계는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하고 필수 의료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했고, 한 대표는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안다고 여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해당 의료계 인사들이 어느 단체 소속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또 다른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해 "정부 측과 계속 사전 점검을 해왔던 만큼 의료대란까지 빚어지지 않을 거라 예측했다"면서도 "현장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진은정	삭제
816	2024-09-17 17:02	"응급실 문제는 겪어봐야 아는겁니다. 환자들 살리느라 버티는 의사들 한계에 도달했고, 이미 늦었음 아마 대통령이나 총리님은 응급실 아파서 가보시지 않아서 그렇다"- 주치	대통령실이 들으셔야 합니다 제발 민주당 의원에게 이런말 듣는거 당원들이 모욕감마저 느낍니다 왜 우리가 이런말 들어야 하죠?	한동훈	삭제
817	2024-09-17 17:09		관찰해보니 한대표가 가진 풍부한 컨텐츠와 감성에 안티들 완전 굶히네요 ㅋㅋ 사소한거 하나라도 본인들이 견줄만한게 없으니까 미칠것 같은가 봅니다. 더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질까봐.... 연휴 잘보내세요! 한시간 남았다!	허수옥	

818	2024-09-17 18:41	[한동훈의 플레이리스트] 1. Tom Waits - Way Down In The Hole 2. The Jimi Hendrix Experience - Bold As Love 3. The Doors - Summer's Almost Gone 4. Jessye Norman: Strauss - Four Last Songs, 'Im Abendrot 5. 크라잉넛 - 명동콜링 6. Green Day -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7. B	[한동훈의 플레이리스트] 1. Tom Waits - Way Down In The Hole 2. The Jimi Hendrix Experience - Bold As Love 3. The Doors - Summer's Almost Gone 4. Jessye Norman: Strauss - Four Last Songs, 'Im Abendrot 5. 크라잉넛 - 명동콜링 6. Green Day -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7. Beatles - Come Together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진은정	삭제
819	2024-09-17 20:00		(영상)	허수옥	
820	2024-09-17 20:02	한동훈 한판승부 출연한 이유	(영상)	한지윤	
821	2024-09-17 20:06	"역대 정권, 여당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평균 5% 높았는데 윤석열지지율은 여당보다 낮은 지지율 기록 및 국힘" 팩체	고성국 헛소리에 팩트체크 해줌 (영상)	한지윤	
822	2024-09-18 16:05	형호씨 김건희 특검법에 필리버스터??? 정신 나갔나요? 진짜 당원 개무시하네요 ㅋㅋㅋ	간신배가 나라 망친다더니	안동훈	삭제
823	2024-09-18 17:49		한동훈이 있어서 지금 당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정치에서 구심점이 되는 정치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친문이 잘 보여줬죠. 변변한 인물이 없었다보니 집권세력이었는데도 아주 허무하게 흩어져버림. 보수도 마찬가지 .민심 받는 한동훈이 지금 강력한 구심점으로 존재하고 있기때문에 그곳의 온갖 짓으로 보수진영을 무너뜨리고 있는 와중에도 당과 보수지지층이 무너지지 않고 일정 선에서 버티고 있는 거지요. 할만큼 하셨고	허수옥	

824	2024-09-18 17:51	"막힘 없이 줄줄"… 한동훈 플레이리스트 방송에 마니아들 '화들짝' 놀란 이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명한 '음악 마니아'란 사실을 지난 17일 그가 CBS 라디오에서 일일 DJ로 나선다는 소식을 접하고서야 알게 됐다. 음악 깨나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궁금해 방송을 찾아 다시 들어봤다. 든 생각은 'MBC FM <배철수의 음악캠프>에서 탐 낼만한 게스트겠다'라는 것. 기본적인 방송 원고는 준비가 된 듯 했는데, 음악에 대한 세세한 소개는 한 대표 머릿 속에 들어 있는 정보를 즉석에서 꺼내 막힘 없이 줄줄 읊는 수준이었다. '플레이리스트'의 스펙트럼 역시 60년대 록음악에서부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클래식에 이르기까지 폭 넓었다. 각종 인터넷 음악 커뮤티니에서 "포스가 느껴진다""맨날 한 대표가 정치 얘기하는 것만 듣다가 가수들 이름과 정보를 막힘 없이 줄줄 얘기해 놀랐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 것도 무리는 아니였다. 한 대표와 같은 마니아들이라면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 듯 하고, 초보자라면 한 대표의 플레이리스트를 따라 들어가보는 것도 좋은 청음법이 될 듯 하다. 한 대표 말마따나 음악에는 네편내편이 있을 수 없으니, 그가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듣지 말란 법은 없다. 무엇보다 플레이스트 자체가 흠 잡을 데 없이 훌륭하다.(볼드체가 한 대표의 코멘트) ①톰 웨이츠 'Way Down In The Hole' ▶1949년생 미국의 싱어송 라이터 톰웨이츠가 1987년 발매한 'Franks Wild Years' 앨범 수록곡. 톰 웨이츠는 블루스나 재즈를 기초로 한 악곡과 특유의 쉰 가성, 특기인 피아노 연주로 음유시인 이미지를 얻었다. 1980년대 이후로는 독창성을 더욱 가미해 전위적인 사운드로 화제몰이를 했다. 배우로서도 활동해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짐 자머시 등이 감독을 맡은 영화에 출연했다	최영옥	

825	2024-09-18 19:06	혼자 열일하시는 한당대표님!! 어떻게든 해결하시려 고분분투 중이십니다. 국민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하겠다는 한동훈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는 다른 구태정치인들과 다르네요! 그리고 박단이란 사람 이사람 뭐지? 전공의는 전체 파업한게 아니고 개별 행동이라며 지가 무슨 대표라도 된듯 의기양양하네. 너가 만날 사람은 복지	혼자 열일하시는 한당대표님!! 어떻게든 해결하시려 고분분투 중이십니다. 국민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하겠다는 한동훈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는 다른 구태정치인들과 다르네요! 대통령은 국민 생명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박단이란 사람 이사람 뭐지? 전공의는 전체 파업한게 아니고 개별 행동이라며 지가 무슨 대표라도 된듯 의기양양하네. 너가 만날 사람은 복지부 실무자지 정부여당 대표가 아니야~	한동훈	삭제
826	2024-09-18 19:11	또 해외로 나가는 대통령, 기업 총수들을 들러리 세운다는 비판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까지 2박 4일간 체코를 순방한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프라하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목적은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위해서라고. 이번 체코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과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도 동행한다. 유독 해외 순방 때마다 기업 총수들을 대동했던 윤 대통령. 2030 엑스포 유치전에서 정부는 기업과 하나라는 원 팀임을 강조했고, 재벌 총수들도 해외를 돌아다녔다. 그러나 결과는 엑스포 유치 실패였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민심을 다독이러 직접 부산을 찾아 재래시장에서 기업 총수들과 떡볶이를 먹었다. 윤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들러리 세운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진은정	삭제
827	2024-09-18 19:27		현 의료사태를 촉발시킨 공범들이면서 한동훈 대표가 중재자로 나섰다고 양쪽다 갑질 하는거 진짜 어이없네. 국민들 생각하는 건 한대표 발에 없는 듯	허수옥	
828	2024-09-18 19:49	Bold as Love.. 티조는 한동훈으로 신났네요 21세기에 필요한 융합 인재	(영상)	한지윤	

829	2024-09-18 22:27	한동훈 대표는 절벽에서 떨어질 각오로 뛰고 있는데..전공의 대표호소인 너는 해결을 위해서 뭐했냐!! 박씨는 욕심 버리고 진심으로 대화에 응했나! 환자를 생각하긴했나! 다들 자기 욕심만 부리면서, 어디서 깽판을 치려고!! 그리고 추경호씨 김여사 방탄 필리버스터 꿈도꾸지 마세요 당원들 진짜 그러다 민주당 찍습니다 ㅋㅋ 4년 뱃지 있으니 괜찮은가요?	한동훈 대표는 절벽에서 떨어질 각오로 뛰고 있는데..전공의 대표호소인 너는 해결을 위해서 뭐했냐!! 박씨는 욕심 버리고 진심으로 대화에 응했나! 환자를 생각하긴했나! 다들 자기 욕심만 부리면서, 어디서 깽판을 치려고!! 그리고 추경호씨 김여사 방탄 필리버스터 꿈도꾸지 마세요 당원들 진짜 그러다 민주당 찍습니다 ㅋㅋ 4년 뱃지 있으니 괜찮은가요?	한동훈	삭제
830	2024-09-18 22:29	[정동칼럼]대통령이란 무엇인가	대통령의 일은 헌법에 따라 국민의 뜻을 받들고 삼권분립의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 기본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름에 걸맞다고 할 수 없다. 대통령이 해야 하는 통치는 국가에서 벌어지는 온갖 복잡한 일들을 포괄한다. 이 세상에는 유죄와 무죄가 있고, 나쁜 놈을 때려잡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통치다. 국정지지율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은 반국가세력이 있어서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믿음직한 고등학교 동문들을 불러 모아 일을 맡기면 나라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갖은 의혹에 휩싸인 대통령 부인이 현지 지도를 흉내 내는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가끔 생각한다. 대통령이 김치찌개를 끓여서 대접하는 데 들이는 정성과 관심만큼만 통치를 진지하게 생각해 준다면, 지금의 의·정갈등이나, 광복절에 사이비 선동가를 언급하거나,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일본의 사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민을 생각한다면, 침수되는 걸 보면서 퇴근했다던 대통령이 참사가 난 반지하방을 가리키며 '어떻게 대피가 안 됐는가 모르겠다'는 말은 차마 못하지 않았을까. 이번 추석에 추석이란 무엇인가만 묻지 말자. 그 질문은 우리의 삶 전 삶의 의미를 묻는	진은정	삭제
831	2024-09-18 22:30		용산에 넘 실망해 국힘 떠나고싶지만 참고 기다립니다 한동훈의 정의로운 바른판단과 리더쉽 정말 필요한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저런 정당의 대표란 이재명한테 정권넘어가면 여기서 못살거같아요	허수옥	

832	2024-09-18 22:31	초딩도아니고 대통령이 당대표 상대로 초딩식 뒷담 왕따 가해자 놀이 기싸움이나하고 ㅠㅠㅠㅠㅠ 사람들 구급차서 있다가 의식불명 되고 출산도 길에서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진짜 몇명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듯. 생명 보호 의무는 일차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는거 몰라요? 박단씨는 이참에 지 정치 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네 전공의들에게 뭔 권한 위	초딩도아니고 대통령이 당대표 상대로 초딩식 뒷담 왕따 가해자 놀이 기싸움이나하고 ㅠㅠㅠㅠㅠ 사람들 구급차서 있다가 의식불명 되고 출산도 길에서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진짜 몇명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듯. 생명 보호 의무는 일차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는거 몰라요? 박단씨는 이참에 지 정치 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네 전공의들에게 뭔 권한 위임받음? 본인이 파업 시킨거 어니고 개별 자유의사라면서	한지윤	
833	2024-09-18 22:44	'응급실 뺑뺑이'로 얼룩진 추석, 정부는 '고비 넘겼다' 자찬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료계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의료계도 원점 복귀라는 억지는 그만 부리고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환자들이란 점에서 협의체에 환자 단체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협의체가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	최영옥	
834	2024-09-18 22:47	????한동훈 대표 이번 추석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의료계와 접촉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해도 본전 못하면 욕만 먹는 일에 기꺼이 나서서 홀로 애쓰시는 거 감사해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치인이 앞장서는 모습은 그	????한동훈 대표 이번 추석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의료계와 접촉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해도 본전 못하면 욕만 먹는 일에 기꺼이 나서서 홀로 애쓰시는 거 감사해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치인이 앞장서는 모습은 그 결과가 어떻든 믿음을 줍니다.	한지윤	
835	2024-09-18 23:36	김 여사 대외 활동에…김용태 "뭉개는 듯한 느낌, 좋지 않은 시선 늘 수밖에"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추석 연휴를 맞아 대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쓴소리를 내뱉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18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영부인으로서 공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맺고 끊는 게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명품백 논란만 하더라도 법적인 판단과 별개로 정치적인 판단에 대해선 국민이 좋지 않게 보는 게 사실"이라며 "여사의 입으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표현이 한 번 더 있어야 국민이 어느 정도 납득할 텐데 뭉개고 가는 듯한 (느낌이 있다), 공개 활동은 정	진은정	삭제
836	2024-09-18 23:44	윤석열, 지지율 최저치 찍어 놀랐나…연휴 마지막날 어린이병원 방문	.	최영옥	

837	2024-09-19 8:48	[중앙] 참모의 아첨, 권력의 비극-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70%) 이유 1, 2위인 의대 정원 확대(18%), 경제·민생·물가(12%)는 새로 불거진 게 아니다. 정부의 상황 인식과 처방이 민심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문제다.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통합·협치 부족(3%) 등 '불통'에 대한 불만도 높다.	모아놓고 보면 대통령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지도부와도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편으론 대통령이 정치 일선에서 고립되는 풍경으로 비친다. 대통령이 '내 편'만 만나게 하고, 거북한 얘기를 듣지 않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보좌인가. 심기경호가 참모들의 역할이어선 안 된다. 경제 문제에선 정부 내에 자화자찬이 넘쳐난다.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국정브리핑에서 '한국의 수출 증가는 블록버스터급'이라는 외신을 소개하며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이 좋다는 것을 누가 모르나. 그게 민생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닌가. 대통령은 '30개월 연속 최고 고용률' '실업률 역대 최저' 등 고용 호조를 자랑했다. 그러나 얼마 뒤 8월 취업자의 54.6%가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라는 통계가 나왔다. 역대 최고다. 일자리를 찾는 구직활동 없이 '그냥 쉬는' 이도 256만여 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다. 이런 '지표 착시'가 한둘이 아니다.	진은정	삭제
838	2024-09-19 16:38	[사설]추석 고비를 넘겼을 뿐, 의료진의 체력과 정신적 부담이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추석 연휴 동안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는 공회전만 거듭했다. 협의체 구성이 곧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4자가 한자리에 모이면 의료개혁의 길을 함께 열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과 초당적	추석 고비를 넘겼을 뿐, 의료진의 체력과 정신적 부담이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추석 연휴 동안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는 공회전만 거듭했다. 협의체 구성이 곧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4자가 한자리에 모이면 의료개혁의 길을 함께 열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은정	삭제

839	2024-09-19 16:40	새 검찰총장 “오직 법과 원칙”…‘산 권력’ 수사로 보여야 한다. (동아)	심 총장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자기 책임하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원석 전 총장 때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총장에게 사후 보고했다. 이런 식으로는 총장과 검찰 조직의 명예를 건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 수사지휘권 박탈 사유가 윤 대통령이 총장에서 물러나면서 사라진 지 3년 반이 지났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당장 심 총장의 지휘권을 복원시키고 심 총장은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절차 위반 사실이 적지 않게 발견됐지만 특혜는 없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관저 인테리어 공사의 수의 계약을 따낸 업체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 가운데 한곳이고 이 업체가 하도급을 준 18개 업체 중 15개가 무자격 업체다. 검찰은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에서 국민권익위의 수사 의뢰가 없었다고 손놓고 있다가 ‘특혜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앞	한지윤	
840	2024-09-19 17:32		기업총수 들러리는 별로 좋지 않은듯하네요 총수들 다 거절했다는데... 압력받 읍소받으로 기어이 병풍세움. ㅠㅠ김정숙이 BTS 데리고 다니면서 병풍 세운거 오버랩되어 보수 지지자들 참 불끄러워요	허수옥	
841	2024-09-19 18:12	한동훈이 있어서 지금 당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정치에서 구심점이 되는 정치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친문이 잘 보여줬죠. 변변한 인물이 없었다보니 집권세력이었는데도 아주 허무하게 흩어져버림. 보수도 마찬가지 .민심 받는 한동훈이 지금 강력한 구심점으로 존재하고 있기때문에 그곳의 온갖 짓으로 보수진영을 무너뜨리고 있는 와중에도 당과 보수지지층이 무너지지 않고 일정 선에서 버티고	한동훈이 있어서 지금 당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정치에서 구심점이 되는 정치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친문이 잘 보여줬죠. 변변한 인물이 없었다보니 집권세력이었는데도 아주 허무하게 흩어져버림. 보수도 마찬가지 .민심 받는 한동훈이 지금 강력한 구심점으로 존재하고 있기때문에 그곳의 온갖 짓으로 보수진영을 무너뜨리고 있는 와중에도 당과 보수지지층이 무너지지 않고 일정 선에서 버티고 있는 거지요. 할만큼 하셨고 하고 계십니다.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훈	삭제

842	2024-09-19 18:14	[사설] 심우정 검찰, 용산 입김 의식하지 말라	심우정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지만, 말 그대로 사면초가 신세다. 이재명·문재인 등 야권 거물 및 김건희 여사 등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이 즐비하다. 명품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의 처리를 제대로 매듭지어야 한다. 전임 이원석 총장 시절에 김 여사 조사 방법을 놓고 검찰 내부 갈등도 불거졌는데, 권력 심층부에서는 김 여사가 피해자인데 범죄자 취급한다는 불만이 여전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수사 지휘권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어느 쪽 눈치도 보지 말고 오직 법과	진은정	삭제
843	2024-09-19 18:15	한동훈 대표님. 국민 위해 발벗고 뛰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휴기간에도 계속 의료계 만나고 있다고 기사나던데 제발 다들 나와서 대화로	.	한지윤	
844	2024-09-19 18:17	(중앙)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대통령 지지율 20%'	대통령의 '지지율 20%'는 국민의 실망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자, 국정 운영 동력의 실질적 마지노선이다. 일각에선 대통령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체념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굳건한 지지층인 70대 이상(긍정 37%-부정 48%), 보수층(38-53), 대구·경북(35-57) 민심도 등을 돌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후반 '최순실 스캔들'로 17%(2016년 10월)를 찍으며 내리막길로 치달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해에 20%가 붕괴(17%, 2012년 8월)하면서 레임덕을 피해 가지 못했다. 김 여사 문제 해법을 포함해 국정 운영의 일대 쇄신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진정한 성찰	최영옥	
845	2024-09-20 12:45	한가지 답만 있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도자는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의견을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한동훈은 그런 사람이라 지도자가 되면 훌륭히 잘해낼것 같다 고집과 아집이 없는 유연한 리더십 기	주요 현안에 다른 목소리를 내니 악화되는 것 아닐까?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데, 불편해지는 게 싫다고 편을 들어야 하나?" 이 답변이 제일 마음에 든다 앞으로도 이런 정치를 하길 바란다	한동훈	삭제
846	2024-09-20 12:46	"싸우지 말자는 게 아니다. 역사상 싸움이 없었던 정치가 있었나? 김민석 같은 분이 계엄령 얘기하는데, 이건 좀 과하다 여기는 민주당 의원들 중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나를 따르라'만 있는 일극 체	"싸우지 말자는 게 아니다. 역사상 싸움이 없었던 정치가 있었나? 김민석 같은 분이 계엄령 얘기하는데, 이건 좀 과하다 여기는 민주당 의원들 중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나를 따르라'만 있는 일극 체제는 오래갈 수 없다."	진은정	삭제

847	2024-09-20 12:47		한마디 한마디 하는것이 가슴을 찌른다지금까지 이런 신선한 정치인 없었다 반드시 정치 개혁 해야한다 https://www.chosun.com/opinion/2024/09/20/AZICBMP43ZCHLGWIGUOLEHI6SQ/	허수옥	
848	2024-09-20 12:47	정말 한동훈이 인물은 인물이다 막힘없는 대답 그리고 끄덕이게 되는 시원한 답변...보수와 대한민국에	민심이 용산부부에게 등을 돌렸는데도 한자리 받으려고 딸랑대는 추경호 권성동 김재원 이철규 같은 친윤들이 문제고, 절대 바뀌지않는 용산부부는 희망이 없다 보수와 대한민국이 그래도 견디는건 한동훈이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대표님 힘내세요 국민들이 함께 하겠	한지윤	
849	2024-09-20 14:14	[조선] 한동훈, 노동·복지·격차 해소 등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분명해 보인다	복지는 성장과 결합돼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 온 전 국민 25만원 지원은 망한 회사가 청산한 돈을 나눠 갖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 우리가 말하는 복지는 경제가 잘 돼서 보너스를 주는 개념이다. 성장을 통한 복지를 이루려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민주당은 반대한다. "부자와 빈자, 1대99로 갈라치기 하는 게 전가의 보도지만 민주당이 간과한 게 있다. 1400만 주식 투자자가 민주당보다 시장을 훨씬 잘 안다는 것이다. 1이 빠져나가면 나머지 99가 정부 망한다는 걸 그들은 안다. 금투세를 고수하면 민주당은 한동훈이 아니라 대한	최영옥	
850	2024-09-20 14:47	[문화사설] 근원적 문제는 '정치인 윤석열'의 실패다. 간신히 대통령에 당선됐음에도 지지 기반을 스스로 허물어왔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불난 집에 기름을 뿌리는 격이다. 온갖 튀는 정책·인사의 배경에 김 여사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윤 대통령 초청 모임에 함께한 김 여사가 어떤 언행을 했는지, 한남동 비선이 누구이며 어떤 자리를 노리는지 등에 대한 경험담을 비롯해 별의별 얘기가 필자 귀에도 들린다. 야당의 정치 공세 이전에 여당 인사들 사이에도 김 여사가 국정에 직간접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다. 김 여사가 한국의 힐러리 클린턴을 꿈꾸더라도 그것은 자유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남편과 윤 정부와 나라를 위하는 길인지 심사숙고할 때다. 윤 대통령도 직접 나서긴 힘들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장인의 '미전향' 문제에 대해 "아내와 이혼하란 말인가"라며 방어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김 여사 스스로 방울을 다는 게 최선이다. 이제는 대국민 사과나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그래도 진정성만 있으면 아	진은정	삭제
851	2024-09-20 14:47		한동훈대표의 생각이 바르고 올곧다. 권력을 쥐었다고 국민의 고통에 눈감고 귀닫으면 그런 정권은 절대 성공할수없다.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들고나와 선거에 이용해먹으려다 실패했으면 사과하고 겸허히여야지 오기와 똑고집으로 버티면 안된다	허수옥	

852	2024-09-20 14:48	대한민국도 이제 반듯하게 자라 자기 분야뿐만 아니라 예술도 알고 책도 읽고 또 부족한 부분을 늘 배우고 귀를 열고..그런 새로운 지도자를 가져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인내가 필요한 시기.. 맞습니다 대표님. 온갖 수모에도 꿋꿋하게 버텨내는 것으로 한동훈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대표님 정치 길에 큰 거름이 되고 더 깊고 폭넓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 국민만 보고 정진하세요. 1년뒤 과연 정치인 한동훈이 얼마나 더 깊이있고 넓고 큰 사람이 되어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반듯하게 자라 자기 분야뿐만 아니라 예술도 알고 책도 읽고 또 부족한 부분을 늘 배우고 귀를 열고..그런 새로운 지도자를 가져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야 합니다.	한지윤	
853	2024-09-20 14:50	지금은 한동훈대표중심으로 똘똘뭉쳐 힘을싫어주고 믿고지지해줘야한다 정권재창출하고 국민과나라살릴 사람은 한동훈뿐이다 힘내세요 응	한동훈 당대표 님 해가 없어도 달을 보고 간다는 말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힘드신 날들 보내시느라 고생많으세요 지치지 마시고 힘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한동훈	삭제
854	2024-09-20 15:06	한동훈은 한결 같다. 일관된 논리 분명한 의사표현 돌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는 발언은 사이다를 넘어 신뢰성을 담보하게 한다. 진정한 보수	사람의 겉을 보고 말만을 듣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말의 깊이와 품격, 지적 능력과 가치관이 한데 어우러져 말을 하는 사람을 한동훈에게서 처음 느낀다...지금 시중에 떠도는 질나쁜 싸구려 사기꾼 같거나 너무 닳아 빠졌거나 너무 막 되먹은 정치리더들과 다르게 품격있는 정치를해주길 희망한다	한지윤	
855	2024-09-20 15:19	한동훈의 식견, 교양을 보면, 이제야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정치인이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 수준낮은 범죄자는 감빵에 가고, 새 정치인 한동훈이 공공선을 행하는 날은 언제 올까. 진정한 공화주의자 한동훈을	"민주당이 간과한 게 있다. 1400만 주식 투자자가 민주당보다 시장을 훨씬 잘 안다는 것이다. 1이 빠져나가면 나머지 99가 전부 망한다는 걸 그들은 안다. 금투세를 고수하면 민주당은 한동훈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싸우게 될 것이다.”	한동훈	삭제

856	2024-09-20 17:57	국힘, 필리버스터 포기…"24시간 '김여사 감싸기' 부담"	"김여사 특검법 필리버스터 선뜻 나서기 어려워"…역풍 우려 여당 의원들이 24시간 동안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감싸야 한단 부담감과 필리버스터 무용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번 본회의에선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이 나서서 대통령실을 비호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어서다.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 초선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에 "여당 의원이 몇 시간 동안 본회의장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변명하듯 이야기하는 그림이 국민에게 좋아 보이냐"며 "당원들도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차가운 분위기인데, 7월 필리버스터 때와는 달리 선뜻 나설 의원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진은정	삭제
857	2024-09-20 17:57		한동훈 대표의 소신있는 곧은 정치 지지한다 좌고우면 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에게 이로운 정치를 하여 국민의 지지는 적대다수로 따르게 마련이다	허수옥	
858	2024-09-20 17:59	한동훈 대표 인터뷰) “부자와 빈자, 1대99로 갈라치기 하는 게 전가의 보도지만 민주당이 간과한 게 있다. 1400만 주식 투자자가 민주당보다 시장을 훨씬 잘 안다는 것이다. 1이 빠져나가면 나머지 99가 전부 망한다는 걸 그들은 안다. 금투세를 고수하면 민주당은 한동훈이 아니라	“목소리 크고 상소리를 한다뿐이지 저 당도 뭐 되는 게 있나? 진전이란 게 있나? 그들도 정치가 직업인 프로들이라 이 상황을 지속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안다. 그래서 11년 만에 여야 대표회담을 한 거고, 제가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을 제안할 수 있었던 거다.” -계엄령 등 선동은 여전한데? “싸우지 말자는 게 아니다. 역사상 싸움이 없었던 정치가 있었나? 김민석 같은 분이 계엄령 얘기하는데, 이건 좀 과하다 여기는 민주당 의원들 중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없	최영옥	

859	2024-09-21 8:47	[조선일보] 윤 대통령은 '보수'인가 이재명 범죄 혐의에 혀를 차다가도 "김 여사는?"이란 반박을 당하면 궁색할 때가 많다… 보수 지지자들로선 속뒤 말로 'X팔리는' 심정이 된 것이다.	의료 개혁엔 누구나 동의한다. 그러나 실행 방식이 너무도 거칠고 과격하고 무모했다. '2000명씩 5년간 증원'이란 수치부터 비현실적이었다. 개혁을 한다면서 개혁 대상을 어떻게 설득할지 면밀한 실행 계획도 없이 밀어붙이기만 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고전하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의 빈곤 탓이다. 이유야 어쨌든 국민으로 하여금 '아프면 어떡하나'를 걱정하게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다. 개혁은 꼬일 대로 꼬인 채 의사 집단만 반정부 투사로 내몰고 말았다. 의사뿐 아니다. 대통령의 격노로 시작됐다는 '채 상병 사건'으로 해병대 예비역들과 충돌했고, 연구·개발 예산 삭감 소동으로 과학기술인이 등을 돌리게 했다. 윤 정부가 전쟁을 벌인 의사·해병대·과학자들은 어느 직종보다 확고한 국가관과 공적 마인드를 보유한 집단이다. 자유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보수 정권이 보수의 주력 직업군과 잇따라 충돌하며 내전(內戰)을 벌이고 있다. 우군을 적으로 돌린 셈이다. 보수는 현실주의자다. 실천 가능성을 따져가며 점진적·실용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보수의 문제 해결 방식이다. 윤 정부 국정은 보수의 스타일과 거리가 먼 경우가 잦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혹은 느닷없는 격노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파열음을 내곤 했다. 의정 갈등은 출구 전략도 못 세운 채 파행을 치닫고, 해병대원 사건은 특검 공세를 자초했으며,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1년 만에 백기 투항하는 치욕을 맛봤다. 이것은 유능한 보수가 일하는 방식이 아니다. 윤석열식(式) 정치는 보수의 영토를 잘라내는 '뺄셈의 정치'에 가깝다. 청년 정치의 대표성을 지닌 이준석을 여당 대표에서 끌어내리고, 여권내 일정 지분을 갖는 안철수·유승민 등과 절연했다. 대선을 승리로 이끈 '보수 빅텐트'를 해체해 버린 것이다. 한동훈 대표와도 끊임없이 갈등 빚으며 적대적 관계를 형성했다. 정권의 존립 기반인 보수의 외연을 좁	최영옥	
860	2024-09-21 14:52	한동훈대표 "주민 대피, 배수 지원을 포함한 안전조치에 힘써 주시고 이를 지원하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안전에도 똑같이 힘써주길 부탁한다" 공무원의 안전까지 챙겨주네	"국민이 먼저다. 국민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겠다는 것이 왜 자기 정치인가. 국민을 위하는 길 앞에서 몸을 사리는 게 자기 정치다." 이게 맞지 매번 불리한 사항에 입다물고 뒤에서 익명으로 평론질이나하는 몇몇 국힘 웰빙들은 뱃지가 아깝다	한동훈	삭제

861	2024-09-21 14:54	[조선일보] 尹 정권의 수사 칼날은 文 앞에만 가면 꺾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정권의 수사 칼날이 문 전 대통령 앞에만 가면 꺾여 버리는 기이한 현상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을 키워준 문 전 대통령에게 '의리'를 지키고 있다고 해석. 인연에 얽매어 국가적 중범죄를 덮는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선거 제도를 흔들고, 에너지 대계를 파괴하고, 국민 생명을 희생시킨 혐의가 특혜 채용보다 몇천 배,	진은정	삭제
862	2024-09-21 14:55		민심이 용산부부에게 등을 돌렸는데도 한자리 받으려고 딸랑대는 추경호 권성동 김재원 이철규 같은 친윤들이 문제고, 절대 바뀌지않는 용산부부는 희망이 없다 보수와 대한민국이 그래도 견디는건 한동훈이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대표님 힘내세요 국민들이 함께 하겠	허수옥	
863	2024-09-21 18:04	[조선일보] 윤 대통령은 '보수'인가. 이재명 범죄 혐의에 혀를 차다가도 "김 여사는?"이란 반박을 당하면 궁색할 때가 많다… 보수 지지자들로선 속된 말로 'X팔리는' 심정이 된 것이다.	의료 개혁엔 누구나 동의한다. 그러나 실행 방식이 너무도 거칠고 과격하고 무모했다. '2000명씩 5년간 증원'이란 수치부터 비현실적이었다. 개혁을 한다면서 개혁 대상을 어떻게 설득할지 면밀한 실행 계획도 없이 밀어붙이기만 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고전하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의 빈곤 탓이다. 이유야 어쨌든 국민으로 하여금 '아프면 어떡하나'를 걱정하게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다. 개혁은 꼬일 대로 꼬인 채 의사 집단만 반정부 투사로 내몰고 말았다. 의사뿐 아니다. 대통령의 격노로 시작됐다는 '채 상병 사건'으로 해병대 예비역들과 충돌했고, 연구·개발 예산 삭감 소동으로 과학기술인이 등을 돌리게 했다. 윤 정부가 전쟁을 벌인 의사·해병대·과학자들은 어느 직종보다 확고한 국가관과 공적 마인드를 보유한 집단이다. 자유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보수 정권이 보수의 주력 직업군과 잇따라 충돌하며 내전(內戰)을 벌이고 있다. 우군을 적으로 돌린 셈이다. 보수는 현실주의자다. 실천 가능성을 따져가며 점진적·실용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보수의 문제 해결 방식이다. 윤 정부 국정은 보수의 스타일과 거리가 먼 경우가 잦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혹은 느닷없는 격노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파열음을 내곤 했다. 의정 갈등은 출구 전략도 못 세운 채 파행을 치닫고, 해병대원 사건은 특검 공세를 자초했으며,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1년 만에 백기 투항하는 치욕을 맛봤다. 이것은 유능한 보수가 일하는 방식이 아니다. 윤석열식(式) 정치는 보수의 영토를 잘라내는 '뺄셈의 정치'에 가깝다. 청년 정치의 대표성을 지닌 이준석을 여당 대표에서 끌어내리고, 여권내 일정 지분을 갖는 안철수·유승민 등과 절연했다. 대선을 승리로 이끈 '보수 빅텐트'를 해체해 버린 것이다. 한동훈 대표와도 끊임없이 갈등 빚으며 적대적 관계를 형성했다. 정권의 존립 기반인 보수의 외연을 좁	최영옥	

864	2024-09-21 18:07	"국민이 먼저다. 국민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겠다는 것이 왜 자기 정치인가. 국민을 위하는 길 앞에서 몸을 사리는 게 정치 정치다."	이게 맞지 매번 불리한 사항에 입다물고 뒤에서 익명으로 평론질이나하는 친윤 국힘 웰빙들은 뱃지가 아깝다. 민심에 귀닫고 보수를 궤멸시키는 사람들임	한지윤	
865	2024-09-21 20:22	창원 의창 5선 김영선 '윤심 밀착'에 숨은 뜻 뭘까? (1/22 기사)	정가엿보기] '윤석열-한동훈' 갈등 속 공천 경쟁 김, SNS에 한 비대위원장 "개인 이탈·사퇴해야" 대표사진도 대통령 손 잡고 찍은 만세 사진 게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과 주장에 맞선 자세로 분석 창원 의창구 국힘 도전자 수두룩해 당내 경쟁 치열 김 의원은 SNS 최상단 대표사진을 지난해 8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윤 대통령 손을 잡고 함께 만세 자세를 취하며 손가락으로 V자를 표현한 사진으로 교체했다. 그동안 김 의원은 SNS에 지역구 활동과 정부 정책 홍보성 자료를 주로 올렸는데 정치적 의견을 직접 밝히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김 의원은 이번 게시글과 사진으로 '윤석열-한동훈 갈등 속 자신의 마음은 확실히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한 셈이다.	최영옥	
866	2024-09-21 20:36	윤 대통령은 보수 주류층까지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이다. 공적 권한 없는 김 여사가 국정과 인사, 심지어 여당 공천과 당무(黨務)까지 관여한다는 의혹이 꼬리 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문 양정철 라인이다. 사시 9수하고 지방 전전하던 검사가 공무원 중립의 의무 위반하고 박근혜 퇴진 집회 다닌 걸로 친문 양정철 눈에 들어서 양정철이 문재인에게 추천해서 낙하산으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꽂혀 벼락출세했다 ✔문재앙 대선 선거조작범 친문 김경수를 사면해준 것도 모자라서 선거 출마 가능하도록 복권까지 해준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다 ✔총선 후 윤석열은 친문 양정철을 비서실장, 문재앙 정권 장관 출신 박영선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려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철회했다 당시 박영선은	한지윤	
867	2024-09-21 20:36		사람의 겉을 보고 말만을 듣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말의 깊이와 품격, 지적 능력과 가치관이 한데 어우러져 말을 하는 사람을 한동훈에게서 처음 느낀다...지금 시중에 떠도는 질나쁜 싸구려 사기꾼 같거나 너무 닳아 빠졌거나	허수옥	

868	2024-09-21 20:37	[문화일보사설] 김 여사 목에 방울 달기	근원적 문제는 '정치인 윤석열'의 실패다. 간신히 대통령에 당선됐음에도 지지 기반을 스스로 허물어왔다. 이준석·안철수와의 선거 연대 해체, 나경원 등 비윤 계열 내치기에 이어 한동훈 대표와의 불협화도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지지율의 대반전이 없으면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과 야당 눈치 보기가 급속히 악화한다.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10월 10일) 뒤엔 여당 의원 행보가 더 자유로워지고, 미래 권력을 중심으로 한 원심력과 차별화 주장도 커질 것이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불난 집에 기름을 뿌리는 격이다. 온갖 튀는 정책·인사의 배경에 김 여사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윤 대통령 초청 모임에 함께한 김 여사가 어떤 언행을 했는지, 한남동 비선이 누구이며 어떤 자리를 노리는지 등에 대한 경험담을 비롯해 별의별 얘기가	진은정	삭제
869	2024-09-21 20:39	요새 민심과 정반대로 최악의 상황으로 스스로 달려가는 용산부부, 계엄까지 얘기하며 일극체제인데도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을 보며 한국에 희망이 있을까 ? 절망적이었는데 한동훈 대표의 인터뷰를 보니 대한민국의 그저 한 명인 여당 대표 한사람인데도 그가 대한민국을 살릴 한 명이 되길 기대하게 된다 ! 정치인 답지 않게 좋은 사람인데 이런	요새 민심과 정반대로 최악의 상황으로 스스로 달려가는 용산부부, 계엄까지 얘기하며 일극체제인데도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을 보며 한국에 희망이 있을까 ? 절망적이었는데 한동훈 대표의 인터뷰를 보니 대한민국의 그저 한 명인 여당 대표 한사람인데도 그가 대한민국을 살릴 한 명이 되길 기대하게 된다 ! 정치인 답지 않게 좋은 사람인데 이런 여의도 스럽지 않은 사람이 잘 되는 최초의 인물이 되었음 좋겠다	한동훈	삭제
870	2024-09-21 22:38	동훈의 나라가 잘되었으면 국민들이 더 잘되었으면 하는 한대표의 정치의 끝을 끝까지 함께하는 지지자로 응원한다 의료대란 중재자 힘들겠지만 꼭 완수해서 국민생명권	지금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한것만봐도 국힘웰빙 눈치보기만 하는 의원들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 튕겨져나가더라도 소신있고 국민편에서 정치해 주십시요 한동훈 화이팅!	한동훈	삭제
871	2024-09-21 22:40	野 '금투세' 유예로 가닥…증시 불확실성 해소 계기되길	금투세 논란이 우리 증시에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서둘러 정치권이 결론을 내야 한다. 금투세 리스크는 벌써 4년째다. 3년 전 여야가 2년 유예를 결정할 때도 질질 끌다가 시행 열흘을 앞두고 유예를 결정했다. 이런 상황을 되풀이해서야 되겠는가. 사실 금투세 유예가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는 없다. 유예는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의 장기화일 뿐이다. 이참에 차리리 금투세 도입을 폐지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걸 고	진은정	삭제

872	2024-09-21 22:42	국민만 보고 정치하겠다는 수사적 표현, 정치인들 뻔한 레퍼토리에 불과했으나, 한동훈 대표는 이 수사적 표현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런 올바른 공직자마인드, 진정한 용기를 가진 정치인, 권력해바라기가 아니라 국민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정치인 한동훈대표, 응원하고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무한신뢰하게된다. 응원합니다. 좋은 정	국민만 보고 정치하겠다는 수사적 표현, 정치인들 뻔한 레퍼토리에 불과했으나, 한동훈 대표는 이 수사적 표현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런 올바른 공직자마인드, 진정한 용기를 가진 정치인, 권력해바라기가 아니라 국민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정치인 한동훈대표, 응원하고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무한신뢰하게된다. 응원합니다. 좋은 정치로 대한민국 정치, 사회, 경제 주요전반 수준을 격상시켜주십시오.	한지윤	
873	2024-09-21 22:43		모든 내용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너무 교만해보이고 독선이 가득한 듯 합니다. 다른 의견내면 반국가세력으로 몰아가니, 평생보수자도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용산태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권력에 취해서 허우적거리는게 아니	허수옥	
874	2024-09-22 17:29	한동훈 대표는 저질 민주당과 싸워야하는 정치상황이 아니였다면 굳이 정치권에 발 들여놓지 않았을 것이다. 권력이 목표가 아니라 공공선이 추구가 목표라는 정치인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부디 대다수 국민들이 한대표의 선의와 진심을 알아줬	한동훈 대표는 저질 민주당과 싸워야하는 정치상황이 아니였다면 굳이 정치권에 발 들여놓지 않았을 것이다. 권력이 목표가 아니라 공공선이 추구가 목표라는 정치인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부디 대다수 국민들이 한대표의 선의와 진심을 알아줬으면 하네요	한동훈	삭제
875	2024-09-22 17:31	한동훈, 尹 독대 의료대란 관련 논의할듯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독대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핵심 의제는 의정 갈등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한다. 하지만 참석자가 많아 정치 현안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	진은정	삭제
876	2024-09-22 17:33		여사가 왜 국정에 관심갖냐 선출되지도 않은자가 권력과 권한 무임승차하려고 하는데? 지난총선을 보수지지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보수의 미래 한동훈 까지 미리 가져다 쓰며 승리를 염원했던 총선이었는데 윤석열이 다 망쳤다 . 한동훈에 공이 가는게 싫어서 일부러 두 부부가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한셈이다. 지금도 국정 최대목표가 한동훈 죽이기다.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다. 이대로 저 부부가 보수를 궤멸시킨다면 보수들은 절	허수옥	
877	2024-09-22 17:34	보수의 가치와 국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한동훈 대표님에게 기대를 걸어 봅니다. 응원하	한동훈의 식견, 교양을 보면, 이제야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정치인이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 수준낮은 범죄자는 감빵에 가고, 새 정치인 한동훈이 공공선을 행하는 날은 언제 올까. 진정한 공화주의자 한동훈을 지지한다	한지윤	

878	2024-09-22 17:42	이재명 대표, 임현택 의협 회장과 비공개 간담회	이 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태에 대해 제일 다급해야 할 곳이 정부이고 또 여당인데 지금은 가장 국민들이 다급해진 거 같다"며 "의협 쪽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데 정부가 좀 개방적으로 나와야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영옥	
879	2024-09-22 17:45	체코 언론, 김건희 '도이치' 의혹 보도… "한국 국가 원수가 사기꾼을 곁에 두고 있나?" 사용	체코 일간지 '블레스크'는 21일(현지시각) '한국의 대통령 부인이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여사는 영부인 특유의 우아함뿐만 아니라 탈세와 표절 의혹도 갖고 있다"며 여러 논란을 차례로 소개했다. 가장 먼저 2019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진 김 여사의 재산세 상습 체납 논란을 전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결혼 뒤 세 차례 재산세를 체납해 집을 압류당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블레스크는 "같은 아파트에서 (다른 동으로) 주소지를 옮기다 보니 세금 고지서 주소를 제때 챙기지 못했다"는 윤 대통령의 당시 해명도 함께 실었다.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다뤘다. 블레스크는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여러 대학의 학자 16명으로 구성된 단체가 "김 여사 논문에 표절의 특징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2022년 9월 전국 14개 단체 교수·학술단체가 꾸린 '학계 검증단'에 참여한 16명의 학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표절의 집합체", "점집 홈페이지와 유명 철학원, 사주철학 블로그, 리포트 거래 사이트 등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그대로 붙여넣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역시 보도했다. 블레스크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10억원을 벌었을 것"이라며 "이는 체코 돈으로 1700만 코루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한국 검찰이 김 여사를 어떤 혐의로도 기소하지 않았으나 공범으로 의심받는 권	최영옥	
880	2024-09-22 18:18	한동훈 '尹 독대 요구'에 … 즉답 피한 용산 "상황 보겠다"??????????	?????	최영옥	

881	2024-09-22 18:59	사진용 회식만 중요하고 진짜 민심 청취할 생각 1도 없고 ㅉㅉ 상황 지켜보자? 그토록 한가한가? 어찌 그리 답답한지 만약에 독대를 안하고 만찬 사진이 필요한거면 그냥 친윤들이랑 따로 만찬해라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를 외롭게 두지마라(?)등 떠들어라 왕따 시키라는 표현을 그렇게 에둘러 표시하는 사람이 대통	사진용 회식만 중요하고 진짜 민심 청취할 생각 1도 없고 ㅉㅉ 상황 지켜보자? 그토록 한가한가? 어찌 그리 답답한지 만약에 독대를 안하고 만찬 사진이 필요한거면 그냥 친윤들이랑 따로 만찬해라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를 외롭게 두지마라(?)등 떠들어라 왕따 시키라는 표현을 그렇게 에둘러 표시하는 사람이 대통령 이라니..참으로 답답하다	한지윤	
882	2024-09-22 19:01	애초에 독대요구 용산에서 흘려놓고 한동훈이 언플한다고 뒤집어 씌우다가 들통나니 슬그머니 거두고 다시 요청 못받았다 언플 하다가 그것도 기사 정정. 용산엔 라인이 몇	“전력 공급이 중요한 AI 시대엔 송전망 확충이 절대 필요하다. 원전도, 송전망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성장을 위한 생산력 증대의 해법도 결국 AI 혁명에 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클라우드 모델은 미·중 경쟁이 치열하고 미국이 이미 선점했으니 우리가 끼어들기 어려울지 몰라도, 애플리케이션 같은 모델은 아직 기회가 있다고 본다. 정치가 혁신을 방해하지 말고, 인프라와 특화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사람이 대통령 해야 나	한동훈	삭제
883	2024-09-22 19:03	??대통령실, 한동훈 '대통령 독대 요청'에 "상황 지켜보자"??	??	진은정	삭제
884	2024-09-22 19:07	매일) 의료대란 논의차 韓 독대요청에 대통령실 부정적 일부 참모는 " 수밥 잭 뽀리냐" ???	???	진은정	삭제
885	2024-09-22 19:09		의료대란이지 무슨 의료 개혁이래 누가 증원하지 말랬냐? 팩트체크 다 됨 대통령실발 언플 ㅋㅋ"의료 개혁"을 의논한다고 한게 용산에서 독대요청온거 흘린 증거임. 기사 나고 바로 장9%찬 튀어나온것도 앞뒤가 맞음 용산은 그런식으로 언플하는거 사람들 다 아니까 좀 그만 나대고 사진찍으러 만나는거 아니면 독대해서 현안논의나 하라 세금으로 밥술 먹	허수옥	
886	2024-09-22 19:10	한동훈의 식견, 교양을 보면, 이제야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정치인이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 수준낮은 범죄자는 감빵에 가고, 새 정치인 한동훈이 공공선을 행하는 날은 언제 올까. 진정한 공화주의자 한동훈을	지금까지 살면서 한동훈 대표같이 멋지고 훌륭한 정치인 처음본다. 천재적인 명석한 두뇌, 미래를 볼수있는 통찰력, 탁월한 유능함, 선한 인성, 선민후사의 정신, 논리적인 뛰어난 언변,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능통한 영어실력, 깨끗한 인성,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라는 국가지도자로서의 마인드, 미래의 먹거리를 찾으며 국가의 미래를 대비할수 있는 혜안, 귀티나는 멋진 외모, 국민들에게 신선한 산소같은 귀한 존재다. 대한민국을 훌륭하게 통치할수있는 훌륭한 차기 대통령감으로서 최고의 인재다. 한동훈이 차기대통령인 나라	한지윤	

887	2024-09-22 19:14		기사가 어제 <최초 독대 단독 기사>인데 김건희측(친윤)쪽에서 흘린거임 친한계는 요즘 대체로 '의료대란' 워딩을 쓰는데 친윤쪽은 무조건 '의료개혁' 워딩을 씀 그리고 '여권핵심관계자' 워딩은 항상 친윤쪽이였음 이 기사 뜨자마자 김건희의 입 장예찬이 튀어나온것도 그렇고 김건희쪽에서 소스 흘리고 친한측에서 크로스체크해준거임. 매번 이런식으로 김건희가 흘리고 한동훈한테 프레임 씌우고 반복함 ㅋㅋ	허수옥	
888	2024-09-22 19:16	우파는 윤통부부에게 당했다. 이재명만 아니라면 좋다는 생각으로 윤통을 찍은 유권자가 많다. 지금대로라면 앞날이 뻔하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진리를 알게 했다.	윤석열은 아직도 자신을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해주고 검찰총장까지 시켜 준 문재인의 사람이 아니라고 볼만한 증거가 안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김태우를 사면/복권시켜 준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군이 공천까지 한 것을 비롯, 주요 정치적 고비마다 자살골을 넣은 것을 보더라도 그런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한동훈	삭제
889	2024-09-23 17:00		윤석열 주변에 이런 쓰레기 아첨꾼 밖에 없으니 대통령 지지율이 20%밖에 되지 않지 의료대란을 대란이라고 생각 하지 않고 대통령 지지율20% 를 별일 아니라고 생각 하는 이 상한 상황을 대통령 실망 정상으로 생각 하는 신기한 상황이다	허수옥	
890	2024-09-23 17:01	당원들 인내심 한계에 도달할듯 만찬? 내 세금으로 술 밥 처드시지 마시고 취소하세요 무슨 국민 힘든데 밥타령인가요? 여당대표랑 밤새서	지지율도 서로 개판이고 여당대표가 대통령에게 대화하자는데, 그게 불편하면 뭐 어쩌하는거? 그냥 그런게 다 불편하면 자리 내려놓고 일반인으로 편하게 살아야지?	한지윤	

891	2024-09-23 17:05	김건희 여사에 냉랭한 민심을 어떻게 극복할지야말로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급한 현안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명품백 사건 대국민사과 및 제2부속실 설치 등 국민감정을 가라앉힐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속출하고 있다. 정치권은 새로운 의혹인 김 여사의 총선공천 개입설로 시끄럽다.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경남 창원의창 재보선 때 공천을 보장받았고 배후에 김 여사가 있었다는 등 보도가 이어지고 있	김건희 여사에 냉랭한 민심을 어떻게 극복할지야말로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급한 현안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명품백 사건 대국민사과 및 제2부속실 설치 등 국민감정을 가라앉힐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속출하고 있다. 정치권은 새로운 의혹인 김 여사의 총선공천 개입설로 시끄럽다.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경남 창원의창 재보선 때 공천을 보장받았고 배후에 김 여사가 있었다는 등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예단할 순 없지만 또 하나의 정국불안 요인이 추가된 것이다.	최영옥	
892	2024-09-23 17:11	생중계 런친 이재명 vs 한동훈 무서워 돌대런친 윤대통령님	국민들은 누가 낫다고 할지 부끄럽네요	-동훈	삭제
893	2024-09-23 17:37	당장 10월 재보선을 앞둔 여당은 1년 전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처럼 용산에 끌려갈 것인가. 언론에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공개 비판한 대로 한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방향 쇄신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민심수습 의지를 보여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비상시국임을 인식하고 국민 마음을 되돌려 국정동	당장 10월 재보선을 앞둔 여당은 1년 전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처럼 용산에 끌려갈 것인가. 언론에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공개 비판한 대로 한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방향 쇄신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민심수습 의지를 보여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비상시국임을 인식하고 국민 마음을 되돌려 국정동력을 찾을 해법이 뭔지, 밤샘 회동을 불사한 채 고민하기 바란다.	최영옥	
894	2024-09-23 17:39	당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요청 했을뿐인데 구태들이 다 들고일어나네요 진금이 완전시대입니까?	명태균 김건희 공천개입부터 여조게이트가 터지는데 윤석열한테 목줄 잡힌 개처럼 시도지사들이 이러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한지윤	
895	2024-09-23 17:40		자당의 당대표를 만나지 않겠다는 대통령.. 이게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윤석열 김건희씨가 당에서 나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보수우파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일은 절대 오지 않는다	허수옥	
896	2024-09-23 18:12	한동훈, 대통령실 독대 거부에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들 있어"	.	진은정	삭제

897	2024-09-23 19:10	김건희 특검 부결시키기만 해봐라 추경호!! 너는 그냥 원내 사퇴해라 지금 보수 지지층이 먼저 나설판이	.	한동훈	삭제
898	2024-09-23 19:11	“오늘 내일은 대통령과 체코의 시간…성과 묻혔다” 독대 요청 한동훈에	ㅋㅋㅋㅋㅋㅋ	진은정	삭제
899	2024-09-23 19:11		김건희 사과하라고 하고, 용산이 민심을 모른다고 한 인터뷰기사에 격노했군. 간장종지네. 덩치값을 해라. 만찬 통보도 집토끼 향한 여조 미끼였어 지지율바닥이니 만찬으로 사	허수옥	
900	2024-09-23 19:17	[사설] 윤·한 회동, 밤샘 논의라도 해서 정국해법 찾아라--> 오전 사	:::	최영옥	
901	2024-09-23 19:18	딸랑딸랑 친윤들과는 술파티 민심 쓴소리 듣기 싫어 런하는거 실화냐 ㅋㅋㅋ 윤석열 김건희 탈당해라 그리고 추경호 특검 통과 안시키기만 해봐라 당원들 진짜 당사로 달려간	김건희 제지 못하면 보수 진짜 그냥 망한다 지금 하는 짓을 봐라	한동훈	삭제
902	2024-09-23 20:25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과 내일은 대통령과 체코의 시간”이라며 “독대 요청 기사가 나오면서 체코 성과가 묻혔다”고 말했다ㅋㅋ	ㅋㅋㅋㅋㅋ	진은정	삭제
903	2024-09-24 2:35	김건희씨 공천 개입은 나온거만으로도 게이트네.충격.. 결국 윤석열이 문제지 ㄱㄱㅎ씨를 컨트롤 못한다는거고 권력 휘두르게 놔두는게 윤석열이니까....근데 다른거보다 국힘 자체에 절망하게 된다. 어떻게 저런 무식한 분에게 잘보이려고 설설 길수가 있냐.... 입바른 소리 한다는 이준석이고 김웅이고 다 저사람한테 굽신거린단게 어처구니가 없음 ㅎㅎㅎ 그저 밖에서 가끔 입이나 터는 새보계열 인사들도 그렇고	충격.. 결국 윤석열이 문제지 ㄱㄱㅎ씨를 컨트롤 못한다는거고 권력 휘두르게 놔두는게 윤석열이니까....근데 다른거보다 국힘 자체에 절망하게 된다. 어떻게 저런 무식한 분에게 잘보이려고 설설 길수가 있냐.... 입바른 소리 한다는 이준석이고 김웅이고 다 저사람한테 굽신거린단게 어처구니가 없음 ㅎㅎㅎ 그저 밖에서 가끔 입이나 터는 새보계열 인사들도 그렇고 그냥 국힘은 망한거 같다 한동훈만 아니면 그냥 접을 당원들이 비율적으로도 내 주위에 80%는 넘음..	한동훈	삭제

904	2024-09-24 9:32	그냥 여당 내의 친윤 패거리들과 만찬하라고 해라. 밥 못 먹고 죽은 귀신들이 있나 그저 밥만 처 먹을 생각에 다른 것의 관심은 전혀 없네. 이참에 윤통과 친윤들은 탈당을 시	속알머리 없는 행태다. 크게 양보하여 시간 좀 내어 주는 큰 정치를 할수 없을까.저러니 대통령이고 당이고 지지율이 그모양이지.한심하다.	한동훈	삭제
905	2024-09-25 11:33	독대전에 의제를 전달했겠지 윤석열이는 그걸 김건희한태 말했을거고 김건희가 안돼하니까 안된거야 용산에서 유능한 참모가아무리 떠들어봐야 윤석열이는 집에가서 마누라에게 결제받지못하면 그대로 흐지부지야 지금상황이 그런거다 지금현재 나라가 김건희 머리로 굴러가니 엉망인거다 나라가살려면	독대전에 의제를 전달했겠지 윤석열이는 그걸 김건희한태 말했을거고 김건희가 안돼하니까 안된거야 용산에서 유능한 참모가아무리 떠들어봐야 윤석열이는 집에가서 마누라에게 결제받지못하면 그대로 흐지부지야 지금상황이 그런거다 지금현재 나라가 김건희 머리로 굴러가니 엉망인거다 나라가살려면 김건희를 격리시켜야된다.	한동훈	삭제
906	2024-09-25 11:36	조선일보) 마포대교에 나타난 김 여사 두문불출 끝에 명품백 불기소 권고 나자 거침없이 등장한 것처럼 비쳐 지지율 낮은 대통령 등 떠밀어 더 밀어내리는 역효과	대통령 성격상 부인 문제 언급을 기피해왔다. 그러다 보니 '김건희 여사가 권력 서열 1위'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9·10 마포대교 행보'는 그 루머를 기정사실화하는 이미지로 비쳐지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선출된 권력이 아닌 영부인이 누리는 권력 떡고물은 사실 대통령이 제대로 기강 잡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것이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인데 반지성주의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도 했다.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로 체제를 갖추지만 제대로 작동하려면 법 이전의 규범이라는 연성 가드레일이 탄탄하게 떠받쳐야 한다. 대통령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로 자꾸 논란을 자초하는 부인에 좀더 엄	진은정	삭제
907	2024-09-25 11:38		독대언플도 김건희가 흘린거라고 팩첵됨 독대못하게 막으려고 김건히 리스크에 대한얘기 김건희공천개입 대통령실은 윤석열에게 제대로 보고나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네	허수옥	

908	2024-09-25 14:17	한동훈 대표님이 고생이 넘 많으십니다.. .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당대표와 독대도 하지 못할만큼 그렇게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있나요? 진짜 무슨 딴세상에 사는 대통령 같습니다. 친윤들이랑은 따로 만찬도 가졌으면서 왜 한대표님이랑은 독대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까? 의정갈등도 대통령실이 제대로 해결도 못하면서 뭐 어쩌자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한대표가 들려주는 진짜 민	한동훈 대표님이 고생이 넘 많으십니다.. .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당대표와 독대도 하지 못할만큼 그렇게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있나요? 진짜 무슨 딴세상에 사는 대통령 같습니다. 친윤들이랑은 따로 만찬도 가졌으면서 왜 한대표님이랑은 독대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까? 의정갈등도 대통령실이 제대로 해결도 못하면서 뭐 어쩌자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한대표가 들려주는 진짜 민심을 듣기가 두렵겠지요 간신들만 끼고 살다가 어떻게 되시려고	한동훈	삭제
909	2024-09-25 14:19	사설] 민심 이반이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국정운영 책임자의 임무를 더 이상 방기할 시간이 없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대란과 고물가에 신음하는 민생 경기는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만찬으로 성난 민심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기대했다면 오산이다. 한 대표가 만찬 직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대통령과 현안을 논의할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다행이다. 윤 대통령은 고언을 더 이상 피하지 말아야 하고, 한 대표는 독대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대통령과의 소통에 팔을 걷어야 한다. 민심 이반이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국정운영 책임자의 임무를 더 이상 방기할 시간이 없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진은정	삭제
910	2024-09-25 14:22	일은 관심없고, 회식에만 진심인 대통령... 국민의 살과 뼈가 타들어가는데 피가 흘러 넘치고 있는데, 그걸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 하는 건	얼마나 잘못한게 많으면 독대가 궁지에 몰아넣는거라고 느끼냐 한동훈이 전달할 민심이 무서운거지?	한지윤	
911	2024-09-25 20:44	김건희 특검 통과시켜라 더이상 못참겠다 무슨 서시도 아니면서 나라	..독대는 커녕 만찬90분 내내 김건희 언급 막으려고 필리버스터한 밴댕이 정치를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이 시기에 밥먹고 사진찍자고 부른거면 윤석열은 대통령 그만두고 식당이나 차려라	한동훈	삭제
912	2024-09-25 20:47	박선원 “윤 대통령, 의료 대란 와중 3주 연속 골프라운딩” 사실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과 의료 대란으로 어수선하던 지난달과 이달초 3주 연속으로 전국의 군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현 국방부장관에 대한 질의 도중 “올해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UFS 연습 기간이었고 24일은 부천 호텔 화재 사건의 사망자 추도기간이었다”라며 “하지만 대통령이 24일 성남 한성대, 31일 서울 태릉, 9월 7일 남수원 골프장에서 기존 예약자를 물리치고 골프를 쳤다는 제보가 있다”고	진은정	삭제

913	2024-09-25 20:48		계속된 독대요청도 발로 걷어차면 좀비한테 물린 마치광이 왕이라 생각하고 플랜B 생각해라 한명때문에 다같이 망할순 없다	허수옥	
914	2024-09-25 20:49	보수는 빨리 한동훈을 내세워 재편해야 한다 그게 보수가 사는 길이다 이 인터뷰만 봐도 이정도 인물이 보	한동훈은 더럽고 무식한 정치판에서 놀기엔 너무 깨끗하고 똑똑하다	한지윤	
915	2024-09-25 21:04	[사설] 눈덩이처럼 커지는 '김건희 여사 의혹' 심상찮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설은 여당을 흔드는 악재다. 한 인터넷 매체는 김 여사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경남 창원 의창에서 김해갑으로 옮기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김 전 의원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을 논의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김 여사가 실제로 텔레그램을 보냈다면 명백한 월권이다. 영부인이 무슨 자격으로 공천에 개입한단 말인가. 최근에는 경기 용인갑에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대통령실 전 행정관이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여당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으나 뒷맛이 개운치 않다. 국민은 "김 여사가 뭘 하고 다니길래 구설수에 휘말리느냐"고 묻는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독대를 거부했다. 김 여사 이슈를 논의하려던 한 대표 입을 봉쇄한 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김 여사 의혹을 방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원로들은 "집권 세력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로 사회 기강이 허물어진다"고 비판했다. 민심 이반이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최영옥	
916	2024-09-25 21:06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 이야기를 듣는 것인가? 어제도 오늘도 홍준표 이철우 김재원 장예찬 등이 총공세하더만 간신들이 ㅈ명이1심선고나면 국면전환 되니 한 패싱하라 그러디? 설령 선거법 1심 실형을 받아도 윤 비호감도 때문에 묻힐꺼 같아 걱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 이야기를 듣는 것인가? 어제도 오늘도 홍준표 이철우 김재원 장예찬 등이 총공세하더만 간신들이 죄명이1심선고나면 국면전환 되니 한 패싱하라 그러디? 설령 선거법 1심 실형을 받아도 윤 비호감도 때문에 묻힐꺼 같아 걱정이다 벌거벗은 대통령아	한지윤	
917	2024-09-25 21:07		윤 대통령 성격상 부인 문제 언급을 기피해왔다. 그러다 보니 '김건희 여사가 권력 서열 1위'라는 둥 터무니 없는 소문이 나돌았다. '9·10 마포대교 행보'는 그 루머를 기정사실화하는 이미지로 비쳐지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선출된 권력이 아닌 영부인이 누리는 권력	허수옥	
918	2024-09-25 22:44	무능한 뙈지가 작부 치마폭에 쌓여 당 망치는구나	개듕신	진형구	

919	2024-09-25 22:51	윤석열 김건희 쌍판으론 선거 절대 못이깁니다	공감하시는분 추천!	진형구	
920	2024-09-25 23:08	[사설] 눈덩이처럼 커지는 '김건희 여사 의혹' 심상찮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독대를 거부했다. 김 여사 이슈를 논의하려던 한 대표 입을 봉쇄한 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김 여사 의혹을 방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원로들은 "집권 세력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로 사회 기강이 허물어진다"고 비판했다. 민심 이반이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영부인 때문에 국정이 혼란스러우면 그 피해는 국민 몫이다.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결	최영옥	
921	2024-09-25 23:41	더이상 윤건희 방어해주면 안됨 당이 진짜 망가짐	걍 뒤지라고 냅둬야됨	진형구	
922	2024-09-26 0:06	선거개입 전당대회개입 이런 잡종련을 본적있슴니까	보다보다 이런 개잡종은 처음봅니다	진형구	
923	2024-09-26 16:50	추경호씨 사퇴하세요 그리고 웃기네요 오늘 의총 한대표하고 다 악수하고 싶어하는거 본인이 막는거 영	.	한동훈	삭제
924	2024-09-26 20:58	정부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입찰 마감 시점이었던 올해 4월 체코 정부 측에 원전 건설 과정에서 금융	7월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때만 해도 "체코 정부가 원전 건설 자금을 자체 조달할 계획이며 금융 지원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정부가 석 달 전에 금융 지원 카드를 제시	최영옥	
925	2024-09-26 21:07	윤석열 대통령님 벌거벗은 임금님 같다는 말이 돈다. 나라보다 마누라가 더 중요하고 피흘리며 죽는 국민보다 고기와 술이 중요한인간.. 통	윤석열 대통령님 벌거벗은 임금님같다는 말이 돈다. 나라보다 마누라가 더 중요하고 피흘리며 죽는 국민보다 고기와 술이 중요한인간.. 통탄스럽다-어르신 댓글 ㅠㅠ	한지윤	
926	2024-09-26 21:08		✔윤석열 본인도 친문 양정철 라인이다. 사시 9수하고 지방 전전하던 검사가 공무원 중립의 의무 위반하고 박근혜 퇴진 집회 다닌 걸로 친문 양정철 눈에 들어서 양정철이 문재앙에게 추천해서 낙하산으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꽂혀 벼락출세했다 ✔문재앙 대선 선거조작범 친문 김경수를 사면해준 것도 모자라서 선거 출마 가능하도록 복권까지 해 준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다 ✔총선 후 윤석열은 친문 양정철을 비서실장, 문재앙 정권 장관 출신 박영선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려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철회했다 당시 박영선은 미	허수옥	
927	2024-09-26 21:09	여권 블랙홀 된 金여사 문제, 방치할수록 상황 악화한다[사설]	김 여사가 최근 공개 활동에 나서면서 경찰관에게 지시하는 듯한 장면이 노출되는 등 여론이 더욱 나빠졌다. 추석 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한국갤럽)에 겨우 턱걸이했는데, 이번 주 정기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측면의 풍설들이 사실 여부를 떠나 예사롭지 않다. 이대로 방치하면 수그러들긴커녕 머지않아 수습이 불가능할	진은정	삭제

928	2024-09-26 21:20	윤통 당신은 지금 벌거벗고 있소! 당신 옆의 십상시, 문고리 삼인방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소. 하지만 나중에라도 그들을 탓하진 마쇼. 왜냐면 그들을 그렇게 만든건 당신이니까. 오만과 독선, 고집불통은 흔들림없는 강력한 통치력이 아니라는 걸 너무 늦지않게 알길 바라오.	결국 마지막 기회를 놓친거다 대화하자는 당대표인 한동훈이야 성과가 없어도 하려고 하였으니 잘못이 없는거고 모든 국정 운영의 난맥상과 직면한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는 오로지 윤석열한테 집중될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모두 지켜보고 있다 경제는 어렵다못해 바닥이고 아무 문제없던 의료대란을 일으킨 주범은 대통령인 윤석열이고 배우자 하나 제대로관리 못해서 국정 개입에 공천 개입운운까지	한동훈	삭제
929	2024-09-26 21:20	한 대표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표결되기 전에 수습책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제에 의료 사태와 더불어 김 여사 문제를 포함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도 있다. 대통령실은 겉으론 형식과 절차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지만, 실제론 김 여사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되레 당이 야당의 거짓 공세를 막아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한다. 그러나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사안에 대한 결	한 대표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표결되기 전에 수습책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제에 의료 사태와 더불어 김 여사 문제를 포함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도 있다. 대통령실은 겉으론 형식과 절차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지만, 실제론 김 여사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되레 당이 야당의 거짓 공세를 막아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한다. 그러나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사안에 대한 결정을 미적거리는 바람에 문제가 갈수록 꼬였다. 급기야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정이 정반대로 나오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있어서도 법원이 다른 전주(錢主)의 '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검찰 부담이 더 커졌다.	진은정	삭제
930	2024-09-26 21:21		▶ 한동훈 "북한은 주적이고 자유·민주 수호 위해 국가보안법 필요"(2022.05.07 조선일보) ▶ 한동훈, 중국에 기밀 유출시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 추진(2024. 03. 04 동아일보) ▶한동훈 "총선 승리 후 국정원 대공 수사권 복원할 것"(2024. 03. 07 조선	허수옥	
931	2024-09-26 21:23	윤석열 하면 떠오르는 것은 소통의 아니라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다. 국민들이 의료대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없이 오기만 부리고 있다.이제는 민심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갈길 가겠다	밥 먹는거 가지고 유세 떨고.... 여당 대표가 인사말 정도도 못하게 히는 ....치사럽고 옹졸한 대통령 이다.	한지윤	

932	2024-09-26 21:24	커지는 '김건희 리스크'…특검 찬성 여론 65%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NBS)가 26일 내놓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은 65%로 반대 24%에 세 배 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70대 이상(찬성 32%·반대 50%)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특검 찬성 여론은 60%를 넘겼다. 보수세가 강한 TK(58%)와 부산·울산·경남(58%)에서도 찬성 여론이 과반을 차지했다. 정권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 중이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론은 25%에 그쳤다. NBS 조사 역대 최저치다. 8월 2주 조사부터 4회 연속(29%→27%→27%→25%) 추락하면서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TK에서도 긍정 평가는 39%에 그쳤다. 보수	최영옥	
933	2024-09-26 21:26		✔김건희는 윤석열이 국힘 대선후보일 때 좌파 서울의 소리 기자와 7시간 수다 떤 녹취록에서 "우리 남편은 문재인 최고 충신이에요.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에요"라고 말했다 ✔윤석열은 민주당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국힘으로 왔고 자기가 국힘 뽀개버릴 거라고 말한 녹취록이 있다 ✔윤석열은 당선 되자마자 민주당 당대표 출신 김한길을	허수옥	
934	2024-09-26 21:26	좁쌀보다 더한용산....여당대표마저 만남을 거부하면 도대체 누구랑 같이 정치를 논합니까??주위에 아부꾼들하고만 정치 하십니까???공간을 내어주세요..여당대표가 일 할.	한대표 만나서 부부 사랑 눈물 겨운거 알려줘도 공정한 한대표 통하지 않으니 안만나주는 듯...그래도 어쩌겠어..... 몇번이고...요구하시고.국민이 다 알고 있을거라고 판단합니다.	한지윤	

935	2024-09-26 21:31	야당에 잔꾀에 속아넘어간 국힘원내 추경호 사퇴하라.	尹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 할수 있는 처지 아니다"…'김건희 문제' 조언 손사래 이런 여사의 '과한 소통'을 제어할 사람은 사실상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여사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로 존중해 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게 여권의 일치된 전언이다. 윤 대통령을 만난 법조계 선배들이 김 여사와 관련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면 대통령은 "선배님, 저한테 앞으로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고 답한다는 것이다. 통화 도중 여사 문제를 조언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비서진들이 '여사 문제'만 거론 되면 "그 얘기 내게 하지마"라고 손 사레를 치는 이유다.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겠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과 독대 시 건의할 리스트에 여사 문제는 제외했다고 한다. 국민 입장에선 가장 먼저 거론돼야 할 사안이 가장 먼저 빠진 셈이니 독대가 성사돼 봤자 무슨 성과가 날지 의문이다. 김 여사는 며칠 전 "꼭두새벽에 개 끌고 산책 나가 경호진을 고생시켰다"는 구설에 올랐다. 알고 보니 추석 연휴에도 관저 경호하느라 수고하는 군인들에게 간식을 갖다 준 행보가 왜곡돼 전달된 것이었다. 인근 주민 불편을 줄여주려고 일부러 늦은 시각을 택했다는 것이다. 답은 여기에 있다. 김 여사 스타일을 보면, 소통 욕구가 상당하다. 그건 나쁜 게 아니다. 그러나 정치인들과의 문자나 통화는 아무리 좋은 뜻에서 했어도 국정 개입 구설수를 야기	한동훈	삭제
936	2024-09-26 21:31	김 여사가 최근 공개 활동에 나서면서 경찰관에게 지시하는 듯한 장면이 노출되는 등 여론이 더욱 나빠졌다. 추석 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한국갤럽)에 겨우 턱걸이했는데, 이번 주 정기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측면의 풍설들이 사실 여부를 떠나 예사롭지 않다. 이대로 방치하면 수그러들긴커녕 머지않아 수습이 불	김 여사가 최근 공개 활동에 나서면서 경찰관에게 지시하는 듯한 장면이 노출되는 등 여론이 더욱 나빠졌다. 추석 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한국갤럽)에 겨우 턱걸이했는데, 이번 주 정기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측면의 풍설들이 사실 여부를 떠나 예사롭지 않다. 이대로 방치하면 수그러들긴커녕 머지않아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할 수도 있다.	진은정	삭제

937	2024-09-26 21:42	"명태균, 김 여사 통화 들려줬다"‥계속되는 폭로 "국감 나갈 것"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뉴스토마토' 보도의 제보자로 알려진 E씨가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E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정황과 관련해 국감장에서 증언하겠다"며 "그동안 김 전 의원, 명 씨 등과 나눈 전화통화 녹음파일들도 모두 내놓고 진실을 숨김없이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씨는 "김영선과 명태균 같은 사람이 다시는 정치판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고 싶다"며 이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와 10년가량 일한 뒤, 그의 주선으로 김 전 의원실에서 비서관과 보좌관을 지낸 E씨는 "상석에 명 씨가 앉고 김 전 의원이 옆자리에 앉거나,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 욕을 하는 등 두 사람의 뒤바뀐 주종 관계를 가만히 두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E씨는 김건희 여사와 명 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사무실에 온 공무원들에게 김 여사와 통화한 음성녹음을 들려줘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통화 내용은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씨는 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명 씨 요청으로 김영선 전 의원이 다리를 놔줬고, 이후 명 씨가 당시 윤 총장에게 대선 출마를 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당시 명 씨가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비공표용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갔다고 들었다며, 윤 대통령 부부는 명 씨의 여론조사를 신뢰했다고 주장했습	최영옥	

938	2024-09-27 8:32	국힘 전의원 페북) 한동훈 대표는 꼼수나 트릭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시점상으로도, 언론보도를 보고 면담을 거절한 게 아니라 면담 거절 후에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언론보도 후에 귀국 비행기 안에서 대통령께 면담 요청 사실이 보고 됐다고 하는데, 통상 대외일정 중이라도 중요한 사안은 현지에서 대통령께 바로 보고된다. 대통령이 싫어하는 보고라서 보고 시점을 늦췄다고 한다면, 경직된 분위기를 만든 대통령도 문제지만, 그런 눈치꾼, 아부	한동훈 대표는 꼼수나 트릭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시점상으로도, 언론보도를 보고 면담을 거절한 게 아니라 면담 거절 후에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언론보도 후에 귀국 비행기 안에서 대통령께 면담 요청 사실이 보고 됐다고 하는데, 통상 대외일정 중이라도 중요한 사안은 현지에서 대통령께 바로 보고된다. 대통령이 싫어하는 보고라서 보고 시점을 늦췄다고 한다면, 경직된 분위기를 만든 대통령도 문제지만, 그런 눈치꾼, 아부꾼 참모는 잘라야 하고, 스스로 그만두게 해야 한다. 체코 방문 성과도 희석되거나 덮이지 않았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급히 일정을 잡아 체코로 날아갈 때부터 웨스팅하우스의 방해공작으로부터 원전사업을 지켜내려는 뜻을 알았고, 계약에 쐐기를 박고 돌아오는 것도 알고 있다. 면담 논란과 관련하여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다. 면담 거절은 국민의 눈에 대통령이 협량(狹量)한 소인배로 보이게 한다. 소아(小我)에 사로잡혀 대의(大義)를 그르치는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 사소한 감정을 못 다스려 국정을 파행시키는 지도자로 보이게 한다. 지지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부터 빠져나가는 것은 정권을 지탱해온 고정 지지자들이다. 권력은 자리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민심(民心)이다. 민심이 권력의 실체고, 근원이다. 민심이 빠져나가면 권력은 껍데기만 남고, 나중에는 그 껍데기마저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과 그 주변은 이 이치를 잘 모른다. 달력에 적혀있는 임기만 보고, 민심의 이탈과 함께 권력의 쇠퇴와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못 본다. 지금 국면은 정권이 브레이크 파열 상태에서 하향 질주하는 형세다.	최영옥	

939	2024-09-27 8:36	지금은 인내가 필요한 시기.. 맞습니다 대표님. 온갖 수모에도 꿋꿋하게 버텨내는 것으로 한동훈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대표님 정치 길에 큰 거름이 되고 더 깊고 폭넓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 국민만 보고 정진하세요. 1년뒤 과연 정치인 한동훈이 얼마나 더 깊이있고 넓고 큰 사람이 되어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반듯하게 자라 자기 분야뿐만 아니라 예술도 알고 책도 읽고 또 부	지금은 인내가 필요한 시기.. 맞습니다 대표님. 온갖 수모에도 꿋꿋하게 버텨내는 것으로 한동훈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대표님 정치 길에 큰 거름이 되고 더 깊고 폭넓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 국민만 보고 정진하세요. 1년뒤 과연 정치인 한동훈이 얼마나 더 깊이있고 넓고 큰 사람이 되어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반듯하게 자라 자기 분야뿐만 아니라 예술도 알고 책도 읽고 또 부족한 부분을 늘 배우고 귀를 열고..그런 새로운 지도자를 가져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야 합니다.	한지윤	
940	2024-09-27 8:37		말 하나하나 다시 보게 만드는 지금껏 한 번도 본적 없지만 어렴풋이 기다린 정치인이 나타난거 같아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더 힘들겠다 싶기도 하다. 그럼에도 바른 정치인이 잘 돼서 좀 더 나은 나라가 되길 기대합니다. 결국 다 잘 될겁니다	허수옥	

941	2024-09-27 8:38	[사설] 'VIP 격노설'이 안보사항이라 사실 여부 답할 수 없다니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군사법원의 서면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한 수사에 대통령의 격노 여부가 왜 국가안보 문제라는 건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 외압의 배후임을 시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제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 8차 공판에서 박 대령 측이 재판부를 통해 신청한 사실조회에 윤 대통령 측이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한 서면 답변이 공개됐다. 사실조회 내용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는 격노 발언을 대통령이 했는지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했는지 △대통령실 내선번호(02-800-7070)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지 등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답변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응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는 짤막한 한 문장이었다. 사실조회를 신청받은 당사자가 답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대통령 격노 후 임성근 전 사단장이 피의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수사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그런 발언을 정말 하지 않았다면 부인을 하면 될 일이다. 그러면 외압 의혹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5월 기자회견에서 격노설 진위와 관련 "(이 전 장관에게) 왜 무리하게 진행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고 질책성 당부를 했다"고 동문서답을 하는 등 지금까지 명시적으로 발언을 부인한 적이 없다. 그래 놓고 이번엔 국가안보 핑계까지 대니 군색하기 짝이 없다. 이러면 격노 사실이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진은정	삭제
942	2024-09-27 9:22		일이란 적시가 있는 법, 이미 때를 놓쳤음.. 조금이라도 국힘 궤멸 피할 방법은 특검 받고 모든걸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다. 사과를 원하는 국민 없음. 그리고 국힘은 한대표 중심으로 물청라 조금이라도 살리고싶으면	허수옥	

943	2024-09-27 9:37	민심이 용산부부에게 등을 돌렸는데도 한자리 받으려고 딸랑대는 추경호 권성동 김재원 이철규 같은 친윤들이 문제고, 절대 바뀌지않는 용산부부는 희망이 없다 보수와 대한민국이 그래도 견디는건 한동훈이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대표님 힘내	사람의 겉을 보고 말만을 듣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말의 깊이와 품격, 지적 능력과 가치관이 한데 어우러져 말을 하는 사람을 한동훈에게서 처음 느낀다...지금 시중에 떠도는 질나쁜 싸구려 사기꾼 같거나 너무 닳아 빠졌거나 너무 막돼먹은 정치리더들과 다르게 품격있는 정치를해주길 희망한다	한지윤	
944	2024-09-27 9:46		힘들겠지만 그길 포기하지말고 계속 가줘요 윤석열에만 충성하는 국힘은 필요없어요 우파를 재건하랬지 누가 국힘을 사당화하랬나? 대중에게서 멀어지는 정당은 존재의미가 없습니다	허수옥	
945	2024-09-27 9:48	'김건희 특검법' 찬성 65% 반대 24%…보수·영남도 찬성 우세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5%, 반대한다는 응답은 24%로 조사됐다. 이념별로는 진보 성향 지지자의 경우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응답이 89%, 반대는 7%였으며 중도층은 찬성 73%, 반대 18%였다. 보수층에서도 찬성이 47%로, 반대(45%)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중 85%가 찬성, 11%는 반대했으며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찬성 96%, 반대 2%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찬성 35%, 반대 56%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여권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 응답자 중 특검법 찬성이 58%, 반대가 36%였	진은정	삭제
946	2024-09-27 9:51	윤석열 김건희 부부 생각은 너도 죽고 나도 죽자인것 같다.당은 두동강 날것이고, 간신 친윤들 제거해야 우파가 산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생각은 너도 죽고 나도 죽자인것 같다.당은 두동강 날것이고, 간신 친윤들 제거해야 우파가 산다 역대 이렇게 많은 권력남용 국정개입 하는 대통령 부인을 보았는가?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습니다.	한동훈	삭제
947	2024-09-27 11:20	[사설]도이치, 명품백, 공천개입설… 갈수록 심상찮은 '여사 리스크'	정국의 핵심 악재를 대통령이 직접 풀지 못한다면 누가 해결할 수 있나. 여당은 최근 김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그동안과 달리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 따가운 민심을 의식한 행동이었다. 민심은 돌아서고 있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최영옥	
948	2024-09-27 11:33	한동훈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정성이 있지. 영리하고 지혜롭고, 강강약약이고, 공사 구분 칼같고. 왜 물러난 한동훈을 63%의 지지로 불러	어제자로 지지율은 25%를 기록했다. 박근혜의 전철을 연상케하는 수치다. 독대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윤통은 불통, 독선, 무능, 회피형 인간이라는 평가만 더해졌다. 얻은 것이 고작 이것인데, 앞으로의 대응책은 있나? 알고도 져주는 요령이 없으니 내 편조차 떨어져 나가는 중.	한동훈	삭제

949	2024-09-27 11:35	윤대통령, 통 큰 정치로 의료대란 해결해야 한다	1. 윤대통령에게 권한다. 우선 국가를 각 부서 장관 중심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통령실은 비서(srcretary)의 기능이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각부 장관을 통제, 조정하는 권력구조는 민주주의 국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이번 의료대란도 그렇다. 보건 복지부에서 의사단체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교육부에서 교수, 시설, 기자재 등을 사전 검토가 있었다면 이와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거의 백기를 들었음에도 의사단체는 직업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듯 콧방귀를 뀌는 형편이다. 의사 단체는 특정지역 출신이 장악했다는 소문까지 떠돌아다닌다. 1948년 세계의학협회는 제네바 선언을 통하여 ”의사는 인간의 삶을 최대한 존중 할 것“을 히포크라테스 선언에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의사들은 위급한 환자의 안타까운 호소를 외면하고 응급실을 떠나고 있다. 환자 곁을 지킨 의사들을 블랙리스트로 작성한 전공의가 구속되자 그를 돕자고 의사단체,	진은정	삭제

950	2024-09-27 11:37	요새 민심과 정반대로 최악의 상황으로 스스로 달려가는 용산부부, 계엄까지 얘기하며 일극체제인데도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을 보며 한국에 희망이 있을까 ? 절망적이었는데 한동훈 대표의 인터뷰를 보니 대한민국의 그저 한 명인 여당 대표 한사람인데도 그가 대한민국을 살릴 한 명이 되길 기대하게 된다 ! 정치인 답지 않게 좋은 사람인데 이런	요새 민심과 정반대로 최악의 상황으로 스스로 달려가는 용산부부, 계엄까지 얘기하며 일극체제인데도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을 보며 한국에 희망이 있을까 ? 절망적이었는데 한동훈 대표의 인터뷰를 보니 대한민국의 그저 한 명인 여당 대표 한사람인데도 그가 대한민국을 살릴 한 명이 되길 기대하게 된다 ! 정치인 답지 않게 좋은 사람인데 이런 여의도 스럽지 않은 사람이 잘 되는 최초의 인물이 되었음 좋겠다	한지윤	

951	2024-09-27 11:38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개별 면담이 결국 무산됐다. 여지를 남겨두긴 했지만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고, 실기하면 효과와 의미도 반감된다. 상대에 대한 불신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상황에서 만나도 진솔한 대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대통령실에서는 면담 거부 사유로 언론플레이와 체코 성과 희석을 들었다. 그런데 국민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게 문제다. 박정하 비서실장은 언론에 누설한 적 없다고 말했다 박정하 의원은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다.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개별 면담이 결국 무산됐다. 여지를 남겨두긴 했지만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고, 실기하면 효과와 의미도 반감된다. 상대에 대한 불신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상황에서 만나도 진솔한 대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대통령실에서는 면담거부 사유로 언론플레이와 체코 성과 희석을 들었다. 그런데 국민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게 문제다. 박정하 비서실장은 언론에 누설한 적 없다고 말했다 박정하 의원은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다. 한동훈 대표는 꼼수나 트릭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시점상으로도, 언론보도를 보고 면담을 거절한 게 아니라 면담 거절 후에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언론보도 후에 귀국 비행기 안에서 대통령께 면담 요청 사실이 보고 됐다고 하는데, 통상 대외일정 중이라도 중요한 사안은 현지에서 대통령께 바로 보고된다. 대통령이 싫어하는 보고라서 보고 시점을 늦췄다고 한다면, 경직된 분위기를 만든 대통령도 문제지만, 그런 눈치꾼, 아부꾼 참모는 잘라야 하고, 스스로 그만두게 해야 한다. 체코 방문 성과도 희석되거나 덮이지 않았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급히 일정을 잡아 체코로 날아갈 때부터 웹스팅하우스의 방해공작으로부터 원전사업을 지켜내려는 뜻을 알았고, 계약에 쐐기를 박고 돌아오는 것도 알고 있다. 면담 논란과 관련하여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다. 면담 거절은 국민의 눈에 대통령이 협량(狹量)한 소인배로 보이게 한다. 소아(小我)에 사로잡혀 대의(大義)를 그르치는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 사소한 감정을 못 다스려 국정을 파행시키는 지도자로 보이게 한다. 지지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부터 빠져나가는 것은 정권을 지탱해온 고정 지	최영옥	
952	2024-09-27 15:35	민주당이 무슨짓을해도 김건희가 다 덮어버림 이게 개같은 상황	아주 엿같은 상황입니다	진형구	
953	2024-09-28 10:56	추경호씨~ 정치선배라면서 내부 분란만 조성하시네요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 싸대기 맞을 소리 누가 하는지 자신을 돌아보세요. 눈앞에 닥친 현안들이 니들이 만들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인데 춘향전의 변사또처럼 국민들의 고	그리고 추씨가 기자들 한테 한동훈 뒷담 했는지 니가 알잖아 ? 기자들 사이 파다한데 했다 안했다 말은 안하고 왜 사무총장한테 사실관계 파악하라고 지시하냐?? 윤석열이 한동훈 무서워서 추경호랑 연락하며 소통하니까 추경호도 지가 당 대표된듯 착각하고있다 어디서 법적 조치 운운하냐?	한동훈	삭제

954	2024-09-28 10:59	필수의료 전공의가 동네 피부과로 … 뭘 위한 의대 증원인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레지던트 9016명 중 3분의 1가량이 재취업했지만 상급종합병원으로는 단 52명만 돌아오는 데 그쳤다. 상급종합병원 1곳당 1.1명꼴이다. 보건복지부의 '사직 레지던트 근무 현황'에 따르면 이달까지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레지던트 3114명 중 절반이 넘는 1719명이 동네 의원에 취업했다. 필수의료 중증 환자를 담당하던 상급종합병원 레지던트들이 경증 환자를 다루는 동네 의원으로 대거 이동한 것이다. 동네 의원에서도 수술 부담은 작고 수익은 나은 인기 진료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개원한 의원에 취업한 레지던트가 34%(587명)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내과 정형외과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가 개원한 의원에 주로 취업했다. 일반의가 피부과를 개원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피부과)·안(안과)·성(성형외과)·정(정형외과)' 의사만 급증한 셈이다. 2월 레지던트 사직률이 산부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과목에서 높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근 대통령실은 "현재 출근 중인 레지던트는 1000여 명이고, 전공의를 사직하고 신규 취업한 전공의를 포함하면 전체 레지던트의 40%가 의료 현장에 이미 돌아와 있는 것"이라며 마치 의료 현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응급실·수술실에서 근무하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 의원으로 엑소더스가 벌어진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발언이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던 의대 증원이 오히려 악화시키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문제는 의정 갈등이 조속히 수습되지 않으면 가뜩이나 부족한 필수의료 의사의 맥이 끊기게 되고, 그에 따른 필수의료 공백이 점점 심각해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3년간 10조 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중증질환 치료 병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의사 배출이 뒷받침돼야지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당정은 의정 갈등을 해결할 의지조차	진은정	삭제
955	2024-09-28 13:21	추경호는 당대표 기자들한테 뒤담화한게 해당행위 아니니? 뻔뻔한거봐. 지금 같은 시국에 만찬이랍시고. 가을밤하늘 경치가 어쩌고 하니 저런 소리가 나오지 ㅋㅋㅋㅋ 국민들은 아마 다~~ 저렇게 생각할껄? ㅋㅋㅋㅋ 국민세금으로 고기 먹고 자화자찬하고 답정너만 원하는 자리 누가 원하냐!! 신지호 잘했다. 저게 바로 민심이다.. 무슨 조선시대로 아니고 대통이 말하면 받습치고	의정갈등, 김여사논란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 이 시국에 당대표와 독대도 거부하고 떼밥먹고 돌아오는 당지도부의 마음은 무겁고 국민들께 송구스러워야 정상아닌가 그런데 최고위원이란 자가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라는 동상이몽같은 소리를 하는데 화가 나는건 당연한 거지. 나라가 어찌되든 국민이 어찌되든 대통령의 심기보전이 우선인 최고위원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한지윤	

956	2024-09-28 13:23		무능한 추경호 원내대표 사퇴가 답이라고 본다. 대통령과 여당대표 독대 정도는 원내대표의 의역에따라 죄우될수 있는것인데 아무것도 한게 없으면서 격노 하시는 추경호 국민세금으로 밥만 먹고 나오면서 가을밤 어쩌구~ 떠든게 어떤 넘인지 아니면 어떤 0인지 밝혀주세요. 국민들 모두 그런놈은 극혐합니다. 바른 말 했네. // 추경호씨는 제대로 합의도 못해 뒤통수나 맞고 뭐가 문제라고 사후 조치냐? 뒤에서 당대표 욕이나 하고 다니는 주	허수옥	
957	2024-09-28 16:32	동아) “잽을 계속 맞다가 어느 순간 쿵 하고 쓰러질 수 있다.”	“잽을 계속 맞다가 어느 순간 쿵 하고 쓰러질 수 있다.” 한 여권 인사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지는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논란이 쌓이고 쌓이다 어느 순간 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44일 뒤면 임기 반환점을 돈다. 여당의 많은 인사들이 김 여사 문제가 집권 후반기 여권의 최대 리스크가 됐다고 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 그 얼마 뒤 민주당이 또다시 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그때 여당이 부결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의혹 쌓이다 한순간 둑 무너질 수도” “당원들조차 김 여사에 대한 불만을 거침없이 드러낸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최근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진짜 안 좋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우려가 나오지만 정작 김 여사 문제 해결 방안은 “참모들이 윤 대통령과 제대로 토론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한다. 사과는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결심할 문제이지 참모들이 이러쿵저러쿵할 사안이 아니라고도 한다. 올해 초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토로한 적 있다. 김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던 때다. 언론이야 사과하라고 쓸 수 있지만 대통령이 사방에서 자신의 아내가 공격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주변에서 어떤 논리로도 대통령을 설득하기 무척 힘들다는 것이다.	최영옥	

958	2024-09-28 16:34	추경호가 사실 확인하란다. 다른데 가서 당대표 뒷다마 깐다는 추경호도 사실 확인해서 윤리위에 넘겨라. 아무리 당나라 라지만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까는건 지지자들 보기에	신지호가 틀린말 한 게 없는데? 해당행위는 보수박살내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 친윤 니들이지 어디다 뒤집어씌우냐	한지윤	
959	2024-09-28 16:35		당대표가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겠다는데 친윤 OO들은 아무때나 불러서 부어라 마셔라 만찬 하면서 지지율 20% 대통령이 아직도 주제파악 못하고 있네	허수옥	
960	2024-09-28 16:36	문화일보 30년 기자생활 중인 이현종논설위원 : 추경호 한 대표 비판하고 다녀/ 신지호: 한동훈 욕해서 당이 나아진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 << 이게 왜 문제가 되지? / 그리고 국민들은 의료대란의 불안감과 높은 물가로 힘들어하는데 국민들 세금으로 밥만 먹고 와서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였다'???? 제정신인? 이 발언한 사람	추경호는 셀프로 본인이나 윤리위 회부해라. 그리고 김재원 김민전 거짓말에 지상파 극우 유튜브 가리지않고 나가서 윤두창 억지 쉴드치며 당 웃음거리로 만들고 한대표 비방하는 것들도 윤리위 보내라	진은정	삭제
961	2024-09-28 16:41	한대표님은 사심없이 공적마인드로 공공선을 실현하려는 분이라 존경하고 지지합니다. 겸손하고 배려심 강하고 국가관이 투철하고 애국심이 강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동훈을 거절하는건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거다. 오로지 김건희를 위해 존재하는 윤통은 국민이 필요 없다 초반에 한공훈 조언을 들었다면 이 지경까지 안왔다.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면서 본인은 충성만 강요하는 윤통의 이율배반적 모습에 실망이다	한동훈	삭제
962	2024-09-28 19:51	해당행위자는 추경호씨입니다. 국민 민심을 용산에 전달하고 수습할 생각은 안하고 그저 김여사 심기경호에 방탄에만 목숨걸면서 당을 궤	그리고 방송 나가서 근거도 없이 허구헌날 당대표 인신공격 (정당한 비판이 아님) 하는 김민전 김재원이나 징계하세요 민심 이반하는 김건희씨 쉴드 적당히. 국민들 생각을 용산에 아뢰야지 간신배처럼 이따구로할거면 사퇴하던지 백령도로 가던지하세요 당대표는 왜 참겠나? 당분란을 막기위해서죠	한지윤	
963	2024-09-28 20:20	윤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는 친윤간신들 과감히 척결해야 윤대통령도 살고 국민의힘도 국민들로 부터 지지를 받을것으로 판단된다 이게 국민과 당원의 민심이라는점 명심 또 명심했으면 한	추경호씨 비롯 친윤들만 만찬때 뭐가그리 좋아서 싱글벙글 아부하느라 정신없고 정작 대표는 정권이 이래선 안되는데 안되는데 하는 표정이더라. 국정지지율 고작 20%나오는 대통령이 여당 대표 말도 듣지않는거 당원들은 절망스럽다. 108명중에 실질적인 친윤이 몇명이나 될 것 같아? 용산이나 참모들이나 상당히 겁이 없는거 같다. 좌파들이 인간취급 안하는 전두환도 국민들 눈치는 봤지 않나.	한동훈	삭제

964	2024-09-28 20:24		그리고 추경호씨 용산에 찰싹 달라붙어 국민 편 안 들고 용산의 입장 대변하면서 민심과 반대로 정치하는 건 해당행위 아닙니까???	허수옥	
965	2024-09-28 22:03	<복학생 장기표를 회상하며> 민주화운동후 보상금 안받으신건 몰랐네요 이현종 김종혁 두분도..	1990년대 초 대학생 때 어느 날 지각해서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바로 옆자리에 지금 제 나이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기표 선생이었습니다. “졸업하러 왔어요” 하시더라구요. 이십여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복학하셨던 거죠. 알려졌다시피, 장기표 선생은 그야말로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헌신하셨음에도 “국민된 도리, 지식인의 도리로서 할 일을 한 것일 뿐이고 대가를 바라고 민주화운동을 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거액의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는 것은 영예로운 일입니다만, 그 당연한 영예마저 사양한 장기표 선생처럼 행동하는 것이 더 빛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그러기 정말 쉽지 않으니까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공적 마인드를 요구받는 공인도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럴 거 같은데, 막상 닥치면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장기표 선생은 인생의 마지막 해인 올해 초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정치개혁을 주장하셨습니다. 당시 총선을 지휘하면서 바로 똑같은 내용의 정치개혁을 주장한 저는 장기표 선생의 말씀에 ”이게 옳은 길이구나“하는 안도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산 금정 재보궐선거를 응원하러 부산에 가는 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하는지 다지고 또 다지겠습니다.	진은정	삭제
966	2024-09-29 13:03	한동훈이 금투세, 국정원 수사권, 재보궐 현금살포 관련 입수 제기 하	김건희에 대한 성역에 갇힌 건 尹이다. 그래서 한동훈대표라도 용산에 김건희에대한 민심 전달과 방법모색을 위해 독대를 요청 했다더라. 추경호 나경원 같은 인간들은 주지으로	동훈	삭제

967	2024-09-29 13:04	[사설] 필수의료 전공의가 동네 피부과로… 뭘 위한 의대 증원인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레지던트 9016명 중 3분의 1가량이 재취업했지만 상급종합병원으로는 단 52명만 돌아오는 데 그쳤다. 상급종합병원 1곳당 1.1명꼴이다. 보건복지부의 '사직 레지던트 근무 현황'에 따르면 이달까지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레지던트 3114명 중 절반이 넘는 1719명이 동네 의원에 취업했다. 필수의료 중증 환자를 담당하던 상급종합병원 레지던트들이 경증 환자를 다루는 동네 의원으로 대거 이동한 것이다. 동네 의원에서도 수술 부담은 작고 수익은 나은 인기 진료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개원한 의원에 취업한 레지던트가 34%(587명)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내과 정형외과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가 개원한 의원에 주로 취업했다. 일반의가 피부과를 개원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피부과)·안(안과)·성(성형외과)·정(정형외과)' 의사만 급증한 셈이다. 2월 레지던트 사직률이 산부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과목에서 높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근 대통령실은 "현재 출근 중인 레지던트는 1000여 명이고, 전공의를 사직하고 신규 취업한 전공의를 포함하면 전체 레지던트의 40%가 의료 현장에 이미 돌아와 있는 것"이라며 마치 의료 현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응급실·수술실에서 근무하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 의원으로 엑소더스가 벌어진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발언이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던 의대 증원이 오히려 악화시키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문제는 의정 갈등이 조속히 수습되지 않으면 가뜩이나 부족한 필수의료 의사의 맥이 끊기게 되고, 그에 따른 필수의료 공백이 점점 심각해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3년간 10조 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중증질환 치료 병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의사 배출이 뒷받침돼야지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당정은 의정 갈등을 해결할 의지조차	최영옥	
968	2024-09-29 13:19	추경호원내대표는 용산설드 적당히 해라. 국민들 생각을 용산에 아뢰야지 간신배처럼 이따구로할거면 사퇴하던지 백령도로 가던지해라 당대표는 왜 참겠나? 당분란을 막기	민심은 나몰라라. 3년 가까이를 용산거수기 노릇한 秋,당신 잘한거 하나도 없다. 지금 세태를 봐라. 김건희가 안 끼어 있는 곳이 있는지. 총선개입의혹, 논문표절, 그놈의 bag, 의대2000공, 도치모터스, V1놀이...어휴 미치겠다 진짜!! 이런 여자를 고급인력국힘의원들은 3년까까이 방어만 하고도 또 하려고 한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지 당신들은? 정권재창출은 바라지도 않는다. 보수당 망하게 할거냐?	한지윤	
969	2024-09-29 13:36	조선일보--나라 장래에 대한 국민 自信感 무너진다--화약고 끼고 사는 나라 최대 현안이 대통령 부인 문제, 이게 말이 되나	전쟁의 화약고(火藥庫)를 끼고 사는 대한민국 최대 현안이 대통령 부인 문제라는 게 말이 되는가.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정치 초보 여당 대표를 나무랄 일이 아니다.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해 오로지 대통령 탄핵에 골몰하는 야당 대표를 쳐다볼 것도 없다. '모든 책임은 여기에 있다'는 대통령 책상 위 명패를 따라야 한다. 그 말의 주인공 트루먼 대통령 전기는 '트루먼은 일생 동안 아랫사람에게 격노(激怒)한 적이 없다'고 했다. 부인 문제를 푸는	최영옥	

970	2024-09-29 13:58		정치인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민의 마음을 대변해서 발언을 하는 그런 직업 윤리가 있어야 된다 신전략총장 발언이 뭐 과격해 보일 수도 있지만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 뭐가 해당행위인지 분명히 밝혀라 추경호	허수옥	
971	2024-09-29 14:24	의료대란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동분서주하는 한동훈 당대표의 외연확장과 민생정치 적극 응원합니다. 민심을 대변하고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자 애쓰는 한동훈 당대표의 안간힘	나라가 월권하는 대통령 배우자및 이를 부추기는 대통령 자체로 혼란하기 그지없는상황에서 야당대표는 이혼란을 부추기기만하고 국민걱정하는사람은 오로지 한동훈뿐이네요	한동훈	삭제
972	2024-09-29 14:30	[강천석 칼럼] 나라 장래에 대한 국민 自信感 무너진다 화약고 끼고 사는 나라 최대 현안이 대통령 부인 문제, 이게 말이 되나	과거엔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일이 언제부턴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 무슨 '징조'나 '조짐'이 아닐까 하는 겁부터 난다. '징조'나 '조짐'은 객관적 근거 없이 괜히 잘될 것 같은, 혹은 안될 것 같은 느낌을 말한다. 여기선 물론 후자(後者)다. 버티고 견디면 결국 잘 풀리더라는 나라의 장래에 대한 체험적 낙관론이 흔들린 것이다. '자신감'이 들어섰던 자리를 '불안감'이 차지했다. 전쟁의 화약고(火藥庫)를 끼고 사는 대한민국 최대 현안이 대통령 부인 문제라는 게 말이 되는가.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정치 초보 여당 대표를 나무랄 일이 아니다.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해 오로지 대통령 탄핵에 골몰하는 야당 대표를 쳐다볼 것도 없다. '모든 책임은 여기에 있다'는 대통령 책상 위 명패를 따라야 한다. 그 말의 주인공 트루먼 대통령 전기는 '트루먼은 일생 동안 아랫사람에게 격노(激怒)한 적이 없	최영옥	
973	2024-09-29 14:37		윤석열 맨날 당정은 한배 탔다고 공동운명체라고 당정일체 타령하면서 정작 당대표와는 왜 소통거부하나? 추경호같은 간신배 시켜 언플이나하고..김건희 명령임? 지금 야당이 김건희 녹취록 국정감사때 푼다고 벼르고 있고 특검 여론 더 세질텐데 이런 시국에 당대표와 민심 추스릴 대책을 논의해야지 친윤간신들하고만 소통해서 그동안 망한건데 계속 그 길을 간다하네. 우리가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뽑았나? 불통 윤통이미지는 둘째고, 매일 나오는 김건희기사가 블랙홀이다. 이재명이 1심유죄판결나도 김건희가 막아준다. 이걸 30명 모인데서 중계방송해? 그리고 공천개입문제 한동훈이 모를거같아? 녹취록 막 흘러나오니 대책 얘기하려고 한거잖냐 딱봐도 ㅉㅉ 지복을	허수옥	

974	2024-09-29 14:58	이**이사람 비대갤러 자통당류 사람인데 한대표 지지자라고 거짓으로 인장후 이상한 글 쓰고 있네요	글 목록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음 https://www.peoplepowerparty.kr/pmember/say_user/53a95acd-695b-2d3d-0549-48f1cd808bcc	한동훈	삭제
975	2024-09-29 15:15	침묵하는 용산…국민의힘, 또 '김건희 리스크' 떠안고 재보궐 참전	당내에서는 무소속 출마 등 내부 분열도 문제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이번 선거 운동이 더욱 순탄치 못하다는 성토도 나온다. 김 여사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지난 12일 항소심 선고 이후 더 짙어지고 있고, 야권이 채상병·김건희 특검법까지 통과시키면서 국민의힘은 재표결 압박까지 또 다시 직면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놓고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것도 잠재적 화약고로 작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치렀던 4월 총선보다 상황이 더 어렵다는 우려도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늘어가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불필요한 논란 확산 방지를 위해 침	진은정	삭제
976	2024-09-29 16:38	명태균게이트 열리나 "김영선, 윤대통령에 명태균 소개"…명씨 측근, 국감 증인 예정	명태균 씨의 측근이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E씨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언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씨는 명태균 씨와 10년 넘게 함께 일했으며, 김영선 전 의원실에서 비서관과 보좌관을 거친 인물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관계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연결고리 등에 대해 상세히 증언할 예정입니다. E씨는 뉴스토마토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정황과 관련해 국감장에서 증언하겠다"며,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등과 나눈 전화 통화 녹음 파일도 모두 공개하겠다. 내가 아는 모든 진실을 숨김없이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씨는 자신이 국감 증언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김영선과 명태균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정치판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고 싶다.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씨는 또한 명태균 씨가 창원시청 공무원들에게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음을 스피커폰으로 들려줬다고 증언했습니다. 해당 통화에서는 김 여사가 "오빠(윤석열 대통령)한테 전	진은정	삭제

977	2024-09-29 17:06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의 자백 "내가 언론인들 고발 사주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이하 김대남) : 지금 이럴 때 네 몸값을 키워. 왜 가만히 있어? 이명수 기자 : 제가 보도만 하면 고발하고 조사받으러 가야 하고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김대남 : 야, 니네 백은종(서울의소리 대표)이 하고 있지, 그 서울의소리 니네 고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시민단체…. 국힘(국민의힘)에서, 국힘에서 한 것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 개 있어. 이명수 기자 : 그렇죠. 예 알고 있어요. 김대남 : 그거 다,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이명수 기자 : 형님이? (함께 웃음) 김대남 : 야, 그러니까 봐라. 내가 용산에 있을 때 너 우리 새민연이라고 그 진짜 정말 솔직히 우리 보수 우파 플랫폼인데, 신문에도 광고도 많이 나가는데. 그렇게 그 난리를 치면	한지윤	
978	2024-09-29 17:46	김대남 “다 내가 한 거야”…대통령실 ‘비판 언론 고발사주’ 주장 녹취록 파장 --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 27일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4월3일 이뤄진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울의소리 고발 건과 관련해 “국힘(국민의힘)에서 한 것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	진은정	삭제
979	2024-09-29 21:05		한가지 답만 있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도자는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의견을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한동훈은 그런 사람이라 지도자가 되면 훌륭히 잘해낼것 같다 고	허수옥	
980	2024-09-29 21:06	추경호씨는 허구헌날 당대표 비판하는 김민전 김재원부터징계해라 그리고 용산쉴드 적당히해라. 국민들 생각을 용산에 아뢰야지 간신배처럼 할거면 사퇴하든지 백령도로 가라. 당대표는 왜 참겠나? 당분란	민심은 나몰라라. 3년 가까이를 용산거수기 노릇한 秋,당신 잘한거 하나도 없다. 지금 세태를 봐라. 김건희가 안 끼어 있는 곳이 있는지. 총선개입의혹, 논문표절, 그놈의 bag, 의대2000공, 도치모터스, V1놀이...어휴 미치겠다 진짜!! 이런 여자를 고급인력국힘의원들은 3년까까이 방어만 하고도 또 하려고 한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지	한지윤	

981	2024-09-30 8:55	ARS 리얼미터 사상최저 25%.. 대통령실에서 긴장해야 하는 게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박근혜 탄핵 여론 본격화될 때보다 더 낮아요 민심 외면하고 한대표 왕따놀이 더 하면 걷	누가나와도 보수 찍을 우파가 35-40은 되는데 이게 뭔가요 여조는 추이가 중요한데 지금 추이가 박근혜때보다 안 좋음 심지어 김건희 인사개입 공천개입 녹취 터트린다는 국감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모른 척 하면서 여조 낮은 건 좌파 여조 탓, 국힘이 김건희 커버 안해준 탓으로 몰면서 남탓만 하고 있으니 한심할 뿐입니다	한동훈	삭제
982	2024-09-30 9:03	[사설]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문제 인식 전환 절실하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언론플레이를 탓하지만, 맹탕 만찬으로 끝난 것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에 대해 한 대표와 대화하길 꺼리기 때문이다. 한 대표의 독대 재요청에 묵묵부답인 것도 그래서다. 지난 26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65%였다. 여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각각 58%를 기록했다. 한 대표와의 독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김 여사가 국정의 중대한 걸림돌이란 국민 인식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실과 친윤계가 한 대표를 고립시킨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여론 악화도 윤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 4명 모두 명품백 수수에 대한 김 여사의 사과를 주장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김 여사를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도 "용산에 마땅한 장소가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가 공개 행보에 나서며 여론은 더 나빠졌다. 국정 책임자로서 윤 대통령은 민심 수습이 어려워지기 전에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실효	최영옥	
983	2024-09-30 12:09	김건희 특검법은 받고 통과시켜라 이거 안털면 더 큰 화를 당한다 윤통, 국힘의원들도 정신차리고	공수처 인원없는거 다 밝혀졌음	한동훈	삭제
984	2024-09-30 12:13		불통 윤통이미지는 둘째고, 매일 나오는 김건희기사가 블랙홀이다. 이재명이 1심유죄판결나도 김건희가 막아준다	허수옥	
985	2024-09-30 12:20	리얼 역대 대통령중 최저기록 부정 70%.. 대통령이 여당과 민의에 협조해야 본인지지율도 오르는 건데 도움은 커녕 배우자 통해 국힘에 온갖 오물 투척 하고 친윤 간신 시켜 발목잡고 늘어지니 국힘까지 위태	당원이 국민이 잘못됐다 바뀌라고 전대에서 한동훈으로 메세지를 냈는데도 당은 우리 친윤꺼라면서 버티는 구태와 용산은 자리보전만하면 우파가 궤멸되도 상관없다는마인드	한지윤	
986	2024-09-30 12:20		용산 부부와 친윤들이 보수를 망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제발 보수와 대한민국을 살려주길 기대한다	허수옥	

987	2024-09-30 13:49	국힘의원들 이제 김건희 특검은 받고 털고 가라 다 망할작정 아니면. 선하게 살면 선한 결과가 있고 악하게 살면 악한 결과가 있다는 그 단	독대 무산이 부른 `떼밥` 논란에 尹 지지율 최저치…국힘은 반등, 보수층 결집	한동훈	삭제
988	2024-09-30 17:37	한국일보칼럼)) 우리는 김건희 여사를 뽑지 않았다	문제의 핵심은 흠 많은 영부인이 아니다. 영부인 문제를 상식과 원칙으로 해결하지 않는 망가진 제도, 국민에게 책임지지 않는 공직자가 문제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수사팀을 갈아치우고 두 번이나 특검법을 거부해 배우자 방탄을 자처했다. 영부인에게 면죄부를 주려다 수사심의위의 엇갈린 권고 때문에,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 때문에, 궁지에 몰린 검찰을 보라. 사과하냐 마냐를 논쟁할 때는 진작 지났는데도 “무조건 사과는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에 말리는 것”(대통령실 관계자) “사과를 하면 그때부터 더 심하게 (공격이) 시작될 것”(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운운하는 것이 측근들 수준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심리적 탄핵’ 수준으로 일컬어지고 특검 찬성 여론은 65%(26일 전국지표조사)에 달한다. 실체 없는 정치공세로만 보기 어렵다. 국민들은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했던 “내가 정권 잡으면”이라는 말을 떠올리고 있다. 탄핵이 실제상황이 되지	진은정	삭제
989	2024-09-30 17:57	(한국일보사설) 문제의 핵심은 흠 많은 영부인이 아니다. 영부인 문제를 상식과 원칙으로 해결하지 않는 망가진 제도, 국민에게 책임지지 않는 공직자가 문제다. 대통령 지지율은 ‘심리적 탄핵’ 수준으로 일컬어지고 특검 찬성 여론은 65%(26일 전국지표조사)에 달한다. 실체 없는 정치공세로만 보기 어렵다. 국민들은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했던 “내가 정권 잡으면”이라는 말을 떠올리고 있다. 탄핵이 실제상황	(한국일보사설) 문제의 핵심은 흠 많은 영부인이 아니다. 영부인 문제를 상식과 원칙으로 해결하지 않는 망가진 제도, 국민에게 책임지지 않는 공직자가 문제다. 대통령 지지율은 ‘심리적 탄핵’ 수준으로 일컬어지고 특검 찬성 여론은 65%(26일 전국지표조사)에 달한다. 실체 없는 정치공세로만 보기 어렵다. 국민들은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했던 “내가 정권 잡으면”이라는 말을 떠올리고 있다. 탄핵이 실제상황이 되지 않게 할 방법은 자명하다. 윤 대통령이 자기 자산이었던 살아있는 권력 수사, 법치와 공정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김 여사를 법대로 처분하라.	진은정	삭제
990	2024-09-30 18:57		그리고 누가 사과를 언제 할까 하면 득일까 아닐까 계산하며 하냐 진짜 국민을 뭘로 보고 이러냐	허수옥	

991	2024-09-30 19:02	[사설] '김건희 특검법 무작정 거부' 만으론 문제 해결 안 된다	한 총리는 이들 법안을 "정쟁형 법안"으로 치부하며 '거부권 정국'의 책임을 야권에 돌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나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모두 국민적 의구심이 해소되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연루 정황만 짙어지는 형국이다. 특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본격화되던 2020년 9~10월 김 여사가 시세조종 공범과 40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밀접히 연관됐다는 정황이 최근 공개됐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논의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최근 불거진 상태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영상까지 전국민에게 공개됐는데도,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걸 검찰 스스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셈이다. 각종 여론조사에 드러난 민심은 현재 제기된 의혹에 대한 엄정한 규명을 원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은 65%에 이르고,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조차 찬성 여론	최영옥	
992	2024-09-30 19:06	주위에 국힘 지지자들 얘길 들어보면 지난 대선에 윤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절반 이상이 지지를 철회했다는데, 이런 민심을 용산만 모르고 있는것 같다. 오로지 여당대표 죽이기에 올인한 것처럼 비쳐지니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용산이 불통인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대통령 책임이다. 대통령 주위에 의인들은 한명도 안보이니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 수당인과 심기만 살피는 용	당원이 국민이 잘못됐다 바뀌라고 전대에서 한동훈으로 메세지를 냈는데도 당은 우리 친윤꺼라면서 버티는 구태와 용산은 자리보전만하면 우파가 궤멸되도 상관없다는마인드	한지윤	
993	2024-09-30 19:31	'김여사 블랙홀' 빠진 정치 … 민생 제대로 챙기길 [사설]	소모적인 '김 여사 블랙홀' 정국이 민생 파탄을 불러와서는 안 된다. 지난 1일 여야 대표는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민생 우선의 정치 복원을 강조한 지 한 달도 안 돼 걸끄로 갈선는 안 된다	진은정	삭제
994	2024-09-30 20:31	"尹 지지했는데 찍을 구석이 없더라"… '이대남' 총선 투표율 '뚝'	실제 30대 직장인 남성 김모씨는 "지난 대선 때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에 국민의힘에 한 표를 행사했다"면서 "이번 총선은 아무리 생각해도 찍어줄 구석이 없더라"고 실망감을 표했다. 또 다른 30대 이모씨도 "민생에 신경 쓰라고 뽑아줬더니 이념 타령만 하지 않았나	최영옥	
995	2024-09-30 23:15	김건희가 한대표를 죽이려 했군요	용서 못하겠습니다	진형구	
996	2024-10-01 9:19	걸레짝 같은게 무슨 영부인.. 좌파들이랑 놀아나는 쯔쯔	어 이딴게 다있나	진형구	

997	2024-10-01 13:01	김대남 전대개입 및 고발사주, 권언유착 특검으로 다 밝히세요. 한동훈 공격 사주하던 저 대통령실 전 행정관 김대남은 서울보증보험 감사로 가고, 한동훈 비난하던 홍문표 전의원도 농수산유통공사 사장으로 갔고, 유튜브에서 매일 한동훈 욕만 하던 고성국씨는 kbs로, 배승희씨는 ytn, 민영삼 코바코, 신평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갔는데, 배후	김대남녹취록 특검으로 다 밝히세요. 한동훈 공격 사주하던 저 대통령실 전 행정관 김대남은 서울보증보험 감사로 가고, 한동훈 비난하던 홍문표 전의원도 농수산유통공사 사장으로 갔고, 유튜브에서 매일 한동훈 욕만 하던 고성국씨는 kbs로, 배승희씨는 ytn, 민영삼 코바코, 신평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갔는데. 배후가 누구인지 제발 좀 밝혀주세요.	한동훈	삭제
998	2024-10-01 13:02		.	허수옥	
999	2024-10-01 13:17		.	허수옥	
1000	2024-10-01 13:18	좌파한테 한동훈 자녀까지 공격하라 사주한건 그냥 못 넘어간다 서울의소리 몰카에 당했다고 하더니 비서관 시켜 서울의소리에 한동훈 공격 사주를 해? 이제보니 몰카가 맞	좌파한테 한동훈 자녀까지 공격하라 사주한건 그냥 못 넘어간다 서울의소리 몰카에 당했다고 하더니 비서관 시켜 서울의소리에 한동훈 공격 사주를 해? 이제보니 몰카가 맞긴 한가싶다 같은 편이었네	한동훈	삭제
1001	2024-10-01 13:59	김건희-김대남 전대개입 권언유착 사주 스캔들 특검으로 밝혀야 합니다. 국힘 의원들 정신차리세요 조직적 왕따에 동조하면 당원들이 가만	그리고 김대남씨 이명수 사주해서 허위사실유포 기사 썼기때문에 당신은 이미 범죄 기수야. 이제 배후를 밝혀야지.	한동훈	삭제
1002	2024-10-01 14:02		어떤 영부인도 이런 짓은 안했다.막강했던 대통부인 육영수 여사.이순자 여사도 공직개입.공작.선동 얘기 들어본 적 1도 없다.도대체 저 수준이하 여자가 무슨 짓거리를 하는건가?	허수옥	
1003	2024-10-01 14:05	김대남 김건희 이명수 스캔들 특검으로 진상 밝혀라. 한동훈 공격 사주하던 저 대통령실 전 행정관 김대남은 서울보증보험 감사로 가고, 한동훈 비난하던 홍문표 전의원도 농수산유통공사 사장으로 갔고, 유튜브에서 매일 한동훈 욕만 하던 고성국씨는 kbs로, 배승희씨는 ytn, 민영삼 코바코, 신평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갔는데, 배후가 누구인지	김건희씨 우파 궤멸시키기 위해 우파 1위후보 죽이려고 좌파와 손잡은거 너무 투명하다. 윤석열김건희가 보수분열의 원흉임	한지윤	

1004	2024-10-01 14:10	법원, "김건희 공천 개입, 공적 관심사…"	법원은 먼저 "이 사건 녹음파일을 보도하는데 '채권자가 이 사건 녹음파일 내용과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이 사건 녹음파일에는 채권자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등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와 같은 내용은 공적 관심	최영옥	
1005	2024-10-01 20:31	김대남 김건희 희대의 스캔들. 나경원씨 캠프 좌장임. 용산도 허구한날 속보내면서 이렇게 중요한사안에 입다물고 있음 안되죠 무려 대통령 당선을 방해했던 그 메체랑 영부인이 아직도 연결되어있고 아직도 그들에게 놀아나고있는 대통령실 진짜 보수망신 어디까지 시킵니까? 공정과 상식 어디갔나요? 이제 도저히 못참아요 김대남의 정언유착	김건희가 서울의소리 너네가 한동훈을 담그면 아주 좋아할거라고 김대남 녹취에서 직접 확인해 주었다. 차기유력 보수후보를 매장하려 희대의 정치공작질을 한 김건희와 이를 알고도 묵인한 윤석열은 책임 져야함	한지윤	
1006	2024-10-01 20:53	좌파에게 보수당대표를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니들이 먼저나서서하면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이가 물어뜯어줄거라고 하는 녹취록... 전대기간내내 지켜봤다 온국민이 배후 알고있다 지는 전대기간 좌파언론이랑 놀면서 한대표를 좌파라는 프레임으로 죽이려고했던 배후도우리는	김대남은 이기자에게 “김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면서 “니네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통화 이틀 뒤인 7월12일 이명수는 ‘한동훈 당비 횡령 의혹제기’라는 기사를 쓴다. 기사라기 보다는 김대남이 불러준 내용을 받아 쓴 것이다. 김대남은 또 언론이 한동훈을 치면 자기 쪽에서는 당대표가 대선주자로서 사심이 있다고 공격하겠다고 말한다.	한지윤	
1007	2024-10-01 23:08	김건희 지지것들은 다 좌!빨들임 카페회원 똥파리들임	갸들 몇명이 활동함	진형구	

1008	2024-10-01 23:12	정부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자(우리 당 총선 예비후보였고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였던 자)가 우리 당 전당대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극좌파 언론인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당시 유력 당대표 후보(지금의 당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도록 사주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상대방인 좌파 기자가 다름 아닌 대선기간 중 영부인(우리당 대선후보 배우자)과의 통화를 불법녹취, 공개하여 세	정부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자(우리 당 총선 예비후보였고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였던 자)가 우리 당 전당대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극좌파 언론인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당시 유력 당대표 후보(지금의 당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도록 사주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상대방인 좌파 기자가 다름 아닌 대선기간 중 영부인(우리당 대선후보 배우자)과의 통화를 불법녹취, 공개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자이고, 당대표 후보는 전당대회 기간 이러한 좌파의 공작 속에서도 오히려 끊임없이 좌파몰이를 당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해당행위'입니다. 우리 당의 당내 선거는 오로지 우리 당의 발전과 비전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루어져야 합니다.	진은정	삭제
1009	2024-10-01 23:14	[사설]대통령실 '고발사주, 전당대회 개입' 의혹 윗선 규명해야	두 사람의 다른 통화에서 김 전 행정관은 '새민연'이라는 보수단체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하도록 자신이 사주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새민연이 백 대표를 고발한 것이 맞다고 했다. 새민연은 2022년 9월 '바이든·날리면' 보도 이후 MBC 박성제 당시 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단체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던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MBC를 비판하는 관제데모를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통령실과 새민연 사이에 다방면의 부적절한 커넥션이 있었다고 의심하기에 족하다. 김 전 행정관은 또 김 여사가 공천관리위원이던 이철규 의원을 통해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행정관의 입을 통해 불거진 의혹은 정당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당사자들이 부인한다고 그냥 넘어가거나 개인의 일탈 정도로 치부할 일이	최영옥	
1010	2024-10-01 23:15	김건희 2년은 천하고 수준낮은 좌1빡들이랑만 친해	고퀄 보수쪽은 쳐다도 안보니 천한것들끼리만 어울림	진형구	
1011	2024-10-02 3:28	한대표가 제대로 여론전 하면 윤석열 김건희 못버틴고 뒤짐	지금 진짜 봐주고 있는거임	진형구	

1012	2024-10-02 10:23	우리 당의 당내 선거는 오로지 우리 당의 발전과 비전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루어져야 합니다.(김대변인페북)	정부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자(우리 당 총선 예비후보였고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였던 자)가 우리 당 전당대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극좌파 언론인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당시 유력 당대표 후보(지금의 당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도록 사주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상대방인 좌파 기자가 다름 아닌 대선기간 중 영부인(우리당 대선후보 배우자)과의 통화를 불법녹취, 공개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자이고, 당대표 후보는 전당대회 기간 이러한 좌파의 공작 속에서도 오히려 끊임없이 좌파몰이를 당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해당행위'입니다. 우리 당의 당내 선거는 오로지 우리 당의 발전과 비전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루어져야 합니다.	최영옥	
1013	2024-10-02 12:33	'김대남 녹취' 논란 감찰 착수…"심각한 해당행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출신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감사가 좌파 유튜버와 나눈 녹취가 공개됐다"고 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김대남씨는 국민의힘 당원이다. 보수정당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 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 행위이자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당내에는 당대표뿐 아니라 당내 감찰 절차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부연했다.	최영옥	
1014	2024-10-02 12:36	정말 믿고싶지 않다 이게 무슨일이고 대통령실 공직자가 좌파매체하고 야합해서 감히 여당 전당대회에 개입을 해?? 이거 진짜 미쳐돌아가	나경원씨 캠프 좌장임. 용산도 허구한날 속보내면서 이렇게 중요한사안에 입다물고 있음 안되죠 무려 대통령 당선을 방해했던 그 메체랑 영부인이 아직도 연결되어있고 아직도 그들에게 놀아나고있는 대통령실 진짜 보수망신 어디까지 시킵니까? 공정과 상식 어디갔나요? 이제 도저히 못참아요 김대남의 정언유착 반드시 수사하고 그 윗선 반드시 댓가 치르	한지윤	
1015	2024-10-02 12:37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경기도 용인갑 경선에서 이원모(김건희라인)에게 진 다음 전대때 나경원캠프로 들어가 김건희 사주받고 서울의소리에게 한동훈 음해목적으로 공작 권언유착 녹취록 나옴. 좌파언론에서 기사 내주면 나경원이나 원희룡 윤상현 같은	허수옥	

1016	2024-10-02 13:22	"좌파 유튜버와 협업, 해당 행위"	"행정관이 대통령이나 김 여사와 어떠한 일면식이 있겠나. 김 전 선임행정관도 일면식이 없다"고 반박했다.?? 일면식이 없다	최영옥	
1017	2024-10-02 14:01	'만고땡' 대통령실 행정관은 어떻게 보증보험 감사가 됐나? [10월2일 뉴스뷰리핑]	# '만고땡' 대통령실 -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소리 쪽에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를 공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또 공개됐습니다. 지난 9월30일 밤 9시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1. 한동훈 비판 보도 요청 - 국민의힘 전당대회 13일 전인 지난 7월10일 통화 내용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4·10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여론조사 당비를 이용해 자신의 대선인지도 여론조사를 시행했다는 내용을 이명수 기자에게 얘기하면서,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 그리고 실제로 이틀 뒤인 7월12일 서울의소리는 '단독/한동훈 당비 횡령 유용 의혹' 기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보도했고, 이 내용은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 공격 소재로 활용된 바 있습니다. - 이 녹음파일이 공개된 뒤인 지난 1일 한동훈 대표는 "현재 정부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2) 자료는 어디에서 나왔나? -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은 당시 이명수 기자에게 관련 자료를 전합니다. 이 자료는 국민	진은정	삭제

1018	2024-10-02 14:15	[칼럼]대통령의 무딘 정치감각…원맨쇼 할 땐가	지지율 동반추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의정 갈등이나 김건희 여사 리스크, 민생문제에서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아우성치는데 민감한 현안은 제껴둔 채 겉도는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다 사진 한 장 찍고는 '화기애애했다'고 하다니 당혹스러울 따름이다.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을 대통령실이 거부한데다 만찬장에서는 여당 대표의 인사말 순서 같은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식의 '맹탕 만찬'이라면 안하느니만 못하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도부가 구성된 지 2달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상견례와 함께 화합을 다지는 자리"라고 밝힌 것도 코미디에 가깝다. 특히 각종 현안과 난제가 산적한 엄중한 시기에 국정을 책임진 당정이 진지하게 해법을 논의하는 모양새는 보여주지 못할망정 밥만 먹고 헤어진 뒤 '화기애애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만찬에 참석했던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5일 "우리는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대통령도 그렇고 당대표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분들 다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 분들이다. 그분들이 모여서 화기애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들이 당면한 이슈와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한 대목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국민의 투표로 5년간 정부를 맡았다면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게 집권세력의 마땅한 책무다. 대통령이 여당대표에 등을 돌리고 소통을 거부한다면 국정의 난맥상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태원 참사 때에도, 채상병 사건 때에도,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뒤에도 민심에 제대로 반응했다면 민심이 이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명품백 사건 뒤에도 때를 놓쳤고 이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여론이 한층 흉흉하다. 민심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흉미로 맡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지 모	진은정	삭제

1019	2024-10-02 14:51	김대남씨 사건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행정관이 상사인 윤대통령에 대해 꼴통이라고 했고 김건희가 사주한것처럼 말하며 한동훈 죽이기를 좌파언론과 협업한건데 이건 당정이 하나돼서 진상규명해야 합니다.	김대남씨 사건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행정관이 상사인 윤대통령에 대해 꼴통이라고 했고 김건희가 사주한것처럼 말하며 한동훈 죽이기를 좌파언론과 협업한건데 이건 당정이 하나돼서 진상규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에 대해 한 말을 보세요 김대남 : 야 웃긴다 대통령실이. 지금 정신나간거야. 그 생각 자체가 골 때리는 거지. 저게 지금 꼴통이 맞아. 지금 있잖아. 본인이 뭘 잘못했냐고 계속 그러고 있대. 하하하. 전문 경영인이 떠들면 자기가 자기 주장대로 다 해버리니까 다들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	진은정	삭제
1020	2024-10-02 15:06	김대남 수사를 통해 배후가 누구인지 어떻게 서울보증보험 상임 감사로 갔는지 철저히 밝히면됩니다	윤석열팬덤관리측에서 리스트업하고 후에 친윤 강승규가 추천했다면서 또 한동훈쪽에 뒤집어씌우기하더라. 남탓안하면 친윤 용산이 아니다 미성년자 자식을 건드리는걸 두고봐야해?	한동훈	삭제
1021	2024-10-02 15:09		아무리 한동훈 당대표 막고 싶어도 좌파들도 시도하다 넘사벽에 포기한 자식을 건드리냐???그것도 좌파쓰레기 언론에???그거 인용한 나경원도 똑같고 그거시킨 배후도 벌받아야지!!!	허수옥	
1022	2024-10-02 15:10	정말 사악하기가 상상초월...대한민국이 김건희를 위한, 김건희에 의한 나라가 되고 있구나	정말 믿고싶지 않다 이게 무슨일이고 대통령실 공직자가 좌파매체하고 야합해서 감히 여당 전당대회에 개입을 해?? 이거 진짜 미쳐돌아가는구나	한지윤	
1023	2024-10-02 15:13		어떤 영부인도 이런 짓은 안했다.막강했던 대통부인 육영수 여사.이순자 여사도 공직개입.공작.선동 얘기 들어본 적 1도 없다.도대체 저 수준 이하 인간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건가?	허수옥	
1024	2024-10-02 15:16	김대남의 배후를 철저히 수사하고 서울의 소리랑 쓰레기공작질한댓가를 지불한 사람이 배후겠네요댓가는 연봉 3억에 법카 5640만원 자동차 비서까지... 이런 꿀보직을 하사한 사람을 찾으면 바로 그사람이 보수우파의 자산을 죽이려한 사람입	용산에 누가 추천해서 들어갔느냐는 전형적인 용산식 논점흐리기 언플에 불과함. 김대남 공작질의 실질적 배후가 누구인지가 핵심이다	한동훈	삭제
1025	2024-10-02 15:18	대체 대통령부인이뭔데 사사건건 충돌의 중심에있는건지너무한심하다	한동훈에게 좌파프레임씌우더니 실상은 좌파매체 이용해서 자녀를 이용해 공작질로 보수 제1주자를 죽이려했네. 이런 사악하고 악마같은 짓으로 보수를 궤멸시킨다는 본인말을 실천한거네. 윤석열도 묵로 동조했을거다	한지윤	

1026	2024-10-03 13:03	[단독] '도이치 큰손들' 대통령 취임식 초청…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증폭	. '비피 패밀리'의 존재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다.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의 '주포'인 김아무개씨는 검찰에서 '김 여사도 비피 패밀리의 일원'이라고 진술했는데 또 다른 '비피 패밀리'인 이씨와 김씨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사실까지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윤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에서 이씨와 김씨 초청자는 명기돼 있지 않지만, 명단의 앞뒤로는 모두 김 여사가 초청한 손님이어서 이들도 김 여사가 초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대통령 취임식 초청 주체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국민의힘 정도였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던 권오수 전 회장은 초청되지 않았고 부인과 아들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김 여사가 초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요 주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과정(MBA) 동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통한 매매차익만 25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씨가 권 전 회장이 소개한 투자전문가에게 돈을 맡겼다가 손해를 보자 권 전 회장이 투자금을 보전해줬다는 점도 적시됐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가 2007년 12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 10만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할 당시 김 여사와 함께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다. 당시 액면가액은 1주당 1만원이었으나 발행가액은 5만원이었다. 액면가의 5배에 이르는 가격에 매입한 것인데, 이는 도이치모터스 우회상장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됐다. 당시 도이치모터스는 총 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 김씨는 4억원,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는 3억원, 김 여사는 2억원을 투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유상증자에 참여한 초기 투자자들은 모두 피고인 권오수와 가까운 지인"이라고 적었다.	최영옥	
1027	2024-10-03 13:05	김대남은 윤석열한테 온갖 더러운 소리를 하고 김건희는 공천개입했다고 하는데 이거에는 화를 안내고 한동훈한테 왜 당정갈등을 키우냐고 하는거부터 윤석열 김건희가 김대남한테 약점 잡힌거 같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연봉 3억 공기업에	이쯤되면 당했다는 표현이 맞나 싶네요 같이 어울렸다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요?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하죠ㅋ 피해자는 딱 한 사람 한동훈이죠 한동훈은 금융기관 감사라고 한마디했는데 용산이 길길이 뛰면서 한동훈탓하는거 보니 용산이 무슨 큰잘못을 하긴 했나봅니다ㅋ 용산도 피해자라면 김대남씨 감사에서 내리고 고소해야 맞지 않나 상식적으로.	한지윤	

1028	2024-10-03 13:06		무조건 윤석열(사실상 김건희)의 말에 절대 복종할 딸랑이를 당대표로 앉히고 싶었는데, 뜻대로 안되니 좌파매체까지 이용했구나. 임기말이 되면 누구보다도 먼저 소위 친윤 혹은 윤핵관이 윤석열이 등에 칼을 꽂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든다	허수옥	
1029	2024-10-03 13:41	서울보증보험에 김대남을 앉힌, 김건희가 대통령임? 토목 전공자인 김대남이 연봉 3억 받는 보증보험	일을 못하면 깨끗하기라도 하던가 고집이라도 안부리든가 친분이 없으면 더 철저히 조사 하라고 해야 될거아냐?대통령실 쉴드쳐주는 친윤들 의심스럽다	한동훈	삭제
1030	2024-10-03 13:46		신기함.. 무슨 수로.. 용인갑에 공천에 나서고.. 무슨 수로 3급 행정관이 1급 비서관이나 갈 수 있는 공기업 감사로.. 5분 회의 만장 일치로 통과.. 근데 저 분은 금융.. 경영에 전문성이 없는데, 저 분이 찌른 의혹이 보도도 되기 전에 원희룡 후보님은 문제시한 것이지	허수옥	
1031	2024-10-03 13:47	김대남, 與 쑥대밭 만들고 탈당…'연봉 3억' 낙하산 의혹	국민의힘은 2일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을 받는 김 전 행정관과 관련 "보수정당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 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 행위이자 범죄"라며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전 행정관이 탈당의 뜻을 밝힌 것과는 별개로 사후 조치를 이어간다고도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동훈 대표와 당을 이끄시는 당직자분들, 당원들 모두에게 이 모든 논란을 일으킨 것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며 "유튜브 방송에 당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은 정말 진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추가적인 조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윤리위 조사는 물론 고소나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당원이었을 때 한 행동이니까 그에 대한 윤리위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 당 법률자문단에서 후속 조치를 계속하고 있을 것이다. 필요	최영옥	
1032	2024-10-03 13:57	[사설] 김 여사 스토커에 상습적으로 농락당한 대통령실	검찰은 2일 이씨 몰카로 시작된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최재영씨 모두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최씨에겐 기소 권고를 내린 것과 다른 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김 여사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누	최영옥	
1033	2024-10-03 14:26	국민이 대통령 주도로 일진식 집단 왕따 가해 하는거 목도해야하나? 학폭이지메를 실시간으로 보는기분 더럽다 자격도 없는 대통령, 할짓	우파국민들 다 등 돌렸음	한동훈	삭제

1034	2024-10-03 16:01	아무리 급해도 좌파를 끌여들여 상대를 치는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수 없는 사건이지요 명명백백 밝힐것을 당원을 바랍니다	김대남 김건희 스캔들은 사과로 넘어갈게 아님. 한동훈자녀까지 거짓으로 공격하라고 공작했고 서울보증보험감사로 고액의 연봉을 누리고 살고있는 김대남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한국방송광고공사 민영삼 고성국 배승희 누가 있는지 뒤를 조사해야하고 다른건 몰라도 이건 특검 해야한다	한동훈	삭제
1035	2024-10-03 16:02		무조건 윤석열(사실상 김건희)의 말에 절대 복종할 딸랑이를 당대표로 앉히고 싶었는데, 뜻대로 안되니 좌파매체까지 이용했구나. 임기말이 되면 누구보다도 먼저 소위 친윤 혹은 윤핵관이 윤석열의 등에 칼을 꽂는다는 예감이 강하게 든다	허수옥	
1036	2024-10-03 16:03	김대남은 윤석열한테 온갖 더러운 소리를 하고 김건희는 공천개입했다고 하는데 이거에는 화를 안내고 한동훈한테 왜 당정갈등을 키우냐고 하는거부터 윤석열 김건희가 김대남한테 약점 잡힌거 같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연봉 3억 공기업에	신 의원은 “탄핵 빌드업이 문제라 생각하신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사 자제하시죠’, ‘차라리 어디 절에 들어가 계시든 아니면 해외에 좀 나가 계시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하라”며 “국민들이 이미 심정적 탄핵 상태까지 와 있는데 심리적 탄핵이 법적, 정치적 탄핵으로 가지 않도록 막는 방법은 여사를 진정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한지윤	
1037	2024-10-03 16:04	[사설]김건희 백 불기소·특검 거부, ‘통치권 사유화’ 도를 넘었다	이렇게 국민이 주시하는 사건에서 혐의 유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법원 판단을 구해보는 게 순리일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그럴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부인이 청탁과 함께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제재할 수 없다는 매우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의혹이 잇따르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혐의 처분도 하세월이다. 그래놓고 야당 대표 부인은 10만원을 문제 삼아 기소하니, 검찰은 최소한의 ‘공익 대변자’ 역할과 존립 이유를 잃었다. 검찰이 이런 식이라면 ‘살아 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할 대안은 특검밖에 없다.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여당 전당대회 개입 의혹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터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에 두번째, ‘채 상병 특검법’에 세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24차례로 늘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가졌다. 한동훈 대표는 불참했다. 양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 대비한 내부 단속용 만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감사원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한 의혹에 눈감은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가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했는데, 이를 주도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최근 사직했다. 국정감사를 피하려는 ‘꼬수 사퇴’라는 말이 따라붙는다. 이 모든 일들이 김 여사와 직간접적	진은정	삭제

1038	2024-10-03 17:16	용산은 지금 위아래가 제정신으로 있는사람 한사람도 없다.	검찰의 디올백 불기소 결정은 지지율 10% 이상 갉아먹었을 것입니다. 김여사 보호하겠다더니 윤대통령이 위험에 빠지는 형국입니다. 대통령실은 어느 국가든 최고의 전문가, 실력자들이 포진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용산은 그렇습니까? 정략적 이해타산에 사로잡힌, 내부정보 팔아먹는 간첩들의 소굴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제 용산 참모진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한동훈 용산만찬 패싱은 어떤 이유를 달	한지윤	
1039	2024-10-03 17:19	[사설]“韓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 … 이젠 ‘전대 개입’ 사주 논란까지	이번 사건을 보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저급하고 황당한 통화 내용은 차치하고 그 상대가 누구인가. 지난 대선 기간 김 여사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방송사에 제보하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몰카 취재에도 가담했던 쪽이다. 그런 상대와 공작과 음모 냄새가 짙은 얘기를 나눈 전직 대통령 참모의 처신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다. 더욱이 여당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 관련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연봉 3억 원에 임기가 보장된 정부투자기관 감사로 임명됐다. ‘보이지 않는 손’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 정도면 대통령실이 먼저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나서야 할 사안이다. 대통령실은 “김 전 행정관은 김 여사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런 인물이 어떻게 용산 참모가 됐는지, 나아가 공공기관 알짜배기 자리에 앉기까지 그 뒤를 봐준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 이런 무자격 참모가 활개 치는 용산의 고장난 시스템부터 재점	진은정	삭제
1040	2024-10-03 18:27	[사설]“韓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 … 이젠 ‘전대 개입’ 사주 논란까지	이번 사건을 보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저급하고 황당한 통화 내용은 차치하고 그 상대가 누구인가. 지난 대선 기간 김 여사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방송사에 제보하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몰카 취재에도 가담했던 쪽이다. 그런 상대와 공작과 음모 냄새가 짙은 얘기를 나눈 전직 대통령 참모의 처신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다. 더욱이 여당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 관련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연봉 3억 원에 임기가 보장된 정부투자기관 감사로 임명됐다. ‘보이지 않는 손’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 정도면 대통령실이 먼저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나서야 할 사안이다. 대통령실은 “김 전 행정관은 김 여사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런 인물이 어떻게 용산 참	진은정	삭제

1041	2024-10-04 11:29	최근 여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슈에 김건희가 걸려있다. 여당은 친한 친윤 떠나 제발 정신차려라. 최순실로 인해 우파가 궤멸되었던게 불과 7년전인데 이대로가면 향후 어떤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안되니?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까지만 막아주고 윤석열과 용산이 그래도 정신못차리면 니들이 나서서 특검법 통과시켜라. 윤석열이 물러나는 한이 있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근 감사에 임명됐고, 녹취록 파문은 공직에서 재직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며 “김씨가 스스로 결단하기 전엔 강제로 그만두게 할 수는 없다” -> 뒷배가 윤/김이라 자백한셈	한동훈	삭제
1042	2024-10-04 14:35		도둑이 제발 저리기. 김대남 지키기 눈물 겹다 ㅋㅋ 평범한 시민 감사 자리 갈려면 하늘의 별 따기이고, 재경원 금감원 출신이 20년 공직생활 하고도 못 가는 자리다. 범인은 3년간 10억짜리 자리에 김대남 꽂아넣은 사기꾼이지... 저 자리 지원할 때 지원서 면접 자격심사	허수옥	
1043	2024-10-04 14:37	[사설] 김 여사 야기한 여권 내분, 언제까지 이럴 건가	명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 여사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해서 여당의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거나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설사 그런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공식 발표 전에 이를 누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명씨는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것은 자신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공천을 부탁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명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창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최영옥	
1044	2024-10-04 14:51	무관중이라던 8600만원 공연 녹화…꽃장식 관객석에 김건희	취재 결과 행사 업체가 KTV로부터 받았다는 문건에는 이와 비슷한 자리 배치를 담은 '좌석배치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배치도 속 아무 것도 쓰여있지 않은 '붉은 점'에 김 여사 앉은 셈입니다. 이런 배치도가 담긴 문건의 제목은 < KTV 국악공연 관람 및 문화계 인사 환담 >입니다. 결국 KTV 측 해명과는 달리 처음부터 VIP급 내빈 관람을 염두에 두고 공연을 기획한 걸	진은정	삭제
1045	2024-10-04 15:48		김건희가 서울의 소리에 또 당했다가 아니고, 서울의 소리와 같이 놀았다. 정보주면서 이게 fact에 맞는 팩당인듯	허수옥	

1046	2024-10-04 15:50	野, 금투세 결단 지도부 위임…'폐지론'까지 선택지 확장[이런정치]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변인은 "유예하려고 해도 개정안을 내야하는데,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거나 여당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거나 해서 유예가 안 됐을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이 지게 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유예를 결정한다고 유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 차원에서 아예 폐지가 맞지않느냐는 것"이라며 "정권이 바뀐 다음 새로 판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로운 약속하는게 맞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지도부는 나름대로 당내 의견 비중, 국감을 판안을 해왔다고 한다"면 "부안	최영옥	
1047	2024-10-04 15:51	김대남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 배우자가 공천에 개입하고 또 그 후에도 권한없이 전대기간 나경원캠프 좌장 전 행정관을 통해 좌파매체 서울의소리 김명수를 사주하여 한대표가 대표 되지 못하도록 작업한 희대의 정치공작질이고 이거 그냥 못넘어감 특검으로 밝혀라. 검찰은 이창수가 장악했고 공수처는 검사가 딸랑 4명인가 5명. 수사 능력없다 이	국민과 당원이 명한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규명하고 그 배후를 밝혀라. 김대남의 입막음을 시도한다면 그또한 공범이다.	한지윤	
1048	2024-10-04 16:30	언제까지 말도 못하고 끌려다니나? 개혁신당 반대 생각하면 이탈표 7표인거 같은데 다음엔 민주당 악법이든 뭐든 상관없이 백프로 통과라고 봄	개혁신당 반대 생각하면 이탈표 7표인거 같은데 다음엔 민주당 악법이든 뭐든 상관없이 백프로 통과라고 봄 그러니 국힘은 독소조항 뺀 채상병 김건희 특검 선제발의해서 스스로 매듭지어라 동시에 김건희는 국민 눈앞에서 좀 사라져주면 더 좋고 한남동 관저에 쳐박히든지 수사받고 법적책임지든지 절에 가든지 진짜 눈에 좀 안보였으면 아 하나더 그놈의 사과도 하지말아줬으면 좋겠다 간만보는 진심아닌 사과 필요없음 이미 시기도 늦어도 한참 지났고	한동훈	삭제

1049	2024-10-04 16:32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 두려움 느껴야한다.	김영우 1일 ·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 두려움 느껴야한다. 김대남 사건의 실체는 무엇일까. 일단 김대남씨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씨에게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면서 한동훈 당대표 후보를 흠집내고 떨어뜨리기 위해 미끼를 제공했다. 그리고 그는 급기야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직을 꿰어찼다. 그 자리도 자신이 찍어서 갔다고한다. 자신의 입으로 한 말이다.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실은 이 모든 일이 김대남이 혼자 일으킨 일이라는 것이다. 김대남씨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대통령실도 모르게 거대한 일을 해냈으니 말이다. 김건희 여사를 골탕먹인 유튜브 방송인과 5시간이나 통화를 하고 여당 당대표 후보를 흡집내고 꿀이 흐르는 자리를 꿰어차고... 이런 일을 혼자 벌이고도 그가 승승 장구하면서 자아실현 했다면 그 자체가 대통령실의 최대 위기 아닌가. 제2. 제3의 김대남이 없으리란 법도 없다. 작금에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 몰상식의 극치다. 원내지도부를 앉혀 놓고 우리는 하나라는 구호를 외친다해도 그것이 민심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득한 낭떠러지로 가는 외통수 길이다. 모든 일은 제 때 제 때 불을 꺼야 했는데 그냥 민심을 무시한 채 정면돌파만 한다면 파국이다. 둑이 터지고 나면 어떠한 선한 의도나 명분, 역사의 평가란 말도 통하지 않는다. 앞으로 공직자 부인이 3백만원짜리 선물을 받아도 처벌 조항이 없다는 말만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한 때 선거가 급해서 주장했던 구호로 끝나게 된다.	진은정	삭제
1050	2024-10-04 17:01	윤치찬란하면서도 국민을 궁지에 내보는 대통령부부의 왕따정치 ㅉㅉㅉ국민들이 다 지켜본다 욕나오는거 참을게 국가를 망치는 xxxxx	개혁신당 반대 생각하면 이탈표 7표인거 같은데 다음엔 민주당 악법이든 뭐든 상관없이 백프로 통과라고 봄 그러니 국힘은 독소조항 뺀 채상병 김건희 특검 선제발의해서 스스로 매듭지어라 동시에 김건희는 국민 눈앞에서 좀 사라져주면 더 좋고 한남동 관저에 쳐박히든지 수사받고 깜빵에 가든지 진짜 눈에 좀 안보였으면 아 하나더 그놈의 사과도 하지말	한동훈	삭제
1051	2024-10-04 17:03		그래서 공격사주해서 괴롭히는가보구나ㅋㅋ 잠은 다 주무셨어요? 여성 할당으로 겨우 최고위원되셨으면 여성 망신시키지말고 잘 좀 해주세요 그쪽때문에 표 더 받고도 떨어진 박정훈의원님이 너무 아깝네요 말씀도 잘하시고 상식적인 분인데	허수옥	

1052	2024-10-04 17:03	김민전씨 국회에서 세비로 잠은 자지 마세요. 용산 가서 밥 좀 먹더니 이젠 슬슬 자리욕심까지 나는가 보다. 한동훈 까고 좋은 자리로 간 김대남이 부러웠나? 그래 김건희가 보고 있다. 김민전 힘 내~~한동훈을 더 세게 쳐야지, 더 세게~김건희가	이여자 당에서 최고위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친윤행세하며 기관장자리 하나 얻으려고 한동훈대표 비난이나하며 날을 보내고 있네요 국힘이 이런사람 자꾸 최고위원으로 뽑으면 폭망합니다	한지윤	
1053	2024-10-04 17:04	김대남 '전대개입·낙하산' 전모와 배후 수사로 밝혀야[사설]	김 감사가 왜 좌파 유튜버에게 전대 개입을 사주했는지, 이런 인사가 누구 추천으로 금융공기업에 낙하산으로 갈 수 있었는지부터 규명해야 한다.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는 만큼 전모는 물론 배후까지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 김 감사는 대표 경선을 앞둔 지난 7월 10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너희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의도연구원의 한 대표 지지율 조사 등이 당비 횡령이라는 기사를 내 줄 것을 요청한다. 한 대표 자녀 문제에 대한 공격도 주문한다. 정당법 제52조(당 대표경선 등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경선 후보자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명예훼손 혐의도 있다. 김 감사가 통화한 유튜버는 김 여사와의 녹취록, 명품 가방 몰카 공작 등을 했던 매체인데, 11개월 동안 내부 정보 등을 전달한 것 자체부터 황당하다. 문제는 이런 공격을 주문한 며칠 뒤, 김 감사는 서울보증 이사회에서 전문성을 찾기 어려움에도 단 5분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감사에 선임된다. 특별한 배경이 없다면, 연봉 3억 원이 넘는 공기업에 갈 수 있었겠는가. 서울보증은 예금보험공사가 93%의 지분을 가진 정부 투자 회사다. 공적자금 10조 원이 투입됐고, 아직 6조 원가량 회수되지 못했다고 한	최영옥	

1054	2024-10-04 17:08	김건희 특검법안은 윤 대통령 부부와 검찰이 자초했다. 전 국민이 목격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친윤' 검사들은 대놓고 면죄부를 줬다. '특혜·성역은 없다'던 검찰총장 공언과 달리 경호처 출장 조사와 총장 패싱 등 숱한 절차상 논란을 야기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진정으로 떳떳하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도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격노했고, 그후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에는 불법성 외압이 가해졌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살리기 위해 VIP에게 로비를 하겠다는 녹취록까지 나온 터다. 이 사건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을 한 달이 넘도록 재가하지 않고 있다. 인력난이 극심한 공수처로서는 신속한 수사에 힘이 부친 상황이다. 쌍특검법안이 폐기됐다고 김 여사와 정권의 비리 의혹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디올백 수수 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총선 공천 개입에 국민의힘 당무 개입까지 하루가 멀다고 김 여사 관련 의혹과 추문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김 여사를 거론하며 이른바 '한동훈 공격 사주' 논란을 빚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수억원대 연봉을 받는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터지는 의혹·사건마다 권력 냄새가 요동치는 걸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의힘은 이날 쌍특검법안 폐기를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야당은 10월 국회 국정감사 후 김 여사 관련 추가 의혹을 담아 특검법안을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고, 시간도 많지 않다.	진은정	삭제
1055	2024-10-04 18:44	영상) 나경원 발언 매우 부적절하다. 이 일은 단순하게 작은 일이 아니다 전당대회에서 흔히 보는 해프닝이 아니라 당의 유력한 후보를 당에 적대적인 미디어 세력을 동원해서 전당대회 결과를 뒤엎으려고 했다	나경원 발언은 부적절했다 이 일은 단순하게 작은 일이 아니다 전당대회에서 흔히 보는 해프닝이 아니라 당의 유력한 후보를 당에 적대적인 미디어 세력을 동원해서 전당대회 결과를 뒤엎으려고 했다 특히 그것을 김건희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당이 진상을 밝히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	한지윤	

1056	2024-10-05 10:34	[사설] '김 여사 특검법' 무한반복해야하나	민주당 특검안이 법리에 안 맞지만 김 여사 특검 찬성 여론은 60~70%에 이르고 있다. 국민 의문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거부권·당론 부결만을 외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김건희 한 사람 지키려다 전체 보수를 궤멸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온갖 무도한 일을 다 하는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의 내용 자체는 맞는다	진은정	삭제
1057	2024-10-05 23:13	[사설] 김대남 감사가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배경이 궁금하다	가장 이상한 것은 이 지경인데도 김씨가 스스로 감사직에서 물러나지 않은 채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씨는 김 여사가 총선 공천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대통령에 대해선 "꼴통"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김씨를 강제로 그만두게 할 수단이 없다"고 한다. 김씨와 비교할 수도 없는 경미한 이유로 대통령실을 그만두거나 공직에서 물러난 인사들이 적지 않다. 이대로라면 또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키우게 될 것이다.	진은정	삭제
1058	2024-10-05 23:17	사악한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한 한동훈 대표를 향해 별거 아닌 일을 키우고 있다는 등의 비난을 퍼붓고 있는 자들이야 말로 범죄자들을 직,간접적으로 보호하고, 국힘당 개혁 작업을 방해하는 세력이	사람이 억지로 누군가를 실드친다던가 공격하게 되면 논리가 박살나고 부자연스럽지 못한 모습이 계속보이게 됩니다 총선때부터 시작된 한동훈대표에 대한 말도 안되는 좌파몰이 및 마타도어 볼때마다 저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인터넷 댓글이나 심지어 일부의원들도 어떻게 저렇게 입맞춰서 똑같이 하지?늘 의문 스러웠는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철저히 한 사람 죽이기 했던거였군요 지지자들도 좀 누군가를 옹호하거나 비판할때 내가 생각해도 억지스럽고 자연스럽지 않다 싶으면 자기자신의 판단이 아닌 누군가에게 선동당하고 있	한지윤	
1059	2024-10-05 23:18		'김건희 수렁', 사법심판대 서는 게 유일한 탈출구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놓고 여권 내에서 왈가왈부하는데, 다 부질없다. 때를 놓쳤기 때문이다. 사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를 한참 지나버렸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일한 해법은 사법적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다. 대선 때부터 3년 넘게 보수진영 전체를 욕보이고 있는 여사 문제 수렁에서 헤어나려면 김 여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반 국민 누구나에게 적용될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엄정한	허수옥	

1060	2024-10-05 23:19	(뉴스1)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연스럽게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는 더 힘을 얻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본회의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비록 검찰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기소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시면 그건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김 여사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던 김재섭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많은 의원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김 여사 문제는 심각하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김 여사 사과에 관해 "이제 한 번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면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이 여론 악화를 이끈	최영옥	
1061	2024-10-05 23:20	국민의 힘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정권내 이적행위자를 색출해야겠지. 그 배후가 대통령 배우자임이 의심되더라도.	용산의 현실인식이나 행태에 참담함을 넘어 절망감을 느낍니다 특히 김대남 사건 대처에 의아함을 감출수없는데요 툭하면 격노하시는분이 김대남에게는 조용하고 오히려 진상조사 하겠다는 당에 격노했다니 당원들과 우파지지자들이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배후로 의심할수밖에	한지윤	
1062	2024-10-05 23:23		윤통이 아무리 딸랑이들 들러리 세워놓고 두목 놀이를 해도, 김건희여사가 아무리 두꺼운 화장으로 가리고 또 가려도 두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이 국민 눈에는 다 보인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국민이 모른다고 착각한 채, 아직 많이 남은 임기에 권력놀음이 흥에 겨워 손가락으로 지시하고 눈빛으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하며 입으로 죄를 쌓는 그 행태	허수옥	
1063	2024-10-05 23:26	동아--김 여사는 자신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상당한 지분이 있다고 여긴다고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검사 시절 정치적 탄압에 의해 좌천됐을 때 로펌에서 고액 보수를 제시하며 영입하려 했는데 자신이 검사의 길을 계속 가도록 설득하는 등 고비마다 자신의 조언이 남편을 오늘로 이끄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명품백 수수 같은 참담한 일이 공개됐는데도 전당대회 문자 공개, 대통령실 이전 공사 업체 선정 논란, 공천 개입 논란 등의 낯부끄러운 일들이 계속 터져나오는 걸 보면서 국민들은 김 여사에 대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정말 최소한의 공사 구분 의식, 자기 위치 파악 능력, 윤리관마저 갖추지 못한 상태로 권력 정점부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진은정	삭제

1064	2024-10-05 23:32	사설) 모두가 알고 모두가 눈감는 '金 여사 문제'	보수진영의 한숨이 점점 깊어지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탄핵은 아니라더라도 탄핵에 준하는 수준으로 남은 임기 내내 몰릴 것이라는 불안감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하나의 문제로 모인다. 검찰은 지난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 처분했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다. 법리적으로 맞더라도 민심은 그렇지 않다. 한 고위 공직자의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명품백을 받았으면 당신은 나보고 뭐라고 했을까"라고 했다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도 남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최근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기사화되고 있다. 거의가 문재인 정부 때 친문 검사들이 수사했을 때 확보했던 내용들이다. 당시 문재인 검찰이 김 여사를 공범으로 기소하지 못했던 것은, 말 그대로 '정황'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제 그 '정황'에 대해 김 여사 측 소명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국정에 투입되어야 할 대통령실 기능의 일부가 김 여사 문제에 소진되는 악순환은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시작됐다. 그럼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지금은 윤 대통령이 완수하려고 하는 의료·노동·연금·교육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수준까지 왔다. 이 정부에서 한 자리씩 맡은 사람들은 사석(私席)에서만 김 여사 문제를 걱정하는 것 같다. "제2부속실 설치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냐", "대통령 비서실장은 도대체 뭐 하는 거	최영옥	
1065	2024-10-05 23:33	진짜 국민세금으로 해외여행을 가려고 대통령자리 지키나? 정말 울화통 터져서 못살겠다	이와중에 아시안 회의 핑계로 세금 으로 동남아 여행다니는고 안부끄럽나? 세계적 망신이다 게다가 이상한 것은 녹취록이 공개됐는데도 김대남이 스스로 감사직에서 물러나지 않은 채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김건희가 총선 공천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대통령에 대해선 "꼴통"이라고도 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김씨를 강제로 그만두게 할 수단이 없다"고 한다. 연봉 3억6천 받는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자리도 자기가 골라서 갔다고 했다	한동훈	삭제
1066	2024-10-05 23:35	일면식 없다 -> 2시간 독대 공개 -> 친분없다?? 골프 같이 친 사람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되도, 2시간 독대한 인간을 모르고 관련도 없는 3년 임기 연봉 3억 짜리 자리에 앉히는	김대남이 꿰찬 연봉3억 서울보증 감사는 행정관급이 못가는 자리라던데 특급대우해준거는 대통령 입김이지.김대남이 좌파유튜버에 한동훈 죽이기 의뢰한 댓가로 김건희가 하사한 자리인지 밝혀라	한지윤	

1067	2024-10-05 23:36		김건희 수사 제대로 안받고 방탄하면 보수는 궤멸임. 작게 막으세요	허수옥	
1068	2024-10-05 23:37	[단독] 김대남 "서류 정리해 도전했다"지만…SGI "지원서 제출 전형 아냐"	김대남 전 행정관은 SGI서울보증 상임감사 위원이 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정리해 도전했다"고 어제(4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SGI서울보증은 김 전 행정관이 제출한 서류를 밝혀달라는 국회의 요청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모가 아닌 추천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지원서 등이 필요 없고 실제 김 전 행정관이 낸 서	최영옥	
1069	2024-10-05 23:40	한대표님 힘든시기지만 시민들의 사랑에 힘나시겠어요 화이팅!	부산은 정말 한동훈을 사랑하는거 같다 한동훈이 제발 개헌저지선만 막아달라고 호소했더니 개헌저지선도 막아준 부산 아이가 오늘 부산일정 1박2일 행복하게 시민들 사랑 많이 받으시길 한대표님	한동훈	삭제
1070	2024-10-06 0:09	동아에 의하면 김건희는 본인이 대선에 지분이 있고 대통령과 권력을 나눈다고 믿는다고 한다. 통탄할 일이다	용산의 현실인식이나 행태에 참담함을 넘어 절망감을 느낍니다 특히 김대남 사건 대처에 의아함을 감출수없는데요 툭하면 격노하시는분이 김대남에게는 조용하고 오히려 진상조사 하겠다는 당에 격노했다니 당원들과 우파지지자들이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배후로 의심할수밖에	한동훈	삭제
1071	2024-10-06 10:54		보수들은 이 정권 임기 안에 김건희를 사법부 심판대에 올리기를 원한다. 언제까지 김건희 수렁에 빠져 있어야 하나	허수옥	
1072	2024-10-06 18:15	용산과 친윤이 이번 보궐선거 지기를 바라당니다	총선 말아먹은 개잡종들 답습니다 이것들은 보수우파가 아닙니다	진형구	
1073	2024-10-06 18:22	한대표 vs 윤석열 김건희 친윤 이준석 ...지금 이구도 입니다	이준석은 김건희와 한배탔고나머진 운명공동체 입니다한대표 더욱 독하게 응원해야됩니다	진형구	
1074	2024-10-06 18:33	당원 지지자들의 힘을 한대표에게 몰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 사쿠라 무당세력 때려잡고 보수우파 재건합니다 !!!	진형구	
1075	2024-10-06 21:18	의과대학 6년→5년제 단축 추진(종합)??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최대 5년으로 줄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ㅋㅋㅋㅋ	진은정	삭제
1076	2024-10-06 21:22	문제의 본질은 마누라 이슈에서는 이성이 마비되 사리분별이 안되는 대통령이지. 참모들이 김건희의 김도 못꺼낸다잖아. 직언하면 바로 잘리고. 총선에서 대패하고도 정신 못	국민은바보가아닙니다 누가봐도 한동훈은 민심을전하고 모두가 윤통눈치나보고 권력에 매달려아무말도못하지만 윤통,김건희잘못하고있고 김건희이대로두면 보수망하는거알고 한동훈은 옳은소리하니 왕따시키고 있죠 대통령은 정치인 이라면 누구든 관계없이 수시로 만나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정치라는 요식행위는 정치인과 만나서 하는 행동이 정치인 셈이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각계각층)과 만나는 것을 주저하면 안	한지윤	

1077	2024-10-06 21:40	[사설] '김 여사 특검법' 무한 반복의 끝은 뭔가	민주당 특검안이 법리에 안 맞지만 김 여사 특검 찬성 여론은 60~70%에 이르고 있다. 국민 의문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거부권·당론 부결만을 외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김건희 한 사람 지키려다 전체 보수를 궤멸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온갖 무도한 일을 다 하는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의 내용 자체는 맞는다	최영옥	
1078	2024-10-06 22:00	특검법 폐기에도 여권 내부 '김여사 리스크' 우려 커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이 5일 부결되긴 했으나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선거개입 등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연이어 불거져 국민들의 분노가 높다고 판단, 윤 대통령의 사과 등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당내에서는 김 여사가 사과해도 국민들이 액면 그대로 수용할 시기가 지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 일각에선 야당이 이 특검법을 또 다시 재발의 할 경우 사태	진은정	삭제
1079	2024-10-06 22:55	경남일보 -[사설] 권력 사유화·민생 외면 정권 퇴진 자초하나	의대 정원 일방적 과대 확대로 7개월째 의료대란이 이어지는 중이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를 키워 이자율 인하를 어렵게 만들었고, 재정으로 내수 진작을 도모해야 함에도 긴축 예산안을 내놓았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이은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과 지도자 모양새의 공개 활동,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인정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독선적 태도도 정권의 위기를 부채질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문제 해법을 포함해 국정 운영을 전면 전환하지 않으면 퇴진 위기에 급속히 빠져들 것이다.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국민이 준 것이다. 자신과 주변인을 위해 남용하면 패가망신을 피할 길 없다. 가족도 엄정한 사법적 처분을 받는 것 외	진은정	삭제
1080	2024-10-06 23:39	한동훈은 정부성공 위해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윤석열은 또 총선때처럼 재보궐도 망하라고 공작질하고	용산부부와 거기에 딸랑대고 한자리 받으려는 김대남 같은 사악한 친윤들은 내쫓자. 국힘은 언제까지 저 사악한 김명신 범죄 방탄하다가 망하려고 하나?	한동훈	삭제

1081	2024-10-06 23:39	'입틀막' 사진 올린 소방관들 "언론 접촉 금지, 겁박"	소방관들이 자신의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사진들이 SNS에 게재되고 있다. 일부 소방관들이 의료 대란 속에 응급 환자가 병원에 이송되지 못하는 이른바 '구급차(응급실) 뺑뺑이' 실태를 알리자 소방청이 언론 접촉을 막아서면서, 소방관들의 '입틀막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달 12일 소방청의사집단행동비상대책본부의 <구급현장 활동 관련 언론대응 유의사항 알림> 공문을 각 광역 시·도에 보내 "언론 대응과 관련하여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위 및 내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적의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공문은 '언론 대응 관련 유의사항'으로 △영상촬영 등으로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현장활동 관련 영상물, 음성물 등의 무단 유출 및 개인보관 금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소방활동 외 제복 착용 금지 △방송 출연 및 인터뷰 시 현상 왜곡 우려가 있는 개인적 의견 발언 지양 △소방	최영옥	
1082	2024-10-06 23:41	김명신과 친윤간신배들이 보궐 선거 일부러 지려는 공작 중이라고 하던데 진짜 좌파본색 드러내는건지 뭔지 부산 유권자 바보로 아는거죠 부산 시민은 현명합니다 나라가 잘	보수가 어떤 마음으로 4년을 기다렸는데 총선 한번 이겨보려고 보수 대통령 잡아넣은 윤석열까지 데려오면서 기다렸다 윤석열 착각하지 마라 넌 목표가 아니고 도구였다 도구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국힘후보 일부러 지게 하는 공작질 하는거 사실이냐? 보수가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한지윤	
1083	2024-10-06 23:45	[사설]용산 출신은 100% 통과, 취업 제한 심사는 제대로 했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퇴직한 공직자 중 취업 심사를 신청한 44명 전원이 '취업 가능' 통보를 받고 주요 금융·공공기관, 대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금융 분야 경험 등이 전혀 없는데도 연봉 3억 원의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으로 임명돼 낙하산 논란이 불거진 김대남 전 행정관처럼 '용산의 힘'을 바탕으로 재취업한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퇴임 3년 안에 재취업을 하려는 공직자들에 대한 엄격한 심사 책임을 진	최영옥	
1084	2024-10-06 23:47	김명신 부부가 보궐을 일부러 방해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은 아니겠죠? 안상수도 뒤로 장예찬처럼 무소속 나가라고 챙겨주겠다고 했다는데 사실이면 진짜 당원들이 용서	.	한지윤	
1085	2024-10-06 23:51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하는 한동훈 대표의 진정성을 알아보는 분들이 결에서 보수 재건해주세요	하물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하는 법.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거로 뽑힌 당대표를 대놓고 왕따에 조리돌림하는 윤석열 김명신 부부는 우파 궤멸자들임	한동훈	삭제

1086	2024-10-07 0:58	윤석열 이건 완전 김건희 애완견이네 헉... 중앙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91606?sid=110수석들이 있는자리에서 김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건한두번이 아니였다	진형구	
1087	2024-10-07 3:10	총선도 용산부부가 일부러 말아쳐 먹었구만 한동훈 뜰까봐	이것들 개역적들이다 두 부부가	진형구	
1088	2024-10-07 11:02	[천광암 칼럼]대통령 취임식이 '여사 의혹'의 중간 저수지였나	역대 어느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지만, 취임식은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과 비전, 주요 정책 등을 전 국민에게 밝히는 엄숙한 자리다. 당연히 참석자 한 명 한 명이 5000만 국민에 대한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선정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주가조작 패밀리, 문서위조범, '업자', 무속인, 정치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섞여 들어 있었던 것이다. 취임식이 '여사 의혹의 중간 저수지'였다고 해도 할 말이 없고, 뒤탈이 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면면이다.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윤 대통령 취임식 직후 참석자 명단을 놓고 논란이 일자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서 "전부 파기했다" "일부 남아 있다" 등 오락가락 해명 끝에 명단의 일부를 공개했다. 하지만 정작 의혹과 관심의 대상이었던 대통령 부부의 초청 명단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니 앞으로 이 '저수지'에서 얼마나 많은 '오물'이 쏟아질지 모른다. 지금 그 전조를 보는 것 같아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진은정	삭제
1089	2024-10-07 12:18	김건희 심기경호에 정신없는 윤통님. 이 정권도 한동훈 말 들었음 총선에서도 이겼고 이렇게 민심 이반 안했죠 이종섭 의료담화 이천증원 한동훈이 다 말렸었는데 옆에 친윤들 비선들 말만 듣다가 다 망가트리고도 아직도 한동훈 내칠 궁리만 하	김건희 심기경호에 정신없는 윤통님. 이 정권도 한동훈 말 들었음 총선에서도 이겼고 이렇게 민심 이반 안했죠 이종섭 의료담화 이천증원 한동훈이 다 말렸었는데 옆에 친윤들 비선들 말만 듣다가 다 망가트리고도 아직도 한동훈 내칠 궁리만 하는 한심한 용산.	한동훈	삭제
1090	2024-10-07 12:22	중앙) 지금 시중의 민심은 험악하다. 골수 보수층도 김 여사 얘기가 나오면 인상을 찌푸린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라인을 신설되는 제2부속실에 몰아넣으려 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그런데 파악해 보니 숫자가 너무 많아서 수용이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한다. 김 여사 '통제'는 쉽지 않다. 여권 핵심 인사는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했다. 사실이라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인사 개입 개연성은 높아진다. 성난 민심에 쫓기는 여권은 정치적 생존을 위해 독자적인 길을 걸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김 여사가 국민 앞에 서서 직접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내 역할만 충실하겠다"고 한 대선 전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들끓는 민심과 충돌하면 김 여사 문제가 윤 대통령 문제로 바뀔 수 있다. [출처:중앙일보]	진은정	삭제

1091	2024-10-07 13:11	중앙칼럼) 권력은 한순간에 소멸하는 꿈일 뿐이다. 천하의 양김도 재임 중 눈물로 아들의 구속을 받아들였다. 대신 나라를 혼란으로부터 지켰다. 과연 이 나라 민주주의를 건설한 거인답다. 윤 대통령이 부디	대통령실은 김 여사 라인을 신설되는 제2부속실에 몰아넣으려 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그런데 파악해 보니 숫자가 너무 많아서 수용이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한다. 김 여사 '통제'는 쉽지 않다. 여권 핵심 인사는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했다. 사실이라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인사 개입 개연성은 높아진다.	진은정	삭제
1092	2024-10-07 13:16		가치를 공유하는 사이 굳건히 우파 정치 성공을 위해 뭉쳐서 한동훈 중심으로 정치를 바로 세우길	허수옥	
1093	2024-10-07 13:30	대통령 취임식이 '여사 의혹'의 중간 저수지였나	이상 언급한 세 사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관련자들이 모두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점이다. '정치 브로커' 명 씨, 'BP 패밀리'로 언급된 김 씨와 이 씨, '21그램의 대표' 김모 씨가 초청장을 받거나 취임식 당일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1심 재판 중이었던 권오수 이종호 씨는 취임식에 가지 않았지만, 그 대신 권 씨의 아들과 부인이 참석했다. 이들 외에 김 여사와 서울대 EMBA 과정을 함께 다닌 인연으로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준 김모 씨, 김 여사와 공동 작성 논문으로 위조 및 표절 논란에 휩싸인 김모 교수, 무속인 천공의 측근 등도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이 언론의 취재를 통해 밝혀졌다. 모두가 김 여사와 인연을 빼고 나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될 만한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지만, 취임식은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과 비전, 주요 정책 등을 전 국민에게 밝히는 엄숙한 자리다. 당연히 참석자 한 명 한 명이 5000만 국민에 대한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선정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주가조작 패밀리, 문서위조범, '업자', 무속인, 정치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섞여 들어 있었던 것이다. 취임식이 '여사 의혹의 중간 저수지'였다고 해도 할 말이 없고, 뒤탈이 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면면이다.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윤 대통령 취임식 직후 참석자 명단을 놓고 논란이 일자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서 "전부 파기했다" "일부 남아 있다" 등 오락가락 해명 끝에 명단의 일부	최영옥	

1094	2024-10-07 16:43	여권 핵심 인사는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했다.	이어 "언제 어디서 결정적인 녹취록과 텔레그램이 튀어나와 스모킹건이 될지 알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바로 레임덕에 빠지고 야권은 탄핵열차의 시동을 걸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벌써 '도중에라도 끌어내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며 탄핵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는 더 나아가 "대통령실은 김 여사 라인을 신설되는 제2부속실에 몰아넣으려 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그런데 파악해 보니 숫자가 너무 많아서 수용이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한다. 김 여사 ‘통제’는 쉽지 않다"며 "여권 핵심 인사는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이라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인사 개입 개연성은 높아진다. 성난 민심에 쫓기는 여권은 정치적 생존을 위해 독자적인 길을 걸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윤 대통령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김 여사가 국민 앞에 서서 직접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내 역할만 충실하겠다'고 한 대선 전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들끓는 민심과 충돌하면 김 여사 문제가 윤 대통령 문제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했다. 윤 대통령이 냉철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아차 하는 순간 이 나라는 남미처럼 추락할 것"이라며 "천하의 양김도 재임 중	최영옥	
1095	2024-10-07 16:46	김명신여사는 국민들로부터 실오라기 정도의 권한도 권력도 일절 부여받지 못한 그저 일반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건가	여권 핵심 인사는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했다. / 이 아줌마는 진짜 자신이 국민들로부터 실오라기 정도의 권한도 권력도 일절 부여받지 못한 그저 일반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건가? 아무 것도 아닌 일반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의 것처럼 쓰면 그게 국정농단이다. 김명신은 제2의	한지윤	
1096	2024-10-07 16:48		윤석열은 실패한 리더...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자질과 인성, 능력의 소유자인데 이재명 덕분에 어부지리로 대통이 되었든 운 좋은 인물..... 그러나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바보인 대통령. 나은 인기 잘 지키려면 김건희 정리해라 !	허수옥	
1097	2024-10-07 16:51	김대남 김건희 더러운 커넥션 다 밝히세요. 짬짜미하며 서로 묻고 덮어주는 건 좌파들이나 하는 짓이죠. 사실관계를 밝혀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고 넘어가는게 보수의 가치입	전당대회 기간에 좌파매체 서울의 소리랑 야합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놈이다 정당법 위반한 놈이다 사퇴로 끝난다고 착각하지 마라 반드시 배후를 밝혀야 한다	한동훈	삭제

1098	2024-10-07 16:52	사설) 대통령은 거부권이란 방패로 아내를 지키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상황은 훨씬 위험해졌다	가족의 비리 또는 권력남용에서 자유로웠던 역대 대통령을 찾긴 어렵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권 몰락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는 건 처음이다. '김건희 정권'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다.	최영옥	
1099	2024-10-07 17:04	좌파에게 진영까지 팔아먹겠다는 김대남을 꽃보직에 앉힌 그 배후 궁금하다.수많은 청장년층에게 박탈감만 주는 그 배후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이 너무 맑아서 오물탕의 국민의힘 패거리들이 보기엔 가까이 하기 어려울것 그러나 까마귀 노는곳에 백로야 놀지말라는 속담은 이경우에 맞지 않다 군계일학 한동훈이 나머지 까마귀를 잘 이끌기 바란다. 추경호 종류의 극소수 간신배 딸랑이 말고는 그래도 잘 달래면 될거다	한동훈	삭제
1100	2024-10-07 17:19		https://www.youtube.com/watch?v=zJNsmFkiGvE	허수옥	
1101	2024-10-07 17:23	여권 핵심 인사는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했다/심각하네 보수우파 지지층이라면 윤석열에 화가 나	총장시절 몇마디에 홀려 희망을 품고 보수대통령 환영했다 왠걸 2년반동안 지켜보니 안철수덕에 그자리 꿰차고선 홀대하고 개무시하는데 깜짝 놀랐다 당을 쥐락펴락 하며 지가 뽑은 김기현도 준석이 다 내쫓아내고 새정부초기 임명한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김성한등등 배신자로 몰아 내쫓고	한지윤	
1102	2024-10-08 15:23	공과사 철저하고 국민들편에서 진심을 다해 일해온 한동훈 이라는 사람이 걸어온 길을 국민들과 당원들이 지켜봐 왔고 알고 있기에 저런 더러운 공작질에도 넘어가지 않고 한동훈 대표를 선택했습니다 국민들 믿고 앞으로 나아 가세요 응원합	공과사 철저하고 국민들편에서 진심을 다해 일해온 한동훈 이라는 사람이 걸어온 길을 국민들과 당원들이 지켜봐 왔고 알고 있기에 저런 더러운 공작질에도 넘어가지 않고 한동훈 대표를 선택했습니다 국민들 믿고 앞으로 나아 가세요 응원합니다	한동훈	삭제
1103	2024-10-08 15:27	검찰이 달랑 불기소 처분을 내려 사람한테 충성하는 비열함을 보인다면,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져 개도 안 주워갈 게 분명하다. 야당에서 '더 쎈 특검법'이 나오고 윤 대통령이 이해충돌 문제도 외면한 채 또 거부권을 날리면, 그때는 민심이 뒤	검찰이 달랑 불기소 처분을 내려 사람한테 충성하는 비열함을 보인다면,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져 개도 안 주워갈 게 분명하다. 야당에서 '더 쎈 특검법'이 나오고 윤 대통령이 이해충돌 문제도 외면한 채 또 거부권을 날리면, 그때는 민심이 뒤집힐지도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dobal/article/all/20241008/130173417/1	최영옥	
1104	2024-10-08 15:30	한동훈 대표님 국힘 기강 잡으세요. 국힘 너무 엉망입니다. 게다가 국힘 김건희 방탄당 아닙니다다시 김건희 쉴드 치지 마세요. 다음번에 방탄하면 당원에게도 보수에서도 버	친한계 의원들 젊고 상식적이고 가치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란거 국힘 지지층은 다 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가다 보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한지윤	

1105	2024-10-08 15:31		중진 권성동 권영세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씨.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직언하세요 ^^ 우파 대부분 돌아섰어요 그게 더 무서운겁니다저부부 보수우파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했음에 틀림없는 행동만 합니다. 저부부때문에 지금 강화 부산 다 지게 생겼어요 한가하게 양비론 할땝니까 지금 집이 불타고있는데 ㅋㅋ 잘 모르시나본데 윤석열 찍은 강남 대부분 주민들 차라리 이재명이 나은거 아니야? 이러고있답니다 이재명은 국민 눈치는 볼거같대요 ㅋㅋ	허수옥	
1106	2024-10-08 15:33	중앙) 권력은 한순간에 소멸하는 꿈일 뿐이다. 천하의 양김도 재임 중 눈물로 아들의 구속을 받아들였다. 대신 나라를 혼란으로부터 지켰다. 과연 이 나라 민주주의를 건설한 거인답다. 윤 대통령이 부디 실기(失期)하지 말기 바란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김건희' 국감이 될 것이다. 사흘 뒤면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난다. 여당 의원들이 더 이상 '용산'과 검찰의 눈치를 살필 이유가 없다. 특검법이 가결되면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공천·인사 개입 등 오만가지 혐의로 불려다니고 압수수색도 받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 결정적인 녹취록과 텔레그램이 튀어나와 스모킹건이 될지 알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바로 레임덕에 빠지고 야권은 탄핵열차의 시동을 걸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벌써 "도중에라도 끌어내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라인을 신설되는 제2부속실에 몰아넣으려 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그런데 파악해 보니 숫자가 너무 많아서 수용이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한다. 김 여사 '통제'는 쉽지 않다. 여권 핵심 인사는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했다. 사실이라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인사 개입 개연성은 높아진다. 성난 민심에 쫓기는 여권은 정치적 생존을 위해 독자적인 길을 걸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김 여사가 국민 앞에 서서 직접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내 영할만 충실하겠다"고 한 대선 전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등	진은정	삭제
1107	2024-10-08 15:40	양정철 수행비서 황종호 등 몇명과 김건희가 국정을 쥐락 펴락한다는 게 말이되냐 세상에 윤석열은 결정도 못한다고 한다. 한동훈이 이런거 모를리 없고 알리려고 만나자고 하니 무서워서 피하고.. 보수가 살려면 김건희는 자진해서 특검 받아야 할판에 검사들 불러 핸드폰 압수나 하고 황제조사 받으니 민심이 폭팔	친윤과 대통령실 십상시들이 문제임 물론 가장 핵심적 문제는 김건희여사님	한동훈	삭제
1108	2024-10-08 15:44		당신네 친윤 간신들 국민이 다 보고있는데 헛소리 작작하세요 술마시고 뒷담화 작당모의 그만하시길 열결슨니다	허수옥	

1109	2024-10-08 15:46	국힘에 쓸모없는 세금도둑들 당정 변화에 노력도없이 헛기침만 하는 중진들 이번이 마지막으로 정리 되어야 합니다 당원들은 뒷방 늙은이들 아주 불편합니다 특히 윤상현님	윤상현의원님 본인 텃밭이라는 곳에서 이번총선때 윤석열 김건희부부께서 이종섭 대파 채상병 의대담화 등등 윤석투하해서 겨우 1000표차이로 남영희한테 이긴사람이 지금 누가 문제인지도 모르나요??? 지금 수도권 낙선한 원외 당협위원장들 죄다 저 윤석때문에 2~3%차이로 낙선해서 지금 속에 울분을 삭히고 있는데요??? 총선이 2~3일만 늦춰지고 윤석열대통령님이 윤석 더 떨어트렸으면 의원님 지금 뱃지 못달고 원외당협위원장 이에	한지윤	
1110	2024-10-08 15:47	심우정이 나서야 대통령도 떳떳해진다 윤 대통령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국민의힘이 다시 무력화시킨 '김 여사 특검법' 수사 대상이 무려 8가지다.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포함해 디올백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김 여사의 입김과 활약에 따라 수사 대상은 자꾸 확대됐다. 2020년 4월 최강욱 등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추상같이 이뤄졌다면, 김 여사는 대한	심우정이 나서야 대통령도 떳떳해진다 윤 대통령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국민의힘이 다시 무력화시킨 '김 여사 특검법' 수사 대상이 무려 8가지다.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포함해 디올백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김 여사의 입김과 활약에 따라 수사 대상은 자꾸 확대됐다. 2020년 4월 최강욱 등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추상같이 이뤄졌다면, 김 여사는 대한민국 검찰 무서운 줄 깨닫고 오늘날 이 지경까지 이르진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니 명태균이라는 다수 국민에겐 듣보잡 같은 '책사'가 튀어나와 자기가 정권을 만들었느니,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한 달이면 (윤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는 흰소리나 하는 것이다. 김 여사가 심우정 검찰 앞에 소환되는 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모질지 못한 우리 국민은 분명 김 여사를 다시 돌아본다(재판받고 유죄 선고를 받아도 실형을 살 리도 없다). 그래야 윤 대통령도 국민 앞에 떳떳해지고, 지지율이 단박에 획기적으로 올라가면서 국정 동력도 새롭게 확보할 수 있다.	최영옥	

1111	2024-10-08 15:49	문화일보 사설-- 명태균·김대남 파문 점입가경… 용산이 제대로 해명해야	지난 2022년 6월 창원 성산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알려진 명 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의 절반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공천 대가로 김 전 의원이 9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명 씨는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 검사에게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되묻겠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녹취록 파문도 점입가경이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가 드러나면서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에서 사퇴한 김 씨는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용산엔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있다“면서 “(김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며 시켜먹는다”고 했다. 대표 경선 당시 반(反)한동훈 여론 작업을 위해 대통령실이 보수단체를 불렀다는 주장도 했다. 마냥 일축하고 넘길 단계가 지났다. 여당인 국민의	진은정	삭제
1112	2024-10-08 16:48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싸고 긴 가민가 떠돌던 정치권 풍문들이 형체를 갖춰가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만났거나 접촉했던 당사자들이 폭로성 주장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녹취록 파문도 점입가경이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가 드러나면서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에서 사퇴한 김 씨는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용산엔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있다“면서 “(김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며 시켜먹는다”고 했다. 대표 경선 당시 반(反)한동훈 여론 작업을 위해 대통령실이 보수단체를 불렀다는 주장도 했다. 마냥 일축하고 넘길 단계가 지났다. 여당인 국민의 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시급하다. 선거 와중에 부적절한 만	진은정	삭제

1113	2024-10-08 17:14	(동아) 지금 '심우정 검찰'이 검찰을 바로 세우고 대통령도, 나라도 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한때 '윤석열 검찰'의 필살기였던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나섬으로써 이제라도 김 여사를 제어하는 일이다.	2021년 7월 통화가 시작될 때부터 김 여사는 선거를 얘기했다. "동생이 좀 와~ (선거)캠프에서, 조직, 블랙 조직으로 좀 뛰어 봐봐" 도움을 청하면서 오빠가 있는 캠프에 오면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으로 7일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 자리에서 물러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출신 김대남과 통화를 공개한 좌파 유투버가 바로 이명수다. 3년 전 김 여사는 이명수에게 "하여튼 (윤석열 비판은) 반응 안 좋다고, 슬쩍 한번 해봐 봐. 홍준표 까는 게 슈퍼챗(후원금)은 지금 더 많이 나올 거야" 코치를 하기도 했다(김대남이 이명수에게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했던 것과 비슷한 느낌?). ● "대통령 자리가 그렇게 만든다"는 김 여사 대통령 자리도 김 여사는 패밀리 비즈니스로 알고 있는 게 아닌지, 더럭 겁이 난다. 대선 전 이명수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완전히…(웃음)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디올백 진상 논란의 재미 목사 최재영에게 이랬던 건 너무나 당연했던 셈이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중략) 막상 대통령이 되면은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들 생각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심지어 명태균이라는	최영옥	
1114	2024-10-08 17:16	한동훈대표 지금 재보궐 지원유세 수없이 계속 다니고있고 절실히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고있는데 윤상현의원님 근처 재보궐 출마한분 지원유세 한번도 안가고 뭐하시나요 개소식에라도 갔어야지요 그냥 용산 꼬붕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	김건희리스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시군요 김건희 리스크가 인천 미추홀구 포함 국민들 피로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용산이 싼 똥 대체 언제까지 치워줘야하나요	한지윤	

1115	2024-10-08 17:18		용감하고 정의롭고 젊은 친한계 그나마 추경호같은 간신배 드글거리는 국힘 집단에서 당원들이 안떠나는 이유입니다. 확실히 계파 만드세요. 당원들이 허락하고 지지하니 눈치보지 말고 할말 하세요 보수우파 지키는길이 그겁니다 추경호 권영세 간신배는 빠지세요 ㅋㅋㅋ 잘할거 하나도 없으면서	허수옥	
1116	2024-10-08 17:37	김건희가 보수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데도 대통령이 결단을 못내리나. 제대로 관리해라 제발	용산은 이제보니 김건희가 다스림. 김건희의 정신세계, 김건희가 흰 드레스 입고 필리핀 대통령 부부에게 칭찬받았다고 대통령실이 김건희 사진과 함께 홍보했는데, 이게 바로 김건희와 대통령실의 정신세계인건지..	한동훈	삭제
1117	2024-10-09 14:46	대통령실은 김 여사 라인을 신설되는 제2부속실에 몰아넣으려 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그런데 파악해 보니 숫자가 너무 많아서 수용이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한다. 김 여사 '통제'는 쉽지 않다. 여권 핵심 인사는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했다. 사실이라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인사 개입 개연성은 높아진다. 성난 민심에 쫓기는 여권은 정치적 생존을 위해 독자적인 길을 걸을 것이다. 윤 대통령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했다. 윤 대통령이 냉철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아차 하는 순간 이 나라는 남미처럼 추락할 것이다. 클리프 리처드의 'The young ones'는 청춘의 사랑을 예찬하는 노래지만 인간의 유한성(有限性)을 잊지 말라고 서늘하게 경고한다. "Cause tomorrow sometimes never comes." 그렇다. 나에게 내일이 온다는 보장은 그 어느 문서에도 적혀 있지 않다. 가사는 카르페 디엠!(Carpe Diem!) "눈앞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2000년 전 호라티우스의 비장한 명령을 변주(變奏)하고 있다. 권력은 한순간에 소멸하는 꿈일 뿐이다. 천하의 양김도 재임 중 눈물로 아들의 구속을 받아들였다. 대신 나라를 혼란으로부터 지켰다. 과연 이 나라 민주주의를 건설한 거인답다. 윤 대통령이 부디 실기(失期)하지 말기 바란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2430	진은정	삭제
1118	2024-10-09 15:40	[사설] 명태균 '탄핵 협박', 김대남 '여사 십상시'... 참담하다	이런 와중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건희 젊은 십상시'를 거론한 녹취록도 공개됐다. 그는 '용산 십상시'에 대해 "여사가 어린애들을 쥐었다 폈다 시켜먹는다. 40대이고 박근혜 정부 때 있던 애들"이라고 했다. 7월 전당대회 때는 한동훈 후보 공격 여론작업을 위해 대통령실이 보수단체를 불러들였다고도 했는데, 떠돌던 풍문이 중계방송되는 격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이들에 대해 고발 조치나 입장 표명,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떳떳하지 못한 속사정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만 커지고 있다. 일부 인사들이 "명씨와 대통령은 긴밀한 관계가 전혀 아니다"고 전하고 있으나 이런 비공식 대응으로 의혹이 덮일 상황은 아니다. 시간을 끌수록 정국이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통령실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공개해야 한다. 검찰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운을 걸고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바란다.	최영옥	

1119	2024-10-09 15:53	[사설]정치브로커가 '나 감당되냐' 고 대통령 협박하는 나라	대통령실 말대로 명씨 주장이 허무맹랑하다면 윤 대통령 부부는 즉각 명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서야 정상이다. 그러나 대선 후보 검증 보도의 일환인 윤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를 두고는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이라고 핏대를 세웠던 대통령실도,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 반역죄"라고 했던 여당도,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대대적으로 수사한 검찰도 지금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명씨 발언을 두고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다. 뭔가 켕기는 게 있어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한배를 탔던 정치브로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마치 약점이라도 쥔 양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건 정권 말기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임기가 반환점을 채 돌기도 전에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주변에는 천공, 건진 등 명씨와 같은 자칭 정치도사들이 유독 많다. 시스템보다 사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	진은정	삭제
1120	2024-10-09 15:55	스펙도 좋고 정치 이력도 화려한 소위 중진이라는 인간들이 왜 보안과 보완도 구분 못하는 김여사 손바닥 위에서 애완견이 되어 한동훈 공격만 주구장창하는지 이상했는데 나경원 권성동등 다들 명태균 김대남	명태균 저사람 사기및 변호사법위반으로 실형받은사람임 이런 사기꾼하고 붙어먹은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나경원 원희룡.. 그동안 왜 한동훈한테 발작했는지 알겠다	한지윤	
1121	2024-10-09 15:56		윤석열 찍은 사람 절반이상이 등돌렸는데 그 최고 원인이 김건희 때문이다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서 모두가 김건희 싫어한다	허수옥	
1122	2024-10-09 16:55	지금의 김건희 너무 지나쳐...윤석열과 공동 대통령도 아니고...	한동훈한테 문자 3개 보내고 답 없는데 4번째 문자를 보내는 와중에 김대남한테 한동훈이 나한테 무릎꿇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며칠 후 다시 5번째 문자를 보냄 리플리증후군인가	한동훈	삭제
1123	2024-10-09 19:29	어쩜 뽑아준 우파를 이리 배신하는지.. 한동훈과 힘을합쳐도 모자를판에 마누라감싸기에만 급급한 대통령...진정 이럴줄 몰랐네요...근신을 하든 소록도봉사를하든 해야합니다	보수가 위험하고 나라가 위험해진다. 그게 어렵다고?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면 어려운 일도 해야 하는 사람이다.	한동훈	삭제

1124	2024-10-09 19:29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싸고 긴 가민가 떠돌던 정치권 풍문들이 형체를 갖춰가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만났거나 접촉했던 당사자들이 폭로성 주장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여전히 허위와 사실을 분간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지만, 방치하면 파문이 어디로 번질지 예측하기 힘들다. 공천·당무 개입, 불법 여론조사, 용산 십상시 등 대중의 관심을 끌 자극적인 내용이 많고, 야당은 국정감사에 관련자들을 불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녹취록 파문도 점입가경이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가 드러나면서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에서 사퇴한 김 씨는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용산엔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있다"면서 "(김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며 시켜먹는다"고 했다. 대표 경선 당시 반(反)한동훈 여론 작업을 위해 대통령실이 보수단체를 불렀다는 주장도 했다. 마냥 일축하고 넘길 단계가 지났다. 여당인 국민의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시급하다. 선거 와중에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면 깨끗이 사과하면 된다.	진은정	삭제
1125	2024-10-09 19:31	명태균 저사람 사기및 변호사법위반으로 실형받은사람임 이런 사기꾼하고 붙어먹은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나경원 원희룡.. 그동안 왜 한동훈한테 발작했	스펙도 좋고 정치 이력도 화려한 소위 중진이라는 인간들이 왜 보안과 보완도 구분 못하는 김여사 손바닥 위에서 애완견이 되어 한동훈 공격만 주구장창하는지 이상했는데 나경원 권성동등 다들 명태균 김대남과 더럽고 추악하게 엮여있더라.	한지윤	
1126	2024-10-09 19:33		한동훈이 세력화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어마어마하게 모일텐데 지금까지 친윤과 용산배려해서 독고다이 한거죠, 하지만 용산이 귀막고 민심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이젠 힘으로 제압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한동훈 세력화 찬성이요. 권영세 권성동 추경호 같은 사람이	허수옥	
1127	2024-10-09 19:59	김건희 여사 주변에 있는 불순한 자들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본연의 역할을 해야할 것 같다. 이미 당한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철저히 주변 관리를 하여 이미 돌아선 보수 지지	김건희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한동훈	삭제
1128	2024-10-09 20:04		명씨의 말이 사실이아니라면 용산은 대답하라. 법적조치에 벌써 들어갔을탠데 왜 침묵하는건가. 그의 말에 의하면 한달후면 탄핵당할처지라고 으름장을 놓고있다. 이런와중에 의로개혁하겠다고 큰소리치고있다. 윤석열은 사명초갔다. 한동훈만 들어라	허수옥	

1129	2024-10-09 20:05	스펙도 좋고 정치 이력도 화려한 소위 중진이라는 인간들이 왜 보안과 보완도 구분 못하는 김여사 손바닥 위에서 애완견이 되어 한동훈 공격만 주구장창하는지 이상했는데 나경원 권성동등 다들 명태균 김대남	국힘은 구태 중진들 나경원 권성동 윤상현 추경호 같은 인간들 다 물갈이 되고 일하는 정치인들이 한동훈 중심으로 뭉쳐야 보수가 산다	한지윤	
1130	2024-10-09 20:05	[사설] 명태균 '탄핵 협박', 김대남 '여사 신상식' … 참담하다	명씨는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가 담긴, 또 다른 휴대전화가 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추가 폭로 여부를 놓고 대통령 정치권 검찰과 법랑 끝 싸움을 벌이는 경이다 그는 김 여	최영옥	
1131	2024-10-10 9:06	동아) 대통령이 밑바닥 찍겠다면 그 옆에 설 여당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타일상 밑바닥을 찍어야 방향을 바꾼다. 중간에 바꾸는 법이 없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바라본 ‘윤석열 스타일’이다. 국정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0%를 찍었음에도 ‘탄핵 경고등’이 켜지는 10%대로 내려가야 변화의 조짐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민심이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라는 대다수 여당 의원의 인식과 정반대다. 대통령 지지율이 밑바닥마저 파고들어 가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심리적 마지노선’만 다른 것인가. 용산과 여의도 사이의 심리적 간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김 여사 문제다. 당에서는 이미 올해 1월 총선 국면부터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이후 한 대표와 전당대회 때 경쟁했던 나경원 윤상현 의원, ‘친윤 주자’ 원희룡 전 장관도 김 여사 사과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때 여당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필리버스터 지연 작전’을 펼치지 않았다. 김 여사를 향한 국민적 여론이 나쁜데 옹호했다가 ‘방탄 정당’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먼저 선뜻 나서 몇 시간 동안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토론할 의원도 찾기 쉽지 않았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상황이니 윤 대통령이 건배사로 “우리는 하나”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최소 4표가 나온 것이다. 당론 부결 대열에서 4명이 이탈한 것은 용산과 여의도의 인식 차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4명 더 이탈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윤 대통령과의 독대로 김 여사 해법을 찾겠다던 한 대표는 독대가 거부당하자 ‘팀 한동훈’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물러나지 않고 앞장서겠다. 믿고 따라 달라”, “선택해야 한다면 민심을 따를 것”이라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방어막을 더는 치기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	최영옥	

1132	2024-10-10 9:49	김종인 “金여사가 명태균 휴대전화로 ‘남편 만나달라’고 해”	ㅡ윤 대통령과 첫 만남은 어떻게 마련된 건가. “김 여사가 명 씨 전화로 ‘내가 남편에게 곧 전화를 드리라고 할 테니 만나 달라’고 했다. 한 40분 후에 윤 대통령한테서 전화가 와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 ㅡ식사 자리에 명 씨도 배석했나. “처음에 김 여사가 나한테 몇 마디 한 다음에 명 씨하고 둘이 나갔다. 밥은 윤 대통령과 둘이서 먹었다.” ㅡ윤 대통령, 김 여사와 명 씨 사이는 어때 보이던가.	진은정	삭제
1133	2024-10-10 9:50	당에서는 이미 올해 1월 총선 국면부터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이후 한 대표와 전당대회 때 경쟁했던 나경원 윤상현 의원, ‘친윤 주자’ 원희룡 전 장관도 김 여사 사과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때 여당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필리버스터 지연 작전’을 펼치지 않았다. 김 여사를 향한 국민적 여론이 나쁜데 옹호했다가	당에서는 이미 올해 1월 총선 국면부터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이후 한 대표와 전당대회 때 경쟁했던 나경원 윤상현 의원, ‘친윤 주자’ 원희룡 전 장관도 김 여사 사과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때 여당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필리버스터 지연 작전’을 펼치지 않았다. 김 여사를 향한 국민적 여론이 나쁜데 옹호했다가 ‘방탄 정당’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먼저 선뜻 나서 몇 시간 동안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토론할 의원도 찾기 쉽지 않았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타일상 밑바닥을 찍어야 방향을 바꾼다. 중간에 바꾸는 법이 없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바라본 ‘윤석열 스타일’이다. 국정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0%를 찍었음에도 ‘탄핵 경고등’이 켜지는 10%대로 내려가야 변화의 조짐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민심이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라는 대다수 여당 의원의 인식과 정반대다. 대통령 지지율이 밑바닥마저 파고들어	최영옥	
1134	2024-10-10 9:52	윤석열대통령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을 되새겨 보기바란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다 때를 놓쳤다.의대증원이 맞는 제도이긴 하지만 총선직전에 제시하여 총선을 어렵게 했고 지금은 일파만파 확대되어 호미로 막을것을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고 있다.여사 문제도 진솔한 사과와 조용한 처신으로 막을것을 맞지도 않는 대담에 온갖 정치 관여로 만수산 등렁칡보다 더 꼬여 해결의 실마리가 요원하다.방법은 딱 한가지...의정 문제는 일단 여당대표에게 길을 열어보게	한지윤	

1135	2024-10-10 9:53		내조만 한다던 여사가 정권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정권의 핵심 문제거리가 됐다 이게 내조인가? 아무나하고 만나고 아무거나 받고 카톡질하고 문자질하고 이게 진짜 내조인가? 제2부속실 설치한다더니 함흥차사다 특별감찰관 설치도 2년이 넘었는데 감감무소식이다 내가 윤석열을 뽑은 것인 김건희를 뽑은 것인	허수옥	
1136	2024-10-10 9:58	박 지사 쪽의 이런 얘기는 '경남 지역 정치인'이 윤 대통령 자택으로 명씨를 데려와서 명씨와 만났다는 대통령실 해명과는 엇갈린다.	박 지사 쪽 관계자는 이날 저녁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시절인 2021년 7월 말~8월 초 박 지사가 명태균씨 제안으로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집을 찾아가 만난 적이 있다"며 "(윤 대통령이) 집에서 명씨를 두번 만났다고 하는데, 박 지사가 만난 건 아마도 그 두번째 만남인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만남이 (윤 대통령과 박 지사가 자택에서 만난)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다"며 "당시 그 자리에는 윤 대통령과 명씨까지 셋이 있었고 김 여사는 없었다"고 전했다. 박 지사 쪽이 이런 사실을 공개한 건, 이날 이준석 의원 외에 2021년 윤 대통령에게 명씨를 소개한 국민의힘 의원으로 박 지사가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2021년 7월4일 한 식당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명씨를 만났다'는 한겨레 등의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김 전 위원장과의 만남을 인정하며 전날 '대선 전 두차례 명씨를 자택에서 만났을 뿐'이라던 입장을 뒤집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김 전 위원장 외에) 윤 대통령이 자택에서 명씨와 함께 만난 인물은 이준석 의원과 경남 지역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이후 채널에이(A)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지목한 두번째 인물이자 '경남 지역 정치인'이 박완수 지사라고 보도했다. 김 전 위원장과 식당에서 만난 것까지 포함하면, 윤 대통령이 이준석 의원과 박완수 지사 등과 함께 명씨를 최소 세차례 만났다는 얘기인 셈이다. 박 지사 쪽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시 자택 만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만남이 '명씨의 제안'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지사 쪽의 이런 얘기는 '경남 지역 정치인'이 윤 대통령 자택으로 명씨를 데려와서 명씨와 만났다는 대통령실 해명과는 엇갈린다. 박	진은정	삭제
1137	2024-10-10 10:01	명태균이 만난 사람들 윤석열 나경원 원희룡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ㅋㅋㅋㅋ 공통점이 한동훈한테 발작하는 사람들인 인증과 인연ㅋㅋ	스펙도 좋고 정치 이력도 화려한 소위 중진이라는 인간들이 왜 보안과 보완도 구분 못하는 김여사 손바닥 위에서 애완견이 되어 한동훈 공격만 주구장창하는지 이상했는데 나경원 권성동등 다들 명태균 김대남과 더럽고 추악하게 엮여있더라.	한지윤	

1138	2024-10-10 10:02		국민은바보가아닙니다 누가봐도 한동훈은 민심을전하고 모두가 윤통눈치나보고 권력에 매달려아무말도못하지만 윤통,김건희잘못하고있고 김건희이대로두면 보수망하는거알고 한동훈은 옳은소리하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유치한 일진 왕따놀이에 온갖모욕 당했죠 윤통이 김건희에 대해 이른바 '노터치'다. 김 여사 얘기를 잘못 꺼냈다가 '대통령의 격노'를 경험한 인사들이 적잖다. 여론이 나빠지고 주변 우려가 깊어져도 대통령은 바뀌지 않	허수옥	
1139	2024-10-11 3:07	[사설]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리스트	명 씨 논란에 등장하는 유력 정치인들이 '명태균 리스트'라 할 만큼 많다는 점도 기이한 일이다. 대선 전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메신저 노릇을 했다고 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고 한다.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의원도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각 명 씨를 만났다고 한다. 이들은 "더 이상의 깊은 인연은 없었다"고 손사래를 치지만,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전과가 있는 명 씨가 국민의힘 배후에서 어떻게 이런 광폭 행보를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검찰 수사에 몰린 명 씨가 마구잡이 폭로전을 하는 건지, 그의 주장에 어떤 실체가 있는 건지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 이러다	진은정	삭제

1140	2024-10-11 11:22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를 젊어서 사업에 성공해 돈 많고 능력 있고 아름다운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 영부인을 좋아하면서도 시기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다. 그러니 바깥의 비난들에 크게 괘념치 마시라.…이런 식으로 10상시 같은 측근들이 보고하면 김 여사는 진짜 그런 줄 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정치적 동지라는 의식이 있다.”	김 여사의 착각과 윤 대통령 ‘필부의 의리’ 딱한 일은 민심의 요청이 간절한데도 윤 대통령 부부가 자세를 전환할 마음이 없는 현실이다. 왜 그러는 것일까. 대통령실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하면 두 사람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은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를 젊어서 사업에 성공해 돈 많고 능력 있고 아름다운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 영부인을 좋아하면서도 시기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다. 그러니 바깥의 비난들에 크게 괘념치 마시라.…이런 식으로 10상시 같은 측근들이 보고하면 김 여사는 진짜 그런 줄 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정치적 동지라는 의식이 있다.” “대통령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은 김 여사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누구든 쓴소리를 할라치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초장에 막아 버린다. 그러니 대통령 앞에서 영부인 얘기를 할 사람이 없다. 그다음으로 싫어하는 게 한동훈과 협력해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조언. 옛 부하가 아내를 능멸하고 모욕하는데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가라는 인식이다.” 이로 보면 김건희 여사는 주식·공천 개입 등 쏟아지는 국민적 의혹과 비난을 보통 사람들의 시기심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 윤 대통령도 필부의 의리가 지나쳐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공적 임무(여당 대표와의 긴밀한 당정 협의도 포함된다)를 경시하고 있다.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 이란 초심은 사라지고 부인 때문에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진은정	삭제

1141	2024-10-11 11:59	대통령이 밑바닥 찍겠다면 그 옆에 설 여당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타일상 밑바닥을 찍어야 방향을 바꾼다. 중간에 바꾸는 법이 없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바라본 ‘윤석열 스타일’이다. 국정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0%를 찍었음에도 ‘탄핵 경고등’이 켜지는 10%대로 내려가야 변화의 조짐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민심이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라는 대다수 여당 의원의 인식과 정반대다. 대통령 지지율이 밑바닥마저 파고들어 가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심리적 마지노선’만 다른 것인가. 용산과 여의도 사이의 심리적 간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김 여사 문제다. 당에서는 이미 올해 1월 총선 국면부터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이후 한 대표와 전당대회 때 경쟁했던 나경원 윤상현 의원, ‘친윤 주자’ 원희룡 전 장관도 김 여사 사과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때 여당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필리버스터 진영 잔정’을 펼치지 않았다. 김 여사를 향한 국민적 여론이 나쁘데 윤	최영옥	
1142	2024-10-11 12:01	국민들은 삶도 팍팍한데 뭡 인간같지도 않은 것들이 나라를 뒤집어 놓는걸 보니 열불난다 명태균 김건희 이재명 주사파 등등 지겨워 죽겠다 아까보니 정치브로커에 얽히지 않은 정치인 한동훈 뿐이더라 반드시 청소하고 좋은 정치 해주시기 바랍	부산은 민심의 바로미터”라며 “지난 총선에서 부산 시민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결정을 했다. 그에 보답하기 위해 좋은 정치를 할 것---> 제발 이런 정치를 하도록 김여사의 공천 등등 여당 뉴스로 도배되지 않도록 김여사는 자제하는게 맞고....제발 정책이 뉴스로 도배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지윤	
1143	2024-10-11 12:01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한 아녀자의 남편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치명적이다. 지금의 대통령을 보면 조선시대의 민비와 고종을 연상시킨다. 지금 누리는 권력을 임시로 위임받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향유해야할 성취물로 여긴다면 그 끝은 비참할 것이다. 지	허수옥	

1144	2024-10-11 12:06	국힘당의 사람들은 대안도 없으면서 비판만하고 있는 모양새가 참으로 한심하다. 특히 나경원, 윤상현, 권성동, 홍준표 등이 더욱 한심하다. 지금까지 그래왔기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못 얻어 선거에서 피터지게 깨지고 민주당에 비참하게 공격당하고 있는게 아닌가?	김건희 여사는 주식·공천 개입 등 쏟아지는 국민적 의혹과 비난을 보통 사람들의 시기심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 윤 대통령도 필부의 의리가 지나쳐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공적 임무(여당 대표와의 긴밀한 당정 협의도 포함된다)를 경시하고 있다.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 이란 초심은 사라지고 부인 때문에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동화 ‘벌거숭이 임금’의 나라는 군주제이기에 왕의 허물이 만천하에 드러나도 백성들이 눈감아 줬지만 현실 속 윤 대통령의 나라는 현직 대통령이 불법성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속전속결 국회 탄핵을 받아 권좌에서 끌려 내려왔던, 극단적으로 민주공화정이 발달한 곳이다. 그래서 필부필부였다면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김건희의 착각과 윤 대통령의 의리	한동훈	삭제
1145	2024-10-11 12:10	한대표님 응원합니다 국민 위해 이렇게 열심인 정치인 본적이 없습니다 대표님이 있어 그나마 든든합니	강화 부산 후보님은 한동훈한테 진짜 고마워해야해요 뼈갈아가며 본인선거처럼 뛰는 당대표가 어디 있나요	한동훈	삭제
1146	2024-10-11 12:11	‘용산’ 주변에는 수상한 사람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전직 5선 의원의 지역구 공천을 받아줬다는 정치 브로커는 대가로 국회의원 세비의 절반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전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을 공격해 달라고 사주했다. 이틀 뒤 ‘한동훈 당비 횡령 비리’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갔다. 그리고 연봉 3억원의 정부 투자기관 감사 자리를 전	‘용산’ 주변에는 수상한 사람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전직 5선 의원의 지역구 공천을 받아줬다는 정치 브로커는 대가로 국회의원 세비의 절반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전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을 공격해 달라고 사주했다. 이틀 뒤 ‘한동훈 당비 횡령 비리’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갔다. 그리고 연봉 3억원의 정부 투자기관 감사 자리를 전리품으로 차지했다. 두 인물의 공통점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팔았다는 사실이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2430	진은정	삭제
1147	2024-10-11 12:15	김건희는 전주가 유죄가 나온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불기소는 아무도 납득할 수 없죠 그럼 국힘은 검찰결과보고 움직인다고 했으니 이러면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그거보다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는데 법무부장관은 인사권이 있지 수사지휘권은 행사 안합니다 수사는 검찰소관임. 그리고 김건희는 전주가 유죄가 나온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불기소는 아무도 납득할 수 없죠 그럼 국힘은 검찰결과보고 움직인다고 했으니 이러면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하는게 젤 나은겁니다	한동훈	삭제

1148	2024-10-11 12:57		정치권력의 횡포를 막는 것이 정의다 물론 여야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국민은 보고 있다 다만 그권리의 힘은 입법부 보다 집행권이 있는 행정부가 더 크고 강하다 다만 이런 힘을 가진 행정부가 독주를 고집하는데 문제가 있다 국정.통치는 대화 에 따른 타협과 투쟁이 정대정이다 이를 피하는 것이 행정부의 윤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허수옥	
1149	2024-10-11 15:15	김건희씨는 보수분열의 원흉입니다. 국힘은 채상병 김건희 특검 찬성해서 이 정권에서 심판해야지 이 부부 끌어안고 가면 보수궤멸입니다.영남의원들 니들 뱃지도 위험하	김건희 이재명은 영혼의 쌍둥이들인지 뻔뻔한거까지 쏘옥 닮았네	한지윤	
1150	2024-10-11 15:16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일 때부터 김건희는 "서울의 소리" 같은 좌파 매체와 접촉해서 분란을 일으켰다. 그때는 선거가 급해서 김 여사가 사과했다. 그러면서 자제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된 뒤에도 김 여사의 행동은 자중할 줄 몰랐다. 최재영 같은 좌파 목사를 만나고 디올백을 받았다. 또 명태균 같은 듣보잡을 부부가 같이 만나서 모셨다고 한다. 또 김대남 같은 근본 없는 인간을 중용했다. 이런 저질 인간들은 요즘 윤 대통령을 "OO"이라고 대놓고 비하한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아무 말도 못한다. 무슨 약점이 잡혔는가? 김건희 여사는 지금 석사 논문 표절 심사를 숙대가 하고 있고, 도이치 보터스 주자 조작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추석 때 김 여사는 한강에 가서 경찰청장 행세를 했다. 도대체 왜 자기 처지를 모르는가? 왜 일부러 국민 화를 돋구는가? 왜 특검을 스스로 자초하는가? 가만히 있으면 죽는가? 권력을 그렇게 행사하고 싶은가? 참 기가 막히다.	허수옥	
1151	2024-10-11 18:20	명태균 여파가 윤석열의 목을 치기 일보 직전임. 진즉에 한동훈 만나서 김건희 정리했어야지, 직언하는 한동훈 때려잡으려다가 부메랑이 된 거지. 참 함량 미달의 대통령때문에	명태균 여파가 윤석열의 목을 치기 일보 직전임. 진즉에 한동훈 만나서 김건희 정리했어야지, 직언하는 한동훈 때려잡으려다가 부메랑이 된 거지. 참 함량 미달의 대통령때문에 국민만 죽어난다.	한지윤	

1152	2024-10-11 18:21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세상은 다 아는데 본인들만 모르는 ‘벌거숭이 임금’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은 정치권에 널리 알려졌다. 2년 반 전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찍은 상당수 유권자가 이럴 줄 몰랐노라 혀를 차고 있다. 오죽하면 최근 메이저 보수 일간지에 아스팔트 우파 단체로 유명한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가 “국민을 속이고 헌법을 짓밟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탄핵당하고 싶은가?”라는 제목으로 대형 광고를 냈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세상은 다 아는데 본인들만 모르는 ‘벌거숭이 임금’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은 정치권에 널리 알려졌다. 2년 반 전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찍은 상당수 유권자가 이럴 줄 몰랐노라 혀를 차고 있다. 오죽하면 최근 메이저 보수 일간지에 아스팔트 우파 단체로 유명한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가 “국민을 속이고 헌법을 짓밟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탄핵당하고 싶은가?”라는 제목으로 대형 광고를 냈을까. 국민행동본부의 본심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아니라 그가 탄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심기일전, 환골탈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충정이자 호소일 것이다. 시사저널(https://www.sisajournal.com)	최영옥	

1153	2024-10-11 19:54	여사의 '과한 소통'을 제어할 사람은 사실상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여사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로 존중해 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게 여권의 일치된 전언이다.	"나도 여사와 문자 주고받는다"는 수도권 국민의힘 정치인의 말이다. "여사가 별생각 없이 준 문자나 통화 내용을 캡처·녹음해 가진 여당 의원들이 널리고 널렸을 거다. 여사 딴에는 남편 돕는다고 문자를 하는데, 받는 사람 마음은 공천과 관직뿐이니 악용될 소지가 크다. 언제든 폭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여사의 '과한 소통'을 제어할 사람은 사실상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여사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로 존중해 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게 여권의 일치된 전언이다. 윤 대통령을 만난 법조계 선배들이 김 여사와 관련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면 대통령은 "선배님, 저한테 앞으로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고 답한다는 것이다. 통화 도중 여사 문제를 조언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비서진들이 '여사 문제'만 거론 되면 "그 얘기 내게 하지마"라고 손 사레를 치는 이유다.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겠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과 독대 시 건의할 리스트에 여사 문제는 제외했다고 한다. 국민 입장에선 가장 먼저 거론돼야 할 사안이 가장 먼저 빠진 셈이니 독대가 성사돼 봤자 무슨 성과가 날지 의문이다. 김 여사는 며칠 전 "꼭두새벽에 개 끌고 산책 나가 경호진을 고생시켰다"는 구설에 올랐다. 알고 보니 추석 연휴에도 관저 경호하느라 수고하는 군인들에게 간식을 갖다 준 행보가 왜곡돼 전달된 것이었다. 인근 주민 불편을 줄여주려고 일부러 늦은 시각을 택했다는 것이다. 답은 여기에 있다. 김 여사 스타일을 보면, 소통 욕구가 상당하다. 그건 나쁜 게 아니다. 그러나 정치인들과의 문자나 통화는 아무리 좋은 뜻에서 했어도 국정 개입 구설수를 야기	최영옥	

1154	2024-10-12 0:33	[사설] 대통령실, '명태균 의혹' 어물쩍 넘길 일 아니다	정치권 전체가 명씨의 말 한마디에 들썩이는데도 대통령 부부는 물론 윤력 인사 누구도 속 시원히 반박하거나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선 때 명씨가 윤 대통령에게 3억6,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말문을 닫고 있다. 후보 경선 때 당원 57만 명의 명부를 입수해 두 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에도 가타부타 진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 대통령 취임 후에도 명씨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봤다고 증언했지만 이 역시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있다. 명태균 사태에 대해 “민심은 대통령 부인이 악마화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강승규 의원)는 여당 친윤계 인식은 안이하다. 정국 혼돈을 막으려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제기된 의혹들을 제대로 설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명품백 수수 사건처럼 떠밀려 지각 대응에 나선다면 민심이반을 막지 못한다. 대통령 부부의 총선 공천 개입, 명씨의 문어발 행각 등의 의혹 해소를 위해 윤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약속할 필요도 있다. '명태균 게이트'로 커지기 전에 엄중한 판단과 늦지 않은 대응이 절실하다.	진은정	삭제
1155	2024-10-12 0:41	용산 "尹, 명태균 2번 만나"…확인된 것만 벌써 '4번' 이준석, 박완수, 김영선, 김종인…명태균 "6개월간 아침마다 전화"	대통령실도 명씨와 함께 이 의원, 김 지사를 만난 사실을 시인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와 함께 자신을 만났다는 정치인들의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동아일보>에 “(2021년)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 씨를 추천했다"며 “명 씨와 함께 윤 대통령 부부를 한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이 처음 만날 적에 밥 먹자고 해서 갔더니 거기에 명태균이 있더라. 2021년 7월인가 그렇다. 내가 처음 윤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부인(김건희 여사)이랑 식당에서 만났는데, 거기에 명태균이 있었다"고 했다.	진은정	삭제

1156	2024-10-12 0:44	대통령은 찬물 마시고 정신 차려야 한다.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다 때를 놓쳤다.의대 증원 무식한 2천명 총선직전에 제시하여 총선을 어렵게 했고 지금은 일파만파 확대되어 호미로 막을것을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고 있다.여사 문제도 진솔한 사과와 조용한 처신으로 막을것을 맞지도 않는 대담에 온갖 정치 관여로 만수산 등렁칡보다 더 꼬여 해결의 실마리가 요원하다.방법은	대통령은 찬물 마시고 정신 차려야 한다.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다 때를 놓쳤다.의대 증원 무식한 2천명 총선직전에 제시하여 총선을 어렵게 했고 지금은 일파만파 확대되어 호미로 막을것을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고 있다.여사 문제도 진솔한 사과와 조용한 처신으로 막을것을 맞지도 않는 대담에 온갖 정치 관여로 만수산 등렁칡보다 더 꼬여 해결의 실마리가 요원하다.방법은 딱 한가지...의정 문제는 일단 여당대표에게 길을 열어보게 권한을 주고 여사 문제는 진솔한 사과 후 두문불출 사라짐이 정답일듯..	한지윤	
1157	2024-10-12 0:44		한동훈이야말로 다음 지선, 대선, 총선에서 보수 진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과 국민 삶 개선에 진짜 힘쓰고 있다는게 느껴진다	허수옥	
1158	2024-10-12 0:47	'희망을 버려, 그리고 힘내' "현실은 희망으로 차 있지 않지만, 그래도 정치인은 국민이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 나가야 한다. 제가 가는 길을 지켜봐 달라." 한동훈은 인간적으로도 참 멋있는 사람이죠. 퍽퍽한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희망 하나씩은 갖고 살수 있게 그런 나라 꼭 만들어주세	'희망을 버려, 그리고 힘내' "현실은 희망으로 차 있지 않지만, 그래도 정치인은 국민이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 나가야 한다. 제가 가는 길을 지켜봐 달라." 한동훈은 인간적으로도 참 멋있는 사람이죠. 퍽퍽한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희망 하나씩은 갖고 살수 있게 그런 나라 꼭 만들어주세요.	한동훈	삭제
1159	2024-10-12 0:49	사설 하루도 못 가 무너진 대통령실의 부실 해명 대통령 부부-명태균 만남 횟수, 문자 여부 설명 다 틀려 국민 판단력 가볍게만 보는 건지, 납득할 소명 내놓길	윤 정부 국정 지지율이 20% 밑으로 추락할 위기에 놓인 주된 이유는 정책·이념보다 그 '태도'에 있다. 용산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과 여사도 국민에게, 지지율에 좀 더 겁을 느껴야 한다. 돌이켜보면 윤 대통령 스스로도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다. 하는 거 보면"이라고 했었다. 그 마음 그대로 임하면 된다. 정권은 유한하고, 주인인 국민은 영원하다. 오늘 대통령 부부가 동남아 순방에서 귀국하는 대로 대통령실은 명씨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만하게 정확하고 총체적인 소명을 내놓기 바란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3516	최영옥	

1160	2024-10-12 0:50	명태균 "尹부부, 경선 6개월간 아침마다 전화 왔다"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문도 안 열었다" 겁박도	명태균씨는 9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은 명씨를 두번 만난 뒤 더이상 소통이 없었다'고 밝힌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거의 경선 한 6개월? 5~6개월 간 아침마다 전화가 왔어요, 계속"이라고 일축했다. 명씨는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언제 입당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더라고. 기자들이 '8월 3일, 8월 6일, 8월 15일 이후에 국민의힘이 입당할 것이다'. 그때 (윤 대통령이) 괴로워했던 게 '언제 입당하세요 총장님? 언제 입당하세요 총장님?'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내가 '기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7월 30일날 입당을 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요일은 기자들 출근 안 하니까 오늘 그냥 들어가세요'. 그런데 그때 가시대? 진짜"라고 덧붙였다. 명씨는 또 "좀 이따 더 많은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문도 안 열었는데 뭐. 아니 그 집 대문 문도 안 열었잖아요. 내가 그 대선 관련해서 얘기하대요?"라며 향후 추가폭로를 겁박하면서, "그 정진석이나 이 사람들은 날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라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힐난했다. 명씨는 또 이날 오후 JTBC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체리 따봉'을 사람들에게 보내는데 여사는 안 보낸다"며 "수시로 통화했잖아. 한 달에 한두 번 이런 식으로"라며 김건희 여사	진은정	삭제
1161	2024-10-12 13:28	고위급 정치인이 대통령께 전화하면, 뒤에서 여자가 짜증부리며 "아 그거 내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잖	용산에 십상시가 쥐락펴락하며 국정농단하고 비서실장 등 수석은 얼굴마담이라고 메이저 언론사가 지적한다 이제 결단할 때임	한동훈	삭제
1162	2024-10-12 13:48	용산의 대통령실여러분 특히 정진석비서실장님. 대통령에게 아닌건아니라고 직언한번해보셨나요???????~~~대통부부때문에 총선이폭망했는데 그이후 바뀐건 1도없고 다음지선까지 시원하게말아먹고 결국 대통령 탄핵되야 정신차릴건가요!!!!! 김건희 비선이 실세고 정진석 얼굴마담이라는데 수치스럽	용산의 대통령실여러분 특히 정진석비서실장님. 대통령에게 아닌건아니라고 직언한번해보셨나요???????~~~대통부부때문에 총선이폭망했는데 그이후 바뀐건 1도없고 다음지선까지 시원하게말아먹고 결국 대통령 탄핵되야 정신차릴건가요!!!!! 김건희 비선이 실세고 정진석 얼굴마담이라는데 수치스럽지 않아요? 국민편에 서세요 제발	한동훈	삭제

1163	2024-10-12 15:45	[이한우 시론] 여섯 종류 사신(邪臣)을 다 갖춘 윤석열 정권	유향(劉向)은 한나라 때 정치가이자 대학자로 누구보다 공자의 학설을 현실 정치에 정확히 적용한 유학자다. 그는《논어》를 자기 방식으로 재구성해《논어》와 똑같은 20장에 걸쳐《논어》를 사례로 보완한《설원(說苑)》이라는 저서를 남겼다. 그는《논어》를 군신(君臣)론으로 보았기에 제1장은 군도(君道), 제2장은 신술(臣術)이라고 했다. 그리고 신하에는 육정육사(六正六邪)가 있다고 하여 임금은 눈 밝음으로 육정을 쓰고 육사를 내치라고 했다. 육정에는 나쁜 일을 미리 알아차리고 이를 막아 임금을 영광된 자리에 서게 하는 성신(聖臣), 공로는 임금에게 돌리고 자신의 공로는 내세우지 않는 양신(良臣), 임금을 바로 이끌어 종묘 사직을 편안케 해주는 충신(忠臣), 화를 복이 되게 만들어 임금의 근심을 없애는 지신(智臣), 청렴결백한 정신(貞臣), 그리고 군주를 위해서라면 죽음을 두려워 않고 임금의 허물을 지적하는 직신(直臣)이 있다. 지난 2년이 넘도록 윤석열 정권에서 이런 유형의 인물을 본 적이 있는가? 오히려 반대로 육사만 그득하다 육사만 있는 윤통 이제 사신(邪臣)의 여섯 가지 유형을 짚어보자. 첫째, 관직에 안주하며 봉록을 탐하고 사사로운 자기 집안일은 열심히 한다. 공사(公事)에는 힘쓰지 않고 자기 지혜나 능력을 공익에는 쓰지 않으려 한다. 임금에게 바칠 논책(論策)은 궁색(窮塞) 기갈(飢渴)하며 세태에 따라 부침하며 놀아난다. 임금의 좌우를 관망할 뿐 독자적인 견해는 조금도 없는 부류가 자리만 채우는 신하[具臣]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구신(具臣)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최영옥	
1164	2024-10-12 15:46	한대표의 '김여사 활동 자제해야' 한마디에 경기 일으키는 친윤들과 또 '익명의대통령실관계자'들아~ 진짜 민심 모르느냐? 보수텃밭 금정구 김건희 욕받이다. 우리 마음	윤석열은 백날 칼럼이나 사설 써서 주위를 줘도 소용없다 말로는 안된다 윤석열을 다루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힘이다 약육강식의 논리로 찍어누르고 목에 총구를 들이대야 조금 움직일 거다 윤석열은 강약약강의 인간으로 거기에 정상적인 양심이나 정상적인 판단을 기대해선 안된다	한지윤	

1165	2024-10-12 18:44	[사설] 대통령실, '명태균 의혹' 어물쩍 넘길 일 아니다	명태균 사태에 대해 “민심은 대통령 부인이 악마화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강승규 의원)는 여당 친윤계 인식은 안이하다. 정국 혼돈을 막으려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제기된 의혹들을 제대로 설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명품백 수수 사건처럼 떠밀려 지각 대응에 나선다면 민심이반을 막지 못한다. 대통령 부부의 총선 공천 개입, 명씨의 문어발 행각 등의 의혹 해소를 위해 윤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약속할 필요도 있다. '명태균	최영옥	
1166	2024-10-12 18:45	명태.대남에게 약점잡힌 국짐당 윤석열을 비롯한 김건희와 나경원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등 수많은 여당의원들 무조건 부인하고 있지만 명태입에 의해 하나 둘 까발려지고 있다.부폐한 정치들의 진실을 숨기고 변명만 늘어놓는 한심한 짓	막말과 음모, 그리고 양아치들 같은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끝으로 더 이상은 저런 정치브로커들이 발 붙이지 못하는 선진정치를 만들어 가야한다....	한지윤	
1167	2024-10-12 18:46		대통령실에 김 여사의 입김으로 기용된 '김건희 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용산 주변에선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용산의 '실세 문고리'란 말이 회자됩니다. 비서관 3명에 행정관 1명 등은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됩니다. 앞서 2022년 6월에는 김 여사의 사업체였던 '코바나컨텐츠'의 임직원들이 김 여사 공식일정에 수행해 논란을 빚었고,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사의 아들이 행정관에 임명된 사례도 있습니다. --	허수옥	
1168	2024-10-12 18:50		이미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인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김건희 여사를 봐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조선 칼럼에 나왔고 특히 정식 인사라인이 아니라 김건희 라인인 홍보기획라인에서 나온다. 그리고 양정철 박영선도 저 십상시 작품이고.. 윤대통령은 생각이라는건 할	허수옥	

1169	2024-10-13 11:28	[사설] 대통령실, '명태균 의혹' 어물쩍 넘길 일 아니다	정치권 전체가 명씨의 말 한마디에 들썩이는데도 대통령 부부는 물론 윤력 인사 누구도 속 시원히 반박하거나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선 때 명씨가 윤 대통령에게 3억6,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말문을 닫고 있다. 후보 경선 때 당원 57만 명의 명부를 입수해 두 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에도 가타부타 진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 대통령 취임 후에도 명씨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봤다고 증언했지만 이 역시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있다. 명태균 사태에 대해 “민심은 대통령 부인이 악마화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강승규 의원)는 여당 친윤계 인식은 안이하다. 정국 혼돈을 막으려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제기된 의혹들을 제대로 설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명품백 수수 사건처럼 떠밀려 지각 대응에 나선다면 민심이반을 막지 못한다. 대통령 부부의 총선 공천 개입, 명씨의 문어발 행각 등의 의혹 해소를 위해 윤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약속할 필요도 있다. '명태균 게이트'로 커지기 전에 엄중한 판단과 늦지 않은 대응이 절실하다.	진은정	삭제
1170	2024-10-13 11:32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새로 생겼다는 제2부속실 뭐하는가요? 악수에 악수를 거듭하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정도로 타이밍 놓치고... 사람이 안바뀌면 시스템이 작동하게 해야지요. 국민들 눈에는 훤히 다 보여요. 걱	김건희씨는 보수분열의 원흉입니다. 이미 실명 다 떠도는 용산 십상시 쳐내는건 물론이고 당은 채상병 김건희 특검 선제적 발의하고 이 정권에서 심판해야지 이 부부 끌어안고 가면 보수궤멸입니다.영남의원들 니들 뱃지도 위험하니 잘 생각하세요	한지윤	
1171	2024-10-13 11:34		명태균 악령에 십상시에 난리났다 나경원 윤석열 이준석 오세훈 등 구태 천지다 게다가 김건희씨가 안낀데가 없잖아 집구석에서 이마에 구두약을 칠하든 성형을 하든 맘대로 하시길 특활비로 옷 사입는것도 용인 가능하다 사치품 사고 마음껏 사치해도 세금내는 국민으로 허락한다. 다만 국민앞에 얼굴만 들이밀지 않으면 훨씬 나을거다. 우파 국민들 다 분	허수옥	
1172	2024-10-13 11:42	김건희에 '부산 금정' 흔들… 김대남 “김건희 십상시가 쥐락펴락”… 동아일보 “넋두리라기엔 구체적”	동아일보는 9일 <“십상시 같은 4인방” “여사와 네트워킹” 넋두리로 치부하기엔…> 사설에서 “위계질서가 엄중한 대통령실 속성상 실제 그랬는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부 지휘계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김 전 행정관은 ‘중요한 역할에 있지도 않다가 치기 어리게 넋두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넋두리로 치부하기엔 발언 내용이 황당하고 구체적이다. 실명까지 거론하며 ‘십상시 같은 4인방’ ‘여사와 딱 네트워킹’ 운운하는 것을 들은 국민은 우려할 수밖에 없다. 용산은 그의 문제적 발언이 공개될 때마다 침묵하거나 평가절하했다. 이만한 육성이 나온 마당에 설명 없이 넘어갈 수는 없게 됐다”고 주	최영옥	

1173	2024-10-13 11:47	대통령실에 김건희 비선 십상시 간신놈들 반드시 내쫓아야 합니다. 이들이 김건희 뒤배를 믿고 못된짓만 골라해서 국민들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들을 반드시 척결해야 윤통도 살고 여당도 삽니다. 이놈들과 부화뇌동하는 권성동 강승규 같은	윤통은 김여사한테 무슨 영혼이라도 팔은 것인가. 비서실장이 인사논의드리면 어어 더듬거리면서 "집에가서 얘기해 볼게" 이런다고 한다. 메이저 논설위원 피셜이라 취재 정확히 된것이다 대통령실 반박도 없다. 통탄할 노릇이다.	한동훈	삭제
1174	2024-10-13 12:02	윤 정부 국정 지지율이 20% 밑으로 추락할 위기에 놓인 주된 이유는 정책·이념보다 그 '태도'에 있다. 용산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과 여사도 국민에게, 지지율에 좀 더 겁을 느껴야 한다. 돌이켜보면 윤 대통령 스스로도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다. 하는 거 보면"이라고 했었다. 그 마음 그대로 임하면 된다	대통령 부부-명태균 만남 횟수, 문자 여부 설명 다 틀려 국민 판단력 가볍게만 보는 건지, 납득할 소명 내놓길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및 영향력을 주장하는 명태균씨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은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엔 매우 부정확할뿐더러 역효과까지 낳고 있다. 대통령실은 명씨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윤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장황하게 주장하자 지난 7~8일 이틀에 걸쳐 입장을 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 명씨를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이준석 당 대표)와 정치인(박완수 경남지사)이 데려와 두 번 만났고, 경선 이후에는 관계를 끊어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해명이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주요 사실관계가 무너졌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명씨와 함께 윤 대통령 부부를 한 차례 만났다"고 했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내가 처음 2021년 7월에 윤 대통령을 식당에서 만났을 때 그 부인(김 여사)이랑 명태균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최소한 네 번 대통령 내외와 명씨의 만남이 있었다는 얘기다. 또 김영선 전 의원의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명씨와 김 여사 간 텔레그램 접촉이 있었음도 바로 드러났다. 명씨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 넘게 지나 내놓은 대통령실의 해명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게다가 "(문자나 통화한) 기억이 없다"며 여의도 정치인들이 주로 빠져나갈 명분을 만들 때 구사하는 표현으로 어설프게 넘어가려만 하고 있다.	최영옥	

1175	2024-10-13 13:50	"김건희 측근 '8상시'가 정진석 비서실장마저 패싱" 복수의 취재원에 따르면, 녹취록 속 4명을 포함해 대통령실 내김 여사의 지휘를 받고 움직이는 참모는 8명가량으로 파 악된다. 이들은 주니어 4명, 시니어 4명으로 분류돼 '8상 시'로도 불리며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윗선'마저 곧 잘 패싱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대통령실 내 업무 및 보고 체계가 '김건희 팀'에 의해 흐	"김건희 측근 '8상시'가 정진석 비서실장마저 패싱" 복수의 취재원에 따르면, 녹취록 속 4명을 포함해 대통령실 내김 여사의 지휘를 받고 움직이는 참모는 8명가량으로 파 악된다. 이들은 주니어 4명, 시니어 4명으로 분류돼 '8상 시'로도 불리며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윗선'마저 곧 잘 패싱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대통령실 내 업무 및 보고 체계가 '김건희 팀'에 의해 흐트러져 있다는 지적이다.	최영옥	

1176	2024-10-13 14:05	강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다. 윤석열 캠프가 명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45조1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 라고 한다.	강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다. 윤석열 캠프가 명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45조1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 20대 대선 뒤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엔 명씨가 실시했다는 여론조사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의 돈거래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데, '무상 여론조사'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김건희 여사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자칭 정치 컨설턴트 명태균씨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명씨는 그제 밤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입을 열면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검찰이 함부로 자신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란 겁박이다. 기가 막히는 얘기다. 도대체 윤 대통령과 명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개 정치 브로커에 불과한 명씨가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운운한단 말인가. 이와 관련, 최근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명씨가 20대 대선 직전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윤 대통령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2022년 6월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따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강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다. 윤석열 캠프가 명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	진은정	삭제
1177	2024-10-13 14:06	대통령실이 부실한 대응을 계속하니 상당수 국민은 오히려 명씨 말에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뿐이다. 도대체 대통령실은 국민의 판단력을 얼마나 가벼이 보길래 금방 오류가 확인될 주장을 아무렇지 않게 내놓는 것인가--> 이런 대통령실 무능의 원흉이 자신이 대통령인듯 권력 휘두르는 김건희씨와 그	윤통부터 나경원 홍준표 모두 명태균의 손아귀에서 웃음거리가 돼 놀아나는 판국에 명태균이 유일하게 유승민더러 진보진영에 갔으면 체 게바라가 됐을 거라 격찬하더니 민주당 지지자들이 유승민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였나. 브로커랑 손잡고 표장사하는 게 보수정치의 근본이 된 현실이 씁쓸..	한지윤	

1178	2024-10-13 14:07		대통령실에 김 여사의 입김으로 기용된 '김건희 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용산 주변에선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용산의 '실세 문고리'란 말이 회자됩니다. 비서관 3명에 행정관 1명 등은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됩니다. 앞서 2022년 6월에는 김 여사의 사업체였던 '코바나컨텐츠'의 임직원들이 김 여사 공식일정에 수행해 논란을 빚었고,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사의 아들이 행정관에 임명된 사례도 있습니다. --	허수옥	
1179	2024-10-13 14:09	고위급이 대통령께 전화하면 뒤에서 김건희가 "아 내가 그렇게 말하랬잖앗!!" 하고 소리지른다고 한다	중앙논설위원말이고 대통령실 반박도 없으니 들은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이건 아니다	한동훈	삭제
1180	2024-10-13 14:11	복수의 취재원에 따르면 대통령실 내 김 여사의 지휘를 받고 움직이는 참모가 8상시로 불린다.	이 평범치 않은 현상의 중심엔 김건희 여사가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김 여사 논란들이 야당의 탄핵 행보에 쉼 없이 명분과 동력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김건희'란 이름 석 자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복수의 취재원에 따르면, 녹취록 속 4명을 포함해 대통령실 내 김 여사의 지휘를 받고 움직이는 참모는 8명가량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주니어 4명, 시니어 4명으로 분류돼 '8상시'로도 불리며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윗선'마저 곧잘 패싱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대통령실 내 업무 및 보고 체계가 '김건희 팀'에 의해 흐트러져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 : 시사저널(https://www.sisajournal.com)	진은정	삭제
1181	2024-10-13 14:13	십상시가 "여사님이 너무 멋지고 아름다우셔서 천박한 국민들이 질투하는거에요" 아부하고 김건희는 그	통탄할 노릇이다	한지윤	
1182	2024-10-13 14:15		평생을 보수를 지지하고 살아왔지만 지금의 윤대통령과 국힘의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큽니다.모두 퇴진하시고 새로운 건전한 보수로 태어난다면 지지할 것입니다. 지금	허수옥	
1183	2024-10-13 14:20	고위정치인이 대통령께 전화하면 김건희씨가 "아 내가 그렇게 말하랬잖앗" 하고 소리지르고 인사문제 논의하면 "어어..집에가서 얘기해볼	고위정치인이 대통령께 전화하면 김건희씨가 "아 내가 그렇게 말하랬잖앗" 하고 소리지르고 인사문제 논의하면 "어어..집에가서 얘기해볼게.." 이런다고 한다	한동훈	삭제

1184	2024-10-14 1:00	윤 대통령은 일단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 첫 단추가 김 여사의 활동 자제와 김 여사 라인의 정리를 포함한 대통령실의 쇄신임은 말할 것도 없다.	올 4월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비서실장'설이 흘러나왔을 때 김 여사 라인에 대한 의혹이 대통령실 바깥에서도 보일 정도로 크게 불거졌다. 대통령실의 공식 인선 라인이 검토한 바 없다고 발표한 뒤에도 2명의 비서관이 마치 공식 라인과 힘겨루기라도 하듯 그 설이 유력하다고 계속 흘렸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당시 당권 주자였던 한 대표를 공격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남 전 행정관이 두 40대 행정관을 대통령실의 김 여사 라인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사실 이런 해프닝이 없었어도 누구누구가 김 여사 라인이라는 소문은 이미 파다하다. 3명의 또 다른 비서관 또는 선임행정관을 합해 '7간신' 얘기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선거브로커 명태균 씨의 폭로로 김 여사의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여사가 대외 활동 자체를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이제 대통령실과 관저 주변의 김 여사 라인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김 여사의 손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김 여사가 겉으로 보기에 활동을 자제한다고 해서 김 여사의 당정 개입이 실제로 사라질 수 있겠느냐는 문제의식에서다.	진은정	삭제
1185	2024-10-14 21:57	용산발 지라시의 원 출처가 권성동 의원이었네요 김대남(사회수석, 보수유튜브관리) 이기정 (의전비서관), 강기훈 (기획비서관실 행정관 댓글팀관리자란 말 많음), 강훈 (홍보비서관),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황종호(행정관:30대초반, 김대남관련), 김성룡(행정관) 최재혁(홍보기획비서관) >>김건희비선라인임. 권성동이 공급자고 이런 자들과 용산발 한동훈 음해하는 지라시 유	영부인 공적지위 없다고 디올백 무혐의 받았자나 일반인이 왜 나라 세금으로 지 세력을 굴림?	한동훈	삭제

1186	2024-10-14 21:59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을 매듭짓지 못하던 차에 연달아 터진 '김대남·명태균 녹취록'이 정권 위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 녹취록의 공통분모 역시 김 여사,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공천과 당무에 오랜 기간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미 공개된 내용보다 더한 폭로들이 국감장에서 추가 공개될 가능성이 제기돼 여권 내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지율 등 여러 지표만 봐도 현재 탄핵 역풍은 미풍, 나아가 무풍에 가깝다. 이 평범치 않은 현상의 중심엔 김건희 여사가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김 여사 논란들이 야당의 탄핵 행보에 쉼 없이 명분과 동력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김건희'란 이름 석 자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을 매듭짓지 못하던 차에 연달아 터진 '김대남·명태균 녹취록'이 정권 위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 녹취록의 공통분모 역시 김 여사,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공천과 당무에 오랜 기간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미 공개된 내용보다 더한 폭로들이 국감장에서 추가 공개될 가능성이 제기돼 여권 내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녹취록 공개 이후 언론을 통해 연일 폭탄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입은 정가의 '태풍의 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명씨는 김 여사는 물론 윤 대통령과 수시로 연락을 나누고 만남을 갖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총선은 물론 대선 과정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도 강조했다. 2021년 대선 경선 당시엔 약 6개월간 아침마다 김 여사가 전화를 했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해야 되는지도 물었다'고 폭로했다.	진은정	삭제
1187	2024-10-14 22:01	김건희는 대선때 학력위조한 것과 죽은 이연숙 교수 경력 훔쳐서 자기 경력인 척 한 것 들켜서 대국민 사과하할 때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고 말하고 대선 기간 내내 유세 현장에 얼굴 한번 못 내밀고 숨어 있었다. 그런 주제에 윤석열 당선되고나선 자기가 국정운영 파트너라고 언플하며 나대고 자기 말 잘 듣는 허접한 스펙의 유튜버, 운전기사 등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채용해서 국정운영에 불법 개입하며 설치고 있	김건희는 대선때 학력위조한 것과 죽은 이연숙 교수 경력 훔쳐서 자기 경력인 척 한 것 들켜서 대국민 사과하할 때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고 말하고 대선 기간 내내 유세 현장에 얼굴 한번 못 내밀고 숨어 있었다. 그런 주제에 윤석열 당선되고나선 자기가 국정운영 파트너라고 언플하며 나대고 자기 말 잘 듣는 허접한 스펙의 유튜버, 운전기사 등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채용해서 국정운영에 불법 개입하며 설치고 있다. 우파들도 김건희 천박하고 무식한 행태가 지긋지긋하다고 한다.	한지윤	
1188	2024-10-14 22:01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더니 김건희가 주제파악을 못하고 호가호위하네	허수옥	

1189	2024-10-14 22:02	동아사설) 올 4월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비서실장'설이 흘러나왔을 때 김 여사 라인에 대한 의혹이 대통령실 바깥에서도 보일 정도로 크게 불거졌다. 대통령실의 공식 인선 라인이 검토한 바 없다고 발표한 뒤에도 2명의 비서관이 마치 공식 라인과 힘겨루기라도 하듯 그 설이 유력하다고 계속 흘렸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당시 당권 주자였던 한 대표를 공격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남 전 행정관이 두 40대 행정관을 대통령실의	올 4월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비서실장'설이 흘러나왔을 때 김 여사 라인에 대한 의혹이 대통령실 바깥에서도 보일 정도로 크게 불거졌다. 대통령실의 공식 인선 라인이 검토한 바 없다고 발표한 뒤에도 2명의 비서관이 마치 공식 라인과 힘겨루기라도 하듯 그 설이 유력하다고 계속 흘렸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당시 당권 주자였던 한 대표를 공격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남 전 행정관이 두 40대 행정관을 대통령실의 김 여사 라인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사실 이런 해프닝이 없었어도 누구누구가 김 여사 라인이라는 소문은 이미 파다하다. 3명의 또 다른 비서관 또는 선임행정관을 합해 '7간신' 얘기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선거브로커 명태균 씨의 폭로로 김 여사의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여사가 대외활동 자체를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이제 대통령실과 관저 주변의 김 여사 라인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김 여사의 손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김 여사가 겉으로 보기에 활동을 자제한다고 해서 김 여사의 당정 개입이 실제로 사라질 수 있겠느냐는 문제의식에서다. 한 대표가 말한 인적 쇄신도 김 여사 라인, 이른바 '7간신'을 지목한 것이라고 여권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여권의 민심조차도 김 여사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제2부속실 설치 같은 제도적 방지책에서 나아가 김 여사 관련 인적 쇄신까지 요구할 정도로 악화됐다. 다음 달이면 윤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데 국회에서는 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고 대통령의	최영옥	
1190	2024-10-14 22:04	김건희가 도이치 모터스에서 자기가 손해만 봤다고 한 건 거짓말이고 23억이나 이득을 본 게 드러났다. 김건희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오랫동안 연락 안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도이치 일당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고 최근까지도	국민들이 윤석열을 대통령 뽑았지 김건희를 뽑았냐 대체 그동안 얼마나 대통령실 전체가 김건희 라인으로 움직였으면 그냥그걸 당연한듯 받아들이고 다들 움직인듯 한밤중에 정신없이 나오던 질낮은 워딩의 대통령실발 속보들 그런것들이 전부 김건희라인 작품인거지 윤석열은 김건희한테 공적권한이 없다는걸 받아들이고 싹 다 정리해라	한지윤	

1191	2024-10-14 22:05	권성동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고 검수완박 합의하고 김대남이 권성동 부인한테 전화해서 부탁하는 관계고 김건희가 권씨 부인한테 언니 라 부르고 십상시 중 한명인 음주 강기훈은 권성동이 추천 했다면서? 김건희 일에 앞장선거 보면 친윤 끝판왕인줄 알았는데 김건희 라인 이었던건가? 국민들이 뽑지도 않은 김건희 비선 옹호 하려고 국민들과 당	권성동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고 검수완박 합의하고 김대남이 권성동 부인한테 전화해서 부탁하는 관계고 김건희가 권씨 부인한테 언니 라 부르고 십상시 중 한명인 음주 강기훈은 권성동이 추천 했다면서? 김건희 일에 앞장선거 보면 친윤 끝판왕인줄 알았는데 김건희 라인 이었던건가? 국민들이 뽑지도 않은 김건희 비선 옹호 하려고 국민들과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 음해하는 권성동은 김건희랑 무슨 관계야?	한동훈	삭제
1192	2024-10-14 22:08	최고 권력자에겐 남다른 사생관이 요구된다. 검찰 출신 대통령인 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과 엄정한 잣대 적용이 필요했다. 이제라도 여론재판이 아닌 사법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대통령 부하'로 전락한 검찰 신뢰를 회복하고 당사자들도 후환을 더는 길이다.	그땐 뭔 사과를 한들 일반 사람들은 코웃음 칠 것이다. 게다가 웬 음 습한 정치 기술자인지 협 꾼인지 하는 사람과 대선 이후까지 소통을 이어온 흔적까지 나왔다. . 간단치 않은 일이지만 최고 권력자에겐 남다른 사 생관이 요구된다. 검찰 출신 대통령인 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과 엄정한 잣대 적용이 필요했다. 이제라도 여론재판이 아닌 사법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대통령 부하'로 전락한 검찰 신뢰를 회복하고 당사자들도 후환을 더는 길이다. 시중에서 "간신" "여사라인" 등 권력의 무게추에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의 활동을 제어하고 온전히 국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을지도 모른다. 용산은 어떤 길을 갈까. 극적 반전이 이뤄질 수 있을까. 대부분 아닐 거라고 한다. 권력의 레지티머시(Legitimacy·정당성)는 선출 과정의 합법적 정당성뿐 아니라 권력 행사 과정의 실질적 정당성까지 포함한다. 어쩌면 실질적 정당성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 실질적 정당성이 임계점을 넘나들고 있다. 나라 경제는 점점 껍데기가 되고 있다는 우려와 한탄	진은정	삭제
1193	2024-10-14 22:10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하고 위험한 난국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의 선장이 될 자질이 한참 부족한 사람이 키를 움켜잡고 그 모자란 식견으로 난폭 항해를 귀 막고 눈 반감고 즉흥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	김건희가 실제로 모든 국정 관여하고 십상시 동원 윤통 제대로 된 결정 못하게 방해하고 한동훈 못만나게 방해 한다고. 윤통은 무조건 시키는대로 하는거고.. 십상시 언론빨대 강훈 주식전문가 김동조 음주강기훈 송파예비후보 김성용 30대 입안의 혀 조지연 양정철 수행비서출신 윤검사 강원도 스폰 동해전기산업 아들 황종호. 왜 실명을 다 숨기냐 아는사람 다 안다. 녹취록 포함 둑이 터지면 수습 불가능	한지윤	
1194	2024-10-14 22:11	[단독] '당원명부 유출 의혹' 여론조사 의뢰인은 현직 대구시청 공무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14187?sid=100	최영옥	
1195	2024-10-14 22:12		김명신 십상시 다 쳐내고 공식라인 만들어라.대선때 약속처럼 내조만하고 수사받을거있으면 수사받고	허수옥	

1196	2024-10-14 22:15	권성동씨는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고 검수완박 합의하고 김대남이 권성동 부인한테 전화해서 부탁하는 관계고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고 검수완박 합의하고 김대남이 권성동 부인한테 전화해서 부탁하는 관계고 김건희가 권씨 부인한테 언니 라 부르고 십상시 중 한명인 음주 강기훈은 권성동이 추천 했다면서? 김건희 일에 앞장선거 보면 친윤 끝판왕인줄 알았는데 김건희 라인이었던건가? 국민들이 뽑지도 않은 김건희 비선 옹호 하려고 국민들과 당원들이 뽑은 당	한동훈	삭제
1197	2024-10-14 22:17		사람볼줄 모른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구나 그옆에 있는 부인도 제정신이 아닌듯 더이상 민주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한동훈 당대표한테 모든걸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라. 올바른 국정을 흔드는 십상시들을 당장 내쫓고 당정긴밀한 정치로 다시 국정을 운영해라! 시간이	허수옥	
1198	2024-10-14 22:18	문화)김 여사 문제를 명쾌히 정리하지 않으면 여권 전체가 정치적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어느 방향이든 윤 대통령의 분	김 여사 문제를 명쾌히 정리하지 않으면 여권 전체가 정치적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어느 방향이든 윤 대통령의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	최영옥	
1199	2024-10-15 10:51	대표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권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한 대표와 가까운 '도곡동 7인회'부터 쇄신하라고 주장한 데 대해 "'도곡동 7인회'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로 당대표를 음해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애초에 도곡동 7인회 같은 건 아예 없을 뿐더러 공적지위에 있는 한대표가 7인회든 700 회든 만드는거 아무문제가 없	대표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권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한 대표와 가까운 '도곡동 7인회'부터 쇄신하라고 주장한 데 대해 "'도곡동 7인회'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로 당대표를 음해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애초에 도곡동 7인회 같은 건 아예 없을 뿐더러 공적지위에 있는 한대표가 7인회든 700 회든 만드는거 아무문제가 없다 거니 십상시들 빠르게 쳐내고 집에서 조용히 특활비나 예비비로 명품사라 그건 허용한다	한동훈	삭제
1200	2024-10-15 10:55	[사설] 김 여사 문제 정리 못하면 정권 미래는 어둡다	지난해 3월 국가안보실장·외교비서관·의전비서관이 석연찮게 경질됐을 때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단 말이 파다했다. 실제로 후임 의전비서관은 김 여사의 측근이 기용됐다. 지난 4월 총선 직후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보도가 불쑥 불거진 것도 출처가 '여사 라인'이란 게 정설이었다. 심지어 당시 이관섭 비서실장이 즉각 부인하자 '여사 라인'의 비서관이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재반박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이러니 대통령실의 기강이 세워지겠나.	진은정	삭제

1201	2024-10-15 11:15	조국이 부산 부산대인근에서 "조국은 김경지다. 김경지는 조국이다" 외치는거 보고 아.. 국힘이 이겼다 생각했네요 조국씨 오늘도 한동훈 대선선대위원으로 활동 잘하셨습니	조국이 부산 부산대인근에서 "조국은 김경지다. 김경지는 조국이다" 외치는거 보고 아.. 국힘이 이겼다 생각했네요 오늘도 한동훈 대선선대위원으로 활동 잘하셨습니다	한동훈	삭제
1202	2024-10-15 12:55	[이기홍 칼럼]'김건희 수렁', 사법심판대 서는 게 유일한 탈출구다	오래전부터 정치권 주변에선 브이원(V1) 브이투(V2)라는 말이 돌았다. 브이는 VIP를 줄인 표현으로 대통령을 지칭한다. V2는 김 여사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취지의 신조어인데, 필자는 이를 미확인 풍문을 근거로 한 과장된 용어로 치부해 왔다. 그러나 요 몇 달 필자는 김 여사가 실제로 공기관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사례들을 접했다. 전언으로 들은 것들까지 합치면 여사의 영향력 행사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정황이다. 더 놀라운 대목은 과거 정권들에서 처럼 베갯밑 송사로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뜻을 관철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김 여사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며, 자신이 이런 영향력 행사를 할 권리가 있다고 여긴다는 전언이다. 김 여사는 자신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상당한 지분이 있다고 여긴다고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검사 시절 정치적 탄압에 의해 좌천됐을 때 로펌에서 고액 보수를 제시하며 영입하려 했는데 자신이 검사의 길을 계속 가도록 설득하는 등 고비마다 자신의 조언이 남편을 오늘로 이끄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승이 아무리 훌륭하게 제자를 키웠어도 제자의 월급을 같이 쓰자고 할 수 없듯이, 김 여사는 국민에게서 실오라기만큼의 권력도 위임받은 적이 없다. 사인(私人)이 국정에 개입하면 그게 국정농단이고 그걸 막기 위해 시스템이 있는 건데, 시스템을 요식행위로 만들어버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도 범죄(박근혜 공천 개입 징역 2년)인데, 하물며 배우자가 공천이나	최영옥	

1203	2024-10-15 14:19	[강준만의 화이부동] 눈치도 없는데 귀마저 닫으면 어떡하나	“권력은 매우 파워풀한 약물이다. 권력을 쥐면 사람의 뇌가 바뀐다.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지 않고, 실패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터널처럼 아주 좁은 시야를 갖게 하며, 자기애에 빠지게 하고, 오만하게 만든다. 권력은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 아일랜드 신경심리학자 이언 로버트슨의 말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곧이곧대로 믿을 건 아니다. 강조의 취지를 감안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모든 권력자는 다 실패하고 다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닌가. 늘 예외는 있는 법이다. 권력을 쥔 적도 없고 쥘 뜻도 없는 보통사람일지라도 권력에 대해 나름의 평가는 할 수 있다. 적어도 권력의 부패나 타락 가능성을 보는 눈은 권력 내부 또는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매섭다. 권력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거니와 권력의 비위를 맞춰야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윤석열은 어떤가? 그는 보통사람의 눈 밖에 난 지 오래다. 20%대의 지지율로 미루어 보건대 적어도 열에 일곱은 그의 국정운영에 비판적이다. 분노하는 사람도 많다. 무엇에 분노하는가? 정책은 논외로 하자. 진보 유권자가 분노하는 정책은 보수 유권자가 반기는 것이니, 그 어느 쪽이건 진영논리 독선은 자제하자.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유권자가 똑같이 분노하는 게 있다. 무엇인가? 다음 여섯 언론인의 칼럼을 통해 그 분노의 대상과 이유에 대한 설명을 감상해보기로 하자. (1) “보수층이 이재명의 온갖 범죄 혐의에 혀를 차다가도 ‘김 여사는?’이란 반박을 받으면 말문 막힐 때가 많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지지자들로선 속된 말로 ‘X팔리는’ 심정이 된 것이다.”(조선일보 논설실장 박정훈, 9월21일)	진은정	삭제
1204	2024-10-15 21:06	진짜 지금 이런 정권 이런 당 상태에서 한동훈 없었다면	보수 그냥 망함 그 자체다 끔찍 윤희룡이 당대표로 김건희 수호하고 있었다면? ㅎㅎㅎㅎ	한동훈	삭제
1205	2024-10-15 21:10		김건희 여사님 도대체.... 머리가 나쁜건지 수준이 안되는데 영부인 하는건지.... 도대체 왜그러시냐구~~ 한두번도 아니구 아 진짜 XX 나오네	허수옥	

1206	2024-10-15 21:10	이미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인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김건희 여사를 봐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조선 칼럼에 나왔고 특히 정식 인사라인이 아니라 김건희 라인인 홍보기획 라인에서 나온다. 그리고 양정철 박영선도 저 십상시 작품이고.. 윤대통령은 생각이라는건 할줄아나? 머리도 뭐도 함량미달 와이프한테 저	윤 대통령이 '여사 리스크'를 해소하라는 검사 선배들의 조언에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며 손사래를 쳤다는 일화가 알려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사이의 이 같은 '관계성' 탓에, 윤 대통령이 등에 짊어진 무거운 김 여사 리스크를 자발적으로 내려놓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여권 안에 적지 않다.-- 이 부부는 진짜 보수 궤멸시키러 온 좌파의 트로이목마다	한지윤	
1207	2024-10-15 21:12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0%대를 털고 일어날 터닝포인트를 찾기 난망하다. 할 말이 많더라도 삼키고 국정 쇄신을 위해 무엇이었든 크게 결단하는 의지를 보여 줄 때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용산 십상시' 발언 녹취록,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 개입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탄탄했던 텃밭 민심조차 싸늘하게 돌아섰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도 검찰은 금명간 불기소 가능성이 크다. 사면초가 상황에서 '김 여사 라인'이라는 비상한 처방 없이는 민심 수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어 보인다. 한 대표가 김 여사를 겨냥한 무리수를 두는 것에 대해 보궐선거에 패배하더라도 책임을 대통령실로 돌리기 위한 계산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대통령실은 어제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연일 파장을 일으키는 한 대표의 발언들에 침묵만 하고 있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잘잘못을 따지는 일이 아니다. 김 여사 문제의 해법을 한시바삐 찾아야 하는 다급한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다. 무엇보다 다수 여론이 한 대표의 발언에 큰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는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0%대를 털고 일어날 터닝포인트를 찾	최영옥	

1208	2024-10-15 21:21	[사설] 김 여사 문제 정리 못하면 정권 미래는 어둡다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사 라인'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오래전부터 '여사 라인'으로 통하는 비서관·행정관들의 실명 리스트가 나돌았다. 한 대표가 아니었어도 '여사 라인'은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이었다. 과거 정권에서도 영부인의 숨은 영향력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대통령실 내부에 비선 그룹까지 형성한 적은 없었다. 이런 일이 생긴 건 김 여사가 국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용산 내부에서 묵인·방치했기 때문일 수밖엔 없다. 지난해 3월 국가안보실장·외교비서관·의전비서관이 석연찮게 경질됐을 때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단 말이 파다했다. 실제로 후임 의전비서관은 김 여사의 측근이 기용됐다. 지난 4월 총선 직후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보도가 불쑥 불거진 것도 출처가 '여사 라인'이란 게 정설이었다. 심지어 당시 이관섭 비서실장이 즉각 부인하자 '여사 라인'의 비서관이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재반박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이러니 대통령실의 기강이 세워지겠나. 지금 김 여사 문제는 국정의 최대 리스크가 돼버렸다.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5.8%로 2주 전 최저치와 동률이었다.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는데 이런 지지율	진은정	삭제
1209	2024-10-15 21:25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동훈의 바른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상식적인 국민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말을 바꾸고 주판을 튕기면서 자기 손익계산만 하고있죠 여야가 똑같아요 썩은 정치인들아 한동훈보고 깨닫는	처음부터 한동훈 말에 귀를 좀 기울였다면 모든 문제들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꺼다 이제라도 좀 들어라	한지윤	
1210	2024-10-15 21:26		보수라면 반드시 중심잡고 잘 판단해야된다. 윤석열 김건희는 보수를 등에 업고 정치권력을 쥐기위해 나온 사람들일뿐이다. 윤에게는 보수의 신념이나 애국이 없다. 단지 정치권력을 위해서 보수쪽에 서있는것일뿐 정치권력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갈아타기 할 수있는	허수옥	
1211	2024-10-15 21:30		김건희 명태균 카톡 대화보니 가관이더라 저렇게 입 함부로 놀리고 경거망동한 사람이 자기 라인을 대통령실에 심어서 쥐락펴락 했으니 국정운영이 엉망이지. 김건희 라인들 싹 다 정리하고 김건희 본인도 자중해야한다. 윤석열 정부를 더이상 망치지 말길	허수옥	

1212	2024-10-15 21:31	[사설] '김건희 비선 라인' 논란, 실체 밝히고 책임 물어야	다음 대선까지 버티기도 쉽지 않다. 특검법에 대한 여당 이탈이 그나마 적은 이유는 단 두 가지다. 하나는 야당의 특검법이 너무 편파적이고 자의적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특검 광풍이 몰아치고 만약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면 여권 전체가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이 김 여사가 억울하다고 여겨서 특검법에 반대하는 게 아닌 것이다. 하지만 의원들 머릿속엔 이대로 거부권에만 기대 버티는 건 공멸의 지름길이라는 인식도 함께 퍼져 있는 그야말로 딜레마 상태다. 여권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밀리고 밀리다 이탈표로 인해 특검법이 거부권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그때 맞게 될 매는 지금보다 몇 배 혹독하고, 여권은 "우리는 대통령 부인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집어넣는다"는 생색도 못 낸 채 공멸 위기를 맞게 된다.	최영옥	
1213	2024-10-15 21:35	잘못을 바로 잡는게 정치 맞다 숨기기 급급하고 물타기로 본질 흐리고 뒤집어씌우기나 하는 용산은 대표	보수 어르신들도 김건희라면 치를 떤다	한지윤	

1214	2024-10-16 0:54	[사설]'도이치' 셀프 검증으로 끝낸다는 檢, 특검 명분만 키울 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그 대신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이 수사팀에 반대 의견을 내는 이른바 '레드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검찰은 이런 과정을 거쳐 이르면 17일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레드팀 검증으로 김 여사 처분 이후 제기될 공정성 시비를 줄여 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이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검찰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레드팀은 공식 기구가 아니어서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레드팀에서 철저하게 따졌다고 해도 검사들끼리의 논쟁일 뿐 '초록은 동색'이라는 지적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도 수심위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수심위를 거치더라도 수사 결과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마저도 안 거치면 검찰의 결정이 공정하다고 볼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취지일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돼 '총장 승인'이라는 마지막 과정마저 없다는 점도 수심위 개최의 필요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이미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확고히 정해놨기 때문 아닌지 의심스럽다. 검찰은 최근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에 대해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했는데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수심위마저 무시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는데, 이번에는 이런 비판이 나올 소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비친다. 법조계 안팎에선 주가조작 세력의 전주(錢主)로 참여한 손모 씨가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점, 손 씨는 주식 거래로 손해를 본 반면 김 여사와 모친은 약 23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분석 등에 비춰 김 여사도 기소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진은정	삭제
1215	2024-10-16 1:06	잘못을 바로 잡는게 정치 맞다 숨기기 급급하고 물타기로 본질 흐리고 뒤집어씌우기나 하는 용산은 대표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 조용히 내조한다 하지 않았나 김건희가? 왜 양심 없이 자꾸 비선라인 통해서 나대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한동훈	삭제
1216	2024-10-16 1:36	나라 vs 김건희 중 김건희를 택하면 끌어내려야됨	출당만으로 안됨 그럼 문재인쪽이랑 붙어먹음 걍 끌어내려 조져야됨	진형구	

1217	2024-10-16 13:49	[사설] 커지는 '김건희 리스크', 대통령 책임감·결자해지 절실	영부인의 영향력 행사 소문은 정권 초기부터 줄곧 있었다. 문제는 진위 여부를 떠나 국민들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야권이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기승전 김 여사'식으로 공세를 펴는 것도 석연치 않는 의구심을 자초한 탓이 있다. 김 여사 논란은 급기야 여권 내분까지 초래했다. 김 여사 거취를 둘러싸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사이에 난타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보수·진보 정권을 통틀어 영부인의 언행이 국가적 난맥을 초래한 적이 없다. 김 여사는 국정의 최대 리스크가 된 지 오래다. 그 근본적인 책임은 윤 대통령에 있다. 김 여사는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공적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내주 초 한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갖기로 했다. 핵심 의제는 말할 것 없이 김 여사 논란의 해법이다. 제2부속실 설치나 김 여사의 사과 표명으로 일단락되기에는 사태가 너무 많이 꼬였다. 지금 다수 여론은 대통령 사과와 특검 등 김 여사 법적 처분, 재발 방지 대책을 바란다. 명품백 사건이 불거졌을 때 윤 대통령이 TV에 출연해 어물쩍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여 여론이 돌아섰다. 아직 임기의 절반이나 남았는데 이 상태로 정상적인 국정	최영옥	
1218	2024-10-16 13:57	명태균.김대남에게 약점잡힌 국힘당 김건희와 나경원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등 수많은 여당의원들 무조건 부인하고 있지만 명태균 입에 의해 하나 둘 까발려지고 있다.부폐한 정치들의 진실을 숨기고 변명만 늘어놓는 한심한 짓을 하고 있다. 그냥 확 까고 처음부터 투명	명태균.김대남에게 약점잡힌 국힘당 김건희와 나경원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등 수많은 여당의원들 무조건 부인하고 있지만 명태균 입에 의해 하나 둘 까발려지고 있다.부폐한 정치들의 진실을 숨기고 변명만 늘어놓는 한심한 짓을 하고 있다. 그냥 확 까고 처음부터 투명하게 다시 시작해라	한지윤	
1219	2024-10-16 13:57		조선일보 류병수기자가 확인해준 김건희 십상시 비선라인-이기정 (의전비서관), 강기훈 (기획비서관실 행정관), 강훈 (홍보비서관),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황종호(행정관:30대초반, 김대남관련), 김성룡(행정관) 최재혁(홍보기획비서관) >>>권성동은 김대남도 대	허수옥	
1220	2024-10-16 14:01	보수는 구태 청산하고 다시 태어나야함. <만약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여론조사 결과 보고를 받았는데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 홍준표, 오세	최순실은 뒤에서 재벌로부터 이권이나 뇌물을 받는데 그쳤지만, 김건희는 안방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며 천공이나 명태균 같은 인간들에 의존해서 국정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이 문제다.	한동훈	삭제

1221	2024-10-16 16:17	명품백 받을땐 공직자가 아니라서 범죄가 아니라더니 공직자도 아닌 영부인이 세금이 들어가는 대통령실 비선이 있다는게 말이 되냐 >>이기정 비서관, 최재혁 비서관, 김동조 비서관, 이원모 비서관, 강기훈 선임행정관, 황종호 행정관, 김성용 행정관, 전 비서관 강훈, 국회의원	지지율 지하로 끌고가고 있는 게 김 여사인 거 보수 지지자들도 다 아는데 아직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많네, 권성동 나경원 추경호 이런애들은 왜저러고 있고 참.... 정말 잘못 없어도 읍참마속이라도 해야할 판에	한동훈	삭제
1222	2024-10-16 16:19	지금은 당이 강하게 나가주길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터지는 김대남과 명태균의 녹취는 우리 정부와 기성 정치인에 대한 실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럴때 당에서 내식구 감싸기에 치중하면 내부적으로 당장 진통제 같은 안심을 할 순 있겠지만 더 빨리 침몰하게 될 뿐입니다.지금 이 당에 있는 누구도 우리 당과 정부가 침몰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신뢰를 가지고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봐도 봐도	지금은 당이 강하게 나가주길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터지는 김대남과 명태균의 녹취는 우리 정부와 기성 정치인에 대한 실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럴때 당에서 내식구 감싸기에 치중하면 내부적으로 당장 진통제 같은 안심을 할 순 있겠지만 더 빨리 침몰하게 될 뿐입니다.지금 이 당에 있는 누구도 우리 당과 정부가 침몰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신뢰를 가지고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봐도 봐도 부끄럽습니다. 분명 위기지만, 우리 손으로 구태정치를 깰 수 있다면 국민들은 다시 우릴 선택해 줄 것입니다./박상수	최영옥	
1223	2024-10-16 16:23	한동훈뜻대로만 용산에서 국정운영해도 지지율 63%는 기본이다.쫌만 더 국민눈높이 하면 70%도 될건데..애당초 뿌리가 진보인 용산이라	한동훈이 말한대로 있다고 김건희 비선이든 국정개입이든 당연히 해선 안되고 오해하게 만들어도 문제인거다 그동안의 녹취록이나 언론 취재로 보면 그러니 꼭 없애고 나라 정상화좀 시키자	한지윤	
1224	2024-10-16 16:23		아직 대통령 임기가 절반 넘게 남아 있다. 자기 팔을 도려내는 결단이 대통령과 여권 전체는 물론 김 여사를 위해서도 현명한 해법이다.	허수옥	
1225	2024-10-16 23:44		한동훈 말 틀린 것 하나도 없다 제발 정신 차리고 읍참마속하지 않으면 공멸이다. 지금 보수층 모두가 분노하고 답답해하고 있다. 용산 비서실 장막에 둘러싸인 윤석열, 폭탄 김건희, 그리고 각신 무리배 권성동 등	허수옥	
1226	2024-10-16 23:44	한동훈뜻대로만 용산에서 국정운영해도 지지율 63%는 기본이다.쫌만 더 국민눈높이 하면 70%도 될건데..애당초 뿌리가 진보인 용산이라	한동훈뜻대로만 용산에서 국정운영해도 지지율 63%는 기본이다.쫌만 더 국민눈높이 하면 70%도 될건데..애당초 뿌리가 진보인 용산이라 보수 흥망엔 1도 관심 없는 듯	한지윤	

1227	2024-10-16 23:44	[사설] 커지는 '김건희 리스크', 대통령 책임감·결자해지 절실	영부인의 영향력 행사 소문은 정권 초기부터 줄곧 있었다. 문제는 진위 여부를 떠나 국민들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야권이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기승전 김 여사'식으로 공세를 펴는 것도 석연치 않는 의구심을 자초한 탓이 있다. 김 여사 논란은 급기야 여권 내분까지 초래했다. 김 여사 거취를 둘러싸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사이에 난타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보수·진보 정권을 통틀어 영부인의 언행이 국가적 난맥을 초래한 적이 없다. 김 여사는 국정의 최대 리스크가 된 지 오래다. 그 근본적인 책임은 윤 대통령에 있다. 김 여사는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공적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내주 초 한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갖기로 했다. 핵심 의제는 말할 것 없이 김 여사 논란의 해법이다. 제2부속실 설치나 김 여사의 사과 표명으로 일단락되기에는 사태가 너무 많이 꼬였다. 지금 다수 여론은 대통령 사과와 특검 등 김 여사 법적 처분, 재발 방지 대책을 바란다. 명품백 사건이 불거졌을 때 윤 대통령이 TV에 출연해 어물쩍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여 여론이 돌아섰다. 아직 임기의 절반이나 남았는데 이 상태로 정상적인 국정	최영옥	
1228	2024-10-16 23:47	정국 혼돈을 막으려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제기된 의혹들을 제대로 설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간에 제기됐던 의혹들이 전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명태균인가 하는, 입심이 대단한 '과거의 조력자'까지 등장했다. 도대체 사람 보는 눈이 어땠기에, 훗날 대통령 부부를 망신시킬 사람에게 그처럼 널찍하게 곁을 주었다는 것인가. 언론에 인용 보도되는 그의 말로 미루어선 제갈량이 따로 없다. 말이 요란하면 일단은 경계할 필요가 있는데…. 2016년 10월 24일, "큰일 났습니다"라는 전화를, 지금은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인으로부터 받았다.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JTBC에서 최순실 이 태블릿PC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다고 보도했다"는 말이었다. 비당원 자격으로 새누리당의 당직을 맡고 있던 때였다. 순간 '이걸로 끝이 군'하는 생각이 들었다(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 방송국도, 보도 책임자도 건재하다). 명 씨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특히 15일 그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공개됐다. 8년 전의 충격이 그 기사에 오버랩 됐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에 있었던 사적 대화라고 하지만 그런 해명으로 민심을 다독이기엔 이미 늦었다. 윤석열 그도(襟度) 발휘해야 한도후관 대한 풀리다 [이지공의 그건 아니지요]	진은정	삭제

1229	2024-10-16 23:57	눈치도 없고 귀마저 닫으면 어떻게 하잔 말일까? 김건희의 말은 잘 듣는다지만, 여태까지 그의 말을 너무 잘 들은 데다 맹종했기 때문에 지금이 지경이 된 게 아닌가. 그 누구건 스스로 자멸할 권리는 있다지만, 공직 그것도 대통령이라는 엄청난 공직을 맡은 사람이 자멸의 권리를 주장하면 어쩌자는 건가. 인간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겠다는 게 인생의 최종 목표인가? 그게 아니라면, 이제라도 자신에게 김건희 문제로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내친 극소수의 사람들을	(4) “여권 핵심 인사는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했다. 사실이라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인사개입 개연성은 높아진다.”(중앙일보 대기자 이하경, 10월7일) (5) “김건희의 ‘대통령 놀이’는 거침없다. 아니, 더 세졌다. 겁이 없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불렀을 게다. 공사 구분이 없기에,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 태우고, 디올백 선물을 챙겼을 게다. 과시욕이 남달라, 밤중에 요란한 마포대교 순시를 갔을 게다. (…) 나라도 정권도 ‘망조’ 들게 한 김건희의 대통령 놀이, 이제 끝낼 때가 됐다.”(경향신문 편집인 이기수, 10월9일) (6) “나라가 김건희 블랙홀에 빠졌다. 자고 나면 추가되는 김 여사 관련 폭로·의혹에 여당 의원들은 ‘여론이 하루하루 달라진다’고 고통을 호소한다. 대통령 배우자가 국정 혼란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현 사태를 겪으며…”(한겨레 논설위원 황준범, 10월11일) 눈치도 없고 귀마저 닫으면 어떻게 하잔 말일까? 김건희의 말은 잘 듣는다지만, 여태까지 그의 말을 너무 잘 들은 데다 맹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게 아닌가. 그 누구건 스스로 자멸할 권리는 있다지만, 공직 그것도 대통령이라는 엄청난 공직을 맡은 사람이 자멸의 권리를 주장하면 어쩌자는 건가. 인간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겠다는 게 인생의	진은정	삭제
1230	2024-10-17 1:58	한대표에게 감사해라 윤건희 친윤 밥 벅레들아	한대표가 몸 갈아넣어가며 금정 대승했다 이 밥버러지들아	진형구	
1231	2024-10-17 2:06	이제 권성동 윤리위 회부하고 김건희 윤리위치 시키야됨	쎄게 나가서 조져야됨 민심이 한대표에게 그리 명령했음	진형구	
1232	2024-10-17 18:30	윤석열 이새!끼 친문이랑 딜쳤다는 소문 파다함. 김건희 살리려고	그래서 김경수 사면한거임 앞으로 두고보면 알게되있음	진형구	

1233	2024-10-17 19:14	중앙)윤 대통령, 나라와 부인 사이에서 결단할 때다	'십상시'니, '7간신'이니 구설이 끊이지 않는 '김건희 라인' 비서관·행정관들의 행태도 문제다. "진짜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진석 실장이 아니라 여사의 영부인 이전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김모 비서관"이란 뒷말까지 돈다. 그가 '왕명(여사의 지시)'을 출납하면 김건희 라인 비서관·행정관들이 움직여 비서실장이나 수석들도 모르는 가운데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회의에서 오간 얘기들이 김 여사에게 들어간다"는 설도 끊이지 않는다. 여권 소식통은 "김 여사가 시키지 않았어도 김 여사 라인 가운데 누군가가 회의 내용을 여사에게 갖다 바친다는 얘기가 있다. 이러니 여당에서 김 여사 라인 정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윤 여사를 '호국의 어머니'로 각별히 예우해 왔다.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 국민의 인내심이 임계치에 달해서다. 윤 대통령은 나라와 부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통령이) 여사를 끊어내지 않으면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어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일갈한 국민의힘 비윤 김재섭 의원은 "'제가 할 얘기 대신해 줘 고맙다'는	진은정	삭제
1234	2024-10-17 19:15	1. 수사받기 2. 활동중지 3. 비선정리	김건희 해결 못하면 보수는 계속 발목 잡힌다 용산은 한동훈 제안 받아들여라 솔직히 그렇게 당에 피해주면 용산 스스로 부인에 대해 격단 내려야 하는거 아닌가	한지윤	
1235	2024-10-17 19:16		김건희가 몰랐다고 말했다고 인지 못했다 하는걸 누가 믿냐 재판 넘겨서 법원 판단 받았어야지 쯔쯔 특검 피하기 어렵겠다 민주당 특검안은 국힘 의원들 108명 압수수색하는 법안으로 말도 안되고, 국힘이 준비해서 발의해라 그게 이기는길이다 용산은 더 못버티는거 아닌데	허수옥	
1236	2024-10-17 19:24	지나고 보면 한동훈 말이 다 맞더라	한동훈이 합리적으로 해결할 거라고 믿고 지지함!!!! 무조건 까대는 개딸 말은 무시하면 됨!! 쟤들은 그냥 탄핵과 이재명 대통 만들기 위해 뭔 짓이라도 할 놈들임!!!!!!	한동훈	삭제
1237	2024-10-17 19:25	[사설] 커지는 '김건희 리스크', 대통령 책임감·결자해지 절실	영부인의 영향력 행사 소문은 정권 초기부터 줄곧 있었다. 문제는 진위 여부를 떠나 국민들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야권이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기승전 김 여사'식으로 공세를 펴는 것도 석연치 않는 의구심을 자초한 탓이 있다. 김 여사 논란은 급기야 여권 내분까지 초래했다. 김 여사 거취를 둘러싸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사이에 난타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보수·진보 정권을 통틀어 영부인의 언행이 국가적 난맥을 초래한 적이 없다. 김 여사는 국정의 최대 리스크가 된 지 오래다. 그 근본적인 책임은 윤 대통령에 있다. 김 여사는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공적 권한도 없기 때문이	최영옥	
1238	2024-10-17 19:29	민심과 국민만 믿고 정치 하십시요	권력에 빌붙은 윤핵관 친윤들의 구태정치 싹 없에야 합니다 김대남 명태균 이런 인간들에게 휘둘리는 여당 당원 들은 X팔린다	한동훈	삭제
1239	2024-10-17 20:20	한대표는 잘못한일엔 바로 사과한다 대책도 세우고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하는 정치 응원합니다	구태정치 청산해주세요.이번 선거운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한동훈	삭제

1240	2024-10-17 20:21		김건희가 몰랐다고 말했다고 인지 못했다 하는걸 누가 믿냐 재판 넘겨서 법원 판단 받았어야지 쯔쯔 특검 피하기 어렵겠다 민주당 특검안은 국힘 의원들 108명 압수수색하는 법안으로 말도 안되고, 국힘이 준비해서 발의해라 그게 이기는길이다 용산은 더 못버티는거	허수옥	
1241	2024-10-17 20:22	김건희 이재명 조국 다 수사 제대로 발고 재판 제대로 발아라	커지는 '김건희 리스크', 대통령 책임감·결자해지 절실-- 한동훈 말 듣자	한지윤	
1242	2024-10-17 20:24	보수·진보 정권을 통틀어 영부인의 언행이 국가적 난맥을 초래한 적이 없다. 김 여사는 국정의 최대 리스크가 된 지 오래다. 그 근본적인 책임은 윤 대통령에 있다. 김 여사는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공적 권한도	보수·진보 정권을 통틀어 영부인의 언행이 국가적 난맥을 초래한 적이 없다. 김 여사는 국정의 최대 리스크가 된 지 오래다. 그 근본적인 책임은 윤 대통령에 있다. 김 여사는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공적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부산일보)	최영옥	
1243	2024-10-17 20:25	주가조작 사건은 물증·자백이 드물어 정황이 충분하면 기소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검찰의 의지 문제라는 것이다.	주가조작 사건은 물증·자백이 드물어 정황이 충분하면 기소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검찰의 의지 문제라는 것이다. 더구나 권 전 회장은 주가조작 자체를 부인한다. 그런 사람의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게 말이 되는가. 검찰은 “상장사 대표가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이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이라거나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이 없어 주가조작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문인지	한지윤	
1244	2024-10-17 20:26		보수는 한동훈에게 힘실어주고 한동훈으로 뭉치기로 결심했고 금정구에서 똘똘 뭉쳐서 표로 보여줬다 김건희 수사받으라는것도 보수의 뜻이다 이거 반대하는것들이 소수 분열 세력이지	허수옥	
1245	2024-10-17 20:27	[사설]“오빠 용서해 달라” “尹 2% 더 나오게”… 갈수록 태산 ‘명태균 의혹’	명 씨 의혹이 커지는 동안 대통령실의 대응은 오히려 불씨를 키우고 있다. 해명을 내놓아도 사실과 다른 게 금방 확인되거나, 일부 유리한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해명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선거 브로커가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한 지 1개월이 넘었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말끔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 응당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진은정	삭제

1246	2024-10-17 20:29	'김건희 수령', 사법심판대 서는 게 유일한 탈출구다	명품백 수수 같은 참담한 일이 공개됐는데도 전당대회 문자 공개, 대통령실 이전 공사 업체 선정 논란, 공천 개입 논란 등의 낯부끄러운 일들이 계속 터져나오는 걸 보면서 국민들은 김 여사에 대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정말 최소한의 공사 구분 의식, 자기 위치 파악 능력, 윤리관마저 갖추지 못한 상태로 권력 정점부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설상가상으로 새로운 논란의 눈뭉치들이 구르면서 더 큰 눈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공천 개입, 그리고 끊임없이 소문이 도는 공공기관·공기업 인사 개입 논란은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안길 수 있는 소재들이다. 오래전부터 정치권 주변에선 브이원(V1) 브이투(V2)라는 말이 돌았다. 브이는 VIP를 줄	최영옥	
1247	2024-10-17 23:29	명 씨 의혹이 커지는 동안 대통령실의 대응은 오히려 불씨를 키우고 있다. 해명을 내놓아도 사실과 다른 게 금방 확인되거나, 일부 유리한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해명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선거 브로커가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한 지 1개월이 넘었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말끔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 응당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명태균 게이트가 모든 국정	명 씨 의혹이 커지는 동안 대통령실의 대응은 오히려 불씨를 키우고 있다. 해명을 내놓아도 사실과 다른 게 금방 확인되거나, 일부 유리한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해명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선거 브로커가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한 지 1개월이 넘었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말끔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 응당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명태균 게이트가 모든 국정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진은정	삭제
1248	2024-10-18 13:26	민심 더 악화하는데 '김 여사 리스크' 관리 못 하는 용산[사설]	수도권 지지율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권의 지방선거·대선 승리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용산 대통령실에 비상이 걸려야 하는데, 반성도 대책도 감감하다. 선거 결과나 도이치모터스 불기소에 대한 입장도 대통령이나 대변인의 공식 발표가 아닌 관계자 언급으로 나오는 실정이다. 명태균 씨 문제는 대통령실의 자체 파악을 거쳐 대응해야 함에도 누구도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못 하니 입장을 내자마자 거짓 논란에 휩싸인다. 내주 초 열릴 것이라는 윤·한 회동을 이런 문제 해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부터 대통령실과 관저 울타리 너머의 합리적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	진은정	삭제

1249	2024-10-18 13:28	국힘 자체 특검안이 답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진짜 원한다면 제대로 위헌적 요소뺴고 만들어라 국민들 여론도 특검지지가 강한데 민주당은 속내는 김건희 이슈 질질 대선때까지 끌고 가고 싶으니까 위헌적인 특검을 만들어서 일부러 여당	국힘 자체 특검안이 답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진짜 원한다면 제대로 위헌적 요소뺴고 만들어라 국민들 여론도 특검지지가 강한데 민주당은 속내는 김건희 이슈 질질 대선때까지 끌고 가고 싶으니까 위헌적인 특검을 만들어서 일부러 여당이 찬성 못하게 만들고 있지않나	한지윤	
1250	2024-10-18 13:29		보수는 한동훈에게 힘실어주고 한동훈으로 뭉치기로 결심했고 금정구에서 똘똘 뭉쳐서 표로 보여줬다 김건희 수사받으라는것도 보수의 뜻이다 이거 반대하는것들이 소수 분열 세력이지	허수옥	
1251	2024-10-18 13:47	4시간 설명 열의로 수사했다면 특검·탄핵 말 나오겠나[사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17일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더욱 심각해졌다. 특검 여론이 63%(한국갤럽 10월 셋째 주 여론조사)에 달했고,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불가피론이 나온다.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면 기소하지 않는 게 옳다. 그러나 그 간의 사정을 종합하면, 수사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여론을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그 사이에 수사팀은 물론 정권까지 바뀐 만큼 현 수사팀만 탓할 수는 없지만, 윗선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고발장 접수 4년 6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4시간 동안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했거나 알았다는 진술과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런 열성으로 김 여사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나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하	최영옥	
1252	2024-10-18 13:49	한동훈 대표만 보고 투표했다 그러니 국힘 꼭 쇄신 하는데 한동훈 대표로 뭉쳐라	한대표의 생각이 지극히 정상적이다.	한지윤	
1253	2024-10-18 13:49		보수는 한동훈에게 힘실어주고 한동훈으로 뭉치기로 결심했고 금정구에서 똘똘 뭉쳐서 표로 보여줬다 김건희 수사받으라는것도 보수의 뜻이다 이거 반대하는것들이 소수 분열 세력이지	허수옥	
1254	2024-10-18 15:28	민주당이 진짜 야비한게 말만 김건희 특검법이지 온갖 독소조항 넣어서 도저히 국힘이 찬성할수없는 악의적인게 저 김건희특검임 끊임없	지금 솔직히 보수들도 김건희특검 원해 민주당이 제대로된 특검 내보란말야 김건희가 자숙하고 조용히 있는걸 젤 싫어할 집단이 민주당임	한동훈	삭제
1255	2024-10-18 15:30		국민과 보수는 김건희를 뽑지 않았어요 김건희씨는 대통령이 알아서 처리하시고 한동훈은 국힘을 쇄신하도록 힘실어줍시다	허수옥	

1256	2024-10-18 15:31	민심 더 악화하는데 '김 여사 리스크' 관리 못 하는 용산[사설]	수도권 지지율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권의 지방선거·대선 승리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용산 대통령실에 비상이 걸려야 하는데, 반성도 대책도 감감하다. 선거 결과나 도이치모터스 불기소에 대한 입장도 대통령이나 대변인의 공식 발표가 아닌 관계자 언급으로 나오는 실정이다. 명태균 씨 문제는 대통령실의 자체 파악을 거쳐 대응해야 함에도 누구도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못 하니 입장을 내자마자 거짓 논란에 휩싸인다. 내주 초 열릴 것이라는 윤·한 회동을 이런 문제 해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부터 대통령실과 관저 울타리 너머의 합리적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	진은정	삭제
1257	2024-10-18 15:58	김건희 특검법에 왜 국힘당 압색은 물론 108명 국힘당 의원들 핸폰 등 압색은 왜 하나요? 이게 무슨 김건희 특검법이야? 국힘 해체시키려는 개악법이지 올바른 특검법을 내라	김건희 특검법에 왜 국힘당 압색은 물론 108명 국힘당 의원들 핸폰 등 압색은 왜 하나요? 이게 무슨 김건희 특검법이야? 국힘 해체시키려는 개악법이지 올바른 특검법을 내라 보수가 더 찬성한다	한동훈	삭제
1258	2024-10-18 15:59	낙선 인사를 먼저 오신 한동훈 대표님을 만나니 그동안 쌓였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전남을 포기하지 않은 대표님 고맙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곡성장날 남도뚜벅이 김화	김화진 페북) 낙선 인사를 먼저 오신 한동훈 대표님을 만나니 그동안 쌓였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전남을 포기하지 않은 대표님 고맙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곡성장날 남도뚜벅이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진은정	삭제
1259	2024-10-18 15:59	김여사의 모든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정부가 민생에 집중할수있다. 언제까지 야당의 공격만 받고, 부실한 답변하기에 급급해서 나라가 제대	국힘 압수수색하고 의원들사무실 다 쳐들어가는법이 왜 김건희법이냐 누구보다 보수가 김건희 특검 통과되고 더이상 안나대길 바란다 민주당은 김건희로 특검 질질끄는게 목적이 아니라면 독소조항 빼고 제대로된 특검법을 발의해라	한지윤	
1260	2024-10-18 16:18	오세훈 명태균 김종인 다 엮인거였네	역시 김종인-명태균-이준석 그 쪽 패밀리. 새벽 4시 지리산 칠불사에서 홍매화를 심는 사진은 명태균이 촬영하고 그들끼리의 주술과 공작	한동훈	삭제
1261	2024-10-18 16:42	셀프 검증 뒤 '도이치'도 불기소…여론 역풍 안 불겠나	김 여사는 본인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로감을 안겨주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줬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제라도 진솔한 태도로 국민 앞에 서서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길 바란다. 지난 대선 직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란 믿음도 줘야 한다. 김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서두르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을 전담 조사할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국회에서 정해 주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여야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서두르기 바란다. [출처:중앙일	최영옥	

1262	2024-10-19 14:45	지난 대선 때 이 대표를 패배시켰던 윤 대통령이 이젠 '이재명 대통령'의 길을 깔아주고 있다. [조선일보]	이 대표를 도와주는 것이 윤 정권이다. 주가조작과 명품 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자초하고 '정치 검찰' 프레임에 명분을 주었다. 국정 개입, 비선 의혹이며, 정치 브로커와 맺은 수상한 관계 등이 끊임없이 불거지는데도 김 여사 문제를 단속하지 않고 방치해 공격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쯤 정치판을 휩쓸었어야 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슈를 정권 심판론이 가려준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쏟아내는 자책골을 이 대표와 민주당이 먹고 산다. 윤 정권이 단단했다면 방탄도, 사법 방해도 통하지 않았을 것이	진은정	삭제
1263	2024-10-19 15:14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니 배석자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한 대표의 어른스럽고 무게감 있는 한마디. 역시 한동훈이다	이재명 대표까지 한 대표에게 "승리를 축하한다"고 했는데 총선, 당 대표, 보궐 선거에 "수고 했다"고 인사나 덕담 한마디 못해주는 대통령. 한 대표에게 외롭고 힘들지만 오로지 국민만 보고 정진하라 무언의 메시지라고 이해하면 되겠지.	한동훈	삭제
1264	2024-10-19 15:22	그냥 생중계 해라. 윤대통령이 단독회담을 피한것은 한동훈의 김여사에 대한 요구 사항을 부정하기 어려워서 비서 실장을 배석시키는것이 아닐까? 김여사 스케줄을 관리할 제2부속실 설치를 미루는것을 보더라도 김여사는 윤대통령 통제 밖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	중계방송하라.시대가변했다.윤통이 한대표에게일방적으로 훈시하던시대는 부산금정전투에서 종막을고했다. 한대표가먼저 말하고윤통은 해명해야한다.왜김건희를들판에 便犬내놓듯 제멋대로 굴게해서 국민들을불쾌하게했는지를추궁받아야한다. 왜 잘나가는 k의료에 의대증원2000명을홍두깨처럼불쑥 내놔 일년이다가도록 젊고장래가 촉망되는 의대생.인턴.레지던트들을 내치고 전문의.교수를실망시키며 잘나가던 대학병원들을 수천억적자에 빠지게만들고 중환자들을 갈 곳 없게 만들고 응급실 운영에 안써도 될 수천억을 쏟아붇게 만들었는지 해명해라.	한동훈	삭제
1265	2024-10-19 15:24		해외언론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기사를 수시로 내보낸다네요... 국제 망신 좀 그만시키고 검사들도 정신 차리세요.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허수옥	
1266	2024-10-19 15:26	김건희 땜에 보수가 창피하다 게다가 지레 오해해서 사이버불링까지 하다니 김건희측은 뻔뻔하기도 하지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개인 sns글에 저런 시비를 건다? ㅋㅋㅋㅋ 이건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걸 증명하는거다 진짜 웃긴다 강명구 등 친윤들	한지윤	
1267	2024-10-19 15:26	[사설]"압수 영장 기각"은 거짓말이고, 서면 질의엔 '1년 뒤' 답변하고 …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2020년 4월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되기는 했으나 2021년 3월까지는 윤 대통령이 총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휘권 배제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다. 이후로는 윤 대통령의 출마가 유력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검찰은 정권 교체 이후로는 1년 반 동안 조사를 하지 않고 주범들의 항소심 선고를 본 뒤 필요하면 하겠다고 하더니 돌연 선고가 내려지기 직전에 김 여사 출장조사를 강행했다. 항소심에서 방조범의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으나 관련한 추가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무혐의 처리든 기소든 검찰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	최영옥	

1268	2024-10-19 16:05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사람 많고 지극히 사적인 결혼기념일 포스팅에 발작해 비공개 전번 뿌려 좌표찍고 사이버테러? 이런짓 한 강승규	ㅇㅇ	한동훈	삭제
1269	2024-10-19 16:07		김혜란 대변인은 꼭 법적 조치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 도둑이 제발 저린 강명규 강승규 보좌관들은 본인들이 관련자인가? 국민의힘은 앞으로 이런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고 자당의 당직자를 공격하는 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 당에서 더 강력 대응하라	허수옥	
1270	2024-10-19 16:08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개인 sns글에 저런 시비를 건다? ㅋㅋㅋㅋ 이건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걸 증명하는	국힘지지층은 김혜란대변인 응원한다 오빠에 긁혀서 씩씩대는거 건라인 십상시 추종자들 뿐	한지윤	
1271	2024-10-19 16:11	'김건희의 나라냐' 성난 민심 직시해야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김 여사 관련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아왔다. 앞서 '김 여사 라인' 정리 요구에 "비선은 없다"고 맞대응하기도 했다. 민심의 분노가 임계치에 이른 상황에서 이런 식의 대응은 더 큰 역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가시적 조치만이 김 여사 '수렁'에서 벗어나 정국을 정상화할 수 있다	최영옥	
1272	2024-10-19 16:13		연상 남편을 뭐라 불러야함? 오빠를 오빠로 부르지도 못하는 현실, 뭔 홍길동이야?	허수옥	
1273	2024-10-19 16:17	강승규 여명 강명규 다 한팀이었군요 여기에 권성동까지. 그리고 대변인및 국힘당직자들 번호 특정 폐급 커뮤니티에 유출시키고 돌린 정황이 있다는데 보좌관들 짓인지 누구짓인지 좀 밝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	강승규 여명 다 한팀이었군요 여기에 권성동까지. 그리고 대변인및 국힘당직자들 번호 특정 폐급 커뮤니티에 유출시키고 돌린 정황이 있다는데 보좌관들 짓인지 누구짓인지 좀 밝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지윤	
1274	2024-10-19 16:17	김 여사는 본인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로감을 안겨주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줬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5186	김 여사는 본인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로감을 안겨주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줬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제라도 진솔한 태도로 국민 앞에 서서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길 바란다. 지난 대선 직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란 믿음도 줘야 한다. 김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서두르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을 전담 조사할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국회에서 정해 주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여야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서두르기 바란다. [출처:중앙일	최영옥	

1275	2024-10-19 16:30	명태균은 고소 못하고 벌벌 떨면서 대변인의 개인 페북에 대해 징계해라마라 날뛰는게 국민눈에 어떻게 보일까 걱정이다.	이 대표를 도와주는 것이 윤 정권이다. 주가조작과 명품 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자초하고 '정치 검찰' 프레임에 명분을 주었다. 국정 개입, 비선 의혹이며, 정치 브로커와 맺은 수상한 관계 등이 끊임없이 불거지는데도 김 여사 문제를 단속하지 않고 방치해 공격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쯤 정치판을 휩쓸었어야 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슈를 정권 심판론이 가려준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쏟아내는 자책골을 이 대표와 민주당이 먹고 산다. 윤 정권이 단단했다면 방탄도, 사법 방해도 통하지 않았을 것이	진은정	삭제
1276	2024-10-19 17:23	검찰의 결정에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반색했을 사람이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이 대표가 재판 아닌 '정치'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재판으론 불리할 것 같자 재판정 밖에서 싸우겠다며 거대 야당을 개인 범죄 방어에 동원하고, 국회 상임위를 방탄 무대로 만들었다. 이 대표 1인 정당이 된 민주당은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 소추하는가 하면, 재판부를 향해 "국민적 저항" 운운하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며 사실상 윤 정권 퇴진 운동에도 돌입했다. 온갖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사법적 허들을 피하려는 정치적 술수다. 대선까지 2년 반을 기다릴 수 없으니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 조기 선거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이 대표의 전략은 먹혀들고 있다. 민주당을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켰는데도 당내에선 비판 한마디 나오지 않는다. 의회 시스템을 범죄 방탄의 난장판으로 만들었는데도 여전히 지지율은 높고 선거만 하면 이긴다. 법원마저 정치 압박에 주눅 든 기색이 엿보인다.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판사는 1년 6개월간 재판을 끌다가 돌연 사표를 냈고, 구속적부심 담당 판사는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정당 대표'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 사건은 고사하고 선거법·위증교사 사건마저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사법 방해는 헌정(憲政) 유린의 중범죄다. 정상적 국가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세력은 여론 질타를 받고 당장 퇴출됐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대권 레이스 선두를 질주하고, 민주당은 건재하다. 법치를 파괴하려는 사법 방해 세력이 도리어 큰소리치며 정국을 주도하고 있으니 참으로 희한한 한국적 현상이다. 개인 범죄를 야당 탄압으로 둔갑시키는 후흑(厚黑)의 테크닉이 놀라울 뿐이다. 역설적으로 그런 이 대표를 도와주는 것이 윤 정권이다. 주가조작과 명품 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자초하고 '정치 검찰' 프레임에 명분을 주었다. 국정 개	진은정	삭제
1277	2024-10-19 17:42	돼!지에 이어 오빠 금지어 이게머하는 짓거리야 공산당이냐	친윤 똥개들은 무슨 공산당이냐	진형구	

1278	2024-10-19 17:47	김혜란 대변인 기죽고말고 무쏘의 뿔처럼 가세요 !!!	지금 친윤 똥파리들 낙이없거든요 신경쓰지말아요 ㅋ	진형구	
1279	2024-10-19 17:52	선거 지길바란 용산 친윤 개1새1끼들 ..열겨운 권성동 김재원	당 윤리위를 상시 가동해서 당에 도움도 안되는 저새!끼들 쓸어버립시다	진형구	
1280	2024-10-20 0:47		보수정당에서 대체 김건희 여사의 발언은 왜 문제삼지 않는가? 김건희 여사는 "진보의 오야붕", 디올백을 받으며 "보수의 힘으로 당선됐지만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고" 김건희는 보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오히려 징계의 대상은 김건희 여사이다. 김대남이 대통령을 꼴통이라고 했다 그리고 명태균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대변인이 개인적으로 올린글을 가지고 강승규보좌관 여명이 좌표찍고 비대위갤에서 조림돌림당하고 장예찬 나와서 떠들고 극우유트뷰들 난리 강명구 나와서 징계타령 힘없는 대변인 하나 잡자고 친윤들 출동이다 친오빠라며 뭐가 문제냐 정말 이런행동이 용산에 도움이 되냐	허수옥	
1281	2024-10-20 0:49	권성동 강명구 강승규 권영세 추경호 김민전 윤상현 임이자 조지연 조	남편을 오빠라 부르면 이들 간신배들 눈에는 불경죄에 걸린단다 자유민주주의 추구정당에서 입틀막 오지네 진짜	한지윤	
1282	2024-10-20 17:58	원내대표 이 또!라이 새!꺄 오빠단어가 먼 경고야 등!신새!꺄	멍멍이 노릇도 적당히해라 퉤	진형구	
1283	2024-10-20 18:03	윤석열한테 꼴통 이라고한 김대남은 징계했냐 신상식 새!끼들아	찍소리 못하는 것들이	진형구	
1284	2024-10-20 18:08	신혜식이봉규고성국 쳐보는 똥파리새!끼들이 어디서 주인행세야	개족보 새1끼들이 전광훈당 가서 똥 이나 묵어	진형구	

1285	2024-10-20 19:05	보수정당에서 대체 김건희 여사의 발언은 왜 문제삼지 않는가?김건희 여사는 "진보의 오야붕", 디올백을 받으며 "보수의 힘으로 당선됐지만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고" 김건희는 보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오히려 징계의 대상은 김건희 여사이다. 김혜란 대변인 직위 내려놓으라고 하셨는가?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직위를 내려놔라 대선 전 약속 지켜라. 자칭 순수 보수란 작자들이 김	보수정당에서 대체 김건희 여사의 발언은 왜 문제삼지 않는가?김건희 여사는 "진보의 오야붕", 디올백을 받으며 "보수의 힘으로 당선됐지만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고" 김건희는 보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오히려 징계의 대상은 김건희 여사이다. 김혜란 대변인 직위 내려놓으라고 하셨는가?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직위를 내려놔라 대선 전 약속 지켜라. 자칭 순수 보수란 작자들이 김건희여사의 저 발언은 무시하니 기가차다.	한동훈	삭제
1286	2024-10-20 19:13		한국일보 사주해서 망상급 괴담 내보낸 결과가 비참하네요 김건희만 더 처맞고 김혜란한테 직접적 경고조차 주지 못했음 오히려 그동안 당대표를 향한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에도 징계가 없었는데 왜 낙리낙친한계 목소리만 더 커짐 강명구가 지 손으로 윤석열김건희 이미지 더 아작냄 cbs기자가 말한 용산간신들 수준이 하급오브하급이다 증명 편든 의원이 15명에서 10명으로 다시 아예 삭제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니 친윤들 쪼그라든것만 확인사살	허수옥	
1287	2024-10-20 19:14	[사설]명태균의 '공천 장사·산단 유치' 의 정도면 국정농단 아닌가	창원시가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선정된다는 정보를 명씨가 사전에 입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15일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창원시를 포함해	최영옥	
1288	2024-10-20 19:21	추경호 강승규 강명구 권성동.. 무엇보다 김.명.신... 매번 반복되는 친건들의 유치한 행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싶어요.. 훌륭한 정치인은 바라지도 않지만 적어도 아이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정치인은 되지 말아야 하는데... 매일매일이 한숨만 나오네요~! 당당하게 국힘을 지지한다 말할수 있는 날	추경호 강승규 강명구 권성동.. 매번 반복되는 친김건희들의 유치한 행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싶어요.. 훌륭한 정치인은 바라지도 않지만 적어도 아이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정치인은 되지 말아야 하는데... 매일매일이 한숨만 나오네요~! 당당하게 국힘을 지지한다 말할수 있는 날이 오길요~!!	한지윤	
1289	2024-10-20 19:21		윤석열은 김건희에게 주술 걸려서 절대 요구사항 못받음 김건희가 이재명과 손잡고 대한민국 다 망치네 우파는 그래도 한동훈이라도 있으니 용산은 무시하고 전열 정비하면 된다. 이번 보궐에서 보여준 민심이 바로 그것이다.	허수옥	

1290	2024-10-20 19:40	배우자를 오빠라 부르거나, 배우자가 배가 나온 경우에는, 강력 징계한다는 대통령실발 지휘 명령이 나오겠네 어이없다 국힘이 왜 저 김명	어이없다 국힘이 왜 저 김명신때문에 이렇게 돼야함?	한동훈	삭제
1291	2024-10-20 19:45	고의 트롤로 총선망친거 누구? 내조만 하겠다며 대국민사과해놓고 대통령 놀이에 빠져 온 국가를 혼란하게하는게 누구? 기자는 지금 보수층들이 얼마나 더 용산부부를 혐오하는지 어디 대구 길거리에가서라도 물어봐라 윤석열이 잘하고있	고의 트롤로 총선망친거 누구? 내조만 하겠다며 대국민사과해놓고 대통령 놀이에 빠져 온 국가를 혼란하게하는게 누구? 기자는 지금 보수층들이 얼마나 더 용산부부를 혐오하는지 어디 대구 길거리에가서라도 물어봐라 윤석열이 잘하고있다는 사람이 있나?	한동훈	삭제
1292	2024-10-20 19:47	[사설] 金 여사 문제 검찰 떠나 정치로, 결국 국민이 결정	모든 문제는 윤 대통령 부부가 자초한 것이다. 김 여사가 대선 때 국민 앞에서 약속한 대로 내조에만 충실했다면 애초에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일으키는 문제를 무조건 감싸고 옹호하다 민심을 잃었다. 이는 총선 참패로 이어져 이제는 국정 동력 자체를 상실한 상황이다. 검찰의 잇단 무혐의 결론은 의혹의 종결이 아니라 야당의 특검 공세 시발점이 됐다. 문제가 검찰을 떠나 정치로 넘어온 것이다. 이미 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거부권에서	최영옥	
1293	2024-10-20 19:51	한대표가 리더였다면...	이런 모든 피곤한 일들이 없었을텐데.. 의료농단도 저렇게 무식하게 저지르지 않고 10% 정도로 점진적 증원 했을거고 멀쩡한 청와대 옮기면서 자격도 없는 김명신 인맥회사에 일감몰아주기도 안했을거고 양평고속도로 변경도 안했을거고 종북좌파목사와 녹취록 서울의소리 녹취록 명태균과의 카톡대화 등등 상상초월 카톡들 폭로도 없었을거고 보수우파는 당당하게 정권 재창출을 꿈꾸면서 나라를 잘 경영하고 있었을걸? 이승만 바로세우기	한지윤	

1294	2024-10-20 19:51	<강명구 의원님 저한테 맞다이로 들어오세요.>	최오성 1일 · <강명구 의원님 저한테 맞다이로 들어오세요.> 1 현재 김혜란 대변인이 페북글을 여권 일부에서 논란 삼고 있다. 결혼기념일에 "배나온 오빠" 표현을 두고 김건희 여사를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명구 의원들을 비롯해 대변인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솔직히 여명 보좌관 글을 봤을 때 한참 이해가 가지 않았다. 글의 주제가 결혼기념일이다. 정치논평도 아닌 글에 김건희 여사가 연상될 여지는 없었다. -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아선 안된다.	진은정	삭제
1295	2024-10-20 21:29	[사설]“오빠 용서해 달라” “尹 2% 더 나오게”… 갈수록 태산 ‘명태균 의혹’	명 씨 의혹이 커지는 동안 대통령실의 대응은 오히려 불씨를 키우고 있다. 해명을 내놓아도 사실과 다른 게 금방 확인되거나, 일부 유리한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해명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선거 브로커가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한 지 1개월이 넘었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말끔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 응당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진은정	삭제

1296	2024-10-20 21:42	내각제 국가에서 내각의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지면, 국정 운영이 어렵다며 새로운 총선을 실시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비춰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중반을 밑돌면 국정 운영에 이상 징후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친윤계 의원들의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친한계 의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중간적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많기 때문인데, 이들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는가 하는 부분이, 앞으로 당내 역학 관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보면,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돌게 될 즈음이면, 대통령의 힘은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친윤 의원들의 숫자가 늘어나기보다는 친한계 의원의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친윤계 의원들의 수가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이 계속 증가 추세라고 말하는 이유는, 과거 김 여사 관련 의혹, 즉 채 상병 관련 의혹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의혹, 명품백 수수 문제 등의 사안에다가, 명태균 씨와 김대남 전 행정관 관련 의혹이 추가되는 모양새기 때문이다. 명태균 씨에 의해 제기되는 의혹이든, 서울의 소리에 의해 제기되는 의혹이든, 아니면 김대남 전 행정관에 의해 제기되는 의혹이든, 빠지지 않고 김 여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대통령의 지지율 측면에서나 당내에서의 지분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명태균 씨는 김 여사와 SNS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 아니라, 2021년 6월부터 반년간 거의 매일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통화 녹취나 메시지가 추가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은, 국민의힘 내부의 차기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명태균 씨의 입에 오르내리는 인사들 중 일부는, 차기 대선 잠룡으로 불리는 정치인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은 한동훈 대표에게 보다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한다. 한동훈 대표의 이름이 명태균 씨 입에서 거론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도 한 대표	진은정	삭제
1297	2024-10-20 22:21	金 여사 문제 검찰 떠나 정치로, 결국 국민이 결정	검찰의 잇단 무혐의 결론은 의혹의 종결이 아니라 야당의 특검 공세 시발점이 됐다. 문제가 검찰을 떠나 정치로 넘어온 것이다. 이미 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거부권에서 이탈했고 이 숫자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당장 다음 주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에서도 김 여사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의 김 여사 라인 정리를 공개 요구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요구는 김 여사가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	최영옥	

1298	2024-10-21 13:17	< 아프니까 민심이다. > PK 지지율 수치가 26.0%. 바로 지난 주에 있었던 금정구 재보궐에서의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은 61.03%.	김연주 3시간 · < 아프니까 민심이다. >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 추세가 매우 아프다. 더구나 지지는 최저를, 부정 평가는 최고를 갱신하는 추이가 지속되는 국면이라면 그야말로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꾼다는 정신이 필요하다. 혹자는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지지율을 왜 신경 쓰냐 하지만, 소위 '지지율이 깡패'란 말이 왜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연예인의 인기는 높고 낮음에 따라 한 개인의 흥망, 나아가 수입에 연관되는 것에 그치지만, 정치인에게 국민 지지는 곧 국정 및 개혁의 동력이자 나라의 명운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을 갈 때 핸들이 좌우로 흔들리며 누구나 넘어지지 않을까를 두려워한다. 그럴 땐 짧게 짧게 브레이크를 밟아 그때그때 속도를 늦춰야 한다. 만약 브레이크 잡을 시점을 놓쳐 가속이 붙게 되면, 내지는 브레이크가 터질 정도로 실기한다면, 백약이 무효가 된다. 넘어지거나 어디 담벼락에 부딪히거나... 할 수 밖에.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국정수행 지지율에서, 대구·경북이 전주 대비 8.1%, 부울경이 7.1%의 하락을 보여 매우 아프다. 특히 PK 지지율 수치가 26.0%. 바로 지난 주에 있었던 금정구 재보궐에서의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은 61.03%. 국민은 언제나 옳기에 민심을 읽고 민심에 맞추며 나부터도 더 노력하리라 다짐하는 아침이다.	진은정	삭제
1299	2024-10-21 21:20	사실 김건희 윤석열이 바뀔거라 기대하는 국민들 아무도 없다 한동훈은 이제 한동훈의 길로 가는수밖에	3대 요구안을 면전에서 제시했으니,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용산의 몫이다. 더 이상 당을 방패로 삼을 생각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한동훈	삭제
1300	2024-10-21 21:24		한동훈은 윤석열한테 민심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세가지 요구사항 이미 제시했고 수용 여부는 윤석열한테 달렸다 이제 공은 던져졌고 윤석열 책임이다	허수옥	
1301	2024-10-21 21:24	강혜경 "명태균, 김건희는 밖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라 해"	???	최영옥	
1302	2024-10-21 21:26	강혜경 "명태균, 여론조사 데이터 조작 지시…尹 흡족해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미공개 여론조사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된 것으로 아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후보(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된 걸로 안다"며 "명씨 녹취에도 윤석열 총장(전 검찰총장 시절)한테 보고해야 한다, 빨리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명씨가 여론조사를) 실물로도 가지고 갔고 나중에는 카카오톡으로 제가 보고서를	진은정	삭제

1303	2024-10-21 21:28	너무도 슬프다. 우리는 김건희가 아닌 윤석열을 뽑았는데 요즘 드는 모멸감, 수치심을 어쩔거냐. 오늘 차담 계기로 더 늦기 전에 해결해라.	너무도 슬프다. 우리는 김건희가 아닌 윤석열을 뽑았는데 요즘 드는 모멸감, 수치심을 어쩔거냐. 오늘 차담 계기로 더 늦기 전에 해결해라. 용산 대 대 실망이다	한동훈	삭제
1304	2024-10-21 21:29		용산이 한대표의 제언을 경청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해야 한다. 계속 민심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 사는 듯한 국정운영 지속시 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허수옥	
1305	2024-10-21 21:29	김 여사 '실질적 활동 중단' 없인 국민 신뢰 못 얻는다[사설]	이런 점에서, 한 대표가 거론한 김 여사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 협조 등 3가지 접근법은, 그의 정치적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일리가 있다. 한 대표 말대로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치"이기 때문이다.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여론은 악화했다. 명태균 씨 폭로전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김 여사 자신이 대선 기간에 약속했던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할 것이란 진	최영옥	
1306	2024-10-21 21:30	김건희여사는 자숙하고 활동 중단하여 더 이상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지 말기 바란다. 죄없는 국민들이 저질스런 말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스트레스 너무 많이 쌓인다. 제발 더 이상 나대지 말기 바란다. 대통령 영부인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자질이 부족하다. 아내 하나	김건희여사는 자숙하고 활동 중단하여 더 이상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지 말기 바란다. 죄없는 국민들이 저질스런 말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스트레스 너무 많이 쌓인다. 제발 더 이상 나대지 말기 바란다. 대통령 영부인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자질이 부족하다. 아내 하나 건사 못하는 대통령 있을 수 없다.	한지윤	

1307	2024-10-21 21:32	[칼럼]어쩌다 우리는 부부통치를 받게 되었나?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는 상원의원 중 처음으로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고 대선 캠프 고문을 지낸 1등 공신이었다. 후임 장관 윌리엄 바는 극우 성향에 트럼프의 충복이었다. 그랬던 이들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자기 직무에 대한 책임성과 어긋날 때 자기 직분에 좀 더 맞는 행동을 했다. 그것뿐이다. 윤석열 정부 공직자에게는 그런 공직윤리가 없다. 윤석열의 거친 욕설, 격노 앞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트럼프는 그런 문제에서 윤석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사람이다. 비서실장 존 켈리에 따르면, "그는 항상 고함지르고 격분했다." 그럼에도 각료·참모들은 직을 걸고 트럼프를 설득하고 반론하며 따졌고, 그래도 안 되면 거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과 정반대다. 중책을 맡은 이들은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한술 더 떴다. 그들은 수동적 협력자가 아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결국, 이 책임감 없는 공직자들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실수를 최소화한 게 아니라 최대화했고, 그 때문에 윤석열 실패를 막을 2차 저지선도 무너졌다. 이제 최후의 저지선, 국민의힘만 남았다. 여당은 탄핵 방어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망하는 방법에 탄핵만 있는 게 아니다. 살아도 죽은 목숨이라는 게 있다. 윤석열 부부를 바꾸기는 어렵다. 그들은 영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의 커플처럼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돌진할 태세다. 그러나 바꾸지는 못해도 막을 수는 있다. 집권당이 힘을 합쳐 행동하면 탄핵도 막고 윤석열 부부의 일탈도 제어할 수 있다. 그걸 위해 필요한 건 거수기 역할 거부, 대세 편승 행태 포기뿐이다. 다수 의원들은 윤석	진은정	삭제
1308	2024-10-21 21:42	김건희 하나땜에 보수가 궤멸당하기 직전이다 윤석열은 그O의 당정일체 이딴 O소리 그만해라	.	안동훈	삭제
1309	2024-10-21 21:45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번 부산 금정구 선거에서 깜깜이 기간까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 조사가 절반이 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고3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PK 포함 요즘 개학한 학교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혐오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조롱하는 게 밈화 되었다고 한다. 보수조차 김건희 리스크로 한계점에 달했고, 윤석열은 중심을 전혀 못잡고 김건희 방탄에만 대통령 고유권한까지 남용하는 윤석열에 폭발한 상태였다. 이 악조건 속에서도 직접 전투에 나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동력을 얻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려는 한동훈이 최소한의 의제 3가지 제안에도 알량한 자존심만 세우고 국민은 뒷전에, 보수가 무너지든, 국민들이 죽어나가든 머릿 속에는 온	허수옥	

1310	2024-10-21 22:10	김 여사 '실질적 활동 중단' 없인 국민 신뢰 못 얻는다[사설]	김 여사 처신 문제에 관한 한, 보수 성향 국민 사이에서도 비호감 의견이 압도적이다. 이미 공개된 여러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 명품 가방 수수 등의 문제만으로도 김 여사의 '정치적 칩거'가 필요하다는 데 다수 국민과 언론의 공감대가 형성됐을 정도다. 대통령실 측이 "(김 여사 활동에) 불법은 없다"고 항변하면서, 번번이 대응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다. 이제는 김 여사의 적절한 대국민 사과, 제2부속실 설치,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 요구 등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한 대표가 거론한 김 여사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 협조 등 3가지 접근법은, 그의 정치적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일리가 있다. 한 대표 말대로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치"이기 때문이다.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여론은 악화했다. 명태균 씨 폭로전은 기름을 부은 격	최영옥	
1311	2024-10-21 22:40	지금 무슨 수사 해서 의혹을 확인해야 한단건지 뭔지 대박이다 ㅋㅋㅋㅋㅋ	여권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 대표는 오늘 자리에서 인적 쇄신과 관련해선 내각을 비롯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 등과 관련한 인적 쇄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없으면 인적 쇄신을 할 필요성이 없고,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 인	한지윤	

1312	2024-10-22 9:58	한국의 대표적 보수 논객들은 칼럼을 통해 일제히 '김건희 체제의 종언'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수마저 이제 더 이상 김건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나선 셈이어서 의미심장하다. 이제 막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명태균 게이트'가 드디어 컵의 물을 넘치게 한 마지막 한방울이었을까?	역대 대통령들이 저지른 과오들엔 그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 국민의 입장에서 결코 용납할 수는 없어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는 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예컨대, 탐욕에 이성이 마비되어 저지른 범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탐욕 때문에 몰락한 지도자들이 무수히 많았기에 개탄은 할망정 왜 그랬는지 몹시 궁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 정치는 정치학의 영역을 탈출해 정신분석학의 영역으로 성큼 들어서고 말았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임기 초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가 무슨 일을 하건 우상처럼 숭배하기만 하는 대통령 윤석열의 경우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 왜 그들은 한사코 일관되고 집요하게 자신들을 망치는 자해를 일삼으면서도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걸까? 왜 대통령 측근 인사들은 대통령 부부는 물론 나라까지 망치는 그런 엽기적 자해를 구경만 하고 있는 걸까? 단지 윤석열의 격노가 무섭기 때문인가? 지난 17일 한국의 대표적 보수 논객들은 칼럼을 통해 일제히 '김건희 체제의 종언'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수마저 이제 더 이상 김건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나선 셈이어서 의미심장하다. 이제 막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명태균 게이트'가 드디어 컵의 물을 넘치게 한 마지막 한방울이었을까? "국민들이 언제까지 여사의 이런 처신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대통령실이 2류, 3류들에게 농락당한 장면을 목격하면서 구정물을 함께 뒤집어쓴 느낌이다."(조선일보 논설주간 김창균) "공직 활동도 부인이 챙겨줘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나라가 무너질 일이다. 그러니 선임행정관이 대통령을 꼴통으로 여기고…"(동아일보 대기자 김순덕) "국민의 인내심이 임계치에 달해서다. 윤 대통령은 나라와 부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중앙일보 논설위원 강찬호)	진은정	삭제
1313	2024-10-22 9:59	당과 보수진영에는 눈꼽만큼도 애정이 없고 그저 자기 마누라 지키기에만 혈안인 윤석열은 자멸하든 말든 국힘은 상식적인 국민과 함께 가야 지선이든 차기대선이든 이길수	윤석열은 도대체 어느 평행세계에 살고 있길래 현실 인식이 하나도 안되고 있는지 모르겠네ㅋ 김건희가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마포대교 나가서 공무원 지휘하시던 분은 누군데?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김명신 여사인가? 정신차리란 말도 사치스럽다 당에서는 할만큼했으니 그 책임은 온전히 용산부부가 사이좋게 져라	한지윤	
1314	2024-10-22 10:44		정치인은 민심과 여론을 먹고 사는건데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노답이네..한대표가 했다는 말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국민대다수 의견인데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 다 절교 동아선지 보수들이 김건희 버려야 산다	허수옥	

1315	2024-10-22 11:22	검사와 피의자 구도를 연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피의자를 윤석열로 느꼈다	민심을 논하자는 자기 당 한 대표를 이런 식으로 박대한 자가 대통령이란 것이 슬프다. 지지율이고 민심이고 나발이고 필요없이 독고다이로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자를 대통령이라고 따라야 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윤석열 부부의 앞날이 훤히 그려지는 대목이다.	한동훈	삭제
1316	2024-10-22 12:57	[추경호 간신배 사퇴해라] 윤통은 늦장가 가서 아내에게 각별한 것같지만 그건 국민에게 안무안국이다	정권의 운명이 걸린 심각한 일이란 걸 아직 인지 못하고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제발 사태의 심각성을 바로 보길 바란다. 단순히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치부할 게 아니다.	한동훈	삭제
1317	2024-10-22 13:00	이날 면담의 성패는 김 여사 문제 해법 도출에 달려 있었다. 지금의 정국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방어에만 '올인'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 절차 협조 등 3대 요구에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까지 요구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민심 수습을 위한 과감한 변화·쇄신 등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가 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내수 침체와 의료공백 장기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다음 달 미 대선에 따른 안보 불안 등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다. 김 여사 문제 하나 해결 못 하는 여권이 산적한 현안을 풀어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다음 달 10일이면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여권의 공멸을 피하고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 앞에 국정이 우선인지, 김 여사가 우선인지를 명확히 할	진은정	삭제
1318	2024-10-22 13:14	국민 앞에 국정이 우선인지, 김 여사가 우선인지를 명확히 할 때가 됐다.	내수 침체와 의료공백 장기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다음 달 미 대선에 따른 안보 불안 등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다. 김 여사 문제 하나 해결 못 하는 여권이 산적한 현안을 풀어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다음 달 10일이면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여권의 공멸을 피하고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 앞에 국정이 우선인지, 김 여사가 우선인지를 명확히 할 때가 됐다.	진은정	삭제
1319	2024-10-22 13:15	한동훈, 尹에 여사 라인 8명 언급하며 "텔레그램 연락말아야"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직접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꼽히는 8명의 실명을 언급하며 인적쇄신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 윤석열은 살아남을 마지막 기회 놓친듯싶	당과 보수진영에는 눈꼽만큼도 애정이 없고 그저 자기 마누라 지키기에만 혈안인 윤석열은 자멸하게 놔두고, 국힘은 상식적인 국민과 함께 가야 지선이든 차기대선이든 이길수 있다	한지윤	

1320	2024-10-22 13:17	대통령. 십상시로 거론된 이들에 대해 "이들이 김 여사와 직접 연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이 사람들이 (김 여사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 한다. 그것을 외부에 알리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여사 라인'의 이같은 행태를 전해듣고서도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말에 "이들이 (김 여사와) 직접 연락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조치가 가능하	최영옥	
1321	2024-10-22 13:18		어제회담 동영상과 사진을보며 결과를떠나 참으로 참담한 심경이다. 마치 똘마니들 데리고 거들먹거리며 걷는 대통령의모 습과 당대표를 바라보는 윤통의눈빛과 표정.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의 품격인가싶어 서글픔만을이든다라	허수옥	
1322	2024-10-22 15:49	용산 ㅋㅋㅋㅋ 김건희 방패 같이 당에 해달라는거 개 어이없네 추경호 권성동 권영세 윤상현이 하세요 왜 한대표한대 <웃짐> 이유 ㅋㅋㅋ	당이 같이싸워달라고? 대통령님께서 어찌 그렇게말씀을 하십니까 여당에서는 야당과 협력하여 국정운영을 잘 펼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협치를 부탁해야지 대통령님께서 생각하는것 부터가 소인배정치를하고 있으니 나라발전이없고 국민들만 개고생 하는겁니다	한동훈	삭제
1323	2024-10-22 17:14		한번 등돌린 민심 돌아오는데 한참 걸린다.. 찐보수마다 등돌리고 있다. 국힘당 존폐 위기가 오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씨는 국민 지지율 관심없다. 아직도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막 하고 싶다. 나라가 망하든말든... 권력 쥐고 맘대로 막 하고 싶다. 보수는 한동훈 중심으로 재편하자	허수옥	
1324	2024-10-22 17:20	. 민심은 폭발 직전이다. 용산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김 여사와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간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되돌아보면 초기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큰 문제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가래로도 못막을 상황을 만든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의료 대란도 한번에 과도한 의대 정원 증원 비판이 나왔을때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풀 수 있는 이슈였다. 김 여사 문제도 잘못한 게 있었다면 진즉 사과하고, 제2 부속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민심은 폭발 직전이다. 용산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김 여사와 의료	최영옥	
1325	2024-10-22 17:21	윤 대통령의 패거리 정치, 속 좁은 정치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보고, 국민의 힘만 믿고 묵묵히 정진하시라. 상식이 통하는	윤 대통령의 패거리 정치, 속 좁은 정치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보고, 국민의 힘만 믿고 묵묵히 정진하시라. 상식이 통하는 국민들이 당신과 함께하리라.	한지윤	

1326	2024-10-22 17:56	한국 정치는 정치학의 영역을 탈출해 정신분석학의 영역으로 성큼 들어서고 말았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임기 초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가 무슨 일을 하건 우상처럼 숭배하기만 하는 대통령 윤석열의 경우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	한국의 대표적 보수 논객들은 칼럼을 통해 일제히 '김건희 체제의 종언'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수마저 이제 더 이상 김건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나선 셈이어서 의미심장하다. 이제 막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명태균 게이트'가 드디어 컵의 물을 넘치게 한 마지막 한방울이었을까? 역대 대통령들이 저지른 과오들엔 그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 국민의 입장에서 결코 용납할 수는 없어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는 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예컨대, 탐욕에 이성이 마비되어 저지른 범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탐욕 때문에 몰락한 지도자들이 무수히 많았기에 개탄은 할망정 왜 그랬는지 몹시 궁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 정치는 정치학의 영역을 탈출해 정신분석학의 영역으로 성큼 들어서고 말았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임기 초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가 무슨 일을 하건 우상처럼 숭배하기만 하는 대통령 윤석열의 경우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 왜 그들은 한사코 일관되고 집요하게 자신들을 망치는 자해를 일삼으면서도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걸까? 왜 대통령 측근 인사들은 대통령 부부는 물론	최영옥	

1327	2024-10-23 8:46	정권은 윤 대통령 것만이 아니다. 대통령직이 패밀리 비즈니스(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의 표현을 빌리자면)일 수도 없다. 윤 정권을 성립시킨 사람들은 표를 준 자유 우파 유권자들이다. 눈앞에서 촛불집회의 위세에 눌려 우파 정권이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자유 우파 국민들의 한이 서린 표가 윤 정권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검사 적 정의감과 승부 의식으로 정치판을 뒤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한 대표를 홀대해서 보낸 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불러 만찬을 했다는 기사에는 숨이 막힌다. 한 대표 불신임의 공공연한 표출이다. 당을 향해 한 대표 축출을 주문한 것일 수도 있다. 불과 수년 전에 우파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목격했던 윤 대통령이 자기 부인을 위해 여당을 내홍(內訌)에 빠뜨릴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은 충격적이다. 한 대표를 외톨이로 만들 수는 있다. 그러나 결과는 공멸이다. 박근혜 정부가 넘겨준 거울을 왜 보지 못할까? 정권은 윤 대통령 것만이 아니다. 대통령직이 패밀리 비즈니스(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의 표현을 빌리자면)일 수도 없다. 윤 정권을 성립시킨 사람들은 표를 준 자유 우파 유권자들이다. 눈앞에서 촛불집회의 위세에 눌려 우파 정권이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자유 우파 국민들의 한이 서린 표가 윤 정권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검사 적 정의감과 승부 의식으로 정치판을 뒤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천하제일검(검사)이라는 칭호를 얻었던 국민의힘 한 대표가 오히려 정치의 요체(민심에 순응하는 것)를 꿰뚫어 보고 나름대로 힘겹게 활로를 찾고 있는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하다. 대통령의 바람직한 리더십은 군림하고 명령하며 위의(威儀: 위엄 있고 엄숙한 태도나 차림새)를 뽐내는 데 있지 않다. 뜻 있는 인재들을 정치에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각자의 재주	진은정	삭제
1328	2024-10-23 8:47	윤석열 대통령은 당원의 마음을 모아 대표가 전달한 3대 제안을 반드시 받아들이기 바란다. 그동안 윤석열대통령은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못하여 지지율 폭락하였다. 현재와 같이 버티면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당원의 마음을 모아 대표가 전달한 3대 제안을 반드시 받아들이기 바란다. 그동안 윤석열대통령은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못하여 지지율 폭락하였다. 현재와 같이 버티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의 완전한 버림을 받을것이다.	한지윤	

1329	2024-10-23 8:50	[사설] 버티기 선택한 윤 대통령, 이번에도 실기하려나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임명 건의에 대해서도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국회에 공을 떠넘겼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협조해 줘야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론 임명할 뜻이 없다는 소리로 들린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회동이 끝난 뒤 곧바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불러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앞으론 한 대표는 건너뛰고 국회 일은 추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는 공개 시그널이다. 이런 식으로 여당 대표와 불화를 키우는 게 정권에 보탬이 될지 매우 의문이다. 이렇게 된 이상 여당 중진들이라도 중지를 모아 대통령을 만나 해법을 권고해야 하지 않을까. 윤 대통령은 주요 고비 때마다 터닝 포인트를 놓쳐 화를 키웠다. 명품백 사건이나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논란 등이 그런 경우다. 이번에 명태균씨의 카톡 폭로로 메가톤급 이슈가	최영옥	
1330	2024-10-23 9:45	[사설]“영적 대화” “장님 무사” “앉은뱅이 주술사”… 참 해괴한 얘기들 해괴한 얘기로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손바닥에 그리고 나온 ‘王(왕)’자의 기억이 생생한 데다 그동안 국정과 관련해 석연찮은 일이 발생해도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 지나간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해괴한 얘기로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손바닥에 그리고 나온 ‘王(왕)’자의 기억이 생생한 데다 그동안 국정과 관련해 석연찮은 일이 발생해도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 지나간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대통령 부부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이 불발되자 “현지 교통 사정 탓”이라는 대통령실 해명에도 “일부러 지각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여권에서도 “서울에서 일찍 출발했어야 했다”는 말이 나왔다. 이날 국감에서 제기된 “지난 대선 당시 명 씨가 윤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거나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는 강 씨 주장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명 씨가 대선 기간 윤 후보를 위해 81회 여론조사를 했고, 조사 비용 3억7000만 원을 김 여사에게 받아 온다면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갔는데 돈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	진은정	삭제

1331	2024-10-23 14:58	정부 여당이 위기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 '위기를 극복하면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민심을 따르고 대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될 거라는 점, 많은 국민들께서 점점 더 실감하시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더 그렇겠다. 반대	정부 여당이 위기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 '위기를 극복하면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민심을 따르고 대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될 거라는 점, 많은 국민들께서 점점 더 실감하시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더 그렇겠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그 상황에서 더 폭주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더욱더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그건 우리 당의 전략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선의를 가진 정치세력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 우리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국민들께 여러 번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은정	삭제
1332	2024-10-23 16:33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김건희때문에 묻히고 있다 이재명은 기소돼서 재판이라도 받지 김건희는 출장조사 받고 불기소처리됐는데 어느 국민	이재명 유죄나와도 그래서 김건희는? 질문 돌아오는데 용산은 양심이 있으면 활동접고 의혹해소부터 해라	한지윤	
1333	2024-10-23 16:35	사실 확인이 안 된 말들이지만 대통령 부부가 어떻게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었는지 민망할 정도다.	국회에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강혜경씨가 나와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는 무사, 김 여사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라 장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명씨가 꿈자리 사납다고 말해 김 여사가 해외 순방 일정을 바꾼 적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실 확인이 안 된 말들이지만 대통령 부부가 어떻게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었는지 민망	최영옥	

1334	2024-10-23 16:40	모든이슈를 삼키는 김건희 관련사항을 해결하지 않고는 어떠한 민주당 공격거리도 씨알이 안먹힌다. 어제 어처구니없는 의전도 김건희라인 작품이라니 오호통재라든이슈를 삼키는 김건희 관련사항을 해결하지 않고는 어떠한 민주당 공격거리도 씨알이 안먹힌다. 어제 어처구니없는 의전도 김건희라인 작품이라니 오호통재라	김 여사와 가까운 대통령실 인사들이 여사의 의중을 대변해 각종 의사 결정에 관여한다는 소문은 정권 출범 초부터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 4월 제기된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은 이들의 존재가 가시화된 계기가 됐다. 당시 공식 라인이 모두 전면 부인하는데도, 김 여사와 가까운 일부 비서관들은 '대통령이 의지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끊임없이 언론에 흘렸다. 이런 월권을 뒷배 없이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공개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통화 녹음은 더 구체적이다. 그는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쥐었다 폈다 하며 시켜먹는다" "용산에는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있다. 걔들이 다 똬리를 틀고 스크럼을 짰다" "여사하고 딱 네트워킹이 됐다"고 했고, 몇몇의 이름까지 댔다. 여권 일각에선 김 여사와 가까운 비서관·행정관 7명을 싸잡아 '7간신'이라고 부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동훈	삭제
1335	2024-10-23 22:44	추경호도...홍준표,김태흠, 권성동 같은 구태 무리들이다. 이런 4류 정치인들을 정치판에서 몰아 내야 우리 정치판이 정화가 된다	추경호도...홍준표,김태흠, 권성동 같은 구태 무리들이다. 이런 4류 정치인들을 정치판에서 몰아 내야 우리 정치판이 정화가 된다.	한동훈	삭제
1336	2024-10-23 23:14	몰락은 그날 분명해졌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아닌 '한동훈'이 이긴 효과는 특별했다. 재·보선 이튿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3대 요구'를 공개적으로 던졌다. 보수의 애정 대상이 바뀌었음은 분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날 관변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찾아 "어려움이 있지만 4대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 했다. 동문서답이었다. 김 여사 처분을 묻는데, 답은 엉뚱한 '개혁'이었다. 재·보선 민심을 똑바로 보며 제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을 힘도 이젠 없었다. '여사 문제'라는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비행(非行)'을 제대로 처리 못한 당연한 대가였다. 대통령은 상처를 똑바로 응시할 용기가 없었다. 자신의 상처였기 때문이다.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법적 책임'을 허울의 방패 삼아 우격다짐으로 버티는 정권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었다. "정치 참 모질게 한다"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의 공감 대상은 국민들 눈에 김 여사뿐이었다. 걸핏하면 격노하는 언행은 '자	최영옥	
1337	2024-10-23 23:15	한동훈의 두수 앞을 내다보는 전략과 전술 역시 한동훈이다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다 윤석렬이는 귀를 쳐막고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김씨만 쳐다보고 있으니 큰일이다	한지윤	
1338	2024-10-23 23:18		이렇게 길게 이야기 할 것도 안된다. 한대표는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민심을 들고 간거다. 이에 대해 다 밟아버리면서 내가 뭘? 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한것도 변할 생각도 없었다. 자기 말만 할 거 같으면 이제 만날 필요도 없다. 그 결과는 용산이 감당하고 국힘은 빠	허수옥	
1339	2024-10-23 23:21	추원내대표..그렇게 살지 마세요... 자식들에게 부끄럽지않나요? 집권여당 원내대표님께서 취할 행동은 아닌듯합니다..국힘도 점점 쓰러져	몸종인가요? 십분대기조?	한동훈	삭제
1340	2024-10-23 23:23		한대표는 전국의 당원 국민 목소리를 전한건데 그것도 포용못하는 옹졸함에 실망이크다 거기다 무시,홀대까지 하니 도대체 정무감각이 한심하구나 정치는 대의명분을 가지고하는건데 김건희지킨자고 천하를 버리는구나	허수옥	

1341	2024-10-24 9:45	전국단위 선거로 압도적 당심 민심 받아 당선되어 민의를 대표하는 당대표를 규정을 어기면서 원내 원외 따지며 갈라치기 개무시 하는 추경	전국단위 선거로 압도적 당심 민심 받아 당선되어 민의를 대표하는 당대표를 규정을 어기면서 원내 원외 따지며 갈라치기 개무시 하는 추경호가 원내 자격 있나? 사퇴가 답인듯.	한동훈	삭제
1342	2024-10-24 10:06	일에는 순서가있다 국힘당대표가 하자는대로 미래에 일어날 대통령 가족비리방지를 위해 우선적 특별	한동훈대표님. 화이팅 힘내세요 추경호는. 원내대표 자격없다. 딸랑이 그만하길	한동훈	삭제
1343	2024-10-24 10:53	[사설] 특별감찰관 신속히 임명하고 용산 '김건희 라인' 정리해야	용산은 한 대표가 전한 민심대로 특별감찰관을 신속히 임명하고, 한 대표가 이름까지 거명하며 쇄신을 촉구한 '김건희 라인' 비서관·행정관들을 정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용산은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뤄 왔다. 그러나 김 여사 문제가 블랙홀처럼 모든 국정 이슈를 빨아들이는 현실에서 김 여사의 활동을 감시·규제할 특별감찰관 임명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인선 지연을 이유로 미룰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용산은 23일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합의해오면 임명하겠다"고 했다.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니 민심을 역행하는 처사다. 윤 대통령은 즉각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김 여사 문제 해결 의지를 입증해야 한다. 김 여사 주변에서 측근을 자처하며 지휘 라인과 직무 범위를 뛰어넘어 국정과 인사에 월권 개입해 온 의혹을 받는 '김건희 라인'들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한 대표에 따르면 이미 사표를 냈다는 전직 '김건희 라인' 비서	최영옥	
1344	2024-10-24 10:56		추경호는 권력자에게 아첨을 잘하는자네 권력자에게 아부하느라 나라 말아먹을 기세다 이쯤되면 사퇴해라 당이 있으면 당대표가 있고, 국회 원내내표가 있는 거지 원내대표가 당대표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는 첨 들어본다...아무리 지가 대통령과 친하다고 전국선거로 압도적 당원의 민의를 대표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월권을해? 이렇게 개판치려면 원내	허수옥	
1345	2024-10-24 11:36	권성동님 이게 국민을 국민으로 당원을 당원으로 생각하는 태도냐. 검사 수사하듯 독단의 정치를 하고 있는 대통령한테 가서 가마솥 들고 가	당심 민심을 들어주시길	한동훈	삭제
1346	2024-10-24 12:44	[여의뷰] '구체화' 요구는 '거절'의 다른 표현…尹, 위기의식 실종	윤 대통령의 답변은 한마디로 '한 대표가 김 여사와 관련해 제기했던 각종 요구안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화해서 말하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객관적 혐의', '단서'라는 표현을 썼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그런데 한 대표는 속칭 '한남동 7인회'로 불리는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 등 '김건희 라인'을 일일이 거명한 걸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구체화된 건의를 고	최영옥	

1347	2024-10-24 12:46	도대체 북한인권재단이랑 특별감찰관이 무슨 연관이 있어서 그 얘길 꺼내지? ㅋㅋㅋㅋ 걍 하기 싫어서 잖아 국민 바보로 아니?	당연히 한동훈 대표 말대로 별개로 추진을 하면 되지. 대통령 배우자나 친족을 감찰하는 기관이랑, 북한 인권 실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곳이랑 조금이라도 겹치는 요소가 있냐? 윤석열이랑 친윤 갈수록 왜 저러냐? 대외활동 안 하기로 먼저 약속했으면 살이 빠졌다느니 자제할거라느니 헛소리로 빙빙 돌려 피하지 말고 약속 지키고, 특별감찰관 출범시킬거면 무슨 상관도 없는 북한이니 뭐니 토달지 말고 깔끔하게 만들어서 철저히 단속 좀 해라. 하려면 누구처럼 몇조 단위로 크게 사기처먹든가. ㅇ팔리게 디올백이니 천공이니 그런 걸	한지윤	
1348	2024-10-24 12:48		원내는 지들 소관이라면서도 지들이 국회에서 하면 될 일을 당대표한테 김명신 윤석열 쉴드쳐줘 왜 안해줘 징징	허수옥	
1349	2024-10-24 13:49		이게 뭐임 국힘을 뭘로 만들려고 한거지	허수옥	
1350	2024-10-24 13:49	특별감찰관 추천·임명은 국회와 대통령의 의무다[사설]	한 대표는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에 이어 특별감찰관 추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회동에서 "특별감찰관은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연계된 문제"라고 했고, 윤·한 회동 직후 윤 대통령을 만났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이라며 한 대표의 권한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한 대표는 자신에게 당헌상 원 내외 총괄 권한이 있다고 밝혀, 권한 쟁의 조짐도 보인다. 민주당은 "특감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김건희 특검이 먼저"라며 시간을 끌 태세다. 어지러울수록 기본이 중요하다. 북한인권재단이나 특검과 연계하자는 주장은 중요한 민주주의 제도를 망가뜨리는 죄책과 다름없다.	진은정	삭제
1351	2024-10-24 13:50	탁현민에게 의전 비서관 제의..? 어이가없네요 양정철 박영선 탁현민 ㅋㅋ 이게 무재인 정부입니까?	김건희씨는 정말 손을 안댄곳이 없구나. 정말 바쁘게 살았네.. 해외나갈때 빼고는 쥐죽은 듯이 지내는줄 알았는데 대통령보다도 국정에 더 매진했네..	한지윤	
1352	2024-10-24 13:52	[중앙사설] 특별감찰관 신속히 임명하고 용산 '김건희 라인' 정리해야	용산은 한 대표가 전한 민심대로 특별감찰관을 신속히 임명하고, 한 대표가 이름까지 거명하며 쇄신을 촉구한 '김건희 라인' 비서관·행정관들을 정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용산은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뤄 왔다. 그러나 김 여사 문제가 블랙홀처럼 모든 국정 이슈를 빨아들이는 현실에서 김 여사의 활동을 감시·규제할 특별감찰관 임명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인선 지연을 이유로 미룰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용산은 23일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합의해오면 임명하겠다"고 했다.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니 민심을 역행하는 처사다. 윤 대통령은 즉각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김 여사 문제 해결 의지를 입증해야 한다. 김 여사 주변에서 측근을 자처하며 지휘라인과 직무 범위를 뛰어넘어 국정과 인사에 월권 개입해 온 의혹을 받는 '김건희 라인'들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한 대표에 따르면 이미 사표를 냈다는 전직 '김건희 라인' 비서관 2명의 공공기관장 우려 후보에 오른 인사	최영옥	

1353	2024-10-24 13:53	[한국]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새 방향을 제시했는데 고무적이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새 방향을 제시했는데 고무적이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이 먼저라는 윤 대통령 의견에 개의치 않고 야당과 진행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가족 비위를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은 여론이 공감하는 최소한의 조치에 속한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운영과 관련된 원내 사안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혀, 당내 충돌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친윤과 친한이 부딪히면 외려 대통령의 국정기반만 위태로워질 수 있다. 국민 지지와 무관하게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는 대통령과,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르겠다”는 여당 대표의 말을 대비하면 국민은 한	진은정	삭제
1354	2024-10-24 13:54	도대체 북한인권재단이랑 특별감찰관이 무슨 연관이 있어서 그 둘을 엮는 거냐? ㅎㅎㅎ	도대체 북한인권재단이랑 특별감찰관이 무슨 연관이 있어서 그 둘을 엮는 거냐? 당연히 한동훈 대표 말대로 별개로 추진을 하면 되지. 대통령 배우자나 친족을 감찰하는 기관이랑, 북한 인권 실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곳이랑 조금이라도 겹치는 요소가 있냐? 윤석열이랑 친윤 갈수록 왜 저러냐? 지능이 의심된다. 대외활동 안 하기로 먼저 약속했으면 살이 빠졌다느니 자제할거라느니 헛소리로 빙빙 돌려 피하지 말고 약속 지키고, 특별감찰관 출범시킬거면 무슨 상관도 없는 북한이니 뭐니 토달지 말고 깔끔하게 만들어서 철저히 단속 좀 해라. 하려면 누구처럼 대장동으로 1조 단위로 크게 사기처먹든가. 쪽팔리게 디올	한지윤	
1355	2024-10-24 17:50	[사설] 특별감찰관 임명 늦추면 민심에 역행 하는 일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실 참모들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기관이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하고 사퇴하면서 지금까지 공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명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도 지금까지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소극적이다. 문 정부와 윤 정부는 이로 인한 후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도 용산은 특별감찰관 추천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둘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다고 이러는지 이해불가다. 결과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빠져나가려는 구실만 찾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봇물 터지듯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 부질없는 얘기지만 윤 정부에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김 여사 리스크'는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디올백 수수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고, 용산 대통령실 내 '김 여사 라인'도 없었을 것이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독대를 요구하면서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한 3개 요구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민주당이 세 차례나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진은정	삭제

1356	2024-10-25 14:47	최근 대통령실 '늘공(직업공무원)'들은 이들 김여사 측근들을 만나면 외면한다는 후문이다. 대통령실 한 행정관은 "김 여사와 관련된 보고는 위(비서관)에서 아예 안 보려고 한다.	최근 대통령실 '늘공(직업공무원)'들은 이들 김여사 측근들을 만나면 외면한다는 후문이다. 대통령실 한 행정관은 "김 여사와 관련된 보고는 위(비서관)에서 아예 안 보려고 한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거나 부정적 여론, 혐의에 대한 보고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나중에 현 정권이 탄핵으로 무너지면 같이 엮여 들어갈 수 있다는 걱정 때문 아니겠나. 박근혜 정부 때 얼마나 많은 청와대 인사들이 적폐 수사를 받았나? 여사 라인도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여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집단은 학습 효과가 빠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자신이 한 일이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너도나도 수첩에 필기하는 게 유행이었다면, 지금은 김 여사와 관련해	최영옥	
1357	2024-10-25 14:48	특별감찰관이 있고 제대로 활동했다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같은 것이 애초에 없었을 수도 있다. 그랬다면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는 훨씬 나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북한인권재단 이사와의 연계를 풀고 특별감찰관 추천을 서둘러야 한다. 민주당도 정치 장난을 그만둬야 한다. 물론 이와 별개로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추천해야 한	특별감찰관이 있고 제대로 활동했다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같은 것이 애초에 없었을 수도 있다. 그랬다면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는 훨씬 나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북한인권재단 이사와의 연계를 풀고 특별감찰관 추천을 서둘러야 한다. 민주당도 정치 장난을 그만둬야 한다. 물론 이와 별개로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추천해야 한다.	한지윤	

1358	2024-10-25 16:28	"김여사 라인, 대통령실도 못건든다"…용산 '문고리 권력' 실체 [월간중앙]	최근 대통령실 '늘공(직업공무원)'들은 이들 김여사 측근들을 만나면 외면한다는 후문이다. 대통령실 한 행정관은 "김 여사와 관련된 보고는 위(비서관)에서 아예 안 보려고 한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거나 부정적 여론, 혐의에 대한 보고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나중에 현 정권이 탄핵으로 무너지면 같이 엮여 들어갈 수 있다는 걱정 때문 아니겠나. 박근혜 정부 때 얼마나 많은 청와대 인사들이 적폐 수사를 받았나? 여사 라인도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여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집단은 학습 효과가 빠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자신이 한 일이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너도나도 수첩에 필기하는 게 유행이었다면, 지금은 김 여사와 관련해 (같이 엮여 들어갈까봐) 외면하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현실이다.	진은정	삭제
1359	2024-10-25 16:31	추경호 대표, 정신 차리시고 순리에 맞게 일을 처리 하시라. 당원과 국민들이 원하는 윤 대통령 대선 공약사항을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겠다고요? 그렇다면 당원들 생각이 어떤지도 직접 물어	.	한동훈	삭제
1360	2024-10-25 16:47	오늘 갤럽 윤석열 19.9 1자 찍음. 대통령 배우자나 친족을 감찰하는 기관이랑, 북한 인권 실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곳이랑 조금이라도 겹	오늘 갤럽 윤석열 19.9 1자 찍음. 대통령 배우자나 친족을 감찰하는 기관이랑, 북한 인권 실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곳이랑 조금이라도 겹치는 요소가 있냐? 윤석열이랑 친윤 갈수록 왜 저러냐? 지능이 의심된다. 대외활동 안 하기로 먼저 약속했으면 살이 빠졌다느니 자제할거라느니 헛소리로 빙빙 돌려 피하지 말고 약속 지키고, 특별감찰관 출범시킬거면	한지윤	
1361	2024-10-25 17:22		내조만하고 조직 없애고 특별감찰반 다 대선 공약이었다 지금 김여사 문제로 정권까지 흔들하는데 진짜 충신이면 대선 공약 지키라고 하는게 정상이지 용산 눈치봐서 특별감찰반 반대하는거등은 간신이라고 생각함	허수옥	
1362	2024-10-25 17:22	[사설] 특별감찰관 임명, '조건' 저울질 않고 서둘러야	김 여사 문제가 모든 국정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찾지 않고서는 국정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 앞에 놓인 대내외 악재들은 위험신호를 보낸 지 오래다. 의료개혁 등 4대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경제도 역성장을 겨우 면했으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미 대선의 '트럼프 리스크' 등 무엇 하나 녹록한 게 없다. 이럴진대 당정 갈등도 모자라 집권당의 투톱이 권한을 놓고 실랑이하는 모습이 국민 눈에 어찌 비치겠나. 정상적 국정수행의 발판이 될 수 있	최영옥	

1363	2024-10-25 17:23	문재인의 국정농단을 단죄하라고 윤석열대통령을 지지하고 찍었지만 요즘처럼 윤석열대통령이 비겁해 보이는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대통령 그자리 가면 다 그렇게 되는건가? 윤석열정권은 더 험한꼴 보기 전에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 도대체 북한인권재단이랑 특별감찰관이 무슨 연관이 있어서 그 둘로 협상 거래를 하는거냐? 당연히 한동훈 대표 말대로 별개로 추진을 하면 되지. 대통령 배우자나 친족을 감찰하는 기관이랑, 북한 인권 실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곳이랑 조금이라도 겹치는 요소가 있냐? 윤석열이랑 친윤 갈수록 왜 저러냐? 지능이 의심된다. 대외활동 안 하기로 먼저 약속했으면 살이 빠졌다느니 자제할거라느니 헛소리로 빙빙 돌려 피하지 말고 약속 지키고, 특별감찰관 출범시킬거면 무슨 상관도 없는 북한이니 뭐니 토달지 말고 깔끔하게 만들어서 철저히 단속 좀 해라. 하려면 누구처럼 대장동으로 1조 단위로 크게 사기처먹든가. 쪽	한지윤	
1364	2024-10-25 17:26	너무도 슬프다. 우리는 김건희가 아닌 윤석열을 뽑았는데 요즘 드는 모멸감, 수치심을 어쩔거냐~ 인적쇄신더 늦기 전에 해결해라. 용산 대	중앙 심층 취재 보니 윤석열은 핫바지고 김건희가 진짜 대통령 맞았네 윤석열 김건희를 삼촌 ,작은엄마라 부르는 황ㅈㅎ가 양정철 운선사였다던데 실세 중 실세인 듯 김건희 때문에 이미 보수 망했다 전에는 특검 반대했지만 김건희 막으려면 특검해서 잡는 수 밖에 없을거 같다	한동훈	삭제
1365	2024-10-26 12:06	전통있는 보수정당인 국힘과 우리 지지자들은 알고 보니 근본이 좌파인 진보의 오야붕부부의 보수궤멸 프로젝트에 절대 호응하지 않을것	전통있는 보수정당인 국힘과 우리 지지자들은 알고 보니 근본이 좌파인 진보의 오야붕부부의 보수궤멸프로젝트에 절대 호응하지 않을것이다 탁현민한테 꼭 만나고 싶다 구애하고 박영선 양정철과 찐친이고 아직도 연락하는 사이고 십상시로 지목된 실세 황종호는 양정철 기사 출신에 노무현을 제일 존경하고 문재인의 제일 충신... 종북간첩목사와 교류하	한동훈	삭제
1366	2024-10-26 12:18	국민일보) 잇단 최저 지지율, 尹 국정기조 전환 시급	윤 대통령이 현 국정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점점 더 많은 국민이 등을 돌릴지 모른다. 특히 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을 힘껏 밀어줬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긍정평가 48%, 부정평가 40%로 긍·부정 차이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전주엔 이 비율이 56% 대 35%였다. 윤 대통령이 악화된 민심을 되돌리려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김 여사 문제부터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 당이 요구한 여사 라인 교체, 대외활동 중단, 여사 의혹 규명 절차 협조,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여당 지도부와도 대립이 아닌 협조적 관계를 구축하기 바란다. 야당과도 소통을 강화하고, 야당 지도부를 직접 만나 예산안 및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대국민 홍보에 신중을 기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야당을 대해야	최영옥	
1367	2024-10-26 12:20	윤통은 돌 맞을 생각말고 돌 막을 생각해야 함 당대표가 제안한 것 모두 수용해라	윤통은 국민들과 기싸움 하자는겁니까 제발 정신차리세요 여사문제 빨리 해결하시고 한동훈대표 손 잡으세요 그래야 보수도 살고 국힘도 살고 윤통도 사는길입니다 떠먹여줘도 못받아 먹으면 에휴	한동훈	삭제

1368	2024-10-26 12:24	한대표가 썩어빠진 구태정치에 찌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게 시대적 변화입니다	한대표가 썩어빠진 구태정치에 찌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게 시대적 변화입니다 국힘 난파선에서 보석 챙기는 간신 친윤과 극우 자통당 세력들 축출 좀 합시다.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아직도 저런 촌스러운 사상 가지고있나요? 저런 극우및 극좌는 폐족처리하고 시대정신에 맞게 보수우파도 확장하고 변해야합니다 그중심이 한동훈과 압도적 숫자의	한동훈	삭제
1369	2024-10-26 12:25	한국사설) 조사마다 최저치 尹 지지율, 민심이반 이대로 놔둘 건가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한국갤럽)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15%)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12%)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6%) '독단적 일방적'(6%) 등이 꼽혔다. 국정 전 분야보다 강하게 김 여사의 처신과 의혹에 냉담해하는 여론이다. NBS 조사를 보면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필요성에 70%가 동의했을 정도다. 국민의힘 지지자 57%, 대구경북 응답자 61%도 동의한 걸 보면 김 여사 문제에 관한 한 국민 의견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공개활동 자제' 언급 사흘 만에 폴란드 대통령 방한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적 의전이긴 하나 잠시라도 정무적 판단조차 없는 상황이 답답하다는 여당 내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특별감찰관 임명에 속도를 내자는 여당 대표 주장은 친윤계가 막아서고 있고, KBS 신임 사장 후보에 명품백을 '파우치' '조그마한 백'이라고 말한 앵커가 현직 사장을 제치고 발탁됐다. 여론 경고가 한계치에 다가섰음에도 '나 몰라라' 식으로 외면한다면 국민은 남은 기대마저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지금 같은 여론지형이 계속된다면 어떤	최영옥	

1370	2024-10-26 12:33	추경호 대통령 임기가 아직 남았고, 대통령으로부터 덕을 볼 게 많다고 생각해서 구차하게 그러고 있을 것이다. 침몰하는 배에서 귀중품 챙기고 있는 꼴이다. 구차한 꼴 보이지 말고 스스로 악역을 내려놓는 게 낫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한동훈 대표에게 그건 원내 사안이라고 말했다. 원내 사안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굳이 그 이야기를 한 것은, 그건 내 소관이니까 당신이 터치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원내 사안은 의원총회에서 다루어야 하고, 의원총회 의장은 나다' 라고 이야기한 걸 보면 의도가 분명하다. 대통령이 당대표를 인정 안 하니까 대통령의 복심으로 자래매김한 원내대표도 거기에 가세하기로 한 것인가? 콩가루 집안의 몰골이 점입가경이다. 당대표에게 원내 원외가 어디 있나?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원외 당협위원장 대표로 뽑았나? 당대표는 원내·원외를 망라한 당 전체의 대표고, 전 당원의 대표자다. 당대표는 당의 최고지도자고, 원내대표는 그 아래 서열 2위며,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에 대해서 당대표에게 보고하고 협의하고 때로는 지시받아야 할 위치다. 그걸 부인한다면 대통령을 뒷배로 당대표에게 항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통령과 당대표 사이에 이견이 있으면 원내대표는 중간에서 차이를 좁히고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한편에 서서 다른 쪽과 대립하는 것은, 이 엄중한 시기에 원내대표에 대한 당원과 지지자들의 기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금 대통령 주변에는 제대로 조언 한 마디 못하면서 자리 보전만 하거나, 잘못된 역할로 대통령을 수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대통령 임기가 아직 남았고, 대통령으로부터 덕을 볼 게 많다고 생각해서 구차하게 그러고 있을 것이다. 침몰하는 배에서 귀중품 챙기고 있는 꼴이다.	최영옥	
1371	2024-10-26 12:34		김명신은 특별 감찰관으로 묶어놔야 당에 명분도 생기고 설사 담에 특검 가더라도 그동안 사고를 줄일수 있음	허수옥	
1372	2024-10-26 12:37	특별감찰관이 있고 제대로 활동했다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같은 것이 애초에 없었을 수도 있다. 그랬다면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는 훨씬 나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북한인권재단 이사와의 연계를 풀고 특별감찰관 추천을 서둘	윤은 참 유치한짓은 골라서한다. 몸종이자 간신 추경호에 특별감찰관 설치를 훼방 지시하고 난데없는 홍준표를 불러낸다.한심스런 작태다.부산금정은 도대체와갔나.일부 상인들이 건성으로 치는박수에 氣를 받겠다? 다음날 한동훈에게 보내는 엄청난 군중과 열화같은 환영 외침을 보고 창피하지도 않은가? 사찰가서도 혼 자떠드는 버릇은 못고치더라. 그동안 文을 참 무능의극치라고 평가했었는데 윤의국정행태는 훨씬더 下質이다.어떻게 된 것이 국민한테 욕처먹을 짓만 골라서할까? 그건 그렇고 이천명증원 무지성 주장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은 무슨 허접스런 대책이라도있나?	한지윤	

1373	2024-10-26 12:37	[현장] 중대기로 놓인 한동훈 '보수의 심장'行…대구 지지층 반응은	"이제 대구는 무조건 한동훈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려갈 일만 남았고, 다른 사람(대권 잠룡)들로 이재명이한테 되겠어요?" "여 대구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이소. 이젠 대구 아지매(아주머니의 경상도 방언)들도 윤 대통령 다 잘못하고 한동훈이 잘한다 안 캅니까. 다른 건 몰라도 대구 아지매들이 등돌리면 (윤 대통령은) 진짜 갈 데 없는거라."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에 '한동훈 신드롬'이 불고 있었다. 적어도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찾은 대구의 두 방문지에서만큼은 신드롬이라 불릴만한 현상이 감지됐다. 아카데미에서의 인사를 마친 직후 한 대표는 곧바로 대구 북구에 위치한 iM뱅크 제2본점으로 향했다. '분권과 통합 포럼'에서 강연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엔 800명에 달하는 지지자들이 결집해있던 만큼 한 대표를 향한 환호성은 직전 행사보다 더 크게 나왔다. 이 같은 한 대표의 강연을 듣는 동안 주변에선 "참 말 잘 한다, 말 잘해" "믿음이 간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대구 수성 2가동에 거주한다고 밝힌 김모(62세·남)씨는 "이제 대구는 무조건 한동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려갈 일만 남았고, 다른 사람(대권 잠룡)들로 이재명이한테 되겠느냐"라며 "한 대표가 말하는 걸 보라. 한 마디도 안 지지 않느냐. 지금 보수가 필요한 건 저런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 대구 두류동에 거주하는 조모(59세·여)씨도 "한 대표가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힘 센 사	진은정	삭제
1374	2024-10-26 15:27		변화와 쇄신으로 보수 재건하고 정권재창출의 미래로 갑시다	허수옥	
1375	2024-10-26 15:34		윤건희와 그 아류들은 정권재창출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지들 5년 임기내내 해먹을 생각만함. 지금 민심이 바닥인데 그걸 타개하는 방법 누구나 다 아는데 그걸 안한다는건 지지율이고 나발이고 지들끼리 해쳐먹고 끝내겠다는 아주 이기적인 발상만 하고 있는것이다. 어르신들이 윤건희 저것들을 2년동안 지지한게 후회된다고 하신다. 한동훈이 우파의 마지막 희망이고 윤건희떼 공격에 한동훈 무너지면 대한민국 보수는 미래가 없다 보수만이	허수옥	

1376	2024-10-26 15:36	"이제 대구는 무조건 한동훈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려갈 일만 남았고, 다른 사람(대권 잠룡)들로 이재명이한테 되겠어요?" "여 대구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이소, 이젠 대구 아지매(아주머니의 경상도 방언)들도 윤 대통령 다 잘못하고 한동훈이 잘한다 안 캅니까. 다른 건 몰라도 대구 아지매들이 등돌리면 (윤 대통령은) 진짜 갈 데 없는거라."	[데일리안 대구 = 김민석 기자] "이제 대구는 무조건 한동훈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려갈 일만 남았고, 다른 사람(대권 잠룡)들로 이재명이한테 되겠어요?" "여 대구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이소, 이젠 대구 아지매(아주머니의 경상도 방언)들도 윤 대통령 다 잘못하고 한동훈이 잘한다 안 캅니까. 다른 건 몰라도 대구 아지매들이 등돌리면 (윤 대통령은) 진짜 갈 데 없는거라."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에 '한동훈 신드롬'이 불고 있었다. 적어도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찾은 대구의 두 방문지에서만큼은 신드롬이라 불릴만한 현상이 감지됐다. 한 대표가 기차 연착으로 10분 가량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당원들은 한 대표를 향해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한 대표 역시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 왔다는 것을 실감했는지 처음부터 진중한 자세로 인사를 올렸다. 이후 한 대표가 꺼낸 얘기는 정권재창출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이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는 등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 대표는 "한 가지 분명히 하겠다. 여러분이 대주주인 이 보수정권을 끝까지 지킬 것이고, 전체주의적 세력이 정권 잡는 걸 막고 정권을 재창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구시민들도 한 대표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대구 화원읍에 거주하는 황모(71세·남)씨는 "여기 대구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라. 이젠 대구 아주머니들도 윤석열 대통령 다 싫다고 하고 한 대표가 잘하고 있다고 한다"며 "다른 건 몰라도 대구 여성들이 등을 돌리면 (윤 대통령은) 진짜 갈 데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카데미에서의 인사를 마친 직후 한 대표는 곧바로 대구 북구에 위치한 iM뱅크 제2본점	진은정	삭제

1377	2024-10-27 10:48	데일리안) 윤석열 '구내식당 차담', 한동훈 홀대 넘어 국민을 모욕	윤석열, 김건희보다 더한 국민 밉상 되기로 작심한 듯 시정잡배 수준 폭력적 유치의 극치..."나라가 창피" "돌 맞고 가겠다", 이런 말 하면 멋있을 줄 알았나? 대통령실 행정관들 韓에 집단행동 시도, "참 잘들 한다"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지지와 찬사가 뜨거웠을 때 이런 말이 나왔다면 그는 보수우파들로부터 박수와 격려를 받았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 수도권 중도층은 진작에 돌아섰고, 아성이었던 70대 이상(30%대), 대구-경북(30%대), 부산-울산-경남(20%대)도 반 윤석열 여론이 놀랍도록 높아지고 있다. 그는 이제 전국적으로 조롱의 대상을 지나 혐오 인물로 변하고 있다. 부인보다 더한 국민 밉상이 되기로 작심한 것도 같다. 그가 한동훈과 관련해서 하는 일마다 한때 열성 지지자였던 사람들을 어리둥절케 하다 어이없게 하더니 급기야 심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그에겐 지금 자기를 달래 주고 힘을 실어 줄 친구도 없고 선후배나 조언자도 다 떠나 버렸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광야에 선 정의의 사도 같은(막말로 말하면 잠꼬대 같은) 말을 할 리가 없다. `업보'라는 말을 썼다. 부산 범어사 방장 스님으로부터 "휘말리지 않고 꿋꿋하게 하시는 모습이 든든하다"라는 위안을 받고 싶어서였는지는 모르겠다. 적어도 바로 엊그제 여당 대표 한동훈에게 지은 업보를 뜻하진 않았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속이 아주 좁을 뿐만 아니라(박지원이 `밴댕이'라고 했다) 매우 폭력적이고	진은정	삭제

1378	2024-10-27 11:44	동아)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 않겠다”는데, 지금 향하는 길은 후보 윤석열을 지지했고 지금도 윤 정권이 정상궤도로 복귀해 성공하길 염원하는 수많은 국민의 뜻과 정반대 방향이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는 건 나라를 위해 옳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세상의 오해로 비난을 받아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질 때 하는 말인데, 자기 아내의 비리 의혹을 감싸는 일에 국민과 대의명분이 끼어들 자리가 어디 있는가. 지금 대통령 부부에게 쏟아지는 건 우중(愚衆)의 돌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 않겠다”는데, 지금 향하는 길은 후보 윤석열을 지지했고 지금도 윤 정권이 정상궤도로 복귀해 성공하길 염원하는 수많은 국민의 뜻과 정반대 방향이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는 건 나라를 위해 옳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세상의 오해로 비난을 받아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질 때 하는 말인데, 자기 아내의 비리 의혹을 감싸는 일에 국민과 대의명분이 끼어들 자리가 어디 있는가. 지금 대통령 부부에게 쏟아지는 건 우중(愚衆)의 돌팔매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을 회복시키라는 정당한 요구다. 윤 대통령이 이런 착각에 빠진 것은 두 가지 요인 때문이다. 첫째, 좌파의 선동과 민의를 혼동한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논란이 선동과 가짜뉴스 탓이며, 여기에 보수진영과 여당 일부까지 휩쓸려 부화뇌동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런 광풍(狂風)에 김 여사가 희생양이 됐는데 사내 대장부가 나 하나 살자고 아내를 마녀사냥의 제물로 던져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 여사를 향한 비난에 좌파의 가짜뉴스와 선동, 편견이 섞여 있음은 분명하다. 그게 90% 쯤 차지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나머지 10%의 진짜 허물을 감싸고 법치의 예외 특권지대에 두려다 90%의 선동과 뒤섞이게 만든 게 대통령 본인이다. 필자는 민심은 과학이라고 본다. 이는 민심이 항상 100% 옳다는 뜻이 아니다. 민심은 선동과 가짜뉴스에 휩쓸려 광풍이 될 수 있다. 산사태가 쏟아질 때 그 흙탕물엔 온갖 가짜뉴스 선동 괴담이 뒤섞인다. 이 단계에서 광풍을 민심으로 오독(誤讀)하면 억울한 희생양을 양산한다. 괴담에 휩쓸린 군중의 광란이 역사를 그릇된 방향으로 이끈 사례들을 우리는 수없이 목도했다.	최영옥	
1379	2024-10-27 11:45	윤석열아 지금 북한인권재단 이사 핑계댈만큼 한가하지가 않다. 니 마누라의 무분별한 행실이 정권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빨리 특별감찰관 임명해서 못나대게 감시해라. 보	문재인의 국정농단을 단죄하라고 윤석열대통령을 지지하고 찍었지만 요즘처럼 윤석열대통령이 비겁해 보이는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대통령 그자리 가면 다 그렇게 되는건가? 윤석열정권은 더 험한꼴 보기전에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한지윤	

1380	2024-10-27 13:14	"영부인은 그늘로, 꼴사나운 윤핵관, 특감 조속히"…홍준표 어록	언급된 홍 시장의 메시지는 2022년 7월21일 페이스북 글이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팬클럽 중 하나인 '건희사랑' 회장을 맡았던 강신업 변호사가 성접대 무마 의혹 징계 논란 중심에 있었던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를 비판, 홍 시장 자신을 향한 공격도 이어가는 시점이었다. 이 무렵 김 여사는 강신업 변호사 발언에 "저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변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부인 처신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글에서 홍 시장은 "영부인 제도가 생긴 이래 영부인이 정치의 주인공이 된 사례도 없었고 요란스런 외부 활동도 한일이 없었다. 조용히 대통령 뒤에서 대통령이 살피지 못한 데를 찾아 다니거나 뉴스를 피해 그늘진 곳에 다니며 국민들을 보살피는 것이 영부인의 역할이었다"고 전제했다. 그는 "정치인도 아닌 영부인이 팬카페가 생긴 것도 이례적인 현상이고 그 팬카페 회장이란 사람이 설치면서 여당 인사들 군기잡고 호가호위하는 것도 참 어이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있을 정치혼란을 막기위해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 말씀드린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가 국민적 반감을 사게 된 계기는 집권초 공개석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앞서 휘젓고 걸어갔단 단순한 소문에서 비롯됐다"고 비교했다. 홍 시장은 "나토(NATO)회담 참가 때 시중의 화제는 대통령의 국익외교가 아니라 (추정가 6000만원 이상·재산 미신고 논란의) 영부인 목걸이와 팔찌였다. 페이크뉴스와 가십이 결	최영옥	
1381	2024-10-27 13:16	전통있는 보수정당인 국힘과 우리 지지자들은 알고 보니 근본이 좌파인 진보의 오야붕부부의 보수궤멸 프로젝트에 절대 호응하지 않을것이다 탁현민한테 연락하다니 ㅋㅋ 양정철과 찐친이고 아직도 연락하는 사이라니! 노무현을 제일 존경하고 문재인의 제일 충신... 종북간첩 목사는 물론 외간 남정네들이랑 새벽에 카톡질 일삼는 김명신은 보수정당이 극	전통있는 보수정당인 국힘과 우리 지지자들은 알고 보니 근본이 좌파인 진보의 오야붕부부의 보수궤멸프로젝트에 절대 호응하지 않을것이다 탁현민한테 연락하다니 ㅋㅋ 양정철과 찐친이고 아직도 연락하는 사이라니! 노무현을 제일 존경하고 문재인의 제일 충신... 종북간첩 목사는 물론 외간 남정네들이랑 새벽에 카톡질 일삼는 김명신은 보수정당이 극혐하는 좌파색 그 자체임!!	한지윤	

1382	2024-10-27 13:17		한동훈이 우파 정신 이어받을 사람임. 저 좌파부부는 보수정권 재창출엔 관심이 없었다 김건희 수사를 할지도 모르는 검사 한동훈을 수사라인에서 빼기위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는데 오히려 인기가 본인과 비교 안될 정도로 커지자 망한 총선판에 넣고 죽이기 시도. 하지만 온갖 공작에도 당대표에 오른 한동훈. 지금도 민생엔 관심없고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면 수사받을까봐 열일 제쳐놓고 한 죽이는데 혈안..한동훈대표는 민심만 보고 꿋꿋하게 가시길. 압도적 다수 국힘 보수들은 한동훈 대표가 보수를 살리고 보수정권 재창	허수옥	
1383	2024-10-27 13:25	박정희 대통령 서거 45주기에 묻습니다. 우리는 보수를 앞세우면서 도대체 박정희 전대통령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있는 겁니까. 언제나 국민을 생각하며 중단없는 변화와 개혁 그리고 쇄신을 통해 국가를 발전시키는 대신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대통령 부부에 대한 충성과 국민에 대한 충성을 혼동하는 것, 그것이 과연 박정희 정신입니까.	어제 박정희 대통령 45주기 추도식에서 박근령 이사장이 한동훈 대표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 논란이 많습니다. 이른바 친윤 극우 유튜버들은 한동훈이 박근령으로부터 외면당했다며 난리법석을 떱니다. 현장에서 모든 걸 목격한 입장에서 어이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런 식으로 사실을 조작하고 여론을 왜곡했을까 싶어, 그리고 거기 속아 넘어가는 분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현실에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진실을 밝혀드립니다. 어제 저녁, 박근령 이사장이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 주셨습니다. 추도사에서 한 대표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를 기자가 물어와 아래와 같이 답장을 보냈다며 공개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유족 인사에서 한대표님 존함이 빠진 것은 제가 순간 긴장하여 생긴 실수였습니다 '(한동훈 대표님의) 활동하시는 모습에서 보수의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에서 위 괄호 속의 '한동훈대표님' '새로운' 이라는 호칭과 단어가 긴장하여 빠지게 된 것	진은정	삭제

1384	2024-10-27 17:59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정부의 국정 추진 동력을 보여주는 지표나 다름없다. 20%대 지지율은 이미 국정 운영을 하기 쉽지 않은 위험 단계라는 평가가 많다. 그 선마저 무너져 10%대로 주저앉으면 사실상 '심리적 탄핵' 상태가 된다고 한다. 여당 지지층의 긍정 평가마저 줄어든다면 여당조차 대통령 눈치를 보지 않게 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도 급속히 떨어질 것이다. 김 여사 문제가 모든 국정의 동력을 잠식하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정부의 국정 추진 동력을 보여주는 지표나 다름없다. 20%대 지지율은 이미 국정 운영을 하기 쉽지 않은 위험 단계라는 평가가 많다. 그 선마저 무너져 10%대로 주저앉으면 사실상 '심리적 탄핵' 상태가 된다고 한다. 여당 지지층의 긍정 평가마저 줄어든다면 여당조차 대통령 눈치를 보지 않게 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도 급속히 떨어질 것이다. 김 여사 문제가 모든 국정의 동력을 잠식하는 블랙홀이 된 지 오래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며 비판적 여론을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여사 문제의 정리를 요구하는 여당 대표와는 한판 대결이라도 벌이겠다는 자세다. 여소야대 국회의 현실에서 야당과의 협치 노력을 등한시한다는 평가를 받는 터에 여당마저 갈라져 일부라도 등을 돌린다면 과연 국정은 어떻게 끌고 갈지 의문이다. 동아	최영옥	
1385	2024-10-27 21:03	한동훈은 항상 옳다. 그는 과거에도 옳았고 현재에도 옳으며 장래에도 옳을 것이다. 그는 결코 완전하지 않지만 잘못을 범하면 곧 바로 잡고 항상 옳은 바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마치 미국을 통합한 링컨 대통령 처럼 한동훈은 다음 대통령이 되어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통합하고 진정한 선진강국으로 나라를 이끌 지도	한동훈은 항상 옳다. 그는 과거에도 옳았고 현재에도 옳으며 장래에도 옳을 것이다. 그는 결코 완전하지 않지만 잘못을 범하면 곧 바로 잡고 항상 옳은 바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마치 미국을 통합한 링컨 대통령 처럼 한동훈은 다음 대통령이 되어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통합하고 진정한 선진강국으로 나라를 이끌 지도자로 역할할 것임을 믿고 축원한다.	한동훈	삭제
1386	2024-10-27 21:04		전통있는 보수정당인 국힘과 우리 지지자들은 알고 보니 근본이 좌파인 진보의 오야붕부부의 보수궤멸프로젝트에 절대 호응하지 않을것이다 탁현민한테 연락하다니 ㅋㅋ 양정철과 찐친이고 아직도 연락하는 사이라니! 노무현을 제일 존경하고 문재인의 제일 충신... 종북간첩목사는 물론 외간 남정네들이랑 새벽에 카톡질 일삼는 김명신은 보수정당이 극	허수옥	

1387	2024-10-27 21:12	홍준표, "나이 어려도 당대표가 최고 어른"	홍준표 2021년 8월 20일 · 당대표 흔들어 당권이라도 장악해 대선 패배후 공천이라도 보장 받을 심산들 이라면 빨리 정치를 그만 두는 것이 당과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 입니다. 박상수 1일 · # 1 선거막판 100석 붕괴 위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조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낙동강 벨트를 지켜내며 108석으로 100석을 지켜냈다. 당시 한 유튜버는 101석만 하자고 공개적으로 말하였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자 이조심판론이 문제라며,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하자고 여당이 말한 것이 총선패배의 원인이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나는 이들이 이재명과 조국 심판을 말하는 걸 죄악시하는 것을 보며 정신적 혼란이 왔다. 최근에 이들은 이재명, 조국 심판을 왜 말하지 않냐고 비난한다. 이재명, 조국 심판을 신나게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다지고 가자는 말에 내부는 그냥 냅두고 이재명, 조국 심판하러 가야 한다 말한다. #2 선거 막판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원유세 쟁탈전이 심각했다. 나 역시 원희룡 후보에게 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원유세를 내 지역구로 오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불	진은정	삭제
1388	2024-10-27 21:13	우린 김건희한테 단 한표도 준적이 없다 근데 그런 여자땜에 국정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는게 말이 되나?우리가 뭐 대단한거 바라는것도 아니고 윤석열 본인이 대통령으로 약속한 특감 설치하자는게 뭐가 잘	한대표 말이 구구절절 정답이다 대통 아집은 버리고 당대표 와 의견을 조율하여 국정 이어가기를 너무 고집불통이면 국민들이 가만이 보고만 있겠나.	한지윤	
1389	2024-10-27 21:14		기사나 민심을 안보고 틀튜브만 보는 대통령부부와 친윤들이 문제임	허수옥	

1390	2024-10-27 21:25	우리 당은 웰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저는 놀란 게 뭐가 있냐면 이번 당내 선거 보니까 전투력들이 대단하세요. 그런데 이분들 제가 야당과 싸울 때 어디 계셨던 거예	우리 당은 웰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저는 놀란 게 뭐가 있냐면 이번 당내 선거 보니까 전투력들이 대단하세요. 그런데 이분들 제가 야당과 싸울 때 어디 계셨던 거예요? 제가 뭐 했는지는 기억하시죠? 장면들이 다 기억나시고 그 장면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기억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제가 잘난 척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지금 소수당이잖아요. 그럼 거야의 폭주와 맞서야 하고 이렇게 좋은 전투력이 있었으면 이거 우리 다	한동훈	삭제
1391	2024-10-28 13:45	데일리안사설) 국민 여론이 이러한데도 대통령은 먼 산 보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딸랑이들, 대통령실-친윤 의원들-`틀튜버'(틀딱 노년 보수층 고객 대상 유튜버)들은 한동훈 측에 내분 일으키지 말라면서 나라 걱정 당 걱정 보수 걱정... 걱정이란 걱정은 자기네들이 다한다. 꼴불견이다.	[정기수 칼럼] 내전이라니... 친윤 `딸랑이'들의 적반하장 대통령실-친윤 의원들-`틀튜버' 외 전 국민이 윤석열 비판 대깨윤들만 한동훈에게 책임 뒤집어씌우며 무덤 파 "돌 맞고 가겠다" 태도 고수하면 탈당 요구 나올 수밖에 여당 지지층 尹 긍부정 반반, 영남 20%대 위험 신호 대통령 윤석열의 지지율이 10% 대로 떨어지는 건 시간문제다. 보수의 텃밭 연령층과 특정 지역이 전국 지지율에 근접하는 평준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게 그 근거다. 보수 콘크리트가 깨지고 있다. 이 텃밭 국민들은 보수 이념과 가치에 동의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서 보수 정당을 지지하고 보수 대통령을 지지한다. 대통령을 비판하고 채찍질을 한다고 해서 보수 자체를 버리고 그 진영을 떠나는 게 아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중도우파다. 이들은 윤석열이 싫으면 이재명을 지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성 보수우파는 윤석열에 반대해도 이재명으로 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요새 보수우파 내에서 자나 깨나 윤석열인 대깨윤들은 `내전' 운운하며 비윤 또는 반윤 인사들을 매국노 취급한다. 자제하라고 겁박한다. 누구 좋으라고 자제하나? 그러면 그 `폭력적 유치함'의 행태가 더 기고만장 악화될 텐데... 이들은 누가 그 원인 제공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견강부회, 적반하장 주장을 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한가한 말싸움이나 하고 자빠졌다. 그러면서 경우에 맞지도 않는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 소환해 억지 사이렌을 울린다. `모든 정성을 다해 한동훈을 X무시하고 윽박질렀던' 용산 기획-연출 `구내식당 차담'이 그 답 아닌가? 윤석열은 그렇게 푸대접하며 한동훈이 올린 `3대 조치 + 특별감찰관 임명'은 `말 뺨'으로 돌려주었다. 그의 특기인 변명 반 설명 반 장광설이 이번엔 노기(怒氣)까지 더해 81분을 소모했다.	최영옥	
1392	2024-10-28 13:48	총선백서결과) 대통령실의 무능과 오판 기행이 총선패기 야기: 이종섭 대판 기각희 인대	원인으로 다음을 꼽았다 이종섭 대판 기각희 인대	한지윤	

1393	2024-10-28 15:03		공적마인드 최고의 정치인 한동훈이다. 국민 안중에도 없고 와이프만 지키는 독선불통 윤석열과 범죄비호꾼이 설치는 당대표 이죄명과는 비교불가다. 한동훈같은 정치인이 대한민국 국격에 맞다	허수옥	
1394	2024-10-28 15:05	윤석열은 보수를 배신하고 자기를 찍은 중도파 국민도 배신한 진짜 배신자다.보수의 근간인 군간부,교사들,그리고 의료대란으로 의사들까지,그야말고 진짜 보수 진영를 파괴하려온 좌파의 스파이다. 상식적인	윤석열은 보수를 배신하고 자기를 찍은 중도파 국민도 배신한 진짜 배신자다.보수의 근간인 군간부,교사들,그리고 의료대란으로 의사들까지,그야말고 진짜 보수 진영를 파괴하려온 좌파의 스파이다. 상식적인 리더 중심으로 재편해야합니다	한지윤	
1395	2024-10-28 15:06	[사설] 특별감찰관은 등 돌린 민심 달랠 마지노선이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 1위가 '김건희 여사 문제'(15%)다. 역으로 이 문제를 해소한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치솟아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 여사 문제를 풀 현실적 방안의 하나가 특감이란 건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도입된 특감은 초대 이석수 특감이 박 대통령 동생 근령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그러다 박근혜 정권의 미움을 사 사임한 뒤 공석이 된 특감 직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5년 내내 임명되지 않았다. 문재인 청와대는 "공수처의 반부패 기능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를 댔으나 실은 자신들을 감시할 특감 임명을 내켜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게 중론이다. 윤 대통령도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북한 인권재단 이사 인선 지연을 이유로 특감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재단 이사직이 특감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특감은 등 돌린 민심을 달래기 위한 '마지노선'이다. 용산은 대안으로 '제2부속실 설치'를 들고 있지만 김 여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부속실 체제는 한계가 분명하다. 반	진은정	삭제

1396	2024-10-28 17:59	TK 尹 26%'에 TK언론들도 패닉. "尹이 민심 배반" <영남><경북매일><대구> 질타하며 "김건희 문제 풀라"	TK(대구경북) 대다수 신문도 <한국갤럽> 조사에서 TK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6%로 폭락한 데 대해 공황적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문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남일보>는 28일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 지지율 26%와 관련, "윤 대통령 대선 TK 득표율은 74%였다"며 "기이한 부분은 TK에서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46%로 대통령 지지율과 다른 궤도를 그리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논란의 진원지가 대통령 부부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은 불행"이라며 "윤 대통령에 애정을 가진 TK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보수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출범한 윤 정권으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설은 "대통령실은 그간 여론조사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인기영합의 국정운영은 피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되지만, 작금의 수치들은 심상치 않다"며 용산의 안이한 대응을 질책하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한 결단과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돌 맞고 가겠다'는 자세는 합리적이지 않다. 엄중히 직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에 대한 결단을 압박했다. <경북매일신문>의 김진국 고문도 이날 기명칼럼을 통해 "마침내 20%의 벽마저 깨질 기미를 보인다. 호전될 것 같지 않다"며 "소통 미흡, 독단….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준 가장 큰 배경이 김 여사 문제다. 야당은 물론 집권당과의 관계도 모두 김 여사 문제에서 부딪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윤'은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정략적이라고 생각한다. 한동훈 대	진은정	삭제

1397	2024-10-28 18:05	[데일리안 사설] 내전이라니... 친윤 `딸랑이'들의 적반하장 대통령실-친윤 의원들-`틀튜버' 외 전 국민이 윤석열 비판 대깨윤들만 한동훈에게 책임 뒤집어씌우며 무덤 파 "돌 맞고 가겠다" 태도 고수하면 탈당 요구 나올 수밖에 여당 지지층 尹 긍부정 반반, 영남 20%대 위험 신호 대통령 윤석열의 지지율이 10% 대로 떨어지는 건 시간문제다. 보수의 텃밭 연령층과 특정 지역이 전국 지지율에 근접하는 평준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게 그 근거다. 보수 콘크리	내전이라니... 친윤 `딸랑이'들의 적반하장 대통령실-친윤 의원들-`틀튜버' 외 전 국민이 윤석열 비판 대깨윤들만 한동훈에게 책임 뒤집어씌우며 무덤 파 "돌 맞고 가겠다" 태도 고수하면 탈당 요구 나올 수밖에 여당 지지층 尹 긍부정 반반, 영남 20%대 위험 신호 대통령 윤석열의 지지율이 10% 대로 떨어지는 건 시간문제다. 보수의 텃밭 연령층과 특정 지역이 전국 지지율에 근접하는 평준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게 그 근거다. 보수 콘크리트가 깨지고 있다. 이 텃밭 국민들은 보수 이념과 가치에 동의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서 보수 정당을 지지하고 보수 대통령을 지지한다. 대통령을 비판하고 채찍질을 한다고 해서 보수 자체를 버리고 그 진영을 떠나는 게 아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중도우파다. 이들은 윤석열이 싫으면 이재명을 지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성 보수우파는 윤석열에 반대해도 이재명으로 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요새 보수우파 내에서 자나 깨나 윤석열인 대깨윤들은 `내전' 운운하며 비윤 또는 반윤 인사들을 매국노 취급한다. 자제하라고 겁박한다. 누구 좋으라고 자제하나? 그러면 그 `폭력적 유치함'의 행태가 더 기고만장 악화될 텐데... 이들은 누가 그 원인 제공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견강부회, 적반하장 주장을 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한가한 말싸움이나 하고 자빠졌다. 그러면서 경우에 맞지도 않는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 소환해 억지 사이렌을 울린다. `모든 정성을 다해 한동훈을 X무시하고 윽박질렀던' 용산 기획-연출 `구내식당 차담'이 그 답 아닌가? 윤석열은 그렇게 푸대접하며 한동훈이 올린 `3대 조치 + 특별감찰관 임명'은 `말 뺨'으로 돌려주었다. 그의 특기인 변명 반 설명 반 장광설이 이번엔 노기(怒氣)까지 더해 81분을 소모했다.	최영옥	
1398	2024-10-28 18:05	친윤계라는자들은 국민여론을 파악이나하고있나 20%국민지지를받고있는 윤석열을 언제까지감싸고있을까 이상태로간다면 지지율이 더떨어질수도있는데 내년지방선거는 어	공적마인드 최고의 정치인 한동훈 응원합니다 윤석열 하는 행동을봐라 김경수를 복권해주고 정권이 민주당에게 넘어가도 자기부부 봐줄수있는 사람과 야합해서 그사람 밀어주겠다는심보 아닌가 애초에 좌파부부라 보수지지층들 마음도 전혀 모르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하는 공적마인드가 너무없다	한지윤	

1399	2024-10-28 18:16	경북매일신문)대통령은 영부인 의혹을 어떻게 풀 작정인가	당장 윤 대통령은 영부인에 대한 국민 의혹을 어떻게 풀 생각인가. 이대로 뭉개면 해결될 거라고 믿는 건가.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은 이제 열거하기도 힘들다. 물론 시중에서 제기되는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닌가. 김 여사의 개인적 억울함이야 죽을 때까지 지고 가든 말든 상관할 바 아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국정이 흔들리고, 여권이 신뢰를 잃고, 사분오열해 차기 정권 재창출이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개가 서로 짖으며, 사법 질서가 신뢰를 잃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빌미를 만들고 있다.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은 온 국민이 자기 눈으로 봤다. 믿지 못할 사람들과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천박한 언어로 대통령을 폄훼하고, 국정을 자기 손으로 주무르는 듯이 떠드는 오만한 언사를 귀로 들었다. 적어도 이미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해명하고, 백배사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 아닌가. 보수세력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으면 어떻게든 빨리 수습하려고 노력하는 게 지도자가 할 일이다. 그런데 치졸한 방법으로 고립시키고, 부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집권당 대표치고, 온전히 성해서 나간 사람이 없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치고, 협량한 보복을 당해보지 않	진은정	삭제

1400	2024-10-28 18:26	조해진 전의원) 홍준표 참견을 할 것 같으면 말을 똑바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조해진 2시간 · 홍준표 시장께서 지금 상황이 박근혜 탄핵전야와 같다면서, 당시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오기싸움'이 탄핵의 원인이었던 것처럼 말하며, 한동훈 대표에게 자중하라고 했다. 기왕 참견을 할 것 같으면 말을 똑바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박근혜 정부 때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통령께 미움을 받아서 취임 5개월만에 쫓겨났고, 혼자 남은 김무성 대표는 고사작전에 몰려 본인 공천도 위협받으며 옥새파동까지 갔다.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불통 청와대를 달래가면서 정치적 소통을 뚫어내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그들은 청와대의 절대권력에 의해서 핍박받거나 협공을 당한 처지였다. 보수정권이 헌정사 최초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한 것은 원인이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정권 스스로 소아적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부 권력투쟁, 자중지란, 적전분열을 일으켜 집권 기반을 스스로 왜소화시키는 자해행위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국정과제였던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소위 '사자방')을 적폐로 규정하고, 감사원 감사, 검·경수사, 국회청문회 등 전방위로 청산작업에 돌입하여, 보수분열의 단초를 제공했다.	최영옥	
1401	2024-10-28 20:11		.	허수옥	

1402	2024-10-28 20:15		한동훈이 우파 정신 이어받을 사람임. 저 좌파부부는 보수정권 재창출엔 관심이 없었다 권력에 굽히지 않는 검사 한동훈을 수사라인에서 빼기위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는데 오히려 인기가 본인과 비교 안될 정도로 커지자 망한 총선판에 넣고 죽이기 시도. 하지만 온갖 공작에도 당대표에 오른 한동훈. 지금도 민생엔 관심없고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면 배아파서 질투에 미쳐서 열일 제쳐놓고 한 죽이는데 혈안..한동훈대표는 민심만 보고 꿋꿋하게 가시길. 압도적 다수 국힘 보수들은 한동훈 대표가 보수를 살리고 보수정권 재창출할거라 믿는다 보수세력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으면 어떻게든 빨리 수습하려고 노력하는 게 지도자가 할 일이다. 그런데 치졸한 방법으로 고립시키고, 부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집권당 대표치고, 온전히 성해서 나간 사람이 없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치고, 협량한 보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너도 나도 비위나 맞추며 사리를 도모하니 집권당 꼴이 말이 아니다.	허수옥	
1403	2024-10-28 22:04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바닥이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0%. 9월 2주 차에 이어 윤 정부 출범 이후 최저점을 다시 찍었다. 부정 평가는 70%에 이르렀다. 4대 여론조사기관의 전국 지표조사(NBS)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22%를 기록했고, 리얼미터 조사도 24.1%로 가장 낮은 기록을 세웠다. (중앙	소통 미흡, 독단….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준 가장 큰 배경이 김 여사 문제다. 야당은 물론 집권당과의 관계도 모두 김 여사 문제에서 부딪치고 있다. NBS조사에서는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73%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자 57%, 대구·경북 응답자 61%도 김 여사의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김 여사 문제에 관한 의견이 출신 지역이나 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비슷하다는 말이다.보수세력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으면 어떻게든 빨리 수습하려고 노력하는 게 지도자가 할 일이다. 그런데 치졸한 방법으로 고립시키고, 부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집권당 대표치고, 온전히 성해서 나간 사람이 없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치고, 협량한 보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너도 나도 비위나 맞추며 사리를 도모하니 집권당 꼴이 말이 아니다.	한동훈	삭제

1404	2024-10-28 22:09	명태균 김건희 얽힌건 다 밝혀라 대통령실이 먼저 털어야 그다음 지네끼리 뭐든 하지 이건 뭐 매일 새로운게 나오냐?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 "지금 선관위에서 김OO이를 부른다 그러거든? 나랑 상관이 안되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지않아. 근데 나랑 연관되면 이게 무슨 공천을 주네마네 이런 얘기가 조금 이제 상상을 할 수는 있는 거거든‥" "자신이 연관되면 공천을 상상할 수 있다"며 대화 도중 '공천사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대통령 선거 도왔다 이러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검찰이나 다른 데에서 다 꼬리 잘라갖고 아무 문제도 안 돼. 그리고는 오히려 그게 공천 사기한 것에 자백이 되거나‥"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 "명태균이가 막 떠드는 거는 아예 모르고, 하지도 않았고, 내 생각에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명태균이한테 단 한 푼도 돈 준 게 없는 게, 서로 두 사람한테 안전하다고." 명씨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자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의 2022년 5월2일 통화 녹음을 입수했다. 이 통화에서 명씨는 강씨에게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공천) 걱정하지 마라고, 내보고 고맙다고”라며 “자기 선물이래”라고 말했다. 명씨는 이어 “하여튼 입조심해야 된다. 알면은 난리, 뒤집어진다”고 보안을 요구했다.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김 전 의원 공천 발표(2022년 5월	한동훈	삭제
1405	2024-10-28 22:40	속칭 친윤이라는 작자들은 김건희 리스크가 얼마나 민심을 이반하고 있는 지 윤통에게 사실을 직고한 적이나 있냐?	속칭 친윤이라는 작자들은 김건희 리스크가 얼마나 민심을 이반하고 있는 지 윤통에게 사실을 직고한 적이나 있냐?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우선 특감부터 임명하자고 야당을 압박하자는데 뭐가 꼼수라는 거야? 그럼 니네들의 해결책은 뭔 지 말해봐라 지난 전당대회 한동훈이 63% 받은것은 민심을 읽고 변화와 쇄신을 말하고 실천하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다른 후보들도 이런 민심, 당심을 읽어내고 대변했다면 당선될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하나 오노. 정권교체해서 고마운 것 딱 거기까지다. 그 달란트는 총선 대패로 이미 100% 소진했다. 지금 하나가 되야 한다는 사람들 하나가 되서 같이 순장 당하시면 된다.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보고도 못받아 들이시니, 다음 지선과 대선 국면에서 순	한동훈	삭제

1406	2024-10-29 14:28	의정 갈등의 장기화, 지지부진한 3대 개혁으로 인해 가뜩이나 민심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김 여사를 둘러싸고 터져 나오는 온갖 논란들에 국민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를 외면하는 동안 정작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도, 대통령 부부 자신을 위해서도 더 늦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의정 갈등의 장기화, 지지부진한 3대 개혁으로 인해 가뜩이나 민심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김 여사를 둘러싸고 터져 나오는 온갖 논란들에 국민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를 외면하는 동안 정작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도, 대통령 부부 자신을 위해서도 더 늦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최영옥	
1407	2024-10-29 21:46	의정 갈등의 장기화, 지지부진한 3대 개혁으로 인해 가뜩이나 민심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김 여사를 둘러싸고 터져 나오는 온갖 논란들에 국민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김 여사 문제가 모든 국정의 동력을 잠식하는 블랙홀이 된 지 오래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며 비판적 여론을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여사 문제의 정리를 요구하는 여당 대표와는 한판 대결이라도 벌이겠다는 자세다. 여소야대 국회의 현실에서 야당과의 협치 노력을 등한시한다는 평가를 받는 터에 여당마저 갈라져 일부라도 등을 돌린다면 과연 국정은 어떻게 끌고 갈지 의문이다. 의정 갈등의 장기화, 지지부진한 3대 개혁으로 인해 가뜩이나 민심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김 여사를 둘러싸고 터져 나오는 온갖 논란들에 국민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를 외면하는 동안 정작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	최영옥	
1408	2024-10-29 21:47	한동훈 진짜 잘하는거다 무조건 밀어붙여라. 반도체산업특별법, K칩스법, 원전산업지원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의통과, 금투세와 단말기유통법 폐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	한동훈 진짜 잘하는거다 무조건 밀어붙여라. 우리나라 삼성, 현대, 하이닉스, 네이버 등의 대기업들이 1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빅테크와 규모가 비슷했다. 우리나라 삼성이 미국 애플과 시가총액이 맞먹었다면 지금 믿겨지겠냐? 그뿐이냐? 미국 아마존, 메타, 테슬라가 우리나라 삼성의 절반도 안 되는 규모였는데 문재인 정권 5년을 거치면서 나라 망치려 드는 민주당 때문에 지금은 저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전부 제쳤고 애플과 규모가 같았던 삼성은 올해 순위권 밖으로 나가리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금투세 반드시 시행시켜야 된다는 민주당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냐? 국민들이랑 건방지게 기싸움이나 하려고 들고, 한동훈이 폐지하려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려고 들고.. 범죄나 저지르면서 권력과	한지윤	
1409	2024-10-29 21:50	"김건희, 야당 대표에게 전화해 '내가 뭘 잘못했냐'" 억울함 호소ㅎㅎㅎ	김건희는 특검도 특감도 필요없다. 그놈의 전화기를 뺏어라! 이니면 대통령 임기종료시까지 통신사에 명령해서 통화정지를 시켜라. 지긋지긋하다	한동훈	삭제
1410	2024-10-29 22:24		구태 정치인들, 이왕 말하려면 명확하게 말하라,윤석열이 결자 해지 하라고,한대표가 제안한 3가지 요구사항 전면 수용하라고, 민심이 지금 어떤지 몰라서 애매모호한 태도 신물나다	허수옥	

1411	2024-10-29 22:24	대통령은 영부인 의혹을 어떻게 풀 작정인가	국정 평가는 영남권에서도 저조하다. 보수세력의 지지기반이라 할 대구·경북(TK)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6%로 부정 평가 60%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긍정 평가 27%, 부정 평가 59%로 TK와 비슷하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정 수행지지율이 대구·경북은 35.2%에서 27.1%로 일주일 만에 무려 8.1%포인트, 부·울·경에서는 33.1%에서 26%로 7.1%포인트 추락했다. 그런데도 김 여사 문제는 여야 대립을 넘어 여야 갈등으로 비화했다. '친윤'은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정략적이라고 생각한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차기에 대한 욕심'에 눈이 어두워 자기를 키워준 대통령 내외를 배신했다고 주장한다. 정치를 하려는 한 대표에게 그런 욕심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민심이 먼저다. TK와 PK에까지 나타난 민심은 무엇인가. 이 민심이 '배신'인가. 아니면 지지기반의 신뢰를 윤 대통령이 배신한 건가.	진은정	삭제
1412	2024-10-29 22:25	매일매일 김건희 기행이 터지는데 엊그제도 야당 대표 (야당 뭐냐 역시 좌파 ㅋㅋㅋ)에게 전화해서 한시간 내내 억울하다고 방방 뛰었단다 핸드폰좀 압수해라 진짜 어휴 2년반 무섭다 일단 오늘부터 근신시키고 사춘기 애들도 아니고 핸드폰 시간 제한좀 해라 스크린타임좀 제한	매일매일 김건희 기행이 터지는데 엊그제도 야당 대표 (야당 뭐냐 역시 좌파 ㅋㅋㅋ)에게 전화해서 한시간 내내 억울하다고 방방 뛰었단다 핸드폰좀 압수해라 진짜 어휴 2년반 무섭다 일단 오늘부터 근신시키고 사춘기 애들도 아니고 핸드폰 시간 제한좀 해라 스크린타임좀 제한해 놓으라고	한지윤	

1413	2024-10-29 22:3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대한민국 우상향 성장의 키포인트가 AI(인공지능)와 반도체"라며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소속 초선의원 공부모임이 주최한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우리 보수당의 목표는 경제성장이 과거처럼 드라마틱하게 할 기회가 남아 있고 그 기회를 활용해서 우상향 성장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한 과실은 모두를 위한 복지에 써야 한다는 선순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산업혁명의 물결에 올라타고 숟가락을 얹어서 드라마틱한 성장의 계기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당이 준비하고 있는 반도체법에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반도체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와 AI의 혁명을 통한 국가 전체의 부	허수옥	
1414	2024-10-29 22:31	[동아일보]北인권 문제까지 金 여사와 엮이게 해서야	대통령실이 최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연계시킨 것 또한 그다지 진정성 있는 조치로 보이지 않는다. 상관관계가 없는 두 사안은 여야가 정치적으로 엮으면서 벌써 8년째 공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도 아닌 여당 대표가 연계를 풀자고 나섰다. 용산이 이를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로 받아친 것은 이렇게라도 재단을 굴러가게 하겠다는 절박함이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루게 될 특별감찰관 선임을 어렵게 만들려는 계산법이 앞섰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논란들은 결과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정쟁의 늪으로 밀어넣기만 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는 해결은커녕 우리 안의 갈등을 부추겨 지금까지의 노력마저 퇴보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는 사이 북한에서는 10대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가 공개 처벌됐다는 증언이 나오고, 북측 하늘로 띄우는 대북 전단이 많아지는 만큼 이를 정하는 주민들의 통제, 방해받는 정황들도 이어지고 있다. 가	최영옥	
1415	2024-10-29 22:33	지지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한동훈대표 100일 축하합니다	.	한동훈	삭제
1416	2024-10-29 23:03	김건희 문제엔 아무말도 못하는 것들이 공동성명서? ㅋㅋ	19.6프로 망한 윤석열 중심으로 충성하면 당도 무너지고 윤석열처럼 민심으로 당도 버림받을텐데 다같이 죽자는거냐! 니들이 그러고도 중진이냐! 수십년정치하면 머하냐 한동훈 발끝에도 못따라오는것들아! 당이라도 살아나려면 같이 몰락이 아니라 잘못하는부분에 쓴소리도 내고 용산에 목소리 내야하는거다.니들은 용산딸랑이들이니 계속 용산 폭망지	한동훈	삭제

1417	2024-10-29 23:08		보수, 특히 극우 성향 유튜브의 한동훈 집단 매도 비난은, 이미 국민들이 익히 알고있는 사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Kbs, ytn 라디오 진행자, 공기업 사장 임명등등~~~누군가의 지시.후원 없이는, 이해불가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나, 그럴수록 양식있는 합리적 국민들, 특히 자유 우파 국민들은, 윤부부가 아닌, 자유대한민국을 위한 정권재창출	허수옥	
1418	2024-10-29 23:09	한동훈 100일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힘드시겠죠 죄송합니다 보수의 마지막 보루	오늘도 중앙일보 감건희 비선들이 불러주면 기사쓰는 허진기자. 지금 신혜식 홍철기 배승희 고성국 같은 자통당 틀투브들이 24시간 내내 한동훈 대표만 까고 한동훈 대표 아버님 묘소까지 가서 조롱하면서 라이브 방송하는 참담한 일까지 한다. 그러면 한자리 받고 용산 한남동에 가서 만찬도 한다...한동훈 대표를 열심히 공격해서 김건희 마음이 들면 고성국 배승희 민영삼 처럼 한자리도 받는다 김건희 고모 김혜섭이 자금대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오빠 김진우나 김대남이 말한것ㅊ럼 대통령실도 그런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	한지윤	
1419	2024-10-29 23:10	칼럼) 대통령의 허수아비 춤 대통령이 어느 바람, 어느 장단에 춤을 추는지 모르겠다. 떠도는 소문처럼 부인의 치맛바람인지, 간신들이 일으키는 아첨의 손바람인지, 무속인들의 주술인지 알 수가 없다. 부디 국민들의 눈길을 피하지 마라.	어쩌면 지금의 위기가 윤석열 정권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다. 이제라도 민심에 복종하는 것이 살길이다. 뼛속까지 정치인이었던 양김(김영삼, 김대중)에게 배워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아들이 대기업의 뇌물을 받고 사법처리에 직면하자 곧바로 국민께 사죄했다. 진실을 가리기에 앞서 자식 이름이 거명되고 추문이 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며, 매사에 조심하고 바르게 처신하도록 가르치지 못한 것은 제 자신의 불찰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들이 비리에 연루되자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책임을 통절하게 느낀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제 평생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렇게 참담한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이는 모두가 저의 부족함과 불찰에서 비롯된 일이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어느 대통령보다 대국민 사과를 빈번하게 했다. 옷깃을 여미고 머리를 조아렸다. 양김은 누구도 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구심과 노여움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세상일은 비슷하다. 아무리 주변 단속을 해도 친·인척 비리는 발생한다. 그럴 때마다 비리를 척결해야 맑은 정권이다. 원칙과 상식 선에서 단죄해야 국민이 신뢰한다. 양김은 그렇게 해서 퇴임 이후에도 평화로웠다. 어느 정권도 건드리지 못했다. 대통령이 어느 바람, 어느 장단에 춤을 추는지 모르겠다. 떠도는 소문처럼 부인의 치맛바람인지, 간신들이 일으키는 아첨의 손바람인지, 무속인들의 주술인지 알 수가 없다. 부디 국민들의 눈길을 피하지 마라. 허수아비 춤을 멈추고 국민의 손을 잡아야 한다. 정치인이	진은정	삭제

1420	2024-10-29 23:16	국민 10명 중 8명 "尹대통령, 한동훈 '3대 요구' 수용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거듭 제시한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3대 요구'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8명가량이 '수용해야 한다'고 찬성한 반면, '거부해야 한다'는 반대 답변은 1명 정도에 불과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49차 정기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한 대표 3대 요구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수용해야 한다'는 찬성 답변이 78.2%, '거부해야 한다'는 반대 답변이 13.8%, '잘 모르겠다'는 유보 답변은 8.1%로 나타났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0·16 재보선 당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 날인 1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 활동	진은정	삭제
1421	2024-10-30 1:03	구태정치 노인네들 자신들의 언행이 마치 정치의 표본인양 목에 힘주고 당내 젊은 인물 키울 생각 없이 기득권 지키기에만 목소리 키운다	구태 국힘 희망없다 쇄신과 변화를 한동훈을 믿고 함께합니다	한동훈	삭제
1422	2024-10-30 1:06		어르신 지지자들은 훌륭하다 하지만 당을 구태로 만드는건 607080 영남 꼰대 들이다. 꼰대 구태 할배들을 청산해야 청년정당으로 바뀔수 있다	허수옥	
1423	2024-10-30 23:01	보수정권재창출에 진심인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네	국힘의원들은 김건희부부 호위무사 그만하고 한동훈만 믿고 따라가라. 정권 민주당에게 넘어가면 tk뱅지도 위험하다	한동훈	삭제
1424	2024-10-30 23:04	지난 총선은 대통령실에서 터져 나온 온갖 악재들이 당락을 좌우한 선거였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이는 백서 말미에 첨부한 총선 후보자와 보좌진, 당직자와 출입기자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이종섭 황상무 이슈' '대파 논란' '김건희 여사 이슈' '해병대 채 상병 이슈' '의대 정원 확대'가 '당정 관계 이슈'보다 선거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도 패인 분석에서는 대통령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나 소통 문제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김 여사도 성과 이름 없이 '여사'로 한 번 거론했을 뿐이다. 남의 다리 긁기 식 패인 분석에 누가 시	최영옥	
1425	2024-10-30 23:06	자기범죄를 무마하려고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재명 조국 김건희 문재인 범법자들	자기범죄를 무마하려고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재명 조국 김건희 문재인 범법자들. 명씨를 고소하지 못하는 여권과 수사에 미적댄 검찰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이 사태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더 궁금해하고 있다. '명태균 논란'을 종식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실체적 진실이 조기에 규명되는 것임을,김명신과 검찰은 이제라도 유념해야 할	한지윤	

1426	2024-10-30 23:07	“국민 우려 해결” 윤 대통령 결단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다. 한 대표는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라고 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 선고가 예정된 내달까지 김 여사 의혹 규명 협조와 대외활동 중단 등 ‘3대 조치’와 특별감찰관 도입을 수용하라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한 대표는 4대 국정과제인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에 대해 “(국민) 우려를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 추진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리스크’ 해소와 국정 운영 성과가 연계돼 있다는 뜻이다.한 대표의 요구 이행은 윤 대통령 결단에 달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 대표와의 회동에서 “집사람도 힘들어한다” “검찰이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방어했다. “등 떠밀리지 말고 쇄신하자”는 한 대표 건의를 묵살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인맥인 ‘한남동 라인’ 교체 요구도 거부했다. 특별감찰관 역시 “여야가 합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것(특별감찰관)조차 머뭇거리면 (국민이) ‘정말 민심을 알긴 아는 거야?’라는 생각할 것”이라는 한 대표 주장과는 간격이 크다. 여권에서도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최근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으로 국정 지지율이 2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결자해지’ 할 뜻이 없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이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친윤계 의원들이 김 여사 이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한 만큼 이제 윤 대통령이 결단할 때다. ‘한 가정의 남편’이 아니라 국가의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면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임기 후반기를 맞아 ‘김건희 리스크’를 털어내고 수평적 당정관계를 통해 국정 동력을 되살리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다. 내달 4일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진은정	삭제
1427	2024-10-30 23:08	보수의희망 대한민국의희망 국민의희망 한동훈	현정치는 한동훈외에 대안이 없다.	-동훈	삭제
1428	2024-10-30 23:12	“11월 내 김여사 문제 해소하겠다” …취임 100일 맞은 이 남자의 직진	당정 변화와 쇄신 첫걸음이 특별감찰관 이재명 1심 전에 與 윤리적문제 털어야 대통령실도 변화의 길 가고있다고 생각 재보선 출마·당권대권 분리에는 말아껴	진은정	삭제
1429	2024-10-30 23:13		용산은 진짜 이 기회를 잡기 바란다 보수 국민들도 더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 지금 용산이	허수옥	

1430	2024-10-30 23:16	100일 축하. 한동훈은 항상 옳다. 그는 과거에도 옳았고 현재에도 옳으며 장래에도 옳을 것이다. 그는 결코 완전하지 않지만 잘못을 범하면 곧 바로 잡고 항상 옳은 바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김건희부부는 이견을 말하는거로는 이제 통제 못한다 보수진영의 미래를 위해 국힘 의원들이 결단해야한다.특별감찰관	한동훈은 항상 옳다. 그는 과거에도 옳았고 현재에도 옳으며 장래에도 옳을 것이다. 그는 결코 완전하지 않지만 잘못을 범하면 곧 바로 잡고 항상 옳은 바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김건희부부는 이견을 말하는거로는 이제 통제 못한다 보수진영의 미래를 위해 국힘 의원들이 결단해야한다.특별감찰관 꼭 하길	한지윤	
1431	2024-10-30 23:16	이제 윤 대통령이 결단할 때다. '한 가정의 남편'이 아니라 국가의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면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친윤계 의원들이 김 여사 이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한 만큼 이제 윤 대통령이 결단할 때다. '한 가정의 남편'이 아니라 국가의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면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임기 후반기를 맞아 '김건희 리스크'를 털어내고 수평적 당정관계를 통해 국정 동력을 되살리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다. 내달 4일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윤 대통령이 불참할 수 있다는 소문은 '소문'에 그쳐야 한다. 대통령의 국회 보이콧은 국민 무시일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대화 창구를 닫는 행위다. 부디 정도를 걷	진은정	삭제
1432	2024-10-30 23:19	자유주의적 민주 사회에서 개인의 인권은 보장이 되고, 무죄 추정 주의와 증거 위주의 법정 심리는 오래 가기 때문에 대통령을 따르는 검찰이나 권력 기관이 시작한 보복이 끝까지 승리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통령의 권한과 그 행사에는 제약이 있고 동전의 양면이 공존한다. 여기서 두 가지 수단은 대통령 개인에 해당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행정관료와 정당에 해당한다. 이 네 가지가 서로 선순환한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란 정말 어렵다. 특히 대통령이 자신이 가진 권한과 한계를 인식하고, 그 행사 방식이 조심스러울 경우 나머지 행정부 관료와 여당 관계는 좋아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관료와 사정기관 간부들은 가장 먼저 손을 내려놓는다. 벌써부터 대통령실에 발령 나기가 두려워 한직을 선호한다는 엘리트 관료들의 이야기들이 들린다. 결국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할 조직은 여당이 유일하다. 왜냐하면 여당이 대통령을 후보로 공천하고 대통령을 배출했기 때문이다. '여당의 대표를 홀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면, 과거 대통령의 사례가 일부 교훈을 준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 새누리당은 다양한 파벌들이 경쟁하는 살아 있는 조직이었다. 과거 민주화를 했던 김영삼 계열도, 신군부 시절부터 내려온 민정당 계열도, 새로운 개혁 보수도 공존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 대표를 홀대했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거세게 비난했으며, 결국 김무성 대표는 2016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옥새 파동을 주도했고, 유승민 대표는 공	최영옥	

1433	2024-10-30 23:20		한동훈 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한 모든 표현들에 구구절절 공감합니다. 민심에 귀기울이고 수평적 당정관계를 만들고자 하며 민생을 더 좋아지게 하는 한동훈 대표의 멋진 진짜을 적극 지지합니다	허수옥	
1434	2024-10-30 23:22	대통령이 밑바닥 찍겠다면 그 옆에 설 여당은 없다 / 구중궁궐에 갇힌 용산에 민심을 전하겠다는 여당 요구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	한동훈은 항상 옳다. 그는 과거에도 옳았고 현재에도 옳으며 장래에도 옳을 것이다. 그는 결코 완전하지 않지만 잘못을 범하면 곧 바로 잡고 항상 옳은 바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김건희부부는 이견을 말하는거로는 이제 통제 못한다 보수진영의 미래를 위해 국힘 의원들이 결단해야한다.특별감찰관 꼭 하길	한지윤	
1435	2024-10-30 23:27	[광화문에서/박훈상]與의원 "지역 갈 때마다 혼나… 체감 尹 지지율은 10%대"	평소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여당 의원은 "지지율이 원낙 바닥에 붙어 있지 않았나. 지지율이 1~2%포인트만 올라가도 안도하거나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결정과 행동을 한다"고 진단했다. 민심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요구한 한동훈 대표 앞에서 윤 대통령이 펜과 메모지 없이 두 팔을 쭉 편 채 마주 앉은 모습이 이를 상징한다고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등 3대 요구사항을 확인된 잘못이나 구체적인 의혹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민심을 반박할 논리를 만들고 이를 민심이라 믿으며 용산 밖의 분위기에 격노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신랄한 비판도 나온다. 실제 체감 국정 지지율은 이미 10%대로 진입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수의 수도권 여당 의원들은 "지역에 갈 때마다 심하게 혼나고 있다"고 말한다. 보수 텃밭인 영남 의원들도 대통령을 향한 보수 민심의 우려를 느끼고 있다. 대구·경북(TK)의 대통령 지지율도 26%다. 그럼에도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국민과 교감해 부족한 부분을 살피고 이를 고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한 때다. 가장 나은 스승이 변화라도 보여줄 수 있는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힘 사	최영옥	
1436	2024-10-31 17:56	한동훈이 답이다 울나라는 한동훈 같은 리더가 꼭 필요하다 여론 조사 맞사지 받은 의원들 다 윤리위에 회부해야 한다	.	한동훈	삭제

1437	2024-10-31 17:58	한 대표는 기득권들의 보수, 나아가 강(強)들의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보수의 지향점으로 '강강약약'(强强弱弱)을 제시했다. 강한 상대에게 강하고 약한 상대에게 약하다는 뜻의 신조어인데, 보수의 새 브랜드로도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서 '강'은 기득권과 특권을, '약'은 소외된 약자들과 그가 주창한 동료 시민을 떠올리게 한다. 짐작건대 강강약약은 한 대표의 정치적 신념, 나아가 인생 모토가 아닐까 싶다. 한 대표는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그렇게(강강약약으로) 살아왔다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때로 시계를 돌려 보면 실제로 그런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21대 국회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표의 국회 상임위 및 본회의 출석 때마다 총공세를 폈다. 야당의 집중포화에도 한 대표는 물러서지 않고 설전을 벌여 보수층에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인 김예지 의원을 배려한 대정부 질의 장면도 화제였다. 김 의원이 한 대표에게 질의를 한다고 하자 그는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라며 자신이 연단에 섰음을 알렸다. 사람으로 치면 강강약약 캐릭터는 이상적이고 매력적이지만 현실에선 안타깝게도 강약약강(强弱弱强·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이 더 출세하고 잘나가는 편이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한 대표는 "정치와 사회의 기본적 구조에는 강강약약이 관통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때가 더 많다. 한 대표가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강조하고 있는 정치개혁에 관해서도 기성 정치권은 애써 거부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강'이 정치의 영역이라면 '약약'은 민생이다. 한 대표가 관심을 가진 격차 해소, 청년	진은정	삭제
1438	2024-10-31 18:04	한동훈 사퇴하라고 난리더니 이럴 땐 한동훈 뒤로 숨냐!!! 비겁한 건들	.	안동훈	삭제
1439	2024-10-31 18:07		용산은 당에 똥묻히지 말고 결자해지 하길. 한동훈 중심으로 깨끗한 의원들 모여 당 쇄신 하자	허수옥	

1440	2024-10-31 18:15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윤 대통령 결단과 쇄신만이 난국 푸는 열쇠	“비정치적 지도자, 멍청하다는 뜻” 성자필쇠라고는 하나 수십 년 만에 무너지는 나라도 있고 수백 년 번영을 구가한 국가도 있다. 희비를 가르는 게 리더십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치적 타협’과는 선을 그었다. 형사 피의자라는 이유로 2년여 야당 대표를 냉대했고, 자신에게 반발하는 사람들은 우군이라도 자리를 빼앗거나 당 밖으로 내쳤다. 야당의 노골적인 대통령 망신주기에 반발해 국회 개원식(9월 2일)에 불참한 데 이어 11월 초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도 건너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논란엔 “힘든 상황이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며 ‘마이 웨이’를 부르고 있다. 수사 검사로는 훌륭한 덕목일지 모르나 대통령이 취할 태도는 아니다. 대통령 권력이란 선거를 통해 국민이 일시적으로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언제든지 위임했던 권한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대통령이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는 선호의 문제가 아니다. 국익의 명령을 실행해야 하는 책무다.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 해야 할 일이 뭐냐를 찾아야 한다”(한광옥 전 민주당 대표)는 고언도 같은 맥락이다. 헨리 키신저는 저서『리더십』에서 “리더는 두 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첫째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축이고, 둘째는 불변의 가치와 리더를 따르는 사람의 열망	최영옥	
1441	2024-10-31 20:19	동훈만이 보수의 희망인듯. 혼자 깨끗하니 구태들이 못잡아먹어 안달. 국힘 물갈이 해야함	.	동훈	삭제
1442	2024-10-31 20:20	수세력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으면 어떻게든 빨리 수습하려고 노력하는 게 지도자가 할 일이다	보수세력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으면 어떻게든 빨리 수습하려고 노력하는 게 지도자가 할 일이다. 그런데 치졸한 방법으로 고립시키고, 부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집권당 대표치고, 온전히 성해서 나간 사람이 없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치고, 협량한 보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너도 나도 비위나 맞추며 사리를 도모하니 집권당 꼴이 말이 아니다.	진은정	삭제
1443	2024-10-31 20:21	킹동훈은 저런 말할 자격 있지. 국힘과 개혁신당은 명태균 게이트, 민주당은 도보트 게이트	.	한지윤	
1444	2024-10-31 20:22		.	허수옥	
1445	2024-10-31 20:25	용산은 당에 똥묻히지 말고 결자해지 하길. 한동훈 중심으로 깨끗한 의원들 모여 당 쇄신하자	.	한지윤	

1446	2024-10-31 20:25	김건희 논란엔 “힘든 상황이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며 ‘마이 웨이’를 부르고 있다. 수사 검사로는 훌륭한 덕목일지 모르나 대통령이 취할 태도는 아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치적 타협’과는 선을 그었다. 형사 피의자라는 이유로 2년여 야당 대표를 냉대했고, 자신에게 반발하는 사람들은 우군이라도 자리를 빼앗거나 당 밖으로 내쳤다. 야당의 노골적인 대통령 망신주기에 반발해 국회 개원식(9월 2일)에 불참한 데 이어 11월 초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도 건너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논란엔 “힘든 상황이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며 ‘마이 웨이’를 부르고 있다. 수사 검사로는 훌륭한 덕목일지 모르나 대통령이 취할 태도는 아니다. 대통령 권력이란 선거를 통해 국민이 일시적으로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언제든지 위임했던 권한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대통령이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는 선호의 문제가 아니다. 국익의 명령을 실행해야 하는 책무다.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 해야 할 일	최영옥	
1447	2024-10-31 20:26		한동훈만이 보수의 희망인듯. 혼자 깨끗하니 구태들이 못잡아먹어 안달. 국힘 물갈이 해야함	허수옥	
1448	2024-10-31 20:28	정치브로커에 의존해서 선거 이기려던 자들 윤석열 홍준표 오세훈 김영선 나경원 원희룡 이준석유한홍 등등	.	한지윤	

1449	2024-10-31 20:29	굳건한 벽을 깨고 한동훈표 강강약약 정치는 순항할 수 있어야한다	. 강한 상대에게 강하고 약한 상대에게 약하다는 뜻의 신조어인데, 보수의 새 브랜드로도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서 '강'은 기득권과 특권을, '약'은 소외된 약자들과 그가 주창한 동료 시민을 떠올리게 한다. 짐작건대 강강약약은 한 대표의 정치적 신념, 나아가 인생 모토가 아닐까 싶다. 한 대표는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그렇게(강강약약으로) 살아왔다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때로 시계를 돌려 보면 실제로 그런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21대 국회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표의 국회 상임위 및 본회의 출석 때마다 총공세를 폈다. 야당의 집중포화에도 한 대표는 물러서지 않고 설전을 벌여 보수층에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인 김예지 의원을 배려한 대정부 질의 장면도 화제였다. 김 의원이 한 대표에게 질의를 한다고 하자 그는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라며 자신이 연단에 섰음을 알렸다. 사람으로 치면 강강약약 캐릭터는 이상적이고 매력적이지만 현실에선 안타깝게도 강약약강(强弱弱强·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이 더 출세하고 잘나가는 편이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한 대표는 "정치와 사회의 기본적 구조에는 강강약약이 관통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때가 더 많다. 한 대표가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강조하고 있는 정치개혁에 관해서도 기성 정	진은정	삭제

1450	2024-11-01 13:19	明씨 파문 심각 국면, 대통령 부부 직접 해명 불가피하다[사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은 이전 공개된 녹취와는 그 차원이 다르다.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공개한 명 씨와의 통화 내용은 전언(傳言) 형태였지만, 이번엔 윤 대통령 육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내용도 심상치 않다.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말했다. 17초 분량이지만, 여러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와 윤 대통령 사이에 누가 메신저 역할을 했는지,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닌지 등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그동안의 대통령실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녹취를 폭로한 민주당은 윤석열-명태균 통화가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이뤄졌고, 다음날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 전략공천 됐다는 사실을 들어 불법 공천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대통령실은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며 “공관위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해명으로 볼 수 없다.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 중립 의무 대상 공무원(공직선거법 제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부터 구차하다. 해당 조문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라는 규정이 추가돼 있을 뿐 아니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정치 중립 대상자를 확대 해석하는 게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공관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한 만큼, 별도 비선(秘線)의 존재 가능성도 시사한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급기야 10%대(문화일보 여론조사 17%, 한국갤럽 정기조사 19%)로 떨어졌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 김 여사 문제라는 게 더 뼈아프다. 대통령실과 여당도 대통령 부부의 인간관계와 발언 전모를 몰라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한다. 이미 많	진은정	삭제
1451	2024-11-01 13:21	지지율 한동훈 40 국민의힘 32 윤 석열 18.8%	갤럽	한지윤	
1452	2024-11-01 13:23	조선일보) 윤 대통령 얼굴에 먹칠을 한, 참모는 정리해야 한다. 매년 10억원 가까운 세금을 꼬박꼬박 태우고 있는 특별감찰관은 조속히 추천-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면담’ 의전에서 참사를 일으켜놓고 그중에서도 희한한 사진만 자랑이랍시고 골라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린, 그래서 한 대표가 아니라 윤 대통령 얼굴에 먹칠을 한, 참모는 정리해야 한다. 매년 10억원 가까운 세금을 꼬박꼬박 태우고 있는 특별감찰관은 조속히 추천-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동훈한테 굴복하는 꼴이 될까 봐” 같은 핑계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보통명사가 고유명사로 변한 ‘여사’ 문제는 대중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매조지해야 한다. 급기야 대통령의 육성 녹음 파일까지 나온 명태균 문제도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눙치고 갈 순 없다. 다수 야당에 수모를 당하	최영옥	

1453	2024-11-01 13:27	여당대표가 힘합쳐 국정 운영을 주도해 나가라 김건희 농단 놔두면 큰일난다	윤석열이 역대 대통령이 하던 관례대로 정치를 했으면 건국 이래 최악의 대통령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윤의 몰상식을 보자. 1) 연두기자 회견을 안 한다. 2) 기자회견을 안 한다. 3) 야당 대표도 안 만나준다. 4) 여당 대표는 수시로 만나서 의논해야 하는데, 여당 대표도 안 만나준다. 5) 이태원 사고 났을 때 역대 대통령들은 주무 장관을 민심 수습 차원에서 경질해온 게 관례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경질 안했다. 6) 역대 대통령들은 자식이 문제되면 깨끗이 처리했다. 김영삼은 김현철을, 김대중은 두 아들을 감옥 보냈다. 윤석열은 부인이 후보 때부터 말썽을 부려도 적어도 "성역"으로 둔다. 그러면서 정권이 망조가 들었다. 7) 역대 대통령은 취임하면 "적폐청산"부터 해서 분위기를 쇄신하고 자기 통치 기반을 만들었다.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분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까지 감옥에 넣었다. 윤석열은 문재인을 수사도 안하고 처벌도 안한다. 이렇게 제멋대로 하니 망하는 것이다	한동훈	삭제
1454	2024-11-01 13:33		여야 대표의 역할 평가에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해 40%,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41%가 각각 '대표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허수옥	
1455	2024-11-01 13:33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 탈당이 일단 답입니다. 그리고 도이치등 사건에 한정 중립적 특검 선제적 발의해라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 탈당이 일단 답입니다. 그리고 도이치등 사건에 한정 중립적 특검 선제적 발의해라	한지윤	
1456	2024-11-01 13:35	윤은 애초부터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중도층은 물론이고 보수층 절반 이상이 요구하는 것들은 받아들여야 한다.	국내 정치적 난제들과 글로벌 불안정에 대한 구체적 해법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해법을 실행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기반에 대한 공감대는 나와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몰라도 신뢰도는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 땅에 떨어진 대통령 말의 무게, 말의 값이 더 올라가야 한다. 그 기반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실천이 어려워서 그렇지 방법은 명확하다. 보수·진보 언론 할 것 없이 입을 모으는 것들, 애초부터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중도층은 물론이고 보수층 절반 이상이 요구하는 것들은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면담' 의전에서 참사를 일으켜놓고 그중에서도 희한한 사진만 자랑이랍시고 골라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린, 그래서 한 대표가 아니라 윤 대통령 얼굴에 먹칠을 한, 참모는 정리해야 한다. 매년 10억원 가까운 세금을 꼬박꼬박 태우고 있는 특별감찰관은 조속히 추천-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동훈한테 굴복하는 꼴이 될까 봐" 같은 핑계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보통명사가 고유명사로 변한 '여사' 문제는 대중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매조지해야 한다. 급기야 대통령의 육성 녹음 파일까지 나온 명태균 문제도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눙치고 갈 순 없다. 다수 야당에 수모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단상에 서는 게 맞다. "돌을 맞으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같은 말 대신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진은정	삭제

1457	2024-11-01 13:37		친윤친건 간신배 하다가 한동훈한테 <해줘>하는 인간들 혐오감 맥스다. 국힘은 저런 구태들 손절하고 변화하고 쇄신해라	허수옥	
1458	2024-11-01 13:40	한동훈처럼 공직자는 주변관리 철저하게 해야함 특히 고위공직자로 갈수록 더욱더 그래서 고위직 하려는사람들은 주변관리 철저히하는건데	이게 어느순간 꼬집어말하면 좌파들이 정권잡으면서 (윤석열 김건희 포함) 분에넘치는 자리를 꿰차고 경력이고 나발이고 친분관계로 좌지우지되고 정통관료들 무시하고 니들이나 나나 뭐 능력면에서 별 차이가있냐는 발상으로 중요 직책에서 개판치는게 정배되니까 관료들도 묵묵히 열일하는사람은 승진도 못하고 의욕떨어지고 관료중에서도	한동훈	삭제
1459	2024-11-01 13:42		윤 대통령은 국민 신뢰를 잃었다. 이제 윤 대통령에게 공정과 상식은 사치스러운 단어가 됐다. 쓴소리나 고언을 귀담아 듣지 않는 고집불통 대통령이다. 주변에 간신배들만 득실거린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탈당하고 필요최소만 해라. 한 대표의 충언을 받아들여야	허수옥	
1460	2024-11-01 13:44	윤 대통령의 대구·경북(TK)지지율은 지난주 조사 대비 8%포인트 하락한 18%로 나왔다. TK 지지율이 10%대로 나타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전국 평균 지지율(19%)보다 1%포인트 낮은	이런데도 한동훈 죽이기에만 몰두하는 석두 윤석열! 한동훈의 쓴소리를 들었더라면 이런 사태도 사전에 예방되었을거고 리재명 민주당에 대한 투쟁에 집중할 수 있었을것이다. 국힘 한동훈이 민주당 리재명 투쟁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내부총질 운운하는 윤핵관 간신들부터 처단하라....지금이라도 정신차리면 사는길이 생긴다.	한지윤	
1461	2024-11-01 13:45	윤 대통령 취임 직후 특별감찰관이 가동됐다면 김 여사 스스로 말과 행동을 경계하도록 하고, 문제의 소지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일정 역할을 했을 수 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늦어도 현 정부 초반에는 매듭지어 졌어야 할 문제다. 특별감찰관 결원 시 30일 안에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의무다. 하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박근혜 정부는 후임을 정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5년을 흘려보냈다. 이를 비판했던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교체됐고 대통령직인수위는 특별감찰관을 곧 가동할 것처럼 얘기했다. 그러더니 윤 대통령 취임 20일 만에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놓고 대통령실에서	최영옥	
1462	2024-11-01 13:48	한동훈만이 보수의 희망인듯. 혼자 깨끗하니 구태들이 못잡아먹어 안달. 국힘 물갈이 해야함	국민의힘의 소위 친윤들이 정말 당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기로 작정했나봐. 한동훈이 총선 때부터 물밑으로 소통을 했지만 윤석열이 아에 무시했으니 어쩔 수 없이 수면위로 끌어올린 것이지 정말 윤석열은 비서실장을 배제하고 김건희의 십상시가 판치는 대통령실을 만	한동훈	삭제

1463	2024-11-01 13:48	서울) 대통령실의 뒷북 해명이 의혹을 계속 증폭시킨다. 대선 경선 후 명씨와 문자나 통화를 한 적 없다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의 뒷북 해명이 의혹을 계속 증폭시킨다. 대선 경선 후 명씨와 문자나 통화를 한 적 없다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공천 개입을 입증할 물증이 더 있다고 압박하지만 여당은 논평 한마디도 못 내고 있다. 명씨는 온갖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 부부를 앉혀 놓고 최재형 총리 임명을 건의했다” 등의 폭탄 발언을 이어 간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무슨 말 못할 사정인지 그의 처분에 맡겨진 듯 끌려가고, 명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은 그를 소환 한 번 못 하고 있다. 이런 요지경이 없다. 민주당은 녹취록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강력히 압박할 태세다. 당장 주말부터 시작하는 장외투쟁에서 김 여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을 정조준할 것이다. 사정이 이	진은정	삭제
1464	2024-11-01 13:55	[사설] 끝 모를 명태균 의혹·김건희 리스크 조속히 해소해야 진실 숨기면 특검 필요 여론 커질 뿐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은 이제 ‘명태균 게이트’로 불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김건희 리스크’에 국정의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지난 29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이 회동을 갖고 “대통령실이 현안을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권 위기감이 오죽 심각했으면 여권 중진이 나섰겠나. 의혹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이러니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면 특검밖에 없다는 여론이 고개를 든다. 대통령이 결자해지하지 않는다면 특검 지지 여론은 더욱 커질 것이다. 대통령에 진실의 시간이 시	최영옥	
1465	2024-11-02 0:57	갤럽 서울 한동훈40% 이재명32% 윤석열22%	윤석열 끝났음	진형구	
1466	2024-11-02 1:04	보수권력과 지지층이 한동훈으로 거의다 이동하고있음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중	진형구	
1467	2024-11-02 2:31	[사설] 마침내 10%대까지, 국민 지지 없는 권력은 아무 일도 못 한다	부정 평가 이유는 누구나 아는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17%로 가장 높았다.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선 김 여사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특검 수사’를 꼽은 응답자가 57%에 달했다. ‘민주당 추천 특검’이 김 여사를 수사하는 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데도 응답자 54%가 ‘잘한 결정’이라고 했다. 최근 김 여사의 공천·국정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민 인내심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불화 배경에도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깔려 있다. 그런 가운데 한 대표의 당	최영옥	

1468	2024-11-02 20:44	[광화문·뷰] 지금 尹 대통령 곁에 누가 남았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공직자로서의 소명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자의적 지배를 거부하고 법과 제도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자신의 말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 '격노(激怒)'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주 등장한 정부는 없었다. 인사(人事)도 대통령에 대한 충성, 대통령과의 친소(親疏)가 기준이 되다 보니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인사는 대통령이 발신하는 중요한 메시지인데, 할 때마다 '검찰 라인'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뒷말로 덮였다. 입바른 보고를 했다가 윤 대통령에게 "당신은 누굴 위해 일하는 거냐"라는 식의 말을 듣은 용산의 참모들	진은정	삭제
1469	2024-11-02 20:46		저게 사실이라면 역시 한동훈의 공천개입 말은게 용산과 특여진 근본 이유네	허수옥	
1470	2024-11-02 20:47	명태균 24년 공천 김건희랑 통화 기사 보니 24년 공천은 한대표가 지킨	.	한지윤	
1471	2024-11-02 20:49	한대표가 보수와 국힘울 지켰네요. 총선 마지막날 쓰러지기 직전까지 외쳤던게 생각이 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대표만 빛이 납니다. 보수	한대표가 보수와 국힘울 지켰네요. 총선 마지막날 쓰러지기 직전까지 외쳤던게 생각이 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대표만 빛이 납니다. 보수의 희망이자 등불입니다. 파이팅	한동훈	삭제
1472	2024-11-02 20:50		.	허수옥	
1473	2024-11-02 20:56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가 3주 연속 경제·민생과 함께 부정 평가 이유의 최상위에 올랐다. 김 여사 문제를 푸는 데서부터 지지율 회복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김 여사 문제는 두 방향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서 잇따라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사법적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하나이고, 갈수록 커지는 '선거 브로커 명태균 논란'에서 보듯 김	동아사설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가 3주 연속 경제·민생과 함께 부정 평가 이유의 최상위에 올랐다. 김 여사 문제를 푸는 데서부터 지지율 회복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김 여사 문제는 두 방향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서 잇따라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사법적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하나이고, 갈수록 커지는 '선거 브로커 명태균 논란'에서 보듯 김 여사가 일반적인 영부인으로서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넘어 정당 공천과 정부 인사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혹이 다른 하나다. 이런 의문과 의혹을 불식시키지 않고서는 지지율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영옥	
1474	2024-11-02 20:59		.	허수옥	

1475	2024-11-02 21:00	명태균 단독 보니 22년 공천개입은 했으니 24년도 해줄줄 알고 있던거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살렸네요. 용산 부부 고마운지 아세	명태균 단독 보니 22년 공천개입은 했으니 24년도 해줄줄 알고 있던거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살렸네요. 용산 부부 고마운지 아세요	한지윤	
1476	2024-11-02 21:11	엠비엔 단독보니 22년 공천은 김건희가 해준거고 24년에 요청했는데 안해줬다-->한동훈이 막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용산부부가 한대표를 저렇게 홀대하고 배척하고 못죽여	한동훈 선거공관위가 잘했다는거네ㅋ그 한 공관위원 김영선 경선 제기 누구냐 기자회견한 놈이냐 알겠네 뒷구멍이 안먹혀서 그렇게 한동훈괴롭히는건가 싫어하는이유냐구	한동훈	삭제
1477	2024-11-02 21:13	와.. 김영선 공천 김여사 말 안 들어줬다고 그때부터 윤부부가 한동훈을 괴롭혔지 그때 김여사 말 안 들	반한들 난리치는 이유가 이거야..그동안 자기들 나름의 공들였거나 해먹었던게 안먹히니까.. 집권여당의 공정성이 한동훈으로 지켜진거네.. 친윤이나 개딸이나 매국노들이야…	한지윤	

1478	2024-11-02 21:15	[단독] 명태균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러는 게 원래 정상인데"??	【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마지막 통화 시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명 씨는 지난 2월 칠불사에 가기 전이라고 답했습니다. 창원이 지역구인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컷오프 대상이었는데, 험지인 김해로 갈 테니 단수 공천을 도와달라는 전화였습니다. ▶ 인터뷰 : 명태균 씨(지난주 MBN 취재) - "딴 데는 다 험지 가는데 왜 김영선이는 이럽니까. 이거 집권 여당 공천이라는 게 공정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얘기했지. 여사가 자기가 할 수 없대 알아보지도 않아." 40분 넘게 김 여사와 통화도 했지만 반응이 좋지 않자 김 여사 텔레그램 폭로를 조건으로 개혁신당에 김 전 의원 공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칠불사 회동을 기획한 겁니다. 명 씨는 당시 통화에서 김 여사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말해 크게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 인터뷰 : 명태균 씨(지난주 MBN 취재) -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러는 게 원래 정상인데 제가 힘이 없어요. 거기 가서 경선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 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을 언급하며 나중에 사정을 알고 여사에게 미안했다고도 했습니다.	최영옥	
1479	2024-11-02 21:17	22년 보궐에 이어 24년 총선 영향력 시도....한동훈 아녔으면 국힘 박살났겠네 이런.. 김건희씨 도대체 무슨짓까지 한겁니까 보수 망칠려	.	한동훈	삭제

1480	2024-11-02 21:20	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결정적인 것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핵심 가치의 붕괴라고 생각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공직자로서의 소명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자의적 지배를 거부하고 법과 제도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자신의 말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 '격노(激怒)'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주 등장한 정부는 없었다. 인사(人事)도 대통령에 대한 충성, 대통령과의 친소(親疏)가 기준이 되다 보니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인사는 대통령이 발신하는 중요한 메시지인데, 할 때마다 '검찰 라인'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뒷말로 덮였다. 입바른 보고를 했다가 윤 대통령에게 "당신은 누굴 위해 일하는 거냐"라는 식의 말을 들은 용산의 참모들은 단명했다. 윤 대통령을 지원했던 원로(元老)들은 어느 순간부터 고언(苦言)을 포기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명태균 파문'에 대한 대응, 하나만 봐도 지금의 대통령실로는 격랑을 헤쳐나가기 어려워 보인다. 여권의 한 인사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선조가 책봉한 공신 중에는 전장에서 싸웠던 장수보다 임금의 피란길을 따라갔던 수행원이 더 많이 포함됐다"면서 "윤 대통령 임기 중반을 맞는 지금 용산이 딱 그렇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명태균 이슈가 계속 굴러가는데도 손 놓고 있다가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파일을 공개한 야당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 특별감찰관 추천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 사과'로 수습을 모색할 국면도 이미 지나 버렸다.	진은정	삭제

1481	2024-11-03 0:11	'보수 심장' 대구경북마저 18%	"전통적 보수 지지층마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한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대가 붕괴된 19%로 나타나자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육성 녹취 공개 후폭풍 속에 보수 핵심 지지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등 영남, 국민의힘 지지층, 60대 이상 등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뒷받침했던 보수 핵심 지지층의 민심 이반 현상이 심각해지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후 지지율 하락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진은정	삭제
1482	2024-11-03 0:13	한동훈이 김영선 공천 막아서 다행이지 공천 마음대로 못하니까 총선, 전대 때 한동훈 죽이기 한 거 아직	역시 한동훈! 이러니 한동훈 한동훈하는겁니다 보수가 살길은 무식하고 멍청한 윤통부부 버리고 한동훈대표를 중심으로 똘똘뭉쳐야 삽니다 정신바짝 차리고 한동훈으로 뭉칩시다	한지윤	
1483	2024-11-03 0:14		총선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를려고 했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한동훈이 있었기에 개헌저지선 지킨거지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용산내외가 몰아냈다면 지금쯤 좌파들의 탄핵 청구에 벌벌떨면서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겠죠. 보수여당의 마지막 보루인	허수옥	
1484	2024-11-03 14:32	추경호 용산 번개멤버.	.	한동훈	삭제
1485	2024-11-03 15:44	윤석열 녹취록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해명해야지 명태균이랑 끈끈하게 엮여 있는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나경원이 알	ㅇㅇ	한동훈	삭제
1486	2024-11-03 15:46		.	허수옥	
1487	2024-11-03 15:47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민심을 읽지못 했고 지금 벌어진 일들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국민앞에 설명하고 쇄신하지 않으	쪼잔하게 유튜버들이나 데리고 정치하는 대통이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지만	한지윤	

1488	2024-11-03 15:49	[사설] 마침내 10%대까지, 국민 지지 없는 권력은 아무 일도 못 한다	부정 평가 이유는 누구나 아는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17%로 가장 높았다.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선 김 여사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특검 수사'를 꼽은 응답자가 57%에 달했다. '민주당 추천 특검'이 김 여사를 수사하는 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데도 응답자 54%가 '잘한 결정'이라고 했다. 최근 김 여사의 공천·국정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민 인내심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불화 배경에도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깔려 있다. 그런 가운데 한 대표의 당 운영방식에 대한 지지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비해 두 배가량인 점도 눈에 띈다.	최영옥	

1489	2024-11-03 18:58	“尹 침묵하면 다 죽는다”…TK서 대통령 지지율 13%p 빠질 때 여당은 9%p 올라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 실망과 정권교체 위기감 동시 표출”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침묵하면 우리 모두 죽는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TK 지역 한 여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좀 말끔하게 정리해줬으면 하는데 그게 안 된 채 당정이 싸우기만 하는 데 대한 실망감이 큰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TK 의원은 “탄핵 트라우마가 큰 보수층은 요새 뉴스도 안 보고 여론조사 응답도 잘 안 한다”고 전했다. 여권의 시선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 공개 이후 침묵을 이어오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로 쏠리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표직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40%를 받았다. 한 대표에 대한 TK 지지율은 46%로 윤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는 28% 포인트에 달한다. 한 대표는 4일 명씨 문제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을 대통령실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한 대표가 당내 중진은 물론 대통령실과도 물밑에서 여러 의견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대통령실 등이 명씨와 통화 당시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신분을 강조하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옹호한 데 대해서도 “최악의 수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진은정	삭제

1490	2024-11-03 18:58	의료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해 왔고 지금 짜임새를 갖춰가고 증권과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금투세 폐지 띄워 많은 국민들이 지금 특히 1400만 개미들이 전폭적인 지지 보내는중이고 100일 동안 정책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이끌어 갔다는 점이 의미가 있고 윤의 독선 결과인 수직적 당정 관계였다를 수평적 당정 관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할 말은 하는 그런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모습, 보수의 리더	의료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해 왔고 지금 짜임새를 갖춰가고 증권과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금투세 폐지 띄워 많은 국민들이 지금 특히 1400만 개미들이 전폭적인 지지 보내는중이고 100일 동안 정책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이끌어갔다는 점이 의미가 있고 윤의 독선결과인 수직적 당정 관계였다를 수평적 당정 관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할 말은 하는 그런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모습, 보수의 리더로서의 어떤 미래를 보여줬다 (최진녕의 한대표의 100일에 대한 평)	한지윤	
1491	2024-11-03 18:59		#서울 대통령 22% 한동훈 대표 40% #대구경북 대통령 18% 한동훈 대표 46% #부울경 대통령 22% 한동훈 대표 48% #호남 대통령 6% 한동훈 대표 31% #국민의힘지지층 대통령 44% 한동훈 대표 68% #보수층 대통령 33% 한동훈 대표 55%	허수옥	

1492	2024-11-03 19: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취임 100일을 이번 주에 맞았습니다. 혹자는 절반의 성공이다 라고도 하고 아직까지 성과를 낸 것이 무엇이냐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어지러운 정국에서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제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어려운 시점에 젊은 정치인으로서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선전해 왔다라고 평가하는 취지에서 이번 주에 승자로 한동훈 대표를 꼽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대통령 여러 가지 여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취임 100일을 이번 주에 맞았습니다. 혹자는 절반의 성공이다 라고도 하고 아직까지 성과를 낸 것이 무엇이냐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어지러운 정국에서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제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어려운 시점에 젊은 정치인으로서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선전해 왔다라고 평가하는 취지에서 이번 주에 승자로 한동훈 대표를 꼽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대통령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봐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보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은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노력이 저는 있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주에 어떤 승자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로 했는데요. 본인이 이번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그러면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이른바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해 왔고 어느 정도 지금 그 모임이 지금 짜임새를 갖춰가고 있는 그런 부분 더불어서 증권과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금융투자 세율을 폐지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특히 1400만 개미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100일 동안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이끌어갔다는 점이 나름 의미가 있고 더불어서 종전에 같은 경우에는 당정 관계가 수직적 당정 관계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있었던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사실상 독대를 이끌어내면서 수평적 어떤 당정 관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할 말은 하는 그런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은 그래도 적어도 보수의 리더로서의 어떤 미래를 보여줬다는 그런 점에서는 적어도 이번 주에 국민의힘 쪽의 승자는 한동훈 대표로 뽑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신율 : 앞서 말씀드린 한국갤럽 조사요 조사 기관 말씀드렸으니까요. 여기서 보면 한동훈 대표의 역할 평가가 있어요. 긍정이 40 부정이 49 이재명 대표의 역할 평가 긍정 40 부정 5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이게 요새 수평적 관계가 아	최영옥	
1493	2024-11-03 19:02	한동훈대표 말좀 들어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지율 더 하락합니다. 용산 간신들이 나라와 대통령을 망치고 있다. 지적한 측신은 한동훈이다	확실한건 근자에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요구사항(?)은 지극히 합당하고 또 그길을 모색해야만이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의 삶,나아가 많이 늦었지만, 아니 퇴보하였지만 모든것이 조금이라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수 있는 기회가 마련 될수 있다고 본다. 근	한동훈	삭제

1494	2024-11-03 20:02	[사설]“김영선 좀 해 줘라 그랬는데” 尹 육성 확인… 그 충격과 후폭풍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 씨를 매개로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녹음 파일은 공개된 적이 있지만 핵심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긴 파일 공개는 처음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을 시사했던 기존 파일들과 달리 이날 통화 내용은 윤 대통령의 개입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충격이 크다. 민주당이 제보받았다며 이날 재생한 파일은 윤 대통령이 취임식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명 씨와 통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하자 명 씨는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통화가 이뤄진 다음 날 김 전 의원은 연고가 없는 경남 창원의창 6·1보궐선거에서 공천을 신청한 다른 7명을 제치고 단수 공천을 받았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정무수석실을 통해 여론조사를 하고 선거 및 경선 전략을 수립하도록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교롭게도 당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책임자가 윤 대통령인데 당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언급할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지만, 김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된 날은 대통령에 취임한 날이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더구나 대선 후보 시절 명 씨가 해준 여론조사 비용 3억7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을 줬다는 거래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어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등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명 씨가 문제의 통화를 하던 상황을 지인에게 묘사하는 녹음 파일도 공개됐다. 내용 중에는 명 씨가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 그거 처리 안 했어?…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담당에 자신의 공천 요구를 들어주는 통화를 김 여사 앞에서 보란 듯이 했다는 뜻으로 들린다. 김 여사가 공천과 국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세간의 의혹을 뒷받침해주는 듯한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 명 씨가 김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폭로로 “2021년 경선 막바지 이후 명 씨와 관계를 끊었다”는 대통령실의 기존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나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증폭될 전망이다. 영부인이 아닌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정치적 법적 책임 여부를 더욱 엄격히 가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진은정	삭제

1495	2024-11-03 20:11	당 지지율은 오히려 2% 올라서 민주당과 경합이고,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은 대통령의 두 배다. 국민이 국민의힘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이고, 정권을 야당에게 내주지 않고 재집권의 희망을 키워가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희망은 있다. 어제 민주당 집회에 만오천명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과 당의 생사를 걸고 총동원령을 내렸는데도 그것밖에 모이지 않았다. 일반 시민은커녕 당원들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싫어도 이재명이 대안은 아니며, 이재명 집권의 길을 열어주는 탄핵은 안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락하고 있지만 당 지지율은 오히려 2% 올라서 민주당과 경합이고,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은 대통령의 두 배다. 국민이 국민의힘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이고, 정권을 야당에게 내주지 않고 재집권의 희망을 키워가겠다는 것이다.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나라를 살릴 방도를 생각하는 것이고, 국민의 마음을 살피고 민심을 대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적폐수사에 대한 반감 때문에 고뇌 끝에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던 TK 지역이, 지금은 대통령에게서 빠르게 빠져나가면서도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에게는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이 상징적이다.	최영옥	
1496	2024-11-03 20:25	김건희 올 2월달에 명태균과 40분 통화 ..... 구제불능	걍 정리해버려야됨	진형구	
1497	2024-11-03 20:30	윤석열 대구경북 부정평가 78% 국힘 긍정53%	통치동력상실 멀해도 안됨	진형구	
1498	2024-11-03 20:55	尹,韓 회담 성과없다 尹책임 73% 韓 책임 10%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97881	진형구	

1499	2024-11-04 20:22	한동훈 측에서 '대통령 내외와 명씨 관련 내용을 알려주면 당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요청해도 묵묵부답인 대통령실. 뉴스를 보니, 친윤들을 통해 해결해보려고 한다죠? 잘하셨네요. 한남동 십상시와 친윤 무리들이 있는데 뭐가 걱정인가요? 용산부부 일은 저 사람들에게 맡겨놓으시고 당대표는 민생을 챙겨주	한동훈 측에서 '대통령 내외와 명씨 관련 내용을 알려주면 당에서 적극대응하겠다'고 요청해도 묵묵부답인 대통령실. 뉴스를 보니, 친윤들을 통해 해결해보려고 한다죠? 잘하셨네요. 한남동 십상시와 친윤 무리들이 있는데 뭐가 걱정인가요? 용산부부 일은 저 사람들에게 맡겨놓으시고 당대표는 민생을 챙겨주시길요	한동훈	삭제
1500	2024-11-04 23:40	[사설]"돌 맞아도 간다"던 尹, 국회도 피하면서 뭘 하겠다는 건지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앞에 두고 훈시하듯 하는 자세를 취한다고 위엄이 서는 게 아니다. 반대로 대통령이 야당의 조롱이나 야유 정도 받는다고 위엄이 훼손되는 게 아니다. 진정한 위엄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에서 나온다. 그런 사람만이 상대편의 조롱과 야유를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 대통령이라면 국민을 믿고 가야 한다. 야당이 국회에 시정연설하러 온 대통령을 향해 도를 넘는 행패를 부리면 국민이 그에 맞게 평가하지 않겠는가. 인기가 없어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반대로 대통령에게 국민은 그들이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아도 국민이다. 말로만 국민을 믿고 간다고 하고 실제로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다가 지지율 10%대(한국갤럽 조사)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APEC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미를 방문한다. 출국까지는 열흘이나 남았는데도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은 해외 순방을 다녀와 이달 하순에나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가 돌연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7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결과 등을 본 뒤 입장을 밝히려 했다가 여권 내 기류, 여론 흐름 등이 심상치 않자 계획을 바꾼 걸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했으나 엄청난 세수 결손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연금 의료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을 역설했으나 낯은	진은정	삭제
1501	2024-11-04 23:40	한동훈이 요구한건 국민과 당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윤석열은 이것부터 이행해라	한동훈이 요구한건 국민과 당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윤석열은 이것부터 이행해라	한지윤	

1502	2024-11-04 23:41	[천광암 칼럼]'지지율, 기시다보다 높은데 뭘…' 용산의 기막힌 정신승리	10%대 지지율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알려면, 올해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당시 미국의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G7 정상회의에 맞춰 내보낸 기사에 '레임덕 6명과 조르자 멜로니'라는 제목을 달았다. 당시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만 지지율이 40%를 넘고 나머지는 그 미만이라고 해서 붙은 제목이다. 당시 모닝컨설트 기준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30%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은 20%대, 기시다 일본 총리는 10%대 지지율이었다. '레임덕 잣대'로 40%는 너무 높은 허들이 아닐까. 이후 벌어진 일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전 도중 연임 도전 포기를 선언했고, 수낵과 기시다 총리는 이미 퇴진했다. 각각 내년 9월과 10월 총선을 앞둔 숄츠 총리와 트뤼도 총리는 국정 주도권을 상실한 채 퇴임 압력을 받고 있고, 재선 임기가 2027년 5월까지인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봄 조기 퇴진론'이 나오는 중이다. 서방의 어느 잣대를 빌려오더라도 윤 대통령 10%대 지지율은 심각한 레임덕 수준인 셈이다. 문제는 이대로 레임덕을 맞기에는 윤 대통령이 해놓은 일이 너무 없다는 점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노동·교육·의료·연금 4대 개혁 및 저출생 극복을 강조해 왔지만, 손에 쥘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는 거의 없다. 남은 절반의 임기 중에라도 개혁 성과를 내려면 내부 결속과 국민의 안정적 지지 확보가 필수적인데, 여당은 '여사 리스크'를 둘러싼 갈등과 윤 대통령의 고집으로 이미 두 동강이 났고 중도층은 지지를 접은 지 오래다. 그런데도 용산의 위기의식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는데 특검은 고사하고, 특별감찰관 도입마저 싫다고 버티는 중이다. 대통령 부부의 진솔한 사과는 감감무소식이다. 대통령 참석이 관행인 국회	최영옥	
1503	2024-11-04 23:42		지난 2년동안 용산이 사고 터질때마다 매번 거짓말해서 되치기 당한적이 어디 한두번이냐 도대체 뭘 믿고 대응을 해주지? 대충 편들다가 민주당이 대선 후 녹취도 틀면 당은 어떻하냐? 누가 책임져줘?	허수옥	
1504	2024-11-04 23:44	극우 서정욱이 이재명 지지자였다며 ㅋㅋㅋㅋ 여기 쓰고 있는 자통당도 다 이재명지지자 아님???? 대선에 이재명 나오면 이재명 찍으실 분	극우 서정욱이 이재명 지지자였다며 ㅋㅋㅋㅋ 여기 댓쓰고 있는 자통당도 다 이재명지지자 아님???? 대선에 이재명 나오면 이재명 찍으실 분들이 한동훈에 왜이리 집착이실까~	한동훈	삭제

1505	2024-11-04 23:45	대통령 대신 한 총리 출석… 울림없어 “돌 맞아도 가겠다”던 결기 어디 갔나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자평했다. 고물가·고금리와 내수부진에 시름하던 국민은 윤 대통령 부부 때문에 참담함까지 느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국격을 훼손했다. 공천 개입 의혹으로 여당은 쑥대밭이다. 준비 안된 의료개혁은 국민 생명을 위협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민심을 다독이지 못했다.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이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한 대표조차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게 한국 정치의 현주소다.	진은정	삭제
1506	2024-11-04 23:45	야당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 킹 석열.. 일각에선 야당대통령인지 여당대통인지 헷갈린다는 말도 돈다 진보인 우리보다	.	한지윤	
1507	2024-11-04 23:46	중앙) 이번 수사는 사안의 성격상 윤 대통령 부부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뒷말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탄핵 집회가 이번 달에 두 번이나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겨냥한 사법부 압박용이란 비판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 정국의 혼란은 국회라는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윤 대통령 역시 대국민 해명과 사과, 철저한 인적 쇄신, 영부인 외부활동 자제 등을 포함한 획기적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번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하다. 검찰도 명씨 관련 수사가 늑장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철저한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수사는 사안의 성격상 윤 대통령 부부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뒷말이 없도록 하길	최영옥	
1508	2024-11-04 23:47		.	허수옥	
1509	2024-11-04 23:49	한동훈 지지자들은 1년됐지만 자기는 자유우파를 지킨지 십년째? 서정은이라 이걸 믿하는 사람이죠?	.	한동훈	삭제

1510	2024-11-04 23:50	당선인이 명태균과 공천관련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거 자체가 이미 국민에게 사과할 일입니다. 호미로 막을일 가래로 막지 않으려면 지금 국면에서 대통령이 명태균과의 관계 전모를 밝히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윤석열대통령님, 제발 정신차려야 합니다. 이번에도 정신 못차리고 고집부리면 정말 노답입니다.	명태균發 의혹이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국면이 되었습니다. 김여사 리스크 3대 해법이나 특별감찰관 신속도입만으로 해결될 상황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1. 지금까지는 김건희여사와 명태균의 부적절한 소통과 논란이었지만, 이제 김여사를 넘어 윤대통령에 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김여사가 아닌 윤대통령 육성이 공개되면서 이제 명태균과 윤대통령 사이의 의혹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천개입이 법적처리 되느냐 마느냐로 방어벽을 치는 건 구차합니다. 명태균같은 검증안된 정치꾼과 윤대통령이 공천관련 대화를 주고받은 거 자체가 유구무언입니다. 당장 사과를 해야할 일인데도 당선자 신분이니, 좋은뜻 덕담이니 문제없다고 변명하는 건 정말 없어 보입니다. 2. 지금까지는 명태균과 강혜경의 대화 녹취파일로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이제 명태균과 김여사, 윤대통령과의 대화녹취가 다수 존재함을 부인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앞세운 강혜경의 녹취파일은 제3자가 전해들은 것이라 명태균이 허위로 과장했을 거라고 정치적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명태균이 직접 김여사, 윤대통령과 대화한 게 녹취되어 있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수시로 녹취를 스피커폰으로 들려주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즉 명태균이 부인한다고 덮어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3.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에도 불구하고, 용산과 친윤은 사태의 심각성을 무시한 채 기존과 똑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괴한 변명과 억지 법논리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작편집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여권패널이 창피할 정도입니다. 이러다가 또다른 녹취, 더 결정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이 공개되면 무슨 말로 변명하겠습니까? 명태균발 의혹의 전모는 대통령과 여사만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의 일회용 대통령실 입장문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은정	삭제
1511	2024-11-04 23:50	한동훈 측에서 ‘대통령 내외와 명씨 관련 내용을 알려주면 당에서 적극대응하겠다’고 요청해도 묵묵부답인 대통령실. 뉴스를 보니, 친윤들을 통해 해결해보려고 한다죠? 잘하셨네요. 한남동 십상시와 친윤 무리들이 있는데 뭐가 걱정인가요? 용산부부 일은 저 사람들에게 맡겨놓으시고 당대표는 민생을 챙겨주	한동훈 측에서 ‘대통령 내외와 명씨 관련 내용을 알려주면 당에서 적극대응하겠다’고 요청해도 묵묵부답인 대통령실. 뉴스를 보니, 친윤들을 통해 해결해보려고 한다죠? 잘하셨네요. 한남동 십상시와 친윤 무리들이 있는데 뭐가 걱정인가요? 용산부부 일은 저 사람들에게 맡겨놓으시고 당대표는 민생을 챙겨주시길요	한지윤	

1512	2024-11-04 23:51		.	허수옥	
1513	2024-11-04 23:53	[사설] 尹 직접 사과도 부족,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한 대표의 발언은 새삼스러울 게 없고,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했다. 그는 지난달 21일 윤·한 회동에서도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관련 의혹 규명 협조 등 3대 조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한 대표가 보름 만에 다시 쇄신을 요구한 것이다. 이번엔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추가했고, 인적 쇄신도 이른바 '한남동 라인'뿐 아니라 참모진 전면 개편으로 범위를 넓혔다. 꼭 한 대표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용산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4·10 총선 이후에는 '김건희 리스크'가 다른 이슈들을 모두 집어삼키고 있다.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후 민심은 더 흉흉해졌다. 윤 대통령이 명 씨와 취임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나눈 음성 통화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당선인 신분이 아니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변명으로 무마될 일이 아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10%대로 떨어졌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인 19%를 기록했고, 윤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는 18%까지 떨어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 대통령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2대 국회 개원연설에 이어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불참하면서 '소통'이 아닌 '불통' 이미지만 키웠다.	최영옥	
1514	2024-11-06 21:13	당원지지자 동료시민 여러분 변화와 혁신 합시다	한동훈대표 의 기치아래 세련된 보수우파로 거듭납시다같이가면 길이 됩니다 ^^건튜브 틀튜브 out .say goodbye ~	진형구	
1515	2024-11-06 21:52	틀튜브를 버리니 (부삼금정 금투세) 대승을 했습니다	한대표는 일머리가 있고 일을 할줄 알죠 결과로 나오고 있죠세련되고 정예같은 동료시민으로서 계속같이 가시죠 ^^	진형구	
1516	2024-11-06 22:20	천박함과 무식함 vs 세련됨과 겸손함 그래서 한동훈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	진형구	
1517	2024-11-07 0:05	트럼프 안보보좌관 한대표 글 팔로우하며 "브라보"	콜비 전 부차관보는 지난 7월 SNS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당대표 선거 TV토론회 발언("트럼프가 가진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생각이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거나 큰 위협을 가져오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영상을 공유하고 "브라보" 라고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	진형구	
1518	2024-11-07 13:56	한대표가 간신히 올려놓면 똥뿌리는 대통령 쯔쯔	언제까지 같이가야하나틀튜브에 찌들어 사고가 마비된듯. 국가적 불행임	진형구	
1519	2024-11-07 15:18	한동훈대표는 대통령없다 생각하고 당무 보시길	갱생이 안됩니다 진짜 없다 생각하고 일을봐야 국민지지받을 겁니다 화이팅!	진형구	

1520	2024-11-08 23:21	용산 한대표 면담때 윤석열에 오만정 다떨어짐 당원모독임	사진공개한거보고 또 추빨대 불러들인거보고 진짜 오만정 다떨어짐 감정 못구 북가임수준이 저거밥에 안되는구나 ㅉㅉ	진형구	
1521	2024-11-08 23:28	용산은 가만있으면 선거이김. 나대면 대패임	총선 너무아까움 2월까지 국힘이 이겼음3월에 용산이 다말아먹음 용서가 안됨	진형구	
1522	2024-11-08 23:45	일만하는 한동훈 대표 , 오물만 투척하는 용산 에효	당이 살아나려고 하면 똥을 난사를 함답이없음	진형구	
1523	2024-11-09 0:04	용산한남동은 한대표에 시기질투 그만해라. 속보 그만	총선때 부산인파보고 맛탱이가서 총선일부러 망쳤다는 말들도 돌고있다 이제 스스로들의 무능 비인기를 인정하고 어설픈 속보정치 그만해라한대표가 국민지지받을만한 언행을 하면속보 전나 내보는거 이제 당원들이 다안다 무식이들아 ㅉㅉ	진형구	
1524	2024-11-09 0:20	한대표 전당대회 승리가 정말 개꿀인니다 ㅋㅋㅋㅋㅋ	억울하면 이기지 그랬냐들인기도없는것들이 욕심들은 ㅋ	진형구	
1525	2024-11-09 13:54		.	허수옥	
1526	2024-11-09 14:24	[사설] 김 여사 해외 순방 불참,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을 (조선일보)	대통령실은 이달 중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다자 외교 순방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김 여사의 활동·일정 등을 관리할 제2 부속실을 만들면서 집무실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김 여사가 대통령실로 상시 출근해 활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제2 부속실도 과거 정부의 3분의 1 규모로 해외 정상 부인 접견실만 둘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개인 휴대폰도 없앤다고 했다. 외부인과 잦은 통화와 텔레그램 대화로 구설에 오르거나 논란이 일어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약속한 사항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아내의 처신이 잘못됐다”며 사과했지만 구체적 의혹엔 “침소봉대” “악마화”라고 반박하며 김 여사를 감싼다는 인상을 줬다. 대통령실이 제2 부속실 설치와 김 여사의 순방 불참, 대외 활동 중단, 개인 휴대폰 폐기 등 실질적 조치를 잇따라 내놓는 것은 김 여사 국정 개입에 대한 국민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 여사가 대선 때 “조용히 성찰하며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이라도 지켜야 한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 약속도 조속히 실천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김 여사 명품 가방이나 국정 개입 논란은 막을 수도 있다. 그동안 여야는 관련도 없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을 연계하며 2년 넘게 추천을 미뤄왔다. 그럴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지 않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래도 민주당이 추천을 미룬다면 윤 대통령이 더 적극 나서서 특별감찰관 역할을 할 사람을 자체적으로라도 임명했으면 한다. 그러면 국민 신뢰는 더 높아질 것이다.	최영옥	

1527	2024-11-09 15:25	[사설] 또 역대 최저 지지율, 파격 쇄신 서둘러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17%로 일주일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가 지지율 추락의 주된 원인인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은 미흡했다. 내일이면 윤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가 시작된다. 민심을 깊이 새겨 대통령이 약속한 인적쇄신 등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8일 발표된 11월 1주차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 10월 5주차에서 기록한 19%에서 2%포인트 더 내려가 집권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4주 연속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가 경제·민생과 함께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랐다. 지지율 10%대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운 수준이다. 지지율 하락세에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했으나 성난 민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지만 김 여사 문제 및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구체적 사안은 언급하지 않아 분노를 키웠다. 사과는 했으나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알 수 없었던 기자회견이었다. 야당은 이날 '김 여사 특검법'을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오늘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중요한 건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과의 정면충돌은 피하면서 변화와 쇄신을 주문한 것인데, 대통령실도 이에 화답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달 중순 윤 대통령의 다자 외교 순방에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고, 여사의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겠다고 했다. 잘한 결정이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쇄신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예산 국회가 끝난 후나 해외 순방을 마친 후에는 늦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보통 기한을 넘겨 12월 중순 이후에나 끝난다. 연말까지 인사를 미뤄서는 안 된다. 내일부터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가 시작된다. 심기일전해야 한다. 인적쇄신과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 등 국민께 약속한 것을 속히 마무리하고, 후반기 국정 운영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윤 정부의 4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 완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발 불확실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할 일이 많다. 이제 임기 반환점을 맞는 대통령이 레임덕이 되면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이다. 파격적이고 신속한 쇄신을 서둘러야 한다. Copyright ⓒ 국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최영옥	

1528	2024-11-09 15:31	[강찬호의 시선] 국민 품에 안긴 '육영수 특활비 장부'의 뜻은...장부에 따르면 육 여사는 매일 40여 통씩 오는 민원 편지를 바탕으로 기아나 질병에 시달리는 빈민·나환자나 학비가 부족한 학생 등에게 수천~수만원씩 지급했다. 김 비서관은 "육 여사는 대통령에게 받은 특활비를 1원도 빠짐없이 이런 공적 용도로만 썼고, 본인과 가족의 사적 비용은 대통령이 주는 월급에서 썼다"고 했다. 육 여사는 대통령이 매달 20	.	한동훈	삭제
1529	2024-11-09 16:50		.	허수옥	
1530	2024-11-09 17:14	尹 지지율 17%로 또 최저치… 특단의 처방 서둘러 내놔야 [논설실의 관점] 윤 대통령이 국민 마음을 되돌리려면 동원 가능한 모든 쇄신 조치들을 신속히 실행하는 수밖에 없다. 회견 첫 후속조치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다음 해외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고무적이다. 김 여사는 연말까지 국내활동도 전혀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부부의 '개인 폰'을 없애기로 한 것도 만시지탄이지만	.	한동훈	삭제
1531	2024-11-09 17:24	한동훈 "이재명 총동원령으로 '판사 겁박 무력 시위' 벌어져…누가봐도 민주당·민노총·촛불행동 '원팀' 시위"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078128?cds=news_media_pc	최영옥	

1532	2024-11-09 17:28	[단독]'육영수 특활비 장부' 국민에 공개…"1원도 사적으로 안썼다"	8월7일자 중앙일보 보도로 공개된 '육영수 특활비 경리 장부'가 국민 앞에 영구히 전시돼 교육자료로 쓰이게 된다. 1971년부터 3년간 대통령실 제2부속실에서 육 여사를 수행한 김두영 전 청와대 비서관은 육 여사가 매달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20만원으로 빈민과 약자를 도운 내역을 꼼꼼히 기록한 장부를 "10월 8일 서울 상암동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기증한다"고 25일 중앙일보에 밝혔다. 장부에 따르면 육 여사는 매일 40여통씩 오는 민원 편지를 바탕으로 기아나 질병에 시달리는 빈민·나환자나 학비가 부족한 학생 등에게 수천원~수만 원씩 지급했다. 김 비서관은 "육 여사는 대통령에게 받은 특활비를 1원도 빠짐없이 이런 공적 용도로만 썼고, 본인과 가족의 사적 비용은 대통령이 주는 월급에서 썼다"고 했다. 육 여사는 대통령이 매달 2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 즉각 김 비서관에 넘겼고, 김 비서관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보관하면서 매일 육 여사 지시에 따라 약자·빈자를 찾아가 돈을 지급했는데 반드시 '헌돈'을 줬다고 한다. 띠지 묶인 빳빳한 신권(관봉권)을 주면 받는 이가 부담을 느낄까 봐 배려했다는 것이다. 김 비서관은" 삭아 빠진 대학 노트 한권에 기록된 장부가 중앙일보에 공개되자 언론이 앞다퉈 보도하고, 수많은 감사 전화를 받아 깜짝 놀랐다. 장부가 육 여사의 진실한 면모를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일 것이다. (장부를 기증하면) 특히 육 여사를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한동훈	삭제
1533	2024-11-09 22:4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2회 차 주말 장외집회를 여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상식적인 시민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 동참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범죄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 선고를 6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총동원령에 따라 오늘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벌어진다고 한다"며 "(판	허수옥	
1534	2024-11-10 11:48	한동훈 “이재명 무죄라면 판사겁박 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해야”	.	안동훈	삭제
1535	2024-11-10 11:55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다음 날인 지난 8일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면서 약속의 '실천'을 강조했다.	허수옥	
1536	2024-11-10 13:37	여, 특별감찰관 의총 14일 개최…표결 없이 합의 가능성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1110006400641?input=1825m	최영옥	

1537	2024-11-10 13:50		[서울경제]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5~7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때보다 2%포인트 떨어진 1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19%)' '경제·민생·물가(11%)' '소통 미흡(9%)'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7일 진행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 대한 반응도 일부 포함됐으나 갤럽 측은 "기자회견 등에 대한 반향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지지율이 더 하락한 것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및 국정 쇄신 의지가 국민의 기대에 미	허수옥	
1538	2024-11-10 19:45	與, 14일 의총…北인권재단과 분리한 특별감찰관 속도	여권 내 엇갈린 입장차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거치며 해소됐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국회에서 (특감) 추천이 오면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는 없다.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며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함께) 임명하느냐 마느냐는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정한 방향을 잡아서 후보 추천을 하면 그중의 한 사람을 제가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발언에 대해 "특감에 대한 조건 없는 수용"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도 "윤 대통령께서 한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수락한 것"이라고 했	최영옥	

1539	2024-11-10 19:54	[데일리안 대구 = 김민석 기자] 73.90%. 247만8810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얻은 득표율과 득표수다. 22.76%(76만3416표)를 얻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의 격차는 51.14%p·171만5394표였다. 말 그대로 TK는 윤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준 것이다.	23%.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100%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해 발표한 TK의 윤 대통령 지지율이다. 이마저도 직전 조사 대비 5%p 올라서 20%대를 회복한 것이다. 지난달 29~31일 같은 기관이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했을 때 TK에서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18%에 불과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수치상으로도 임기반환점을 앞둔 윤 대통령을 향한 대구·경북의 눈길은 지속해서 싸늘해지고 있다. 75%에 가까운 지지를 보냈던 TK가 2년 6개월 만에 윤 대통령에게 실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남은 25%의 TK 주민들은 윤 대통령이 남은 2년 6개월 동안 무엇을 해서 국정운영을 바로잡아주길 바라는 것일까. ◇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문제" TK 주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가장 아쉬워했던 부분은 '불통(不通)' 이었다. 그것이 정책이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든, 여야 협치와 관련한 정치적인 부분이든 윤 대통령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TK 주민들의 평가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35·여)씨는 "윤 대통령이 똥고집을 왜 이렇게 부리는지 모르겠다. 옆에 있는 참모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윤 대통령 스스로도 뭔가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진짜 지금 '개혁이 필요하니까 이 정도의 희생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밀고 나가는 것 같은데, 경상도 사람들이 불통이라 싫어했던 이재명을 피해서 그나마 윤 대통령을 뽑았는데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사는 강모(60·여)씨도 "윤 대통령은 대구 사람도 이제 다 싫어한다. 김건희는 아예 입에도 올리지 않는다"며 "정책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관련된 부분도 전문가 같아서 뽑아줬더니 다 급속으로 뭔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돌 맞으면서도 잘 나아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내려놓는 것 말고 뭘하겠느냐. 이젠 그냥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생각 뿐"라고 한탄했다.	진은정	삭제

1540	2024-11-10 20:06	[단독]'육영수 특활비 장부' 국민에 공개…"1원도 사적으로 안썼다"	8월7일자 중앙일보 보도로 공개된 '육영수 특활비 경리 장부'가 국민 앞에 영구히 전시돼 교육자료로 쓰이게 된다. 1971년부터 3년간 대통령실 제2부속실에서 육 여사를 수행한 김두영 전 청와대 비서관은 육 여사가 매달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20만원으로 빈민과 약자를 도운 내역을 꼼꼼히 기록한 장부를 "10월 8일 서울 상암동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기증한다"고 25일 중앙일보에 밝혔다. 장부에 따르면 육 여사는 매일 40여통씩 오는 민원 편지를 바탕으로 기아나 질병에 시달리는 빈민·나환자나 학비가 부족한 학생 등에게 수천원~수만 원씩 지급했다. 김 비서관은 "육 여사는 대통령에게 받은 특활비를 1원도 빠짐없이 이런 공적 용도로만 썼고, 본인과 가족의 사적 비용은 대통령이 주는 월급에서 썼다"고 했다. 육 여사는 대통령이 매달 2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 즉각 김 비서관에 넘겼고, 김 비서관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보관하면서 매일 육 여사 지시에 따라 약자·빈자를 찾아가 돈을 지급했는데 반드시 '헌돈'을 줬다고 한다. 띠지 묶인 빳빳한 신권(관봉권)을 주면 받는 이가 부담을 느낄까 봐 배려했다는 것이다. 김 비서관은" 삭아 빠진 대학 노트 한권에 기록된 장부가 중앙일보에 공개되자 언론이 앞다퉈 보도하고, 수많은 감사 전화를 받아 깜짝 놀랐다. 장부가 육 여사의 진실한 면모를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일 것이다. (장부를 기증하면) 특히 육 여사를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진은정	삭제
1541	2024-11-10 21:14		명 씨 해명을 듣고 문제 없다고 느끼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싶다. 대체 어떤 국민이 대통령 부부에게 국회의원을 공천해달라고 소개할 수 있나. 명 씨는 보통 국민이 이를 추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듯하다. 명 씨의 해명에는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다. 명 씨는 지난 9월 21일 올린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는 김 전 의원에게 빌려준 돈이 6000만 원이라고 밝혔다가 이번 검찰 조사 후 기자들에게는 9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말을 바꿨다. 명 씨는 또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자신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만 다투면 된다는 식이다. 대선 당시 여론조사 등 공직선거법과 뇌물 제공 부분 등은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미리 선을 그은 것이다. 그동안 명 씨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은 검찰이 수사로 밝혀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 행태를 보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선관위로부터 관련 사항을 수사의뢰 받았음에도 이제서야 명 씨를 소환조사하는 등 늑장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처음에는 검사가 아닌 수사관이 담당하는 수사과에 이 사건을 맡겼다가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뒤늦게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어 검사를 10명 이상으로 보강하고, 부산지검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 급으로 격상했다. 검찰은 명 씨에 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번에도 봐주기 우려가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검사의 정당성만 보장해 주는 꼴	허수옥	

1542	2024-11-10 22:26	[박상준 칼럼]성공한 리더의 마지막 실패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1108/130392942/2	**최영옥**	
1543	2024-11-11 1:59	한동훈의 선택 "보수결집" 진정한 보수우파	좀 배워라 윤건희야 틀튜브 앞세워 랄지 랄지 하지말고 ㅋ	진형구	
1544	2024-11-11 2:34	중앙일보 최훈 "시간은 한동훈 편"	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진형구	
1545	2024-11-11 13:15	일은 한동훈이 다하네. 용산은 틀튜브나 쳐보고 쯔		진형구	
1546	2024-11-11 23:45	한동훈 당대표와 같은 이름의 책임당원들은 모두 게시판 댓글 관련하여 당무감사를 철저히 조사를 요구해야한다.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한다		진형구	
1547	2024-11-12 0:35	7월 한동훈 당대표당선. 8월 김경수 사면복권	이게 우연일까 왜 김경수를 사면복권 했을까	진형구	
1548	2024-11-12 0:39	선거이기고 재집권하려면 한동훈으로 가는건 상식이죠	그걸모르거나 애써 외면하는 부류는 보수우파가 아니죠상식입니다	진형구	
1549	2024-11-12 15:51	당에 필요한사람. 한동훈 vs 김건희	한동훈 대표가 필요하다는분은 추천을 눌러주세요 ㅋ	진형구	
1550	2024-11-12 16:11	한동훈은 당장 대표직에서 내려와라. 국힘 국개들 뭐하고 있나. 이렇게 파렴치한 자를 당대표로 가야하는지 한심한 국개들		진형구	
1551	2024-11-13 15:23	돼'지 돼,지 돼,지 꿀돼,지 pig pig 꿐pig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아 웃겨서	진형구	
1552	2024-11-13 15:31	한대표 지지자들 입을막으려고? 인기없는거 노구탈을해 ㅋㅋㅋ	한대표 처럼 잘해봐 그럼지지해주지음습한 짓거리나 시키니 인기가 이모양이지 ㅋ	진형구	
1553	2024-11-13 15:49	용산 한남동 친윤들 하는짓이 대깨문 놀한 스럽지않나요	최고존엄 비판도 하지말라는욕먹을짓을 안하면되	진형구	
1554	2024-11-14 0:11	편을 들어줄수가없어 김건희는. 이번엔 돈봉투 터졌네	도대체 이걸 어떡해 편을드나 먼짓을해도 편들어줘? 당 망하는데? 막좀해봐 틀튜브나 건딱들	진형구	
1555	2024-11-15 16:07	이제 뭉칩시다	이재명 나락 가는건 예약된것이고 이제 선거승리와 정권재창출을 위해 뭉칩시다 !	진형구	
1556	2024-11-15 16:19	한동훈대표되고 좋은일만 생기네요 너무 기쁘네요	good day ~	진형구	
1557	2024-11-16 1:38	한대표 법무장관때 이재명 선거법 위증교사 대북송금 기소	할일다하고 오신거네요	진형구	
1558	2024-11-16 12:42	검수완박을 시행령으로 깬 한동훈 법무장관의 완전승리	대단하죠 진짜	진형구	

1559	2024-11-17 10:54	검수완박 시행령으로 나라 구한 햔동훈	그때 시행령으로 검찰수사권 유지못했으면지금의 영광은 없었죠 나라 구한 겁니다	진형구	
1560	2024-11-17 11:08	윤부부는 사고치고 수습은 한대표가 다하고 너무안스러	진짜 한대표 없으면 어쩔뻔 했나	진형구	
1561	2024-11-17 11:33	윤딸 건딸 들은 입에 욕짓거리 상소리를 달고사나요	틀튜브에 쩔어서 그런가요 욕하는것만 보니까자기생각이 없나봐	진형구	
1562	2024-11-18 13:39	(틀튜브 김건희당) 만들어서 끄져라 구역질난다	이제 같이가기싫다 밥맛없어	진형구	
1563	2024-11-18 13:54	작금의 김건희 윤석열 비판하는건 건강하고 당연한 겁니다	이게제대루된 당원입니다 하루가 멀타하고 터져나오는 김건희 딘독기사들 보십쇼 보호한다고? 우리가 민주당입니까 아니죠 우린 보수우파죠	진형구	
1564	2024-11-18 14:06	김건희고모 + 틀튜브 = 특별수사 OK	저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진형구	
1565	2024-11-19 17:55	강기훈이 당게시반 논란 실무담당자 라고? 이런 미친	이거머야 천하람한테 제보들어왔다며	진형구	
1566	2024-11-19 18:01	강기훈은 김건희 직속 그리고 일부 친윤들 입놀린거 운연익까	난 다 알고있었다고 보여짐	진형구	
1567	2024-11-19 19:03	강기훈이 권성동 보좌관출신이에요? 헉 이네 진짜	진짜 이것들 안되겠네	진형구	
1568	2024-11-21 9:03	이렇게된거 김건희 특검 해야것네 그럼 친윤싹다 잡을수있지	선택을해야지 지들이 죽겠다고 달려드는데	진형구	
1569	2024-11-21 9:13	민주당이랑 싸우는건 다 친한임. 친윤 들은 밖그루싸움만할 드러움	너무 역겨움	진형구	
1570	2024-11-21 9:28	친윤 김건희 엮있는게 한둘이 아니라 틀검발으면 싹 정리됨	그게 최고임	진형구	
1571	2024-11-23 22:42	대통령이든 영부이든 욕먹을짓했으면 욕하는거지 먼 공산당이냐	최고존엄이야? 말마다 자유민주주의 달고살연서 ㅋ 웃기지도 않네	진형구	
1572	2024-11-23 22:48	정상적으론 당권력을 못잡으니 공작하는거지 근데 다 걸려 ㅋ	걸리지나 말든가 등1신들이 ㅋㅋㅋ	진형구	
1573	2024-11-23 23:14	친윤것들은 일도못하고 토론도 못하고 야무진건 다 친한쪽임	반박가능합니까? 제말이 맞죠	진형구	
1574	2024-11-24 0:33	손바닥에 王자 쓰고 나와도 윤석열 찍고 지지했다 그런데	한대표 비대위원장때부터 저 부부 하는짓을보고 도저히 지지할수가 없다 대통령이 아닌 왕노릇하고 싶었나보다이젠 한대표만 보고간다 이길수있는사람 인한는사람같이같스인는 사람은 한대표 뿐이니까	진형구	
1575	2024-11-24 21:30	손바닥에 王자 쓴사람 찍어주고 지지해주었더니 돌아온건	당원들이 선택한 당대표를 권력을 총동원해 죽이려한다그것도 모자라 그 당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을 검열해서당대표 내쫓는 무기로 삼으려한다대통령부부의 온갖 추문에도 지지해준 댓가가 이렇게 돌아왔다이젠 버리기로 한다 그보다 훨씬더 흉물한 사람이 있기때문이다	진형구	

1576	2024-11-26 10:03	명태균특검은 검토하시길 당지지율이 오르질않아요 용산친윤때문에	한대표는 관련없기때문에 명태균건은 검토해보시길	진형구	
1577	2024-11-26 13:56	윤석열 친윤 탈당해서 창당할수도 있답니다	제발 그래라 좀꺼져라 똥들아	진형구	
1578	2024-11-26 14:11	한동훈 " 정치의 시작과 끝을 국민의힘에서 할것입니다"	캬 얼마나 멋집니까 윤머시기처럼 툭하면 탈당한다 어쩐다 안하고	진형구	
1579	2024-11-27 0:24	명태균 특검하면 용산 한남동 친윤 이준석 한방에 보낵텐데	한대표는 생각해보시길	진형구	
1580	2024-11-27 0:34	한동훈 대통령 생각만해도 기분좋네	차라리 지금 대통령이었으면 당도 살고 나라도 살고 할텐데지금 대통은 당도 죽이고 나라도 죽이고 있구나	진형구	
1581	2024-11-27 14:16	한동훈표 전사순직 軍 처우개선법 법안소위 통과 !!!	진짜 보수우파가 누구냐 일하는 한동훈이다 친윤 구태들아	진형구	
1582	2024-11-28 18:15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부정하는 용산은 당을 부정하는거죠	그럼 지키거나 같이갈 필요가없죠 안그런가요	진형구	
1583	2024-11-29 17:28	국정감사봐도 친윤얘들은 너무 무능해 잘하는 얘들은 다 친한임	무능한것들이 권력욕심은 겁나 많아	진형구	
1584	2024-11-29 19:22	용산 친윤 없으면 당 지지율 50% 가능할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진형구	
1585	2024-11-30 14:00	김건희 고모 유튜브 커넥션 이것도 들여다보고 수사합시다	진짜 개판이라 해야합니다	진형구	
1586	2024-11-30 14:35	보수만찍은 당원으로서 김건희특검 찬성합니다	한번 정리하고는 가야됩니다놔두면 가만있는게 아니고 끊임없이 망동을 해댑니다더 중요한건 이미지가 워낙안좋아 안고가면 선거 전패 불보듯 뻔하죠정리합시다	진형구	
1587	2024-12-03 13:36	김건희 고모에 이모에 추경호 20억에. 진절머리 난다. 한대표 아니였음 진작에 버릴당이다		진형구	
1588	2024-12-04 12:23	버티면 당대표 직권으로 출당시켜야됨. 나라말아먹을 인간임		진형구	
1589	2024-12-04 12:29	미친 윤건희가 당과 나라를 갖다 바치는구나	미친 종자들	진형구	
1590	2024-12-04 12:34	윤석열이 미친짓해서 이재명 재판도 물건너갔음. 도대체 왜 이런 미친짓을 할것지 이해가 안됨		진형구	
1591	2024-12-05 0:45	냉정하게 보면 윤석열이 민주당에 판을 깔아준거임	머 종북척결 국가수호 다 개소리임이렇게 될거 알고 판깔아준거임 그게 아니고선 설명이 안됨	진형구	
1592	2024-12-05 1:48	미스테리. 윤은 왜 민주당에 판을깔아줬을까. 안되는거 알면서	지령 또는 오더 받아 액션했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이 사태의 최고 수혜자는 이재명이다반발 가능한가	진형구	
1593	2024-12-05 2:12	왜 미친짓까지 하면서 이재명을 살려주고 띄워줬을까	부부 안위에 대해 거래를 한것일까그거말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됨	진형구	

1594	2024-12-06 17:39	이재명 곧 선거법으로 가는데 윤석열은 왜 미친짓을 한걱까	이게 미스터리임 진짜 이해가 안됨	진형구	
1595	2024-12-06 18:00	총선때도 의료대란 대파소동 이종섭출국 으로 막아멀더니	얼마나 당을 망쳐먹는지 눈뜨고 봐줄수가 없음	진형구	
1596	2024-12-07 8:58	본회의장 진두지휘 한동훈. 당사 짱박힌 추경호. 누가 리더인가	위급상황에서 진가가 나온다 한동훈만 보고간다	진형구	
1597	2024-12-07 9:35	배신자는 윤석열이 배신자지. 이렇게 망쳐놓나. 지 마누라 땜에	정상적인 뇌구조가 아닌거 같음	진형구	
1598	2024-12-07 21:59	이제 국힘은 한동훈 원톱체제로 가야 위기를 극복한니다	오로지 믿고 의지할것은 한동훈 대표 뿐입니다	진형구	
1599	2024-12-08 0:09	한동훈은 자기를 체포하려던 윤석열을 용서했을. 이건 쉰지않을	나같으면 탄핵시켰을 겁니다 이제 당과 정부는 한동훈 중심으로 갑시다	진형구	
1600	2024-12-10 17:00	김명신이 한동훈쫓아내려 전화돌리고있댜	이현종이 그랬음	진형구	
1601	2024-12-11 6:44	곧 조국 내년 찢 다 구속인데. 왜 계엄 미친짓을 한걱까. 윤무식이	지금 보수 기반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윤석열 이새끼는 왜 미친짓을 한걸까앞으로 6개월이면 민주당 정리되는데도대체 이해가안되 이 미친새끼	진형구	
1602	2024-12-11 7:41	이번사태 제일 큰 수혜자는 이재명이야	윤건희가 이재명한테 큰 선물을 준 꼴이야왜그랬을거 같습니까	진형구	
1603	2024-12-12 22:03	윤건희 출당시키고 당 정상화 합시다 go go ~~~ 한대표 화이팅		진형구	
1604	2024-12-12 22:10	틀튜브 특검한다는 말있네요 제대로 하길 바랍니다 ^^	이기회에 코인빠는 쓰레기들 다 정리합시다	진형구	
1605	2024-12-12 22:18	진정한 보수우파 한동훈 그는 외롭지않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진짜 보수우파 한동훈이재명 첩자 윤석열	진형구	
1606	2024-12-13 1:48	배신자 윤건희 출당 go go~~ 하루라도 빨리 내보자. 냄새난다	당원 지지자를 배신한 저 진상부부를 빨리 내보냅시다 구역질이 납니다	진형구	
1607	2024-12-13 2:47	총선말아먹고 당말아먹고 나라말아먹고. 윤건희 정리합시다	두눈뜨고 못봐주겄네요 천박해도 너무 천박합니다 두 잡것이	진형구	
1608	2024-12-13 21:23	군.경 부하들은 체포되고 구속되는데 혼자 살겠다고 에효	도대체 국가 엘리트들 몇명의 인생을 망쳐놨는가또 그들의 가족들은 이땅에서 어찌 살려고 하는가만약 반전의 카드가 없다면 두부부는 결단하기 바란다	진형구	
1609	2024-12-14 4:26	틀튜브 신도들은 꺼지고 정상사고 당원만 필요합니다	갸들은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합니다	진형구	
1610	2024-12-14 7:05	이재명에 다 갖다바친 윤석열 김건희	용서할수없다	진형구	
1611	2024-12-14 7:17	천벌..... 거짓말 .....국가도륙.....보수괴멸 .....위정자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천벌이 기다리고 있다	진형구	

1612	2024-12-16 12:39	전광훈 비대위로갑시다. 제대루 막아멀어 봅시다. 틀극의힘	개판쳐 봅시다	진형구	
1613	2024-12-16 12:45	윤석열 구속되면 잔치국수. 탄핵확정되도 잔치국수. 한대표 지지자분 탈당하지 마세요. 구경거리가 차고 넘칩니다. 그거다 다 보고 탈당해도	틀극의힘	진형구	
1614	2024-12-16 12:53	윤석열은 자진출두해서 조사받아라. 도망가지말고 검보놀아	지가 한말도 못지키는게 무슨	진형구	
1615	2024-12-18 19:14	정상적인 방법으론 당권을 못잡으니 개G랄을 떠는구나 개친윤들	면상 하나하나를 봐도 구역질이 나는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그외 똘마니들 열한다	진형구	
1616	2024-12-18 19:23	정치무관심 마누라가 한동훈 창당하면 가입한단다. 그러면서 나보고	여기 빨리 탈당하라고 난리다 쉰내나고 역겹다고	진형구	
1617	2024-12-18 19:51	친윤 얘들 진짜 무능하네. 중진 이라면서 일머리가 전혀없네	한대표랑 너무 비교되네 저능아들	진형구	
1618	2024-12-19 1:56	계엄은 김건희특검과 한대표에 대한 증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입법 폭주는 2년 반 내내 '상수'였는데 굳이 이걸 문제 삼아 계엄이란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었냐는 의문이 많다. 여권 인사들은 "이재명·민주당에 대한 분노도 분노지만, 한동훈에 대한 증오가 계엄의 진짜 배경 같다"는 얘기를 한다. 다선 경력 전 의원의 말이다. "용산이 한동훈 뒷조사 안 해 봤겠나. 털어봤지만 딱히 나오는 건 없고…. 그런 마당에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윤 대통령이 '극노' 했다고 한다. 한동훈 미워 죽겠는데 법으로는 처단 안 되니까 군을 동원해 도륙 내려 한 것 아닐까. 계엄군 체포 리스트에 여당 정치인은 한동훈 한 명뿐인 점도 그렇고….오늘자 중앙일보 칼럼중	진형구	
1619	2024-12-19 2:22	비대위원장 원하는 중진많아. 교통정리가 안되. 미친것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7407?sid=100기사한번 보십쇼 탈욕적인 것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진형구	
1620	2024-12-24 14:32	한대표를 사살 제거하는거 미리 알고있는 국힘의원 누군지 색출합시다	계엄과 한대표 사살 계획을 알고 있었던 의원들이 있다합니다	진형구	
1621	2024-12-24 14:41	트럼프, 한동훈 극찬한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임명	한동훈 당대표 토론 영상을 퍼가 브라보라 극찬한 엘리브지 콜비가 미 국방부 정책차관에 임명됐다 합니다 !!!트럼프가 행정부와 같이 갈이가려면 한동훈이 필요합니다	진형구	
1622	2024-12-24 15:25	다죽은 민주당 이재명을 살려준 윤석열 절대 용서못함	한번의 미친짓이 다죽은 민주당과 이재명을 살려줬음진짜 미친놈임	진형구	

1623	2025-04-11 0:07	정치모르는 사람인데 가입했습니다	부끄럽지만 태어나서 선거투표해본적 없는 30대입니다계엄과 탄핵 조기대선너무나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것 같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결과.. 앞으로 태어날 내 아이는 이재명의 나라에서 태어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주변에서 은근히 정치얘기할때마다 중립적인 말로 회피했는데한동훈 후보자 연설을 보고 마음을 정했습니다오늘부터 한동훈 후	진형구	
1624	2025-04-12 9:07	대한민국 대한동훈	선조와 이순신장군이 환생한것같습니다.어쩜이리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 참 신기하네요.앞으로도 온갖 권모술수로 물어뜯으려 하겠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한동훈만이 이길수있는 선택입니다	진형구	
1625	2025-04-13 8:38	한동훈 행보가 심상치않네요!	한동훈이 이길것같습니다!!	진형구	
1626	2025-04-15 22:08	국회의원 밥그릇싸움에 놀아나는 동지여러분들 안타깝네요	의원들 이해관계과 눈치작전. 이른바 밥그릇싸움에 이랬다저랬다 놀아나는게 안부끄럽습니까?우리의 관심과 공동목표는 이재명은 안된다는겁니다한동훈만이 경쟁력 있다는건 다들 아시잖아요?지밥그릇 챙기는데 동조하셔서 얻는게 무엇인가요.우리당원은 우리살길 찾아야합니다	진형구	
1627	2025-04-16 23:40	유능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후보에게 몰아줍시다	아무도 도와주지않는 상황에 홀로 고군분투하고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실어줍시다.나라를 이재명민주당으로부터 지키고 나아가 경제성장에 따르는 중산층의 부흥.이것이야말로 지금의 양극화된 분열상태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입니다우리 보수의 전략적이고도 합리적인 선택을 요구합니다	진형구	
1628	2025-04-18 2:02	신당? 진짜 분탕이 누군줄알겠죠. 한심한 인간들	저런걸 지지하고 뽑아줬으니 유튜브에 영혼판 가엾은 인간궁상들 정신차리쇼들	진형구	
1629	2025-04-18 7:31	냉정히 서울 부산 충청도에서 .. 이길가능성 한동훈밖에 없음	여기 이겨야 대선 이김	진형구	
1630	2025-04-21 23:54	군대 현역근무는 한동훈 뿐이구만	공군 대위제대	진형구	
1631	2025-04-27 15:03	쭉 지켜보니 역시 한동훈이 적격이네요.	내란프레임에서 유일하게 자유롭다는 명분토론에서 보여준 준비성과 AI와 같은 미래산업에 대한 지식 중도확장가능성무엇보다 본선에서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다른후보들로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한동훈 지지합니다	진형구	